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불사조 기사단

제5회
IV

조한·K·풀링 | 최현자 옮김

문학수첩

LIBRO

제 1장 디멘터의 공격을 받은 두들리

울 여름 들어 가장 무더웠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프리벳가에 있는 커다랗고 네모난 집들은 나른한 정적에 훔싸여 있었다. 평소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던 자동차들도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채, 차고 안에 처박혀 있었다. 한때는 에메랄드빛으로 파릇파릇하던 잔디밭도 누렇게 타들어 갔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잔디밭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세차와 잔디 깍기 같은 일상적인 일을 못하게 되자 프리벳가의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진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였지만 혹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불러들일까 싶어 집집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지금 집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명 4 번지 집 앞의 화단에 벌렁 드러누워 있는 십대 소년뿐이었다.

검은 머리에 빼빼 마르고 안경을 쓴 그 소년은 갑자기 훌쩍 커 버린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수척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가 입은 청바지는 군데군데 찢어지고 지저분했으며 티셔츠는 축 늘어지고 색이 바랬다. 신고 있는 운동화는 밀창이 거의 떨어져 나갔다. 해리 포터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는 이웃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추레하고 꾀죄죄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엔 커다란 수국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다만 버논 이모부나 페트니아 이모가 거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밑에 있는 화단을 곧장 내려다봐야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해리는 아쉬운 대로 이곳에 숨기로 한 것은 썩 괜찮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했다. 물론 딱딱하고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있는 것이 편안할 리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를 무섭게 노려보거나 뉴스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를 갈거나 심술궂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거실에 앉아서 이모, 이모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려고 할 때면 번번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바로 그때 그의 생각이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리 해리의 이모부인 버논 더즐리가 입을 열었다.

"그 녀석이 더 이상 얼쩡거리지 않으니 좋군 그런데 어디간 거지?"

"모르죠" 페트니아 이모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집안에는 없어요"

버논 이모부가 가소로운 듯이 빙정거렸다.

"뉴스를 보고 싶다고? 도대체 그 녀석 꿩꿍이가 뭔지 궁금하단 말이야. 보통 사내아이들이 누가 뉴스 따위에 관심을 가지지? 우리 두들리만 해도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통 모르잖아. 아마 지금 수상이 누군지도 모를걸?"

게다가 그 마법사 무리에 대한 소식이 우리 뉴스에 나올 리도 없을텐데....."

"버논, 쉬잇!" 페트니아 이모가 주의를 주었다. "창문이 열려 있어요!"

"아참... 그렇지 미안하오"

더즐리 부부는 곧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해리는 아침 식사용 시리얼인 '프룻 앤 브랜'의 광고 소리를 들으며 근처 위스테리아가에서부터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는

피그 할머니를 지켜 보았다.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고 살짝 정신이 나간 이 할머니는 혼자 인상을 찌푸리며 연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수국 뒤에

숨어 있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부터 피그 할머니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꾸 그에게 차나 한잔 마시러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막 사라지려고 할 때 버논 이모부의 목소리가 다시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두들리는 차를 마시러 나갔나?"

"풀키스네 집에 갔어요."

페트니아 이모는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두들리는 정말이지 친구들도 많아요. 어쩜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해리는 코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자기 아들인 두들리에

대해서라면 더즐리 부부는 놀라운 정도로 맹목적이었다.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매일 밤마다 매번 다른 친구네 집에 차를 마시러 간다는 두들리의 어설픈 거짓말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리는 두들리가 차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두들리와 그 패거리들은 저녁마다 공원을 떼지어 돌아다니며 으슥한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지나가는 자동차와 아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곤 했다. 해리는 저녁에 리틀 위닝 근처를 산책하다가 종종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며 신문을 찾아 길가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는 것이 방학 동안 해리의 주요 일과였던 것이다. 일곱 시를 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해리는 뱃속이 울렁거렸다 어쩌면 오늘 밤이 한 달 동안이나 초조하게 기다려 온 바로 그날인지도 모른다.

"화물 관리 스페인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 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엄청난 숫자의 휴가철 행락객들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저런 녀석들은 평생 낮잠이나 자라고 해."

뉴스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자 버논 이모부가 한마디 내뱉었다. 하지만 이모부가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창 밖의 화단에 누워 있던 해리는 오그라들었던 위장이 펴지는 것 같았다.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첫 번째로 뉴스에 보도되었을 것이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휴가철 행락객보다는 죽음이나 파괴 쪽이 훨씬 더 중요한 뉴스거리였을 테니까 말이다. 해리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올여름은 늘 똑같은 하루가 되풀이 되었다. 긴장과 기대, 일시적인 안도, 또 다시

아침이 되면 찾아오는 긴장감, 그리고 언제나 점점 커지는 의문, 왜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해리는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머글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작은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원인 모를 실종이라든가 이상한 사건들 같은... 하지만 화물 관리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 다음에는 남동부 지방의 가뭄 소식이 이어졌다. ('옆집 사람이 이 뉴스를 꼭 들었어야 하는데!' 버논 이모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자는 새벽 세 시에 몰래 스프링클러를 돌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 한대가 서리의 한 평야에 거의 추락할 뻔했다는 소식과 유명한 여배우가 역시 유명 인사인 남편과 헤어졌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뭐 이런 지저분한 일에 관심 있는 줄 아는 모양이지?' 페트루니아 이모가 콧방귀를 꾸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구할 수 있는 잡지란 잡지는 다 뒤져서 그에 관한 기사를 살살이 읽은 뒤였다)

해리는 불타는 듯한 저녁 하늘에 그만 눈을 감아 버렸다. 그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잉꼬 번지가 올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반슬리의 파이브 페더즈에 살고 있는 번지는 수상 스키를 배우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메리 도킨스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해리는 다시 눈을 떴다. 수상 스키를 타는 잉꼬 소식까지 나왔다면 이젠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몸을 일으킨 다음 옆드린 채 무릎과 팔꿈치로 창문 밑을 기어서 지나갈 자세를 취했다. 무리가 약 5센티미터쯤 전진했을 때, 몇 가지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연달아 벌어졌다. 텅 하고 한 발의 총소리 같은 요란한 소음이 나른한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더니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세워 놓은 자동차 밑에서 달려 나와 순식간에 사라졌다. 뒤이어 더즐리 부부의 거실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날카롭고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해리는 마치 이 소리가 줄곧 기다렸던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칼집에서 칼을 뽑듯이 청바지 허리춤에서 나무로 된 가는 요술지팡이를 쑥 뽑아 들었다. 하지만 해리가 미처 몸을 다 일으키기도 전에 열려 있던 창문에 쾅 하고 정수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 요란한 소리를 듣자, 페투니아 이모는 더욱 큰 비명을 질렀다
해리는 머리가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눈물을 줄줄 흘리며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이 요란한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거리를 살펴보려고
애를 썼다. 해리가 휙휙거리는 몸을 똑바로 일으키려고 할 때 열린 창문 밖으로
커다란 보라색 손 두 개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해리의 목을 꽉 조였다.

"당장 그 막대기를 치우지 못해!" 버논 이모부가 그의 귀에 대고 악을 썼다.

"지금 당장! 누가 보기전에!"

"날 놔 줘요!"

해리가 입을 딱 벌리고 혁혁거렸다. 잠깐 동안 그들은 버둥거리며 몸싸움을
벌였다 해리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 왼손으로는 소시지 같은
이모부의 손가락을 떼어 내려고 애를 썼다. 바로 그때 창문에 부딪힌 머리
꼭대기가 유난히 날카롭게 쑤시더니 버논 이모부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아 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해리에게 훌러나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 같았다.

해리는 숨을 헐떡이며 수국 덤불 위로 퍽 쓰러졌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토록 요란한 소리를 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웃집 사람들 여럿 명이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해리는 황급히 지팡이를 바지 속에 쑤셔 넣고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

"멋진 저녁이죠!"

버논 이모부가 맞은편 7번지에 사는 부인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녀는
망사

커튼 뒤에서 열심히 밖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다.

"방금 자동차 엔진이 역화하는 소리 들으셨죠? 페투니아와 저도 그 소리에
기겁을 했답니다.!"

버논 이모부는 호기심에 가득 찬 이웃 사람들이 창문에서 모습을 감출 때까지
정신병자 같은 무시무시한 미소를 계속 짓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 미소는
분노에 찬 징그림으로 변했다 버논 이모부는 손짓으로 해리를 불렀다.

해리는 버논 이모부가 언제 다시 손을 뻗어 목을 조를지 몰라 조심하면서 몇
발짝 가까이 다가갔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버논 이모부가 분노에 차 떨리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죠?"

해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요란한 소리를 낸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신 이쪽저쪽을 살펴보았다.

"딱총 쏘는 요란한 소리를 냈잖아 바로 우리 집 밖에서..."

"그 소리는 제가 낸 게 아니에요." 해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푸르죽죽하고 넓적한 버논 이모부의 얼굴 옆으로 말처럼 길쭉하고 뾰족한
페투니아 이모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그럼 왜 우리 집 창문 밑에 숨어 있었던 거지?"

"맞아 바로 그거야. 페투니아! 도대체 우리 집 창문 밑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해리가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모와 이모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뉴스를 듣고 있었다고! 또 말이냐?"

"뉴스는 날마다 다르잖아요." 해리가 말했다

"이 녀석아 날 속일 생각하지마라! 네 녀석의 진짜 속셈이 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 테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뉴스를 듣는다는 따위의 헛소리는 하지
마라!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너희 무리들...."

"말조심해요 여보!"

페투니아 이모가 숨가쁘게 외쳤다.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귀에만 겨우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너희 무리들이 우리 뉴스에 나올 리가 없다는 걸 말이다!"
"물론 이모부야 그렇게밖에 모르시죠" 해리가 대답했다.
더즐리 부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몇 분 동안 해리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에
페트니아 이모가 입을 열었다.
"이 뜻된 꼬마 거짓말쟁이야 그 많은 부엉이들이.."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에 해리는 입 모양을 보고 다음 말을 알아들어야만 했다.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뭘 한단 말이냐?"
"아하!" 버논 이모부가 의기양양하게 속삭였다. "이 녀석아 당장 여기서
꺼져!" 네가 그 성가신 새를 통해 모든 소식을 전해 듣는다는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더냐!"
해리는 한동안 망설였다 이번에는 진실을 털어놓기가 좀 어려웠다. 비록 이모와
이모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해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테지만 말이다.
"요즘은 부엉이들이... 저에게 소식을 전해 주지 않고 있어요" 해리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 말 안 믿는다."
페트니아 이모가 즉시 쏘이붙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버논 이모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녀석이 뭔가 웃기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우린 알고 있다."
페트니아 이모가 말했다.
"우린 바보가 아니야."
"그거야말로 제가 처음 듣는 새로운 소식이로군요."
해리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즐리 부부가 다시 불러 세우기 전에 흑 돌아서서
화단을 넘어갔다. 그리고 정원을 둘러싼 야트막한 담을 넘어서 성큼성큼 거리로
걸어 나갔다.
해리는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면
이모와 이모부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으면 안될 텐데 그러면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무 상관 없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탕 하는 소리는 분명 누군가 순간이동을 하면서 낸 것이라고 해리는
확신했다 집요정 도비가 허공 속으로 사라질 때 내던 소리와 똑같았던 것이다.
도비가 여기 프리벳가에 왔을까? 혹시 도비가 바로 지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해리는 재빨리 몸을 흑 돌려서 프리벳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거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도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마법을 알고 있을 리는 없었다.
해리는 자신이 어디를 걷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무작정 걸어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거리를 너무나 자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움직였다. 몇 발짝 걸을 때마다 해리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페트니아 이모의 시들어 가는 수국 속에 누워 있을 때 마법의
힘을 가진 누군가가 근처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까? 왜 그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아직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좌절감이 밀려들면서 모든 확신이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그것은 마법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속한
마법사 세계로부터 아주 작은 신호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소리에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웃집에서 원가가 깨지면서 난 소리가 아니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해리는 힘이 빠지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
감정을 무엇인지 미쳐 깨닫기도 전에 여름 내내 그를 괴롭혀 오던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는 <예언자일보>를 배달해 주는 부엉이에게 수고비를 주기
위해서 다섯 시에 맞추어 놓은 자명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뜰 것이다. 하지만

신문을 계속 받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요즘 들어 해리는 신문의 1면만 슬쩍 훑어보고 옆으로 내던져 버리곤 했다. 신문을 만드는 이 멍청이들이 마침내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1면에 머리기사로 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해리의 관심은 오직 그것밖에 없었다.

혹시 운이 좋다면 부엉이들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론과 헤르미온느의 편지를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비록 그 편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기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지만 말이다.

"물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어... 혹시 우리 편지가 도중에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거등... 우린 아주 바빠 하지만 이 편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 무척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널 만나게 되면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대체 언제쯤 그들을 보게 될까? 아무도 정확한 날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는 그에게 보낸 생일 카드에 "조만간 너를 보게 될거라고 기대하고 있어"라고 썼지만 도대체 그 조만간이 언제란 말인가? 친구들의 편지에 적힌 애매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헤르미온느와 론이 같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아마 론의 집에 있을 것이다.

해리는 두 사람이 버로우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프리벳가에 혼자 처박혀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두 사람이 생일날 보내 준 허니듀크 초코릿 두 상자를 뜯지도 않고 그냥 던져 버리기도 했다. 물론 그날 밤 페트니아 이모가 저녁식사로 시들어 빠진 샐러드를

내놓았을 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론과 헤르미온느는 월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 걸까? 그런데 왜 아는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걸까? 그 친구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 주지 않았던가? 모두들 내가 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인가? 묘지에 들어가서 케드릭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묘비에 묶인 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었던가?

더 이상 그 생각은 하지 말자 그해 여름 동안 해리는 수백번도 넘게 자신을 단단히 타일렀다. 밤마다 그 묘지를 다시 찾아가는 악몽을 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깨어 있는 순간까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었다.

해리는 모퉁이를 돌아서 매그놀리아 광장을 반쯤 지났다. 그리고 차고 옆으로 난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해리가 제일 처음 그의 대부인 시리우스를 우연히 보았던 곳이다. 적어도 시리우스만큼은 해리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시리우스의 편지도 별다른 내용이 없기는 론이나 해르미온느의 편지와 마찬가지였지만 사람을 애태우는 모호한 말 대신 위로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틀림없이 네가 초조해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얌전하게 있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조심하고 절대로 경솔한 짓은 하지마라..."

매그놀리아 광장을 가로질러 매그놀리아가로 접어든 해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공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시리우스의 충고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빗자루에 트렁크를 매달고 혼자서라도 버로우를 향해 떠나고 싶은 유혹을 이겨 내지 않았는가.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프리벳가에 처박혀 있으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행동이 대견할 뿐이다. 고작해야 볼드모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줄 만한 뉴스를 듣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화단에 숨는 게 전부였으니 그렇기는 하지만 마법사들의 감옥인 아즈카반에 12년 동안을 갇혀 있다가 탈옥하여 진짜로 살인을 시도한 끝에 히포그리프를 훔쳐 타고 달아난 사람으로부터 경솔하게 물지 말라는 충고 따위나 듣고 있어야 하다니. 정말 분통 터질 노릇이었다. 해리는 잠겨 있는 공원의 문을 훌쩍 뛰어넘어서 누렇게 시든 잔디밭을

건너갔다. 근처 거리와 마찬가지로 공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네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해리는 두들리와 그의 일당이 아직까지 망가뜨리지 않은 유일한 그네 위에 털썩 주저 앉았다. 그리고 한 팔을 그넷줄에 감은 채 우울하게 땅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또다시 더즐리 부부의 화단에 숨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일은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원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한다. 그때까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곤 불안하고 괴로운 밤 뿐이었다. 왜냐하면 어쩌다 캐드릭에 대한 악몽을 꾸지 않을 때에는 어둡고 긴 복도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막다른 길이나 잠긴 문 앞에서 끝나는 꿈을 꿨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깨어 있을 때 느끼는 몇몇 간신히 듯한 기분과 그 꿈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이마에 난 흉터가 쭉쭉 쑤실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더 이상 롤이나 헤르미온느 혹은 시리우스가 이런 사실에 커다란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 옛날에는 흉터가 쑤시면 그것은 볼드모트가 또다시 좀더 강해졌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볼드모트가 돌아온 지금 아마도 그들은 이 규칙적인 통증이 그저 예상했던 일이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뉴스 정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할 것이다.

순간 해리는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고함치고 싶었다. 이 모든 일들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가 아니었다면 심지어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고작해야 그 보상이 마법 세계와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채. 시들어 가는 수국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수상 스키 타는 잉꼬

소식 따위나 들으며 리틀 위닝에서 끔찍한 사주를 보내는 것이라 말인가? 덤블도어 교수님은 어떻게 그를 이토록 쉽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왜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를 썩 빼돌린 채 함께 지내고 있는 걸까? 대체 양전하게 앉아서 착하게 굴라는 시리우스의 잔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만 할까? 당장에라도 그 명청한 <예언자일보>에 글을 써서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더 참아야 한단 말인가? 온갖 불쾌한 생각들이 해리의 머릿속에서 뱅뱅 맴돌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후텁지근하고 고요한 밤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온 사방에 메마른 풀 냄새가 진동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공원 울타리 너머 도로를 오고 가는 자동차들의 낮은 엔진 소리뿐이었다.

그네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해리는 떠들썩한 말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보았다. 주변 도로에 서 있는 가로등의 뿌연 불빛 아래로 공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중 한 명은 큰소리로 상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른 일행들은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이 타고 있는 값비싼 자전거에서는 부드럽게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다. 제일 앞에 오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사촌인 두들리 더즐 리가 틀림없었다. 충성스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모양이었다.

두들리는 예전과 변함없이 몸집이 컸다. 하지만 1년간의 혹독한 다이어트와 새로운 재능의 발견으로 체격이 바뀌었다. 버논 이모부가 만나는 사람마다 신나게 떠들고 다니듯이 최근에 두들리는 남동부 지역 학교 대항전에서 주니어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되었던 것이다. 버논 이모부가 말하는 소위 그 '고상한 운동' 덕분에 두들리는 해리가 그의 첫 번째 샌드백 노릇을 해주던 초등학교 시절보다고 훨씬 더 세졌다. 물론 해리는 더 이상 그의 사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들리가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법을 터득한 것이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그를 보면 벌벌 떨었다. 심지어 성 브루터스 구제불능소년 선도학교에 다닌다는 철면피 불량아 '그 포터 녀석'보다도 더 무서워했다.

해리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누구를 패 주고 왔을까 생각했다. '여길 봐' 해리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서... 여길 보라고... 여기 나 혼자 앉아 있잖아...'

어서 와서 한 판 붙어 보자고...'

만약 두들리의 친구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한다면 곧장 다가올 것이 뻔했다. 그럼 두들리는 어떻게 할까? 졸개들 앞에서 체면을 잊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들리는 해리를 건드리는 걸 무서워했다. 두들리가 난처해서 쩔쩔매는 꼴을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그를 실컷 놀려 주고 아무대꾸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혹시 다른 알, 들이 때리려고 덤빈다면 해리는

기꺼이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요술지팡이가 있었다. 어디 한번 해보자... 헤리는 한때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아이들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손이 그질근질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해리를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이제 거의

공원을 타는 근처까지 도달했다. 해리는 그들은 소리쳐 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일부러 싸우자고 덤비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는 마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잘못하면 또다시 제명을 당할 수도 있었다.

두들리 패거리들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잠시 후에 매그놀리아가 쪽으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래요 시리우스 '해리는 명하니 생각에 잠겼다.'경솔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 양전히 있겠어요. 아저씨가했던 행동과는 정반대로 할 거예요.'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쭉 편다. 페트루니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그게 언제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여기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버논 이모부는 해리가 두들리보다 늦게 들어어면 창고에 가두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해리는 애써 하품을 참으며 여전히 부루퉁한 얼굴로 공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매그놀리아가는 프리벳처럼 완벽하게 순질된 잔디밭이 딸린 커다랗고 네모난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역시 커다랗고 네모나게 생긴 이 저택의 주인들은 한결같이 버논 이모부와 비슷하게 티 하나 없이 말끔한 자동차를 몰았다 해리는 해 저문 뒤의 리틀 위닝을 더 좋아했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들이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밤에는 이웃집 앞을 지날 때마다 비행 청소년 같은 그의 외모에 대해 수군덕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해리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매그놀리아가를 절반쯤 지나갔을 때 두들리 일당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그놀리아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해리는 커다란 라일락 나무 그늘 아래 몸을 숨기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 녀석 돼지처럼 짹짹거리더군 안 그래?"

말콤이 큰 소리로 웃어 대는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멋진 라이트 혹이었어. 빅 D"

피어스가 한마디 거들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볼까?"

두들리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보자 부모님은 외출할거야"

고이 제안했다

"그럼 내일 보자"

두들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두드!"

"잘자 빅 D!"

해리는 두들리 일당이 모두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모퉁이를 돌아서 매그놀리아

광장으로 끄르어선 해리는 좀더 서둘러 걸어갔다. 머지 않아 부르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 두들리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두들리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었다.

"이봐 빅 D"

두들 리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 너구나" 두들 리가 대답했다.

"대체 네가 언제부터 '빅 D'가 됐냐?"

"입 닥쳐" 두들 리가 주위를 돌아보며 윽박질렀다.

"이름 한번 멋지구나" 해리는 씩 미소를 지으며 사촌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리 그래도 내 눈에는 네가 언제나 '나의 귀염둥이 찌찌돌이'인걸"

"입 닥치라고 했지!"

두들 리가 햄처럼 두툼한 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였다

"그 애들은 네 엄마가 널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주둥이 닥쳐!"

"엄마에게 주둥이 닥치라고 말해서는 안되지. '우리 꼬마 도령'이나 '우리 귀여운 강아지'는 어때? 그렇게 불러 줄까?"

두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를 때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참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오늘 밤에는 누구를 때려주고 오셨나?"

해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또 열 살짜리 꼬마였나? 난 알고 있어 이를 전에도 네가 마크 에반스를..."

"그건 그 자식이 자초한 일이었어."

두들 리가 쏘아붙였다

"나 그래?"

"그 녀석이 내 앞에서 시건방진 소리를 하잖아"

"그래? 혹시 네 녀석이 꼭 뒷다리로 걸어다니는 법을 배운 돼지처럼 보인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그건 시건방진 소리가 아닌데? 그게 진실이거든"

순간 두들리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다. 두들리를 잔뜩 열받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해리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흡족했다. 그동안 쓰이고 쓸었던 울분을

그의 유일한 화풀이 상대인 사촌에세 몽땅 쏟아 부은 것 같았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해리가 맨 처음 시리우스를 보았던 그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이 길은 매그놀리아 광장과 위스테리아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거리에 비해 훨씬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다. 차고의 벽과 맞은편의 높은 담벼락에 막혀서 그들의 발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

"네 녀석은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자기가 어른인 줄 알지?"

잠시 후에 두들 리가 물었다.

"그거라니?"

"그거 네가 숨기고 다니는 거 말이야."

해리가 또 다시 씩 웃었다.

"두드 너도 보기보단 명청하지 않구나. 네가 걷는 것과 말을 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다니 뜻밖인걸 내가 미처 몰랐네."

해리가 재빨리 지팡이를 꺼내 들자 두들리는 힐끗 곁눈질을 하며 눈치를 살폈다.

"넌 그걸 쓸 수 없어" 두들 리가 서둘러 말했다. "나는 네가 그걸 쓸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그 괴상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될걸"

"그동안 규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하지. 빅 D?"

"절대 그럴 리 없어"

두들 리가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웬지 자신이 없었다.

해리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것만 없으면 감히 나에게 덤빌 배짱도 없는 놈이... 안 그래?"

두들 리가 빙정거렸다.

"그러는 너는 열 살짜리 꼬마를 때려 줄 때로 친구들을 뒤에 네 명이나
거느려야 안심하잖아. 네가 지겹게 떠들어 대는 그 권투 시합 말이야. 도대체
상대편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일곱 살? 여덟 살?"

"분명히 말하지만 열여섯 살이었어." 두들 리가 이를 갈며 말했다. "덩치도
너보다 두 배는 더 큰 녀석이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녀석을 쓰러뜨린
후에도 이십 분 동안이나 빼어 있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해 어디 두고 보자
아빠에게 네 녀석이 그걸 들고 밖에 나왔다는 걸 알려 줄 테니"

"어디 지금 당장 아빠에게 달려가 보시지? 귀염둥이 복싱 챔피언께어 말썽꾼
해리의 지팡이에 겁먹은 건가?"

"밤이 되면 이렇게 용감하게 굴지 못할걸 안그래?" 두들 리가 빙정거렸다

"지금이 바로 밤이네요 꼬마 도련님 지금처럼 오 세상이 깜깜해지면 그걸 보고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은 네 녀석이 잠잘 때 말이야!"

두들 리가 사납게 소리치며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해리도 걸음을 멈추고
사촌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해리는 두들리의 넓적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의기양양한 기색이 가득했다.

"내가 잠잘 때는 용감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해리는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도대체 내가 월 무서워 한다는 거야? 베개?"

"어젯밤에 네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 잠꼬대랑 신음소리도" 두들 리가 단숨에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해리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뱃속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냉기가 느껴졌다.

지난밤

꿈속에 또다시 그 묘지가 나타났던 것이다.

두들리는 큰 소리로 깔깔 웃더니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훌쩍 거리는 흉내를
냈다.

"캐드릭 죽이지 마! 캐드릭 죽이지 마! 도대체 캐드릭이 누구지? 네 남자
친구인가?"

"난 아니 모두 거짓말이야"

해리는 반사적으로 그의 말을 부정했다. 하지만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 갔다.

물론 두들리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가 캐드릭에 대해서 또 월 알고
있을까?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 그가 절 죽이려고 해요 아빠!으앙!"

"그만 해"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경고하는데 그만 입 닥쳐 두들리!"

"어서 절 도와주세요 아빠!엄마 어서 절 도와주세요! 그가 캐드릭을 죽였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자가... '이봐 나에게 그걸 겨누지 마!"

두들리는 담벼락 쪽으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해리는 곧장 두들리의 심장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15년 동안 쌓아 왔던 두들리에 대한 증오가 그의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심정으로는 두들리에게 지독한 저주를
내려서 더듬이가 달린 올골로 벌레처럼 집까지 기어가게 만들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말 알겠어?"

해리가 경고했다.

"그걸 저리 치워!"

"내 말 알아들었지?"

"그걸 저리..."

두들 리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처박힌 사람처럼 부르르 몸을 떨며 혁
하고 입을 벌렸다. 원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던
검은

밤하늘이 갑자기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모든 불빛이 사라졌다. 별빛도 달빛도

골목 끝에서 흐미하게 빛을 발하던 가로등도 일순간에 꺼져 버렸다.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도 나무들의 살랑거리던 속삭임도 뚝 끊어졌다. 향기로운 풀 냄새가 진동하는 여름날 밤에 느닷없이 뻣속까지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냉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숨막힐 듯이 고요하고 이상한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 버렸다. 마치 거대한 손이 얼음처럼 차갑고 두꺼운 망토로 골목 전체를 덮어 버린 것 같았다.

아주 잠깐 동안 해리는 그토록 참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법을 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는 별빛마저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없었다. 해리는 이쪽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주위를 살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덮개 같은 어둠이 그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잔뜩 겁에 질린 두들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그만둬!"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아무것도 안 보요! 눈~눈이 멀었나 봐! 나~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해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그 자리에 옷 박힌 듯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어찌나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지 해리는 계속해서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팔뚝에 소름이 쪽 끼치면서 뒤통수의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곤두섰다. 해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노려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이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리틀위닝에 있을 리가...
해리는

바싹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보지는 못해도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을 것이다.

"아, 아빠에게 다 마- 말할 거야!" 두들 리가 울먹거렸다.

"이봐, 어-어디 있는 거야? 뭐-뭐 하고 있어?"

"입 좀 그만 안 다물래?" 해리가 윽박질렀다. "지금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 순간 해리는 입이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골목 안 어딘가에 있었다. 그것은 거칠고 세찬 숨을 길게 내뿜고 있었다.
해리는 끔찍한 공포에 가로잡혀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 속에서 덜덜 떨며 서 있었다.

"지-집어치워! 당장 그만두란 말이야! 안그러면 때릴 거야! 정말이야!"

"두들리 제발 입 좀..."

퍽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와 해리의 머리를 세게 쳤다 눈앞에서 불이 번쩍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두 번째로 해리는 머리통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손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땅 위에 텔썩 주저앉고 말았다.

"두들리 이 멍청아!"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고통스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해리는 두 손과 발을 땅에 대고 엎으린 채, 미친 듯이 어둠 속을 더듬거렸다. 두들 리가

우왕좌왕하다가 담벼락에 몸을 부딪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들리, 이리 돌아와! 지금 너는 곧장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막히는 듯한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가 들려오더니 두들리의 발소리가 뚝 끊어졌다. 동시에 해리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두들리 입을 꼭 다물어!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면 안돼! 내 지팡이!"

해리는 미친 듯이 땅을 대면서 거미처럼 두 손으로 땅 위를 더듬었다.

"지팡이가 어디 있지? 제발- 루모스!"

해리는 지팡이를 찾을 수 있도록 불이 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외웠다. 놀랍고 다행스럽게도 바로 오른손 옆에서 불빛이 반짝 빛났다. 지팡이 끝에 불이 켜진 것이다. 해리는 재빨리 지팡이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순간 뱃속이 울컷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두건을 쓴 커다란 형체가 그를 향해 스르르 미끄러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땅 위에 둉둥 떠 있는 긴 망토 밑으로는 발도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어둠을

빨아들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해리는 비틀비틀 뒤로 물러서면서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지팡이 끝에서 한 줄기의 은빛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순간 디멘터의 걸음이 느려졌다. 하지만 주문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디멘터가 점차 바싹

다가오자,

해리는 주춤주춤 물러서다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서히 사람을 비치게 하는 뿐연 안개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정신

차리자-

디멘터의 망토 밑에서 덕지덕지 딱지투성이의 지저분한 회색 손이 해리를 행해 뻗어 나왔다. 술렁거리는 소리가 해리의 귓전에 가득 울려 퍼졌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자신의 목소리가 아득하고 희미하게 들렸다. 또다시 한 줄기 은빛 연기가 지팡이

끝에서 흘러나왔다. 조금 전보다고 훨씬 약했다. 해리는 더 이상 기운이 없었다. 도저히 마법을 쓸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날카롭게 째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리는 디멘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송장처럼 차갑고 지독한 악취가 나는 디멘터의

숨결이 그의 허파를 가득 채우면서 당장에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생각해야 한다... 뭔가 행복한 것을...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행복한 일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디멘터의 얼음처럼 싸늘한 손가락이 그의 목을 죄어 오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죽음에 굴복하라. 해리... 어쩌면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모르지... 한 번도 죽어 본 적이 없으니..."

그는 두 번 다시 혼과 해르미온느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고 애를 쓰던 해리의 눈앞에 갑자기 친구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순간 해리의 지팡이에서 거대한 은색 수사슴이 튀어나오더니 디멘터의 심장이 있을 만한 부위로 뿔을 들이받았다. 디멘터는 어둠처럼 힘없이 뒤로 나가떨어졌다. 수사슴이 계속해서 공격하자 디멘터는 박쥐처럼 뒤로 휙 물러났다가 사라졌다.

"이쪽으로!" 해리가 수사슴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지팡이를 치켜든 채 몸을 돌려서 골목 아래로 쓴살같이 달려갔다. "두들리! 두들리!"

열두어 걸음도 미처 못 갔을 때 해리는 그들을 발견했다 두들리는 두 팔로 얼굴을 감싼 채 몸을 꼬부리고 땅 위에 쓰러져 있었다. 두 번째 디멘터가 그의 몸 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디멘터는 썩어 문드러진 지저분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마치 사랑스런 사람을 대하듯이 천천히 두 팔을 벌렸다.

그려고는

입을 맞추려는 것처럼 두들리의 얼굴을 향하여 두건을 쓴 머리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만둬!"

해리가 다급하게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해리가 마법으로 불러낸 수사슴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디멘터를 향하여 돌진했다 동공이 뻥 뚫린 디멘터의 얼굴이 두들리의 얼굴에 닿으려고 할 때, 수사슴의 은빛 뿔이 디멘터를 들이받았다.

그것은 자기 동료와 마찬가지로 공중으로 헉 내동댕이쳐졌다. 그리고 봉 날아오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골목 끝까지 쫓아갔던 수사슴도 은빛 안개가 되어 스르르 사라졌다.

달빛과 별빛과 가로등 불빛이 반짝 되살아났다. 훈훈한 바람이 골목 안으로 불어 들어왔다. 이웃집 정원에 서 있는 나무줄의 살랑거리는 소리와 매그놀리아 광장을 오가는 자동차들의 붕붕거리는 소리가 다시 온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한동안 해리는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일상 세계로 되돌아오자, 온몸의 감각이 진동을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해리는 입고 있는 티셔츠가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목욕을 한 것 같았다.

해리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여기, 리틀 위닝에 디멘터들이 나타나다니.

두들리는 여전히 몸을 잔뜩 꼬부린 채 땅 위에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며 훌쩍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두들리가 과연 몸을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황급히 달려오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지팡이를 집어 들고 재빨리 돌아서서 새로운 상대를 맞았다.

숨을 헐떡거리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이웃집에 사는 정신 나간 노파 피그 할머니였다. 희끗희끗한 회색 머리카락이 모자 밖으로 삐죽삐죽 흘러 내려오고 손목에는 끈 달린 쇼핑 가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할머니의 발에는 격자 무늬의 실내용 슬리퍼가 당장에라도 벗겨질 듯이 걸려 있었다. 해리는 지팡이가 눈에 띄지 않게 얼른 바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치우지 마라. 이 멍청한 녀석아!"

피그 할머니가 꽉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 또 다른 놈이 근처에 있으면 어떨 게 하려고 그러니" 먼던구스 플레처, 만나기만 해 봐라. 내 손으로 꼭 죽여 버릴 테니!"

제 2 장 부엉이떼

"뭐라고요?"

해리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가 버렸어!" 피그 할머니가 자기 손을 비틀면서 소리쳤다. "빗자루에서 떨어진 냄비 꾸러미 때문에 누굴 만나야 한다면서 가 버렸단다! 말없이 그냥 가 버리면 산 채로 껌질을 벗겨 놀겠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야! 결국 이 꼴을 봐라! 디멘터라니! 그나마 티블스에게 망을 보라고 했기에 천만다행이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얼쩡거리고 서 있을 틈이 없단다! 어서 서둘러라 너를 돌려보내야만 해! 아이고! 이 일 때문에 또 얼마나 시끄러워질까! 아무튼 이 작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해리에게는 고양이밖에 모르는 정신 나간 이웃집 노파가 디멘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 골목에서 디멘터를 만난 것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할머니도 마녀신가요?"

"나는 스水库(마법을 하지 못하는 마법사) 이란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디멘터와 싸우는 널 도와줄 수 있겠니? 먼던구스 그 작자도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 그런데도 널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다니.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말이야."

"그럼 먼던구스가 출곧 절 따라자녔다는 말인가요? 잠깐만요... 그랬군요! 우리 집 앞에서 순간이동을 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군요!"

"그래그래 그렇단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가 티블스에게 자동차 밑에 숨어서 망을 보라고 시켰다. 그래서 티블스가 나에게 달려와 미리 알여 줄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갔을 때 너는 이미 없더구나. 그리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오 덤블도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야 이 녀석아! 피그 할머니는 여전히 골목 바닥에 벌렁 누워 있는 두들리는 향해 짹 소리를 질렀다. " 그 똥똥한 엉덩짝을 냉큼 들지 못해. 어서!"

"덤블도어도 아세요?" 해리가 피그 할머니를 멍하니 쳐다보며 물었다. "물론 알다마다 세상에 덤블도어를 모르는 마법사가 어디 있니? 어쨌든 빨리 가자. 그놈들이 다시 오면 난 아무 도움도 안돼 변신한 차 봉지만큼도 쓸모가 없지." 피그 할머니는 허리를 숙이더니 쪼글쪼글한 손으로 두들리의 굵은 팔뚝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일어나라 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뚱보 녀석아 어서 일어나!" 하지만 두들리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입을 짹 다문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며 땅 위에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제가 해볼게요."

해리는 두들리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렸다 필사적인 노력끝에 간신히 두들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두들리는 당장에라도 기절할 듯이 보였다. 그의 작은 눈은 뱅글뱅글 돌아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해리가 붙잡고 있던 손을 놓자마자 두들리는 위태롭게 비틀거렸다.

"서둘러라!" 피그 할머니가 초조한 듯이 재촉했다.

해리는 두들리의 굵은 팔을 자신의 어깨 위에 걸치고 큰길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그의 몸무게 때문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앞장선 피그 할머니는 불안한 듯이 연신 골목을 돌아보면서 종종걸음을 쳤다.

"지팡이를 계속 꺼내 놓고 있어라!"

위스테리아로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가 해리에게 말했다.

"지금은 비밀 법령 따위는 잊어버려. 어쨌든 벌은 받게 될테니까 말이다. 어쩌면 계란처럼 용의 먹잇감이 될지도 몰라. 미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이니 뭐니 이려쿵저러쿵 따들겠지. 그게 바로 덤블도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였어. 그런데 저 골목 끝에 있는 게 뭐지? 아 프렌티스 씨로군... 이봐 지팡이를 치우지 말라니까. 난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동시에 두들리를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리는 짜증스럽게 사촌의 옆구리를 콕 찔렀다. 하지만 두들리는 스스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커다란 발을 질질 끌면서 해리의 어깨에 쓰러지다시피 매달려 있었다.

"왜 진작 스水库이라고 알려 주지 않으셨어요?" 해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느라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제가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어째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덤블도어의 명령이었던단다. 너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 네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거야 어쨌든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미안하구나. 해리. 하지만 두들리 부부는 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너를 우리 집에 보내지도 않았을 게다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단다... 그건 그렇고... 이를 어쩜 좋아" 피그 할머니는 또다시 손을 비틀면서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가 이 소식을 들면..."

먼던구스 그작자는 자정까지 보초를 서기로 되어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냥 떠나 버릴 수가 있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게다가 덤블도어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 주지? 난 순간이동도 할 줄 모르는데."

"저에게 부엉이가 한 마리 있어요. 빌려 드릴게요" 해리가 신음 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더라가 두들리의 몸무게에 짓눌려서 허리가 휙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해리 넌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가능한 빨리 덤블도어가 손을 써야만 할 게다 마법부에서는 자기를 나름대로 미성년자의 마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내 말을 귀담아듣거라."

"하지만 디멘터들에게서 벗어나려면, 마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디멘터들이 위스테리아가 주위를 떠돌아다녔다면 마법부에서는 훨씬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오 애야 나도 부디 그러기를 바란다. 그래도 걱정스럽구나. 먼던구스 플레처, 네 놈은 내 손에 죽었어!"

그 순간 뽕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퀴퀴한 담배 냄새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키가 땅딸막하고 수염을 깍지 않은 남자가 누덕누덕한 외투를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짧고 흰 다리와 길고 텁수룩한 빨간 머리카락 그리고 핏발이 선 툭 튀어나온 눈동자는 웬지 사냥개 바셋하운드의 저량한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은색 꾸러미를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해리는 단박에 그것이 투명 망토라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피기?" 그는 피기 할머니와 해리 그리고 두들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감시활동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차라리 내가 네 녀석을 감시해야겠다!" 피그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디멘터가 나타났단 말이다! 이 말도 없이 사라지는 쓸모없고 게을러 빠진 도둑놈아!"

"디멘터가?" 먼던구스가 입을 딱 벌리며 되풀이했다. "디멘터가? 여기에?"

"그래 여기에!? 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박쥐 똥 같은 녀석아! 바로 여기에 나타났단 말이다!" 피그 할머니가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었다. "디멘터들이 네가 감시하고 있던 그 아이를 공격했다고!"

"아뿔싸!" 먼던구스가 피그 할머니와 해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나-나는..."

"그런데 너는 고작 훔친 냄비를 사겠다고 자리를 비웠단 말이지!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그랬어 안그랬어?"

"나는- 그게 저..." 먼던구스는 어쩔 줄 모르고 쩔쩔 맸다. "그게 아주 좋은 사업

기회라서 말이지..."

피그 할머니는 가방을 손목에 매단 채, 팔을 번쩍 치켜들더니 먼던구스의 얼굴과

목을 마구 후려쳤다, 짹그랑거리는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가방 안에는 고양이 먹이 통조림이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아이고- 그만 해 그만 좀 하라고 이 정신 나간 할망구야! 누가 좀 덤블도어에게 일러 줘!"

"그래 사람들에게는 내가 벌써 알렸다!" 피그 할머니는 통조림이 든 가방으로 먼던구스의 여기저기를 닥치는 대로 내려쳤다. "네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걸 왜- 그 자리에-없어서- 해리를 도와주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할망구, 머리망 떨어질라!" 먼던구스가 잔뜩 몸을 움츠린채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난 간다! 갈 거야!"

또다시 뽕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그이 모습이 사라졌다.

"덤블도어가 저 녀석을 죽여 버렸으면 좋겠군!" 피그 할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다. "어서 가자 해리 월 기다리고 서 있는 거냐?"

해리는 두들리를 짊어지고 걷는 게 쉬제 않다는 것을 설명 하느라 남아 있는 마지막 힘까지 낭비하지는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반쯤 정신이 돌아온 두들 리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도와주웠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마"프리벳가로 들어서자 피그 할머니가 말했다. "혹시 그 놈들이 근처에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다. 이런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 혼자서 그놈들과 싸워야만 했으니... 게다가 덤블도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마법을 쓰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 이왕 옆지를 물

들어도 아무 소용없지... 하지만 그 고양이는 지금 핵시들 틈에 있으니."

"그럼 덤블도어 교수님이... 출곧... 저에게 사람을 불였단 말인가요?"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물론이지"

피그 할머니가 다소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6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렴

덤블도어가 널 혼자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 같니? 맙소사 사람들 말로는 네가 꽤 똑똑하다고 하더구만... 자 어서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거라."

4번지에 도착하자 피그 할머니가 말했다

"머지 않아 누군가 너에게 연락을 할 거다"

"할머니는 뭘 하실 건가요?"

해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난 곧장 집으로 가야지" 피그 할머니는 어두운 거리를 둘러보더니 부르르 몸을 떨었다.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넌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럼

잘 자렴"

"잠깐만요 아직 가지 마세요! 궁금하게 있어요!"

하지만 피그 할머니는 실내용 슬리퍼를 파닥거리며 총총히 그 자리를 떠났다. 종이 가방 안에서는 깡통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기다려요!"

해리는 할머니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누구든 덤블도어와 연락이 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수없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눈 깜빡한 사이에 피그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해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두들리를 다시 어깨위로 주켜올렸다. 그리고 4번지 정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힘든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해리는 지팡이를 다시 청바지 속에 집어넣고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페트니아 이모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현관문에 달린 물결무늬 유리창 때문에 이모의 그림자는 묘하게 일그러져보였다.

"디디! 역시 제 시간에 돌아왔구나. 난 또 슬슬 걱정하기-디디 어떻게 된 일이니?"

해리는 고개를 돌려 두들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때맞춰 그의 팔 밑에서 몸을 뺏다. 잠깐 동안 두들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자리에서 비틀거리더니 다음 순간 입을 벌리고 현관 매트 위에 몽땅 토해내기 시작했다.

"디디! 디디! 무슨 일이냐? 버논! 버논!"

해리의 이모부가 거실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초조할 때면 늘 그렇듯이 그의

팔자 콧수염이 이리저리 썰룩거렸다. 이모부는 흥건히 고여 있는 토사물을 밟지 않으려고 주의하며 문 앞에서 후들거리는 두들리를 붙잡고 서 있는 페트니아 이모를 도와주기 위해 급히 다가갔다.

"여보 두들 리가 아파요!"

"어찌된 거냐 얘야? 무슨 일이냐? 폴키스 부인이 뭐 이상한 차라도 주던?"

"온몸이 훑투성이구나. 어찌된 일이니 얘야? 땅바닥에 누워 있었니?"

"잠깐- 설마 깡패한테 당한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페트니아 이모가 비명을 질렀다.

"당장 경찰에 연락해요 여보! 경찰을 부르라니까요! 디디 우리 아가 엄마에게 말해 보렴! 그놈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와중에 해리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리로써는 오히려

천만다행이었다. 그는 버논 이모부가 문을 꽂 닫기 전에 살짝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더즐리 부부가 요란법석을 떨며 현관에서 부엌까지 가는 동안 해리는 살금살금 숨을 죽이며 2층 계단으로 향했다.

"누가 이런 거냐 애야? 그 녀석 이름을 말해라 우리가 붙잡아서 혼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쉿! 두들 리가 원가 말하려고 하잖아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니 디디? 엄마에게 말 좀 해봐라!"

해리가 첫 번째 계단 위에 발을 막 올려놓는 순간 두들 리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저 녀석이에요"

해리는 계단에 발을 올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곧 터져 나올 고함 소리에 단단히 대비했다.

"해리! 당장 이리 와라!"

두려움과 분노에 훨씬 더 해리는 천천히 계단에서 발을 떼고 더즐리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티 하나 없이 말끔한 부엌은 창 밖의 어둠과 대비되어 이상 할 정도로

반짝반짝 윤이 났다. 페트리아 이모는 두들리를 의자에 앉혔다. 아직도 넋을 잃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다. 버논 이모부는 식기 건조대 앞에 서서 작고 가느다란 눈으로 해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거냐?"

그가 위협적으로 육박질렀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리는 버논 이모부가 그의 말을 한 마디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디디 이 녀석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지?" 페트리아 이모는 두들리의 가족재킷 앞에 묻은 오물을 연신 행주로 닦아 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아는 그거-그거였니? 그러니까 저 녀석이 그-그걸 썼느냐 말이다."

두들 리가 벌벌 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쓰지 않았어요!"

페트리아 이모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버논 이모부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해리는 소리 높여 외쳤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바로 그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부엉이 한 마리가 부엌 창문을 통해 날아 들어왔다. 버논 이모부의 머리 위를 살짝 스치고 지나간 부엉이는 부엌을 가로질러 높이 날아 오르더니 해리의 발 앞에 자신이 물고 온 커다란 양피지 봉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우아하게 돌아서 날개 양 끝으로 냉장고 위를

한번 쓸고는 다시 창 밖으로 훅 날아갔다. 곧 부엉이는 정원을 지나서 사라졌다.

"이놈의 부엉이들!" 버논 이모부가 벌컥 화를 내며 부엌 창문을 꽂 닫아 버렸다. 이모부의 관자 놀이에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았다

"또 부엉이 놈들이야! 어디 두 번 다시 내 이놈들을 내 집에 들어오게 하나 봐라!"

해리는 벌써 봉투를 뜯어 안에 든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의 심장이 당장에라도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요란하게 쿵덕거렸다

친애하는 포터군에게

우리는 포터군이 오늘 저녁 아홉 시 이십삼 분에 머글들이 사는 지역 내에서 한 머글이 있는 상황에서 페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포터군은 미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저별로 호그와트 마법학교로부터 퇴학당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포터군의 요술지팡이를 폐기하기 위하여 포터 군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마법부 대표들이 즉시 모일 것입니다.

포터군은 이미 앞서 국제 마법사 연맹의 비밀 법령집 13 항을 위반하여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8월 12일 오전 아홉 시 마법부에서 열리는 징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마법부 마법 오남용 관리과
마팔다 훌커크

해리는 편지를 두 번이나 다시 읽어 보았다. 버논 이모부와 페트니아 이모가 떠드는 소리는 컷전에서 희미하게 맴돌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정지된 것 같았다. 오직 단 한 가지 사실만이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독화살처럼 그의 의식을 꿰뚫고 지나갔다. 호그와트에서 퇴학을 당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더즐리 가족을 바라보았다. 버논 이모부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여전히 주먹을 높이 치켜든채 꽉꽉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페트니아 이모는 다시 구역질을 시작한 두들리를 팔로 감싸 안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망해졌던 머리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포터 군의 요술지팡이를 폐기하기 위하여 포터 군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마법부 대표들이 즉시 모일 것입니다." 이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여기서 도망쳐야만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해리는 알 수 없었다. 그가 확신하는

단 한가지 사실은 호그와트에 있든 호그와트 바깥에 있든 그에게는 반드시 요술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리는 꿈을 꾸듯 몽롱한 상태에서 지팡이를 꺼내 들고는 부엌을 나섰다.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거냐?" 버논 이모부가 소리쳤다. 해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부엌을 성큼성큼 지나서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가로막고 섰다.

"아직 내 말이 안 끝났다!"

"저리 비키세요"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넌 여기 남아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줘야해"

"당장 비키지 않으면 마법을 걸겠어요." 해리가 지팡이를 치켜들며 위협했다.

"넌 그걸 나에게 겨눌 수 없어!"

버논 이모부가 부드득 이를 갈았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학교라고 부르는 그 정신병자 소굴 밖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걸!"

"그 정신병자 소굴에서 절 쫓아냈어요!" 해리가 소리쳤다. "그러니 이제 위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삼 초 안에 비키세요 일초-이초-"

그 순간 퍽 하고 요란한 소리가 부엌을 뒤흔들었다. 페트니아 이모는 비명을 지르고 버논 이모부는 꽉 고함을 지르며 목을 움추렸다. 해리는 그날 밤 세 번째로 자신이 일으키지도 않은 소동의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 원인은 금방 눈의 띄었다. 혗간 부엉이 한 마리가 부스스한 몰골로 어리벙벙하게 부엌 창틀 밖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달힌 유리창에 날아와 부딪힌 것이다.

"이 부엉이놈들!"

화가 나서 펄펄 뛰는 버논 이모부를 무시한 채 해리는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창문을 열어 주었다. 부엉이는 깃털을 부르르 떨며 작은 양피지 두루마기가 매달린 두 발을 쭉 뻗었다. 그리고 해리가 편지를 받자마자 얼른 날아가 버렸다. 해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편지를 펼쳐 보았다. 누군가 검은 잉크로 황급히 휘갈겨 쓴 것 같았다.

해리-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방금 마법부에 도착하셔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다 절대로 이모네 집을 떠나지 마라. 더 이상 마법을 써서도 안된다. 네 지팡이로 내줘서도 안 된다.

아서 위즐리

덤블도어 교수님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덤블도어 교수님이 마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혹시라도 호그와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인가? 순간 해리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반짝 타올랐다. 하지만 절망적인 생각에 곧 사라지고 말았다. 마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지팡이를 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팡이를 지키려면 마법부의 대표들과 한바탕 결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랬다가는 주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즈카반의 감옥에 갇히거나 않으면 천만다행이었다.

해리의 머리가 팽팽 돌아갔다. 마법부의 사람들에게 불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도망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서 마법부 사람들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더 컸다. 하지만 해리는 위즐리 씨가

진심으로 그를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게다가 덤블도어 교수님은 예전에 이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도 해결하지 않았던가.

"좋아 마음을 바꿨어 그냥 남겠어"

해리는 부엌 식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들리와 페트니아 이모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더즐리 가족은 갑자기 돌변한 해리의 태도에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페트니아 이모는 완전히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버논 이모부를 헐끔헐끔 쳐다보았다. 거의 보라색으로 변한 이모부의 관자놀이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부엉이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

이모부가 통명스럽게 물었다.

"처음 온 부엉이는 마법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저를 제명한다고요" 해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의 신경은 온통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쏠려 있었다. 마법부의 대표들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버논 이모부를 자극해서 고함을 지르게 하는 것보다는 순순히 이모부의 질문에 대답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조용했다. "그 다음에 온 부엉이는 제 친구의 아버님이 보내신 거예요 마법부에 근무하시거든요"

"마법부라고?"버논 이모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너와 같은 무리들이 정부에 있단 말이야? 오 알겠다 이제 모든게 설명되는구나. 모든게 말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 그래"

해리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한동안 무섭게 노려보던 버논 이모부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넌 왜 쫓겨난 거냐?"

"제가 마법을 썼거든요"

"아하!"

버논 이모부는 주먹으로 냉장고 위를 쾅 내려쳤다. 그 바람에 냉장고 문이 열리면서 두들 리가 먹는 저지방 과자 봉지들이 와르르 마구 위로 쏟아져 나왔다.

"드디어 제가 인정하는구나! 도대체 두들리에게 무슨 짓을 했지?"

"아무짓도 하지 않았어요"해리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 건 제가 아니었어요"

"너였어" 갑자기 두들 리가 입을 열고 중얼거렸다.

버논 이모부와 페트니아 이모는 당장 해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더니 두들리를 에워쌌다.

"어서 말해 봐라 아들아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했니?" 버논 이모부가 물었다.

"아가 우리에게 말해보렴" 페트니아 이모가 재촉했다.

"저에게 지팡이를 겨누었어요"두들 리가 우물거렸다.

"맞아요 그랬어요 하지만 지팡이를 쓰지는 않았~"

해리가 너무 화가 나서 끼어들었다. 하지만...

"입닥쳐!"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가 동시에 그를 익박질렀다.

"계속하거라. 아들아"

씩씩거리는 버논 이모부의 콧김에 콧수염이 휘날렸다.

"모든게 어두워졌어요." 두들 리가 부르르 몸을 떨며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

온세상이 전부 깜깜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걸 내-내 머릿속에서요."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는 두려움이 가득찬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법이라면 바로 그 다음이 잔디밭 호스 사용 금지 기간을 자기들보다 더 자주 어기는 이웃 사람들이었고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거의 열 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들 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아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니?"

페투니아 이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했다.

하지만 두들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또다시 부르르 몸을

떨며 커다란 빨간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첫 번째 부엉이의 편지를 받아 본 이후로 명한 마비 상태에 빠져 있던 해리조차 문득 호기심이 발동했다.

디멘터들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저 버릇없고 심술궂은 응석받이 두들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어쩌다 넘어지게 되었니 얘야?"

버논 이모부가 어울리지 않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목소리였다

"허-헛디뎠어요 그런데 그때...."

두들리는 자신의 넓적한 가슴을 손으로 가르쳤다. 해리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두들리는 모든 희망과 행복이 다 빠져나가고 가슴을 가득 채우던 그 끈적끈적한 냉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무시무시하고... 차가웠어요. 정말로 차가웠어요"

두들리는 잠김 목소리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알았다" 버논 이모부가 애써 냉정한 척하며 말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걱정스러운 듯이 손으로 두들리의 이마를 짚어 보았다.

"우리 귀염둥이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 그... 느... 느낌이 ...마치...마치..."

"마치 두 번 다시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지" 해리가 억 양없는 말로 거들었다

"맞아"

두들 리가 여전히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럴군!" 버논 이모부의 목소리가 다시 최고조로 높아졌다.

이모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네 녀석이 우리 아들에게 뭔가 괴상한 마법을 건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환청을 듣고 자신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났느니 뭐니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거지?"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 드려야 아시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자 해리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디멘터 두명이 그랬어요!"

"디-뭐라고" 이게 무슨 귀신 셧나락 까먹는 소리냐?"

"디-멘-터요"

해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었다. "두놈이었어요"

"그 염병할 디멘터란게 대체 뭐야?"

"그건 마법사들의 감옥 아즈카반을 지키는 간수예요" 페투니아 이모가 영겁결에 한마디 내뱉었다.

순간 이 초 정도 정적이 감돌았다. 페투니아 이모는 더럽고 추잡한 말이라도 튀어나온 것처럼 황급히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모부는 눈알을 부라리며 이모를 빤히 쳐다보았다.

피그 할머니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설마 페투니아 이모까지?
해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그걸 어떻게 아세요?" 해리는 깜짝 놀라 물었다.
페투니아 이모도 자신의 말실수에 무척이나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버논 이모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처럼 커다란 이빨을 가지고 있던 손을 천천히 밑으로 내렸다.
"들은 적이 있어... 그 꼼찍한 남자 애가... 그들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는 걸..."
몇 년전에 말이야" 페투니아 이모가 두서없이 횡설수설 떠들었다.
"저희 엄마 아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름을 부르지 않죠?" 해리가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하지만 페투니아 이모는 못 들은 척 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해리는 머리가 멍해졌다. 몇 년전에 딱 한번 분을 뜯이겨서 해리의 엄마가 빌어먹을 마법사였다고 소리친 것을 제외하면 페투니아 이모는 동생에 대해서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해리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 마법 세계가 없는 것처럼 굴려고 애를 쓰는 이모가 그런 사소한 사실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러울 뿐이었다.
버논 이모부는 입을 딱 벌렸다가 닫았다가 다시 벌렸다가 다물었다. 말문이 막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이모부는 세 번째로 입을 열더니 목이 메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그러니까-그-그- 그것들이 정말로 있단 말이지? 그-그디-디멘-터 어쩌구 하는 것들이 말이야?"
페투니아 아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버논 이모부는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와 해리를 번갈아 가며 한 번씩 쳐다보았다. 누군가 '오늘은 만우절이야!' 라고 소리쳐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자 이모부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뭔가 적당한 말을 찾기도 전에 그날 저녁 세 번째 부엉이가 도착했다. 이번 부엉이는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 마치 깃털 달린 대포처럼 피융 날아 들어와서는 부엌 식탁위에 쾅 하고 내려 앉았다. 그 바람에 더줄리 가족 세사람은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해리는 부엉이가 입에 물고 온 두 번째 공식 서한을 받아 들었다.
부엉이는 그가 봉투를 뜯는 것을 보자 어두운 밤하늘로 다시 날아가 버렸다.
"부엉이는 이제 그만--"
버논 이모부가 자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창가로 사납게 걸어가더니 다시 창문을 쾅 닫아 버렸다

친애하는 포터 군에게

약 이십이 분 전에 보낸 저희 편지에 덧붙여 마법부에서 포터군의 지팡이를 당장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9월 12일에 열리는 청문회때까지 당신은 지팡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교장 선생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마법부에서는 포터군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다시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포터군은 학교에서 정학 중인 것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빌며

마법부 마법 오남용 관리과
마팔다 훌커스

해리는 이 편지를 연달아 세 번이나 읽었다. 완전히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안도감과 더불어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렸다 물론 두려움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것이 8월 12일에 열릴

청문회서 결정될 것이다.

"뭐냐?" 버논 이모부가 부르는 소리에 해리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이번엔 또 뭐냔 말이다? 너에게 무슨 선고라도 내려졌나? 사형선고라도 받은 것 아니냐?" 버논 이모부는 희망 사항인 듯이 뒷말을 덧붙였다.

"청문회에 나가야만 한대요." 해리가 말했다.

"그럼 그때 선고를 내린다는 거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셈이구나" 버논 이모부가 심술궂게 말했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그만"

해리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거나 론이나 헤르미온느 혹은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

"아니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당장 다시 앉거라!" 버논 이모부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세요?" 해리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두들리 말이다! 나는 내 아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좋아요!"

해리가 화를 내자 그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지팡이 끝에서 황금빛 불꽃이 튀었다. 더즐리 가족 세 사람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움직했다.

"두들리와 저는 매그놀리아 광장과 위스테리아가 사이로 난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해리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재빨리 설명했다. "두들리는 자기 때문에 내가 약이 올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팡이를 꺼내 들기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디멘터 두 명이 나타났죠"

"도대체 디멘터가 뭐냐? 뭐 하는 놈들이지?" 버논 이모부가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들은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을 모두 빨아들여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입을 맞추려고 하죠"

"입을 맞춘다고?" 버논 이모부의 눈이 휙동그래졌다. "입을 맞춘단 말이야?"

"입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페트니아 이모가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다.

"두들리의 영혼을? 그럴 리가 없어 두들리는 여전히 정신이..."

페트니아 이모는 황급히 두들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마치 그의 영혼이 몸속에서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다.

"물론 두들리는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금방 알았을 거예요"

"해리는 짜증을 냈다

"그놈들을 쫓아 버렸니? 그렇지 얘야?" 버논 이모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어떻게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화를 되돌리고 싶어서 애를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녀석들에게 좌우 연타를 먹였겠지 그렇지?"

"디멘터들에게는 좌우 연타가 아무 소용 없어요." 해리는 짜증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째서 두들리가 무사한 거냐? 왜 영혼을 봉땅 빼앗기지 않은 거지?"

버논 이모부가 고집을 부렸다

"그건 제가 패트로누스 마법을 썼기..."

휙 푸드덕 하는 날갯짓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리더니 뽀얀재를 휘날리며 네 번째 부엉이가 부엌 벽난로에서 튀어나왔다.

"제발 그만!"

버논 이모부가 콧수염을 한 움큼 잡아 뜯으며 부르짖었다. 오랫동안 좀처럼 하지 않았던 짓이었다.

"난 이집에 부엉이를 들여놓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

하지만 해리는 벌써 부엉이의 다리에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풀고 있었다. 이번 편지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디멘터들도 피그 할머니도 마법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덤블도어 교수님이 모든 일을 해결했는지도 그러므로 시리우스의 글씨라는 것을 확인했을때 해리는 처음으로 실망감을 느꼈다. 버논 이모부는 마지막 부엉이가 다시 굴뚝 안으로 날아 들어가면서 일으킨 먼지 구름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뜯 채 부엉이들에 대해서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시리우스의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방금 아서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집을 떠나지 마라

오늘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엉뚱한 소리처럼 들렸다. 해리는 혹시 또 다른 내용은 없는지 양피지 뒷면을 넘겨 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해리는 또다시 부아가 치밀었다. 혼자서 디멘터 둘을 상대로 싸워 이겼는데 아무도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심지어 위즐리 씨나 시리우스는 마치 그가 뜻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굴고 있었다.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부엉이 때 아니 그러니까 부엉이떼가 우리집을 마구 들락날락하다니! 난 못참는다. 난 못참아..."

"전들 부엉이가 날아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해리는 시리우스의 편지를 구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난 도대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다!"버논 이모부가 악을 썼다. "디멘더인지 뭔지가 두들리를 해친 거라면 왜 네가 제명을 당하느냐? 넌 그걸 쓴게 틀림없어! 솔직히 인정해!"

해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또다시 머리가 쑤시기 시작했다. 이 부엌을 떠나서 더즐리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었다.

"디멘터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패트로누스 마법을 썼어요"

해리는 냉정해 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디멘터들을 쫓아내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디멘토이드들이 리틀 위닝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버논 이모부가 한층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물었다.

"저도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해리가 지친 어조로 말했다

번쩍이는 형광등 불빛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끓어 오르던 분노마저 사라졌다 해리는 기운이 쭉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았다. 더즐리 가족은 일제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버논 이모부가 단호하게 말했다."이게 다 네 녀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틀림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놈들이 왜 하필 여기 나타났겠어? 다른 곳도 아닌 그 골목에 말이야 이 근방 몇 킬로미터 내에 그-그거—"버논 이모부는 '마법사'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더듬 거렸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그거라곤 오직 너 하나 뿐이잖아"

"저도 왜 그들이 여기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버논 이모부의 말을 듣자 완전히 정지되었던 그의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디멘터들이 리틀위닝에 나타났을까?

해리가 그 골목에 있을때 디멘터들이 나타난게 순전히 우연이었을까? 누가 보낸 걸까? 마법부에서 디멘터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덤블도어 교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디멘터들이 아즈카반을 버리고 볼드모트편에 합세한 것은 아닐까?

"이 디엠버란 놈들이 마- 어쩌구 하는 것들의 감옥을 지킨다고?"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생각을 뒤따라오기라도 한 듯이 불쑥 물었다.

"그래요"해리가 대답했다.

머리가 욱신거리는 것만이라도 멈춰 준다면... 그만 이 부엌을 떠나서 어두운 내

방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럼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 볼텐데...

"아하! 그렇다면 그놈들은 널 잡으러 왔던 게로군!" 버논 이모부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한 사람처럼 의기야양하게 소리쳤다. "안그러냐 요 녀석야? 넌 법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해리는 귀찮은 파리를 쫓듯이 머리를 세차게 훤크었다. 이젠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렇다면 왜-?"

"틀림없이 그자가 보냈을 거야"

해리는 버논 이모부에게 말한다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그놈들을 보냈다는 거야?"

"볼드모트 말이예여"

해리는 마법사니 마법이나 요술지팡이니 이런 말만 들어도 겁을 먹고 울상을 지으며 깅낑거리는 더즐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마법사의 이름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잠깐만..." 버논 이모부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뒤룩뒤룩 살찐 그의 눈에 뭔가 알겠다는 듯한 빛이 떠올랐다. 그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어 그자가 바로..."

"맞아요 제 부모님을 죽인 자예요"

"하지만 그자는 죽었어" 버논 이모부가 딱 잘라 말했다. 살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덩치 큰 녀석이 그렇게 말했어. 그자는 죽었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해리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처럼 말끔한 페투니아 이모의 부엌에서 최고급 냉장고와 초대형 텔레비전 옆에 서서 버논 이모부와 볼드모트에 대해 태연히 이야기 하고 있다는게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디멘터들이 리틀 위닝에 나타난 걸 보면 철저하게 마법을 배제하는 프리벳가의 세계와 그 너머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틈새가 벌어진 것 같았다. 해리의 두 세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있었다. 더즐리 가족들은 마법 세계에 대해 시시콜콜 캐묻고 있고 피그 할머니는

알버스 덤블도어를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디멘터들이 리틀위닝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그는 두 번 다시 호그와트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해리의 머리가 더욱 심하게 쿡쿡 쑤셨다.

"돌아왔다고?" 페투니아 이모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해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페투니아 이모가 엄마늬 친언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실감했다. 왜 그런 느낌이 그토록 강력하게 들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잖은데나마 이해하는 사람이 이 방안에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평생 동안 단 한번도 지금과 같은 눈빛으로 해리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지금 크고 파리한 (그래서 여동생과는 너무나 다른)이모의 눈은 증오나 분노로 찡그리는 대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휘둘그려져 있었다. 버논 이모부와 함께 하는 이 일상적인 세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세계도 어떤 마법도 없는 것처럼 줄기차게 고집해 왔던 페투니아 이모의 속마음이 평생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었다.

"그래요 "

해리는 곧장 페투니아 이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달전에 돌아왔어요 제가 봤어야"

페투니아 이모가 가죽 옷을 걸친 두들리의 두툼한 어깨를 손으로 더듬더니 깽 움켜잡았다.

"잠깐만" 버논 이모부가 아내와 해리르르 번갈아 쳐다보았다. 갑자기 마음이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니까 볼든지 원지가 돌아왔다는 거지"

"그래요"

"네 부모를 죽인 그자가 말이자"

"예"

"그리고 그 작자가 널 잡으러 디멘터를 보냈고"

"그런 것 같아요"해리가 대답했다.

"알겠다"버논 이모부는 하얗게 질린 아내과 해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바지춤을 추켰다. 해리의 눈앞에서 이모부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의 넓적한 보라색 얼굴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해답은 간단하군" 버논 이모부가 숨을 들이마시자 이모부는 페트니아 이모와 두들리까지도 화들짝 놀랄 만큼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나가 당장 나가! 이미 오래 전에 널 내쫓아야만 했어! 부엉이들은 여기를 무슨 자기들 놀이터 쯤으로 여기질 않나 푸딩이 폭발하질 않나 거실의 절반이 무너지질 않나 두들리는 돼지 꼬리가 생기고 마지스 천장까지 붕붕 떠오르고... 게다가 하늘을 나는 포드 앵글이라까지

나타나고! 깨져 !어서! 그걸로 충분해 너는 끝났어! 이제 미친 놈들 까지 네 뒤를

쫓고 있다면 넌 절대 여기 있을 수 없어 너 때문에 나의 아내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게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할 수는 없단 말이야! 만약 네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네 부모와 똑같이 군다면 됐어! 썩 깨져 버려!" 해리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원손에는 마법부와 위즐리씨 그리고 시리우스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그 집을 떠나지 마라 네 이모와 이모부 집을 떠나지 마라.

"내 말 못 들었니!" 버논 이모부가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소리쳤다. 이모부의 넓적한 보라색 얼굴이 해리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서 해리는 온 얼굴에 침이 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서 나가! 불과 삼십분 전만해도 이 집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 내가 네 등을 떠밀어 주마! 당장 나가란 말이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집 계단에 그림자도 얼씬대지 마라 애초에 우리가 왜 널 맡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옮았어. 곧장 고아원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착해서 마음이 약한게 탈이지 우리는 너에게서 그걸 몰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널 정상인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근본부터 썩었어.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부엉이들!"

다섯 번째 부엉이가 굴뚝을 통해서 쓴살같이 내려왔다. 어찌나 급하게 내려왔는지 부엉이는 요란한 울음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광 부딪힌 후에야 간신히 다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 해리는 편지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다. 편지는 붉은 색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부엉이는 그의 머리 위를 획 지나쳐서 페트니아 이모에게로 곧장 날아갔다. 이모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두 팔로 얼굴을 가렸다. 부엉이는 이모의 머리위로 붉은 봉투를 떨어뜨리더니 획 돌아서 다시 굴뚝으로 날아가 버렸다

해리는 편지를 주우려고 재빠리 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페트니아 이모가 한 걸음 더 빨랐다.

"원하신다면 마음대로 열어 보세요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다 듣게 될 테니까요 그건 호율러예요"

"페트니아 그걸 당장 버려!" 버논 이모부가 호들갑을 떨었다, "만지지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이건 저에게 온 거예요" 페트니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이건 제 앞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여보 이거 봐요! 페트니아 더즐리 부인 프리벳가 4 번지 부엌"

페트니아 이모는 겁에 질린 듯 숨을 멈추었다. 붉은 색 봉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빨리 열어 보세요! 빨리 끝내 버려요! 어떻게든 피할 수는 없어요!"해리는 이모를 재촉했다.

"싫다!"

페트루니아 이모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모는 마치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것처럼 부엌 안을 황급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봉투가 평 터지더니 불꽃이 일어났다. 페트루니아 이모는 비명을 비르며 편지를 떨어뜨렸다. 식탁위에 떨어진 불붙은 편지에서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훌러나와 좁은 부엌안을 뒤흔들었다.

"페트루니아 나의 마지막을 기억해라"

페트루니아 이모는 당장에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두들리 옆에 놓인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다. 타고 남은 편지가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며 서서히 재로 변해갔다.

"이-이게 뭐지? 도대체- 난- 페트루니아?" 버논 이모부가 순 목소리로 말했다
페트루니아 이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들리는 입을 헤벌린 채 멍청하게 자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해리는 어리둥절해서 이모를 쳐다보았다. 머리가 당장에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여보 페트루니아? 페-페트루니아?"버논 이모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버논 그 애는 여기 있어야만 해요"

"뭐-뭐라고?"

"여기 그냥 있을 거라고요"

해리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페트루니아..."

"우리가 저 녀석을 쫓아내면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이모는 아직도 안색이 창백하기는 했지만 금방 팔팡하고 딱딱 거리는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이 녀석이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있는 수 밖에 없어요"

버논 이모부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풀이 죽었다

"하지만 페트루니아 여보-"

페트루니아 이모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너는 당장 네 방으로 가라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거라"

해리는 끔짝도 하지 않았다.

"그 호울러는 누가 보낸 거죠?"

"나에게 이것저것 묻지 마라"

페트루니아 이모가 쏘아붙였다

"마법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그만 자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뜻이죠? 마지막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모 말 못 들었니! 지금 당장 네 방으로 가!"

제 3 장 전위대

나는 방금 전에 디멘터들의 공격을 받았어 그리고 어쩌면 호그와트에서 제명을 당할지도 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언지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어두운 침실에서 책상 앞에 앉자마자 해리는 세 장의 양피지에 똑같은 편지를 썼다. 첫 번째 편지에는 시리우스 두 번째는 론 세 번째는 헤르미온느의 이름과 주소를 썼다. 부엉이 헤드위그가 먹이를 잡으러 밖에 나갔기 때문에 책상에 놓인

사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해리는 침실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부엉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머리가 계속 윽신거렸다. 피곤에 지친 두 눈이 빽빽하고 땋아웠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거운 두들리를 집까지 끌고 오느라 허리가 뻐근했다. 게다가 창문에 부딪히고 두들리에게 얹어맞아 불룩 부어오른 자리가 아직도 쿡쿡 쑤셨다.

해리는 분노와 짜증으로 바싹바싹 속이 타서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그리고 창문 앞을 지날 때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별들이 총총한 텅 빈 하늘을 내다보았다. 디멘터들이 그를 불잡으려 오고 피그 할머니와

먼던군스 플래처가 몰래 그의 뒤를 따라다니고 호그와트로부터 정학 통지를 받은 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이제는 마법부에서 청문회까지 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게다가 그 호울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토록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으로 부엌 안에 짜렁짜렁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왜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채 여전이 이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걸까? 왜 모두들 나를 못된 말썽꾼 취급을 하는 걸까? 더 이상 어떤 마법도 쓰지 마라 집에서 꼼짝하지 마라... 해리는 발에 거치적거리는 학교 가방을 힘껏 걷어찼다. 그러나 속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화만 더 치솟았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발가락까지 날카로운 통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가 절뚝 거리며 창문 앞을 막 지나쳤을 때 헤드위그가 작은 유령처럼 조용히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 들어왔다.

"너 마침 잘 왔다" 헤드위그가 자신의 우리 위에 살짝 내려 앉자마자 해리는 콘 소리로 야단을 쳤다. "그걸 당장 내려놔!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

헤드위그는 죽은 개구리를 입에 문 채 켜다랗고 둥근 호박색 눈을 끔벅끔벅하며 해리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이리 와"

해리는 작은 양피지 두루마기 세 개와 가죽끈을 집어 들고 부엉이의 다리에 편지를 묶기 시작했다. "이걸 곧장 시리우스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전해줘 그리고 제대로 쓴 답장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마 그 사람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긴 편지를 쓸 때까지 계속해서 쪼아 대란 말이야 알겠어?" 헤드위그는 부리를 꼭 다문 채 웅얼웅얼 대답했다. 아직도 부리 안에 개구리가 가득했던 것이다.

"그럼 어서 가"

해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헤드위그는 즉시 출발했다. 부엉이가 떠난 후에 해리는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폭 쓰러졌다. 그리고 어두운 천장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로 심란하고 비참한 기분이었는데 헤드리그에게 신경질을 내고 나니 이제는 죄책감까지 밀려왔다. 헤드위그는 프리벳가 4번지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해리는 헤드위그가 시리우스와 론 헤르미온느에게 답장을 받아서 돌아오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서둘러 답장을 해줄 것이다. 설마 디멘터의 공격을 받았는데 모른 척할 리가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위로의 말과 더불어 그를 당장 버로우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이 빽빽하게 적힌 두툼한 편지를 세 통이나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헤드위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리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끔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다.

하루에 세 번 페트루니아 이모가 고양이 출입구로 음식을 밀어 넣어 주었다. 3년 전 여름에 버논 이모부가 만들어 놓은 구멍이었다. 이모가 방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해리는 호울러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그건 문손잡이에게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식사 때를 제외하면 더즐리 가족은 그의 침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해리도 굳이 그들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소동이 벌어진다면 기꺼해야 너무 화가 나서 금지된 마법을 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신을 이런 곤경 속에 내버려 둔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며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져 한 시간씩 침대 위에 쓰러져서는 명하니 허공을 노려보곤 했다. 그러다가 마법부 청문회를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지? 나를 제명하고 요술지팡이를 두 동강 내 버리면? 그럼 앞으로 월 하며 지내고 어디로 가야 하나? 1년 내내 더즐리 가족과 지내는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또 다른 세계 내가 진정으로 속한 세계를 알게 된 이상 그럴 수는 없었다. 시리우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1년 전 시리우스가 마법부를 피해서 달아나기 전에 제안했던 것처럼 말이다. 비록 아직도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시리우스 집에서 혼자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내가 가야 할 곳까지 마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국제 비밀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즈카반의 독방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범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해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방 안을 초조하게 왔다갔다 하기 시작했다.

헤드위그가 떠난지 나흘째가 되던 날 밤 해리는 또다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명하니 천장을 노려보며 누워 있었다. 지칠대로 지친 그의 머리는 백지처럼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그때 이모부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해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그를 바라보았다. 제일 좋은 양복으로 차려입은 버논 이모부는 잔뜩 으스대는 표정이었다.

"우린 나갈꺼다" 이모부가 말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모와 두들리 그리고 나 우리 가족 모두 외출할 거란 말이다."

"그러세요" 해리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무관심하게 대답했따.

"우리가 집을 비우는 동안 네 방에서 나오면 안된다."

"알겠어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집 안 물건은 무엇이든 만져서도 안돼"

"네"

"냉장고에서 먹을 걸 슬쩍해도 안돼"

"네"

"그리고 네 방문은 잠그고 나갈 거다"

"마음대로 하세요"

버논 이모부는 못마땅한 눈길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아무 불평도 않는 게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곧 킁킁 거리며 방을 나가더니 문을 닫았다. 해리는 방문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계단을 내려가는 버논 이모부의 육중한 발소리를 들었다. 몇 분 후에는 자동차 문이 턱 하고 닫히는 소리와 엔진 소리 그리고 자동차가 도로 위를 쌩하고 달려가는 소리가 이어졌다.

해리는 더줄리 가족이 나갔다고 해도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들이 집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지금 그는 몸을 일으켜서 침실의 물을 펼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 방안이 점차 어두워졌다. 해리는 가만히 누워서 항상 열어두는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밤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헤드위그가 돌아오는 행복한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삐거덕 소리가 났다 수도관이 꾸르륵거렸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해리는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누워 있었다. 바로 그때 아래층 부엌에서 원가 짹그랑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해리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귀를 쫑긋 세웠다. 더줄리 가족이 벌써 돌아왔을 리는 없었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일렀다. 게다가 자동차 소리도 듣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둑이 들었나 보군 순간 해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그머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진짜 도둑이라면 저렇게 큰소리로 떠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부엌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게 누군지 몰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해리는 침대 앞 탁자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고 방문에 바싹 귀를 갖다 댔다.
다음

순간 해리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땀깍하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다.

해리는 꿈쩍하지 않고 서서 텅빈 복도와 어두운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열심히 귀를 기울였지만 온 세상이 고요했다.

해리는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방을 살짝 빠져나와 계단으로 다가갔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두컴컴한 아래층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이다. 우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로등 불빛을 받아 검은 그림자가 또렷이 보였다. 여덟이나 아홉 명 정도 되는 그들은 하나같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장 지팡이를 내려놔라 잘못하다가 누구 눈이라도 뽑겠구나"

통명스럽고 굵은 목소리였다

해리의 심장이 마구 쿵쿵거렸다. 분명히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지팡이를 내리지 않았다.

"무디 교수님?" 해리는 주저하며 물었다.

"교수님이라는 말은 좀 과한데 내가 그만큼 가르친게 있어야지 말이야"
그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리로 내려오렴 널 좀 제대로 보고 싶구나"
해리는 천천히 지팡이를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지팡이를 둔 손에서 힘을 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얼마 전에 아홉달 동안이나 매드아이 무디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결국

진짜 무디가 아니라 사기꾼임이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사기꾼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 해리를 죽이려고 했다 해리가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약간 순 듯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 괜찮다 우리는 널 데리러 왔어"

해리의 심장이 또 다시 두근거렸다. 역시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비록 거의 1년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이기는 했지만.

"루-루핀 교수님? 교수님이신가요?" 해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우리는 왜 깜깜한 데 서 있어야 하지?"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전혀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루모스"

지팡이 끝에서 마법의 빛이 나면서 복도를 환하게 밝혔다. 해리는 눈을 깜빡거렸다. 아래층 사람들은 계단 발지에 모여 서서 열심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중 몇 명은 그를 더 잘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있어 TEk. 리무스 루핀이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다. 비록 여전히 짚기는 했지만 웬지 피곤하고 아파 보였다 지난번 해리와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보다도 흰머리가 훨씬 더 많았다고 입고 있는 옷도 더 후줄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핀 교수는 해리를 보자 활짝 웃었다. 해리는 충격을 받아 멍한 상태였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썼다.

"오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생겼네" 불이 켜진 지팡이를 높이 치켜든 마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중에서 가장 젊어 보였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둥근 하트 모양이었고 검은 두 눈은 별처럼 반짝거렸다.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짧은 머리는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반갑다 해리야!"

"그래 자네가 한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군 리무스"제일 뒤에 서 있던 까만 머리가 벗겨진 마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그리고 한쪽 귀에는 둥근 금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제임스와 똑같이 생겼어."

"눈만 빼고 말이야, 눈은 릴리를 쓰 빼닮았는걸." 머리가 하얗게 센 또 다른 마법사가 짹싹 숨소리를 내며 말했다.

한편 구불구불한 희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 놓고 코 끝에 살점이 둉텅 떨어져 나간 매드아이 무디는 짹짝이 눈으로 해리를 수상쩍은 듯 째려보고 있었다. 그의 한쪽 눈은 까만 구슬처럼 작고 반들거렸으며, 다른 한쪽 눈은 크고

둥글며 새파랗게 빛났다. 그것은 벽이며 문은 물론, 심지어 자기 머리 뒤에 있는

것까지 모두 깨뚫어 볼 수 있는 마법의 눈이었다.

"저 아이가 분명한 거요, 루핀?" 무디가 툴툴거렸다. "혹시라도 죽음을 먹는 자가 그 녀석으로 변장한 걸 모르고 데려간다면, 꼴좋게 되는거요. 그러니 진짜 포터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 봐야만 하오. 혹시 베리타세럼을 가진 사람없나?"

"해리, 너의 패트로누스는 어떻게 생겼지?" 루핀이 물었다.

"수사슴이요." 해리가 약간 짜증스러운 듯이 대답했다.

"틀림없어요. 매드아이 교수님." 루핀이 말했다.

일제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해리는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꽂았다.

"이 녀석아. 지팡이를 거기다 꽂으면 어떻게 해!" 무디가 호통을 쳤다.

"그러다가 불똥이라도 튀면 어떻게 하려고! 너보다 잘난 마법사들도 그러다가 엉덩이를 잊은 경우가 허다해!"

"정말로 엉덩이를 다친 마법사를 알고 계신단 말인가요?"

보라색 머리카락의 마녀가 궁금한 듯이 매드아이에게 물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뒷주머니에 지팡이나 넣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구려!" 매드아이가 면박을 주었다. "기초적인 지팡이 안전 규칙인데, 이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매드아이는 부엌 쪽으로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내 눈에는 다 보여."

마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눈을 위로 치켜뜨며 그를 노려보는 순간, 매드아이가

통명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루핀은 손을 내밀어 해리와 악수를 나누었다.

"잘 지냈니?"

루핀이 해리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자-잘 지냈어요."

해리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사 주 동안 단 한마디 소식도 없이. 그를 프리벳가에서 데려갈 것 같은 기미조차 없다가, 마치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처럼 갑자기 마법사들이 떼를 지어 이 집에 나타나다니.....

해리는 루핀을 둘러싸고 서 있는 마법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아직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해리는 무려 나흘 동안이나 머리를 빗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저-때마침 더즐리 가족이 외출했을 때 오셔서 참 다행이네요." 해리가 더듬더듬 말했다.

"다행이라고! 하!" 보라색 머리의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 사람들을 집 밖으로 불러낸 게 바로 나였어. 머글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지. 전 영국 교외지역 최고 잔디밭 경연 대회의 후보 명단에 올랐다고 말이야. 그자들은 지금 시상식에 가고 있을 거야.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해리는 전 영국 교외지역 최고 잔디밭 경연대회라는 게 아예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버논 이모부가 어떤 표정이 될까 잠깐 상상해 보았다.

"우리는 떠날 거죠? 금방 갈 건가요?" 해리가 물었다.

"곧바로 갈 거다. 위험 해제 경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어디로 갈 거죠? 버로우?" 해리가 기대에 차서 물었다.

"버로우는 아니란다." 루핀이 해리에게 부엌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몇몇 마법사들이 여전히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해리를 바라보며 뒤를 쫓아왔다. "너무 위험해, 우리는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 본부를 설치했단다. 시간이 좀 걸렸지...."

매드아이 무디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휴대용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었다. 한편 마법의 눈은 온 사방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더즐리 집 안의 수많은 가전제품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해리, 이쪽으로 헬러스터 무디 교수님이시다." 루핀이 무디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 저도 알아요." 해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1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새로 소개받으려니 기분이 묘했다.

"그리고 이쪽은 님파도라~"

"날 님파도라라고 부르지 말아요, 리무스." 젊은 마녀가 진저리를 치며 싫어했다. "그냥 통스라고 불러 줘요."

"좋아요. 이쪽으로 오직 성으로만 불리기를 원하는 님파도라 통스."

"엄마가 이름을 바보같이 님파도라라고 지었다면, 당신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통스가 투덜거렸다.

"이쪽은 킹슬리 샤클볼트."

루핀 교수가 검은 망토를 입은 키 큰 마법사를 가리키자, 그가 꾸벅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엘피아스 도지."

말할때마다 썩썩 숨소리가 나는 마법사가 고개를 까닥했다.

"데달루스 디글~."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잔뜩 흥분한 디글이 감격에 겨운 듯 보라색 중산모를 손에서 떨어뜨리며 목이 메어 말했다.

"에멀린 밴스."

에머랄드빛 초록색 솔을 걸친, 기품이 있는 한 마녀가 살짝 머리를 숙였다.

"스터지스 포드모어."

네모난 턱에 짙은 밀짚 색깔의 머리카락을 지닌 마법사가 눈을 찡끗했다.

"헤스티아 존스."

두 뺨이 발그레한 검은 머리카락의 마녀가 토스터 옆에서 손을 훔들었다.

해리는 한 사람씩 소개될 때마다 어색하게 머리를 숙였다.

제발 자기를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았다. 난데없이 무대 위로 끌려 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마법사들이 찾아왔는지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줄지어 널 데리러 가는 일을 맡겠다고 나섰단다."

루핀이 해리의 마음속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입술 양쪽 끝이 살짝 실룩거렸다.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포터, 우리들은 너의 호위대니까." 무디가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약 십오 분 전쯤에 도착했는데, 떠나도 좋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루핀이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슬쩍 내다보며 말했다.

"이 머글들은 정말 깨끗하군요. 그렇죠?" 통스라는 마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부엌 안을 자세히 둘러보았다. "우리 아버지는 머글 태생인데. 노인네가 게으르기 짹이 없거든요, 아마 머글들도 제각각인 모양이죠? 마법사들이 전부 다른것처럼 말이예요."

"네? 아- 그렇죠." 해리가 루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전 아무한테도 소식을 못 들었어요. 도대체 볼-"

"쉿!"

대여섯 명의 마녀와 마법사들이 일제히 이상한 소리를 냈다.

데달루스 디글은 또다시 모자를 떨어뜨렸고 무디는 버럭 호통을 쳤다.

"입 다물지 못해!"

"네?"

"여기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건 너무 위험해."

무디가 평범한 한쪽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또 다른 마법의 눈은 여전히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제기랄!" 무디는 신경질을 내면서 한 손으로 마법의 눈을 만졌다. "그 찌꺼기가 한 번 앓았던 이후로는 계속해서 달라붙는군."

그러더니 마치 개수대에서 고무 마개를 뺄 때처럼 쪽 하는 소리를 내며, 눈알을 쑥 뺏다.

"매드아이. 그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것인지 아세요?" 통스가 아무 스스럼없이 말했다.

"해리, 물 한 잔 가져다 주렴." 무디가 부탁했다.

해리는 개수대로 가서 깨끗이 씻어 놓은 유리잔을 꺼내 물을 가득 담았다.

그때까지도 마법사들은 여전히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끈질긴 시선에 해리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건배." 해리에게 유리잔을 건내받자, 무디가 말했다.

그러고는 마법의 눈알을 물속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눈알은 빙글빙글 돌면서 주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 보았다. "돌아가는 여행 때에는 360 도 전부 볼 수 있어야 하거든."

"어떻게 갈 건데요? 아니, 어디로 갈 거죠?" 해리가 물었다.

"빗자루를 타고 갈 거야." 루핀이 대답했다. "그 방법밖에 없단다. 순간이동 마법을 쓰기엔 넌 너무 어려. 플루 가루 네트워크는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 테고, 그렇다고 불법 포트키를 설치하는 건 너무 위험해."

"리무스 말이 네가 빗자루를 아주 잘 탄다는데." 킹슬리 샤클볼트가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뛰어나죠." 루핀이 말을 하며 재빨리 시계를 살펴보았다. "어쨌든 어서 가서 짐을 싸는게 좋겠다, 해리. 신호가 오면 바로 떠나야 하니까 말이다."

"내가 도와줄게."

통스가 선뜻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해리의 뒤를 따라서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줄곧 신기한 듯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재미있는 곳이구나, 그래도 너무 깨끗한걸. 내 말이 무슨뜻인지 알지? 좀 이상해, 어머, 여긴 훨씬 낫구나." 해리가 들어가서 불을켜자, 통스가 말했다. 물론 그의 방은 집 안의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지저분했다.

너무 우울한 상태에서 나흘이나 갇혀 지내다 보니, 해리는 자기 방 정리하는 것도 귀찮았다. 방바닥에는 온통 책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다가 옆으로 내던져 버리곤 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헤드위그의 새장은 슬슬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활짝 열린 그의 트렁크 밖으로는 머글의 옷과 마법사의 옷이 마구 뒤섞인 채, 반쯤 흘러나와 있었다.

해리는 황급히 책들을 집어서 트렁크 안으로 던져 넣었다. 통스는 활짝 열린 그의 옷장 앞에 서더니, 문 안쪽에 붙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보라색은 나에게 썩 어울리는 색깔이 아닌 것 같아." 통스는 빼쭉빼쭉한

머리카락을 한 웅큼 잡아당기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머리 때문에 더 뾰족해 보이는 것 같지 않니?"

"음....."

해리는 <영국과 아일랜드 퀴디치 팀>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 확실해." 통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뭔가 생각해 내려고 애를 쓰는 듯이 눈을 꼭 감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자, 순식간에 머리카락을 분홍 풍선껌 색깔로 바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해리는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다시 눈을 뜨는 그녀를 바라 보았다.

"나는 변신 마법사야." 통스는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머리 모양을 잘 볼 수

있도록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

통스가 거울을 통해 어리둥절해하는 해리의 표정을 슬쩍 보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 덕분에 공부 한 번 하지 않고 오려 훈련기간 동안 은신과 위장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 정말 굉장했어."

"그럼. 당신이 오러란 말인가요?" 해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어둠의 마법사를 잡는 오러는, 해리가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에 하고 싶은 유일한

직업이었다.

"그래." 통스가 자랑스런 표정으로 대답했다. "킹슬리도 마찬가지란다. 나보다 약간 더 직급이 높아. 나는 오러 자격을 딴지 겨우 1년밖에 안 됐거든. 잠복 잠행과 미행술 과목에서는 낙제를 할 뻔했어. 나는 행동이 무척 굼떠서 말이야. 우리가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접시 깨지는 소리 들었니?"

"변신 마법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해리는 짐 싸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스에게 물었다.

통스가 킬킬거렸다.

"이따금 그 흉터를 숨기고 싶은 모양이지?"

통스의 시선이 해리의 이마에 난 번개 모양 흉터로 향했다.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에요."

해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허 돌아섰다. 사람들이 그의 흉터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걸 배우려면 굉장히 힘들 거야. 변신 마법사는 무척 드물거든, 사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란다.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모습을 바꾸려면 지팡이나 약을 써야만 하지. 어쨌든 해리. 우리는 곧 떠날 거야.

그러니까 어서 짐을 싸야만 해." 통스는 방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진 물건들을 바로보며, 자책하듯이 말했다.

"아- 맞아요."

해리는 책 몇 권을 주섬주섬 주워 들었다.

"바보같이 굴지 마, 해리 차라리 이 편이 훨씬 빠르겠구나. 팩!"

통스가 큰 소리로 외치며 지팡이를 마루 위로 크게 휘둘렀다.

그러자 책과 옷가지, 망원경, 저울 등 온갖 물건들이 허공으로 둉뚱 떠오르더니 가방 속으로 뒤죽박죽 빨려 들어갔다.

"별로 깔끔하지 않군." 통스는 트렁크로 가까이 다가가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엄마는 말끔하게 짐 싸는 요령을 알고 계시던데, 심지어 양말까지 저절로 착착 개지도록 한단 말이야. 하지만 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겠어. 지팡이를 어떻게 탁 하고 통기던데."

통스는 시험 삼아 지팡이를 탁 통겼다. 그러자 해리의 양말들 중에 한 켤레가 쭈글쭈글 접히는 듯하더니 가방 안에 뒤죽박죽 쌓여 있는 물건들 더미 위로 톡 떨어졌다.

"흠. 어쨌든." 톰스는 가방 뚜껑을 턱 소리 나게 닫으며 말했다. "최소한 물건은

다 들어갔군, 저 새장도 약간 청소를 해야겠는데."

톰스는 헤드위그의 우리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스코지파이!" 그러자 깃털과 새똥이 일부 사라졌다. "이건 그나마 좀 낫군. 난 이런 집안일 주문에는 영 익숙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좋아, 짐은 다 쌌니?

냄비는? 빗자루는? 우와! 파이어볼트 잖아?"

해리의 오른손에 들린 빗자루를 보자. 톰스의 눈이 휙동그래졌다.

시리우스에게 선물받은 이 국제 표준 규격의 빗자루는 해리의 기쁨이자 자랑거리였다.

"난 아직도 카미트 260 을 타고 다니는데...." 톰스는 무척 부러워했다.

"지팡이는

아직도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니? 양쪽 엉덩이 모두 아직 무사하겠지?

좋아, 어서 가자. 로코모토르 트렁크!"

순간 해리의 트렁크가 허공에 둉둥 떻다. 톰스는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듯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트렁크가 방 안을 지나서 그들보다 먼저 문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원손으로 헤드위그의 새장을 들었다. 해리는 빗자루를 들고

그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 뒤쪽에서는 무디가 마법의 눈을 다시 제자리에 끼우고 있었다. 깨끗이 씻고 나자. 마법의 눈은 더욱더 빠르게 팽팽 돌았다. 해리는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날 정도였다. 킹슬리 샤클 볼트와 스터지스 포드모어는 전자레인지를 신기한 듯이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었고, 헤스티아 존스는 서랍 안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감자 껍질 벗기는 칼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다.

한편 루핀은 더즐리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봉하고 있었다.

"아주 좋아." 루핀이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톰스와 해리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정원으로 나가서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 해리, 내가 네 이모와 이모부님께 걱정하시지 말라고 편지를 썼다."

"걱정 안 할걸요." 해리가 말했다.

"어쨌든 네가 무사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 실망하겠군요."

"그래도 내년 여름에나 다시 보게 될 텐데..."

"꼭 그래야 하나요?"

루핀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리 와라 예야." 무디가 투명스럽게 지팡이를 흔들며 해리를 불렀다. "너에게 투명 마법을 걸어야 겠다."

"뭘 하신다고요?" 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투명 마법 말이다." 무디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며 말했다.

"루핀 말을 들으니. 너에게 투명 망토가 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다 보면, 투명 망토가 그냥 불어 있진 않을 게다. 그러니 네 모습을 감추는 게 더 나아. 자. 이렇게~"

무디는 해리의 머리 꼭대기를 톡톡 쳤다. 해리는 마치 머리위에서 계란을 깨뜨리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팡이가 달았던 곳에서부터 차갑고 끈끈한 액체가 흘러내려 온몸을 뒤덮는 것 같았다.

"멋진 솜씨예요, 매드아이." 톰스가 해리의 가슴 부분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해리는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몸이었던 부분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의 몸이 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주변 부엌과 똑같은 색깔과 무늬를 띠게 되었을 뿐이었다. 해리는 마치 인간 카멜레온이 된 것 같았다.

"이리들 오시오." 무디가 지팡이로 뒷문을 열었다.

그들은 일제히 공들여 손질한 버논 이모부네 잔디밭으로 나갔다.

"구름 한 점 없는 밤이군."

마법의 눈으로 하늘을 살펴보던 무디가 투덜거렸다.

"구름이 조금만 가려 주면 좋을 텐데. 이봐!" 무디가 해리를 향해 소리쳤다.

"우린 바싹 붙어서 나아갈 거야. 통스가 바로 네 앞에 갈 거다. 그러니 그 뒤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야 한다. 루핀이 밑에서 널 엄호할 거다. 나는 네 뒤에 있을 거야. 나머지 마법사들은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며 날아가게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열을 흐르려면 안 된다. 알겠지? 만약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죽더라도!"

"그럴 수도 있나요?" 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무디는 그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날아가야만 해. 절대 멈춰서는 안된다. 대열을 무너뜨리면 안 돼. 만약 저들이 우리 모두를 쓰러뜨리고 너만 살아남는다 해도, 또 다른 경호대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개의치 말고 계속 날아가렴. 그들이 곧 너와

합세할 게다."

"매드-아이, 그런 농담은 그만 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어요."

통스가 해리의 짐 가방과 헤드위그의 새장을 자기 빗자루 뒤에 끈으로 매달면서 말했다.

"난 그저 저 녀석에게 우리 계획을 말해 준 것뿐이야." 무디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임무는 저 녀석을 무사히 본부까지 데려다 주는 거라고. 만약 도중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킹슬리 샤클볼트가 글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빗자루에 올라타요. 첫 번째 신호예요!" 루핀이 하늘을 가르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머리 위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별들 사이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해리는 그것이 자팡이에서 나온 불꽃이라는 걸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파이어볼트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빗자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당장에라도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았다.

"두 번째 신호다! 이제 떠납시다!" 루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번에는 더욱 커다란 초록색 불꽃이 그들 머리 위에서 폭발했다.

해리는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 올랐다. 시원한 밤공기에 그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말끔하게 손질된 프리벳가의 네모난 잔디밭이 멀어지면서 순식간에 어두운 초록색 반점으로 줄어들었다. 마법부 청문회에 대한 걱정 따위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해리는 너무 기빠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프리벳가로부터 멀리 날고 또 날아올랐다. 지난여름 내내 이런 순간을 얼마나 꿈꿔 왔던가.

드디어 나의 세계로 돌아간다..... 별이 반짝이는 드넓은 하늘로 올라오니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순식간에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왼쪽! 왼쪽으로! 저기 머글 한 명이 위를 쳐다보고 있다!" 무디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러자 통스가 재빨리 방향을 바꾸었다. 뒤를 따르던 해리도 그녀를 쫓아갔다. 통스의 빗자루에 매달린 그의 트렁크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좀 더 높이 올라가야겠어. 4 백 미터 더 높이!"

더 높이 솟아오르자, 해리는 너무 주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제 발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전조등과 가로등 불빛만이 조그맣게 깜박거릴 뿐이었다. 저 작은 불빛 중에 두 개는 아마 버논 이모부의 자동차 불빛일 것이다..... 지금쯤 더줄리 가족은 있지도 않은 잔디밭 경연 대회

때문에 잔뜩 열이 나서 텅 빈 집으로 돌아오고 있겠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해리는 그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트렁크와 새장을 매단 통스의 빗자루 안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다른 마법사들의 망토 펄럭이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컷전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파묻혀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해리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 살아 있는 듯한 기분을, 짜릿한 행복감을 느꼈다.

"남쪽 방향으로! 전방에 마을이 있다!" 매드아이가 소리쳤다.

그들은 저 아래 빛나는 거미줄처럼 보이는 불빛 위를 곧장 지나치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남동쪽으로 방향을 돌린 다음, 계속 상승하라. 전방에 낮은 구름이 있다! 구름 속에 몸을 숨겨라!"

"구름 속을 지나갈 순 없어요! 그러다가는 몽땅 젖어 버릴 거예요. 매드아이!" 통스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해리는 이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지 않아도 파이어볼트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손이 얼얼하게 마비되는 중이었다. 어째서 외투를 걸치고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다. 해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들은 이따금씩 매드아이의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세찬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와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두 귀가 칼로 에는 듯이 아팠다. 해리는 전에도 빗자루를 타고 이렇게 추웠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다. 3학년 때 후플푸프 팀과 세찬 폭풍우 속에서 퀴디치 시합을 치른

적이 있었던 것이다.

해리를 둘러싼 호위대들은 마치 거대한 새처럼 끊임없이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해리는 시간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빗자루를 타고 날기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궁금했다. 적어도 한 시간은 된 것 같았다.

"남서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고속도로는 피해가는 게 좋겠야!" 무디가 소리쳤다. 이제 해리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 밑에서 줄지어 달려가는 아득하고 상쾌한 자동차 애니 애타게 그립고, 플립 가루로 여행하던 일이 더욱더

간절하게 생각났다. 벽난로 안에서 빙빙 도는 게 불편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불길 속에 있으면 따뜻했다..... 그때 킹슬리 샤클볼트가 갑자기 그에게로 와락

다가왔다. 그의 벅거진 머리와 귀고리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해리의 오른쪽에서는 에멀린 밴스가 날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높이 치켜든 채, 열심히 오른쪽, 윈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해리의 머리 위를 획지나서 스터지스 포드모어와 다시 자리를 바꾸었다.

"잠깐 되돌아가는 척해! 혹시 미행을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하니까!" 무디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미쳤어요, 무디?" 앞쪽에 있던 통스가 비명을 질렀다. "우린 지금 모두 빗자루에 얼어붙어 죽을 지경이라고요! 이대로 계속 길을 벗어난다면, 다음 주가

되어도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하강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통스의 뒤를 따라가거라, 해리!" 루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통스를 따라서 밑으로 급강하했다. 그들은 무수한 불빛들이 거대하게 모여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 광경은 생전 처음이었다. 불빛들이 가로 세로로 줄지어 서 있고 점점이 까만 어둠이 박혀 있는 열십자 형의 거대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갔다. 자동차 전조등과 가로등. 굴뚝, 텔레비전 안테나까지 하나하나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다. 해리는 한시라도 빨리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다. 그가 빗자루에서 떨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 녹여줘야

할 것 같았다.

"이리로!" 통스가 소리쳤다. 그리고 몇 초 후에 그녀는 땅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해리는 곧바로 그녀의 뒤를 이어서 착륙했다. 그리고 작은 광장 한가운데 있는, 거친 잔디밭 위에 내렸다. 통스는 벌써 빗자루에서 해리의 가방을 풀고 있었다. 해리는 몸을 부르르 떨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누추하고 지저분한 주변의

집들이 썩 달갑게 보이지는 않았다. 어떤 집들은 심지어 유리창이 깨진 채, 가로등 불빛 속에 음침하게 서 있었다. 대부분의 현관문은 칠이 벗겨져 있었고, 현관 계단 앞에는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해리가 물었다. 하지만 루핀은 조용히 대답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무디는 망토 안을 열심히 뒤적거리고 있었다. 마디진 그의 손은 추위에 얼어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다.

"찾았다." 무디가 중얼거렸다.

그는 은색 라이터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들더니 탁 하고 켰다. 그 순간 퍽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가로등이 꺼졌다. 무디가 또다시 그 불 끄는 라이터를 찰칵 하고 누르자, 바로 옆에 있던 가로등이 나갔다. 그는 광장 안에서 있는 가로등이 모두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마침내 남은 것이라곤 커튼이 드리워진 유리창들에서 훌러나오는 불빛과 머리 위에 떠 있는 초승달뿐이었다.

"덤블도어에게 빌렸지." 무디가 불 끄는 라이터를 다시 호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머글이 있어도 문제없겠지? 자, 이제 어서 가자."

무디는 잔디밭 밖으로 해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리고 길을 건너 인도로 올라갔다. 루핀과 통스는 해리의 트렁크를 나란히 들고 그 뒤를 따랐다. 호위를 맡은 다른 마법사들은 저마다 지팡이를 뽑아 들고 축면을 엄호했다.

가장 가까운 집의 2 층 창문에서는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훌러나오고 있었다. 부서진 대문 바로 안쪽에는 터질 듯 깽깽 채워진 쓰레기봉투가 잔뜩 쌓여 있었고, 쓰레기 썩는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여기 있다." 무디가 투영 마법에 걸린 해리의 손을 향해 양피지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안에 적힌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불이 켜진 지팡이를 가까이 갖다 댔다. "빨리 읽고 외우도록 해라."

해리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가느다란 글씨체가 웬지 낯이 익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사조 기사단의 본부는 런던 시 그리볼드 광장 12 번지에 있음.

해리가 막 입을 떼자마자, 무디가 호통을 쳤다.

"여기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무디는 해리의 손에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빼앗아 지팡이 끝으로 불을 붙였다.

편지가 도르르 말리며 활활 타오르더니 재가 되어 날아갔다. 해리는 주위 집들을

다시 한 번 둘러보았다. 그들은 11 번지 앞에 서 있었다. 해리는 원쪽에 있는 집을 살펴보았다. 10 번지였다. 하지만 오른쪽을 살펴보니, 그 집은 13 번지였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가-?"

"네가 방금 외운 것을 떠올려 봐." 루핀이 조용히 말했다. 해리는 가만히 머릿속으로 종이에 쓰인 주소를 생각하며, 그리볼드 광장 12 번지 근처로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11 번지와 13 번지 사이 어디에선가 갑자기 낡은 문이 불쑥 나타났다. 곧이어 지저분한 담과 새까맣게 그을음이 앉은 창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양쪽 집을 옆으로 밀치고 새로운 집 한 채가 솟아난 것 같았다. 해리는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1 번지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가

쿵쿵거렸다. 집 안에 있는 머글들은 아무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어서, 서둘러."

무디가 해리의 등을 떠밀며 재촉했다. 해리는 방금 모습을 드러낸 문을 바라보며, 오래된 돌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검은색 대문은 허름하고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었다. 은으로 된 문손잡이는 비틀린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열쇠 구멍이나 우편한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루핀은 지팡이를 꺼내더니 문을 한 번 톡 두드렸다. 그러자 철컥덕하고 요란한 금속성 소리에 뒤이어 쇠사슬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빨리 들어가라, 해리. 하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루핀이 속삭였다.

해리는 문을 지나서 캄캄한 어둠이 깔린 복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주위는 늙눅하고, 먼지 냄새와 달콤하면서도 뭔가 썩는 듯한 냄새가 풍겼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버려진 집 같은 분위기였다. 해리가 뒤를 돌아보자, 줄지어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다른 마법사들이 보였다. 루핀과 통스는 그의 트렁크와 헤드위그의 우리를 들고 있었다. 계단 꼭대기에 올라선 무디는 불 끄는 라이터 안에 가두어 놓았던 가로등 불빛들을 내보냈다. 불빛들이 전등 안으로 흘러 들어가자, 광장 안은 순식간에 다시 오렌지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무디는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현관문을 닫아 버렸다. 복도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버렸다.

"그럼 이제-"

무디가 지팡이로 해리의 머리를 세게 쳤다. 이번에는 뭔가 뜨거운 것이 등줄기를

간질이며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해리는 투영 마법이 풀렸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내가 불을 끌 테니." 무디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다들 숨을 죽이며 소곤거리는 걸 보니, 해리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종병을 앓고 죽어 가는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나지막이 깃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을 따라서 구식 가스등이 일제히 커졌다. 길고

음침한 복도에 깔린 너덜너덜한 양탄자와 벗겨진 벽지 위로 불안하게 일렁이는 불빛이 드리워졌다. 머리 위에서는 거미줄이 잔뜩 낀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을 발했고, 벽에는 오랜 세월이 흘러 시커멓게 변해 버린 초상화들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해리는 벽 밑에서 뭔가 쪼르르 도망치는 소리를 들어싼. 샹들리에와 당장에라도 부서질 것 같은 탁자 위의 가지 촛대 모두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서둘러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론의 어머니인 위즐리 부인이

복도 저 끝에서 문을 열고 나타났다. 위즐리 부인은 얼굴 한가득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해리는 부인이 지난번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마르고 안색이 나빠졌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오, 해리. 널 보니 정말 반갑구나!" 위즐리 부인은 해리를 으스러져라 꽉 껴안았다. 그리고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얼굴이 뾰족해졌구나. 좀 잘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저녁을 먹으려면 좀더 기다려야 하는데....."

위즐리 부인은 해리의 뒤에 서 있던 한 무리의 마법사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가 방금 도착했어요. 곧 회의가 시작될 거예요....."

해리의 등 뒤에서 마법사들이 저마다 흥분과 기대에 가득찬 탄성을 질렀다. 그러더니 해리의 옆을 지나쳐서 위즐리 부인이 방금 나온 문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해리도 루핀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위즐리 부인이 그를 붙잡아쌀.

"안 돼, 해리. 오직 기사단 단원들만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그 대신 론과 헤르미온느가 위총에 있단다. 그러니까 넌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애들과 함께 기다리렴. 그런 다음 저녁을 먹을 거야. 그리고 복도에 있을 땐 항상 목소리를 낮춰야만 한다." 위즐리 부인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왜죠?"

"아무것도 깨우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게 무슨-?"

"나중에 설명해 주마. 지금은 좀 바쁘구나. 나도 회의에 참석해야만 하거든. 우선 네가 잠잘 곳만 알려 주고 가야겠다."

위즐리 부인은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여기저기 좀이 슨 긴 커튼 뒤로 그를 안내했다. 해리는 그 뒤에 또 다른 문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트롤의 다리 한 짹을 잘라 놓은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우산꽃이를 지나서,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쪽 벽에는 장식대 위에 쪼글쪼글한 머리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집요정들의 머리였는데, 하나같이 코가 돋지처럼 뭉툭했다.

해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점 더 궁금증만 커질 뿐이었다. 어둠의 마법사들이나 살 법한 이런 집에서 도대체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위즐리 아줌마, 어째서-?"

"론과 헤르미온느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거란다. 난 금방 가야만 해." 위즐리 부인은 뭔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듯 보였다. 그들이 두 번째 총계참에 이르자, 부인이 말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문이 있다. 회의가 끝나면 널 부르러 올게."

위즐리 부인은 서둘러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해리는 어두컴컴한 총계참을 지나서 뱀의 머리처럼 생긴 손잡이를 돌려 방문을 열었다.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천장이 높고 어둑어둑한 방에 침대가 두 개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환호성이 울리고 이어서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부스스하게 부푼 머리가 해리의 눈앞을 완전히 가로막아쌀. 헤르미온느가 와락 몸을 날려 그에게 안긴 것이다. 그 바람에 해리는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한편 론의 새끼부엉이, 피그위존은 흥분을 못 이겨 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맴돌았다.

"해리구나! 론, 해리가 왔어! 해리가 왔단 말이야! 우린 네가 오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는 거지? 우리 때문에 화나지 않았니?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우리가 보낸 편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됐을 테니까. 하지만

너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덤불도어 교수님께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거든. 오, 너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 너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 디멘터에게 당했다며! 그 이야기랑 마법부 청문회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펄펄 뛰며 분노했다고. 내가 법전을 조사해 봤는데, 마법부는 절대 널 추방할 수 없어. 그렇고말고, 미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에도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마법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헤르미온느, 해리에게도 잠시 숨 돌릴 틈을 줘야지." 론이 씩 웃으며 해리 뒤에서 방문을 닫아쌀. 헤어져 있는 몇 달 동안, 론은 키다 15 센티미터는 더 자란 것 같았다. 길쭉한 코와 붉은색 머리카락, 주근깨 등은 여전했지만, 훨씬 더

껑충하고 호리호리하게 보였다.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싱글벙글하면서 해리를 놀아주었다. 하지만 미처 그녀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뭔가 하얀 것이 까만 옷장 위에서 가볍게 휙 날아올라 해리의 어깨 위에 살짝 내려앉아쌀.

"헤드위그!"

눈처럼 하얀 부엉이가 부리를 딱딱 부딪히며 다정하게 해리의 귀를 깨물었다. 해리는 그의 날개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녀석은 자기 임무를 다했어." 론이 말했다. "너의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더니, 거의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쪼아대더군. 이걸 봐."

론은 해리에게 오른쪽 가운뎃손가락을 보여 주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반쯤 아울기는 했지만, 여전히 깊이 파인 상처가 남았던 것이다.

"그래, 그건 미안해. 하지만 난 대답이 듣고 싶어서....." 해리가 말끝을 흐렸다.

"물론 우리도 너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었어." 론이 변명을 했다. "헤르미온느는 잔뜩 안달이 나서, 이렇게 아무 소식도 없이 널 혼자 내버려 두었다가는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출곧 걱정을 늘어놓았지,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맹세를 시켰겠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해리가 론의 말을 차갑게 가로챘다. "그래, 그 이야기는 헤르미온느에게 벌써 들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친구의 모습을 다시 보는 순간 해리의 마음속에서 훈훈하게 타올랐던 열기가 싹 식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얼음처럼 차가운 응어리가 맺혔다. 한 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해리는 차라리 헤르미온느와 론이 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해리는 두 친구를 외면한 채 괜히 헤드위그만 자꾸 쓰다듬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 헤르미온느가 마음을 졸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덤블도어 교수님 생각에는 말이야" "알었어"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손가락에도 헤드위그의 부리에 쪼인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걸 알아챘지만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네가 그 머글들과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 론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래?" 해리가 눈썹을 추켜올렸다 "그럼 너희들 중에 올여름 동안 디멘터들에게 공격당한 사람 있니?"

"아니, 없었어 하지만 그렇게 때문에 덤블도어 교수님이 불사조 기사단 사람들을 보내서 온종일 네 뒤를 따라다니게 했던—" 그 말을 듣는 순간 해리는 마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한 듯이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자기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더군 안 그래?" 해리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국에는 나 혼자 싸워야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노발대발했지" 헤르미온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 말이야 우린 그 모습을 봤어 먼던구스가 교대 시간전에 자리를 비운 걸

덤블도어 교수님이 알았을 때 그 얼굴이 어찌나 무섭던지"

"나로서는 그가 자리를 비워서 오히려 다행이군" 해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마법을 쓸 일도 없었으리고 덤블도어 교수님은 아마도 올여름 내내 나 르프리벳가에 처박아 놓았을 테니까 말이야"

"넌... 넌 마법부 청문회가 두렵지도 않니?"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해리는 단호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방 안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헤드위그는 만족스러운 듯이 그의 어깨 위에 얹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방은 좀처럼 그의 기운을 북돋아 줄 것 같지 않아 쌠다. 너무 농눅하고 어두웠다. 벽지가 벗겨진 활량한 벽에 걸려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텅 빈 캔버스가 끼워진 장식용 액자 뿐이었다. 그 앞을 지날 때, 해리는 문득 누군가 액자 안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며 킬킬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어째서 날 그렇게 어둠 속에 가둬 놓으려고 애를 쓰신 거지? 너희들은 그 이유를 한번 여쭤 보기라도 했니?"

해리는 여전히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물었다. 그리고 론과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을 드디어 해리가 던졌구나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더욱더 해리를 화나게 했다.

"우리는 덤블도어 교수님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에게도 알려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론이 설명했다.

"정말이야. 하지만 요즘은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도 여기 온 이후로 딱 두 번밖에 뵙지 못했어. 그것도 아주 짧게만. 겨우 너에게 보내는 편지에 중요한 내용을 쓰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하셨을 뿐이야. 도중에 부엉이가 납치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도 교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었어" 해리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설마 교수님이 부엉이를 통하지 않고 달리 연락할 방법을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겠니?"

헤르미온느가 론을 한 번 슬쩍 쳐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교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

"내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모양이군"

해리는 두 친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건 너무 심하다"

론이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면 내가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셨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 건 절대로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불안한 듯이 소리쳤다.

"그렇다면 너희 두 사람이 여기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왜 나는 더즐리 식구들과 함께 있어야 했던 거냐구?"

해리의 입에서는 성급하게 말이 마구 튀어나왔다. 그리고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점점 더 언짢아졌다.

"어떻게 너희 두 사람한테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다알려 주면서--"

"그렇지 않아!" 론이 해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는 우리가 회의실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질색했어 우린 너무 어리다면서..."

그 순간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있는 대로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냐말이지? 그거 참 대단한 배려였구나!

그래도 너희들은 여기 이곳에 있었잖아, 안 그래? 너희들은 출곧 둘이 함께 있었잖아! 나는 한 달 동안이나 더즐리네 집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어. 난 너희

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덤블도어 교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셔. 마법사의 돌을 구한 게 누구야? 리들을 없앤 게 누구지? 디멘터로부터 너희 둘의 목숨을 구해 낸 게 누구냔 말이야!"

지난 한 달 동안 해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섭섭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무 소식도 없는 것에 대한 초조감, 자기만 빼놓고 모두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서운함, 계속 미행을 당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까맣게 몰랐다는 것에 대한 분노, 해리 자신도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폭발하고 만 것이다. 해리의 고향 소리에 화들짝 놀란 헤드위그가 옷장 위로 다시 날아 올라갔다. 피그위존도 잔뜩 겁을 집어먹고 찍찍거리며 그들의 머리 위를 더욱 빠르게 맴돌았다.

"용이니 스팽크스니, 그 바겐 온갖 꿈쩍한 괴물들을 상대했던 게 누구였지?
다시 돌아온 그자를 본 사람은 또 누구였어? 그자를 피해 달아나야만 했던 게 누구였냐고? 바로 나야!"

론은 입을 헤벌린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완전히 얼이 빠져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봐야만 하지? 왜 누군가 나에게 일부러 그 사실을 알려 줘야 하는 수고를 끼쳐야 하느냐 말이야!"

"해리, 우리도 너에게 말해 주고 싶었어. 정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절실히 원하진 않았던 거지. 그렇지? 그랬다면 너희는 내게 부엉이를 보냈을 거야.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희에게 맹세를 시켰겠지--"

"그래 그러셨어"

"나는 사주 동안이나 프리벳가에 틀어박혀 있었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쓰레기통에서 신문지 조각을 뒤지면서 말이야--"

"우리는 너에게--"

"그 동안 너희들은 깔깔대며 좋아했겠지, 안 그래? 모두 다함께 여기에 숨어 있으면서..."

"맹세코 그렇지 않아!"

"해리 정말 미안해!" 헤르미온느가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해리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너였어도 화가 나서 펄펄 뛰었을 거야!"

해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획 돌아서서 방 안을 서성거렸다. 헤드위그는 옷장 위에서 우울하게 부엉부엉 울었다. 한동안 긴

춤복이 이어졌다. 해리의 발 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루의 신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여긴 뭐하는 데야?"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불사조 기사단의 본부야"

론이 재빨리 대답했다.

"혹시 그 불사조 기사단이란 게 뭔지 나에게 알려 줄 사람 없어?"

"비밀 결사단이야 덤블도어 교수님이 처음 만들었고 지금까지 책임을 맡고 있어 지난번에 그 사람과 맞서 싸웠던 마법사들이야"

"누가 속해 있는데?"

해리는 호주머니의 손을 집어넣은 채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꽤 많아--"

"우리는 약 스무 명 정도 만나 봤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해리가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래서?"

해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저... 그래서 뭐?"

"볼드모트 말이야!"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지르자, 론과 헤르미온느 두 사람 모두 얼굴을 찡그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야? 그자는 어떻게 됐지? 지금 어디 있어? 그를 어떻게 막을 생각이지?"

"벌써 말했잖아. 우리는 기사단 회의에 끼워 주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짐작만 할 뿐이야"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표정을 살피며 황급히 한 마디 덧붙였다
"프레드와 조지가 늘어나는 귀를 발명했는데 아주 유용해"

"늘어나는 뭐?"

"귀 말이야 하지만 얼마 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엄마가 아시고 펄펄 뛰었거든 프레드와 조지는 엄마가 그것들을 상자에 가둬 넣기 전에 그것들을 놓았던 걸 깨닫고는 그들을 놓았지만 엄마가 눈치 채시기 전까지는 그 늘어나는 귀를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지 우리는 기사단 단원 중 일부는 죽음을 먹는 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아아냈어. 계속 그들을 감시하는 거지"

"또 몇 명은 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기사단원으로 뽑으려고 작업 중이야" 헤르미온느가 말을 이었다.

"어떤 단원들은 원가를 지키고 있어 그들은 항상 경비 임무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군"

론이 말했다

"그들이 지키는 게 나였을 수도 있겠군 안 그래?" 해리가 비꼬듯이 말했다.

"아 맞아"

론이 그제야 원가 짐작이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해리는 흥하고 콧방귀를 꾸었다 그리고 다시 헤르미온느와 론을 외면한 책 방 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면서 너희 두 사람은 뭘 하고 지냈니? 그래도 굉장히 바빴다면서?"

"그랬어"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대답했다 "우리는 이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지 꽤 오랫동안이나 비워 둔 탓에 온갖 것들이 자라고 있었거든 이제 간신히 부엌을 끝내고 침실 대부분을 청소했어 그리고 내일은 객실을 청소할 생각- 어머나 깜짝이야!"

꽝꽝하고 두 번 큰 소리가 나더니 론의 쌍둥이 형들인 프레드와 조지가 방 한 가운데 모습을 나타냈다. 피그위존은 더욱더 미친듯이 끼찍거리더니 옷장 위에 앉아 있는 헤드위그의 곁으로 흑 날아가 앉았다.

"그런 짓 좀 그만 해!"

헤르미온느가 쌍둥이 형제에게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쌍둥이 형제는 론과 마찬가지로 불타는 듯이 선명한 빨간색 머리카라겐 다소 키가 작고 땅딸막했다.

"안녕 해리" 조지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너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찾아왔지"

"해리 그렇게 꾹꾹 참지 말고 차라리 화를 내" 프레드 역시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말했다 "80킬로미터 밖에서도 네 목소리가 다 들렸을 거야"

"결국 다 사람 다 순간이동 마법 시험을 통과한 모양야지?"

해리가 통명스럽게 물었다.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불었지" 프레드가 대답했다. 그의 손에는 살구색의 아주 긴 끝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아래층까지 걸어간다고 해도 겨우 삼십 초밖에 더 안 걸리는 걸 봄 그래" 론이 핀잔을 주었다.

"절부지 동생이여 시간은 금이야" 프레드가 말했다 "어쨌든 해리 네가 우리의 수신 작업을 방해했어 늘어나는 귀 말이야"

해리가 의아한 듯이 눈썹을 추켜올리는 것을 보고 프레드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는 계단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끈을 집어 들었다

"우리는 지금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엿듣고 있는 중이었거든"

"둘 다 조심해야 할 거야" 론이 늘어나는 귀를 쳐다보며 경고했다 "만약 또다시 엄마 눈에 띄었다가는..."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서 말이지" 프레드가

말했다

그때 문이 빠걱 열리더니 사자 길기처럼 긴 빨간 머리가 나타났다.

"어머나 안녕 해리!" 론의 여동생 지니가 명랑하게 소리쳤다 "어쩐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어"

지니는 프레드와 조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늘어나는 귀를 써 봐야 아무 소용 없어 엄마가 가면서 부엌문에 접근불가 마법을 걸었거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조지가 놉시 낙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통스가 가르쳐 주었어 접근불가 마법이 걸렸는지 알아내는 방법 말이야

문에다 물 던져 봐서 물건이 문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 문은 접근불가 마법에 걸려있는 거야 내가 계단 위에서 똥 폭탄을 던졌는데 그냥 다시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문 밑으로 늘어나는 귀를 집어넣는 건 불가능해"

프레드가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었다

"이럴 수가. 늙다리 스네이프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스네이프라고! 스네이프 교수가 여기 있단 말이야?"

해리가 재빨리 소리쳤다.

"그래" 조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더니 침대 위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프레드와 지니도 그를 따라 옆에 앉았다. "뭔가 보고를 하고 있어 극비 사항을 말이야"

"멍청이" 프레드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는 이제 우리 편이야"

헤르미온느가 비난하듯이 말했다 론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멍청한 건 어쩔 수 없어 우리를 쳐다볼 때 그 표정이 꼭 그런걸"

"빌도 스네이프를 싫어해"

지니는 마치 그걸로 모든 문제의 결론이 내려갔다는 듯이 말했다.

해리는 아직도 분이 다 풀린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좀더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해리는 반대편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빌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집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무직을 지원했어 지금은 불사조 기사단에서 일하고 있지" 프레드가 설명했다

"형은 사실 그 무덤들이 그립대 하지만 다 그만한 보상이 있었지" 프레드가 능글맞게 웃었다.

"보상이라니?"

"플뢰리 델라쿠르 기억나? 그 여자가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고 그린고트에 일자리를 얻었거든"

"그리고 빌이 열심히 개인 교습을 해주고 있지"

프레드가 킬킬거렸다

"찰리도 기사단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도 루마니아에 있어 덤블도어 교수님이 가능한 많은 외국 마법사들을 데려오고 싶어하기 때문에 쉬는 날마다 그쪽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 건 퍼시가 할 수 있잖아?"

해리가 물었다 위즐리 집안의 셋째 아들이 마법부의 국제마법 협력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리의 말을 듣자 위즐리 형제들과 헤르미온느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서로를 헐끔헐끔 쳐다보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앞에서 퍼시 이야기를 꺼내지마" 론이 긴장한 목소리로 해리에게 말했다

"왜그러는 거야?"

"퍼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빠는 손에 쥐고 있는게 뭐든 다 깨뜨리시고 엄마는 울기부터 하시거든" 프레드가 설명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지니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퍼시한테 완전히 질렸어"
조지가 그답지 않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해리가 물었다
"퍼시랑 아빠가 한바탕 싸웠어 아빠가 누구랑 그렇게 크게 싸우는 건 처음
봤다니까 항상 소리를 지르는 쪽은 엄마였는데" 프레드가 대답했다 "학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 우리는 불사조 기사단과 합세하기 위해서
이리로 오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퍼시가 집에 오더니 승진을 했다고 하는거야"
"그게 정말이야?" 해리가 소리쳤다
퍼시가 대단한 야심가라는 것은 아록 있었지만 해리 생각에는 첫 직장인
마법부에서 그렇게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퍼시는 자신의
상관이 볼드모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물론 마법부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크라우치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래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랐어" 조지가 말했다"알다시피 퍼시는 크라우치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느니 마느니 하면서 한바탕 문제를 일으켰잖아
마법부에서는 퍼시가 크라우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재빨리 상부에
알렸어야만 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너도 퍼시가 어떤지 알지? 크라우치가 그에게
업무를 맡겼을 때 불평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를 승진시킬 수가 있지?"
"우리가 놀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론은 어떻게든 해리가 또다시 고함을
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았다 "퍼시는 잔뜩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왔어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기뻐하더군 그리고 아빠에게 퍼지 장관의 사무실에 자리를 얻었다고
말했지 호그와트를 졸업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된 사람으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자리였어 장관의 부보좌관 자리였으니까 말이야 퍼시는 아빠가
굉장히 감격하고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전혀 아니었지"
프레드가 씩 웃었다
"왜 그러셨지?" 해리가 물었다
"퍼지가 마법부를 헤집고 다니면서 아무도 덤블도어 교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거든" 조지가 설명했다
"요즘 마법부에서 덤블도어 교수님의 이름은 욕이나 다툼없어 모두들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괜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프레드가 말을 이었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퍼지가 누구든 덤블도어 교수와 연관을 맺는 사람은 자기
책상을 비울 각오를 하라고 큰소리를 쳤대" 조지가 말했다
"문제는 퍼지가 아빠를 의심한다는 거야 아빠가 덤블도어 교수와 친하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게다가 머글들 물건에 열광하는 것 때문에 퍼지는 항상 아빠를
좀 괴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게 퍼시랑 무슨 관계가 있지?"
해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거야 아빠는 퍼지가 퍼시를 자기 사무실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오직 퍼시를 이용해서 우리 가조고가 덤블도어 교수를
염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셨어"
해리가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퍼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도 남지"
론이 어색하게 허허 웃었다.
"퍼시는 미친 듯이 펄펄 뛰었어 그리고 온갖 끔찍한 말을 퍼부었지 그래
그랬어 자기가 마법부에 들어간 이후로 아버지의 형편없는 평판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해야만 했다는 둥 아버지는 아무 야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항상 돈이 없어서 찔찔맨다는 둥..."
"그게 정말이야?"
해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옆에 있던 지니도 마치 성난 고양이 같은 소리를

냈다

"그렇다니까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어" 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버지에게 덤불도어랑 어울려 다니는 멍청이라고 했어 덤불도어는 항상
말썽거리만 찾아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도 언젠가는 덤불도어와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도 했지 퍼시는 자기가 어디에 충성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 그게 발보
마법부라는 거야. 만약 엄마와 아빠가 마법부를 배신한다느면 자기는 당장
우리와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줄
거래 그러고는 바로 그날 밤에 짐을 싸 들고 나가 버렸어 지그은 여기 런던에서
지내고 있지"

해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욕을 했다. 언제나 론의 형제들 중에서
퍼시를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퍼시가 아버지인 위즐리
씨에게 그런 소리까지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엉엉 울다가 또 한참
넋두리를 늘어놓다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엄마는 런던에 와서 어떻게든 퍼시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퍼시는 엄마 면전에서 문을 꽂 닫아 버렸대
그러다 직장에서 아빠와 부딪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마
완전히 모르는 척하겠지"

"하지만 퍼시도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 해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퍼시가 설마 그렇게 멍청할까?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쯤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그래 그러지 않아도 두 사람이 싸우는 중에 네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렸어"
론이 재빨리 해리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퍼시의 주장은 증거라는 것이
고작해야 네 말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였어 글쎄...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퍼시는 <예언자 일보>에 난 기사를 너무 믿는 게 탈이야"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였다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해리가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심스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너-년 그동안 <예언자 일보>를 안 읽어 봤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 읽었지!" 해리가 대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 봤니?"

헤르미온느가 더욱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 볼드모트에 대해서 뭔가 기사가 났다면 분명히 1면에
났을 테니까 안 그래?"

해리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 이름을 듣자 다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기사를 찾으려면 한 면 한 면 다 읽어 봤어야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예언자 일보> 기자들이 한 주에 두세 번쯤 너에 대한 기사를 실었어"
"하지만 난 보지 못-"

"항상 1면만 읽었다면 못 본 게 당연하지"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커다란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에 대해서 슬쩍 언급하고 지나갔어
네가 무슨 농담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게 무슨-"

"솔직히 아주 악의에 찬 기사였어 리타의 기사에만 의존해서 제멋대로
썼더라고"

헤르미온느가 억지로 냉정한 척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리타는 더 이상 <예언자 일보>에 기사를 쓰지 않잖아 안 그래?"

"맞아 리타는 약속을 지켰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헤르미온느는 무척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발판을 제공했어"

"도대체 그게 뭔데?" 해리가 답답한 듯이 물었다

"예전에 리타가 썼던 기사 생각나지? 네가 바닥에 쓰러져서 흉터가 쑤신다는 말을 했다고 썼던 거?"

"그래"

해리는 리타 스키터가 자기에 관해서 썼던 기사를 좀처럼 잊을 수가 없었다

"<예언자 일보>에서는 네가 마치 위대한 비극적 영웅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하는 정신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기사를 썼어 "헤르미온느가 단숨에 말을 쏟아 냈다. 빨리 말하면 해리가 조금이라도 덜 불쾌할지 모른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튼 그자들은 너에 대해서 온갖 악랄한 중상모략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어 뭔가 황당한 기사가 실리면 '해리 포터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또 누군가 웃기는 사건을 당하기라도 하면 '부디 그자의 이마에 상처나 생기지 않기를 바라자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 그자를 송배해야 할 테니까'라고 쓰기도 하고—"

"난 다른 사람들이 날 송배해 주길 원하지 않아"

해리는 잔뜩 열을 받아서 소리쳤다

"나도 알아" 헤르미온느가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말했다.

"안다니까 해리 하지만 그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너도 알잖아? 그 사람들은 아무도 널 믿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퍼지가 있어 내길 해도 좋아 그 작자들은 거리의 마법사들이 너를 한심한 꼬마라고 생각하길 원하는 거야 유명해진 게 너무 좋고 그걸 계속 지키고 싶어서 온갖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꾸며 대는 아이라고 말이야"

"그건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어! 난 한 번도 볼드모트에게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라고 부탁한 적 없어!" 해리가 침을 튀기며 흥분했다 "내가 유명해진 건 단지 그자가 우리 가족을 죽이면서 날 죽이지 못한 탓이었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었어? 그 작자들은 내가 차라리—"

"해리 우린 알아" 지니가 진심으로 위로했다

"물론 디멘터들이 널 공격했던 사실은 단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어 누군가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시를 내렸나 봐 통제를 잊은 디멘터들이라면 틀림없이 엄청난 뉴스거리일 텐데 말이야 심지어 네가 국제 비밀 법령을 어겼다는 소식조차 신지 않았어 우리 생각대로라면 분명히 실었어야만 했는데 이거야말로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는 명청이라는 너의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사건이잖아 우린 저자들이 네가 퇴학당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가 퇴학당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아 내 말은 만약 네가 퇴학을 당했더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지" 헤르미온느가 속사포처럼 지껄였다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들이 법을 지킨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너에게 불리한 전례는 없었어"

서서히 화제는 청문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 일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뭔가 새로운 화제를 찾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 다행스럽게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런!"

프레드가 늘어나는 귀를 힘껏 끌어당겼다 곧이어 뿅 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프레드와 조지의 모습이 사라졌다 잠시 후에 위즐리 부인이 침실 문 앞에 나타났다

"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내려와서 저녁을 먹자꾸나. 모두들 널 보고 싶어 안달이란다 해리 그런데 부엌문 앞에 뚝 폭탄을 마구 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냐?"

"크록생크예요 그걸 가지고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니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그럴구나 난 또 크리처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 녀석은 항상 그렇게 이상한 짓을 잘해서 말이야 어쨌든 현관 복도에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런데 지니 네 손이 무척 더럽구나 대체 뭘 만진 거니? 저녁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도록 했다"

지니는 다른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엄마 뒤를 따라서 방을 나갔다 이제 방에는 다시 론과 헤르미온느와 해리만이 남게 되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걱정스럽게 해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으니 해리가 다시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은근히 겁이 나는 눈치였다 안절부절못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해리는 약간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이봐..."

해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자 당장 론은 설레설레 머리를 훔들고 헤르미온느는 부드럽게 그를 달래기 시작했다.

"네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해 해리 우린 널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너도 좀 이해해 줘 우린 어떻게든 덤블도어 교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

"그래 나도 알겠어"

해리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무너가 다른 화제로 바꿀 수 없을까 궁리했다 덤블도어 교수 생각을 하자 해리의 마음 속이 다시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리처가 누구야?" 해리가 물었다

"이 집에 사는 집요정인데 완전히 미친놈이야 나도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니까" 헤르미온느가 론을 째려보았다

"크리처는 미치지 않았어 론!"

"그의 평생 소원이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머리를 잘라서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 거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헤르미온느?"

"글쎄... 설사 좀 이상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야"

론이 해리를 보며 눈을 깡긋했다

"헤르미온느는 아직도 그 '토하다'인지 뭔지--"

"토하다(spew)가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꼬마 집요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임(S.P.E.W)이라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야 덤블도어 교수님도 크리처에게 잘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어서 가자 나 배고파 죽겠어"

론은 앞장서서 문 밖으로 얼른 나갔다 하지만 미처 계단을 내려가기도 전에 "잠깐만!" 하고 속삭이더니 두 팔로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앞을 막았다

"아직도 복도에 사람들이 있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세 사람은 조심조심 계단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두컴컴한 복도에

마법사들과 마녀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해리의 경호를 맡았던 마법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잔뜩 흥분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기름진 검은

머리와 툭 튀어나온 코가 눈에 띄었다 해리가 호그와트에서 가장 싫어하는 선생인 스네이프 교수였다 해리는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도대체 스네이프가 이 불사조 기사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 해리의 눈앞으로 가느다란 살구색 끈이 지나갔다. 고개를 들어 보니 프레드와 조지가 위층 난간에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늘어나는 귀를 살살 늘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현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라져 버렸다.

"제기랄"

해리는 프레드가 늘어나는 귀를 다시 끌어올리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스네이프는 절대로 여기서 식사를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지 자 어서 가자" 론이 해리에게 소곤소곤 말했다

"해리 현관 복도에서 목소리 낮추는 거 잊지 마"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그들이 꼬마 집 요정들의 머리가 진열되어 있는 벽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루핀과 위즐리 부인 통스가 현관문 앞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마법사들이 방근 나간 문 뒤에 서서 수많은 자물쇠와 열쇠에 마법의 주문을 걸고 있었다.

"우리는 부엌에서 식사를 하자꾸나" 위즐리 부인이 계단 밑에서 그들을 맞이했다"해리 복도를 살살 가로질러 오면 여기 이문을 지나서--"

쿵!

"통스!"

위즐리 부인이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았다

"미안합니다!" 통스가 바닥에 벌렁 자빠진 채 울상을 지었다 "이 멍청한 우산꽃이 때문이에요 여기 걸려 넘어진 게 벌써 두 번째~"

하지만 그녀의 뒷말은 온몸의 피를 말리고 고막이 찢어질 듯이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곧이어 해리가 방금 지나쳐 온 종이 슨 벨벳 커튼이 양짜ㄱ으로 쪽 갈라졌다 하지만 커튼 뒤에는 아무 문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잠깐 동안 해리는 마치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창문 너머에서는 검은 모자를 쓴 늙은 여자가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또 지르고 있어粲. 해리는 곧 그것이 실물 크기의 초상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평생 그토록 실감 나고 그토록 기분 나쁜 그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粲.

늙은 여자는 눈알을 굽이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누런 얼굴은 찢어질 듯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복도를 따라 줄지어 걸려 있던 다른 초상화들이 일제히 깨어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해리는 귀를 틀어막고 두 눈을 꼭 감았다

루핀과 위즐리 부인이 황급히 달려오더니 늙은 여자의 그림 앞에 다시 커튼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커튼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늙은 여자는 더욱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당장에라도 그들의 얼굴을 찢어 놓을 듯한 기세로 손톱을 세우고 덤벼들었다.

"쓰레기 같은 것들! 더러운 놈들! 후레자식들! 튀기! 돌연변이! 미친 것들!
당장

여기서 깨져! 감히 우리 조상들 집을 더럽히다니!"

통스는 거듭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다가 또다시 그 거대하고 육중한 트롤의 다리를 쓰러뜨리고 말았다 위즐리 부인은 커튼 닫는 것을 그만 단념하고 재빨리 복도를 왔다갔다하면서 요술지팡이로 초상화들을 하나씩 기절시켜 버렸다 그때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한 남자가 문에서 달려 나와 해리와 딱 마주쳤다.

"입 닥치지 못해! 이 추한 늙은 노파야! 입 닥쳐!"

그는 위즐리 부인이 포기한 커튼을 움켜쥐고 벅터 소리를 질렀다

초상화 속 늙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우우!" 여자가 울부짖었다 그를 보자 늙은 여자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두 눈을 부릅떴다 "비열한 배신자 가증스러운 놈 내 자식인 게 수치스럽다!"

"입- 다물라고 했지!"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그리고 루핀과 힘을 합쳐서 억지로 다시 커튼을 닫았다.

늙은 여자의 비명 소리가 사라지고 침묵이 찾아왔다

가볍게 숨을 헐떡이며 눈 앞으로 흘러내린 긴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해리의 대부인 시리우스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안녕 해리" 그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우리 엄마를 만났구나"

그래, 우리 늙은 모친이야" 시리우스가 대답했다.

"한 달 동안이나 벽에서 떼어 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마 캔버스 뒤가 영구 부착
마법에 걸린 모양이야 또다시 모두 깨어나기전에 어서 아르총으로 내려가자"

"하지만 어머님의 초상이 여기서 뭘 하고 계신거죠?" 해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그들은 문을 지나서 좁은 돌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들 뒤를 따라왔다.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니? 여긴 우리 부모님 집이야" 시리우스가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블랙 집안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젠 내 집인 셈이지
내가 덤블도어 교수님께 이 집을 본부로 사용하시라고 제안했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좀더 열렬한 환영을 기대했던 해리는 시리우스의 목소리가 어둡고 쓸쓸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대부의 뒤를 따라 계단 아래까지 내려가 지하 부엌으로
들어갔다

울퉁불퉁한 돌 벽으로 둘러싸인 동굴 같은 그 방은 위층 복도만큼이나
어두웠다 유일하게 빛이 흘러나오는 곳이라고는 방 제일 끝에 있는 커다란
벽난로뿐이었다 포화에 훨씬 전쟁터처럼 방 안에는 뾰얀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그 사이로 시커먼 천장에 매달려 있는 육중한 냄비와 프라이팬의
위협적이 냉장고 자태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방 안에는 회의를 하느라 의자들이 꽉 차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긴 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양피지 두루마리와 빈 포도주병 걸레 웅치처럼
보이는 것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위즐리 씨와 그의 장남인 빌은 식탁
끝에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소곤거리고 있었다.

위즐리 부인이 흠뻑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가늘고 술이 적은 빨간 머리카락에
뿔테 안경을 쓴 그의 남편이 뒤를 돌아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해리!" 위즐리 씨가 부리나케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그의 손을 덤석 잡았다.
"반갑구나!"

위즐리 씨의 어깨 너머로 해리는 빌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길게 꽁지머리를 한
빌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양피지 두루마리를 활급히 말았다.

"해리 여행은 잘했니?" 빌은 열두 개의 두루마리를 한꺼번에 말려고 애를 쓰며
소리쳤다 "매드아이가 그린란드를 지나려고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지?"

"그랬어" 통스가 빌을 도와주려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하지만 곧 마지막 남은
두루마리 위에 촛대를 쓰러뜨리고 말았다.

"오 이런! 미안해"

"저리 비켜요"

위즐리 부인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재빨리 지팡이를 휘둘러
양피지를 원상복구 시켰다. 해리는 위즐리 부인이 마법을 거느라 반짝 일으켰던
불빛 아래로 어떤 건물의 설계도 같은 것을 언뜻 보았다.

위즐리 부인은 해리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 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는
설계도를 흑 낚아채더니 양피지 두루마리를 잔뜩 들고 있는 빌의 품 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런 건 회의가 끝나자마자 당장 치웠어야지"

위즐리 부인은 한마디 쏘아붙이고 사락사락 옷자락을 끄령 오래된 찬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 쓸 접시를 꺼내기 시작했다

빌이 지팡이를 꺼내더니 중얼거렸다

"에바네스코!"

그러자 양피지 두루마리가 훌연히 사라졌다

"자리에 앉아라 해리 먼던구스는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시리우스가 입을 열었다 순간 해리가 걸레 웅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길고
요란한 콧소리를 냈다 그리고 몸을 꿈틀거리며 깨어났다.

"누가 내 이름을 불렀지? 난 시리우스와 같은 의견이야..."

먼던구스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찬성표를 던지듯이 몹시

지저분한 한 손을 들며 시 들었다 불게 핏발이 서고 반쯤 감긴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잊고 흐리멍덩했다.

지니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회의는 끝났어 덩(먼던구스를 장난 삼아 줄여서 부르는 말:역주) 해리가 왔다니까"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아 시리우스가 말했다.

"엉?" 먼던구스가 마구 헉클어진 빨간 머리카락 사이로 음울하게 해리를 바라보았다 "제기랄 그랬군 그래... 넌 괜찮냐 해리?"

"네" 해리가 대답했다

먼던구스는 여전히 해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주섬주섬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때 묻은 검은 담배 파이프를 꺼냈다. 파이프를 입에 문 그는 지팡이 끝으로 파이프에 불을 붙인 후에 한 모금 길게 빨아들였다 잠시 후에 거대한 초록색 연기 구름이 그를 감쌌다.

"미안하구려"

냄새나는 연기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먼던구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부엌에서는 그걸 피우지 말아요 특히 모두들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절대 피우지 말아요"

"아 알았소 미안해요 몰리"

먼던구스가 파이프를 다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자 연기 구름이 곧 사라졌다 하지만 신발 가죽 밑장이 타는 듯한 독한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자정 전에 저녁을 먹고 싶다면 날 좀 도와줘야 해요" 위즐리 부인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아니 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거라 해리 넌 아주 긴 여행을 했잖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몰리?"

"음- 아니 괜찮아요 톰스 그냥 쉬어요 당신은 오늘 할 만큼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톰스가 쾌활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고는 찬장에서 식사용 나이프를 꺼내고 있는 지니를 향해 서둘러 가다가 그만 의자를 넘어뜨렸다

잠시 후 위즐리 부인의 감독 아래 커다란 칼들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고기와 야채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 동안 부인은 화덕 위에 매달려 있는 술을 휘저었다.

다른 사람들은 접시와 잔을 꺼내고 식품 저장실에서 먹을 것을 꺼내 왔다

해리는 시리우스와 먼던구스와 함께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먼던구스는 여전히 눈을 끔벅거리며 우울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후로 피기 할망구를 본 적이 있니?" 먼던구스가 물었다

"아니요 아무도 못 봤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래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닌데" 먼던구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변명하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서 말이야~"

그 순간 해리는 뭔가 무릎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다. 헤르미온느의 안짱다리 붉은 고양이 크록생크였다 크록생크는

가르랑거리며 해리의 다리 주위를 한 번 맴돌더니 시리우스의 무릎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서 앉았다 시리우스는 명하니 크록생크의 귀 뒤를 긁어 주다가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해리를 돌아보았다.

"그래 여름방학은 잘 보냈니?"

"아니요 끔찍했어요"

해리가 말했다 처음으로 시리우스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난 네가 뭘 불평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라고요?"

해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개인적으로 난 차라리 디멘터의 공격이라도 받고 싶었다. 영혼을 건 지열한 싸움이라도 하면 매일 되풀이되는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넌 네가 무척 힘들게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나 있었지 다리 운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말이야... 난 한 달 동안이나 이 집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이죠?" 해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마법부가 아직도 내 뒤를 쫓고 있단다 지금쯤이면 볼드모트도 내가 애니마구스라는 걸 알아냈을 거야 웰테일이 벌써 이야기했을 테니까 그러니 나의 변장술도 아무 쓸모 없게 되었어 게다가 불사조 기사단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적어도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시리우스가 덤블도어의 이름을 말할 때 풀 죽은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덤블도어 교수와 별로 잘 지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갑자기 대부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활짝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최소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해리가 그를 위로했다

"아 그래" 시리우스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스네이프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작자가 자기는 목숨을 걸고 밖을 돌아다니는데 나는 여기 후방에 편안히 앉아서 빈둥빈둥 시간만 보낸다고 거드름 피우는 꼴을 모두 봐야만 했지 괜히 나에게 청소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보기나 하고"

"무슨 청소요?" 해리가 물었다

"이곳을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바꾸려는 노력 말이다" 시리우스가 어두운 부엌 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10년 동안 아무도 이 집에서 살지 않았거든 어머니의 늙은 집요정만 빼놓고는 그런데 그 녀석은 미쳐서 수십 년 동안 먼지 한 번 털지 않았으니--"

"시리우스?" 먼던구스는 그드르이 대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저 빈 술잔만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이거 진짜 은이지?"

"그래 블랙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15 세기 최그 은세공품이지"

시리우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술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칠이 벗겨지려고 하는군"

먼던구스가 중얼거리며 소맷자락으로 술잔을 문질렀다.

"프레드 조지 안 돼! 그냥 들고 가!"

위즐리 부인이 소리를 뺏길었다

힐끗 뒤를 돌아본 해리와 시리우스와 먼던구스는 재빨리 식탁 밑으로 몸을 날렸다 프레드와 조지가 스튜가 담긴 커다란 솥과 버터 맥주가 든 무쇠병 그리고 칼이 꽂혀 있는 육중한 나무 도마에 마법을 걸어서 그들이 있는 쪽으로 기세 좋게 날아오도록 했던 것이다 뜨거운 스튜가 담긴 솥은 탁자 위를 쭉 미끄러지더니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하지만 나무 식탁 위에는 길게 탄 자국이 남았다 버터 맥주병은 쟁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서 안에 든 내용물이 다 쏟아졌다. 도마에서 떨어진 빵 자르는 칼은 불과 일 초 전까지만 해도 시리우스의 오른손이 있었던 자리에 정확히 꽂혀서 부르르 진동했다.

"제발 부탁이야!" 위즐리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더 이상 도움은 필요 없어 이제 충분해 마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사소한 일마다 번번이 지팡이를 휘두르면 어떻게 하니!"

"저희는 그저 시간을 절약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프레드가 황급히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식탁 위에 꽂힌 빵 자르는 칼을 힘들게 뽑았다 "미안해요 시리우스 고의는 아니었어요"

해리와 시리우스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벌렁 나자빠졌단 먼던구스는 훌훌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크록생크는 성난 울음소리를 내더니 찬장 밑으로 퍽 뛰어들어갔다 컴컴한 찬장 밑에서 그의 커다랗고 노란 두 눈이 빛을 발했다.

"얘들아 네 엄마 말이 맞다" 위즐리 씨가 스튜 그릇을 들어서 식탁 가운데 놓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도 나이를 먹었으니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 줄 때가 되었어"

"너희 형제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말썽을 부린 사람이 없었다!" 위즐리 부인이 새 버터 맥주병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으면서 쌍둥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맥주가 다시 쏟아졌다

"빌은 별 빨짝 움직일 때마다 순간이도 ◦마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찰리도 눈에 띠는 것마다 마법을 걸지 않았고, 퍼시는-"

위즐리 부인이 말을 딱 멈추었다 그리고 겁먹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빨리 먹죠" 빌이 재빨리 말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요 몰리"

루핀이 접시에 스튜를 덜더니 음식을 돌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 동안 침묵이 이어지면서 접시와 나이프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위즐리 부인이 시리우스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진작부터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거실에 있는 책상 안에 뭔가가 갇혀 있나 봐요 계속巴斯락거리는 소리가 나오 책상이 흔들려요 물론 그저 보가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꺼내 보기 전에 먼저 앤더스터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인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시리우스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커튼에는 독시들이 우글우글해요 내일은 그 녀석들과 한바탕 씨름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무척 기대되는군요"

해리는 시리우스의 목소리에서 빙정거리는 어조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차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해리 맞은편에서는 통스가 음식을 입에 넣는 사이사이에 코 모양을 계속 바꾸어 헤르미온느와 지니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지난번 해리의 침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눈살을 찌푸릴 때마다 그녀의 코는 스네이프 같은 매부리코가 되기도 하고 양송이 버섯 모양으로 납작해지기도 하고 콧구멍에서 무성한 털이 자라나기도 했다. 식사 때면 늘 하는 놀이인 것 같았다 잠시 후에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제일 마음에 드는 코 모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돼지 코 모양을 해보세요. 통스..."

통스는 그 지시에 따랐다 그걸 쳐다보고 있던 해리는 순간 여자 두들리가 식탁 건너편에서 자기를 향해 씩 웃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한편 위즐리 씨와 빌 루핀은 도깨비들에 대해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아직 도깨비들은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고 있어요"

빌이 말했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깨비들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 여전히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도깨비들이야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 일에서 빠지고 싶을 거예요"

"난 절대로 도깨비들이 그 사람 편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위즐리 씨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 또한 동족의 죽음으로 고통을 받았어. 지난번에 그 자가 죽인 그 도깨지 가족을 생각해 봐. 노팅엄 근처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건 그들이 어떤 제안을 받느냐에 달려 있겠죠"

루핀이 입을 열었다

"저는 황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도깨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걸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틀림없이 유혹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빌 아직도 래그녹과는 좋은 일이 없나요?"

"그는 요즘 꽤 심하게 반-마법사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빌이 말했다

"베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는 마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깨비들이 그에게서 황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식탁 한가운데에서 한바탕 웃음보가 터지면서 빌의 말이 파묻혀 버렸다. 프레드와 조지 론 먼던구스가 자기 자리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웃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지..." 먼던구스가 눈물을 출출 흘리며 목이 메어 말했다 "그래서 내 말 좀 들어 봐 그 녀석이 내게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어 둉 이 두꺼비들은 다 어디서 난 거요? 왜냐하면 어떤 놈팽이의 후레자식이 내 걸 모두 훔쳐 갔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당신 두꺼비를 다 훔쳐 갔단 말이죠 그래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요? 그럼 두꺼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요? 그랬더니 얘들아 믿거나 말거나 그 얼띤 이무기가 처음 가격의 두 배나 되는 돈을 주고 나에게서 자기 두꺼비들을 몽땅 사 갔단다~"

"먼던구스 고맙지만 당신의 사업적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즐리 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한편 론은 배꼽이 빠져라 웃다가 식탁 위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미안하오 몰리" 먼던구스는 재빨리 사과를 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해리를 향해 눈을 찡끗했다 "하지만 알잖소 월이 워티 해리스로부터 먼저 훔쳤으니까 난 사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먼던구스 당신이 어디서 옳고 그른 걸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위즐리 부인이 차갑게 대꾸했다.

프레드와 조지는 버터 맥주가 담긴 술잔 뒤로 황급히 얼굴을 감추었다 조지는 딸꾹질까지 하고 있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위즐리 부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시리우스를 한 번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후식으로 커다란 루바브 푸딩을 가지러 갔다 해리는 시리우스를 돌아보았다

"몰리는 먼던구스를 인정하지 않아"

시리우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사단에 들어왔죠?"

해리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 쓸모가 있거든" 시리우스가 속삭이다시피 말했다 "사기꾼이란 사기꾼은 죄다 알아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보는 법이지 그래도 먼던구스는 덤블도어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 언젠가 곤경에 빠진 걸 도와준 적이 있거든 둉 같은 사람을 주위에 두는 것도 꽤 유용한 일이야 우리가 못 듣는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몰리는 먼던구스를 저녁 식사에까지 초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대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 뒤를 지켜보고 있어야 할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아"

루바브 푸딩을 세 접시나 먹고 커스타드까지 먹고 나자 해리가 입은 청바지의 허리띠가 터질 듯이 꽉 조였다(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청바지는 한때 두들리가 입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해리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와중에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위즐리 씨는 배부르고 만족한 표정으로 의자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통스는 늘어져라 하품을 했다

그녀의

코는 다시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왔다 지니는 찬장 밑에서 크록생크를 유인해내려고 마룻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버터 맥주병의 코르크 마개를 굴리고 있었다

"이제 잘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위즐리 부인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직 아니오 몰리" 시리우스가 빈 접시를 옆으로 치우더니 해리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솔직히 난 너에게 놀랐다 네가 이곳에 오면 제일 먼저 볼드모트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디멘터라도 나타난 것처럼 삼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느긋하고 졸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심지어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볼드모트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식탁 주위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루핀은 막 마시려고 층던 포도주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랬어요!" 해리가 분개한 듯이 소리쳤다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들 말이 우리는 기사단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애들 말이 맞다 너희는 너무 어려"

위즐리 부인이 침착하게 타일렀다 이제 부인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졸린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불사조 기사단이 아니면 뭘 물어볼 수도
없단 말이야?" 시리우스가 물었다 "해리는 한달 동안이나 머글들 집에 갇혀
있었어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단 말이야"

"잠깐만요!"

조지가 큰 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희가 해리의 질문에 무슨 수로 대답을 해줄 수 있었겠어요?"

프레드가 잔뜩 심통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든 뭔가 알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무조건 감추려고만 하셨잖아요!"

조지가 말을 이었다

"너희는 너무 어리다 너희는 기사단이 아니다"

프레드가 위즐리 부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며 높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게다가 해리는 미성년자잖아요!"

"기사단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던 건 내 탓이
아니다" 시리우스가 조용하게 말했다 "그건 네 부모님의 결정이셨어 하지만
해리는..."

"당신은 해리에게 뭐가 좋을지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위즐리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평소에는 상냥하기 짝이 없던 부인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설마
덤블도어 교수가 한 말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무슨 말 말이죠"

시리우스는 징징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언제든 싸울 듯한
기세였다

"해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상의 이야기는 해주지 말라는 당부 말이에요"

위즐리 부인은 '꼭 필요한' 이란 말에 특별히 힘을 주었다

시리우스와 위즐리 부인이 한 마디씩 주고받을 때마다 마치 테니스 시합을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론 헤르미온느 프레드 조지의 머리가 왔다갔다했다 지니는
버려진 버터 맥주병 코르크 마개를 앞에 수북이 쌓아 놓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입을 반쯤 벌리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루핀은 단 한 순간도
시리우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몰리 나도 해리에게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소 하지만
해리는 다시 돌아온 볼드모트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식탁 주위에는 또다시 전율이 흘렀다)

"해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알 권리가 있소~"

"해리는 불사조 기사단 단원이 아니에요! 게다가 겨우 열다섯 살밖에 안
됐다고요!"

"그렇지만 기사단 단원들만큼이나 많은 일을 겪었죠" 시리우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말이오"

"해리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위즐리 부인이 목청을
높였다 의자의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는 부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해리는 아직도~"

"해리는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오!"

시리우스가 벌컥 화를 냈다

"그렇지만 어른도 아니에요!"

위즐리 부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시리우스 그는 제임스가 아니라고요!"

"나도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고맙소 몰리"

시리우스가 냉정하게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가끔씩 당신이 해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죠?"

해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해리 네가 아무리 네 아빠를 닮았다고 해도 넌 네 아빠가 아니야"

위즐리 부인이 계속 시리우스를 노려보며 말했다

"넌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른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그렇다면 내가 무책임한 대부란 말이오?"

시리우스가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시리우스 당신은 경솔하게 행동하기로 유명하단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덤블도어 교수도 계속 당신에게 가만히 집에 있으라고 타일렀던 것--"

"미안하지만 내가 덤블도어 교수에게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말아 주시오!"

시리우스가 소리를 질렀다

"아서!아서! 뭐라고 말씀 해봐요!"

위즐리 부인이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다 위즐리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인의 시선을 피하면서 안경을 벗어 들고 천천히 닦았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다시 쓰고는 입을 열었다

"몰리 덤블도어도 해리의 처지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해리가 본부에서 지내게 된 이상 어느 정도 알 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소"

"하지만 그것과 알고 싶은 건 뭐든지 물어보라고 부추기는 거랑은 다르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루핀이 마침내 시리우스에게서 시선을 떼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위즐리 부인은 드디어 응원군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그를 쳐다보았다 "난 해리가 진상을 알고 있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몰리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듣느니 차라리 우리들에게 직접 듣는 편이..."

루핀의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해리는 위즐리 부인의 숙청 작업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귀가 아직 낭아 있다는 사실을 루핀이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글쎄..." 위즐리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눈길로 식탁 주위를 둘러보았다 "글쎄...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군요 어쨌든

한 마디만 하겠어요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에게 많은 사실을 알려 주고 싶어하지 않은 데는 틀림없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리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해리는 당신 아들이 아니오"

시리우스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해리에게 또 누가 있죠?"

위즐리 부인이 거세게 항의했다

"해리에게는 내가 있소!"

"그야 그렇죠" 위즐리 부인이 입을 비죽거리며 빙정거렸다

"하지만 당신이 아즈카반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해리를 돌봐 주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시리우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고 했다

"몰리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당신만 해리를 걱정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루핀이 날카롭게 말했다 "시리우스 자리에 앉아요"

위즐리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리우스는 핏기가 짹 가신 얼굴로 다시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리에게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할 만한 나이는 되었으니까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해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나 위즐리 부인 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를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부인의 말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아기처럼 감싸기만 하려는 위즐리 부인의 태도에는 짜증이 났다 시리우스 말이 맞았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럼 좋다" 위즐리 부인의 목소리가 짜렁짜렁 울렸다 "지니- 론- 헤르미온느- 프레드- 조지- 이제 너희들은 부엌에서 그만 나가거라"

즉시 불평에 찬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이제 성년이라고요"

프레드와 조지가 입을 모아 소리쳤다

"해리가 들어도 된다면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론이 항의했다

"엄마 나도 듣고 싶어요!"

지니가 떼를 썼다

"안 돼!" 위즐리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두 눈이 위협적으로 빛났다 "난 절대로-

"몰리 프레드와 조지까지 막을 수는 없소 그 아이들은 이제 성년이오"

위즐리 씨가 지친 듯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럴지만 법적으로는 성년이란 말이오"

위즐리 씨가 여전히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위즐리 부인의 얼굴은 훌당무처럼 새빨개졌다

"난- 아, 그래 좋다. 그렇다면 프레드와 조지는 남아 있어도 좋아 하지만 론은-"

"어쨌든 결국에는 해리가 저와 헤르미온느에게 모든 걸 다 말해 줄텐데 웬 그래요!" 론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해리 그럴 거지? 그렇지?"

론은 해리를 쳐다보며 불안한 듯이 덧붙였다

잠깐 동안 해리는 단 한 마디도 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론에게 너도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특특히 경험해 보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심술궂은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물론 말해 줄 거야"

해리의 말을 듣자 론과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좋다! 좋아! 지니- 침실로 가거라!"

위즐리 부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물론 지니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계단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도 내내 징징거리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니가 현관 복도에도달하자 블랙 부인의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까지 가세했다 루핀이 초상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돌아와서 부엌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비로소 시리우스가 입을 열었다

"좋아 해리... 무엇이 알고 싶은 거냐?"

해리는 깊이 심호흡을 한 다음 한 달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다

"볼드모트는 어디 있죠? 지금 월하고 있나요? 저는 계속 머글 뉴스를 주의 깊게 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의 이름이 또다시 나오자 모두들 부르르 떨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해리는 모르는 척 했다 "하지만 그자의 소행처럼 보이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이상한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의심스런 사망 사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란다"

시리우스가 설명했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한은 그래 아무튼... 우리도 꽤 많은 걸 알고 있단다"

"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루핀이 말했다

"그자가 어떻게 살인을 그만둘 수 있죠?" 해리가 물었다

볼드모트가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란다" 시리우스가 말했다

"그에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 그의 귀환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실패하고 말았지"

"달리 말하면 해리 네가 그걸 망쳐 놓은 거야"

루핀이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요?"

해리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네가 살아남을 줄 몰랐던 거지! 죽음을 먹는 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가 돌아왔다는 걸 알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어 하지만 넌 살아남아서 목격자가 되었잖아" 루핀이 말했다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에게 당장 알렸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해리가 물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빌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야말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상대야!"

"네 덕분에 덤블도어 교수는 볼드모트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시간 이내에 불사조 기사단을 소집할 수 있었어"

시리우스가 말했다

"그럼 불사조 기사단은 뭘 하는데요?"

해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둘러보았다

"볼드모트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

시리우스가 대답했다

"그의 계획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가 놀라운 생각을 해냈어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의 통찰력은 대개의 경우 정확하게 맞아"

"덤블도어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자의 계획이라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다시 군대를 소집하려는 거야 옛날에 그자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지휘했었던 모든 그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마법에 걸려서 그의 추종자가 된 마녀와 마법사들 그에게 충성을 바친 죽음을 먹는 자들 그리고 온갖 다양한 어둠의 생물들이었지"

시리우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추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떻게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자가 진짜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게 주요 임무야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왜요?"

"마법부의 태도 때문에 그래" 톰스가 입을 열었다 "해리 너도 그자가 돌아왔을 때 코넬리우스 퍼지의 반응을 봤지? 퍼지는 조금도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왜죠?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구는 거죠? 만약 덤블도어 교수님이~"

해리가 절망한 듯이 말했다

"아 그래 네가 바로 문제의 핵심을 찔렀어 덤블도어"

위즐리 씨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퍼지는 덤블도어 교수를 무서워해"

톰스가 서글프게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을 무서워한다고요?"

해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덤블도어 교수가 무슨 속셈이 있는게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어 퍼지는

덤블도어가 자기를 쓰러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법부장관이 되려고 말이야"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은 절대로~"

"물론 그럴 생각이 없지 덤블도어 교수는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밀리센트 배그놀드가 물러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덤블도어가 그 자리를 맡아 주길 원했었지 결국 퍼지가 대신 권력을 잡기는 했지만 덤블도어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잊지 못하는 거야 정작 덤블보어는 그 자리에 출마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퍼지도 내심 덤블도어가 자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힘있는 마법사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장관 초기 시절에는 항상 덤블도어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하곤 했었지" 루핀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퍼지도 권력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자신감도 생기고 말이야 그자는 마법부 장관 자리를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자신은 현명한 사람이고 덤블도어는 그저 말썽이나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해리가 화를 냈다 "어떻게 덤블도어 교수님이 모두 꾸며 낸 이야기라고 내가 모두 꾸며 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마법부가 지난 14년 동안 미루어 왔던 문제를 비로소 대면해야만 한다는 뜻이거든"

시리우스가 신랄한 어조로 말했다

"퍼지는 단지 그 사실을 직시할 자신이 없는거야 덤블도어가 자신의 자리를 흔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 편이 더 속이 편하거든"

"너도 문제가 뭔지 알겠지 마법부에서 계속 볼드모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워 특히 사람들이 그걸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을 땐 더욱 그렇지 더구나 마법부에서 소위 덤블도어에 관련된 소문들에 관해서는 어떤 기사도 내지 말라는 압력을 <예언자 일보>에 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임페리우스 저주를 사용할 목표물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

"하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리가 위즐리 부인과 시리우스 빌 먼던구스 루핀 그리고 통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가 돌아왔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죠?"

그들 모두 멋쩍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글쎄 모두들 나를 정신 나간 대량 학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법부에서는 내 목에 1만 갈레온의 상금까지 걸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리를 활보하며 전단지 같은 것을 돌릴 수 있겠니?"

시리우스가 단숨에 내뱉었다

"그리고 난 대부분의 저녁 모임에서 별로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야 늑대인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

루핀이 말했다

"그렇다고 통스와 아서가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마법부에서 당장 쫓겨날 거야 그런데 마법부 내부에 소식통을 심어 두는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틀림없이 볼드모트도 협자를 심어 두었을 테니까"

시리우스가 설명했다

"그래도 몇 사람을 설득하긴 했어" 위즐리 씨가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통스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지난번에는 너무 어려서 불사조 기사단에 들어올 수 없었어 어쨌든 오러가 우리편에 있는 건 아주 유리한 일이지 킹슬리 샤클볼트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인재야 그는 시리우스를 사냥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리우스가 티베트에 있다는 정보를 마법부에 계속 흘리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면-

해리가 말을 꺼내자마자 시리우스가 재빨리 가로챘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누가 그랬니? 그럼 왜 덤블도어가 곤경에 빠져 있겠니?"

"그게 무슨 뜻이죠?"

해리가 물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덤블도어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 루핀이 대신 대답했다 "지난주에 <예언자 일보>를 보지 못했니? 신문에서는 덤블도어가

너무 늙고 지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제 마법사 연맹 회장직에서 쫓겨났다고 떠들어 댔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연설을 하고 난 직후에 마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쫓겨난 거야 그들은 마법사 대법원의 위증가모트 마법사장 자리에서도 그를 쫓아냈어 멀린 1등급 훈장도 뺏으려고 의논 중이지"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는 개구리 초콜릿 카드에 계속 나올 수만 있다면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대"

빌이 씩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마법부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아즈카반에 갇힐 수도 있어 그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지 그 사람도 덤블도어가 여기 바깥에 있다는 걸 알고 그가 목표하는 것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야 만약 덤블도어가 방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 그때는 그 사람의 세상이 오겠지"

위즐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볼드모트도 축음을 먹는 자들을 새로 더 뽑으려면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겠죠?"

해리가 막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해리 볼드모트는 사람들의 집으로 곧장 걸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리지는 않는단다 속임수를 쓰거나 주문을 걸거나 협박을 하지 남모래 숨어서 봇된 짓 하는 데에는 도통한 자니까 어쨌든 추종자들을 모으는 일은 그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중 하나일 뿐이야 또 다른 계획들도 많이 있지 아주 조용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

"추종자 말고 그자가 원하는 게 또 뭐가 있죠?"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그 순간 시리우스는 루핀과 시선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다

"훔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지" 해리가 계속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자 시리우스가 말했다 "무기 같은 거 말이다 지난번에는 그자가 가지지 못했던 거지"

"예전에 볼드모트가 세력을 떨쳤을 때 말인가요?"

"그래"

"어떤 종류의 무기죠? 아바다 케다브라 저주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무기인가요?"

"이 정도로 충분해요"

어두운 문 옆에 서 있던 위즐리 부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해리는 부인이 지니를 위층에 데려다 주고 어느 틈에 돌아와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팔짱을 낀 그녀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다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거라 너희들 모두"

위즐리 부인이 프레드와 조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를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아래라저래라 할 순 –"

프레드가 항의하려고 했다

"꺄불지 마라"

위즐리 부인이 호통을 쳤다 그리고 살짝 몸을 떨며 시리우스를 바라보았다

"그만하면 해리에게 알려 줄 건 다 알려 준 셈이에요 더 이상 알려 준다면 해리를 당장 기사단에 가입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안 되나요?"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전 기사단에 들어갈래요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요 전 싸우고 싶어~"

"안 돼" 이번에는 위즐리 부인이 아니라 루핀이 대답했다

"기사단은 오직 성년이 된 마법사들만 들어올 수 있어 물론 학교를 졸업한 후에 말이야"

프레드와 조지가 뭐라고 따지려 들자 루핀이 얼른 덧붙였다

"너희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야 내 생각에도 몰리 말이 맞는 것 같군 시리우스 충분히 말해준 것 같아"

시리우스는 어깨를 으쓱할 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위즐리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아들들과 헤르미온느를 향해 손짓을 했다

그들은 패배를 깨닫고 차례차례 자리에서 일어나 앞 사람을 따라갔다

제 6 장 고귀하고 유서 깊은 블랙 가문

위즐리 부인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뒤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갔다

"너희들 모두 곧장 잠자리에 들거라 더 이상 떠들면 안 돼"

그들이 층계참에 이르자 부인이 주의를 주었다 "내일은 무척 바쁠 거다 그리고 지니는 이미 잠들었을 테니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도 잠들었겠다" 프레드가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거렸다 헤르미온느와 인사를 하고 헤어진 후에 남자 아이들은 한 층 더 올라가는 중이었다 "분명 지니는 아래층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헤르미온느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날 지렁이라고 불러도 좋아"

"좋아 론 해리!" 위즐리 부인이 2층에서 침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서 잠자리에 들거라"

"잘 자 형" 해리와 론이 쌍둥이 형제에게 말했다

"잘 자라" 프레드가 눈을 찡끗했다

위즐리 부인은 해리의 등 뒤에서 문을 쾅 닫았다. 처음 보았을 때보다도 침실 안은 훨씬 더 늑숙하고 음침해 보였다 벽에 걸린 빈 그림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리고 깊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해리는 잠옷을 입고 안경을 벗은 다음 차가운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한편 론은 헤드위그와 피그위존을 달래기 위해서 옷장 꼭대기에 부엉이 먹이를 던져 주었다. 그들은 술 새 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시끄럽게 빙빙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밤마다 사냥을 하라고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 론인 밤색 잠옷을 입으며 설명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광장 주위에 너무 많은 부엉이들이 날아다니는 걸 원치 않으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이런..."

깜박

잊었네"

론은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걸쇠를 걸었다

"왜 그러는 거야?"

"크리처 때문이야" 론이 불을 끄면서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첫날 밤에는 크리처가 새벽 세 시까지 돌아다녔어 나만 믿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방 안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녀석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네 생각은 어때?"

론은 팀대에 올라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먼지 낀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그의 윤곽이 어렵듯이 보였다

해리는 론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뭐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지? 전부 우리가 짐작했던 그대로잖아 안 그래?"

론이 아래층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말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라고는 결국 기사단에서 사람들이 그자의 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그 볼~"

잠시 론은 혀 하고 숨이 막혔다

"-드모트 말이지" 해리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도대체 넌 언제나 그 이름을 제대로 말할 거니? 시리우스와 루핀은 그렇게 하잖아"

론은 해리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그래 알았어 어쨌든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이야기는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늘어나는 귀로 다 들었던거지 새로운 사실이라고는 단지—" 뽕!

"아이쿠!"

"론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올라오시겠다"

"형들 둘이 내 무릎 위에 올라와 있잖아"

"이런 깜깜하니까 순간이동을 하기가 더 어렵군"

해리는 론의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프레드와 조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침대 스프링이 빠거덕거리며 신음 소리를 내었다 잠시 후에 조지가 그의 발치에 걸터앉자 침대가 조금 기울어졌다

"아직 그 이야기까진 안 한 거지?"

조지가 열심히 물었다

"시리우스가 말한 그 무기 말이야?"

해리가 말했다

"무심코 비밀을 털어놓은 셈이지" 프레드가 입맛을 다시며 론의 옆에 앉았다

"지난번 늘어나는 귀로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잖아 안 그래?"

"그 무기가 뭘 것 같아?"

해리가 물었다

"뭐든지 다 되겠지"

프레드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바다 케다브라 저주보다도 훨씬 무서운 무기가 있을 수 있을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지?"

론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걸 거야"

조지가 말했다

"어쩌면 특별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일지도 몰라"

론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면 크루시아투스 저주가 있어 그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는 없을 거야" 해리가 반박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모두들 그 무기가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은 누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조지가 물었다

"우리 편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

론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렇다면 아마 덤블도어가 갖고 있을 거야"

프레드가 의견을 말했다

"어디에? 호그와트에?"

론이 재빨리 물었다

"틀림없어! 마법사의 돌도 호그와트에 숨겼잖아!"

"하지만 무기는 돌보다도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론이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프레드가 말했다

"그래 크기가 크다고 전부 힘이 센 건 아니야 지니 좀 봐"

조지가 맞장구를 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해리가 물었다

"너는 지니의 박쥐 귀신 주문들 중에서 하나라도 당해 본 적이 없지?"

"쉿!" 프레드가 침대에서 몸을 절반쯤 일으키며 말했다 "조용히!"

그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다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다"

조지는 이렇게 말하더니 한마디 인사도 없이 뽕 하며 사라졌다 해리는 침대

발치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잠시 후에 문 밖에서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즐리 부인이 그들이 떠들고 있는지 엿듣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헤드위그와 프기위존이 구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마루가 다시 삐걱거리더니 이번에는 프레드와 조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부인의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안 믿는다니까" 론이 투덜거렸다
해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저녁 나절 일어난 일만 해도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서 몇 시간이고 머리를 굴이며 누워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리는 계속해서 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위즐리 부인이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이 가 버리자 또 다른 것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다리가 많이 달린 무언가가 침실 문 밖에서 살금살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신비한 동물 돌보기 선생님이 해그리드의 목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예쁘지 그렇지 않니 해리? 이번 학기에는 무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란다"
해리는 머리에 대포알이 달린 괴물들이 그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쑥 들이밀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자신이 이불 밑에서 공처럼 몸을 돌돌 말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조지의 커다란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렸다

"엄마가 그만 일어나래 부엌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 식사를 끝낸 다음에는 거실로 오라고 하셨어 생각한 것보다 독시들이 더 많았어 심지어 소파 밑에서 죽은 퍼프스캔의 둥지까지 나왔어"

삼십 분 후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은 해리와 론은 거실로 들어갔다 1층에 있는 천장이 높고 긴 이 방은 초록색 올리브 빛깔의 벽에 온통 벽걸이 양탄자가 걸려 있어 쓸 한편 바닥에 깔린 양탄자에서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작은 먼지구름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끼처럼 푸른색을 띤 긴 벨벳 커튼에서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벌떼가 날고 있는 듯이 봉봉거리는 소리가 났다 위즐리 부인과 헤르미온느 지니 프레드 그리고 조지가 커튼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좀 이상했다 코와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끝에 노즐이 달린 커다란 검은색 병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너희도 얼굴을 가리고 분무기를 집어 들어라"

위즐리 부인이 해리와 론을 보자마자 즉시 가늘고 긴 다리가 달린 턱자 위에 놓인 분무기 두 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에는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건 독시 살충제란다 독시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번식한 건 처음 보는구나
도대체 10년 동안 집요정은 월 했는지 모르겠네~"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수건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위즐리 부인을 쳐다보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크리처는 사실 너무 늙었어요 이런 일을 하기에는~"

"크리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란다
헤르미온느"

시리우스가 피로 얼룩진 자루를 들고 방 안으로 막 들어서며 말했다 자루 안에는 죽은 쥐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벽에 먹이를 주고 오는 길이야"

해리가 궁금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시리우스가 설명했다

"그 녀석을 위층 우리 어머니의 침실에 가두어 놓았거든 그건 그렇고... 이 책상이 문제란 말이지..."

시리우스는 쥐가 담긴 자루를 팔걸이의자 위에 던져 놓고 허리를 숙여 잠긴 책상 서랍을 살펴보았다 해리는 그제야 책상 서랍이 약간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몰리 내가 보기엔 보가트가 틀림없어요"

시리우스가 열쇠 구멍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꺼내기 전에 매드아이에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게 좋겠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보가트보다 훨씬 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시리우스"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은 너무나 상냥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어젯밤에 있었던 말다툼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그 때 아르총에서 시끄럽고 요란한 벨 소리가 들리더니 당장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의 불협화음이 울려 퍼졌다 전날 밤 통스가 졸罵해서 우산꽃이를 쓰러뜨렸을 때 벌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절대 현관 벨을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일렀는데!"

시리우스가 짜증을 내며 황급히 방 밖으로 달려 나갔다 블랙 부인의 비명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리우스가 킁킁거리며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가문의 수치 더러운 잡종 집안의 배신자 개자식..."

"해리 문을 닫거라"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해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거실 문을 향해 다가갔다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블랙 부인의 비명 소리가 뚝 끊어졌다 시리우스가 어머니의 초상화 위로 커튼을 치는 데 성공한 것이 틀림없었다 곧이어 시리우스가 현관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과눔느의 사슬이 철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킁킁리 샤클볼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헤스티아가 임무 교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헤스티아가 무디의 망토를 입고 있죠 나는 덤블도어에게 보고서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해리는 뒤통수에 꽂히는 위즐리 부인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거실의 문을 닫고 동시에 박멸 작전에 다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즐리 부인은 <질데로이 록허트가 말하는 집안의 골칫거리 퇴치법>을 소파 위에 펼쳐 놓고 동시에 관련된 페이지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맞아 너희들 아주 조심해야 한다 동시에 물기도 하는데 이빨에 독이 있거든 여기 해독제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부디 그걸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위즐리 부인은 허리를 쭉 펴더니 커튼 앞에 떡 버티고 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약을 뿌려라 아마 독시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올거야 하지만 여기 쓰여진 설명서에 보면 단 한 방으로 독시를 기절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양동이 안으로 던져 넣기만 하면 돼"

위즐리 부인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살총제가 든 분무기를 높이 치켜들었다

"좋아- 발사!"

해리가 약을 뿌리자마자 다 자란 독시들이 커튼 사이사이에서 구름처럼 몰려나왔다 독시들은 딱정벌레처럼 반짝거리는 날개를 윙윙거리고 바늘처럼 날카로운 작은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요정처럼 작은 독시의 온몸은 무성한 검은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 잔뜩 약이 오른 독시는 작은 네 주먹을 깽 움켜쥐고 있었다 해리는 독시를 향해 정통으로 독시 살총제 공격을 퍼부었다 허공에서 마비된 독시는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소리를 내며 낡아빠진 양탄자 위로 툭 떨어졌다 해리는 그것을 집어서 양동이 안에 던졌다

"프레드 뮤 하고 있는 거니?" 위즐리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장 약을 뿌리고 양동이 안으로 던져 넣어라!"

해리가 뒤를 돌아보니 프레드가 발버둥 치는 독시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알았어요" 프레드가 선뜻 대답하고는 독시의 얼굴에 재빨리 약을 뿌렸다

그러자 독시는 곧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이 다시 돌아서자마자 프레드는 눈을 찡끗하며 호주머니 속에 독시를 집어넣었다

"우리의 괴병용 과자세트를 만들기 위해 독시의 독을 실험해야 하거든" 조지가 해리에게 속삭였다

해리는 바로 코앞으로 돌진해 오는 독시 두 마리를 향해 날쌔게 약을 뿌린 다음 조지 옆으로 바싹 다가가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괴병용 과자세트가 뭐야?"

"병이 나게 하는 온갖 과자들이 들어 있는 거지"

조지가 위즐리 부인의 등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해리에게 속삭였다

"물론 진짜로 병이 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수업을 빼먹고 싶을 때 빼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아프게 하는 거야 프레드와 나는 올여름 내내 그걸 연구해 왔어 그건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색깔이 입혀져 있는데 껌처럼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만일 구역질 사탕의 오렌지색 반쪽을 먹게 되면 넌 당장 토하게 될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교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머지 보라색 반쪽을 먹게 되면~"

"넌 다시 멀쩡해지는거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지겨운 수업에 시달리는 대신 한 시간 동안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광고에 집어눌을 문구야"

프레드가 뒤이어 말했다 그는 위즐리 부인의 눈을 피해 바닥에서 비틀거리는 독시 몇 마리를 재빨리 집어 들더니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하지만 아직 연구를 좀 더 해야 해 우리 실험 대상자들이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해서 보라색 반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실험 대상자들?"

"바로 우리들이야 차례차례 하나씩 먹어 보고 있어 기절 팬시(케이크의 한 종류:역주)는 조지가 시험해 봤고 코피 누가(설탕과 아몬드 등으로 만든 과자:역주)는 우리 둘 다 먹어 봤지" 프레드가 신나게 떠들었다

"그 바람에 엄마는 우리가 한바탕 결투라도 벌인 줄 아셨어"

조지가 말했다

"그럼 여전히 장난감 가게를 열 생각이 있는 거야?" 해리가 분무기의 노즐을 바로 잡는 척하면서 속삭였다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서 적당한 가게 자리를 못 구했어 그래서 당장은 우편 주문 서비스를 실시할 생각이야 벌써 지난주에 <예언자 일보>에 광고를 냈지" 프레드가 더욱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위즐리 부인은 다시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스카프로 이마의 땀을 닦고 있었다

"모두 네 덕분이야 해리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셔 이젠 <예언자 일보>를 읽지 않으시거든 너와 덤블도어 교수에 대해서 거짓 기사를 자꾸 떠들어 대니까 말이야"

해리가 빙그레 웃었다 그는 위즐리네 쌍둥이 형제들이 장난감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이를 수 있도록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받은 1천 갈레온의 상금을 얹지로 쥐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한몫 거들었다는 사실을 위즐리 부인에게 비밀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부인은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일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커튼 속에서 번식하는 독시들을 없애는 데 아침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다

마침내 위즐리 부인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었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난 시간이었다 팔걸이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던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벌떡 일어났다 죽은 쥐들이 들어 있는 자주를 깔고 앉았던 것이다 집중적인 살충제의 세례를 받고 흠뻑 젖은 채 축 늘어진 커튼에서는 더 이상 봉봉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들의 발치에는 의식을 잊은 독시들이 양동이 안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시꺼먼 알들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크룩생크는 미심쩍은 듯이 코를 킁킁거리며 독시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조지와 프레드는 연신 탐욕스런 눈길을 던졌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여기에 도전해야 할 것 같다"

위즐리 부인이 벽난로 맞은편에서 있는 먼지 낀 유리가 불은 진열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에는 온갖 이상한 물건들이 짹짜 들어차 있었다. 녹슨 단검

발톱 돌돌 말린 뱀 껌질 해리가 도저히 읽을 수도 없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변색된 은상자 등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나쁜 물건은 마개에 커다란 오펠이 박혀 있는 화려한 크리스탈 병이었는데 피인 것이 분명한 액체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때 현관 벨 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모두들 일제히 위즐리 부인을 쳐다보았다

"여기 있거라" 부인은 단호하게 말하더니 쥐가 든 자루를 집어 들었다

아래층에서는 다시 블랙 부인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오마"

위즐리 부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방을 나가자마자 모두들 쓴살같이 창문으로 달려가서 현관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부스스한 빨간 머리와 위태위태하게 포개져 있는 냄비들이 보였다

"먼던구스야! 저 냄비들을 다 뭐하려고 가져왔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마 냄비를 보관해 둘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는 걸거야 내 뒤를 미행하기로 되어 있던 날 밤에 먼던구스가 했던 일이 뭐였겠어? 바로 저 불법 냄비를 주우러 갔던 거였잖아"

해리가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프레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먼던구스가 냄비를 짊어지고 문 안으로 사라졌다 "맙소사 엄마가 좋아하시지 않을텐데..."

프레드와 조지는 문 앞으로 다가가서 귀를 바싹 대고 섰다 블랙 부인의 비명 소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들리지 않았다

"먼던구스가 시리우스와 킹슬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프레드가 정신을 집중하느라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잘 안 들리는걸... 어떻게 생각해? 좀 위험하겠지만 늘어나는 귀를 사용해 볼까?"

"한번 해보자 내가 위층으로 살짝 올라가서 늘어나는 귀를-"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늘어나는 귀가 더 이상 필요없을 정도로 커다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들 위즐리 부인이 목청껏 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여기는 흉친 물건 따위나 숨기는 곳이 아니에요!"

"난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면 괜히 기분이 좋더라" 프레드가 얼굴 가득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위즐리 부인의 목소리를 좀더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방문을 조금 열어 놓았다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니까"

"정말 무책임하기 짹이 없군요 당신이 굳이 흉친 냄비를 집 안으로 끌고 오지 않아도 걱정스런 일이 태산인데-"

"저 명청이들이 엄마가 본색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둘 생각인 모양이군" 조지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너희가 서둘러 엄마를 말리지 않으면 엄마 머리에 뚜껑이 열려서 몇 시간 동안 김이 나는 꿀을 보게 될 거야 그러지 않아도 먼던구스가 해리 네 뒤를 따라다녀야 할 시간에 몰래 자리를 비운 이후로 엄마는 그에게 한바탕 퍼붓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말이야 아이쿠 시리우스의 엄마가 또 시작이군"

복도에 걸린 초상화들이 내지르는 비명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에 위즐리 부인의 목소리가 파묻혀 버렸다

조지는 그 소리를 막기 위해 방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미처 문을 닫기 전에 집요정이 방 안으로 쏙 뛰어 들어왔다

몸통 한가운데에 허리띠처럼 두른 더러운 천 조각 이외에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었다 이 집요정은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였다 너무 쪼글쪼글해서 요정의 피부를 짹 펴면 자기 몸의 몇 배는 될 것처럼 보였다 이 요정도 다른

집요정들과 마찬가지로 대머리였지만 박쥐처럼 생긴 커다란 귀 뒤로 하얀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고 물에 젖은 듯한 회색이었다 그의 커다랗고 살찐 코는 흡사 돼지 코 같았다

집요정은 해리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마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발을 질질 끌며 방의 제일 안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걸어갔다 그는 황소개구리같이 거칠고 굵은 목소리로 연신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저분한 인간 쓰레기 악당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 여자도 나을 건 없어 제
새끼들을 데리고 우리 주인님의 집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놀다니 못된 늙은
동족의 배신자 오 불쌍한 우리 주인님 주인님이 아신다면 이 악당들이 함부로
주인님 집에 들어온 걸 아신다면 이 늙은 크리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
수치스럽게도 머글 태생들과 늑대인간과 배신자 도둑이 득실거리다니 가엾은
늙은 크리처 어찌해야 좋을지..."

"안녕 크리처" 플레드가 문을 쾅 닫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집요정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이 발걸음을 우뚝 멈추며 입을 딱 다물었다
그러고는 너무나 호들갑스럽게 깜짝 놀란 시늉을 하기 시작했다
"크리처는 젊은 주인님을 미쳐 못 봤어요" 그는 몸을 돌리더니 프레드에게 꾸벅
절을 했다 그리고 여전히 양탄자를 내려다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분명하게
덧붙였다 "못된 꼬마 배신자 녀석이군"

"뭐라고? 마지막 말을 못 들었는데"

"크리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요정은 조지에게 꾸벅 절을 하면서
또다시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쌍둥이 형제야 비정상적인 꼬마 괴물들
같으니라고"

해리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요정은 허리를 쭉 펴더니
악의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하면서 계속 중얼거렸다

"저기 머글 태생도 있네 뻔뻔스럽게 잘도 서 있군 오 주인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저기 처음 보는 꼬마는 크리처가 이름도
모르는 녀석인데 여기서 월하고 있는 걸까 크리처는 모르겠네..."

"이쪽은 해리라고 해 크리처 해리 포터"

헤르미온느가 주저하며 말했다 크리처의 희미한 눈동자가 활짝 커지더니 더욱더
흥분한 듯이 빠르게 중얼거렸다

"이 머글 태생이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크리처에게 말을 걸다니 크리처의
주인님께서 크리처가 이런 녀석들과 함께 있는 걸 보신다면 오 뭐라고
말씀하실까-"

"헤르미온느를 머글 태생이라고 부르지 마!"

룬과 지니가 잔뜩 화가 나서 동시에 소리쳤다

"상관없어 그는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잖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헤르미온느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저 녀석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프레드가 미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크리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크리처는 여전히 해리를 바라보며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말일까? 저 꼬마가 해리 포터란 말이야? 크리처도 흡터를 볼 수 있어
분명히 사실인가 봐 저 꼬마가 어둠의 주인을 막았단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크리처는 도무지-"

"그래 크리처 사실은 우리 모두 믿어지지 않아"

프레드가 말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조지가 추궁하자 크리처의 커다란 눈이 조지를 째려보았다

"크리처는 지금 청소 중이에요"

크리처가 어설프게 둘러댔다

"그거 참 그럴듯한 거짓말이군" 해리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리우스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문가에 서서 집요정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이제
현관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음은 잠잠해졌다 위즐리 부인과 먼던구스가 일단
부엌으로 자리를 옮긴 모양이었다

시리우스를 보자 크리처는 돼지 코가 바닥에 달도록 허리를 숙이며
우스꽝스럽게 절을 했다

"똑바로 서 지금 월하고 있는 거지?"

"크리처는 청소 중이에요" 집요정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크리처는 고귀한
블랙 가문에 봉사하기 위해 살아요"

"날마다 더 더러워지고 새까매지는 블랙 가문이겠지"

시리우스가 쏘아붙였다

"주인님은 언제나 농담도 잘하세요" 크리처가 다시 굽실 절을 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배은망덕한
후례자식 주인님"

"우리 어머니에게는 마음이란 게 없어 크리처 어머니는 오직 미움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야"

시리우스가 쏘아붙였다 크리처가 다시 굽실하고 절을 하며 말했다

"주인님 말씀이 무조건 옳아요" 그러고는 다시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주인님은
마님의 신발도 닦을 자격이 없어 오 우리 불쌍한 주인만님 크리처가 그자를
섬기는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얼마나 미워하셨는데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분명히 지금 월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 시리우스가 차갑게 말했다 "항상
청소하는 척하며 나타나서는 그때마다 뭔가 슬쩍 네 방으로 가져가서 숨겨
놓잖아 우리가 버리지 못하도록 말이야"

"크리처는 주인님 집에 놓인 물건들을 단 한 개라도 옮기고 싶지 않아요"

집요정이 이렇게 대답하더니 다시 빠르게 중얼거렸다 "7백 년 동안이나 이 집
안에 걸려 있던 벽걸이 양탄자를 내버리면 주인마님께서 절대로 크리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크리처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해 크리처는 주인님과
반역자들과 꼬마 녀석들이 이 집을 파괴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건 네 뜻대로 될 거야" 시리우스가 혐오스럽다는 눈초리로 맞은편 벽을 훌끔
쳐다보며 말했다 "저 양탄자 뒤에도 틀림없이 영구 부착 마법을 걸어 놓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도 저걸 떼 낼 수만 있다면 반드시 떼 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 버려 크리처"

크리처는 감히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질질 끌며 시리우스의 옆을 지날 때 주인을 쳐다보는 크리처의
표정에는 뿌리 깊은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크리처는 방에서 나갈 때까지 쉬지
않고 중얼거렸다

"아즈카반에서 돌아와서 크리처에게 명령을 하다니 오 가엾은 주인마님 이 집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집을 차지하고 앉아서
마님의 소중한 물건들을 함부로 내던지고 그자는 절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마님도 선언하셨어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는... 사람들 말로는 살인자라던데"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면 정말 죽일지도 몰라!" 시리우스가 벌컥 짜증을 냈다
그러고는 집요정의 뒤에 대고 방문을 쟁 닫아 버렸다

"시리우스 그 집요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헤르미온느가 변명을 해주려고 했다

"저 집요정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냈단다 어머니의 초상화로부터 정신 나간
명령만 듣고 혼자 중얼거리는 데 익숙해진 거야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언제나
좀 불쾌한 녀석이긴 했어"

"혹시 저 집요정을 해방시켜 주면 어쩌면~"

헤르미온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저 녀석을 풀어 줄 수 없어 기사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거든"
시리우스가 딱 잘라 거절했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몰라 네가 한 번 저 녀석에게 이 집을 떠나라고 말해 봐 어떻게
나오는지"

시리우스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곳에는 크리처가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문제의 양탄자가 벽 전체에 걸려 있었다. 해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양탄자는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것 같았다 색이 다 바래고 여기저기 독시들이
갉아먹은 듯한 흔적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놓인 문양은 여전히
번쩍번쩍 빛을 발하며 구불구불 뻗어 나간 가문의 가계도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었다 그 가계도는 해리가 짐작하기에 최소한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양탄자 제일 위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고귀하고 유서 깊은 블랙 가문 '언제나 순수한'
"시리우스란 이름은 여기 없잖아요!"
가계도의 끝을 자세히 살펴보던 해리가 소리쳤다
"한때는 내 이름도 있었단다"
시리우스가 마치 담뱃불로 지진 자국처럼 보이는 작고 둥근 구멍을 가리켰다
"내가 집에서 도망치자 다정하신 우리 노친네께서 나를 가문에서 빼 버렸지
그거야말로 크리쳐 녀석이 제일 중얼거리기 좋아하는 이야기야"
"집에서 도망치셨단 말이에요?"
"열여섯 살 때였어 그럴 만한 나이였지"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해리가 그를 열심히 쳐다보며 물었다
"네 아빠네 집으로 갔단다 네 조부모님께서는 정말로 친절하셨지 나를
아들처럼 대해 주셨어 그래 방학 동안에는 그렇게 네 아빠의 집에서 지내다가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내 집을 얻었지 알파드 삼촌께서 상당한 금을
물려주셨거든 그 삼촌 이름도 여기서 빠졌단다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겠지
어쨌든 그때부터 난 혼자서 살았어 물론 일요일 점심은 항상 포터 부부 집에
초대를 받았지만 말이다"
"하지만...도대체 왜...?"
"왜 집에서 도망쳤느냐고?"
시리우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쓸어내렸다
"왜나하면 그 사람들 모두 다 지긋지긋하게 싫었으니까 순수 혈통만 고집하는
우리 부모님 블랙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엄청 고귀한 일이라고 믿고서...
게다가
내 명청한 동생은 부모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지 이게 바로 내 동생이야"
시리우스가 손가락으로 가계도의 제일 밑을 톡톡쳤다 거기에는 레귤러스
블랙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출생연도에 뒤이어 사망 연도(약
15년전이었다)가 밝혀져 있었다
"나보다 훨씬 어렸어 게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아들이었어 나는 항상 그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시리우스가 말했다
"하지만 죽었군요"
해리가 말했다
"그래 명청한 바보.... 죽음을 먹는 자들 편에 가담했거든"
"설마 그럴 리가!"
"해리 이 집을 보고도 우리 가족이 어떤 부류의 마법사들이었는지 모르겠니?"
시리우스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부모님도 죽음을 먹는 자들이었던 말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부모님은 볼드모트가 옳다고 생각했지 마법사
종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머글 태생들을 제거하고 순수 혈통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 찬성이셨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볼드모트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지지자들이 꽤 있었지 적어도 볼드모트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러니 레귤러스가 처음 거기에 가담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그를
어린 영웅쯤으로 생각하셨을 거야"
"그럼 오러에게 살해당했나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동생은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했어 아니 볼드모트의 지시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군 볼드모트가 직접 나서서 죽일 만큼
레귤러스가 중요한 인물이었을리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가 죽은 후에 내가
알아낸 바로는 너무 깊숙이 끼어들기는 했는데 자기에게 떨어진 명령에 그만
질려서 나중에는 발을 빼고 싶어 했다더군 하지만 볼드모트에게 사표라는 게
통할 리가 없지 평생 충성을 다하든지 아니면 죽음이야"

"점심 먹어요" 위즐리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샌드위치와 케이크가 수북이 담긴 커다란
쟁반을 아슬아슬하게 들고 왔다 여전히 빨갛게 달아오른 부인의 얼굴은 분이 다
안 풀린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먹기 위해 앞을 다투어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해리는 허리를 숙이고 양탄자를 가까이 살펴보는
시리우스 곁에 계속 남아 있었다
"정말 몇 년 만에 이걸 다시 보는군 여기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우리
고조부야 보이니? 호그와트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교장이었지 그리고 아라민타
멜리플루어... 우리 어머니의 사촌인데 머글 사냥을 합법화하는 마법부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지 그리고 친애하는 엘라도라 아주머니... 이분은
집요정들이 너무 늙어서 차도 나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목을 베어 버리는
가문의 전통을 처음 세우셨단다 물론 조금이라도 착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집안에서 축출되었지 통스의 이름도 여기에 없군 그래 그래서 크리처가 통스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모양이야 원래 크리처는 이 가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그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 통스랑 친척이란 말이에요?"
해리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래 통스의 어머니인 안드로메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촌이야" 시리우스가
양탄자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런 안드로메다의 이름도 여기 없어
잘 봐라"
시리우스는 벨라트릭스와 나시사라는 두 이름 사이에 나 있는 작고 둥근 구멍을
가리켰다
"안드로메다의 여자 형제는 아직도 여기 이름이 남아 있군 그들은 멋지고
완벽한 순수 혈통과 결혼을 했거든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머글 태생인 테드
통스와 결혼을 했지 그래서-"
시리우스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양탄자에 대고 한 방 쏘는 시늉을 하더니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해리는 웃지 않았다 안드로메다의 이름을
태워 버린 자국의 오른쪽에 있는 이름들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팔렸던 것이다
나시사블랙과 루시우스 말포이는 두 줄의 황금 자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이름에서부터 한 줄의 황금 선이 밑으로 뻗어 내려와 드레이코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말포이 집안과 친척이군요!"
"순수 혈통 집안은 모두 친척이지" 시리우스가 설명했다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오직 순수 혈통하고만 결혼시키려고 하면 선택의 폭이
몹시 제한되거든 이젠 순수 혈통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 몰리와 나는 서로
사돈지간이야 그런가 하면 아서는 나와 먼 육촌 형제뻘이지 하지만 위즐리
가족을 여기서 찾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위즐리 가족이야말로 동족의
배신자 집단이니까"
이제 해리는 안드로메다의 불탄 자리 왼쪽에 있는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벨라트릭스 블랙은 로돌프스 레스트랭과 두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레스트랭..."
해리는 큰 소리로 이름을 읽었다 그의 기억 속에 뭔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선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뱃속에서 뭔가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지금 아즈카반에 있어" 시리우스가 짤막하게 말했다
해리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벨라트릭스와 그녀의 남편인 로돌프스는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와 손을
잡았거든 로돌프스의 형제인 라바스탄도 그들과 한편이었지"
시리우스가 여전히 통명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기억과 생각을 저장할 수 있는 신기한 장치인
덤블도어의 펜시브에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을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눈꺼풀이

두껍고 키가 큰 흑인 여자였는데 법정에 서서 끝까지 볼드모트 경에 대한 충성심을 주장했었다 볼드모트가 몰락한 이후에도 그를 찾으려고 애를 쓸 만큼 자부심이 강했고 언젠가는 자신의 충성심이 보상을 받으리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사촌이란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 여자가 사촌이라서 무슨 문제가 되니?" 시리우스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기준으로 보면 이자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더구나 이 여자는 절대 내 가족이 아니야 네 나이였을 때 한 번 보고 다시 만난 적도 없어 이 여자가 아즈카반에 왔을 때 슬쩍 지나친 것 이외에는 말이야 넌 내가 이런 여자와 친척이란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니?"

"죄송해요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상관없다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돼" 시리우스가 중얼거리며 호주머니 속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양탄자 앞에서 돌아섰다 "난 두 번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내가 또다시 이 집에 갇히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시리우스는 거실을 명하니 둘러보며 말했다 해리는 그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프리벳가 4 번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해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본부로 쓰기에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지 우리 아버지가 이 집에 살고 있을 때 마법사들 사이에 알려진 보안 장치란 장치는 모두 다 설치했거든 이곳은지도 표시 불가 마법에 걸려 있어서 머글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절대로 찾을 수 없어 게다가 지금은 덤블도어 교수가 방어막을 더 쳐 놓았으니 여기보다 더 안전한 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덤블도어 교수의 불사조 기사단을 위한 비밀 보안 장치란 바로 어젯밤에 무디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쪽지야 덤블도어가 쓴 쪽지 말이야 어느 누구도 덤블도어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본부를 찾을 수 없도록 되어있지"

시리우스가 짤막하게 깔깔 웃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이 집의 용도를 아신다면... 내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면 너도 조금 짐작이 갈 거다"

시리우스는 잠깐 얼굴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뭔가 쓸 만한 일만 할 수 있어도 참을 수 있겠어 그래서 덤블도어 교수에게 너의 청문회에 동행 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 물론 스누플즈(시리우스를 부르는 다른 이름:역주)로 말이야 내가 너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해리는 갑자기 먼지 낀 양탄자 위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저녁 식사 이후로 청문회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시 함께 있게 되었다는 흥분 때문에 청문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시리우스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이 다시 몰려왔다

그는 헤르미온느와 위즐리 형제들을 바로보았다 그들은 모두 샌드위치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해리는 만약 저들만 호그와트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상상해 보았다

"걱정하지 마라" 시리우스가 말했다

고개를 든 해리는 시리우스가 줄곧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틀림없이 무죄로 판명날 거다 국제 비밀 법령에도 목숨이 위급할 때에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쫓겨나게 되면 여기 와서 함께 살아도 되나요?"

해리가 조용히 묻자 시리우스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한번 생각해 보자"

"더즐리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청문회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해리가 은근히 즐라댔다

"차라리 이 집이 더 좋다는 걸 보니 거기가 정말로 나쁜 곳인 모양이구나"

시리우스가 우울하게 말했다

"거기 두 사람 빨리 와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위즐리 부인이 큰 소리로 불렀다

시리우스는 또다시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더니 어두운 눈빛으로 벽걸이 양탄자를 힐끗 돌아보았다 그리고 해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 곁으로 걸어갔다 오후 내내 유리 진열장 안을 치우면서 해리는 어떻게든 청문회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애를 썼다 다행스럽게도 진열장 안을 치우는 작업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했다 안에 든 많은 물건들이 뾰얗게 먼지 않은 선반에서 좀처럼 비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리우스는 은으로 만든 코담뱃갑에 심하게 물리기까지 했다 물린 손은 순식간에 마치 우둘두툴한 갈색 장갑을 낀 것처럼 보기 흉한 딱지로 뒤덮였다

"좋아"

시리우스는 흥미로운 듯이 자신의 손등을 잠시 살펴본 후에 지팡이 끝으로 살짝 두들겼다 그러자 피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사마귀딱지 가루를 뿌린 게 틀림없군"

시리우스는 코담뱃갑을 옆에 있는 자루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 자루 안에는 진열장에서 깨낸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었다 잠시 후에 해리는 조지가 자루 속으로 손을 슬쩍 집어넣더니 이미 독시들이 우글거리는 호주머니 안에 코담뱃갑을 넣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몹시 기분 나쁘게 생긴 은으로 만든 기구를 발견했다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족집게처럼 생긴 이 물건은 해리가 집어 들자 거미처럼 그의 팔뚝에 착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했다 시리우스는 그것을 불잡더니 <타고난 고귀함: 마법사들의 계보학>이라는 두꺼운 책으로 짓뭉개 버렸다 그 밖에도 태엽을 감아 주면 음산하게 딩동거리는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훌러나오는 뮤직박스가 있었다 그 노랫소리를 듣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맥이 쭉 풀리면서 춤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지니가 정신을 차리고 뮤직박스의 뚜껑을 쾅 닫아 버렸다

또한 아무리 해도 뚜껑이 열리지 않는 묵직한 목걸이 장식과 오래된 옥새 몇 개 먼지 낀 상자 안에 든 멀린 1등급 훈장 등이 있었다 그 훈장은 시리우스의 증조부가 '마법부에 봉사'한 공로로 받은 것이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황금을 바쳤다는 뜻이지"

시리우스는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고는 훈장을 쓰레기봉투 속으로 던져 버렸다 그 동안에도 크리처는 대여섯 번씩 방 안을 들락거리며 허리 쪽에 물건을 숨겨 가지고 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들킬 때마다 매번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다 마침내 시리우스가 크리처의 손에서 블랙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커다란 황금 반지를 빼앗았을 때 그는 분노에 찬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계속 워라고 흐느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이름들로 시리우스를 부르더니 방에서 뛰쳐나갔다

"이건 우리 아버지 물건이야" 시리우스가 반지를 쓰레기봉투 속에 던지며 말했다 "크리처는 우리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충성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지난주에 얼핏 보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입으시던 바지를 껴안고 있더군"

위즐리 부인은 다음 며칠 동안에도 쉬지 않고 힘들게 일을 시켰다 거실을 완전히 싹 치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드디어 그 방에 남아있는 기분 나쁜 물건은 블랙 가문의 가계도가 그려진 벽걸이 양탄자와 훈들거리는 책상뿐이었다 양탄자는 온 힘을 다해 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책상은 무디가 아직 본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확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거실에서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접시만큼이나 커다란 거미들이 천장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이걸 보자 론은 차를 끓여야겠다며 황급히 방을 나가더니 한 시간 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블랙 가문의 문장과 가훈이 새겨져 있는 도자기들은 시리우스 손에 의해서 놓땅 자루 속으로 던져졌다. 변색된 은제 사진틀에 들어있는 옛날

사진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사진틀에 끼워진 유리가 박살나자.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일제히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렀다.

스네이프라면 이 작업을 '청소'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해리가 보기에 이것은 이 집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크리처의 선동과 부추김을 받으며 재벌 잘 싸우고 있었다.) 이 집요정은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나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쓰레기 봉투에서 뛰든 가져가려고 할 때마다. 그의 중얼거림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갔다. 듣다 못한 시리우스는 옷으로 그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크리처는 누울 어린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은 주인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획 돌아서 아주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주인님은 크리처를 해고하지 못할 거야. 못하고 말고 왜냐하면 크리처는 저들의 속셈이 뭔지 다 알거든 맞아.... 그는 어둠의 주인에게 맞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그래, 머글 태생들과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모여서 말이지...."

이말을 듣자, 시리우스는 헤르미온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크리처의 허리띠를 뒤에서 움켜쥐고는 방 밖으로 거칠게 던져 버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 벨이 울렸다. 그것은 시리우스의 어머니에게는 또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라는 신호였고, 해리와 다른 친구들에게는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으라는 신호였다. 물론 얼른 와서 일하라는 위즐리 부인의 잔소리를 피해야면서 드르이 잠깐잠깐 내다보고 엿드는 대화 내용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스네이프는 대여섯 번도 넘게 이 집을 들락거렸지만, 다행이 단 한 번도 해리와 정면으로 마주친 적은 없었다. 변신술 선생인 맥고나걸 교수도 본 적 있었는데, 머글 드레스와 코트를 입은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 역시 너무 바빠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끔은 손님들이 이 집을 머물면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가령 통스는 그들과 함께 위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무시무시한 늙은 고물을 찾아내며, 잊을 수 없는 오후 시간을 보냈다. 원래 시리우스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다가 뭔가 비명스런 임무 때문에 한동안 떠나 있던 루핀은 꽤종시계 고치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육중한 추를 발사하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었다. 먼던구스는 옷장 안에 든 옷을 치우다가 오래된 보라색 옷에 목 졸려 죽을 뻔한 론을 구해 내는 공로를 세움으로써, 위즐리 부인에게 약간의 점수를 딸 수 있었다.

해리는 여전히 잠을 잘 이를 수가 없었다. 긴 복도들과 잠긴 문들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이마의 흉터가 쑤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들어 처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움직일 때에는 모든 걸 잊고 행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할 일이 뜯해져서 조금만 방심하거나, 혹은 침대에 쓰러져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마법부 청문회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만약 호그와트에서 쫓겨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생각만 해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공포가 가슴을 조였다. 해리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생각을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조차 털어놓을수가 없었다. 두 사람도 종종 컷속말을 주고 받으며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곤 했지만, 그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가끔씩 얼굴 없는 마법부의 직원이 그의 지팡이를 두

동강 내며 당장 더즐리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해리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물론 해리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정말로 그럴 작정이었다. 여기 그리볼드 광장으로 돌아와서 시리우스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수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던 위즐리 부인이 문득 그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을 때, 해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해리, 내일 아침에 네가 갈아입을 외출복을 다려 놓았다. 오늘 밤에는 머리를 꼼 감고 자도록 해라. 첫인상이 좋으면 뜻밖에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으니까." 론과 헤르미온느, 프레드, 조지, 지나는 일제히 입을 다물고 해리를 쳐다 보았다. 해리는 고래를 끄덕이고 식사를 계속 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입 안이 깔깔해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죠?"

해리는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서가 출근할 때 너를 데려갈 거야."

위즐리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위즐리 씨는 식탁 너머에서 해리에게 격려의 미소를 던졌다.

"청문회 시간이 될 때까지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위즐리 씨가 말했다. 해리는 시리우스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시리우스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위즐리 씨가 먼저 대답을 했다.

"시리우스와 함께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덤블도어 교수의 생각이란다. 그리고 내생각에도..."

"덤블도어 교수가 옳다는 말이겠지."

시리우스가 이를 악물며 쏘아붙였다. 그러자 위즐리 부인이 뿌루퉁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해리가 시리우스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젯밤에 오셨단다. 네가 자고 있을 때 말이지"

위즐리 씨가 말했다. 시리우스는 우울한 표정으로 애꿎은 감자만 포크로 쿡쿡 찔러 댔다. 해리는 힘없이 점시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덤블도어가 청문회 전날 이 집에 들렸으면서도 그의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의 기분은 더욱더 우울해졌다.

제 7 장 마법부

다음날 아침 다섯 시 반이 되자, 해리는 마치 누군가 그의 귀에 대고 고함이라도 지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잠깐 동안 꿈쩍하지 않고 누워 있었던 머릿속은 온통 청문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리는 더 이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안경을 썼다. 위즐리 부인이 말끔하게 세탁해 놓은 청바지와 티셔츠가 침대 발치에 얹전히 놓여 있었다. 해리는 옷을 마구 휘저어 버렸다. 벽에 걸린 텅 빈 액자에서 또다시 깔깔거리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론은 입을 딱 벌린 채, 네 활개를 치며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해리가 방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간 후에 문을 살짝 닫을 때까지, 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다음번에 론은 다시 만날 때에는, 더 이상 같은 호그와트의 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 해리는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크리처 조상들의 목이 진열된 곳을 지나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부엌에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을 열자, 위즐리 부부와 시리우스, 루핀 그리고 통스가 빙 둘러앉아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위즐리 부인만이 속을 누빈 보라색 실내복을 입고 있을 뿐 모두들 외출복 차림이었다. 해리가 들어오자, 무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침 식사 해야지"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지팡이를 깨내더니 화덕 쪽으로 황급히 다가갔다.

"아-아- 안녕, 해리?" 톰스가 하품을 하며 인사를 했다. 오늘 아침에 그녀의 머리는 곱슬곱슬 금발이었다. "잠은 잘 잤니?"

"네,"

해리가 대답했다.

"나는 바-바-암을 꼴딱 새웠단다. 이리 와서 앓아라." 톰스는 또다시 몸을 떨면서 하품을 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 당기다가 옆에 있던 의자 하나를 쓰러뜨렸다.

"해리, 뭘 먹겠니? 죽? 머친? 훈제 연어? 베이컨과 달걀? 토스트?"

"그냥-그냥 토스트 주세요, 고맙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루핀이 해리를 힐끗 바라보더니, 톰스에게 말을 걸었다.

"스크림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

"아.... 그래요, 그러닌까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킹슬러와 저에 대해서 웃기는 질문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해리는 굳이 이 대화에 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뱃속이 꿈틀거리고 속이 메슥거리는 것 같았다. 위즐리 부인은 해리 앞에 토스트와 마멀레이드 잼을 내려놓았다. 해리는 어떻게든 먹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치 양탄자를 씹는 기분이었다. 위즐리 부인은 맞은편에 앉아서 밖으로 나온 상표를 밀어 넣어 주고 어깨를 쓸어내리며 주름을 펴 주는 등, 그의 티셔츠를 가지고 온갖 난리를 다 쳤다. 해리는 제발 부인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그래서 덤블도어에게 내일 밤 근무는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려야 겠어요 너-너무 지쳤어요."

톰스가 다시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말을 끝냈다.

"내가 대신 서 주지 난 괜찮아. 서둘러 끝내야 할 보고서가 있기는 하지만."

위즐리 씨는 마법사 망토가 아니라. 가는 새로출 무늬가 있는 바지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는 톰스에게서 해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기분이 더떠니?"

해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금방 끝날 게다, 몇 시간 후면, 넌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야."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내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아멜리아 본즈의 사무실에서 열릴 게다. 아멜리아는 마법사 법률 강제 집행부 부장이란다. 그녀가 너에게 질물을 할 거야."

"아멜리아 본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해리 공정한 사람이니까, 네 말을 들어 줄 거야."

톰스가 열심히 위로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마라. 끝까지 예의를 잊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갑자기 시리우스가 끼어들었다.

해리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법은 네 편이야. 아무리 나이가 어린 마법사라고 해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때 원가 아주 차가운 것이 해리의 뒷덜미에 달았다. 순간 해리는 누군가 또다시 그에게 투명 마법을 걸었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위즐리 부인이 젖은 빗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향해 덤벼든 것이다. 부인은 그의 머리 꼭대기부터 열심히 빗겨 내리기 시작했다.

"이 머리는 좀 양전하게 있는 법이라곤 없니?" 위즐리 부인이 짜증을 냈다.

해리가 고개를 흔들었다. 위즐리 씨는 시계를 살펴보더니 해리를 쳐다보았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좀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여기서 괜히 어슬렁거리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좋아요."

해리가 재빨리 토스트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리 다 잘 될 거야."

통스가 그의 팔을 톡톡 쳤다.

"행운을 빈다. 괜찮을 거야."

루핀이 격려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아멜리아 본즈를 찾아가마....."

시리우스가 각오에 찬 모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위즐리 부인이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

"우리 모두 네가 잘 되길 빈다."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전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뵙죠."

해리는 위즐리 씨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간 후에 복도를 걸어갔다. 커튼 뒤에서 시리우스의 어머니가 잠을 자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즐리 씨가 현관 자물쇠를 열자. 두 사람은 차갑고 뿐연 새벽 거리로 걸어 나왔다.

"보통 때에도 사무실까지 걸어가시나요?"

해리가 물었다. 두 사람은 광장을 돌아서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니 대개는 순간 이동을 한단다. 하지만, 넌 그럴 수 없잖아. 그리고

사무실까지 철저하게 비마법적인 방식으로 가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다....

더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도 있고 말이야, 네가 그렇게 훈련이나 교육 받았다는 걸

고려한다면...."

위즐리 씨는 걸옷 속으로 손을 넣은 채 걸어갔다. 틀림없이 지팡이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황폐한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하지만 초라하고 작은 지하철 역에 도착하자, 이른 아침 통근자들로 이미 만원이었다. 자신이 일상 업무를 보기 위해 가는 머글들과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걸 깨닫자, 위즐리 씨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정말 독창적이다."

위즐리씨는 지하철 표 자동판매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속삭였다.

"고장났어요."

해리가 표지판을 지적했다.

"그래, 그렇다고 해도...."

위즐리씨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기계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대신 나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직원에게 표를 샀다(물론 표를 사는 일은 해리가 했다. 위즐리 씨는 머글들 돈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오

분 후에 그들은 런던 중심가로 향하는, 덜컹거리는 지하철에 올라탔다. 위즐리 씨는 불안한 듯이 창문 위쪽에 붙어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다.

"해리, 네 정거장이다.... 이제 세 정거장 남았구나... 두 정거장...

해리....."

두 사람은 런던 한복판에 내렸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와 여자들이 홍수처럼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

두 사람은 개찰구를 지나서(위즐리 씨는 기계가 지하철 표를 덤석 삼기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위압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대로로 나왔다.

거리에는 이미 자동차들이 빽빽했다.

"여기가 어디지?"

위즐리 씨가 명한 표정을 지었다. 한순간 해리는 위즐리씨가 계속 노선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에서 잘못 내린 줄 알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위즐리 씨는 급방 "아 그래.... 이쪽이다. 해리."라고 말하고 옆길로 그를
인도했다.

"미안하다. 지하철로 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말이다. 머글들 입장에서 보니, 모든 게 생소하구나. 사실 나는 손님용 입구를 처음 사용해 보는 거란다."

계속 걸어 갈수록, 건물들이 점점 초라해졌다. 마침내 그들은 추레한 사무실과 술집, 쓰레기가 넘쳐나는 덤프트럭이 있는 어떤 거리에 도착했다. 사실 해리는 마법부가 이보다는 좀더 멋진 장소에 있을 걸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다."

위즐리 씨가 다 낡은 빨간색 공중전화 박스를 가리키며 쾌활하게 말했다.

여기저기 유리창이 떨어져 나간 공중전화 박스는 낙서가 심하게 되어 있는 벽 앞에 서 있었다.

"먼저 들어가렴, 해리!"

위즐리 씨가 공중전화 박스 문을 열었다.

해리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위즐리 씨가 해리 옆으로 비집고 들어오니 문을 닫았다. 박스 안은 몹시 비좁았다. 해리는 전화기 옆에 바싹 달라붙었다. 전화기는 마치 기물을 부수고 다니는 자들이 들으려다 만 것처럼, 벽 위에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위즐리 씨는

해리 앞으로 팔을 뻗어서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위즐리 씨, 이전회기도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해리가 말했다.

"아니, 아니야, 이 전화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위즐리 씨는 그의 머리 위로 수화기를 집어 들고 다이얼을 들여다 보았다.

"어디 보자, 6이라....."

그는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2....4.... 그리고 또 4.... 그리고 2....."

다이얼이 부드럽게 제자리로 돌아가자, 위즐리 씨가 손에 들고 있는 수화기 너머에서가 아니라, 전화 박스 안에서 시원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자가 바로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처럼 크고 분명했다.

"마법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명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음...."

위즐리 씨는 수화기에 대고 말을 해야 할지 그냥 말을 해야할지 잠시 망설이더니, 수화기를 거꾸로 들어서 송화기를 귀에 대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저는 머글 문화유물 오용 관리과에 근무하는 아서 위즐리 인데, 여기 해리 포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징계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요정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손님 여러분, 배지를 집으신 다음 가슴에 달아 주십시오."

짤막하고 짹그랑하는 소리가 나더니, 보통 반환되는 동전이 나오는 구멍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왔다. 해리는 것을 집어 들었다. 네모난 은색 배지에

"해리포터, 징계 청문회"라고 새겨져 있었다. 해리가 그것을 티셔츠에 달자, 다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마법부에 오신 손님 여러분께서는 보안 검색대에서 지팡이를 등록하시고 검색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검색대는 중앙 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순간 전화 박스 바닥이 흔들렸다. 잠시 후에 그들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해리는 거정스럽게 투명한 유리창 밖을 내다 보았다. 전화 박스가 점점 보도 아래로 가라앉더니, 마침내 깜깜한 어둠이 그들의 머리 위까지 뒤덮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만 전화 박스가 땅 밑으로 내려가면서 옆을 스치는 둔탁한 소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일 분쯤 지났을까. 물론 해리에게는 훨씬 더 길게 느껴 졌지만, 한 줄기 황금 불빛이 그의 발을 비추었다. 불빛은 조금씩 넓어지면서 그의 몸을 타고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해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눈을 감고 말았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전화 박스의 문이 활짝 열리자. 위즐리 씨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해리는

입을 딱 벌린 채, 그 뒤를 따라 나왔다.

그들 앞에는 눈이 부시게 반들거리는 검은색 마루가 깔린 화려한 훌이 길게 뻗어 있었고, 광택이 나는 푸른색 천장에는 번쩍거리는 황금색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상징들은 마치 하늘에 걸린 거대한 계시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양을 바꾸었다. 한편 윤이 나는 검은색 널빤지를 덧댄 양쪽 벽에는 황금을 입힌 벽난로들이 수없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왼쪽 벽 난로에서는 몇 분마다 흑~ 소리와 함께 마녀나 마법사가 나타나곤 했다. 오른쪽 벽난로들 앞에는 마법사들이 줄지어 서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훌은 반쯤 지나자. 분수대가 나타났다. 둥근 분수대 한가운데에는 실물 크기보다 약간더 큰 황금 조각상들이 서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위엄이 넘치는 마법사 조각상으로 허공을 향해 지팡이를 곳장 치켜들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아름다운 마녀 한 명과 켄타우로스, 도깨비 그리고 집요정이 둘러서 있었는데 이 셋은 모두 마녀와 마법사를 찬미하듯이 우러러 보고 있었다. 두 개의 지팡이와 켄타우로스의 화실, 도깨비의 모자, 그리고 집요정의 두 귀에서는

반짝이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찰랑거리며 떨어지는 물소리에 순간 이동을 하는 마법사들의 뽕하고 평하는 소리. 그리고 바쁘게 오고 가는 발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수백 명의 마녀와 마법사들이 대부분 무뚝뚝하고 잠에서 덜 깐 표정으로 저 멀리 훌의 반대편 끝에 있는 황금색 문들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이쪽으로." 위즐리 씨가 말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마법부 직원들 사이를 요리조리 해치며 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잔뜩 안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지나갔다.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일보>를 읽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분수대 앞을 지나칠 때, 해리는 분수대 바닥에서 은 시클과 청동 크넛들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옆에는 때가 낀 작은 표지판이 놓여 있었다.

마법 형제들의 분수대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마법 질병과 상해를 위한 성 and 고 병원을 위해 쓰입니다.

호그와트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면, 10 갈레온을 바칠게요. 해리는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빌었다.

"여기다, 해리."

위즐리씨가 말했다. 그들은 황금빛 문들을 향해 걸어가는 마법부 직원들의 행렬에서 빠져나와 왼쪽에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경비'라는 표지판이 놓여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광택 나는 푸른색 옷을 입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마법사가 <예언자 일보>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손님과 함께 왔는데요."

위즐리씨가 해리를 가리켰다.

"이쪽으로 걸어오시오."

마법사는 따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마법사는 자동차의 안테나처럼 길고 가늘고 유연한 황금 막대기를 치켜들더니 해리의 앞과 뒤를 위아래로 쓸어내렸다.

"지팡이"

경비 마법사는 황금 막대기를 내려놓더니 해리를 향해 불쑥 손을 내밀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해리가 지팡이를 내놓자 경비는 이상하게 생긴 놋쇠 가구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았다. 마치 접시 저울처럼 생긴 그 가구는 부르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느다란 양피지가 기구 아래쪽 긴 구멍에서 빠르게 찍혀 나왔다. 경비는 그 종이를 찢어 내더니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28 센티미터, 불사조 깃털이 들어 있음, 4년간 사용, 맞나요?"

"그렇습니다."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여기에 보관하겠소." 경비는 그 양피지 조각을 작은 놋쇠 뜯에 꽂으며 말했다. "지팡이를 다시 받으시오."

경비는 해리에게 지팡이를 돌려 주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경비 마법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이 해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방문객용 은 배지와 그의 이마를 재빨리 오고 갔다.

"고맙소 에릭."

위즐리씨가 단호하게 말하더니 해리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그리고 황금 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마법사와 마녀들의 행렬 속으로 되돌아갔다.

해리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위즐리 씨의 뒤를 따라 황금 문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에는 조금 더 작은 훌이 있었는데, 정교하게 무늬를 새긴 황금

창살문 뒤에 최소한 스무 개의 승강기가 세워져 있었다. 해리와 위즐리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속으로 끼어 들었다. 그들 옆에는 덩치가 크고 수염이 난 마법사가 커다란 마분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상자 안에서는 뭔가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내냐, 아서?"

그 마법사가 위즐리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했다.

"거기엔 뭐가 들었나, 밤?"

위즐리 씨가 상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네."

마법사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이놈이 불을 내 뿐이 전까지는 그저 늙지대 닦이라고 생각했었지, 내가 보기에는 교배 실험 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같아."

이때 승강기 한 대가 요란하게 빠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내려왔다. 황금 창살문이 옆으로 열리자, 해리와 위즐리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승강기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벽 뒤에 거의 짓눌리다시피 서 있었다. 몇몇 마녀와 마법사들이 흥미로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해리는 사람들과 눈길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발밑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면서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창살문이 닫히고 승강기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낭랑한 여자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7 층, 마법 게임 및 스포츠부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퀴디치 리그 본부와 공식

곱스톤 클럽, 장난감 특허국이 있습니다."

승강기의 문이 열렸다. 해리는 지저분하게 보이는 복도를 슬쩍 내다 보았다. 온갖 퀴디치 팀의 포스터들이 벽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빗자루를 두 팔 가득 안고 있던 한 마법사가 힘들게 사람들 틈을 비집고 승강기에서 내리더니 복도 아래로 총총히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승강기는 덜컹거리며 다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6 층, 마법 교통부입니다. 플루 가루 네트워크 사무국과 빗자루 규제 통제소, 포트키 사무소, 순간이동 테스트 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또 다시 승강기 문이 열리고 네다섯 명의 마녀와 마법사들이 내렸다. 동시에 종이 비행기 대여섯 대가 승강기 안으로 슈웅 날아 들어왔다. 해리는 그것들을 명하니 바라 보았다. 연한 보라색의 종이 비행기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그의

머리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비행기 날개 끝에는 "마법부"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부서들 간에 주고 받는 메모란다. "위즐리 씨가 해리에게 속삭였다. "예전에는 부엉이를 사용했었는데 어찌나 소란스럽던지 감당할 수가 있어야지, 책상마다 온통 부엉이 똥 천지고..."

승강기가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메모들은 승강기 천장에서 흔들리는 등불 주위를 맴돌았다.

"5층, 국제 마법 협력부입니다. 국제 마법 무역 기준 법인 국제 마법 법률 사무소, 그리고 국제 마법사 연맹 영국 지부가 함께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몇몇 마법사와 마녀와 함께 메모들 중에 두께가 밖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대여섯 개의 더 많은 메모가 다시날아 들어왔다. 천장에 달린 등불은 메모들이 퍼덕거리며 주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깜박깜박 흔들렸다.

"4층,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입니다. 동물, 인류, 영혼, 부서와 도깨비 연락 사무소, 해충 대책 사무국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불을 내뿜는 닭을 들고 있던 마법사가 승강기에서 내렸다.

몇몇 메모들이 무리를 지어 그 뒤를 쫓아 내렸다. 승강기 문이 다시 덜컹거리며 닫혔다.

"3층, 마법 사고와 재난부입니다. 마법 사고 복구반, 망각 본부, 그리고 머글을 위한 해명 위원회가 함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르르 내렸다. 위즐리 씨와 해리 그리고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긴 양피지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한 마녀만이 승강기 안에 남았다. 승강기가 다시 덜컹거리며 위로 올라가고는 동안, 남아 있는 메모들은 여전히 등불 주위를 맴돌았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려왔다.

"2층, 마법사 법률 강제 집행부입니다. 마법 오남용 관리과, 오러 본부, 위증가모트 행정 사무국이 함께 있습니다."

"해리 여기다."

위즐리 씨가 말했다. 그들은 마녀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려서 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복도로 나갔다.

"내 사무실은 복도 맞은편에 있어."

"위즐리 씨,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는게 맞나요?"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 앞을 지나면서, 해리가 물었다.

"그래 맞아. 이것은 마법에 걸린 창문들이지, 날마다 마법 관리부에서 오늘은 어떤 날씨로 할지 결정한단다. 지난번 그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서 투쟁했던 두

달 동안 내내 허리케인 계속되기도 했어, 이쪽으로 돌아가거라, 해리."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서 육중한 떡갈나무 문을 지나쳤다. 그러자 작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넓은 장소가 나타났다. 그곳은 왁자지껄한 웃음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메모들이 모형 로켓처럼 칸막이들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칸막이에 비스듬하게 걸려 있는 표지판에는 "오러 본부"라고 적혀 있었다.

해리는 복도를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문 안을 들여다 보았다. 오러들의 칸막이 벽에는 현상 수배된 마법사들의 사진에서부터 가족사진, 제일 좋아한다는 퀴디치

팀 사진, <예언자 일보>에서 오린 기사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빌보다도 더 길게 꼽지머리로 늘어 놓고 뜨리고 주황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책상 위에 발을 턱 올려놓고, 깃펜을 향해 보고서를 불러 주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한 마녀가 눈에 안대를 한 채, 칸막이 너머로 킹슬리 샤클볼트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위즐리."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킹슬리가 태연하게 인사를 던졌다.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아주 잠깐 밖에는 안 됩니다. 좀 바쁘거든요."

위즐리 씨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해리가 아무 생각 없이 킹슬리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자, 위즐리 씨가 그의 말을 깎았다. 두 사람은 킹슬리를 따라서 제일 뒤쪽에 있는 칸막이로 갔다.

순간 해리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온 사방에서 시리우스의 얼굴이 그를 향해 눈을 깜박이고 있었던 것이다. 오려 낸 신문 기사와 오래된 사진들- 심지어는 시리우스가 포터 부부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한 사진까지- 이 사방에 도배가 되어 있었다. 시리우스의 사진이 붙어 있지 않은, 단 한 곳에는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작은 붉은색 핀으로 세계 지도가 꽂혀 있었다.

"여기요."

킹슬리가 위즐리 씨의 손에 양피지 한 뭉치를 질러 주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지난 열두 달 동안 목격된 날아다니는 머글 운송수단에 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블랙이 아직도 낡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킹슬리가 해리에게 눈을 크게 찡끗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에게 이 잡지를 가져다줘, 흥미 있어 할 것야, ."

킹슬리는 다시 평상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위즐리, 그 '수화기'들에 대한 보고서도 늦어져서 우리 조사가 한 달이나 지체되었어요."

"내가 쓴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수화기'가 아니라 '소화기(권총 따위의 작은 무기들:역주)'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거요."

위즐리 씨가 멋지게 응수했다.

"어쩌면 오토방이에 대한 정보는 조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우리도 지금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위즐리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일곱 시 전에 퇴근할 수 있으면, 물 리가 미트볼을 준비해 놓을 걸세."

위즐리 씨는 해리에게 킹슬리의 칸막이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떡갈나무 문을 지나서 새로운 통로로 들어섰다. 왼쪽으로 돌아간 거들은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자 희미하게 불이 밝혀진, 초라한 복도가 나타났다. 마침내 두 사람이 복도 끝에 이르렀을 때,

윈고에는 약간 열린 문틈으로 빗자루 보관실이 보였다. 그리고 오른 윈고에는 '머글 문화유물 오용 관리과'라고 새겨진 녹슨 놋쇠 패밀이 붙어 있었다.

위즐리 씨의 구질구질한 사무실은 빗자루 보관실 보다도 약간 더 작은 것 같았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두 개가 간신히 놓여 있을 뿐, 벽을 따라 쭉 늘어선

캐비닛 때문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서류로 넘쳐나는 캐비닛 위에도 서류들이

쓰러질 듯이 높이 쌓여 있었다. 그나마 약간 남아 있는 벽의 반자루들은 위즐리 씨의 광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예닐곱 장의 자동차 포스터들과 분해된 엔진 사진 한 장, 머글 동화책에서 오려 낸 것처럼 보이는 우체통 그림 두 장, 그리고 플러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주는 도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위즐리 씨의 넘쳐나는 캐비닛 꼭대기에는 낡은 토스터 한 대가 애처롭게 딸꾹질을 하며 앉아 있었고 텅 빈 가죽 장갑이 자기 엄지 손가락을 비틀고 있었다. 캐비닛 옆에는 위즐리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해리는 퍼시가 마치 사진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눈치챘다.

"여긴 창문이 없단다."

위즐리 씨가 변명하듯이 말하며, 점퍼를 벗어서 의자 뒤에 걸었다.

"창문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구나, 어쨌든 앉거라, 해리, 퍼킨스가 아직은 온 것 같지 않구나."

해리는 퍼킨스의 책상 뒤에 있는 의자에 비집고 앉았다. 그동안 위즐리 씨는 킹슬리 샤클볼트가 준 양피지 뭉치를 뒤져보고 있었다.

"아하!"

위즐리 씨가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양피지 뭉치 사이에서 <이러쿵 저러쿵>이라는 잡지를 꺼냈다.

"그래..."

위즐리 씨는 잡지를 대충 살펴 보았다.

"그래, 그의 말이 맞아, 시리우스가 보면 틀림없이 무척 좋아하겠군. 오, 이런! 도대체 이게 뭐지?"

열린 문을 통해서 메모 하나가 획 날아오더니, 날개를 팔랑 거리며 떨꺼질하는 토스터 위에 앉았다. 위즐리 씨는 메모를 펼쳐 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

"베스널 그린에서 역류하는 공중 화장실이 보고 되었음, 즉시 조사 바람, 이거 점점 웃기는데."

"역류하는 화장실이라고요?"

"반-머글주의자들의 소행이란다."

위즐리 씨가 얼굴을 찌푸렸다.

"지난 두 주 동안 웰불던에서 한 건, 엘레펀트 캐글에서도 한 건, 이런 일이 있었지, 머글들이 화장실 물을 내리면, 모든게 사라지는 대신.... 그 다음엔 너도

상상할 수 있겠지, 그 가엾은 머글들은 그 뭐라고 하더라 그 배-배관 어쩌고 하는 것을 계속 불러 대고 있단다. 하수관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고치는 사람 말이다."

"배관공 말인가요?"

"바로 그거다. 맞았어 물론 그들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그놈들을 잡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을 잡는 건 오러가 하나요?"

"아니, 오러가 하기에는 너무 시시한 일이야. 그저 평범한 마법사 법률 강제 집행부 순찰대들이 하겠지, 아, 해리 이쪽은 퍼킨스야."

허리가 구부정하고 하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소심하게 보이는 늙은 바법사가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막 들어왔다.

"오, 아서!"

노인은 해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탄식하듯이 부르짖었다.

"고맙기도 하지, 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애당초 모르게 Tejsnrs, 여기서 자넬 기다려야 할지 알아야 할지 말이야. 자네 집으로 부엉이를 한 마리 보내기는 했는데 아마 분명히 못받았을 거야, 다른이 아니라. 십분 전에 긴급한 전갈이 왔는데 말이야...."

"역류하는 화장실이라면 저도 알고 있어요."

위즐리 씨가 말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닐세, 포터라는 아이의 청문회 때문이야. 저들이 시간과 재판 장소를 바꿨다네. 지금 당장 여덟시에 시작할 거야. 지하 구 법정 10호에서~"

"지하구 법정이라-. 하지만, 멀린의 수염에 맹세코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 "

위즐리 씨는 시계를 내려다보더니 앗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해리, 서둘러라. 벌써 오 분이나 늦었어!"

위즐리 씨가 후닥닥 사무실을 뛰어나가는 동안, 퍼킨스는 서류 캐비닛에 몸을 납작 붙이고 서 있었다. 해리도 곧바로 그의 뒤를 쫓아갔다.

"왜 시간을 바꾼 거죠?"

오러의 칸막이 사무실 옆을 황급히 지나갈 때, 해리가 헉헉 거리며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일찍 와서 다행이로구나. 청문회를 놓쳤다가는 정말 큰일이 났을 게다!"

위즐리 씨는 승강기 옆에 멈춰 서더니 내려가는 버튼을 마구 눌러 댔다.

"빨리좀 와라!"

승강기가 덜컹거리며 나타나자, 두 사람은 재빨리 올라탔다. 승강기가 멈춰 설 때마다. 위즐리 씨는 사납게 욕실을 퍼부으며 9층 버튼을 정신없이 눌렀다.

"요 몇 년 동안 이 법정은 사용한 적도 없었는데."

위즐리 씨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도대체 왜 이같이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군 설마 그 때문이 아니라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바로 그때 한 뚱뚱한 마녀가 김이 피어오르는 잔을 들고 승강기에 올라탔다. 그러자 위즐리 씨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중앙 훌입니다."

낭랑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금 창살문이 옆으로 열리고, 저 멀리 분수대의 황금 조각상들이 언뜻 보였다. 뚱뚱한 마녀가 승강기에서 내리고, 헬색이 누르스름한 마법사가 몹시 우울한 얼굴로 승강기에 올라탔다.

"잘 지냈나. 아서."

승강기가 내려가시 시작하자, 그는 무덤덤처럼 음산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자네가 여길 다 내려오고 웬일인가....."

"급한 볼일이 있다네, 보드."

위즐리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한 눈빛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아 그렇군, 그렇겠지."

보드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해리를 이리저리 들어 보았다.

해리는 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집요한 시선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마스터리 부서입니다."

낭랑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둘러라, 해리."

승강기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자, 위즐리 씨가 말했다. 두 사람은 복도를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곳은 위층 복도와는 딴판이었다. 벽에는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았고, 복도도 저 끝에 있는 밋밋한 검은 문 이외에는 창문도, 문도 없었다. 해리는 틀림없이 저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즐리 씨는 그의 팔을 붙잡고 왼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라. 여기 아래로."

위즐리 씨가 한 번에 두 계단씩 뛰어 내려가느라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까지는 승강기도 내려오지 않는단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계단 밑에까지 내려간 그들은 또다시 복도를 따라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곳은 호그와트에 있는 스네이프의 방으로 가는 복도와 굉장히 비슷했다. 울퉁불퉁한 돌 벽에는 횃불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쇠로 만든 빗장과 열쇠 구멍이 있는 육중한 나무 문들을 지나쳤다.

"법정..... 10 호라.... 이제 거의 온 것 같은데... 그래 이거야.."

위즐리 씨는 커다란 쇠뭉치 자물쇠가 달린 더럽고 새까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듯 벽에 몸을 기댔다.

"어서 가라."

위즐리 씨는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헐떡 거렸다.

"안으로 들어가."

"저-저랑 함께 안 들어가시나요?"

"아니 안 된다. 난 들어갈 수 없어, 행운을 빈다!"

해리의 심장이 거의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해리는 짐을 꿀꺽 삼키고 육직한 쇠 손잡이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 8 장 청문회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입이 딱 벌어졌다. 그가 들어간 이 커다란 지하 법정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낮이 익었다. 한 번 본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와 보았던 곳이 분명 했다. 덤블도어의 펜시브 속에서 들어갔단 곳이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것이다 레스트랭이 아즈카빈에서의 종신형을 선고받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그 법정 이었다.

검은 돌로 된 벽에는 횃불이 희미하게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양쪽 옆으로는 텅 빈 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저 앞에, 제일 높은 긴

의자들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형체가 어른 거렸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원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해리의 등 위에서 육중한 문이 쾅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 앉았다.

싸늘한 남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저는 시간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위준가모트의 잘못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부엉이를 너에게 보냈다. 자리에 앉거라."

해리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로 시선을 떨구었다. 의자의 팔걸이에는 사슬이 묶여 있었다. 해리는 예전에 저 사슬이 그의 자에 앉는 사람들을 저절로 꽁꽁 묶어 버리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다. 돌로 된 복도를 저벅저벅 걸어가자.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해리가 머뭇거리며 의자 끝에 걸터앉자, 쇠사슬이

위협적으로 철컥덕거렸지만, 그를 묶지는 않았다. 해리는 토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올려다 보았다.

해리가 보기에는 대략 오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입고 있는 자두색의 인 옷에는 왼쪽 가슴에 은실로 W 자가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을 내리깔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대단히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드러냈다.

제일 앞줄 한가운데 마법부 장관인 코넬리우스 퍼지가 앉아 있었다. 풍채가 당당한 퍼지는 종종 라임 색깔의 초록색 중산 모자를 뿐내듯 쓰고 다녔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모자도 쓰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 한 번 해리에게 말을 걸 때 보이던 한 없이 너그러운 미소 또한 보이지 않았다. 퍼지의 왼쪽에는

아주 짧은 회색 머리에, 얼굴이 넓적하고 각이 진 마녀 한명이 앉아 있었다. 외알 안경을 낀 그녀는 무척 깐깐해 보였다. 처지의 오른쪽에는 또 다른 마녀가 앉아 있었는데, 뒤로 한참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좋아요, 마침내 피고가 자리에 앉았으니, 시작해 봅시다. 자네도 준비가 되었나?"

퍼지가 그 줄의 끝을 쳐다보며 물었다.

"예, 장관님."

열의에 가득 찬 목소리가 대답했다. 해리도 잘 아는 목소리였다. 론의 형인 퍼시가 앞줄 긴 의자의 제일 끝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혹시라도 아는 체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퍼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뿐테 안경을 쓴 퍼시는 깃펜을 손에 쥔 채, 양피지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리. 리틀 위닝, 프리벳가 4번지에 사는 해리 제임스 포터에 의한, 미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과 국제 비밀 법령 위반에 대한 8월 12일 징계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퍼지가 입을 때자, 퍼시는 당장 받아 적기

시작했다.

"심문자들은 마법부 장관 코델리우스 오스왈드 퍼지, 마법사법률 강제 집행부 부장 아멜리아 수잔 본즈, 마법부 차관 돌로레스 제인 엠브릿지, 법정 서기 퍼시

이그니셔스 위즐리—"

"그리고 변호를 위한 참고인으로 알버스 퍼시발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

해리의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목에서 삐걱 소리가 날 정도로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짙은 푸른색의 긴 옷을 입은 덤블도어가 침착한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얼굴이었다. 은색의 긴 수염과 머리카락이 햇불 아래에서 하얗게 빛났다. 덤블도어는 해리와 나란히 서서, 심하게 구부러진 매부리코 중간쯤에 떨어질 듯 걸려 있는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퍼지를 올려다 보았다.

위즌가모트의 위원들이 웅성거렸다. 이제는 모든 시선이 덤블도어에게 쏠렸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난 듯이 보였고, 또 어떤 이들은 약간 겁을 집어먹은 것 같았다. 하지만 뒷줄에 앉아 있던 나이 든 마녀 두명은 손을 들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덤블도어를 보자, 해리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불사조의 노래를 들었을 때와 비슷하게, 용기가 불끈 솟고 희망이 가득 찼다. 해리는 덤블도어와 시선을 마주치고 싶었지만, 덤블도어는 그가 있는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퍼지를 곧장 올려다 보고 있었다.

"아, 덤블도어."

퍼지는 당황한 듯 찔찔했다.

"그렇군요, 청문회의 시-시간과 음- 장소가 바- 바뀌었다는 전갈을 바-받았겠죠?"

"하마터면 놓칠 뻔했고."

덤블도어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연히 세 시간이나 먼저 마법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오."

"예- 그럼-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위즐리? 의자 좀-?"

"괜찮소, 걱정하지 마시오."

덤블도어는 이렇게 말하며 지팡이를 꺼내 들고 살짝 휘둘렀다. 그러자 바로 해리의 옆자리에 찌그러진 팔걸이 의자가 나타났다. 덤블도어는 긴 손가락을 코앞에 맞대고 앉아서 손 너머로 퍼지를 점잖게 쳐다보았다. 위즌가모트 위원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마침내 퍼지가 다시 입을 열자 그때서야 모두들 조용해졌다.

"좋아요, 좋아. 그럼 다음은-"

퍼지가 노트를 뒤적기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고소 내용, 맞아."

퍼지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양피지 한장을 꺼내더니, 깊은 심호흡을 하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의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예전에도 비슷한 죄목으로 마법부의 경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 하에, 8월 2일 아홉 시 이십삼 분 머글 주거지역 내에서 한

머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패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1875년 제정된 마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 C형을 위반하였으며, 국제 마법사 연맹의 비밀 법령집 13 항을 위반했다."

"자네가 서리, 리틀 위닝, 프리벳가 4 번지에 사는 해리 제임스 포터인가?"

퍼지가 양피지 너머로 해리를 노려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해리가 대답했다.

"자네는 3년 전에도 불법적으로 마법을 사용하여 마법부의 송식적인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지,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밤에 패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했는가?"

퍼지가 계속해서 추궁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17세가 되기 전에는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머글들이 잔뜩 모여 사는 지역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한 머글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예, 하지만, 제가 마법을 사용한 이유는 단지~" 해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바로 그때 외알 안경을 쓴 마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네가 완전히 성장한 패트로누스를 만들어 냈단 말이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리가 설명을 하려고 했다.

"진짜 실체를 가진 패트로누스를 불러냈다고?"

"뭐-뭐라고 하셨죠?"

해리가 물었다.

"너의 패트로누스가 분명히 정확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느냔 말이다. 그러니까 그저 연기나 안개 같은 게 아니었던 말인가?"

"네." 해리는 짜증이 치밀면서도 약간 걱정이 있었다. "그건 수사슴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다고?" 본즈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렇다면 전에도 패트로누스를 불러낸 적이 있단 말이냐?"

"예. 1년 전부터 그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열다섯 살이지?"

"예."

"학교에서 배운 건가?"

"예. 루핀 교수님께서 제가 3학년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굉장하군." 본즈 여사가 그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나이에 진짜 패트로누스를 불러낼 수 있다니..... 아주 놀란워."

주위에 있던 몇몇 마법사들과 마녀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지금 문제는 그의 마법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지가 분개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마법이 놀라운 만큼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한 머글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마법을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번에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마법사와 마녀들이 웅성거리며 동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하고 독실한 표정을 지우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퍼시를 보자. 해리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제가 마법을 쓴 것은 디멘터들 때문이었습니다!" 해리는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그의 말을 가로막기 전에 재빨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순간 이 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디멘터들이라고?"

잠시 후에 본즈 여사가 무성한 눈썹을 주켜올리며 물었다. 눈에 끈 외알 안경이 거의 굴러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디멘터 둘이 그 골목에 나타나서 저와 제 사촌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래.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군."

퍼지는 불쾌하게 빈정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위증가모트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마치 다 함께 이 농담을 즐기자는 듯한 태도였다.

"리틀 위닝에 디멘터들이 나타났단 말인가?" 본즈 여사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이해가 안 가시죠, 아멜리아?" 퍼지가 여전히 빈정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저 꼬마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온갖 궁리를

다 하다가, 마침내 디멘터라면 아주 멋진 평계 거리가 될 거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평계죠, 머글들 눈에는 디멘터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니, 꼬마야? 아주 편리하지, 편리하고 말고, 그렇게 되면 네 말뿐, 어떤

증인도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거짓말하는게 아니에요!"

또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찬 법정에 해리의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디멘터 둘이 골목 맞은편 끝에서 나타났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싸늘하게 얼어붙고 캄캄해졌어요, 제 사촌은 그들이 나나탄 것을 느끼고 도망쳤어요."

"그만해라, 그만해!"

퍼지가 웃기지도 않는다는 듯이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그동안 이야기를 꾸미느라 열심히 연습했을 텐데 방해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바로 그때 덤블도어가 혀기침을 했다. 그러자 위증가모트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실은 그 골목에 디멘터들이 나타난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소 물론 두들리 더즐리 말고 다른 사람이오."

순간 퍼지의 통통한 얼굴이 마치 누군가 바람을 뻐 것처럼 헬쑥해졌다. 퍼지는 한동안 덤블도어를 노려보더니 몸을 추스르기조차 힘든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덤블도어. 우리는 또 다른 혀소리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소, 나는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소—"

"물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을 거요." 덤블도어는 여전히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위증가모트의 권리 현장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의 사건을 위해 증인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소. 마법사 법률 강제 집행부의 정책이 그렇지 않던가요. 본즈 여사?"

덤블도어가 외알 안경을 쓴 마녀에게 물었다.

"사실이오. 틀림없는 사실이오."

본즈여사가 말했다.

"좋아요, 좋아. 도대체 그 증인은 어디 있소?"

퍼지가 쏘아 불였다.

"그 증인은 나와 함께 왔소,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거요. 그럼 내가 가서—?"

"아니오. 위즐리, 자네가 가게."

퍼지가 퍼시에게 소리쳤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퍼시는 판사의 단상에서부터 돌계단을 쏟살같이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덤블도어와 해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그들 옆을 황급히 지나갔다.

잠시 후에 퍼시가 피그 할머니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잔뜩 주눅이 든 피그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해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할머니가 실내화라도 갈아 신고 나왔기를 빌었다.

덤블도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그 할머니에게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내주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휘둘러서 다른 의자를 만들어 냈다.

"이름은?"

퍼지가 큰 소리로 물었다.

피그 할머니는 의자 가장 자리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안절부절 못했다.

"아리벨라 도린 피그입니다."

피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확히 신분을 밝히시오."

퍼지가 심드렁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리틀 위닝에 사는 주민입니다. 해리 포터가 사는 집 근방에 살고 있죠."

피그 할머니가 대답했다.

"리플 위닝에는 해리 포터 의외에 다른 마녀나 마법사가 살고 있다는 기록이 없는데." 본즈 여사가 즉시 지적했다. "과거의 사건들을 비추어 보건대..."

보건대

그런 상황은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이 되어 왔거든."

"전 스윕이죠. 그래서 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엉. 스윕이라고?" 퍼지는 그녀를 의심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우리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소. 내 보좌관인 위즐리에게 당신의 가계에 대해서 상세한 사실을 알려 주도록 하시오. 그런데 말이 난 김에 한마디 물어봅시다. 스윕들도 디멘더를 볼 수 있소?"

퍼지는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물론이죠. 볼 수 있고 말고요!"

피그 할머니가 발끈 화를 냈다.

퍼지는 눈을 치켜뜨며, 다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좋소 당신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퍼지가 쌀쌀맞게 응수했다.

"저는 위스테리아가의 끝에 있는 모퉁이 가계에서 고양이 먹이를 사려고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8월 2일 저녁 아홉 시쯤 이었죠."

피그 할머니가 갑자기 줄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막 깨달은 사람 같았다.

"그때 매그놀리아 광장과 위스테리아가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뭔가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입구로 가까이 다가가자, 디멘터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

"달려왔다고요?"

본즈 여사가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디멘터들은 달리지 않아요. 미끄러지죠."

"제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피그 할머니가 쪼글쪼글한 두 뺨을 붉히며 대답했다.

"남자 아이 두 명처럼 보이는 것을 향해서 골목을 미끄러져 가더군요."

"어떻게 생겼었죠?"

본즈 여사가 외알 안경이 살 속에 파묻힐 정도로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좀 말랐어요."

"아니, 아니, 디멘터들 말이오. 그들이 어땠는지 설명해 봐요."

본즈 여사가 짜증스러운 듯이 물었다.

"오! 그것들은 아주 컸어요. 크고 망토를 입고 있었죠."

이제 피그 할머니는 목까지 빨갛게 불들었다.

해리는 심장이 덜컹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피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의 귀에는 마치 그녀가 본 것은 단지 디멘터의 그림뿐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림은 절대로 디멘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전달할 수 없었다. 땅위를 둉둥 떠서 미끄러져 다니는 그 기괴한 움직임이나 살이 썩는 듯한 고약한 냄새, 혹은 그들이 공기를 빨아들일 때 나는 그 무시무시하고 소름끼치는 소리....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던, 땅딸막하고 커다란 검은 수염을 기른 마법사가 바로 옆에 앉은 곱슬머리의 마녀에게 몸을 기울이며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다.

그러자

그녀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덩치가 크고 망코를 입고 있었다."

본즈 여사가 차갑게 그 말을 뒤풀이 했다. 한편 퍼지는 비웃듯이 코웃을 쳤다.

"알겠소. 그 밖에 다른 것은?"

"또 있어요. 저는 그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피그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 붙었죠. 이 무더운 여름날 밤에 말이죠. 저는... 저는 마친 온 세상에 모든 행복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끔찍한 기억만이 떠올랐죠..."

피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차 흐려졌다.

본즈 여사의 눈이 약간 다시 커졌다. 해리는 외알 안경이 파고 들었던 눈가에 빨간 자국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었다.

"디멘터들이 무슨 짓을 했죠?"

본즈 여사가 다시 물었다. 해리는 또 다시 희망이 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디멘터들은 아이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이제 피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있었다. 빨갛게 달아 올랐던 얼굴도 다시 본래 색으로 돌아왔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땅에 쓰러졌어요. 그러자 다른 한명이 되돌아와서 디멘터를 쫓으려고 했죠, 그게 바로 해리였어요. 세 번 시도한 끝에 해리는 패트로누스를 불러냈어요. 첫 번째 디멘터를 쫓아낸 패트로누스는 해리의 독려를

받으며 두 번째 디멘터마저 사촌 곁에서 몰아냈죠. 이- 일이 그렇게 된겁니다."

피그 할머니가 약간 더듬거리며 말을 맺었다.

본즈 여사는 말없이 피그 할머니를 내려보았다. 퍼지는 초조하게 서류만 만지작 거리며, 그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침내 퍼지가 고개를 들더니 다소 공격적으로 물었다.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이 본거요?"

"그렇습니다."

피그 할머니가 대답했다

"좋소. 그만 가 보시오."퍼지가 말했다.

피그 할머니는 겁먹은 표정으로 퍼지와 덤블도어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질질 끌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곧이어 해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별로 믿을 만한 증인은 아니군요."

"퍼지가 거만하게 말했다."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요." 본즈 여사가 짜릿짜릿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디멘터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게다가

디멘터가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디멘터들이 할 일이 없어 머글들 주거 지역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마법사와 마주쳤단 말이오?" 퍼지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베그만 그 작자라고 해도 이런 일에는 내기를 안 걸 거요."

"내 생각에는 디멘터들이 우연히 그곳에 나타났다고 믿을 사람은 우리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소만."

덤블도어가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그 순간 그늘에 얼굴을 숨긴 채. 퍼지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마녀가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오?"

퍼지가 얼음처럼 싸늘하게 물었다.

"내 생각에는 디멘터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오."

덤블도어가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만약 누군가 디멘터들에게 리틀 위닝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 있었을 거요!" 퍼지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요즘 디멘터들이 마법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그렇겠죠." 덤블도어가 침착하게 말했다. "코넬리우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내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을 텐데요."

"그럴소." 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견해 또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말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오, 덤블도어. 디멘터들은 아즈카반에 있으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소."

"그렇다면 우리는 마법부에 있는 누군가가 무슨 이유로 8월 2일에 디멘터 둘을 그 골목에 보냈는지 진상을 조사해 봐야겠군요."

덤블도어가 침착하지만 분명한 태도로 의견을 밝혔다.

그의 말을 지지하는 침묵이 흐르는 동안, 퍼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마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덕분에 해리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해리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핏기 없는 커다란 두꺼비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은 넓적하고 촉 처져 있었다. 커다랗고 둥근 눈은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짧고 꼬불꼬불한 그녀의 꼭대기에 꽂혀 있는 작은 검은색 벨벳 핀조차, 커다란 파리를 연상시켰다.

해리는 당장에라도 그녀가 길고 끈끈한 혀를 내밀어 그것을 날름 잡아먹을 것만 같았다.

"의장은 마법부 차관인 돌로레스 제인 엠브릿지에게 발원권을 넘기겠습니다." 퍼지가 그녀를 소개했다.

해리는 마녀의 입에서 소녀처럼 애교가 철철 넘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심 꽉꽉거리는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덤블도어 교수님. 분명히 제가 당신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겠죠. 제가 그렇게 어리석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이나마 마치 마법부에서 이 소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낭랑한 웃음소리를 내며 깔깔 웃었다. 그 소리를 듣자, 해리의 목덜미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다.

"디멘터들이 오직 마법부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디멘터들이 일주일 전에 해리와 그 사촌을 공격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마법부의 누군가가 이 공격을 지시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덤블도어가 공손하게 설명했다. "물론 이 디멘터들만 마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마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디멘터들은 하나도 없소!"

퍼지가 얼굴을 붉히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덤블도어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절을 했다.

"그렇다면 마법부에서는 틀림없이 무엇 때문에 한 쌍의 디멘터가 아즈카반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으며 허락도 없이 공격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벌이시겠군요."

"마법부가 뭘 하든 말든 당신이 결정할 바가 아니오. 덤블도어!"

퍼지가 빽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베논 이모부라면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만큼 시뻘겋게 변했다.

"물론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오." 덤블도어는 순순히 인정했다. "나는 단지 이

문제를 이대로 넘어가서는 결코 안된다는 나의 소견을 표현했을 뿐이오."

덤블도어는 본즈 여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외알 안경을 고쳐 쓰더니 약간

인상을 찌푸리며 덤블도어를 마주 보았다.

"오늘 열린 이 청문회의 주제는 디멘터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소년의 망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퍼지가 소리쳤다. "우리는 지금 해리포터가 미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에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디멘터들이 그 골목에 출현한 것은 이 문제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법령 제 7 항을 보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머글들 앞에서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 있는 마법사나 마녀 자신 혹은 다른 마법사나 마녀, 혹은 머글들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고맙지만, 7 항에 대해서라면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소!"

퍼지가 투덜거렸다.

"물론 그러시겠죠."

덤블도어는 여전히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해리가 패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한 것은. 그 조항에서 언급한 예외적 상황의 범주에 정확히 속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시겠지요?"

"디멘터들이 있었다면 말이오, 하지만, 난 그걸 믿을 수 없소."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의 이야기를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덤블도어가 재빨리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만약 그녀의 말이 아직도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 번 불러서 물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녀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그게 아니라—" 퍼지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 끝내고 싶소, 덤블도어!"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증언을 듣지 않았을 때 심각하게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면, 증인의 증언을 여러 번 듣는 것에 대해 당연히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겠지요."

"심각하게 정의가 훼손된다고, 나 참!"

퍼지가 한껏 목청을 높였다.

"덤블도어. 당신은 이 꼬마가 얼마나 자주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지어 내는지 세어 봤소?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한 아주 명백한 잘못을 감추려고 애쓰는 짓거리를? 당신은 저 애가 3년 전에도 공중 부양 마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어 버렸소?"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집요정이 그랬어요!"

해리가 항변했다.

"들었죠? 집요정이랍니다! 머글 집에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어디 한번 해명해 보시죠."

퍼지가 의기 양양하게 해리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문제의 그 집요정은 현재 호그와트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즉시 이곳으로 불러내어 증언을 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나-나는 집요정 따위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소! 어쨌든 그뿐만 아니오! 그는 마지 아줌마를 날려 보냈단 말이오!"

퍼지는 주먹으로 재판석을 쾅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 바람에 잉크병이 뒤집어졌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대단히 친절하게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으셨죠, 아무리 훌륭한 마법사라 해도 항상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말입니다."

퍼지가 서류 위에 쏟아진 잉크를 닦아 내느라 잠깐 정신을 파는 틈에.

덤블도어가 조용히 설명했다.

"게다가 이 꼬마가 학교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았소!"

"하지만 호그와트 학생이 학교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마법부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해리가 한 행동은 이 청문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덤블도어가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냉정함과 단호함이 느껴졌다.

"오호! 그가 학교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요?"

퍼지가 물었다.

"코넬리우스, 지난 8월 2일 밤에 분명히 상기시켜 드렸듯이. 마법부는

호그와트

학생을 쫓아낼 권한이 없소, 또한 8월 2일 밤에 분명히 상기시켜 드렸듯이. 잘못이 분명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지팡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소. 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으신 고고한 열성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분명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관님 자신께서 몇 가지 법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법은 바뀔 수도 있소."

퍼지가 사납게 대꾸했다.

"물론 그렇소."

덤블도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아주 많은 법을 바꾸고 있는 것 같더군요, 코넬리우스. 내가 위증가모트에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받은 지 몇 주일 만에, 벌써 미성년자 마법 같은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도 형사 재판을 소집하는 관행이 생겼으니 말이오!"

위에 앉아 있는 마법사 몇몇이 불편한 듯이 몸을 들썩거렸다. 퍼지의 얼굴은 거의 검붉은색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두꺼비 같이 생긴 마녀는 덤블도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해리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마법을 따지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조항은 어떤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특별한 법률 한가지를 위반해서 고소를 당했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리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여러분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덤블도어는 다시 그의 손가락들을 모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퍼지는 잔뜩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았다. 해리는 어떤 확신을 얻을까 싶어서 덤블도어를 힐끗

바라보았다. 솔직히 덤블도어가 지금 결정을 내려 달라고 위증가모트에게 요청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전혀 잘한 일인지 전혀 자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작 덤블도어는 그와 눈을 맞추려고 안달하는 해리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재판석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위증가모트들이 부산스럽게 귀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해리는 고개를 숙이고 밑을 내려다보았다.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심장이 갈비뼈 밑에서 쿵쿵거렸다. 해리는 자신이 좋은 인상을 주었는지 자신이 없었다. 사실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디멘터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했었다. 그가 어떻게 쓰려졌고 그와 두들리가 어떻게 입맞춤을 당할뻔했는지를....

해리는 한두 번 퍼지를 바라보며 원가 설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심장이 뛰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두 번 다 커다랗게 한숨만 내쉬고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뚝 그쳤다. 해리는 판사들을 쳐다보고 싶었지만, 그냥 그대로 구두끈이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분?"

본즈 여사의 목소리가 법정안에 울려 퍼졌다.

해리는 고개를 얼른 들었다. 번쩍 올라간 손이 보였다. 깨 많은 것 같다...

어쩌면

절반 이상일지도 모른다! 해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숫자를 세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미처 다 세어 보기도 전에 본즈 여사가 다시 물었다.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퍼지가 손을 들었다. 그 뒤를 이어서 여서 명의 판사들이 손을 들었다. 그

중에는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마녀와 콧수염이 무성한 마법사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곱슬머리 마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퍼지는 목구멍에 원가 꽉 막힌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멍하니 둘러보더니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두 번이나. 땅이 깔져라 한숨을 쉬고는, 분을 참지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좋아요, 좋아. 무죄요."

"잘됐어!"

덤블도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무명 천을 씌운 판걸이 의자 두 개를 사라지게 했다.

"자. 이제 나는 가 봐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덤블도어는 해리를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바람처럼 지하 법정을 나가 버렸다.

제 9 장 위즐리 부인의 슬픔

덤블도어가 한마디 말도 없이 훌쩍 떠나자. 해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한동안 사슬이 달린 의자에 멍하니 앉아서 한꺼번에 밀려드는 엄청난 충격과 안도감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위즈가모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고 짐을 싸고 있었다.

해리는 몸을 일으켰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오직 퍼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두꺼비처럼 생긴 마녀만이 이제는 사라진 덤블도어 대신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해리는 애써 그녀를 무시하면서 퍼지나 혹은 본즈 여사와 눈길을 마주치려고 노력했다. 그만 가도 좋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퍼지는 해리를 깡그리 무시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 한편 본즈 여사는 서류 가방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마침내 해리는 조심스럽게 문 쪽을 향해서 몇 걸음을 옮겨 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불러 세우지 않자, 후다닥 뛰기 시작했다.

한 걸음에 몇 계단을 달려 내려간 해리는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바람에 위즐리 씨와 부딪힐 뻔했다. 그는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줄곧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이다.

"덤블도어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죄예요."

해리가 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모든 혐의가 풀렸어요!"

위즐리 씨는 활짝 웃으며 해리의 어깨를 잡았다.

"해리. 정말 잘됐구나! 당연한 일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순 없어. 그런데도 난 도저히 태연한척을 할 수가—"

위즐리 씨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리면서 위즈가모트들이 줄지어 걸어 나왔다.

"이런 세상에! 네가 전원 배석 재판을 받았단 말이니?"

위즐리 씨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리를 옆으로 잡아당기며 놀라운 듯이 속삭였다.

"그런 것 같아요."

해리가 조용히 대답했다.

한두 명의 마법사들이 해리의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본즈 여사를 포함한 몇몇 마법사들이 위즐리 씨에게 "잘 있었나. 아서." 하고 인사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척 시선을 돌렸다. 코넬레이수 퍼지와 두꺼비처럼

생긴 마녀는 마지막까지 지하 법정에 남아 있었다. 퍼지는 위즐리 씨와 해리가 벽의 일부라도 되듯이 굴었지만. 마녀는 여전히 감탄의 눈빛으로 해리를 쳐다보며 지나갔다. 제일 끝으로 나온 사람은 퍼시였다. 그는 퍼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버지와 해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커다란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여분의 깃펜을 손에 잔뜩 움켜쥔채, 고개를 빽빽히 들고 행진했다. 위즐리 씨 또한 입가가 약간 팽팽하게 긴장했을 뿐, 셋째 아들을 만났다는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당장 너를 집에 데려다 줘야겠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퍼시가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사라지자. 위즐리 씨가 해리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베스널 그린의 그 화장실로 가는 길에 널 대려 주고 가마. 어서 가자....."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리가 활짝 웃으며 물었다. 갑자기 모든 일이 이전보다 다섯배는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나는 무죄다. 이제 호그와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비로서 실감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 그저 간단한 주문 해제 마법이면 된다." 계단을 올라가며 위즐리 씨가 말했다.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야만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태도가 훨씬더 문제란다. 해리. 어떤 마법사들은 머글 박해를 그저 장난처럼 여기겠지만, 사실은 훨씬더 심각하고 나쁜 어떤 것의 표현이지.

그리고

나는—"

위즐리 씨가 도중에 말을 뚝 끊었다. 그들이 막 9층 복도에 도달했을 때, 코넬리우스 퍼지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뾰족하고 창백한 얼굴에 매끄러운 금발을 느어뜨린. 키가 큰 남자와 컷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를 듣자, 두 번째 남자가 하던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싸늘한 회색 눈을 가늘게 뜨고 해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런, 이런... 패트로누스 포터." 루시우스 말포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뭔가 빽빽이 들어찬 곳에 걸어 들어간 것처럼 숨이막 막혔다. 지난번 해리는 죽음을 먹는 자들의 두건 사이로 저 차가운 회색 눈동자를 보았다.

그리고 볼드모트가 그를 고문 할 때, 어두운 공동묘지로 옮겨 퍼지던 저 남자의 조종 섞인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루시우스 말포이가 감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가 이 마법부에

와서 코넬리우스 퍼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다.

불과

몇 주일 전에 해리는 퍼지에게 죽음을 먹는 자라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포터. 방금 전에 장관님으로부터 네가 운 좋게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놀랍단 말이야. 네가 그 좁은 구멍을 계속해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걸 보면, 마치 뱀과 같아."

말포이가 거드름을 피우며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위즐리 씨는 경고하듯이 해리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예. 그래요 전 도망치는 데 선수죠." 해리가 응수했다.

루시우스 말포이가 눈을 들어 위즐리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서 위즐리도 있었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아서?"

"여기가 내 직장일세."

위즐리 씨가 짤막하게 대꾸했다.

"이곳은 아닐 텐데. 안 그런가?"

말포이가 눈썹을 추켜올리며 위즐리 씨의 어깨 너머로 문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자네가 2층에서 근무하는 줄 아는데... 머글 물건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서 마법을 거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아닐세."

위즐리 씨가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순간 해리의 어깨를 움켜쥔 그의 손가락이 살점을 파고들 것 같았다.

"그런데 아저씨는 여기서 뭘 하세요?"

해리가 루시우스 말포이에게 물었다.

"포터, 나와 장관님 사이의 개인적인 볼일까지 네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말포이는 앞자락을 매만지며 말했다. 그 순간 해리는 금화가 가득 찬 호주머니에서 나는 달가당달가당 하는 듯한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덤블도어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똑같이 응석을 부려서는 안 되지. 그럼, 장관님 우리는 사무실로 올라갈까요?"

"그러죠. 이쪽입니다. 루시우스." 퍼지는 해리와 위즐리 씨로부터 돌아서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위즐리 씨는 그들의 모습이 승강기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해리의 어깨를 놓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볼일이 있다면, 말포이는 왜 퍼지의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밑에서 무려 하고 있었던 거죠?"

해리가 분통을 터뜨렸다.

"내 생각에는 법정에 몰래 들어가려고 했던거 같다."

위즐리 씨는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혹시나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며 말했다.

"네가 퇴학을 당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겠지, 어쨌든 널 집에 데려다 줄 때, 덤블도어에게 쪽지를 남겨야 겠다. 말포이가 퍼지와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해."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 볼일이라는 게 뭘까요?"

"내 생각엔 황금인 것 같다"

위즐리 씨가 분개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 동안 말포이는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평평 쓰고 있어 그럼으로써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지 그 다음엔 청탁도 하고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는 법안을 지연시킬 수도 있게 되었지... 루시우스 말포이 그자는 아주

연줄이 많아"

승강기가 도착했다 한 무리의 메모들만이 날아다니고 있을 뿐 승강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위즐리 씨가 중앙 훌로 가는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다 메모들이 위즐리 씨의 머리 주위를 빙빙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성가신 듯이 손을 흔들어 쫓았다

"위즐리 씨 만약 퍼지가 말포이 같은 죽음을 먹는 자들을 만나고 있다면 게다가 혼자서 만난다면 그자들이 퍼지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걸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란다 해리" 위즐리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는 퍼지가 지금까지는 제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물론 덤블도어 교수 말대로 그렇다고 해도 그다지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해리"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이제 거의 인적이 끊어진 중앙 훌로 걸어 나갔다 경비 마법사인 에릭은 다시 <예언자 일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황금 분수대 앞을 지나가는 순간 해리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잠깐만요..."

해리는 위즐리 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분수대로 되돌아갔다

해리는 잘생긴 마법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웬지 나약하고 멍청하게 보였다 마녀 또한 미안 경연대회에 나온 사람처럼 맥 빠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나 캔타우로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어떤 인간이라도 그렇게 감상적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들킬 일은 없었다 오직 몸을 납작 엎드린 채 노예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집요정만이 가장 그럴듯하게 보였다 만약 헤르미온느가 이 집요정 동상을 본다면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해리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는 지갑을 거꾸로 들고 10 갈레온만이 아니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돈을 봉땅 집요정 동상의 발밑에 쏟아 부었다

"그럴 줄 알았어!" 론이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넌 언제나 뭐든 무사히 해내잖아!"

"그들은 당연히 널 무죄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가 처음 부엌에 들어섰을 때 걱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던 그녀는 이제 떨리는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었다

"너에게 불리한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 단 하나도 말이야..."

"모두들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줄 알았다면서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놓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해리가 씩 웃었다 위즐리 부인은 앞치마로 얼굴을 훔치고 있었고 프레드와 조지와 지니는 "무죄라네 무죄라네 무죄라네"하고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춤을 추고 있었다

"이제 그만 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라!" 위즐리 씨가 소리쳤다 하지만 위즐리 씨 역시 싱글벙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시리우스 루시우스 말포이가 마법부에 있더군"

"뭐라고?"

시리우스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죄라네 무죄라네 무죄라네"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그렇다니까 지하 9 층에서 퍼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았어 그러곤 퍼지의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더군 덤블도어 교수에게 알려야 할 텐데"

"물론이지 우리가 말씀드리지 걱정하지 말게나"

"이제 나는 그만 가 보는 게 좋겠네 베스널 그린에서 내용물을 마구 토하고 있는 화장실이 날 기다리고 있거든 몰리 오늘 늦을 거요 통스 대신 근무를 서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킹슬리는 저녁 먹으로 올 것 같소"

"무죄라네 무죄라네 무죄라네"

"프레드- 조지- 지니 이제 그만해라!" 위즐리 씨가 부엌을 떠나자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해리 이리 와서 앉거라 점심 먹어야지 아침도 거의 못 먹었는데..."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맞은편에 가서 앉았다 해리가 그리볼드 광장 12 번지에 도착한 이후로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루시우스 말포이를 만나서 다소 들뜬 기분이 가라앉았던 해리도 다시 신이 났다 음침한 저택조차 갑자기 따뜻하고 반갑게 느껴졌다 부엌문 틈으로 삐죽이 코를 들이밀고 도대체 왜 이 난리인지 살펴보고 있는 크리처까지도 덜 못생겨 보였다 "일단 덤블도어 교수님이 네 편을 든 이상 그들이 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어"

론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사람들 앞에 놓인 접시 위에는 제각기 으깬 감자가 수북이 쌓였다

"맞아 덤블도어 교수님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지 하지만 나에게 한 마디 말이라도 걸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쳐다보기라도 해주시든지"

해리는 막상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자신의 말이 너무 유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마의 흉터가 불에 던듯이 쑤셨다 해리는 둔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왜 그래?"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흉터가..." 해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괜찮아 요즘에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걸..."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모두들 해리가 곤경에서 무사히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프레드와 조지 지니는 아직도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오직 헤르미온느만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뭐라고 입을 열기 전에 론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덤블도어 교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말이지"

"아마 그러기 힘드실 거다 론" 위즐리 부인이 해리 앞에 커다란 통닭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무척 바쁘시거든"

"무죄라네 무죄라네 무죄라네"

"시끄러워!"

위즐리 부인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다음 며칠 동안 해리는 그가 다시 호그와트로 돌아가게 된 것을 전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울드 광장 12 번지에 딱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청문회 결과를 들었을 때에는 시리우스도 무척 기쁜 표정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해리의 손을 꼭 붙들고 활짝 웃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보다 훨씬 우울하고 무뚝뚝해졌다 어느 누구와도 좀처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리끼자 피해 다녔다 그리고 벽벽과 함께 어머니 방에 들어박혀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네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며칠 후에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이런 자신의 느낌을 털어놓자

헤르미온느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

그들은 3 층에 있는 곰팡이 낀 찬장을 닦아 내고 있는 중이었다

"넌 원래 호그와트 학생이고 시리우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솔직히 나는 시리우스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헤르미온느 네 말은 너무 심하다" 자기 손가락에 달라붙은 곰팡이를 벗겨 내려고 애를 쓰던 론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라도 이런 집에 혼자 처박혀 있긴 싫을 거야"

"시리우스는 혼자가 아니야! 여긴 불사조 기사단의 본부잖아 안 그래? 그는 단지 해리가 여기서 자기와 함께 살았으면 하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해리가 걸레를 쥐어짜며 말했다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곧장 대답을 못하던 걸"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기 싫었을 뿐이야 아마 약간 죄책감도 느꼈겠지 내가 보기에도 시리우스는 내심 네가 학교에서 쫓겨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야 그럼 너와 시리우스는 함께 추방자가 되는 거잖아"

헤르미온느가 잘난 척을 했다

"그만둬!"

해리와 론이 동시에 소리쳤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너희가 원한다면 그러지 뭐 하지만 난 가끔 론의 어머니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 시리우스는 네가 누군지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헷갈리는 것 같아 해리"

"네 말은 시리우스가 돌기라도 했다는 거야?"

해리가 열 받아서 소리쳤다

"아니야 그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지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헤르미온느가 솔직하게 말했다 바로 그 때 위즐리 부인이 침실로 들어왔다

"아직도 안 끝났니?"

부인은 찬장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전 엄마가 우리더러 그만 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집에 온 뒤로 얼마나 많은 곰팡이를 벗겨 냈는지 아세요?"

론이 잔뜩 부은 얼굴로 툴툴거렸다

"너희들은 항상 기사단을 돋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았니? 이 본부를 지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도와주는 거야"

"마치 집요정이 된 기분이라고요"

론이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잘됐어! 이제야 집요정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S.P.E.W 활동을 하겠구나!"

위즐리 부인이 다시 그들을 두고 떠나자 헤르미온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얘들아 어쩌면 사람들에게 온종일 청소만 하는 게 얼마나 꼼찍한 일인지 보여 주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리핀도르 기숙사 휴게실에서 청소 행사 후원회를 여는 건 어떨까? 물론 후원금은 모두 S.P.E.W.로 가는 거야 그럼 기금도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도 끌 수 있을 텐데~"

"나는 네가 그 '토하다'('spew'라는 단어는 '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역주) 이야기를 안 꺼내도록 하는 데 후원할 거야"

론이 짜증서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겨우 해리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방학이 끝나갈수록 해리는 점점 더 호그와트에 대한 몽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아졌다 해리는 하루라도 빨리 해그리드를 다시 만나고 퀴디치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 약초학 수업 시간에 온실에서 채소밭 사이를 걷는 일조차 그리워졌다 사실 이 더럽고 퀴퀴한 집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었다.

아직도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찬장이 절반이나 남아 있었고 크리처는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욕설을 퍼부었다 물론 해리는 그 말이 시리우스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한마디로 반-볼드모트 운동 본부에서 지내는 일은 해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 만큼 신나거나 재미있지는 않았다 불사조 기사단의 단원들은 규칙적으로 이곳을 들락날락 하면서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컷속말만 주고받기도 했다 위즐리 부인은 해리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말을 엿듣지는 않는지(늘어나는 귀를 쓰든 그냥 보통 귀를 쓰든) 항상 철저히 확인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시리우스까지도 해리가 여기 와서 첫날 밤 들었던 이야기 이외에 더 이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방학 마지막 날에 해리는 옷장 꼭대기에 수북이 쌓인 헤드위그의 똥을 쓸어내고 있었다 그 때 론이 편지 봉투 두 개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책 목록이 이제 도착했어"

론이 의자 위에 서 있는 해리에게 봉투 하나를 던졌다

"그럴 때가 됐지 난 학교에서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지 대개는 이보다 훨씬 일찍 보내 주는데 말이야"

해리는 마지막 남은 똥을 쓰레기봉투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을 향해 론의 머리 위로 봉투를 훑 던졌다 쓰레기봉투를 꿀꺽 삼킨 쓰레기통은 꺽 하고 큰 소리로 트림을 했다.

해리는 봉투를 열어 보았다 봉투 안에는 양피지 종이 두 장이 들어 있었다 한 장은 9월 1일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한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음 1년 동안 필요한 책 목록이었다

"새 책은 두 권밖에 없네"

해리가 목록을 읽으며 말했다

"미란다 고시오크가 쓴 5학년용 <표준 마법서>와 월버트 슬링크하드가 쓴 <방어 마법이론>이야"

뽕!

순간 프레드와 조지가 해리의 오른편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 따위는 없었다

"우리도 그 슬링크하드 책을 누가 선정했는지 궁금해하던 참이야"

프레드가 스스럼없이 말을 이었다

"그건 덤블도어가 새로운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선생을 찾았다는 뜻이니까 말이야"

조지가 말했다

"그 역시 그럴 때도 되었지"

프레드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해리가 의자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물었다

"우리는 몇 주일 전에 늘어나는 귀를 이용해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어 그런데 두 분 이야기에 따르면 덤블도어가 올해에 그 과목을 가르칠 사람을 찾는 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대"

프레드가 해리에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그 과목을 맡았던 네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결코 놀랄 일도 아니지"

조지가 한 마디 덧붙였다

"한 명은 해고를 당했고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기억을 잊었고 또 한 명은 9개월 동안이나 트렁크 안에 갇혀 있었지 그래 형들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해리가 일일이 손가락으로 꼽으며 따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넌 왜 그러니 론?"

프레드의 물음에 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해리가 뒤를 돌아보자 론이 입을 헤벌린 채 호그와트에서 온 편지를 명하니 보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프레드가 다그쳐 물으며 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고의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프레드도 입이 딱 벌어졌다

"반장이라고?"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뒤어져라 쳐다보았다

"반장?"

조지가 훌쩍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론의 다른 손에 쥐어져 있는 봉투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들고 흔들었다 해리는 조지의 손바닥 위에 빨간색과 황금색의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럴 수가 없어"

조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프레드가 론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다 그리고 편지에 투명 무늬가 새겨져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도 론을 반장으로 뽑지는 않았을 거야"

쌍둥이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당연히 네가 뽑힐 거라고 생각했어!"

프레드는 혹시 해리가 어떤 장난이라도 친 게 아닌가 의심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분명 널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지가 억울한 듯이 소리쳤다

"트리위저드 상도 받고 그 모든 일을 다 했는데!"

프레드가 말했다

"내 생각엔 그 미친것들이 해리에게 나쁘게 작용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조지가 프레드를 보며 말했다

"그래 네가 말썽을 좀 많이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 중의 하나는 선생들에게 점수를 땄잖아"

프레드가 천천히 위로를 하더니 해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해리의 등을 톡톡 치면서 옷마땅한 눈초리로 론을 바라보았다

"반장이라니... 철부지 로니가 반장이라니..."

"아이고 엄마가 아시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겠군"

조지가 신음 소리를 내며 무슨 위험한 오염 물질이라도 되는 듯이 반장 배지를
론에게 얼른 돌려주었다
론은 여전히 말문이 막혀 배지를 받아 들고는 한동안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배지가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말없이 해리에게
내밀었다 해리는 그것을 받았다 그리핀도르의 사자 문양 위에 P 자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해리는 바로 호그와트에 처음 들어왔던 그 첫날에 퍼시의 가슴에
달려 있던 이 배지를 본 적이 있었다
그 때 방문이 활짝 열렸다 헤르미온느가 두 볼이 빨개져서 머리를 휘날리며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도 봉투가 들려 있었다
"너-너도 받았니?"
순간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손에 든 배지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럴 줄 알았어!"
헤르미온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손에 든 편지를 마구 흔들었다
"나도야 해리 나도 받았어!"
"아니야" 해리는 얼른 론의 손에 배지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론 거야 내가
아니야"
"뭐- 뭐라고?"
"론이 반장이야"
"론이?" 헤르미온느의 입이 딱 벌어졌다 "하지만- 정말이니? 그-그러니까
내-내 말은..."
론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자 헤르미온느가 금방 얼굴이 빨개졌다
"편지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론이 말했다
"나-나는..."
헤르미온느는 어쩔 줄 모르고 짤짤맸다
"그-그러니까 우와! 잘했다 론! 이건 정말-"
"뜻밖의 일이지"
조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뒷말을 이었다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론은 훌륭한 일을 했어... 사실 론은..."
헤르미온느가 더욱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듬거렸다
그때 헤르미온느의 등 뒤에서 문이 좀더 활짝 열리더니 위즐리 부인이 말끔하게
세탁한 옷들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니에게 들으니 책 목록이 왔다면서?"
위즐리 부인은 편지 봉투들을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기 시작했다
"목록을 내게 주면 오늘 오후에 너희들이 짐을 싸는 동안 다이애건 앤리에
가서 책을 사 오마 론, 너는 파자마를 좀더 사야겠다 적어도 15 센티미터는
짧아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도무지 ... 너는 무슨 색깔의
파자마가 좋겠니?"
"배지와 잘 어울리게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사 주세요"
조지가 빙정거렸다
"뭐랑 잘 어울린다고?"
위즐리 부인은 밤색 양말을 말아서 론의 옷 더미 위에 올려 놓으며 무심히
물었다
"배지요 론의 자랑스럽고 빛나는 반장 배지 말이에요"
최악의 순간을 재빨리 넘기려는 듯이 프레드가 말했다
온통 파자마에 정신이 팔려 있던 위즐리 부인은 잠깐 동안 프레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론의... 하지만 론 설마 네가...?"
론이 배지를 내밀었다
위즐리 부인은 헤르미온느와 똑같이 비명을 질렀다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을 수가 없어! 오 론 너무 훌륭하구나! 반장이라니! 우리

잡안 애들이 다 그렇지!"

"그럼 프레드와 나는 옆집 애들인가요?"

조지가 심통을 냈다

위즐리 부인은 조지를 옆으로 밀치며 두 팔을 벌리고 막내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릴 때까지 기다려라! 론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너도 빌이나 퍼시처럼 결국에는 학생회장이 되겠구나
그럼 이게 첫 단계지! 온통 근심거리밖에 없던 차에 이게 무슨 기쁜 일이냐!
엄나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오로니"

프레드와 조지가 어머니 뒤에서 연신 웨웨거리며 구역질 소리를 냈지만 위즐리
부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론의 목을 꼭 끌어안은 채 얼굴 여기저기에
뽀뽀를 해 대고 있을 뿐이었다 그 바람에 론의 얼굴은 반장 배지보다 더
새빨갛게 변했다

"엄마... 그만 해요... 엄마 진정하세요"

론은 어떻게든 엄마에게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마침내 위즐리 부인은 론을
놓아 주며 숨가쁘게 말했다

"그래 뭘 해줄까? 퍼시에게는 부엉이를 사주었지 하지만 넌 이미 부엉이가 한
마리 있잖니"

"무-무슨 말씀이세요?"

론이 자신의 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반장이 되었으니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지! 멋진 새 옷을 한 벌 사 줄까?"

위즐리 부인이 애정이 담뿍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옷은 우리가 별써 사 줬잖아요"

프레드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동생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아니면 새 냄비를 사 줄까? 찰리의 냄비는 너무 낡고 녹이 슬었지 아니면 새
생쥐는 어떻겠니? 넌 항상 스캐버스를 좋아했잖니"

"엄마 혹시 새 빗자루를 가지면 안 될까요?"

론이 혹시나 하는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묻자 위즐리 부인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빗자루는 너무 비쌌던 것이다

"그렇게 좋은 건 필요 없어요!"

론이 황급히 덧붙였다

"그저-그저 새 거로 바꿔 주시기만 하면 돼요..."

위즐리 부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물론 되고말고 빗자루까지 사려면 난 그만 가 보는 게 좋겠다 모두들 나중에
보자꾸나 우리 로니가 반장이라니! 가방 싸는 걸 잊지 마라... 반장이라.. 오
도록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위즐리 부인은 다시 한 번 론의 뺨에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코를 훌쩍이더니
허둥지둥 방을 나갔다

프레드와 조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는 뾰뽀를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겠지 론?"

프레드가 짐짓 몹시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원한다면 절은 해줄 수 있어"

조지가 놀려 댔다

"입 닥쳐!"

론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싫다면 어쩔 건데?"

프레드가 얼굴 가득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벌이라도 주려고?"

"론이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보고 싶은데"

조지가 빙정거렸다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헤르미온느가 화를 내자 프레드와 조지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었다 론은

체념한 듯이 중얼거렸다
"내버려 둬 헤르미온느"
"조지 앞으로는 행동 조심해야겠다"
프레드가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떠는 시늉을 했다
"얘네 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선..."
"그래 우리의 무법 천하 시대도 마침내 끝난 것 같군" 조지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뽕 소리와 함께 쌍둥이가 사라졌다
"거기 두 사람!"
헤르미온느가 천장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벌써 위층에서 조지와 프레드가 요란하게 웃어 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론 두 사람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 없어 그냥 질투가 나서 저러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론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들은 항상 멍청이들만 반장이 된다고 말했어 게다가..."
론은 훨씬 밝아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형들은 한 번도 새 빗자루를 가져 본 적이 없거든! 엄마와 함께 가서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절대로 님부스를 살 만한 여유가 없을 거야 하지만 새로 나온 클린스윕도 아주 멋질 거야... 그래 엄마에게 가서 클린스윕이 좋겠다고 말씀드려야겠어 그래야 엄마도..."
론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뒤에 남겨 두고 쓴살같이 방을 뛰어나갔다 웬지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로 가서 위즐리 부인이 차곡차곡 쌓아 놓은 깨끗한 옷들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향해 걸어갔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정말 잘 됐어"
너무나 다정한 어조였지만 해리의 귀에는 전혀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해리는 계속 그녀의 시선을 피하면서 칭찬을 했다
"훌륭해 멋진 일이야 아주 대단해"
"고마워"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음... 해리... 엄마 아빠에게 이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부엉이 좀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반장이라면 그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물론이야"
여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다
"어서 가져가!"
해리는 허리를 숙이고 트렁크에 옷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옷장으로 가서 헤드위그를 불러 내리는 동안 원가 열심히 찾는 척했다 잠시 후에 해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꼬부리고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오직 벽에 걸린 텅 빈 액자가 킬킬거리는 소리와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이 부엉이 똥을 캑캑거리며 내뱉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해리는 허리를 쭉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헤르미온느와 헤드위그는 가 버리고 없었다 해리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와 텔썩 주저앉아서 옷장 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해리는 5학년 때 반장을 뽑는다는 사실을 깨맣게 잊고 있었다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반장 배지가 누군가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틈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기억했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뭘 기대했을까?
이건 아니야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지만 진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찌푸리며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반장 배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리는 틀림없이 론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자신도 드레이코 말포이처럼 거만해진 걸까?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걸까? 정말로 자신이 론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었을까?

아니야 희미한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사실일까? 해리는 자신의 감정을 돌이켜보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퀴디치는 내가 더 잘해 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그렇지 않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해리는 생각했다 물론 공부는 론보다 더 뛰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은 어떤가? 호그와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종종 퇴학보다 더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함께 겪었던 모험에서는 어땠던가

그래 론과 헤르미온느는 거의 언제나 나와 함께 모험을 겪었어 해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말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해리는 자기 자신과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나와 함께 퀴렐과 싸우지 않았어 리들과 바실리스크 때에도 옆에 없었지 시리우스가 도망치던 날 밤에 그 모든 디멘터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어 볼드모트가 돌아오던 날 밤 나와 함께 그 공동묘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 밤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억울한 마음이 또다시 솟구쳤다

난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했어 해리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어쩌면... 어쩌면 말이야... 작은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단지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반장으로 뽑아 주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반장을 뽑았을 수도 있어... 론은 내가 가지지 못한 원가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해리는 두 눈을 뜨고 손가락 사이로 발톱이 달린 옷장의 발을 쳐다보았다 문득 프레드가 한 말이 떠올랐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도 론을 반장으로 뽑지는 않았을 거야"
해리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곧 그런 자신이 형오스럽게 느껴졌다
론이 덤블도어 교수님에게 반장 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론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해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론의 친구가 아니던가? 그런데 자신이 배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심술을 내고 쌍둥이 형들과 함께 론의 등 뒤에서 빙정거리며 그의 즐거움을 망쳐도 되는 걸까? 론이 생전 처음으로 해리를 앞섰다고 해서?

바로 그 때 다시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론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벌떡 일어나서 안경을 똑바로 고쳐 썼다 그리고 론이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을 때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겨우 엄마를 불잡았어 가능하면 클린스윕을 사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잘됐다" 해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억지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놓았다 "이봐 론 정말 잘했어 친구"

갑자기 론의 얼굴에서 미소가 쑹 사라졌다

"내가 배지를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난 당연히 네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난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렸잖아"

해리가 프레드의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야 내 생각에는... 어쨌든 그만 가방을 싸는 게 좋겠다 그렇지?"

론이 말했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온갖 소지품들이 발이라도 달린 것처럼 어찌나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지 이상할 정도였다 집 안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책과 물건

들을 다시 가방 안에 정리해 넣는 데 오후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다 해리는 론이 반장 배지를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기곡 있다는 것을 눈치 쳤다 처음에는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가 그 다음에는 청바지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양전하게 개어 놓은 옷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빨간색 배지가 검은색 위에 놓이면 어떻게 보일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다 방에 찾아온 프레드와 조지로부터 차라리 영구 부착 마법을 써서 그의 이마에 배지를 영원히 붙여 버리면 어떨겠느냐는 핀잔을 듣고 나서야 마침내 론은 밤색 양말로 배지를 조심스럽게 싸서 가방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여섯 시가 되자 위즐리 부인이 다이애건 앤리에서 돌아왔다 부인은 책을 잔뜩 짊어지고 다른 한 손에는 두꺼운 갈색 종이로 포장된 긴 물건을 들고 있었다 론은 잔뜩 몸이 달아서 얼른 그 물건을 받아 들었다

"절대로 지금 풀어 볼 생각 마라 사람들이 곧 저녁을 먹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아래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론은 정신없이 포장지를 풀어 헤치고 새로 산 빗자루를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간 위즐리 부인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 위로 붉은색 깃발을 내걸었다 거기에는 '새로운 반장인 론과 해르미온느의 축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방학 내내 해리는 지금처럼 기분이 좋은 위즐리 부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작은 파티라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단다"

위즐리 부인이 부엌 안으로 들어온 해리와 론, 해르미온느, 프레드, 조지 그리고

지니에게 설명했다 "아버지와 빌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란다 론 두 사람 모두에게 부엉이를 보냈거든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구나"

위즐리 부인이 활짝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프레드는 불만스러운 듯 눈알을 굴렸다

시리우스와 루핀 톰스 킹슬리 샤클볼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리고 해리가 버터 맥주잔을 막 받아 들자마자 매드아이 무디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뚜벅뚜벅 나타났다

"오 앤래스터 와 주셔서 고마워요" 위즐리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매드아이는 여행용 망토를 벗었다 "그러지 않아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디렸는지 몰라요 거실에 있는 책상 안을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정말로 위험한게 들어 있을지 몰라서 지금껏 열어 보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몰리..."

번쩍번쩍 빛나는 무디의 푸른 눈동자가 위로 빙글빙글 돌아 가더니 부엌 천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거실이라..." 눈동자의 동공이 좁아지면서 무디가 중얼거렸다 "구석에 있는 책상 말이오? 아 그래 이제 보이는군... 그래 저건 보가트요 내가 올라가서 없애 드릴까 몰리?"

"아니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하죠" 위즐리 부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뭘 좀 마시도록 하세요 작은 축하연을 열고 있었어요..."

위즐리 부인이 붉은색 깃발을 손으로 가리켰다.

"우리 집안의 네 번째 반장이랍니다!"

위즐리 부인이 론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이라고?"

무디가 보통 눈으로 론을 바라보았다 마법의 눈은 빙빙 돌면서 옆을 살펴보고 있었다 해리는 마법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자 웬지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재빨리 시리우스와 루핀이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축하한ㄷ" 무디가 계속 보통 눈으로 론을 노려보며 말했다 "책임을 맡은 인물은 항상 시련을 겪게 마련이지 하지만 아마도 덤블도어는 네가 중요한

저주들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널 뽑았을 리가 없지..."

론은 이런 무디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때마침 아버지와 형이 도착하는 바람에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쪄쩔매는 곤경에 처하지는 않았다 위즐리 부인은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먼던구스가 함께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먼던구스는 이상하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외투를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무디의 여행용 망토 위에 함께 내려놓았다

"자 이제 다 함께 건배를 할 순서인 것 같군요" 모든 사람에게 버터 맥주가 돌아가자 위즐리 씨가 제안했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었다 "그리핀도르의 새로운 반장인 론과 헤르미온느를 위하여!"

일제히 건배를 하고 박수를 치자 론과 헤르미온느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난 한 번도 반장을 해보지 못했어"

통스가 해리의 등 뒤에서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은 음식을 덜기 위해서 식탁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오늘 통스의 머리카락은 토마토처럼 붉은색이었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져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니의 언니 같아 보였다.

"우리 기숙사 담당 교수는 나에게 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말했지"
"어떤 자질이요?"

지니가 구운 토마토를 집어 들며 물었다

"예를 들면 얌전하게 굴 수 있는 능력 같은거 말이야"

통스가 대답하자 지니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헤르미온느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버터 맥주를 한 모금 꿀꺽 삼키는 걸고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숨이 막혀서 챕캑거렸다

"시리우스 아저씨는 어땠어요?"

지니가 헤르미온느의 등을 탁탁 두드려 주면서 물었다

바로 해리 옆에 서 있던 시리우스는 평소처럼 늑대가 우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날 반장으로 뽑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제임스와 함께 톡하면 징계를 받았거든 하지만 루핀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서 반장 배지를 받았지"
"아마도 덤블도어 교수님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을 제법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모양이야 하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

루핀이 웃으며 말했다 해리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그의 아버지도 반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순간 축하연이 훨씬 더 즐겁게 여겨졌다 해리는 이 부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애정을 느끼며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론은 아무나 불잡고 자신의 새 빗자루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떠들었다

"심 초에 117킬로미터를 가면 나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빗자루 고르기>에 따르면 카미트 290이 겨우 96킬로미터밖에 못 간다는 걸 그것도 순풍이 불어 줄

때 그렇다는 걸 아세요?"

한편 헤르미온느는 집요정들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루핀에게 열심히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늑대인간 부린주의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끔찍한 일들은 모두 다 마법사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생물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라고요"

위즐리 부인과 빌은 늘 그렇듯이 빌의 머리 모양을 두고 또 다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 이젠 도저히 그 머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너는 잘생겼으니까 머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멋있단다 그렇지 않니 해리?"

"음... 전 잘 모르겠어요"

위즐리 부인이 갑작스럽게 의견을 물자 해리는 약간 놀라면서 어울쩍 대답을 회피했다 그리고 프레드와 조지가 있는 곳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먼던구스와 수군덕거리고 있었다
해리를 본 먼던구스는 하던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프레드는 눈을 찡끗하며
해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괜찮아요 해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재정 후원자이기도 하죠"
프레드가 먼던구스에게 말했다
"덩이 뭘 가져왔는지 좀 봐"
조지가 해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 안에는 쪼글쪼글 주름진 검은 꼬투리 같은
것이 가득 들어 있었다 비록 그것들은 꼴깍 않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독이 있는 텐타큘라 씨앗이야 꾀병용 과자세트를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
그런데 C 등급 거래 금지 품목이어서 그걸 구하는 데 애를 좀 먹었지"
조지가 설명했다
"그럼 전부에 10 갈레온은 어때요?"
프레드가 물었다
"내가 이걸 구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
먼던구스가 충혈되고 축 늘어진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하지만 난 20 이하로는 한 푼도 깎아 주지 않을 게다"
"덩은 농담도 참 잘한다니까"
프레드가 해리에게 말했다
"그래 지금까지 덩이 한 최고의 농담은 크날(고슴도치처럼 생긴 마법 생물
:역주) 가시바늘 한 봉지에 6 시클이라는 거였어"
조지가 맞장구를 쳤다
"조심해"
해리가 작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왜? 엄마는 론 반장을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잖아 우린 괜찮아"
"하지만 무디가 눈치 챌 수도 있어"
해리가 지적했다 그러자 먼던구스가 불안한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맞는 말이다 어쨌든 좋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당장 가져가겠다면
10 갈레온에 주지"
"브라보 해리!"
프레드가 쾌활하게 말했다 먼던구스는 쌍둥이 형제의 손바닥 위에 호주머니를
털어 주고 허둥지둥 음식을 향해 걸어갔다
"우린 위층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리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쌍둥이 형제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언젠가 이 일이 들통 나면 위즐리 씨와 위즐리 부인은 틀림없이 프레드와
조지가 돈이 어디서 나서 장난감 상점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쌍둥이 형제에게 트리위저드
상금을 주는 일이 아주 단순한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또 다른 분란과 말썽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위즐리 부인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을 프레드와 조지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그를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잔뜩 무거워져서 쌍둥이 형제가 떠난
자리에 우뚝 서 있던 해리의 귀에 누군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떠들썩한 부엌 안에서도 킹슬리 샤클볼트의 굵직한 목소리는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왜 덤블도어 교수가 포터를 반장으로 뽑지 않았을까?"
킹슬리가 말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루핀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해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일이 되었을 텐데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더구나 <예언자 일보>에서 이렇게 거의 며칠에 한 번씩
해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킹슬리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루핀이나 킹슬리에게 자신이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배는 조금도 고프지 않았지만 해리는 먼던구스의 뒤를 따라서 식탁으로 향했다 축하 파티로 즐거웠던 기분은 처음 생겼을 때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해리는 그만 위층 침실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매드아이 무디는 그의 둉툭한 코를 연상하게 하는 커다란 닭다리를 앞에 놓고 킁킁 냄새를 맡고 있었다 다음 순간 이빨로 한 입 덥석 베어 물었다 어떤 독약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손잡이는 항-저주 광택제를 바른 스페인산 떡갈나무로 만들었구요 진동 조절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제 론은 통스를 불잡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위즐리 부인이 크게 하품을 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보가트를 처리해야겠어요... 아서 난 이 사람들이 너무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건 싫어요 아시겠죠? 그럼 잘 자라 해리"

위즐리 부인이 부엌을 떠났다 해리는 접시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고 조용히 부인의 뒤를 따라 갈 수 있을까 궁리했다

"포터 넌 괜찮으냐?"

무디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요 좋아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무디는 자신의 휴대용 물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번쩍거리는 그의 푸른 눈이 비스듬히 해리를 응시했다

"이리 와라 네가 보면 틀림없이 흥미로워할 게 있다" 무디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마법 사진을 꺼냈다

"최초의 불사조 기사단들이란다 어젯밤에 여벌의 투명 망토를 찾다가 이걸 발견했지 포드모어가 무례하게도 나의 가장 좋은 투명 망토를 빌려 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지 않아서 말이야 사람들이 이걸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해리는 사진을 받아 들었다 사진 속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하고 안경을 고쳐 쓰기도 하고 빤히 올려다보기도 했다

"이게 나란다"

무디가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짚어서 알려 주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비록 머리카락이 좀 덜 세었고 코가 멀쩡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사진 속의 무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덤불도어야 반대편은 데달루스 디글이고... 이 사람은 마를렌느 맥키논이야 이 사진을 찍은 지 이 주일 후에 살해됐지 그녀의 가족 전부가 몰살됐어 이쪽은 프랭크와 앤리스 롱바텀~"

아까부터 속이 불편했던 해리는 앤리스 롱바텀을 보자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동그랗고 상냥한 얼굴은 무척 낯이 익었다 그의 아들인 네빌과 닮았기 때문이었다

"불쌍한 것들 그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쪽은 에밀린 밴스야

너도 그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지? 그리고 여기는 물론 루핀이고... 벤지 펜워크

볼드모트가 그도 납치했지 우린 단지 그의 시신 일부만을 찾아냈어... 여기 잠깐

비켜 봐"

무디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다 그러자 사진 속에 있던 작은 사람들이 한 쪽 옆으로 우르르 피해가고 그때까지 모습이 가려서 잘 안 보였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은 아멜리아 본즈와 오빠인 에드가 본즈야 그들은 이 사람과 그의 가족들까지 해쳤지 그는 아주 위대한 마법사였어 스터지스 포드모어 이런 아주 젊어 보이는 군 캐라독 디어본 이 사진을 찍고 나서 6 개월 후에 실종되었는데 시체조차 찾지 못했지... 해그리드도 있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먼 엘피아스

도지 이 사람도 만난 적이 있지? 이자가 그때는 이런 명청한 모자를 쓰고
다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군 기디언 프레웨트 이 사람과 그의 동생인
패비안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을 먹는 자 다섯 놈이 한꺼번에 덤벼여만 했어
정말 영웅처럼 용감하게 싸웠지 조금만 옆으로 가 좀더 옆으로"

사진 속의 조그만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락달치락하며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자
사진 맨 뒤의 오른쪽에 가려졌던 부분이 드러났다

"이 사람이 덤블도어의 동생인 애버포스야 나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지
이상한 놈이야 이자는 도르카스 메도우즈 볼드모트가 직접 죽였지... 그리고
시리우스 이때는 머리가 짧았군... 그리고... 바로 여기 있군 네가 관심
있을거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거야!"

해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조그맣고 젖은 듯한 눈을 가진 한 남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앉아 있었다 해리는 웰테일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의
부모를 배신하여 그들의 행방을 볼드모트에게 알려 주고 결국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안 그러냐?"

무디가 말했다 해리는 눈을 들어서 유통불통하고 흉터투성이인 무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디는 자신이 방금 해리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무척 흐뭇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요" 해리는 또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썼다 "어... 그런데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그만 깜박 잊고 그-그걸 싸지 않았네요 그-그러니까..."
해리는 월 싸지 않았다고 둘러대야 할지 좀처럼 생각나지 않아서 쪄쫄매고
있었다 바로 그 때 시리우스가 불렀다

"매드아이 거기 그게 뭐예요?"

무디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해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부엌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부르기전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해리는 왜 그 사진을 보고 이토록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부모님 사진이라면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웰테일은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그런 사진을 불쑥
보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해리는 화가 나서 생각했다
게다가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토막 난 시체로 발견된 벤지 펜워크 영웅적인 회주를 맞은 기디언
프레웨트 고문을 받다가 미쳐 버린 롱바텀 부부... 모두들 머지않아 닥칠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사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한 듯 손을 흔들고 있다니...
무디는 그게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해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해리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집요정들의 목이 늘어서
있는 현관 복도를 지났다 해리는 다시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뻤다
하지만 2층 계단참으로 막 올라서려고 할 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세요?" 해리가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흐느끼는 소리만 계속 이어졌다 해리는 한 번에 두 계단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2층 복도를 지나 거실 문을 열었다

누군가 어두운 벽 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손에 지팡이를 들고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한 줄기 달빛이 먼지 낀 낡은 양탄자 위에 쓰러진 론을 비추고
있었다 론은 분명히 죽은 것 같았다

순간 해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당장에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론이 죽었다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아니 잠깐만 그럴 리가 없어 론은 아래층에 있잖아

"위즐리 부인?"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리-리-리디큘러스!"

위즐리 부인이 울면서 쓰러진 론을 향해 떨리는 지팡이를 내밀었다

평!

론의 시체가 빌의 시체로 변했다 빌은 초점 없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사지를 벌리고 벌렁 누워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리-리-리디쿨러스!"

위즐리 부인은 또다시 울먹이며 말했다

평!

이번에는 안경이 비스듬하게 벗겨진 채 얼굴 위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위즐리 씨의 시체가 나타났다

"안 돼!"

위즐리 부인이 신음 소리를 내었다

"안 돼! 리디쿨러스! 리디쿨러스! 리디쿨러스!"

평! 죽은 쌍둥이 형제가 나타났다 평! 죽은 퍼시 평! 죽은 해리...

"위즐리 부인! 그냥 거기서 나오세요!"

해리가 마루 위에 쓰러진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다른 사람더러 하라고~"

"무슨 일이지?"

루핀이 황급히 거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곧이어 시리우스가 나타나더니 무디가 무거운 걸음을 질질 끌며 쫓아왔다 루핀은 위즐리 부인과 마루 위에 쓰러진 해리의 시체를 번갈아 보고서 곧 상황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꺼내더니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리디쿨러스!"

해리의 시체가 사라졌다 시체가 놓여 있던 자리에는 보름달이 허공에 떠 있었다 루핀이 다시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자 보름달마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 오-오-오!"

위즐리 부인이 숨을 한 번 삼키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몰리"

루핀이 위즐리 부인을 향해 다가가면서 우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몰리 울지 말아요..."

다음 순간 위즐리 부인은 루핀의 어깨에 기대어 평평 눈물을 쏟았다

"몰리 이건 그저 보가트일 뿐이오 단순한 보가트란 말이오"

루핀이 위즐리 부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계속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언제나 말이에요! 나는 꾸-꿈을 꿰어요..."

위즐리 부인이 루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며 말했다

시리우스는 방금 전까지 보가트가 해리의 시체인 척하면서 쓰러져 있었던

양탄자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무디는 자신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해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웬지 무디의 마법의 눈이 부엌에서 나오는 그를 출곧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서에게는 말-말하지 말아요"

위즐리 부인이 울음을 삼키며 소맷자락으로 정신없이 눈가를 닦았다

"아서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루핀이 손수건을 건네주자 위즐리 부인이 코를 풀었다

"해리 미안하구나 네가 날 뭐라고 생각하겠니?" 위즐리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가트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해리는 태연하게 웃으려고 애를 썼다

"그-그냥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위즐리 부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가족의 절반이 기사단에 속해 있으니 우리 모두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그게 기-기적이겠지 게다가 퍼-퍼시는 우리와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만약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게다가 영원히 퍼시와 화해하지 못하면? 만약 아서와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론과 지니는 누-누가 돌봐 주지?"

"몰리 그만해요" 루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라요

기사단들은 훨씬 준비가 잘되어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앞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볼드모트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그 이름을 듣자 위즐리 부인은 나지막이 겁에 질린 신음 소리를 내었다

"오 몰리 진정해요 이제는 그 이름을 듣는 데 익숙해질 때도 되었어요 이봐요
물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어요 그런 약속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 때
기사단에 없었으니 잘 이해할 수 없겠죠 그 때는 죽음을 먹는 자들의 숫자가
스무 배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하나씩 차례차례 제거했던
거예요..."

해리는 또 다시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던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무디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퍼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시리우스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결국
돌아올 거요 볼드모트가 드러내 놓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말이오 일단 그렇게 되면 마법부 전체가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게 될 거요 물론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당신과 아서가 죽었을 때 론과 지니를 돌보는 문제라면 도대체 그 아이들이
굶어죽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기라도 할 것 같아요?"

루핀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위즐리 부인도 활짝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바보 같았어요"

위즐리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또다시 중얼거렸다

하지만 십 분쯤 후에 문을 닫으며 침실로 들어간 해리는 위즐리 부인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아직도 낡은 옛날 사진 속에서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들은 옆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나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순간 위즐리 가족들의 시체로 연달아 나타났던 보가트의 모습이 해리의 눈앞을
스쳤다

느닷없이 그의 이마에 난 흉터가 또다시 날카롭게 쑤셔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뱃속이 마구 뒤틀렸다

"이제 제발 그만 해!"

통증이 조금 사라지자 해리는 이마에 난 흉터를 문지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 머리에게 말을 걸다니... 미쳐 간다는 첫 번째 신호야"

벽에 걸린 텅 빈 액자에서 심술궂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해리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갑자기 자신이 부쩍 나이가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불과 한 시간 전 만해도 자신이 장난감 가게나 반장 배지 때문에
걱정하며 우울해했다는 사실이 꿈처럼 아득하고 낯설게만 여겨졌다

제 10 장 루나 러브굿

해리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부모님이 한마디 말도 없이 손을
흔들며 꿈속을 들락날락했고, 머리에 왕관을 쓴 론과 헤르미온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즐리 부인이 크리처의 시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해리 자신은 또다시 어두운 복도를 헤매고 다니다가 굳게 잠긴
문 앞에서 길이 막혀 어쩔 줄 몰랐다. 순간 그는 이마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번쩍 떴다. 이미 옷을 갈아입은 론이 그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서두르는 게 좋겠어. 엄마가 펄쩍펄쩍 뛰고 계셔. 이러다가 기차를
놓치겠다고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셔."

과연 온 집이 떠나갈 듯이 시끌벅적했다. 해리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으면서 들은 바에 따르면, 프레드와 조지가 트렁크를 아래층까지
들고 가는 수고를 덜겠다는 심사로 가방에 마법을 걸어서 날아가게
하다가, 지니를 쓰러뜨려서 1층 복도까지 굴러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블랙 부인과 위즐리 부인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목청껏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이었다.

"이 한심한 녀석들아, 하마터면 지니가 크게 다칠 뻔했잖아!"

"이 더러운 잡종들! 감히 우리 조상들의 집을 더럽히다니!"

해리가 막 신발을 신고 있을 때, 헤르미온느가 정신없는 표정으로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헤드위그가 앓아 있었고, 품 안에는 크룩생크가 버둥거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방금 헤드위그를 돌려보내셨어."

부엉이는 날개를 퍼덕이며 충실하게 자신의 새장 꼭대기에 날아가 앉았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니?"

"거의 다 됐어. 지니는 괜찮아?" 해리가 안경을 쓰면서 물었다.

"위즐리 아줌마가 반창고를 붙여 주셨어. 하지만 이번에는 매드아이가 말썽이야. 스터지스 포드모어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경호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경호원이라고? 우리가 킹스 크로스 역까지 가는 데 경호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가 킹스 크로스 역까지 가는 데 경호원이 필요한 거야."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말을 정정했다.

"왜 그러지? 볼드모트는 납작 엎드려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자가 쓰레기통 뒤에서 불쑥 튀어나와 나를 끌고 들어가기라도 할까 봄 그런 거니?"

해리가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

"나도 몰라. 매드아이의 말이 그렇다는 거야."

헤르미온느는 초조한 듯이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분명히 기차를 놓칠 텐데."

"너희 모두 지금 당장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겠지!"

위즐리 부인이 꽉 소리를 질렀다. 헤르미온느는 불에 덴 듯이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방을 뛰어나갔다. 해리는 헤드위그를 붙잡아서 우악스럽게 새장 안으로 쑤셔 넣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질질 끌며 헤르미온느의 뒤를 쫓아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블랙 부인의 초상화는 분노에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아무도 초상화의 커튼을 닫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일단 닫는다고 해도, 현관 복도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해리, 너는 나와 통스에 함께 가야 한다." 위즐리 부인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 사이로 고함을 질렀다.

"잡종! 쓰레기! 더러운 놈들!"

"트렁크와 부엉이는 두고 가거라. 짐은 앤더슨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오, 시리우스, 덤블도어 교수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해리가 현관 복도에 어지럽게 흘어져 있는 수많은 트렁크들을 뛰어넘으며 위즐리 부인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커다란 콤처럼 보이는 검은 개가 해리 옆으로 쑥 다가왔다.

"오, 정말로... 이젠 당신이 책임져요!"

위즐리 부인이 체념한 듯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희끄무레한 9월의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해리와 개는 그 뒤를 따라갔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블랙 부인의 비명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어졌다.

"통스는 어디 있나요?"

해리가 12 번지의 돌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돌계단은 그들이 보도에 내려서자마자, 스르르 사라졌다.

"바로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위즐리 부인이 해리와 나란히 걸어가는 검은 개를 힐끗 바라보더니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한 늙은 부인의 모퉁이에 서서 그들을 향해 인사를 했다. 그녀는

빠글빠글하게 파마한 회색 머리에 돼지고기 파이처럼 생긴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안녕, 해리." 부인이 눈을 찡긋하며 말을 걸었다. 그리고 시계를 살펴보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좀 서두르는 게 좋겠죠, 몰리?"

"그래요. 나도 알아요."

위즐리 부인이 신음 소리를 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매드아이가 스터지스를 기다리라고 해서 말이죠.... 아서가 예전처럼 마법부에서 차를 가지고 나올 수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요즘엔 퍼지가 이 양반에게는 다 쓴 잉크병 하나도 절대 빌려 주지 않는다는군요. 머글들은 도대체 마법도 쓰지 않고 어떻게 여행을 다니는지 몰라...."

하지만 커다란 검은개는 킁킁 짖어 대다가 그들 주위를 경중경중 뛰어다니기도 하고 비둘기를 와락 덮치거나 자기 꼬리를 쫓아 빙빙 도는 등,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해리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시리우스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집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위즐리 부인은 거의 폐투니아 이모만큼이나 부루퉁하게 입술을 내밀고 있었다. 걸어서 킹스 크로스 역까지 가는 데에는 이십 분이 걸렸다. 그때까지 시리우스가 해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고양이 두 마리를 겁주어 쫓아낸 것 의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역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9 번과 10 번 승강장 사이의 개찰구 옆을 태연하게 어슬렁거리며, 주위가 한산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명씩 차례로 허리를 숙이고 9 와 4 분의 3 번 승강장으로 손쉽게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호그와트행 급행열차가 시커먼 연기를 토해 내며 서 있었다. 승강장은 떠나는 학생들과 가족들로 북적거렸다. 해리는 이 반가운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영혼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돌아가는구나....

"다른 아이들도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데."

위즐리 부인이 승강장 위를 가로지르는 철제 아치를 바라보며 걱정했다. 새로 도착한 아이들은 그 아치를 통해 들어올 것이다.

"멋진 개로구나, 해리!"

여러 가닥으로 머리를 땋아서 늘어뜨린 키 큰 소년이 말을 걸었다.

"고마워, 리." 해리가 미소를 지었다.

시리우스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아, 다행이야. 저기 앤더스터가 짐을 가지고 오는군. 어디보자...." 위즐리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짝짝이 눈 위로 짐꾼 모자를 푹 눌러쓴 무디가 그들의 가방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면서 절뚝절뚝 철교 밑을 지나고 있었다.

"모두 무사하오."

무디가 위즐리 부인과 통스에게 속삭였다.

"우릴 쫓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소...."

곧이어 위즐리 씨가 론과 헤르미온느를 데리고 승강장에 나타났다.

그들이 무디의 손수레에서 짐을 내리자마자, 루핀과 함께 프레드와 조지, 지니도 등장했다.

"아무 일 없었지?"

무디가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혀요."

루핀이 대답했다.

"아무래도 스터지스에 대해 덤블도어에게 보고해야겠어. 이번 주에만 나타나지 않은 게 벌써 두 번째야. 먼던구스만큼이나 점점 믿을 수 없게 되어 가는군."

무디가 투덜거렸다.

"자, 그럼 조심해라."

루핀이 아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해리와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톡 때렸다.

"해리, 너도 조심해라."

"그래, 항상 머리를 숙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도록 해."

무디도 해리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라. 너희 모두 편지를 쓸 때 항상 조심하도록 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편지에 아무것도 쓰지 말거라."

"모두들 만나서 반가웠어. 곧 다시 보게 될거야."

통스가 헤르미온느와 지니를 껴안으며 말했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까지 승강장에 남아 있던 학생들은 서둘러 기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어서, 어서 서둘러라."

위즐리 부인이 닥치는 대로 이 아이 저 아이를 한 번씩 껴안았다 놀아 주며 재촉했다. 해리는 특히 두 번이나 껴안았다.

"편지 써라. 말썽 피우지 말고... 뭔가 빠뜨린 게 있으면 우리가 보내 주마.... 자, 어서 기차에 올라타거라...."

그때 커다란 검은개가 뒷발로 일어서더니 잠시 해리의 어깨위에 앞발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은 재빨리 해리를 기차 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쏘아붙였다.

"제발 부탁인데 좀 더 개처럼 굴도록 해요, 시리우스!"

"안녕히 계세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해리는 열린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소리쳤다. 론과 헤르미온느, 지니도 그의 옆에서 손을 흔들었다. 통스와 루핀, 무디, 위즐리 씨 부부의 모습은 순식간에 작아졌다. 하지만 검은개만은 꼬리를 흔들면서 기차 창문을 향해 경종경종 뛰고 있었다.

승강장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이 기차를 쫓아가는 개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기차가 모퉁이를 돌자, 시리우스 또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리우스가 우리를 쫓아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저씨는 몇 달 동안이나 햇빛을 못 봤잖아. 불쌍하기도 하지."

론이 시리우스를 두둔했다.

"자, 자, 하루 종일 여기 서서 수다나 떨고 있을 수는 없지."

프레드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우리는 리와 의논할 게 있어서 말이야. 나중에 보자."

기차는 점점 더 속력을 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집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들이 서 있는 발밑이 흔들렸다.

"그럼 우리는 어디 빈칸이 있는지 찾아볼까?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난처한 듯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저...."

론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론과 나는 반장 칸으로 가야 할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론은 자꾸만 해리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왼손 손톱들을 흥미로운 듯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척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 괜찮아."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 있을 필요는 없을거야."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덧붙였다.

"우리가 받은 편지에 보면, 남학생 회장과 여학생 회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받은 다음, 이따금씩 복도를 돌면서 순찰을 하게 될 거래."

"알았어. 그래, 그-그럼 나중에 보자."

해리가 말했다.

"물론이지, 솔직히 저기에 꼭 가야만 한다니 정말 괴로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난 별로 즐겁지 않아. 정말이야. 난 퍼시와는 달라."

론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힐끗힐끗 해리의 눈치를 살폈다.

"그건 나도 알아."

해리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와 론이 크룩생크와 새장 안에 든 피그위존을 들고 가방을 끌며 기차 끝에 있는 기관실로 가버리자, 웬지 허전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어서 가자. 조금 서두르면, 두 사람 자리도 맡아 놀을 수 있을지 몰라." 지니가 그를 재촉했다.

"맞아."

해리는 한쪽 손에 헤드위그의 새장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그들은 비좁은 복도를 빠져나가면서 유리창 너머로 객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객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눈치 쪘다. 몇몇 사람들은 옆에 앉은 친구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그를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열차의 다섯 개 칸에서 계속 똑같은 일을 당하고 난 후에, 해리는 비로소 <예언자 일보>가 여름방학 내내 그가 얼마나 거짓말쟁이 허풍선이인가를 떠들어 댄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자기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그 기사를 다 믿고 있을지 궁금했다. 제일 마지막 칸에서 그들은 해리의 그리핀도르 5학년 동급생인 네빌 롱바텀을 만났다. 네빌은 한 손으로 버둥거리는 두꺼비 트레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끌고 오느라, 동그런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안녕, 해리, 안녕, 지니... 모두 다 사람들이 짹 찼어.... 도대체 빈자리를 찾을 수가 없네...."

네빌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니가 네빌을 옆으로 밀치면서 그의 등 뒤에 있는 객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기 빈자리가 있잖아. 이 객실에는 루나 러브굿밖에 없는데~" 네빌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하면서 우물우물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애는 괜찮아." 지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문을 옆으로 밀면서 트렁크를 객실 안에 집어넣었다. 해리와 네빌도 따라 들어갔다.

"안녕, 루나. 우리가 여기 앉아도 괜찮겠지?"

지니가 인사를 하자, 창가에 앉아 있던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구 형글어진데다가 지저분한 금발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썹은 아주 희미했고 불룩 튀어나온 두 눈은 언제나 깜짝 놀란 듯이 보였다. 해리는 왜 네빌이 이 칸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지 금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인상을 풍겼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안전을 위해 지팡이를 원쪽 귀 뒤에 꽂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버터 맥주병 뚜껑으로 만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거나 잡지를 거꾸로 읽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네빌을 한 번 쑥 훑어보고 해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지니가 활짝 미소를 지었다.

해리와 네빌은 화물 선반에 트렁크 세 개와 헤드위그의 새장을 올려놓은 다음 자리에 앉았다. 루나라고 하는 그 여학생은 거꾸로 들고 있는 잡지 너머로 그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 잡지는 <이러쿵 저러쿵>이었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처럼 눈을 깜박일 필요조차 없는 것 같았다. 해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해리는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며 몹시 후회했다.

"여름방학은 잘 지냈니, 루나?"

지니가 물었다.

"응"

루나는 해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꿈꾸듯이 대답했다.

"그래, 꽤 재미있었어, 그런데 네가 바로 해리 포터구나."

"내가 누군지는 나도 알아."

해리의 대답을 듣고 네빌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러나 루나는 창백한 눈을 네빌에게로 돌리며 물었다.

"너는 누군지 모르겠어."

"난 아무도 아니야."

네빌이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지니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루나 러브굿, 이쪽은 네빌 롱카텀이야. 루나는 나와 같은 학년이고 레번클로 학생이야."

"측량할 수 없이 뛰어난 재치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루나가 노래를 부르듯이 경구를 읊었다.

그녀는 거꾸로 든 잡지를 높이 들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더니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해리와 네빌은 눈을 치켜뜨며 서로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지니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았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지금은 탁 트인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날씨였다. 어느 순간에는 객실로 가득히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다가, 다음 순간에는 음울한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내 생일날 뭘 받았는지 알아?"

네빌이 물었다.

"또 다른 리멤브럴?"

해리는 네빌의 할머니가 그의 아둔한 기억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에게 보냈던 구슬처럼 생긴 것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니야, 물론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난번 것은 오래 전에 잃어버렸거든.... 자, 이걸 좀 봐."

네빌은 트레버를 붙잡고 있지 않은 손을 가방 속으로 집어 넣었다.

그리고 잠시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화분에 든 작은 회색 선인장처럼 생긴 것을 꺼냈다. 다만 그것은 가시 대신 부스럼 딱지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다.

"밈블러스 밍블토니아야."

네빌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해리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떨리고 있는 그것은 마치 병든 내장처럼 보기에 흉측하고 기분 나빴다.

"이건 아주 희귀한 거야."

네빌이 환하게 웃었다.

"어쩌면 호그와트의 온실에도 이런 건 없을 거야. 하루빨리 스프라우트 교수님께 이걸 보여 드리고 싶어 죽겠어. 우리 큰 삼촌인 알지가 아시리아에서 구해 주셨어. 과연 이걸 기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생각이야."

네빌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약초학이라는 사실은 해리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이 발육이 멍춘 작은 식물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다는 건지, 해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음- 이게 뭘 할 수 있니?"

해리가 물었다.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지!"

네빌이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이 식물은 굉장히 놀라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거든, 잠깐 트레버 좀
붙잡고 있어..."

네빌은 해리의 무릎 위에 두꺼비를 내려놓고는 가방 안에서 깃펜을
꺼냈다. 거꾸로 든 잡지 위로 루나의 톡 튀어나온 눈이 슬그머니 다시
나타나더니, 네빌이 하는 일을 열심히 지켜보았다. 네빌은 임불러스
밈블토니아를 눈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이를 악물고 그의 목표지점을
정한 후 깃펜 끝으로 그 식물을 쭉 찔렀다.

그러자 부스럼마다 일제히 액체를 뿜어냈다. 냄새가 지독한, 걸죽하고
끈끈한 암녹색 액체였다. 천장과 창문에까지 흔 액체는 루나 러브굿의
잡지 위에도 후두둑 떨어졌다. 그나마 지니는 재빨리 두 팔로 얼굴을 가린
덕분에 그저 끈적끈적한 녹색 모자를 머리에 뒤집어쓴 꼴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트레버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만 했던 해리는
온 얼굴에 고스란히 맞고 말았다. 그 액체는 썩은 거름 냄새를 풍겼다.
네빌 역시 얼굴과 온몸에 액체를 훌딱 뒤집어쓴 채, 눈에 묻은 것을
털어 내기 위해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미-미안해. 사실 나도 이번에 처음 해본 거라서... 이게 그렇게 빠른
줄은 미처 몰랐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냄새는 고약하지만 독은 없으니까
말이야."

해리가 바닥에 침을 턱 뱉자, 네빌이 안절부절못하면서 변명했다.

바로 그때 객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오... 안녕, 해리."

약간 긴장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 내가 별로 안 좋은 때 온 모양이지?"

해리는 트레버를 붙잡지 않은 손으로 안경알을 문질렀다. 반짝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아름다운 소녀가 문 앞에 서서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래번클로 퀴디치 팀의 수색군인 초 챔이었다.

"아... 안녕."

해리가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다.

"음... 그냥 인사나 할까 해서 찾아왔어... 그럼 안녕."

초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문을 닫더니 그냥 가 버렸다. 해리는 의자
뒤로 털썩 몸을 기대면서 신음 소리를 냈다. 멋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자기가 한 농담에 모두들 고개를 젓하고 깔깔 웃는 그런 장면을 보여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빌이나 루나 러브굿 같은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서 손에는 두꺼비를 움켜쥔 채, 악취수액을 뒤집어쓴 몰골은 정말이지
절대로 보여 주고 싶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지니가 쾌활하게 말했다.

"이거 봐. 이런 건 간단하게 없앨 수 있어."

지니가 지팡이를 꺼내 들고 말했다.

"스코지파이!"

순식간에 악취수액이 사라졌다.

"미안해."

네빌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또다시 사과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거의 한 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먹을 것을 파는 수레가 이미 한 번 지나갔다. 해리와 지니, 네빌이 호박
파이를 끝장내고 한창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맞바꾸느라 정신을 팔고 있을
때, 객실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크룩생크와 새장 안에서 날카롭게
울어대는 피그위존을 데리고 들어왔다.

"배고파 죽겠어."

론은 헤드위그 옆에 피그위존을 옮겨놓더니, 해리의 손에서 개구리
초콜릿을 빼앗듯 집어 들고는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포장지를
벗기고 개구리 머리를 한 입 깨물었다. 그리고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오전을 보냈다는 듯이 두 눈을 감은 채, 등을 비스듬히 기댔다.
"각 기숙사마다 5 학년 반장이 두 명씩이야." 헤르미온느는 몹시
불만스런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한 명씩
뽑았어."

"슬리데린의 반장이 누군지 알아?"
론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물었다.
"말포이겠지."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는 순간임을 확신하면서, 해리가 즉시
대답했다.

"바로 맞혔어."

론은 너머지 개구리를 놓았던 입에 쑤셔 넣더니 또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완벽한 한 쌍은 팬시 파킨슨이야." 헤르미온느가 가시
돋친 어조로 말했다. "머리가 깨진 트롤보다도 더 멍청한 애가 어떻게
반장이 됐는지...."

"후풀푸프는 누가 반장이 됐어?"
해리가 물었다.

"어니 맥밀란과 한나 아보트."

론이 목 멘 목소리로 말했다.

"레번클로의 반장은 안토니 콜드스틴과 파드마 패틸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너는 파드마 패틸이랑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갔었지."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루나 러브굿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너머로 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론은 입 안 가득 들어있던 개구리 초콜릿을 꿀꺽 삼켰다.
"그래, 나도 알아."

론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패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루나가 론에게 알려 주었다.

"네가 그 애랑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에, 패틸은 자기가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나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루나가 잠깐 생각한 끝에 한마디 덧붙였다.

"난 별로 춤추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루나는 다시 <이러쿵 저러쿵>뒤로 얼굴을 감추었다. 론은 몇 초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잡지 위를 바라보고 있더니, 해명해 달라는 듯
지니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지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을 뿐이었다. 론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며 잠깐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시계를 살펴보았다.

"우리 열차 복도를 자주 순찰해야만 해."

론이 해리와 네빌에게 말했다.

"만약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줄 수도 있어. 크레이브와
고일이 어서 빨리 내 손에 걸려야만 하는데...."

"론, 너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돼!"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질책했다.

"그래, 맞아. 말포이라면 자신의 지위를 절대로 남용하지 않겠지."

론이 빙정거렸다.

"그래서 말포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놀겠다는 거야?"

"아니. 그 녀석이 내 친구들을 건드리기 전에 내가 그 녀석의 친구들을
확실히 손봐 주겠다는 거지."

"제발, 론~"

"고일에게 베껴 쓰기를 시키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할 거야. 글 쓰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하니까 말이야."

론이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더니 얼굴을 잔뜩 짹그리고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허공에 대고 글씨 쓰는 흉내를 냈다.

"나는... 원숭이... 엉덩이... 처럼... 보이지... 말아야 한다...."

론은 고일의 낮고 굵은 목소리를 따라했다.

모두들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 중에서도 루나 러브굿만큼 신나게 웃는 사람은 없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녀의 요란한 웃음소리 때문에 화들짝 잠에서 깨어난 헤드위그는 신경질적으로 날개를 퍼덕거렸고, 크룩생크는 야옹 소리를 내며 화를 선반 위로 냉큼 올라갔다. 루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잡지가 무릎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져도 모를 정도로, 요란하게 웃어댔다.

"정말 웃긴다!"

루나의 툭 튀어나온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루나는 숨을 헐떡이며 론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 예기치 못한 반응에 너무나 당황한 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른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루나 러브굿의 그칠 줄 모르는 웃음과 론의 표정을 보고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이제 루나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몸을 앞뒤로 마구 흔들었다.

"너 놀리는 거니?"

론이 인상을 쓰며 물었다.

"원숭이... 엉덩이!"

루나는 배를 친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이 루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마루에 떨어진 잡지를 힐끗 쳐다본 해리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들었다. 루나가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을 때에는 표지에 실린 그림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코넬리우스 퍼지의 모습은 어설프게 풍자한 만화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해리는 머리에 쓴 라임 색깔의 초록색 모자를 보고 겨우 그를 알아차렸다. 퍼지는 한 손에 황금이 가득 든 자루를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깨비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만화 위에는 '그린고트를 손에 넣기 위해 퍼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제목 아래에는 잡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퀴디치 리그의 부정부패: 토네이도즈 팀 승리의 비결

고대 룬 문자의 신비가 드러나다

시리우스 블랙: 악당인가 희생자인가?

"내가 이 잡지 잠깐 좀 봐도 되겠니?"

해리가 루나에게 부탁했다. 루나는 여전히 숨이 막히도록 웃으면서 론에게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다.

해리는 잡지를 펴고 목차를 살펴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킹슬리가 시리우스에게 전해 주면서 위즐리 씨에게 주었던 잡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읽고 있었다. 아마도 그 잡지가 <이러쿵 저러쿵>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해리는 페이지를 넘기며 열심히 관련 기사를 찾았다. 기사에도 역시 어설픈 풍자만화가 그려져 있었다. 만화 위에 제목이 없었다면, 해리는 이게 시리우스라고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시리우스는 지팡이를 꺼내 든 채, 빠다귀 더미 위에 서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시리우스-과연 알려진 것처럼 악당인가?

악명 높은 대량 학살자인가 아니면 결백한 천재 가수인가?

해리는 혹시 자신이 잘못 읽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이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시리우스가 천재 가수가 되었단 말인가?

지난 14년 동안 시리우스 블랙은 열두 명의 무고한 머글과 한 명의 마법사를 죽인 살인범으로 여겨져 왔다. 2년 전 아즈카반의 감옥에서 대담하게 도망친 블랙을 잡기 위해 마법부는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그가 불잡혀서 디멘터들 손에 다시 넘겨질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최근에 새로 밝혀진 놀랄 만한 증거들에 따르면 시리우스 블랙은

아즈카반에 투옥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 리틀 노턴, 아칸시아 18 번지에 살고 있는 도리스 퍼키스에 따르면, 블랙은 살인 현장이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시리우스 블랙이 가짜 이름이란 사실이에요."

퍼키스 부인은 말한다.

"사람들이 시리우스 블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스터비 보드맨이라는, 인기 그룹 흡고블린스의 리드 싱어예요. 15년 전 리틀 노턴 처칠 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순무가 귀에 박힌 후로는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죠. 나는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스터비는 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문제의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우연히도 저와 촇불을 밝히고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마법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언젠가는 마법부가 소위 시리우스라고 불리는 스터비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거라고 믿어요."

해리는 기사를 다 읽은 후에도 어안이벙벙해서 잡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아마 거짓말일 거야. 잡지들도 종종 장난 기사를 쓰곤 하잖아. 해리는 생각했다. 그러다가 다시 몇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니, 이번에는 퍼지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마법부의 장관 코넬리우스 퍼지는, 5년 전 마법부 장관으로 선출되었을 때 마법 은행인 그린고트의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한 우리의 황금을 지키는 수호자와 '평화롭게 연합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언제나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마법부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퍼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도깨비들의 황금 광산의 지배권을 차지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하는 일조차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마법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퍼지의 친구들은 그를 코넬리우스 도깨비 분쇄기 퍼지라고 부르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퍼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 봐야 해요. 오, 그는 항상 자기가 도깨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자랑삼아 떠들어 대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독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요리해서 파이를 만들기도 하고..."

해리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퍼지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지 모른다. 하지만 도깨비를 요리해서 파이를 만들라는 명령까지 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터트실 토페이도즈 팀이 협박과 불법적인 빗자루를 조작, 고문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퀴디치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비방성 기사가 눈에 띄었다. 그 밖에도 클린스윕 6을 타고 달나라까지 날아갔다가. 그 증거로 달나라 개구리를 한 자루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한 마법사와의 인터뷰 기사, 고대 문자에 대한 기사 등이 실려 있었다. 그 기사를 보자, 왜 루나가 <이러쿵 저러쿵>을 거꾸로 들고 있었는지 이해가 갔다. 기사에 룬 문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적의 귀를 굴로 만들 수 있는 주문이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쿵 저러쿵>에 실린 다른 기사들의 내용에 비하면, 시리우스가 흡고블린스 그룹의 리드 싱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성 기사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뭐 괜찮은 기사라도 있니?"

잡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해리에게 론이 물었다.

"그럴 리가 없지."

해리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가차없이 딱 잘라서 말했다.

"<이러쿵 저러쿵>은 한마디로 쓰레기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걸."

"미안하지만 우리 아빠가 이 잡지사의 편집장이야."

꿈꾸듯이 둉통하던 루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이-이런... 그래, 재미있는 정도 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꽤...."

헤르미온느가 어쩔 줄 모르고 말을 더듬었다.

"그만 돌려줘"

루나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해리의 손에서 잡지를 썩 빼앗으며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 57 페이지를 찾아서 잡지를 거꾸로 들고 얼굴을 가렸다. 바로 그때 세 번째로 객실 문이 열렸다.

해리는 고개를 돌렸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즐개인 크레이브와 고일을 양쪽에 거느린 채 심술궂은 미소를 짓고 있는 드레이코 말포이의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불쾌하기 짹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말포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해리가 먼저 따지듯이 물었다.

"포터, 예의를 지켜, 그렇지 않으면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를 시킬 수도 있어."

말포이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그의 매끄러운 금발과 뾰족한 턱은 아버지와 똑같았다.

"너도 알겠지만, 난 너와는 달리 반장이 되었거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난 너와 달리 별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 하지만 넌 나와 달리 바보 멍청이야. 그러니까 우릴 그냥 내버려 두고 당장 여기서 깨져."

론과 헤르미온느, 지니, 네빌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말포이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포터, 어디 한번 말해 보시지? 위즐리한테 뒤처지니까 기분이 어때?"

말포이가 빙정거렸다.

"입 닥쳐, 말포이"

헤르미온느가 발칵 화를 냈다.

"내가 신경을 거슬리게 한 모양이군."

말포이가 능글맞게 웃었다.

"어쨌든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포터. 네놈이 조금이라도 금 밖으로 나오면 사냥개처럼 끝까지 네 뒤를 쫓아다닐 테니까."

"당장 나가!"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포이는 마지막으로 해리를 사납게 노려보더니 깔깔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크레이브와 고일도 그 뒤를 따라 어슬렁거리며 가 버렸다.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객실 문을 쟁 닫은 후에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그녀 역시 말포이가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 기운이 빠진 것을 알았다.

"우리한테 개구리 초콜릿 하나 더 던져."

눈치 없는 론이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네빌과 루나 앞에서는 마음놓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또다시 헤르미온느와 걱정스런 시선을 주고받은 해리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역까지 따라온 것을 그저 재미있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굉장히 무모한 행동처럼 여겨졌다. 설사 그 당장은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도 말이다.

헤르미온느가 웃았어... 시리우스는 오지 말아야 했어. 혹시 말포이 씨가 검은개를 알아보고 드레이코에게 무슨 말을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위즐리 부부와 루핀, 통스, 무디가 시리우스의 은신처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말포이가

'사냥개처럼' 이란 말을 쓴 것이 단지 우연일까?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그들은 북쪽으로, 북쪽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비가 내키지 않은 듯 간간이 창문을 적시기도 하고, 잠깐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가 또다시 구름으로 뒤덮였다. 어둠이 깔리자, 열차 안에서 등불이 켜졌다. 루나는 <이러쿵 저러쿵>을 돌돌 말아서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집어넣고, 이제는 객실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해리는 열차 창문에 이마를 댄 채, 호그와트의 작은 불빛이라도 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캄캄한 밤에 비가 훌러내리는 창문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다."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제안했다. 헤르미온느와 론은 정성껏 가슴에 반장 배지를 달았다. 해리는 까맣게 변한 창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는 론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기차가 속력을 늦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익숙한 소음이 기차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모든 학생들이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앞 다투어 자신의 짐과 애완동물들을 내리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이 모든 일들을 감독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해리와 다른 친구들에게 크룩생크와 피그위존을 맡긴 채, 또다시 객실을 떠났다.

"괜찮으면 그 부엉이는 내가 들어 줄게."

루나가 피그위존을 향해 손을 내밀며 해리에게 제안했다. 네빌은 안주머니 속에 트레버를 조심조심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음-고마워."

해리가 피그위존의 새장을 루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헤드위그를 좀더 안전하게 팔 위에 앉혔다.

차가운 밤공기를 느끼며 객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복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 틈에 훨싸이고 말았다. 그리고 문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해리는 호수까지 이어지는 오솔길 양쪽에 서 있는 사과나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승강장에 내려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5학년들은 이쪽으로... 5학년들은...'이라고 소리치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빗나갔다. 그 대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쌀쌀맞은 여자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5학년 학생들은 이쪽으로 와서 줄을 서요! 1학년들은 전부 나에게 오세요!"

등불 하나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해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 불빛 아래로 그루블리 프랭크의 톱 튀어나온 턱과 바싹 자른 머리가 보였다. 그녀는 작년에 잠깐 동안 해그리드 대신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맡았던 마녀였다.

"해그리드는 어디 있지?"

해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비키는 게 좋겠어. 문을 가로 막고 있잖아."

지니가 말했다.

"오, 그래..."

해리와 지니는 승강장을 따라서 걷다가 역 밖으로 나오는 동안 서로 헤어지고 말았다. 해리는 수많은 학생들 틈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도, 잠깐이라도 해그리드의 모습을 보려고 어둠 속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틀림없이 해그리드가 여기 있을거야. 해리는 그 기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해그리드를 다시 만나는 것이야말로, 해리가 손꼽아 고대하던 일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떠났을 리가 없어. 해리는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좁은 통로를 따라 길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혼자 생각했다. 감기에 걸렸거나 뭐 그랬겠지...

해리는 론이나 헤르미온느를 찾아보았다. 혹시 두 사람은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왜 다시 학교에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말 모두 보이지 않았다. 해리는 혼자 호그스미드 역을 벗어나 비에 씻긴 어두운 도로로 걸어 나왔다.

그곳에는 수백 대의 말 없는 마차들이 서 있었다. 늘 그렇듯이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성까지 태우고 가려는 것이었다. 해리는 재빨리 마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론과 헤르미온느를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해리는 깜짝 놀랐다.

마차는 더 이상 말 없는 마차가 아니었다. 어떤 동물들이 마차에 연결된 채 사이사이에 서 있었다. 그 동물들에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말'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적당한 호칭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파충류에 더 가까워 보였다.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고, 까만 가죽이 뼈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모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머리는 용처럼 생겼는데, 눈동자가 없는 하얀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양쪽 어깨에는 날개가 돋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박쥐의 날개처럼 보이는 검은 색의 커다란 가죽 날개였다.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조용히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웬지 음울하고 불길하게 보였다. 얼마든지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마차에 왜 이런 꼼찍한 말을 매어 놓았는지 해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피그는 어디 있어?"

해리의 등 뒤에서 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루나라는 여학생이 들고 갔어."

해리는 재빨리 돌아서서 론에게 해그리드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다.

"혹시 너는 알고 있니-?"

"해그리드가 어디 있는지 말이야? 나도 몰라."

론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드레이코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 팬시 파킨슨 등의 작은 무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약간 겁먹은 듯이 보이는 2학년 학생을 옆으로 떠밀고 마차에 올라탔다. 잠시 후에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며 사람들 틈에서 나타났다.

"말포이가 저기 뒤에 있는 1학년 학생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보고할 거야. 반장 배지를 단 지 채 삼 분도 안 됐는데, 말포이는 그 배지를 이용해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애들을 못살게 굴고 있어. 그런데 크록생크는 어디 있지?"

"지니가 가지고 있어. 저기 있네..."

해리가 대답했다. 지니가 버둥거리는 크록생크를 꼭 붙잡은 채, 사람들을 헤집고 나타났다.

"고마워."

헤르미온느가 고양이를 받아 들며 말했다.

'어서 가자. 마차가 모두 차기 전에 서둘러 타야지.'

"난 아직 피그를 못 찾았어!"

론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이미 가장 가까이 있는 빈 마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해리는 론 곁에 남았다.

"그런데 도대체 저게 뭐 같니?"

해리가 그 무시무시한 말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다른 학생들은 썰물처럼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뭐 말이야?"

'저 말들 말이야-'

바로 그때 루나가 피그위존의 새장을 가슴에 안고 나타났다. 그 작은 부엉이는 보통 때처럼 흥분해서 울고 있었다.

"여기 있어. 정말 귀여운 작은 부엉이야, 그렇지?"

루나가 말했다.

'어...그래...정말 그래.'

론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럼 어서 마차에 타자. 그런데 뭐라고 했니, 해리?"

"내 말은 도대체 저 말처럼 생긴 짐승이 뭐냐고?"

해리와 론, 루나는 이미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앉아 있는 마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슨 짐승 말이야?"

"저기 마차를 끌고 있는 저 말 같은 짐승 말이야!" 해리가 벌컥 짜증을 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가까운 마차로부터 불과 1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저걸 보라고!"

해리는 론의 팔을 붙잡고 그 날개 달린 말의 코앞까지 론을 바싹 끌고 갔다. 하지만 론은 한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더니 다시 해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나더러 뭘 보라는 거야?"

"바로 저기 저 사이를 보란 말이야! 마차에 매여 있는 마구말이야!"

도대체 바로 네 코앞에 있는데 어째서—"

하지만 론은 여전히 통 영문이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해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네~네 눈에는 저게 안 보이니?"

'뭐가 안 보인다는 거지?"

"너는 뭐가 마차를 끌고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야?"

이번에는 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리, 너 괜찮니?"

"응... 그래."

해리는 머릿속이 몹시 혼란스러워졌다. 그 말은 바로 그이 눈앞에 서 있었다. 기차역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빛을 발하며, 차가운 밤공기 때문에 콧구멍으로는 하얀 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던 것이다. 만약 론이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만약 그렇다면 이건 너무 썰렁한 농담이었다-저걸 보지 못하는 것이 확실했다.

"그만 마차에 탈까?"

론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어서 타자."

해리가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론이 어두운 마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해리의 옆에서 꿈꾸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미치거나 어디 이상이 생긴 게 아니야. 나도 그것을 볼 수 있어."

"정말이니?"

해리가 루나를 향해 헉 돌아서며 애탏게 물었다. 순간 그녀의 반짝이는 커다란 눈동자에 비친 날개 달린 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 물론이지. 난 여기 처음 온 날부터 저 말들을 볼 수 있었어. 항상 저것들이 마차를 끌었지. 걱정하지 마. 나도 너처럼 정상이니까 말이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루나는 론의 뒤를 따라 어두운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제 11 장 마법의 모자의 새로운 노래

해리는 설사 정말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루나와 그가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차 안에 앉아서 문을 쾅 닫았다. 그러나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말들의 검은 그림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모두들 그 그루블리 프랭크란 여자 봤지?"

지니가 물었다.

'그 여자가 왜 다시 돌아온 거지? 해그리드가 설마 학교를 떠난 건 아니겠지?'

"난 차라리 그가 떠났으면 좋겠어. 별로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잖아, 안 그래?"

루나가 입을 열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해리와 론과 지니가 분개하며 동시에 소리쳤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노려보았다. 헤르미온느는 흠哼 헛기침을 하더니 재빨리 말했다.

"음...그래...좋은 선생님이지."

"글쎄... 우리 래번클로에서는 그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루나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유머 감각이 형편없는 거야."

론이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 순간 마차 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루나는 론의 무례한 말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론이 꽤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도 되는 듯 한동안 말뚱말뚱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덜컹거리며 흔들리는 마차들이 길을 따라 달려갔다.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정문 양쪽에는 꼭대기에 날개 달린 멧돼지가 높인 높은 돌기둥이 솟아 있었다. 마차가 그 사이를 지날 때, 해리는 금지된 숲 근처에 있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불빛이 있는지 보려고 창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하지만 운동장은 온통 깜깜하기만 했다. 다만 호그와크 성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다. 뾰족한 작은 첨탑들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시커멓게 솟아 있었고, 여기저기 불 켜진 창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차는 떡갈나무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돌계단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해리는 제일 먼저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돌아서서 숲 근처에 불이 밝혀진 창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지금은 혹시 그 짐승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내키지 않았지만 마차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해골 같은 그 이상한 짐승은 쌀쌀한 밤공기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해리는 이전에도 한 번 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일 뿐, 커다란 마차 대 부대를 끌 만큼 강하고, 견실하게 보이는 수백 마리의 짐승처럼 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 만약 루나 말을 믿는다면, 이 짐승들은 항상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해리는 갑자기 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

또 론은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론이 그의 옆에서 물었다.

"아... 들어가야지."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들은 성을 향해 분주하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학생들 무리에 합류했다.

현관 복도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중문을 향해서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문을 지나자, 개강 파티가 준비된 대연회장이 나타났다.

대연회장에 있는 네 개의 기다란 기숙사 테이블은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연회장 천장은 높은 창문 밖으로 내다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처럼 별 하나 없이 깜깜했다. 모든 테이블 주위에는 촛불들이 허공에 둉둥 떠서, 연회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은빛 유령들과 서로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알며 주기도 하고 다른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안부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눈으로는 상대방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을 힐끗힐끗 살펴보았다. 해리는 또다시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다.

루나가 그들과 헤어져서 래번클로 테이블로 향했다. 그들이 그린핀도르 테이블에 거의 도착했을 때, 지니는 4학년 친구들의 인사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으러 갔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네빌은 테이블을 반쯤 지나쳐서,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유령인 목이 달랑달랑한 낙과 패르바티 패틸 그리고 라벤더 브라운 사이에 빈자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해리를 보더니, 과장되게 호들갑을 떨며 인사를 했다. 해리는 그들이 방금 전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멈춘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는 학생들 머리 너머로 연회장 제일 앞쪽에 있는 교직원 테이블을 살펴보았다.

"저기에도 없어."

론과 헤르미온느도 교직원테이블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볼 필요도 없었다. 해그리드만 한덩치라면 어떤 사람들 틈에 있어도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설마 떠난 건 아니겠지."

론이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어."

해리가 딱 잘라 부정했다.

"혹시.... 어딜 다치거나 뭐 그런 건 아닐까?"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해리가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네빌이나 패르바티, 라벤더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쩌면 아직 안 돌아왔을지도 몰라. 너희도 알잖아. 임무 말이야. 여름 내내 덤블도어 교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던 그 임무—"

"아, 그래, 그래. 틀림없이 그럴 거야."

론이 비로소 안심이 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입술을 깨물며 교직원 테이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해그리드가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누구지?"

헤르미온느가 교직원 테이블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해리는 그녀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았다. 긴 교직원 테이블 한가운데에 높은 등받이가 달린 황금 의자에 앉아 있는 덤블도어 교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덤블도어는 은색 별이 총총히 박혀 있는 짙은 보라색 망토를 입고 그에 걸맞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앉은 한 여자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원가 열심히 컷속말로 속삭이고 있었다. 해리가 보기에도 그 여자는 꼭 노처녀 같았다. 땅딸막한 체구에, 갈색쥐의 털처럼 보이는 뾰글거리는 짧은 머리에는 보기만 해도 민망한 꽃분홍색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자기 땐에는 망토 위에 걸친 보풀이 인 분홍색 카디건과 색깔을 맞춘답시고 한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얼굴을 살짝 돌리고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해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훑싸였다. 창백한 두꺼비 같은 얼굴, 톡 튀어나오고 축 처진 눈, 즉시 해리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엄브릿지 그 여자야!"

"누구라고?"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내 청문회에 왔었어. 퍼지 밑에서 일하는 여자야!"

"카디건 한번 멋지군."

론이 빙정거렸다.

"퍼지 밑에서 일한다고?" 헤르미온느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모르지...."

눈을 가늘게 뜨고 교직원 테이블을 꼼꼼히 살펴보던 헤르미온느가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때마침 교직원 테이블 뒤로 막 나타난 그루불리 프랭크 교수에게 정신이 팔렸던 것이다. 그녀는 제일 끝자리로 걸어가더니 원래 해그리드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았다. 그것은 1학년들이 호수를 건너서 성에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과연 잠시 후에 현관에서 연회장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겁먹은 표정의 1학년들이 맥고나걸 교수의 인도를 받으며 길게 줄을 지어 들어왔다. 맥고나걸 교수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낡은 마법의 모자가 놓여 있었다.

웅성거리던 연회장 전체가 일순 조용해졌다. 1학년들은 선배들을 마주 보고 교직원 테이블 앞에 줄지어 섰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들 앞에 의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다음, 뒤로 물러섰다.

촛불이 비친 1학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가운데줄 오른쪽에 있는 한 작은 아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깐 동안 해리는 자신이 어느 기숙사에 속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미지의 시험을 기다리며 저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는지를 떠올렸다.

학교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윽고 모자 가장자리에 찢어진 곳이 입처럼 크게 벌어지더니 마법의 모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먼 옛날, 호그와트가 막 문을 열고

내가 아직 새것이었던 그 시절,

이 고귀한 학교의 설립자들은

결코 서로 헤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법 학교를 세워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네.

"함께 세우고 가르치세!"

네 명의 좋은 친구들은 결심했네.

언젠가 그들이 갈라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슬리데린과 그리핀도르 같은 친구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었을까?

오직 후플푸프와 래번클로만이

그들의 우정에 견줄 수 있을 뿐.

그런데 어찌나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우정이 어떻게 금이 갈 수 있었을까?

나 모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므로 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네.

슬리데린이 말했지.

"가장 순수한 혈통을 지닌 아이들만 가르치도록 하세."

래번클로가 말했지.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가르치도록 하세."

그리핀도르가 말했지.

"그 이름에 걸맞은 용기를 보여 주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가르치도록 하세."

그러자 후플푸프가 말했다네.

'나는 그 아이들을 모두 똑같이 가르칠 걸세.'

처음에 이런 의견 차이는 별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네.

왜냐하면 네 명의 설립자들이 각자 기숙사를 세우고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네.

가령 슬리데린은 자신처럼 오직 순수한 혈통을 지닌

빈틈없는 마법사들만을 받아들였지.

래번클로는 오직 가장 명석한 아이들만 가르치는 반면,

씩씩한 그리핀도르는 가장 용감하고 담대한 아이들만 받아들였지.

착한 후플푸프, 그녀는 나머지 아이들을 모두 맡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네.

그렇게 해서 네 명의 설립자와 그들의 기숙사는

견고하고 진실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네.

호그와트는 행복한 몇 년 동안 조화롭게 운영되었지.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사이에 점점 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네.

한때 네 개의 기둥처럼 학교를 떠받치던

네 개의 기숙사들은

이제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뿔뿔이 갈라져서 세력을 잡을 궁리만 하게 되었지.

그리고 얼마 동안은 학교가

이른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 같았지.

결투와 싸움

그리고 친구들 간의 충돌로

마침내 늙은 슬리데린이 학교를 떠나는

슬픈 일이 벌어졌다네.

비록 그 후로 더 이상 싸움은 없었지만,

슬리데린은 상심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네.

네 명의 설립자가 세 명으로 줄어든 이후로,

네 기숙사들은 두 번 다시 옛날처럼

단합되지 않았다네.

그리고 이제 마법의 모자가 이 자리에 나왔다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 알고 있지.

여러분들을 분류하여 각 기숙사로 보낸다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임무니까.

하지만 올해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니

모두들 내 노래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비록 나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나눠 놓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이것이 옳은 일인지 걱정스럽다네.

비록 나는 내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매년 학생들을 넷으로 나누어야만 하지만,

여전히 이 분류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네.

오, 위험을 깨닫고 징후를 읽어라.

역사가 보여 주는 경고를.

지극히 위험한 적들이

우리의 호그와트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리라.
나 모자는 말한다. 나 모자는 경고한다....
이제 분류를 시작해 볼까.

모자는 또다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불만스런 중얼거림과 야유섞인 휘파람 소리도 간간이 들려왔다. 해리가 기억하기에 그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연회장에 모인 모든 학생들은 옆에 앉은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다른 모든 친구들과 함께 박수를 치던 해리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올해는 너무 사설이 길지 않았니?"

론이 눈을 치켜뜨며 속삭였다.

"모자 마음이야." 해리가 대답했다.

마법의 모자는 대개 네 개의 호그와트 기숙사가 원하는 각자의 자질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신입생들을 분류하는 자신의 역할을 알려 주는 데에서 그치곤 했다. 해리는 이전에도 마법의 모자가 이런 식의 충고를 한 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전에도 모자가 경고를 한 적이 있었을까?" 헤르미온느가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있었지."

목이 달랑달랑한 낙이 네빌을 통과하여 헤르미온느 쪽으로 몸을 숙이며 아는 척을 했다. (네빌은 울상을 지었다. 유령이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저 모자는 위기를 느낄 때마다 학교에 필요한 경고를 해주는 것이 자신의 고귀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한편 1학년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맥고나걸 교수는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내는 학생들을 매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목이 달랑달랑한 낙은 투명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더니, 다시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았다. 그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네 개의 기숙사 테이블을 쑥 둘러본 맥고나걸 교수는 긴 양피지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애버크롬비, 유안.'

아까부터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던 남자 아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모자를 머리에 썼다. 유난히 커다란 귀가 아니었다면, 모자는 분명히 그의 어깨까지 덮었을 것이다. 모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다시 가장자리 근처의 찢어진 자리가 크게 벌어지면서 소리쳤다.

"그리핀도르!"

해리는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유안 애버크롬비는 휘청휘청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차라리 그대로 마루 밑으로 깨져서 두 번 다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길게 늘어섰던 1학년생들의 줄이 점점 줄어들었다. 신입생의 이름이 호명되고 마법의 모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해리는 론의 배에서 천둥 치듯이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로즈 젤러가 후풀푸프로 분류되고 나자, 맥고나걸 교수는 모자와 의자를 번쩍들고 걸어 나갔다. 이윽고 덤블도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리는 최근에 덤블도어에게 느꼈던 섭섭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앞에 우뚝 선 그의 모습을 보자 마음에 커다란 위안을 느꼈다. 해그리드의 부재나 용처럼 생긴 말의 등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호그와트의 귀환은 어쩐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마치 익숙한 노래 중간에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불쑥불쑥 끼어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적어도

개강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 연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덤블도어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입가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낭랑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재학생 여러분! 호그와트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연설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실컷 먹고 마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요란한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덤블도어 교수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더니 마치 음식을 먹는 데 방해가 된다는 듯이 긴 수염을 어깨 너머로 휙 넘겼다. 그러자 어디선가 음식이 나타났다. 이제 다섯 개의 긴 테이블은 온갖 푸짐한 고기 요리와 파이, 야채 요리, 빵, 소스, 호박 주스로 상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훌륭해."

론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음 소리를 내더니, 가장 가까이 있는 접시를 냉큼 집어서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기 시작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부러운 눈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금 전의 마법의 모자가 전에도 경고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헤르미온느가 유령에게 물었다.

"오, 그래."

닉은 신나게 먹고 있는 론으로부터 시선을 뗄 수 있는 구실이 생겨서 무척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이제 론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구운 감자를 입속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래. 전에도 모자가 몇 번 경고하는 걸 들은 적이 있지. 학교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때마다, 항상 그랬거든. 물론 그 충고는 늘 똑같아. 다 함께 일어서라. 모두들 단결하라."

"어케 위험이 우느주 아지?"

론이 입에 음식을 한가득 문 채, 웅얼거렸다. 해리는 론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뭐라고 했지? 잘 못 들었는데."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예의 바르게 물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몹시 비위가 상한다는 표정이었다. 론은 꿀꺽 하고 간신히 음식을 삼킨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모자가 어떻게 학교가 위험에 처한 줄을 알 수 있죠?"

"나도 모르겠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대답했다.

"물론 저 모자는 항상 덤블도어의 사무실에서 지내니까, 어쩌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워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저 모자는 모든 기숙사의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되길 원하는 건가요?" 해리가 슬리데린 테이블을 슬쩍 돌아보며 물었다. 그곳에서는 드레이코 말포이가 잘난 체하며 인사를 받고 있었다. "아이고, 잘도 그러겠다."

"그래도 그런 태도를 보이면 못쓰지." 닉이 해리를 꾸중했다.

"평화롭게 서로 힘을 모은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우리 유령들은 비록 서로 다른 기숙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함없이 우정을 이어가고 있어.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나는 피투성이 바론과 맬다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단 말이다."

"그건 피투성이 바론이 겁나니까 그렇죠."

론이 이렇게 말하자,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몹시 기분이 상 한 것 같았다.

"겁난다고? 나, 니콜라스 드 임시 포르핑턴은 평생 단 한번도 겁쟁이가 되는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단 말이다! 내 몸속에 흐르는 고귀한 피는—" "무슨 피요? 아직도 몸속에 피가 남아 있나요?"

론이 계속 놀려 댔다.

"말이 그렇다는 거야!"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버럭 화를 냈다. 어찌나 흥분해서 목을 부들부들 떨던지, 그나마 간신히 붙어 있는 머리가 당장에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나에게도 아직 쓰고 싶은 단어를 마음대로 골라서 쓸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먹고 마시는 기쁨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나의 죽음을 두고 놀리며 조롱하는 일 따위에는 이제 익숙해진 지 오래야!"

"닉, 론이 당신을 놀리려는 건 아니었어요!"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변명을 하며 론을 째려보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론은 또다시 두 볼이 터질 정도로 음식을 압 안에 쑤셔 넣었기 때문에, 겨우 우물거리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닉은 당연히 그것을 제대로 된 사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갑자기 허공으로 뿜 떠오르더니, 깃털 달린 모자를 똑바로 고쳐 쓰고 테이블 저쪽 끝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크리비 형제, 즉 콜린 테이스 사이에 가서 앉았다.

"참 잘하는 짓이다, 론."

헤르미온느가 핀잔을 주었다.

"뭘? 난 그냥 질문도 못하나?"

마침내 입 안에 든 음식을 삼킨 론이 화를 냈다.

"그래, 너 잘났다."

헤르미온느가 짜증을 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분노에 찬 침묵이 계속 흘렀다.

해리는 두 친구가 토닥거리고 싸우는 데 너무 이골이 나서, 더 이상 그들을 화해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열심히 스테이크와 피칸 파이나 먹고 있는 것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당밀 파이를 접시 위에 잔뜩 덜어 놓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 되자, 연회장 안도 다시 점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덤블도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들 일제히 입을 다물고 교장 선생님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해리는 배가 부르자, 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위층 어디에선가 기둥이 달린 따뜻하고 포근한 그의 침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푸짐한 만찬을 소화시키는 동안, 늘 그렇듯이 새로운 학기에 대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잠깐 알려 드리겠습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입을 열었다. "먼저 1학년들에게 저 밖의 운동장에 있는 숲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재학생들 중에도 더러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군요."

(이 대목에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장난스런 미소를 주고받았다.)

"학교 관리인 필치 씨가 또다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이 460 번째 당부인 것 같은데, 교실 복도에서는 절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일깨워 달라고 하더군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금지 사항이 있으니, 필치 씨의 사무실 문 앞에 붙어 있는 별도의 목록을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선생님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선 그루불리 프랭크 선생님이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 엄브릿지 선생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선생님이십니다."

예의 바르기는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렸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거의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덤블도어는 그루불리 프랭크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업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덤블도어 교수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각 기숙사 퀴디치 팀에 들어가기 위한 선발 시험이 있을 예정~"

덤블도어 교수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뭔가 묻는 듯한 표정으로

엄브릿지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앉았을 때나 섯을 때나 별로 키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왜 덤블도어 교수가 말을 멈추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엄브릿지 교수가 흠뻑하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한마디 연설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그저 한 번 헐긋 고개를 돌렸을 뿐, 다시 예의 바르게 자리에 앉아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엄브릿지 교수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싶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한편 표정을 감추는 데 능숙하지 못한 다른 선생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어찌나 눈을 부릅떴던지 부스스 날리는 머리카락에 눈썹이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맥고나걸 교수의 입술이 그렇게 얇팍해지는 것은 해리도 생전 처음 보았다. 새로 부임한 교수가 덤블도어의 말을 가로막은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히죽히죽 웃고 있었다. 이 여자는 호그와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정을 도통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친절하신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엄브릿지 교수가 얹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높고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 여학생 같았다. 또다시 해리는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이 활짝 치솟는 것을 느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명청한 목소리에서부터 보풀이 인 분홍색 카디건에 이르기까지, 엄브릿지의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게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또다시 가볍게 흠뻑 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다.

"호그와트에 돌아오니 정말 좋군요!"

엄브릿지는 뾰족한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저를 쳐다보는 이 귀엽고 행복한 얼굴들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해리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반대로 모두들 마치 그들이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데 완전히 질렸다는 표정이었다.

"여러분 모두를 좀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학생들이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어떤 학생들은 빈정거리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저 카디건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면, 혹시 저 여자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

패르바티가 옆에 앉은 라벤더에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웃음소리를 억누르며 키득거렸다.

엄브릿지 교수는 또다시 흠뻑 하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이 새어 나가는 듯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욱더 사무적인 목소리로 마치미리 외워서 되풀이하는 듯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법부는 언제나 젊은 마법사와 마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그 소중한 재능도 조심스런 지도하에 제대로 길러지고 연마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마법사 사회만이 지니고 있는 고대의 지식들을 자손 대대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그것을 영원히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쌓아 올린 마법 지식들의 보물 참고는 반드시, 교육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직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채워지고 빛나야만 합니다."

엄브릿지는 여기서 말을 멈추고 다른 동료 교직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답례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검은 눈썹이 완전히 맞달아 있어서 흡사 성난 매처럼 보였다. 해리는 엄브릿지 교수가 또다시 연설을 계속하려고 흠뻑 하고 헛기침을 하자, 맥고나걸 교수와 스프라우트 교수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호그와트의 역대 교장 선생님들은 이 유서 깊은 학교를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에 해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진보가 없으면 쇠퇴와 침체가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오직 진보만을 위한 진보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단련과 시험을 겪어 온 우리의 전통은 종종 서툰 땡질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것과 새것, 보존과 변화, 전통과 혁신 사이의 변화만이...."

해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비고 졸음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덤블도어 교수가 연설을 할 때에는 항상 정숙했던 연회장이 지금은 연신 고개를 돌리며 킬킬거리고 수군덕거리는 학생들로 소란스러웠다. 건너편에 있는 래번클로 테이블에서는 초 챔이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초와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루나 러브굿은 또다시 <이러쿵 저러쿵>을 꺼내 들고 있었다. 한편 후플푸프 테이블에서는 어니 맥밀란만이 엉브릿지 교수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미루어 볼 때, 가슴에 단 새로운 반장 배지를 돌보이게 하려는 속셈에서 그저 열심히 듣고 있는 척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엉브릿지 교수는 지겨워서 몸을 비틀고 있는 청중의 태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녀의 코앞에서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결코 연설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태도였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직도 주의 깊게 그녀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엉브릿지의 말이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앞에 놓인 버터 맥주를 들이켰다. 그녀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 같았다.

"어떤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변화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관습들은 마땅히 폐기되어야만 하지만, 또 어떤 오랜 관습들은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보존해야만 하는 것들은 보존하면서, 포용과 효율성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도록 합시다. 끝마쳐야 할 것은 끝내면서, 금지되어야 할 관행들은 무엇이든 단호하게 잘라 내면서."

엉브릿지 교수가 자리에 앉았다. 제일 먼저 덤블도어 교수가 박수를 치자, 다른 선생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해리는 몇몇 선생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한두 번 박수를 치다가 그만 두는 것을 눈치 쫄다. 일부 학생들도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엉브릿지 교수의 말을 건성으로 훌려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설이 끝난 줄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박수를 치기도 전에, 덤블도어 교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엉브릿지 교수님. 아주 계몽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는 엉브릿지 교수를 향해 공손이 인사를 했다.
"이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퀴디치 팀 선수 선발을 위한 테스트가...."
"그래, 아주 계몽적인 연설이었어." 헤르미온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이 연설이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룬이 계승츠레한 눈으로 헤르미온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연설은 생전 처음 들어 봐. 퍼시같은 인물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난데도 말이야."

"나는 계몽적이라고 했지 재미있다고는 하지 않았어. 이 연설을 통해 아주 많은 걸 알 수 있었거든."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정말?"

해리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내가 듣기에는 그저 식어 빠진 와플처럼 시시하던데."

"원래 와플 사이에는 중요한 내용물이 감추어져 있게 마련이지."

헤르미온느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뭐가 있다고?"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예를 들어 '진보만을 위한 진보는 막아야 합니다.'라는 말이나,

'금지되어야 할 관행들은 무엇이든 단호하게 잘라 내면서'라는 말은 어때?"

"글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론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냐면...."

헤르미온느가 음울하게 말했다.

"그건 마법부가 호그와트의 일에 간섭을 하겠다는 뜻이야."

바로 그때 온 사방에서 요란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덤블도어

교수가 자리를 뜬 것이 분명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회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론, 우리는 신입생들에게 학교를 안내해야만 해!"

"그래, 맞아." 론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어이, 이봐, 거기 너희 꼬마 녀석들!"

"론!"

"맞잖아. 저 녀석들은, 저 녀석들은 꼬마야."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꼬마라고 부르면 안 돼. 신입생 들이라고!"

헤르미온느는 테이블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이쪽으로 와요!"

신입생들은 수줍은 듯이 그리핀도르와 허그리포드 팀 사이로 난

복도를 걸어갔다. 모두가 선두에 서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신입생들은

정말 너무나 작고 어리게 보였다. 해리는 설마 자기가 처음 여기 왔을

때에도 저렇게 철없이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해리는

신입생들을 향해 여유 만만한 미소를 던졌다. 유안 애버크롬비의 바로

옆에 있던 금발의 남자 아이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똑같이 잔뜩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던 유안 애버크롬비가 겁에 질린 눈길로 해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해리는 비웃는 듯한 끈적한 시선이 악취수액처럼 자신의

얼굴에 달라붙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보자."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인사를 하고 대연회장을 혼자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가 지나갈 때마다 쓸어지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손가락질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해리는 고개를 빽빽이 쳐든 채, 오직 앞만 바라보며 연회장 입구에 바글바글 몰려 있는 사람들 틈을 헤집고 나왔다. 그리고 대리석 계단을 서둘러 뛰어 올라간 다음, 숨겨진 지름길을 두 번 통과하여 금방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니, 난 정말 멍청한 놈이야.

해리는 텅 빈 위층 복도를 걸어가면서 스스로를 책망했다. 모두들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 당연해, 불과 두 달 전에 그는 죽은 친구를 들쳐 메고 트리위저드 미로에서 빠져나와서 부활한 볼드모트를 보았다고 주장했었다. 게다가 모든 학생들에게 그날 밤 그 묘지에서 일어난 꼼찍한 사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그럴 틈이 없었다. 때마침 학기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다.

그리핀도르 휴게실에 있는 복도 끝에 도착한 해리는 뚱뚱한 여인의 초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암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

해리는 뚱뚱한 여인을 멀뚱히 바라보면서 우물쭈물 망설였다. 뚱뚱한 여인은 자신의 분홍색 실크 드레스 자락을 어루만지며 냉정한 얼굴로 그를 쏘아보았다.

"암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어."

그녀가 거만하게 말했다.

"해리, 내가 알고 있어!"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숨 가쁜 목소리로 소리쳤다. 뒤를 돌아보자, 네빌이 그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오고 있었다.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이번만은 진짜로 그걸 기어할 수 있어!"

네빌이 기차 안에서 보여 주었던 그 작은 선인장을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밈블러스 밍블토니아!"

"맞았어."

뚱뚱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니 초상화가 문처럼 옆으로 휙 열렸다.

그리고 벽 뒤에 난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해리와 네빌은 그 구멍을 통해 기어 들어갔다.

그리핀도르 휴게실은 늘 그렇듯이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이 안락한 둑근 다락방에는 찌그러진 안락의자와 흔들거리는 낡은 책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벽난로에는 불꽃이 명랑하게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침실로 올라가기 전에 서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서는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가 게시판에 원가를 붙이고 있었다. 해리는 친구들에게 잘 자라는 손짓을 하고 곧장 남학생 침실로 향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자 네빌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제일 먼저 침실에 들어온 딘 토마스와 시무스 피니간이 자신의 침대가 놓인 벽에 포스터와 사진을 붙이는 중이었다. 해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원가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 그를 보자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해리는 두 사람이 정말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안녕." 해리가 자신의 트렁크를 열면서 인사를 했다.

"안녕, 해리"

웨스트 행 축구팀 색깔의 잠옷으로 갈아입은 딘이 대답했다.

"방학은 잘 보냈니?"

"그럭저럭."

해리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방학이 진짜로 어땠는지 털어놓으려면 밤을 꿀딱 새워도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걸 감당할 수는 없었다.

"너는?"

"뭐, 그런대로 괜찮았어." 딘이 키득키득 웃었다. "어쨌든 시무스보단 나았어. 지금 방금 시무스 이야기를 들었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시무스?"

네빌이 침대 옆의 옷장 위에 밍블러스 밍블토니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물었다.

하지만 시무스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다. 켄마이어 케스트럴즈 퀴디치 팀(1291년에 창단된 아일랜드 퀴디치 팀, [퀴디치의 역사]참조: 역주)의 포스터가 똑바로 붙었는지 확인하는 데 온통 정신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에 시무스는 여전히 해리에게 등을 돌린 채,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가 날 돌아가지 못하게 말렸어."

"뭐라고?"

해리가 옷가지를 꺼내다 말고 물었다.

"우리 엄마가 호그와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나를 말렸다니까."

시무스는 비로소 포스터 앞에서 돌아서더니 트렁크에서 잠옷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리가 있는 쪽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

해리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무스의 엄마는 마녀였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더줄리 가족 같은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무스는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잠옷 단추를 잡고 있었다.

"그건...."

잠시 후에 그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마... 너 때문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그의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 점점 그를 조여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시무스가 여전히 해리의 눈길을 피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는... 음... 네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덤블도어 교수도 그렇고..."

"너희 엄마는 <예언자 일보>에 실린 기사를 믿는단 말이야? 내가

한심한 거짓말쟁이고 덤블도어 교수님이 망령난 바보라는 소리를?"

해리가 소리쳤다. 그러자 시무스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뭐 그런 비슷한 거야."

해리는 그만 할 말을 잊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옷을 벗은 다음, 신경질적으로 트렁크 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잠옷을 꺼냈다. 이제는 넌덜머리가 났다. 언제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해 온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저들이 눈곱만큼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면... 피니간
부인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 멍청한 여자가 알 리가 없지. 해리는
심술이 났다.

그는 침대로 들어가서 주위의 커튼을 다 내렸다. 하지만 그전에
시무스가 물었다.

"저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케드릭 디고리와
말이야...."

시무스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트렁크
위로 몸을 숙인 채, 열심히 슬리퍼를 찾고 있는 딘은 이상한 정도로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가 열심히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뭘 묻고 싶은 거지?" 해리가 쏘아붙였다. "그냥 너희엄마처럼
<예언자 일보>나 열심히 읽으면 되잖아, 안 그래? 거기 보면 네가 알고
싶은 내용이 다 있을 텐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시무스가 화를 냈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리는 지지 않고 대꾸했다.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해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지팡이를 재빨리
집어 들었다.

"나와 함께 침실을 쓰는 게 불편하다면, 맥고나걸 교수님께 가서 방을
옮겨 달라고 말씀드려. 그래야 너희 엄마도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시겠지."

"자구 우리 엄마 들먹거리지 말라고 했잖아, 포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때 론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시무스를 향해
지팡이를 겨눈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해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먹을
치켜든 채, 서 있는 시무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저 자식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

시무스가 소리쳤다.

"뭐라고? 해리가 그랬을 리가 없어. 우린 너희 엄마를 만난 적도 있고
무척 좋은 분이셨는데...."

"그건 재 엄마가 <예언자 일보>에 실린 나에 대한 엉터리 기사를 모두
믿기 전의 이야기야!" 해리가 핏대를 세우며 목청껏 고함을 질렀다.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 주근깨가 총총히 박힌 론의 얼굴에
비로소 영문을 알겠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뭘 알겠다는 거야?"

시무스가 여전히 화를 내면서 미워 죽겠다는 듯이 해리를 노려보았다.

"저 자식 말이 맞아. 난 저런 놈이랑 더 이상 방을 같이 쓰고 싶지 않아. 저 자식은 완전히 미쳤어."

"시무스,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론이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제나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다.

"내가 규칙을 어겼다고?"

시무스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론과는 정반대로 점점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는 저 자식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껄이는 그 헛소리를 전부 믿는 거니?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믿고말고!"

론이 씩씩거리며 대답했다.

"그럼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시무스가 역겨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너에게는 참 유감스런 일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난 반장이니까 말이야!" 론이 가슴에 달린 배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벌을 받고 싶지 않으면, 말조심을 하는 게 좋을거야!"

순간 시무스는 과연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했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따지려 들었지만 곧 흥하고 콧방귀를 끼더니 흑 돌아서서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그가 침대의 커튼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던지, 커튼은 그만 기둥에서 들어져서 풀썩 먼지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론은 시무스를 한동안 노려보더니, 딘과 네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너희 부모님도 해리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냐?"

론이 시비조로 물었다.

"우리 부모님은 머글이야." 딘이 어깨를 으쓱했다. "호그와트에서 누가 죽었는지 전혀 모르셔. 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

"네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엄만 누구에 관해서 무엇이든 알아낼 수 있어!"

시무스가 딘에게 쏘아붙였다.

"어쨌든 너희 부모님은 <예언자 일보>도 안 보시잖아.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만 정신이 흐려져서 위증가모트에서 쫓겨났고 국제 마법사 연맹에서도 쫓겨났다는 사실도 모르시잖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건 다 헛소리래." 네빌이 새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 할머니가 망조가 든 건 덤블도어가 아니라, <예언자 일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할머니는 정기구독하던 것도 끊어 버리셨어. 우린 해리를 믿어."

네빌은 솔직하게 말하고 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턱까지 이불을 끌어당겨 덮더니, 올빼미 같은 눈으로 시무스를 바라보았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자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땐 돌아온 거래."

해리는 네빌에게 고마운 마음이 활짝 치솟았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시무스는 지팡이를 꺼내들고 침대 커튼을 다시 달았다. 그리고 커튼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침대에 올라간 딘은 한동안 뒤틀거리더니 잠잠해졌다. 네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달빛에 비친 선인장만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론이 옆 침대에서 짐을 꺼내느라 부스럭거리는 동안, 해리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언제나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시무스와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덤블도어 교수님도 올여름 내내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처음에는

위즌가모트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국제 마법사 연맹에서 쫓겨나시면서? 어쩌면 덤블도어 교수님이 몇 달 동안이나 그와 연락을 하지 않으셨던 것도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한 배를 탄 몸이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해리의 말을 믿고 학교 전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마법사 사회 전체에 널리 알리려고 했다. 해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덤블도어 교수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해리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마침내 론도 침대로 올라가서 마지막 남은 촛불을 껐다. 해리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시무스와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얼마나 참고 견뎌야 할지 걱정스러웠다.

제 12 장 엠브릿지 교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해리가 미처 양말도 제대로 신기전에 시무스는 최대한 서둘러서 옷을 갈아입고 재빨리 침실을 나가 버렸다.
"나와 한 방에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자기도 머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시무스의 옷자락이 사라지자마자, 해리가 큰소리로 빙정거렸다.
"걱정하지 마, 해리."
딘이 책가방을 어깨에 메며 위로했다.
"시무스는 단지...."
하지만 딘도 시무스가 어떻게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딘은 방을 나가 버렸다.
네빌과 론은 이건 결코 네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겪어야만 한단 말인가?
"무슨 일이야?"
오 분 후에 휴게실로 내려오는 해리와 론을 보고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들 세 사람은 다 같이 식당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네 표정은 마치- 아니, 이런 세상에!"
헤르미온느는 휴게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새로운 벽보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갈레온을 벌 수 있을 기회!
늘 용돈이 부족하십니까?
별도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리핀도르 휴게실에서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를 만나 보십시오.
아주 손쉽고 간단한 시간제 일거리가 있습니다.
(지원자에게는 작업 도중 약간의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두 사람 다 갈 데까지 갔군."
헤르미온느가 광고지를 떼면서 심각하게 말했다. 프레드와 조지는 10 월 첫 번째 호그스미드 주말 방문일을 알리는 공고문 위에 그 광고지를 붙여 놓았던 것이다.
"론, 우리가 두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론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우린 반장이잖아!"

초상화 구멍으로 기어 나오면서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이런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우리 의무야!"

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시무룩한 그의 표정을 보고, 론으로서는 프레드와 조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막는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해리?"

헤르미온느가 말을 이었다. 이제 세 사람은 늙은 마녀들과 마법사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들어서 있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인걸."

"시무스는 해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해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론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틀림없이 벌컥 화를 내며 그의 편을 들어 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힘없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래, 라벤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헤르미온느는 우울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이나 하는 일간인지 아닌지에 대해 함께 신나게 떠들어 댔니?"

해리가 큰 소리로 빙정거렸다.

"아니야."

헤르미온느는 냉정을 잊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은 라벤더에게 그 커다랗고 두꺼운 입을 닥치고 너에 대해 그만 떠들라고 했어. 난 차라리 네가 론과 내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네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 텐데 말이야, 해리."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해리가 나지막이 사과했다.

"괜찮아."

헤르미온느가 품위 있게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작년 종강 파티 때에 덤블도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니?"

해리와 론은 명한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 덤블도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자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적의를 퍼뜨리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보다 강한 우정과 신뢰를 보일 때에만 그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 다 기억할 수가 있니?"

론이 감탄하는 눈빛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며 물었다.

"론, 난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이야."

헤르미온느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나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실은-"

헤르미온느가 큰 소리로 론의 말을 가로막았다.

"바로 이런 일들이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바라는 거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됐어. 그런데 우리는 벌써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 마법의 모자도 똑같은 경고를 했지. 단결하여 다 함께 일어서자고-"

"그리고 어젯밤에 해리가 말했지. 만약 그게 슬리데린 패거리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면, 완전히 가망성 없는 이야기라고 말이야."

론이 대꾸했다.

"글쎄, 나는 기숙사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조차 해보지 않는

거야말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해."

헤르미온느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들은 대리석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 래번클로 4학년 학생들이 줄을 서서 연회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해리를 보자, 재빨리 자기들끼리 뜰뜰 웅쳤다. 마치 어쩌다 줄에서 이탈하면, 해리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겁을 내는 듯한 태도였다.

"그래, 우리는 저런 애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하겠지."

그 모습을 보자, 해리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래번클로 학생들의 뒤를 따라서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은 교직원 테이블을 향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천문학을 가르치는 시니스트라 교수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다.

마법에 걸린 천장에는 해리의 기분을 반영하듯이, 음울한 회색 비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리핀도르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면서, 해리가 말을 꺼냈다.

"어쩌면...."

헤르미온느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뭔데?"

해리와 론이 입을 모아 물었다.

"글쎄... 어쩌면 덤블도어 교수님은 해그리드가 지금 여기 없다는 사실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알리고 싶지 않다니?"

론이 웃긴다는 듯이 말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머리를 길게 땋은 키가 큰 흑인 소녀가 뭐라고 해리를 향해 다가왔다.

"안녕, 안젤리나."

"안녕."

안젤리나는 무뚝뚝하게 인사했다.

"방학 잘 지냈니?"

그러고는 미처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잘 들어. 나는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의 주장이 되었어."

"잘됐다."

해리가 씩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안젤리나의 잔소리를 올리버 우드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래. 이제 올리버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파수꾼이 필요해. 금요일 다섯 시에 새로운 선수를 뽑는 테스트가 있으니까, 모든 선수들은 그곳에 모이도록. 알았지? 빈자리를 채울 만한 새로운 인물이 있는지 봐야 하니까 말이야."

"알았어."

해리가 대답했다. 안젤리나는 빙그레 웃더니 자리를 떠났다.

"우드가 졸업했다는 사실을 깨맣게 잊고 있었어."

론의 옆자리에 앉은 헤르미온느가 자기 앞으로 토스트 접시를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그럼 퀴디치 팀의 전력에도 꽤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아마도 그렇겠지."

해리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우드는 훌륭한 파수꾼이었으니까."

"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론이 말했다. 바로 그때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슈웅 하고 수백 마리의

부엉이들이 높은 창문을 통해 연회장 안으로 날아들어 왔다. 그들은 연회장 전체에 내려앉더니 가지고 온 편지와 소포를 제각기 주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한바탕 소나기를 퍼부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헤드위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해리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오직 시리우스 뿐인데, 이제 겨우 해어진 지 스물네 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니 새삼 다시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오렌지 주스 잔을 옆으로 치워야만 했다. 온몸이 훌딱 젖은 커다란 헛간 부엉이가 <예언자 일보>를 톡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너는 뭐 하러 아직까지 그걸 받아 보고 있니?"

해리가 시무스를 떠올리며 짜증스럽게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부엉이의 다리에 매달린 가죽 주머니 안에 1크넷을 집어넣고는 다시 부엉이를 날려보냈다.

"나라면 그런 쓰레기를 읽느라 괜한 고생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적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헤르미온느가 음울하게 말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쳐 들더니 얼굴을 파묻은 채, 해리와 론이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마디도 없어."

헤르미온느는 신문을 말아서 접시 옆에 내려놓으며 간단히 말했다.

"너나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

이제 맥고나걸 교수가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시간표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오늘 수업 좀 봐!'

론이 신음 소리를 냈다.

"마법의 역사 한 시간, 마법약 수업 두 시간, 점술 수업 한 시간, 어둠의 마법 방어술 두 시간... 세상에... 빈스, 스네이프, 트릴로니 그리고 엉브릿지. 이들이 모두 같은 날 몰려 있다니! 프레드와 조지가 하루빨리 꾀병용 과자세트를 완성했으면 좋겠군..."

'혹시 내 귀가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어느 곁에 프레드가 조지와 함께 나타나서 해리의 옆자리를 파고 들었다.

"호그와트의 반장님께서 설마 수업을 땅땡이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겠지?"

"오늘 우리 수업 시간표 좀 봐."

론이 투덜거리며 프레드의 코밑에 시간표를 들이댔다.

"정말 최악의 월요일 시간표야."

"꼬마 동생, 맞는 말이야."

프레드가 시간표를 살펴보며 말했다.

"원한다면, 코피 누가를 싼값에 줄 수도 있어."

"왜 사게 주는 거지?"

론이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왜나하면 말라비틀어질 때까지 계속 코피를 쏟아야만 하니까. 아직 해독제를 못 구했거든."

조지가 훈제 연어를 입에 넣으며 말했다.

"고마워 죽겠군."

론은 뚱한 표정으로 시간표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결국 수업에 들어가야겠네."

"그 꾀병용 과자세트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리핀도르 게시판에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는 광고지는 붙일 수 없어."

헤르미온느가 프레드와 조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누가 그래?"

조지가 눈이 휙둥그레지며 물었다.

"내가 하는 말이야. 그리고 론도."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나는 거기서 빼 줘."

론이 재빨리 발뺌을 했다. 헤르미온느가 그를 째려보자, 프레드와 조지는 재미있다는 듯이 킬킬거렸다.

"헤르미온느, 너도 머지않아 딴소리를 하게 될 거야."

프레드가 핫케이크에 버터를 잔뜩 바르며 말했다.

"5학년 수업이 시작되면, 금방 우리를 찾아와서 제발 괴병용 과자를 좀 달라고 사정하게 될걸."

"5학년을 시작하는 것과 괴병용 과자세트가 무슨 상관이지?"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5학년에는 O.W.L.O이 있으니까."

조지가 말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도 치러야 할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 안 그래? 시험 때문에 너희들은 곧 죽고 싶을 거다."

조지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걸핏하면 울고 짜증이 나오고... 패트리시아 스텁슨은 톡하면 기절을 했어..."

"케네스 타울러는 온몸에 종기가 났었지. 기억나?"

프레드가 추억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그건 네가 그 녀석 잠옷에 불바독스 가루를 부렸기 때문이잖아."

조지가 프레드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아, 그랬지."

프레드가 씩 웃었다.

"깜빡 잊었군. 어쨌든 때때로 수업을 쫓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지, 안 그래?"

"3학년은 완전히 악몽이었어."

조지가 맞장구를 쳤다.

"너희가 시험 결과에 신경을 쓴다면 말이지. 프레드와 나도 간신히 버텼다니까."

"그래... 그래서 형들은 각자 O.W.L.을 세 번이나 치렀어?"

론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학문적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 놀여 있다고 생각해."

프레드가 태연하게 말했다.

"사실 우리는 7학년까지 꼭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야."

조지가 명랑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조지는 경고하는 듯한 해리의 표정을 보고 그만 말을 멈추었다. 해리는 자신이 두 사람에게 준 트리위저드 상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O.W.L.을 통과했거든."

조지가 황급히 둘러댔다.

"그러니까 우리가 N.E.W.T.를 꼭 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학교를 일찍 그만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지 못할 거야. 특히 퍼시가 세계 최고의 얼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게는 못하시겠지."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를 낭비하지 않을 거야."

프레드가 애정 어린 눈길로 대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을 이용해서 시장 조사를 할 생각이니까. 호그와트 학생들이 장난감 가게에서 평균적으로 뭘 사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서 그

연구 결과를 조심스럽게 분석한 다음, 소비자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상품을 생산해 낼 거야."

"하지만 장난감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은 어디서 구할거지?" 헤르미온느가 회의적인 어조로 물었다.

"제품을 만들려면 온갖 재료와 자재가 필요할 텐데. 물론 가게도 필요할 테고 말이야."

해리는 슬그머니 쌍둥이 형제를 외면했다. 그의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일부러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숟는 척하며 허리를 숙였다. 테이블 위쪽에서 프레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헤르미온느, 우리에게 자꾸 이것저것 캐묻지 마, 그러면 너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어서 가자, 조지. 좀 서두르면, 약초학 시간이 되기 전에 늘어나는 귀를 몇 개 팔 수 있을지 몰라."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가 토스트를 한 보따리 집어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테이블 밑에서 나왔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지?"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니... 설마 벌써 장난감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다는 뜻은 아니겠지?"

"나도 몰라. 나도 그 점이 쭉 궁금했어."

론이 이마를 잔뜩 찌푸렸다.

"올여름에는 형들이 나에게 새 옷까지 한 번 사 주더라고.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어."

해리는 지금이야말로 이 위험한 주제로부터 어떻게든 대화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정말로 아주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지 않니? 시험이 있잖아."

"맞아. 당연히 그렇겠지? O.W.L.은 진짜 중요한 시험인 데 말이야. 앞으로 어떤 직장에 지원을 하든 항상 영향을 미칠 거야. 빌이 그러는데, 올해 말씀이 되면 우리는 장래 직업에 대한 상담도 받아야 한 대. 그래야 내년에 어떤 N.E.W.T. 시험을 치를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너희들은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에 뭘 하고 싶은지 정했니?"

해리가 두 친구에게 물었다. 이제 그들은 대연회장을 떠나서 마법의 역사 수업이 있는 교실로 향하고 있었다.

"아직. 글쎄... 단 한 가지...."

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뭔데? 어디 말해 봐."

해리가 론을 재촉했다.

"그냥, 오러가 되면 멋질 것 같아서."

론이 별다른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했다.

"맞아, 멋질 거야."

해리가 열렬히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만 오러는 굉장한 엘리트들이야."

론이 말했다.

"너라면 진짜 훌륭한 오러가 될 거야. 넌 어때니, 헤르미온느?"

"나도 모르겠어. 난 원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오러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야!"

해리가 소리쳤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은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S.P.E.W. 를 계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말을 듣자, 해리와 론은 은근슬쩍 시선을 땀 데로 돌렸다. 마법의 역사 수업은 마법 세계가 고안한 가장 따분한 과목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유령 선생인 빈스 교수의 목소리는 썩썩 바람 새는 소리가 나소 한없이 졸렸다. 그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누구든 십 분 안에 끓어떨어졌다. 게다가 날씨라도 따뜻한 날이면, 불과 오 분도 안 걸렸다. 하지만 빈스 교수는 수업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학생들이 멍하니 공책을 내려다보거나 졸음에 거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일 초도 쉬지 않고 떠들어 댈 뿐이었다. 지금까지 해리와 론은 시험 직전에 헤르미온느의 공책을 허겁지겁 베낀으로써, 아슬아슬하게 이 과목을 통과해 왔다. 빈스 교수 목소리의 초강력 수면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학생은 오직 헤르미온느 한 사람뿐이었다.

오늘도 그들은 사십오 분 동안 거인 전쟁을 주제로 졸음 고문을 당했다. 해리도 처음 십 분 동안은 다른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르쳤다면 어쩌면 꽤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곧 긴장이 풀리면서 슬슬 딴생각이 났다. 결국 해리는 나머지 삼십오 분 동안 론과 양피지 한쪽 구석에다 날말 맞추기를 하며 놀았다. 그동안 헤르미온느는 연신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들을 째려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쉬는 시간이 되어 교실 밖으로 나왔을 때, 헤르미온느가 쌀쌀맞게 따졌다.

"그러다 내가 올해는 너희들에게 공책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는 O.W.L.에서 떨어지는 거지 뭐...."

론이 중얼거렸다.

"헤르미온느, 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래, 너희들은 시험에 떨어져도 싸."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너희들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 안그래?"

"우리도 애를 썼어."

론이 변명했다.

"단지 우리는 너만큼 머리가 좋지 못할 뿐이야. 아니면 기억력이 부족하든지 집중력이 부족하든지... 어쨌든 너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그걸 자꾸 상기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하지만 비에 젖은 운동장을 향해 걸어가는 헤르미온느의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밖에는 열은 안개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동장에 옹기종기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해리,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발코니 아래의 한적한 구석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9월의 쌀쌀한 바람을 막기 위해 망토 옷깃을 잔뜩 올려 세운 채, 스네이프 교수가 이번 첫 수업 시간에는 그들에게 어떤 실험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쨌든 그들의 공통된 결론은, 그것이 무엇이든 두 달간의 방학 동안 해이해진 상태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란 사실이었다. 그때 누군가 모퉁이를 돌아서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 해리!"

초 쟁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도 초 쟁이 혼자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초는 거의 언제나 깔깔 웃고 떠드는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해리는 초 쟁에게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말하기 위해서 그녀와 단둘이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안녕."

해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최소한 이번에는 악취수액을 뒤집어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해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그때 그건 금방 닦아 냈니?"

"응."

해리는 마치 지난번 그들이 만났을 때의 기억이 창피하기보다는 웃기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 너... 너는 여름방학 잘 보냈니?"

해리는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곧 아파하며 후회했다. 케드릭은 초의 남자 친구였다. 아마 케드릭의 죽음에 대한 기억 때문에 초도 해리만큼이나 방학 내내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약간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초는 가볍게 대답했다.

"아, 잘 지냈어. 너도 알겠지만...."

"그게 토네이도즈 팀 배지니?"

갑자기 론이 초의 가슴을 가리키며 물었다. 거기에는 하늘색 바탕에 황금으로 T 자가 새겨진 배지가 꽂혀 있었다.

"그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겠지?"

"맞아. 난 이 팀을 응원해."

초가 대답했다.

"줄곧 이 팀을 응원했던 거니, 아니면 리그에서 우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응원을 하게 된 거니?"

론이 다시 물었다. 해리는 론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훨난하는 듯한 어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난 여섯 살 때부터 이 팀을 응원해 왔어."

초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다음에 보자, 해리."

초 챙은 자리를 떠났다. 헤르미온느는 초가 학교 운동장을 반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론을 향해 훅 돌아섰다.

"넌 정말 눈치도 없구나!"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초에게~"

"초 챙이 해리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걸 눈치 채지 못했단 말이야?"

"그랬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난 굳이 말리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초 챙이 어떤 퀴디치 팀을 응원하든 네가 왜 따지고 야단이야?"

"따졌다고? 난 따지지 않았어. 난 그저~."

"초 챙이 토네이도즈 팀을 응원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봐, 토네이도즈 팀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단지 지난 시즌에 그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배지를 사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팬이 아니라는 거지. 그자들은 그저 인기가 좋고 우세한 쪽에만 달라붙어서~."

"수업 종소리야."

해리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어찌나 큰 소리로 떠들었던지 종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스네이프 교수의 지하 교실로 가는 도중에도 입씨름을 계속했다. 덕분에 해리는 얼마 전 네빌과 론 사이에서 초와 단 이 분간이었지만 대화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는 일을 마음껏 회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잊게 하는 기억이었다.

스네이프의 교실 문 밖에 길게 늘어선 학생들 틈에 서서 해리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초 챙은 일부러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렇지 않은가? 초 챙은 케드릭의 여자 친구였다. 그러므로 케드릭이 죽었을 때, 혼자 살아서 트리위저드 미로에서 빠져나온 해리를 미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너무나 다정한 태도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미쳤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케드릭의 죽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초 챙은 분명히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그것도 이를 동안 두 번이나....

이 생각을 하자, 해리는 갑자기 기운이 솟았다. 스네이프 교수의 지하 교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기분 나쁜 소리조차, 해리의 가슴에서 풍풍 솟아나는 작은 희망의 물방울을 터뜨릴 순 없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의 뒤를 따라서 줄지어 교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늘 앉던 교실 뒷좌석으로 향했다. 해리는 양쪽에서 들려오는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두 자리에 앉아라."

스네이프 교수가 교실 문을 닫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 교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일제히 입을 다물고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6월에 중요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스네이프는 교탁으로 다가가서 전체 학생들을 빙 둘러보았다.

"그 시험에서 너희들이 마법약의 사용법과 제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교실에도 저능아들이 몇 명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난 여러분이 턱걸이를 해서라도 O.W.L.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불쾌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스네이프의 시선이 한동안 네빌에게 머물렀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물론 올해가 지나면, 너희들 중의 상당수가 더 이상 나와 공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네이프가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나의 N.E.W.T. 마법약 수업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 중에 몇 명은 분명히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

스네이프의 시선이 해리에게 향하자, 그의 입술이 삐뚤어졌다. 해리는 똑바로 그를 마주 보았다. 5학년이 지나면 마법약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행복한 작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시 한해를 함께 보내야만 한다."

스네이프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므로 N.E.W.T.에 도전할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너희들 모두 내가 O.W.L.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오늘은 표준 마법사 수준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마법약을 혼합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 진정 물약이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초조감을 사라지게 하는 약기지. 하지만 주의해라. 만약 약 재료들이 너무 많이 섞게 되면, 그 약을 먹는 사람은 때때로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해리의 왼쪽에 앉아 있던 헤르미온느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재료와 방법은 칠판에 적혀 있다."

스네이프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칠판에 글씨가 나타났다.

"필요한 것은 모두-(스네이프가 다시 지팡이를 휘둘렀다.)-찬장 선반에 있다.(그 순간 찬장 문이 활짝 열렸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 반이다.... 시작."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예상했던 대로, 스네이프는 가장 까다롭고 성가신 마법약을 과제로 내주었다. 모든 재료를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정확한 분량만큼 냄비에 넣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혼합물을 정확한 횟수만큼, 처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어 주어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약이 끓기 시작하면 마지막 재료를 넣기 전에 몇 분 동안 적당한 수준까지 정확하게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만 했다.

"이제 마법약에서 옅은 은색 김이 올라야만 한다."

십 분이 남았을 때, 스네이프가 소리쳤다.

땀을 뺄낄 흘리고 있던 해리는 절박한 표정으로 지하 교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냄비에서는 짙은 회색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론의 냄비에서는 초록색 불꽃이 튀고 있었다. 한편 시무스는 지팡이 끝으로 자꾸 깨지려고 하는 불길을 열심히 쑤시고 있었다.

반면에 헤르미온느의 마법약에서는 은색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스네이프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매부리코를 향해 시선을 내리깔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은 흥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해리의 냄비 앞에 이르자, 스네이프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무시무시한 미소를 반면에 지으며 해리를 내려다보았다.

"포터, 도대체 뭘 만든 거지?"

교실 앞자리에 있던 슬리데린 학생들이 흥미진진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스네이프가 해리를 못살게 구는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이다.

"진정 물약입니다."

해리가 잔뜩 긴장해서 대답했다.

"포터, 대답해 봐라. 너 글은 읽을 줄 아니?"

스네이프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드레이코 말포이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예, 압니다."

해리가 지팡이를 꽉 움켜쥐며 대답했다.

"포터, 나를 위해서 세 번째 줄에 적힌 지시 사항을 읽어 주겠니?"

해리가 칠판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온갖 색깔의 수증기가 지하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칠판에 적힌 지시 사항을 읽기란 쉽지 않았다.

"월장석 가루를 섞은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번 휘젓는다. 그리고 칠 분 동안 끓인 후에 크리스마스 로즈 시럽 두 방울을 떨어뜨린다."

해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크리스마스 로즈 시럽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법약을 칠 분 동안 끓인 후에 곧장 네 번째 지시 사항으로 건너뛴 것이다.

"포터, 세 번째 지시 사항을 빠짐없이 그대로 했나?"

"아니요."

해리가 힘없이 대답했다.

"뭐라고?"

"아닙니다."

해리가 좀더 큰 소리로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로즈를 잊어버렸어요...."

"포터,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결국 네가 만든 이건 아무런 쓸모도 없어. 에바네스코!"

순간 해리가 만든 마법약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해리는 텅빈 냄비 옆에 명하니 서 있었다.

"너희들 중에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자신이 만든 마법약을 약병에 담은 다음,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써 붙여서 내 책상으로 가져와라. 이제부터 시험해 보겠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숙제를 내주겠다. 월장석의 성분과 마법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사용법에 대해 양피지 30 센티미터 분량만큼 써서 목요일에 제출하도록."

해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약병을 채우느라 부산한 가운데, 해리는 혼자서 속을 끓이며 자기 물건들을 주섬주섬 쟁겼다. 사실 론의 마법약도 그의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심지어 론의 마법약은 달걀 씩는 듯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네빌의 마법약은 막 섞어 놓은 시멘트처럼 단단해서, 그걸 냄비에서 후벼 파내느라 쪄쩔매고 있었다. 그러나 해리는 오늘 수업에서 빵점을 맞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가방

속에 지팡이를 다시 쑤셔 넣고 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법약을 채워 코르크 마개로 막은 병을 든채, 스네이프의 책상 앞으로 줄지어 나가는 학생들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해리는 제일 먼저 지하 교실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헤르미온느와 론이 대연회장으로 해리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점심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전 내내 천장은 훨씬 더 어두운 회색으로 변했다. 빛줄기가 높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정말 불공평한 처사였어."

헤르미온느가 해리 옆에 앉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리고 세퍼드 파이(다진 양고기와 으깬 감자를 오븐에 구워 낸 것: 역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사실 네가 만든 마법약보다 고일의 마법약이 훨씬 더 형편 없었어. 고일이 마법약을 벽에 덜었을 때, 병이 박살 나면서 옷자락에 불이 붙었다니까."

"그래. 언제 스네이프가 나를 공평하게 대해 준 적이 있었니?"

해리가 자신의 접시를 노려보며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해리가 호그와트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스네이프와 해리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올해는 좀 나아질 줄 알았어."

헤르미온느가 실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내 말은... 그러니까...."

헤르미온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 양옆 자리는 비어 있었고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는 기사단의 일원이잖아."

"독버섯은 제 색깔을 바꾸지 못하는 법이지."

론이 유식한 척했다.

"어쨌든 나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스네이프를 믿다가, 언젠가는 한 번 발등 찍힐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 도대체 스네이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걸 정말로 그만두었다는 증거가 어디있지?"

"아마 덤블도어 교수님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계실 거야. 너랑 그 증거를 함께 나누시지는 않겠지만, 론."

헤르미온느가 핀잔을 주었다.

"오, 제발 너희 두 사람, 그만 입 좀 다물어."

론이 반격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해리가 우울하게 소리쳤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뚱하게 화가 난 표정으로 꼼짝하지 않았다.

"싸움도 쉬어 가면서 할 수 없니? 너희들은 항상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 정말 너희 때문에 미치겠어."

해리는 세퍼드 파이를 탁 내려놓고 가방을 어깨에 둘러메더니, 두 사람을 자리에 남겨 두고 떠나 버렸다.

해리는 대리석 계단을 한 번에 두 칸씩 성큼성큼 뛰어올랐다.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서둘러 내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치솟은 분노의 불길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충격을 받아 어리벙벙한 론과 헤르미온느의 얼굴을 떠올리자, 마음이 흡족했다.

그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 해리는 생각했다. 왜 그 애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싸우는 걸까? 그건 누구든 참을 수 없을 거야....

해리는 기사 캐도간 경의 커다란 그림 앞을 무심코 지나쳤다. 그러자 캐도간 경은 잔뜩 화가 나서 칼을 빼 들고 해리를 향해 맹렬하게 휘둘렀다. 하지만 해리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돌아와라, 이 비열한 개야. 당당히 나와 겨루자!"

투구를 쓴 캐도간 경이 웅얼웅얼 소리쳤다. 하지만 해리는 계속 걷기만 했다. 마침내 캐도간 경은 옆에 있는 그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해리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덩치 크고 사납게 생긴 늑대 사냥개에게 그만

쫓겨나고 말았다.

해리는 북쪽 탑 꼭대기의 뚜껑문 밑에 혼자 앉아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 결국 수업 종이 울렸을 때, 은 사다리를 타고 사이빌 트릴로니 교수의 교실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해리였다.

점술은 해리가 마법약 수업 다음으로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다. 그것은 순전히 트릴로니 교수가 수업 시간마다 습관처럼 그의 때 이른 죽음을 예언하기 때문이었다. 눈이 커다랗게 보이는 돋보기를 쓴 채, 온몸에 솔을 칭칭 두르고 반짝이는 구슬 목걸이를 주렁주렁 목에 건 이 호리호리한 여인을 보면, 해리는 항상 벌레가 떠올랐다.

해리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트릴로니 교수는 방 안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작고 긴 책상들 위에 너덜너덜한 가죽 장정의 책들을 하나씩 옮겨놓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덮개를 썬 운 등잔불과 역한 냄새를 풍기는 작은 장작불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트릴로니 교수는 해리가 들어온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았다. 오 분이 지나자,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다. 뚜껑문을 열고 나타난 론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더니 해리를 발견하고 곧장 그를 향해 다가왔다. 아니, 사실은 사방에 흩어진 책상과 의자, 터질 듯한 쿠션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돌아와야만 했다.

"헤르미온느와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어."

론이 해리 옆에 앉으며 말했다.

"잘됐구나."

해리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너도 우리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론이 말했다.

"난 화를 내지 않았~"

"난 그저 말을 전달했을 뿐이야."

론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나도 헤르미온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시무스나 스네이프가 너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난 결코~"

"안녕."

트릴로니 교수가 평소처럼 꿈꾸는 듯이 몽롱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해리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왠지 짜증스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럼기도 했다.

"점술 수업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나는 물론 방학 동안에도 너희들의 운명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 무사히 호그와트로 돌아온 것을 보니 무척 기쁘구나. 물론 나는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너희들 책상 위에 이니고 이마고가 쓴 <꿈의 신탁>이라는 책이 놓여 있을 것이다. 꿈을 해석하는 일은 미래를 예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란다. 그리고 아마 너희들이 볼 O.W.L..에도 출제가 될 것이다. 물론 점술이라는 신성한 능력에 비하면, 시험에 불고 떨어지는 일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너희들이 미래를 예견하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성적이니 학위니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단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이 시험을 치르길 원하시니, 그럼...."

트릴로니 교수의 목소리가 우아하게 여운을 남기며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시험 같은 세속적인 문제보다도 자신의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먼저 머리맡을 펴거라. 그리고 이마고가 꿈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 보자꾸나. 그리고 짹을 지어서, <꿈의 신탁>을 이용해 상대방이 가장 최근에 꾼 꿈을 해석해 보도록 하자."

이 수업에서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두 시간짜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책의 머리말을 다 읽고 나자, 꿈을 해석할 시간은 거의 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해리와 론이 앉은 옆 자리에는 딘이 네빌과 짹을 지어 앉았다. 네빌은 즉시 커다란 가위가 할머니의 가장 좋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내용의 악몽에 대해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리와 론은 그저 서로를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기억나는 꿈이 하나도 없어."

론이 말했다.

"네가 먼저 말해 봐."

"한 가지 정도는 기억이 날 거야."

해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자신이 되풀이해서 꾸는 묘지에 대한 악몽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론이나 트릴로니 교수나 저명청한 <꿈의 신탁>에게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글쎄, 지난밤에는 퀴디치 시합을 하는 꿈을 꿨어."

론은 꿈을 기억하려고 잔뜩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니?

"아마도 넌 커다란 마시멜로나 뭐 그런 걸 먹게 될 것 같아."

해리는 무심하게 <꿈의 신탁>을 넘기면서 아무렇게나 설명했다.

<꿈의 신탁>에 나온 꿈들을 살펴보는 것은 시시하기 짹이 없었다.

트릴로니 교수가 한 달 동안 꿈 일기를 적어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을 때에도, 해리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종이 올리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론은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벌써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빈스 교사는 개인 전쟁에 대해서 장문의 작문을 써 오라고 하질 않나, 스네이프 교수는 월장석의 사용법에 대해서 기나긴 보고서를 써 오라고 하더니 이젠 트릴로니 교수까지 한 달 동안 꿈 일기를 써 오라고 하니! O.W.L. 학년에 대해서 프레드와 조지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안 그래? 엄브릿지 그 여자는 아무 숙제도 내주지 말아야...."

그들이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실로 들어갔을 때, 엄브릿지 교수는 이미 교탁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에는 검을 벨벳 머리띠를 두르고 여전히 보풀이 인 분홍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해리는 또다시 커다란 두꺼비 머리 위에 멍청하게 앉아 있는 왕파리가 떠올랐다.

학생들이 다 들어오자,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엄브릿지 교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녀가 얼마나 엄한 선생님인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침내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엄브릿지 교수가 입을 열었다.

몇몇 학생들이 우물쭈물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쯧쯧"

엄브릿지 교수가 혀를 쳤다.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엄브릿지 교수님!'이라고 씩씩하게 대답해 주길 원해요. 그럼 다시 한 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브릿지 교수님!"

학생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이제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지팡이를 치우고 깃펜을 꺼내도록 해요."

엄브릿지 교수가 상냥하게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길한 표정을 지었다. '지팡이를 치워라'라고 말하는 수업이 재미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지팡이를 가방 안에 넣고 깃펜과 잉크와 양피지를 꺼내 들었다. 엄브릿지 교수는 손가방을 열더니 비정상적으로 짧은 지팡이를 꺼냈다. 그리고 지팡이로 칠판을 톡톡 두드리자, 칠판에

글씨가 나타났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

기본 원리로 돌아가기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과목에 대해서 다소 산만하고 산발적으로 배워왔죠, 안 그런가요?"

엄브릿지 교수가 두 손을 가지런히 마주 잡고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계속 선생님이 바뀐 데다, 대부분은 마법부에서 인정한 교과 과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 결과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O.W.L. 학년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한참 미달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테니 염려하지 말아요. 올해에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이론 중심의, 마법부 인증 방어술 교육 과정을 따를 겁니다. 이제부터 받아 적으세요."

엄브릿지 교수는 다시 칠판을 톡톡 두드렸다. 첫 번째 내용이 사라지고 다른 글씨가 나타났다.

교과 목표

1. 방어술의 원리를 이해한다.
2. 방어술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법을 배운다.
3. 방어술을 실제에 적용해 본다.

잠깐 동안 교실 안은 양피지가 깃펜에 긁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들 엄브릿지 교수의 3대 교과 목표를 베껴 쓰고 나자, 엄브릿지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모두들 월버트 슬링크하드가 쓴 <방어 마법 이론> 책을 가져왔죠?"
학생들이 웅성웅성 대답했다.

"우리, 다시 한 번 해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네, 엄브릿지 교수님!'이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아니요, 엄브릿지 교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모두 월버트 슬링크하드가 쓴 <방어 마법 이론> 책을 가져왔죠?"

"네, 엄브릿지 교수님!"

교실 안이 쪄렁쩌렁 울렸다.

"좋아요."

엄브릿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5페이지를 펴서 1장 '초보자를 위한 기초'를 읽어 보도록 합시다.
말은 필요 없을 거예요."

엄브릿지 교수는 칠판에서 멀어져 교탁에 놓인 자기 의자에 가 앉았다.

그리고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온 눈으로 학생들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해리는 <방어 마법 이론>의 5페이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은 거의 빈스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만큼이나 엄청 지루하고 따분했다. 해리는 자꾸만 딴생각이 들었다. 같은 줄을 여섯 번이나 계속 읽으면서도 처음 몇 글자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몇 분이 흘렀다. 그의 옆 자리에 앉은 론은 명하니 똑같은 부분을 내려다보면서, 손으로는 깃펜을 돌리고 있었다. 슬쩍 오른쪽을 돌아본 해리는 깜짝 놀라서 잠이 후딱 달아나 버렸다. 헤르미온느가 <방어 마법 이론>을 펴지도 않고 달아나 버렸다. 그녀는 손을 번쩍 치켜든 채, 엄브릿지 교수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선생님이 시키는 책을 읽지 않고 딴 짓을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자기 앞에 놓인 책은 무엇이든 일단 열어 보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해리는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브릿지 교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브릿지는 다른 쪽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몇 분이 흘렀다. 이제 헤르미온느의 행동을 눈치 챈 사람은

해리만이 아니었다. 읽으라는 책이 너무나 지루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초보자를 위한 기초'와 씨름하기보다는 차라리 엉브릿지 교수와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 말없이 노력하는 헤르미온느를 지켜보는 편을 택했다.

마침내 반이 넘는 학생들이 책이 아니라 헤르미온느를 쳐다보고 있자, 엉브릿지 교수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 같았다.

"이 장에 대해서 뭔가 질문할 게 있나요?"

엉브릿지 교수는 마치 방금 번에야 그녀를 알아챈 듯이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이 장에 대해서는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책을 읽도록 하죠."

엉브릿지 교수가 작고 뾰족한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만약 다른 질문이 있다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저는 교수님의 교과 목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순간 엉브릿지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학생 이름이~"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입니다."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좋아요, 그레인저 양. 하지만 주의 깊게 잘 읽어 보기만 하면, 이 교과 목표의 내용은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엉브릿지 교수는 상냥하게 대하기로 결연하게 다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글세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헤르미온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기에는 방어 마법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교실 안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고개를 돌리고 칠판 위에 쓰여 있는 세 가지 교과 목표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방어 마법을 사용하는 법이라고?"

엉브릿지 교수가 약간 웃긴다는 듯이 그녀의 말을 따라했다.

"도대체 우리 교실에서 학생이 방어 마법을 사용해야 할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통 상상이 안 가는군요. 그레인저 양, 학생은 수업 시간 중에 정말로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을 건가요?"

론이 느닷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 교실에서 할 말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도록 해요. 학생은-?"

"위즐리입니다."

론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말했다. 엉브릿지 교수는 더욱더 활짝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 순간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손을 들었다. 엉브릿지 교수의 톡 튀어나온 눈이 잠깐 해리에게 머물더니, 헤르미온느를 지적했다.

"그레인저 양?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의 전체 목표는 방어술의 실제적인 사용이 아닌가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학생이 마법부에서 훈련받은 교육 전문가인가요, 그레인저 양?"

엉브릿지 교수가 꾸며낸 듯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학생은 어떤 수업의 전체 목표를 결정할 자격은 없는 것 같군요. 학생보다 훨씬 더 연륜이 깊고 현명하신 마법사들이 우리의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마법의 방어술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해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위험하지도 않고~"

"포터 군, 손을 들어요!"

엄브릿지 교수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가 손을 번쩍 들었다. 엄브릿지 교수는 재빨리 그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학생의 이름은?"

엄브릿지가 딘에게 말을 걸었다.

"딘 토마스입니다."

"그래요, 토마스 군?"

"해리 말이 맞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 공격을 받는다면, 위험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엄브릿지 교수가 매우 짜증스러운 태도로 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학생은 내 수업 시간에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엄브릿지 교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이 학교가 매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엄브릿지 교수는 커다란 입을 활짝 벌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수업 시간에 몇몇 무책임한 마법사들에게 노출되어 왔습니다. 아주 무책임했어요. 대단히 위험한 잡종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엄브릿지 교수가 심술궂게 웃었다. 그러자 딘 토마스가 화가 나서 목청을 높였다.

"루핀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분은 우리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

"토마스, 손을 들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에 걸맞지 않은 복잡하고 대단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주문들을 배워 왔어요. 그래서 겁에 질린 나머지, 언젠가는 어둠의 마법에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단지~"

헤르미온느가 말을 꺼냈다.

"손을 들지 않았군요, 헤르미온느 양!"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손을 들었지만, 엄브릿지 교수는 그녀를 외면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저의 전임자는 여러분들 앞에서 불법적인 저주들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사용하기도~"

"그 사람은 결국 정신이상자로 판명되지 않았나요?"

딘 토마스가 열띤 어조로 말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걸 배웠고~"

"손을 들어요, 토마스 군!"

엄브릿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는 이론적 지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마법부의 견해입니다. 그것이 학교가 있는 이유죠. 그리고 학생의 이름은 뭐죠?"

엄브릿지가 방금 손을 든 패르바티를 바라보며 물었다.

"패르바티 패틸입니다. 그럼, 어둠의 마법 방어술 O.W.L.에는 실전 시험이 전혀 없나요? 우리는 실제로 저주를 막아 내는 마법이나 뭐 그런 걸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이론 공부를 충분히 한다면, 통제를 받는 시험장에서 조심스럽게 주문을 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엄브릿지 교수가 거만하게 말했다.

"그 전에 연습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말인가요?"

패르바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설마 저희더러 시험장에 가서 처음으로 주문을 써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죠?"

해리가 또다시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다.

엄브릿지 교수가 고개를 쳐들었다.

"포터 군, 여기는 학교예요. 현실 세계가 아니예요."

엄브릿지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터 군."

"아, 그래요?"

하루 종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그의 분노가 이제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여러분 같은 어린아이들은 누가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브릿지 교수가 끔찍하게 애교가 철철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음... 예를 들면..."

해리가 마치 굉장히 사려 깊은 듯한 시늉을 했다.

"볼드모트 경?"

론이 입을 딱 벌렸다. 라벤더 부라운은 약한 비명을 질렀고, 네빌은 의자에서 옆으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엄브릿지 교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몹시 만족스런 표정으로 해리를 가만히 응시했다.

"포터 군, 그리핀도르에 10 점 감점입니다."

교실 전체가 숨죽인 듯이 고요했다. 모두들 엄브릿지와 해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보도록 하죠."

엄브릿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뭉툭한 손가락을 쪽 펴서 교탁을 짚고 아이들을 향해 몸을 숙였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둠의 마법사가 죽음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자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요, 돌아왔어요!"

해리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포터 군, 학생 때문에 이미 학생의 기숙사는 10 점이나 깎였어요. 그러니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도록 해요."

엄브릿지 교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숨에 말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어둠의 마법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난 그자를 봤어요. 그자와 싸우기까지 했어요!"

해리가 소리쳤다.

"포터 군, 별로 방과 후 나머지 공부를 받도록 해요! 내일 저녁 다섯 시, 내 방으로 와요."

엄브릿지 교수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법부는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어둠의 마법사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수업 시간 이외에 나를 찾아와서 만나도록 해요. 누군가 부활한 어둠의 마법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나에게 알려 주세요. 나는 여러분을 돋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친구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책을 읽도록

하세요. 5페이지. '초보자를 위한 기초' 장입니다."

엄브릿지 교수는 다시 교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해리는 계속 서 있었다. 그리고 모두들 그를 쳐다보았다. 시무스는 반쯤은 겁에 질리고, 반쯤은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리, 안 돼!"

헤르미온느는 작은 목소리로 경고하며 그이 소매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해리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캐드릭 디고리도 저절로 죽었단 말인가요?"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간 학생들 전체가 다 함께 숨을 멈추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를 제외하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캐드릭이 죽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 해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해리와 엄브릿지 교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교수는 눈을 치켜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억지로 꾸민 듯한 미소가 싹 사라졌다.

"캐드릭 디고리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엄브릿지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살인이었어요."

해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서른 명의 반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볼드모트가 그를 죽였어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엄브릿지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깐 동안 해리는 그녀가 비명을 질러 대거나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엄브릿지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냥한 목소리로, 더욱도 소녀처럼 말을 했다.

"이리 와요, 포터 군."

해리는 의자를 옆으로 걷어차고 론과 헤르미온느 옆을 지나서 교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었다. 엄브릿지 교수는 손가방에서 분홍색의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 펼쳤다. 그리고 깃펜에 잉크를 묻힌 다음, 몸을 숙인 채 뛰라고 적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녀가 쓰고 있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일 분쯤 후에 엄브릿지는 양피지를 다시 말아서 지팡이로 툭 건드렸다. 그러자 해리가 펴 볼 수 없도록 완전히 봉인이 되었다.

"이것을 맥고나걸 교수님께 가져다 드리도록 해요."

엄브릿지 교수는 두루마리를 해리에게 건네주었다. 해리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들고는 론과 헤르미온느조차 돌아보지 않고 교실 문을 광 닫고 나갔다.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에게 보내는 전갈을 손에 움켜쥔 채, 복도를 재빨리 걸어갔다. 그리고 황급히 모퉁이를 돌다가 소리의 요정인 피브스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입이 쭉 찢어지고 자그마한 그는 허공에 벌렁 드러누워서 잉크병 몇 개를 번갈아 던지며 재주를 부리고 있었다.

"이런, 그 잘난 꼬마 포터가 아닌가!"

피브스는 잉크병 두 개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재잘재잘 지껄이기 시작했다. 잉크병이 박살이 나면서 벽에 잉크가 튀었다. 해리는 이를 갈며 재빨리 뒤로 몸을 피했다.

"피브스, 당장 비켜."

"오오, 미친놈이 심기가 뒤틀리셨군."

피브스가 해리의 뒤를 따라가며 지껄였다. 그리고 해리의 머리 위로 봉 날아오르더니 힐끔힐끔 결눈질을 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신가, 우리 잘난 친구? 무슨 목소리라도 들었나?
아니면 계시를 보았나? 다른 동물의 언어로 말을 하나?"

피브스가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냈다.

"날 가만 좀 내버려 둬!"

해리가 버럭 고함을 비르며 제일 가까운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하지만 피브스는 난간을 타고 그의 둉 뒤를 바싹 쫓아왔다.

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고함을 지른다고 생각하지, 잘난 꼬마 녀석.

하지만 마음씨 착한 이들은 그가 슬퍼서 저런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피브스는 더 잘 알고 있다네. 그래서 말하지. 그 녀석은 미친 거라고-.

"입 닥쳐!"

바로 그때 왼쪽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맥고나걸 교수가 약간 짜증이 난 듯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서 나왔다.

"도대체 뭐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지, 포터?"

맥고나걸 교수가 야단을 쳤다. 순간 피브스는 재잘재잘 떠들면서 쌩하고 모습을 감추었다.

"수업에 안 들어가고 월 하는 거냐?"

"교수님께 심부름 왔습니다."

해리가 대답했다.

"심부름? 그게 무슨 소리지, 심부름이라니?"

해리는 엄브릿지 교수의 전갈을 내밀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것을 받아 들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지팡이로 두루마리를 열었다. 그리고 양피지를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다. 맥고나걸 교수의 눈이 네모난 안경 너머에서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하며 엄브릿지의 편지를 읽더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늘어졌다.

"들어와라, 포터."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그래? 이게 사실이냐?"

맥고나걸 교수가 그에게 돌아서면서 물었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죠?"

해리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으로 들렸다.

"교수님?"

해리는 좀더 예의 바르게 들리도록 애를 쓰며 덧붙였다.

"네가 엄브릿지 교수님께 고함을 질렀다는 게 사실이냐?"

"네."

해리가 대답했다.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도?"

"네."

"교수님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드린 것도?"

"네."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책상으로 가 앉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과자 하나 먹으라, 포터."

"뭐라고 하셨죠?"

"과자를 먹으라니까."

맥고나걸 교수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 위의 과자통을 손으로 가리키며 조급하게 말했다.

"그리고 앉거라."

전에도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님께 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 선수로 지명해서 어리둥절했던 일이 있었다. 해리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생강 과자를 먹으며 그때처럼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해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엄브릿지 교수의 편지를 내려놓고 대단히 심각한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포터, 조심해야 한다."

해리는 입 안 가득히 물고 있던 생강 과자를 끌꺽 삼키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리가 늘 들던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딱딱하고 건조하고 엄격한 목소리가 아니라, 나지막하고 걱정스런, 그래서 웬지 평소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목소리였던 것이다.

"돌로레스 엠브릿지 교수의 수업에서 행동을 잘못 하다가는 기숙사 점수를 깎이거나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

"그게 무슨~"

"포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맥고나걸 교수가 갑자기 평상시 목소리로 돌아오더니, 날카롭게 핀잔을 주었다.

"그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도 알 텐데."

바로 그때 수업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머리 위와 온 사방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쿵쾅거리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코끼리 발소리처럼 들렸다.

"이번 주에는 매일 저녁마다 너를 불잡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적혀 있구나. 내일부터 시작이다."

맥고나걸 교수가 엠브릿지의 편지를 또다시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번 주 내내 날마다!"

해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따라했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님, 교수님이 어떻게-?"

"난 할 수 없다."

맥고나걸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의 선생님이고 너에게 벌을 줄 권리가 있다. 너는 내일 저녁 다섯 시에 엠브릿지 교수 방으로 찾아가라. 한 가지만 명심하렴, 아프로는 돌로레스 엠브릿지 교수를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해라."

"하지만 전 진실을 말했어요!"

해리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볼드모트는 돌아왔어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세~"

"포터, 제발 부탁이다!"

맥고나걸 교수가 안경을 똑바로 고쳐 쓰며 야단을 쳤다(그녀는 해리가 볼드모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너는 정말로 이게 진실이냐 거짓말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이건 네가 얼마나 자중하고 감정을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야!"

맥고나걸 교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숨을 씩씩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해리도 따라서 일어났다.

"과자 하나 더 먹어라."

맥고나걸 교수가 과자통을 그에게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해리가 냉정하게 거절했다.

"바보처럼 굴지 마."

맥고나걸 교수가 야단을 쳤다. 해리는 과자를 집어 들었다.

"고맙습니다."

해리가 못내 불만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개강 파티 때 돌로레스 엠브릿지가 했던 연설 못 들었니, 포터?"

"들었어요."

해리가 말했다.

"네... 진보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건... 그건 마법부가 호그와트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뜻이고요."

맥고나걸 교수가 잠깐 동안 해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책상 앞으로 돌아 나왔다. 그리고 해리를 위해 문을 열어 주며 말했다.

"어쨌든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말이라도 귀담아듣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맥고나걸 교수는 손가락으로 방 밖을 가리켰다.

제 13 장 돌로レス의 나머지 공부

그날 밤 대연회장에서의 저녁 식사는 해리에서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다. 그가 엉브릿지 교수와 고함을 지르며 한판 불었다는 소문이, 호그와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례적일 만큼 빠르게 퍼졌던 것이다.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주위에서는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해리가 혹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나 않을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해리가 또다시 흥분해서 고함이라도 지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렇게 되면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일을 직접 다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케드릭 디고리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어..."

"자기가 그 사람いら 결코를 했대...."

"허풍 떨지 마."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해리가 나이프와 포크를 턱 내려놓으면서 (손이 너무 떨려서 나이프와 포크를 제대로 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왜 두 달 전에 덤블도어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모두 그 말을 믿었느냐 말이야...."

"솔직히 난 아이들이 정말로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

헤르미온느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헤르미온느도 포크와 나이프를 그만 내려놓았다. 론은 아직 절반쯤 남은 애플 파이를 아쉬운 듯이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다른 학생들은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줄곧 지켜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지? 아이들이 덤블도어 교수님의 말을 정말로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니?"

1층 계단 앞에 이르렀을 때,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이거 봐, 넌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상황이 어땠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

헤르미온느가 침착하게 말했다.

"넌 죽은 케드릭의 시체를 끌어안고 잔디밭 한가운데에 나타났어.

우리는 아무도 미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못했지. 우린 그저 그 사람이 돌아왔고 케드릭을 죽였고 너랑 싸웠다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말만 들었을 뿐이야."

"그게 사실이야!"

해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도 알아, 해리. 그러니까 제발 화 좀 내지 마.'

헤르미온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진실이 미처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모두들 여름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두 달 내내 네가 얼마나 미쳤고, 덤블도어가 어떻게 망령이 났었는지에 대한 기사만 읽었던 거야!"

그들이 텅 빈 복도를 걸어서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나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해리는 학교에서의 첫날이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숙제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만 했다. 게다가 아까부터 쿡쿡 쑤시는 듯한

오른쪽 눈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해리는 비가 훌러내리는 창문 너머로 어두운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가 있는 복도로 향했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은 아직도 어둠에 훑싸여 있었다.
"밀블러스 밍블토니아."
뚱뚱한 여인이 물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암호를 댔다. 초상화가
휙 열리면서 감추어진 구멍이 드러났다. 세 사람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다. 모두들 아직도 연회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크룩생크가 몸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로 가르랑거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제각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를 골라서
벽난로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크룩생크가 헤르미온느의 무릎 위로
살짝 뛰어오르더니, 잔털이 많은 생강빛 쿠션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다. 지칠 대로 지친 해리는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어째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걸까?"
헤르미온느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해리와 론은 깜짝 놀라
나자빠질 뻔했다. 크룩생크도 별떡 몸을 일으키며 몹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헤르미온느는 화가 나서 의자 팔걸이를 쾅쾅 내려쳤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의자에 뚫린 구멍 사이로 안에 든 솜이 다 빠져나올
정도였다.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여자가 우리를 가르치도록 내버려두실 수가
있지? 그것도 O.W.L 학년에!"
"우린 한 번도 훌륭한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선생님을 만난적이 없었어,
안그래?"
해리가 말했다.
"너도 그게 어떤 건지 알잖아. 해그리드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아무도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아. 그 자리에는 나쁜 징크스가 있다고 하잖아."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실제로 마법을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쓰다니! 덤틀도어 교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게다가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엉탐꾼 노릇을 시키려고 해."
론이 우울하게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더러 누구든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에게 알려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당연히 그 여자는 우리 모두를 엉탐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그건 뻔한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왜 퍼지가 그 여자를 여기 보내고 싶어 했겠어?"
헤르미온느가 론은 구박했다.
"또다시 맘다툼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론이 반격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해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냥... 숙제나 하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그들은 구석에서 책가방을 가지고 다시 벽난로 앞으로 돌아왔다.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해리는 초상화 구멍 쪽을
절대 돌아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스네이프의 숙제부터 먼저 할까?"
론이 깃펜을 잉크에 담그며 말했다.
"월장석의... 성분과... 마법약 제조에 있어서의... 사용법이라."
론이 양피지 꼭대기에 글씨를 쓰며 중얼거렸다.
"됐어."
론은 제목 밑에 줄을 그은 다음, 기대에 찬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래, 월장석의 성분과 마법약 제조에 있어서의 사용법이 뭐야?"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휴게실

한쪽구석을 열심히 째려보는 중이었다. 그곳에는 프레드와 조지 그리고 리조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신입생들을 가운데 모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프레드가 손에 들고 있는 커다란 종이봉투에서 원가를 꺼내 열심히 씹고 있는 중이었다.

"미안하지만,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헤르미온느는 잔뜩 성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자, 론."

"내가- 왜?"

론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 돼, 헤르미온느. 그만 해. 우리가 쟈들에게 사탕을 꺼내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저건 코피 누가거나 아니면 구역질 사탕이나-"

"아니면 기절 팬시?"

해리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 순간 신입생들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차례차례 의식을 잊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몇 명은 마룻바닥으로 곧장 미끄러졌고 또 다른 몇 명은 의자 팔걸이 위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모두들 혀 바닥이 길게 밖으로 늘어져 있었다.

학생들 대부분이 이 광경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어깨를 짹 퍼고 프레드와 조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두 사람은 필기판을 손에 들고 서서 의식을 잊은 신입생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중이었다.

론은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잠깐 망설이더니 해리에게 속삭였다.

"헤르미온느가 잘 알아서 할 거야."

론은 다시 그 호리호리한 몸을 가능한 깊숙이 의자에 파묻었다.

"이제 그걸로 됐어!"

헤르미온느가 프레드와 조지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두 사람은 약간 놀랐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약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다, 그렇지? "내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했지! 그 쓰레기들을 학생들에게 실험하지 말라고!"

"우린 이 아이들에게 돈을 지불했어!"

프레드가 화를 냈다.

"그건 상관없어. 위험할 수도 있잖아!"

"쓰레기라니"

프레드가 중얼거렸다.

"헤르미온느, 진정해. 얘들은 괜찮아!"

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신입생들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보라색 사탕을 입속에 넣어 주었다.

"그래, 봐!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있잖아."

조지가 말했다. 과연 신입생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몇 명은 마루 위에 쓰러져 있거나 의자 위에 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가 과자의 효과에 대해 아무 경고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괜찮니?"

조지는 자기 발밑에 쓰러져 있는 검은 머리의 조그만 여자 아이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그-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 아이는 몸을 떨며 말했다.

"아주 훌륭해!"

프레드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헤르미온느는 그의 손에 들려 있던 필기판과 기절 팬시 봉투를 확 낚아챘다.

"전혀 훌륭하지 않아!"

"아주 훌륭해. 아이들은 멀쩡하잖아, 안 그래?"

프레드가 골을 내며 물었다.

"너희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다가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탈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럴 리가 없어. 이미 우리가 직접 시험을 해봤거든. 이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우리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려고?"

프레드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듯이 물었다.

"아니면 베껴 쓰기 벌이라도 줄 건가?"

프레드가 허죽허죽 웃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 전체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헤르미온느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허리를 꽂꼿이 세웠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부스스한 머리카락에서는 마치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너희 어머니께 편지를 쓸 거야."

"설마."

조지는 겁에 질려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럴 거야."

헤르미온느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그 한심한 발명품들을 먹는 것까지는 내가 말릴 수 없어.
하지만 신입생들에게 먹이는 것은 절대 안 돼."

프레드와 조지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헤르미온느의 협박이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이 분명했다.

헤르미온느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한 번 노려보고 나서, 프레드의 필기판과 기절 팬시 봉투를 다시 던져 주었다. 그리고 불가에 있는 자기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이제 론은 어찌나 깊숙이 의자에 몸을 파묻었던지, 거의 코가 무릎과 같은 높이에 이를 정도였다.

"도와줘서 고마워, 론."

헤르미온느가 가시 돋친 어조로 말했다.

"너 혼자서로 잘 처리했잖아."

론이 어울쩍 넘어가려고 했다. 헤르미온느가 잠깐 동안 텅빈 양피지를 내려다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오, 안 되겠어. 전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난 그냥 잘래."

헤르미온느는 가방을 열었다. 해리는 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텔실로 짠 옷생긴 물건 두 개를 꺼내더니 벽난로 옆의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옮겨놓았다. 그리고 휴지처럼 둘둘 만 양피지 조각들과 부러진 깃펜으로 그 위를 덮고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그 모습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론이 혹시 미친 게 아닌가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지켜보았다.

"집요정들을 위한 모자야."

헤르미온느가 통명스럽게 대꾸하더니, 책을 가방 속에 주섬주섬 집어넣기 시작했다.

"방학 내내 이걸 만들었어. 나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뜨개질을 너무 느리게 하거든. 하지만 이제 학교에 돌아왔으니, 훨씬 더 많은 모자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네가 집요정을 위한 모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론이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 쓰레기들로 적당히 위장을 할 생각이라고?"

"그래."

헤르미온느가 가방을 메며 당당하게 말했다.

"그건 아니야."

론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집요정들을 속여서 저 모자를 집어 들도록 만들 속셈이구나.
집요정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넌 억지로 그들을 해방시킬
생각이야."

"집요정들은 당연히 해방되길 원해!"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감히 이 모자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마, 론!"

헤르미온느는 흑 돌아서서 그곳을 떠났다. 론은 그녀가 여학생 침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른 텔모자에서 쓰레기들을 떼어 냈다.

"집요정들은 최소한 자기가 뭘 짓는지는 알 권리가 있어."

론이 분개했다.

"어쨌든...."

론은 스네이프의 숙제 제목이 적힌 양피지를 돌돌 말아 버렸다.

"지금 이걸 끝내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군. 난 헤르미온느가
없으면 숙제를 할 수 없거든. 월장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안 그래?"

해리도 고개를 가로저었어. 그 순간 오른쪽 관자놀이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 전쟁에 관한 긴 작문을 쓸 생각을
하자, 오른쪽 관자놀이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팠다.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밤 숙제를 끝내지 못한 것을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해리는
책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나도 그만 자려 갈래."

해리는 침실로 가는 도중에 시무스와 마주쳤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시무스가 뭔가 말을 하려는 듯이 입을 벌렸다. 하지만 해리는 더욱
빨리 그 앞을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애써 분노를 참을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나선형 돌계단에 도달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날씨는 어제와 다름없이 흐리고 비가 내렸다.

아침 식사를 하는 교직원 테이블에서 해그리드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오늘은 스네이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위로가 되는군."

론이 격려하듯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크게 하품을 하면서 자기 잔에
커피를 따랐다. 웬지 기분이 꽤 좋은 것 같았다. 론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자들이 없어졌어. 결국 집요정들도 자유를 원하고 있었던게 분명해."

"꼭 그렇게 단정할 순 없어."

론이 딱 잘라 말했다.

"그걸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내가 보기에도 전혀
모자처럼 보이지 않던걸. 차라리 텔실로 짠 주머니 같았어."

결국 헤르미온느는 오전 내내 론과는 단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

두 시간짜리 마법 수업 다음에 두 시간짜리 변신술 수업이 이어졌다.

플리트윅 교수와 맥고나걸 교수 모두, 수업의 처음 십오 분 동안 O.W.L.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라."

플리트윅 교수가 깍깍 소리를 내며 말했다. 키가 작달만한 그는 항상
그렇듯이 코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위해서 책 더미 위에 올라서 있었다.

"이 시험이 장차 여러분의 몇 년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이다!

만약 아직까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야말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동안 소환 마법을 다시 복습했다. 플리트윅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마법은 반드시 O.W.L.에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분량의 마법 숙제를 내주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변신술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집중하고 연습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O.W.L.에 붙을 수 없어요."

맥고나걸 교수가 엄하게 총고했다.

"모두 열심히만 공부하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전부 O.W.L. 변신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네빌이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처량한 신음 소리를 냈다.

"롱바텀, 너도 마찬가지야."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너는 단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자... 오늘은 소멸 마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N.E.W.T. 수준이 되기 전에는 보통 잘 쓰지 않는 주술 마법보다는 훨씬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O.W.L.에 나오는 마법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마법에 속하죠."

맥고나걸 교수의 말이 맞았다. 해리는 소멸 마법이 꼼꼼하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두 시간 수업이 다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해리나 론은 연습하던 달팽이들을 간신히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그래도 론은 자기 달팽이가 약간 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계속 주장했다.

반명 헤르미온느는 단 세 번 만에 달팽이를 멋지게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그리핀도르 기숙사는 맥고나걸 교수로부터 보너스 점수 10 점을 받았고, 헤르미온느는 혼자서 숙제를 면제받았다.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밤새도록 마법을 연습해서 다음 날 오후에 다시 달팽이를 사라지게 할 준비를 해오라는 숙제를 받았다.

이제 써야 할 숙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덜컥 겁이 난 해리와 론은 점심시간 내내 도서관에서 월장석의 사용법을 찾아보았다. 한편 자신의 털모자를 비웃은 론에 대해서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헤르미온느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해리는 다시 이마에 통증을 느꼈다.

날씨는 신선하고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금지된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잔디밭을 걸어가면서, 해리와 론은 이따금씩 얼굴에 빛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해그리드의 오두막 문에서부터 약 9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그루불리 프랭크 교수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녀 앞에 놓인 긴 탁자 위에는 잔 나뭇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해리와 론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등 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드레이코 말포이가 항상 끌고 다니는 슬리데린의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방금 그가 굉장히 웃기는 농담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크레이브와 고일, 팬시 파킨슨,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연신 킁킁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힐끔힐끔 해리를 쳐다보는 그들의 태도로 봐서, 농담의 소재가 무엇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하고도 남았다.

"다들 모였나요?"

슬리데린과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모두 모이자, 그루불리 프랭크 교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럼, 시작해 볼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헤르미온느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그녀의 등 뒤에서 말포이가 빠드렁니를 드러내며 질문에 대답하고 펄쩍펄쩍 뛰며 안달하는

헤르미온느를 흉내 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지러지게 웃던 팬시
파킨슨의 웃음소리는 곧 날카로운 비명 소리로 바뀌었다. 탁자 위에 쌓여
있던 잔가지들이 허공으로 톡톡 튀어오르면서, 마치 나무로 만든 작은
픽시 같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옹이 진 갈색 팔 다리와 둘로 갈라진 손가락을 지닌 그 생물은 나무껍질
같은 판판한 얼굴에 딱정벌레처럼 반질반질한 갈색 두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다.

"에그머니나!"

패르바티와 라벤더가 시끄럽게 호들갑을 떨자, 해리는 몹시 짜증이 났다.
누가 보면 해그리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재미있는 생물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솔직히 플로버 웰이 약간 시시하긴 했다. 하지만
살라맨더와 히포그리프는 꽤 재미있었다. 폭탄 꼬리 스크루트는 어쩌면
너무 지나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학생들, 목소리 좀 낮춰 주면 고맙겠어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날카롭게 소리치면서 막대 생물들에게 갈색 쌀
같은 것을 한 웅큼 뿌려 주었다. 그러자 그것들은 재빨리 먹이를 향해
몰려들었다.

"혹시 이 생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레인저 양?"

"보우트러클입니다."

헤르미온느가 설명했다.

"보통 지팡이 나무에서 사는 나무 수호 정령들입니다."

"그리핀도르에 5 점 주겠어요."

그루블리 프랭크가 말했다.

"맞아요. 이것은 보우트러클이에요. 그레인저 양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대개 요술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에서 살곤 하죠. 혹시 이것들이 월
먹는지 아는 사람?"

"쥐며느리 벌레요."

헤르미온느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으니, 해리는 비로소 왜
갈색 쌀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았다.

"하지만 때로는 요정 애도 먹습니다."

"잘했어요. 또다시 5 점을 주겠어요. 그러므로 보우트러클이 살고 있는
나무에서 나뭇가지나 잎을 꺾을 때는, 먼저 쥐며느리를 쥐서 주의를 땀
데로 돌리거나 마음을 달래 주는 게 좋아요. 보기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 화가 나면 손가락으로 사람의 눈을 찌른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손가락은 아주 날카로워서 눈동자에 달으면 전혀 좋을 게
없어요. 이제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쥐며느리와 보우트러클을 조금씩
가져다가 자세히 관찰하도록 하세요. 세 사람에 한 마리씩 돌아갈 거예요.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각자 보우트러클의 모든 신체 부위에 명칭을
붙인 스케치를 한 장씩 내도록 하세요."

학생들이 탁자 주위로 몰려들었다. 해리는 일부러 아이들 뒤를 빙
돌아서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에게 물었다.

"해그리드는 어디 있죠?"

다른 아이들이 모두 보우트러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해리는
그루블리 교수에게 물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딱 잘라 대답했다. 지난번 해그리드가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태도였다. 이때 드레이코 말포이가 뾰족한
얼굴 가득 빙정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해리 앞으로 몸을 숙이더니 가장
커다란 보우트러클을 붙잡았다.

"혹시 모르지."

말포이가 해리의 귀에만 겨우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다.

"그 명청한 거인이 어디 심하게 다치기라도 했을지."

"글쎄... 그 입 닥치지 않으면 네가 다칠지도 모르지."

해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톡 던졌다.

"어쩌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끼어들었는지도 몰라. 굳이 한마디

충고를 해주자면 말이야...."

말포이는 어깨 너머로 해리에게 능글맞은 미소를 던지며 걸어가 버렸다.

해리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다. 말포이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그의 아버지는 죽음을 먹는 자다. 혹시 해그리드의 운명에

대해서 아직 불사조 기사단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떤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리는 황급히 탁자를 돌아서 론과 헤르미온느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조금 떨어진 잔디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떻게든 보우트러클이 가만히 있도록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다.

해리는 양피지와 깃펜을 꺼내서 그들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말포이가 방금 한 말을 컷속말로 속삭였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해그리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실 거야."

헤르미온느가 즉시 대답했다.

"괜히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면 말포이의 손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말포이에게 알려 주는 셈이야.

그러니까 그를 무시하도록 해, 해리. 여기, 이 보우트러클이나 잠깐 붙잡고

있어 봐. 얼굴을 좀 그려야 하니까 말이야...."

"그렇다니까."

바로 그들 옆에서 말포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를 전에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법부는 이곳에서 자격 미달 교수의 교육 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작정인

것 같았어. 그러니 그 덩치 큰 백치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가는 아마

당장 짐을 싸서 쫓겨날 거야."

"어이쿠!"

방금 해리가 무심코 보우트러클을 거의 터뜨릴 정도로 세게 쥐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해리의 손에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일격을 날렸던 것이다. 그의 손에는 깊이 파인 긴 상처가 두 군데나

생겼다. 해리는 그만 보우트러클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해그리드가

쫓겨났다는 말에 벌써부터 요란하게 웃고 있던 크레이브와 고일은

보우트러클이 숲을 향해서 존속력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자, 더욱 시끄럽게

웃어 댔다. 이 작은 막대 정령은 순식간에 나무 뿌리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멀리 운동장 너머에서 수업 종이 울렸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손수건으로 손을 감싼 채, 핏방울이 묻은 자신의 보우트러클 그림을 둘둘

맡고서 약초학 수업을 듣기 위해 온실로 향했다. 말포이의 징글맞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가에 쟁쟁했다.

"해그리드를 다시 한 번 백치라고 불렀다간..."

해리가 무섭게 말했다.

"해리, 말포이와 싸움을 해서는 안 돼. 명심해, 말포이는 이제 반장이란

말이야. 너에게 힘든 벌을 줄 수도 있어..."

"우와, 도대체 얼마나 힘든 벌을 줄지 궁금한걸?"

해리가 빙정거렸다. 그 말을 듣자, 론은 킬킬거렸지만, 헤르미온느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들은 채소밭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하늘은 아직도 비를

뿌릴지 말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난 그저 해그리드가 하루빨리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온실에 가까이 왔을 때, 해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발 그루불리 프랭크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란 말은 하지 말아 줘!"

해리가 위협적으로 덧붙였다.

"그런 말 하지 않을게."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말했다.

"그 선생님은 절대로 해그리드만큼 좋을 수 없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도 방금 전에 모범이 될 만큼 훌륭한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가장 가까운 온실 문이 열리면서, 지니를 포함한 4학년 학생들이 줄지어 나왔다.

"안녕."

지니가 옆을 지나면서 명랑하게 말했다. 곧이어 머리를 하나로 높이 둑은 루나 러브굿이 코에 진흙을 묻힌 채, 다른 학생들 뒤에서 나타났다. 해리를 보자, 톡 튀어나온 그녀의 눈이 활기를 띠며 휘둥그래졌다. 그녀는 해리를 향해 곧장 다가왔다.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루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한마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걸 믿어. 난 네가 그 사람과 싸우고 도망쳤다는 것도 믿어."

"어... 그래."

해리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루나는 오렌지색 순무처럼 보이는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패르바티와 라벤더는 이 사실을 눈치 챈는지, 자기들끼리 루나의 컷볼을 가리키며 깔깔거리고 난리였다.

"마음대로 웃어."

루나가 목청을 높이며 말했다. 그녀는 패르바티와 라벤더가 그녀의 귀고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방금 한 말 때문에 웃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한때는 불리버링 험팅어나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 같은 게 없다고 믿었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그게 맞잖아,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불리버링 험팅어나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 같은 것은 없어."

루나는 풀 죽은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더니, 순무 귀고리가 마구 흔들릴 정도로 후닥닥 달아나 버렸다. 이제는 패르바티와 라벤더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배꼽을 잡고 웃었다.

"너는 나를 믿어 주는 유일한 사람들을 꼭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니?"

수업에 들어가면서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제발, 해리. 논 그 애 없이도 잘할 수 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지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전부 말해 줬어. 그 아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일들만 믿는대, 아버지가 <이러쿵 저러쿵> 잡지를 만든다는 이에게 달리 도 월 기대하겠니."

해리는 호그와트에 도착했던 그날 밤에 보았던 그 음산한 날개 달린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루나가 자기도 그 말을 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약간 맥이 빠졌다. 그럼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보기로 전에, 어니 맥밀란이 그를 향해 걸어왔다.

"포터, 너에게 알려 주고 싶어."

그는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괴짜들만 너를 지지하는 게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네 말을 백 퍼센트 믿어. 언제나 우리 집은 확실하게 덤블도어 교수님의 편이었어. 그리고 나도 그래."

"음...정말 고마워. 어니."

해리는 몹시 당황하면서도 기뻤다. 어쩌면 어니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해리의 기분으로서는, 귀에 순무 귀고리를 달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눈물겹게 고마울 뿐이었다.

어쨌든 어니의 말을 듣자, 라벤더 브라운의 얼굴에서 비웃는 듯한 미소가 짜 사라졌다. 그리고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을 하려고 돌아섰을 때, 시무스가 반항적이면서도 훈란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스프라우트 교수 또한 O.W.L.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해리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숙제를 해야 할지 생각할 때마다, 뱃속이 뒤틀리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침내 수업 마지막에 스프라우트 교수가 또다른 숙제를 내주자. 이런 기분을 거의 절정에 달했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선호하는 비료의 한 종류인 용의 똥 냄새를 실컷 맡고 지칠 대로 지친 그리핀도르 학생들은 터벅터벅 성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참으로 길고 고단한 하루였다.

해리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데다가 다섯 시에 엉브릿지 교수와 첫 번째 나머지 공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가방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그래야 엉브릿지가 그를 위해 준비해 놓은 별이 무엇이든 그것과 대면하기 전에, 먹을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연회장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잔뜩 성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봐, 포터!"

"이번엔 뭐야?"

해리가 지친 듯이 중얼거리며 안젤리나 존슨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나야말로 지금 뭐 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안젤리나 존슨은 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쿡쿡 찔러 댔다.

"금요일 다섯 시에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라고?"

해리가 물었다.

'왜... 아, 이런, 파수꾼 선발 테스트!'

"이제야 기억을 하는군!"

안젤리나가 으르렁거렸다.

"팀 전체가 선발 테스트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모두와 잘 맞을 만한 사람을 뽑자고 말이야. 특별히 퀴디치 경기장을 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넌 거기에 가지 않을 작정이구나!"

"거기에 가지 않을 작정을 했던 건 아니었어!"

안젤리나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해리가 발끈 화를 냈다.

"엉브릿지 그 여자에게 별을 받았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다고 말이야."

"그럼 당장 선생님께 가서 금요일에 너를 좀 빼 달라고 말씀드려."

안젤리나가 말했다.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꾸며 대도 좋아.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란 말이야!"

안젤리나는 폭풍처럼 사나운 기세로 사라졌다.

"너희들 그거 아니?"

대연회장에 들어서자.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혹시 올리버 우드가 훈련 기간 중에 죽지나 않았는지 푸들미어 유나이티드 팀에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안젤리나에게 올리버 우드의 영혼이 들어간 것 같거든."

"넌 그 깐깐한 엉브릿지가 금요일에 널 빼 줄 것 같니?"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았을 때, 론이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해리가 갈비를 접시에 덜더니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그래도 한 번 시도는 해 봐야지, 안 그래? 나머지 공부를 두 번 더 하겠다거나 뭐든 제안을 해야지, 잘 모르겠지만..."
해리는 입 안 가득 물고 있던 감자를 꿀꺽 삼키면서 말했다.
"엄브릿지가 오늘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나를 불잡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너희들도 알겠지만, 우리는 작문을 세 개나 쓰고 맥고나걸 교수님의 소멸 마법 연습도 해야 하잖아. 게다가 플리트윅 교수님의 소환 마법 공부도 하고 보우트러를 그림 그리기도 끝내고 트릴로티 교수님이 내준 그 한심한 꿈일기도 써야지?"
론이 신음 소리를 내더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
"그게 우리 숙제랑 무슨 관계가 있니?"
헤르미온느가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론이 귀까지 새빨개지며 어른 발뺌을 했다.
다섯 시 오 분 전에 해리는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3층에 있는 엄브릿지 교수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엄브릿지가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서 들어와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전의 세 사람이 이 방을 썼을 때 각기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질대로이 록하트가 이 방을 썼을 때에는 온 사방이 활짝 웃는 그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루핀이 이 방을 썼을 때에는, 올 때마다 우리나라 탱크 안에 갇혀 있는 신비로운 어둠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한편 가자 무디가 썼던 시절에는 온갖 비행과 음보를 추적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장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딴 방처럼 보였다. 방 전체가 레이스가 달린 천과 덮개로 감싸여 있었다. 말린 풀이 가득 꽂힌 대여섯 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고, 꽃병 밑에는 제각기 적은 받침이 깔려 있었다. 한쪽 벽에는 장식용 접시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각 접시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나비 넥타이를 목에 한 커다란 고양이들이 요란한 색깔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이 어찌나 보기 흉했던지, 해리는 엄브릿지 교수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서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포터 군, 안녕."
해리는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그녀를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뒤에 놓인 테이블보와 너무나 비슷한 문양의 요란스런 꽃무늬 망토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엄브릿지 교수님."
해리는 딱딱하게 인사했다.
"여기 앉아요."
엄브릿지는 레이스 덮개가 드리워진 작은 탁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 옆으로 등받이가 똑바로 된 의자를 바싹 끌어당겼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양피지가 놓여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음... 엄브릿지 교수님, 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말했다.
툭 튀어나온 엄브릿지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죠?"
"저... 저는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다섯 시에 새로운 파수꾼을 뽑기 위한 선발 테스트에 참석해야 합니다. 혹시... 그날 저녁 금요일 다섯 시에 새로운 파수꾼을 뽑기 위한 선발 테스트에 참석해야 합니다. 혹시... 그날 저녁 나머지 공부에 빠지면 안 될까요. 그 대신 다른 날에...."

해리는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래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그건 안 돼요."

엄브릿지는 마치 특별한 맛이 좋은 파리라도 삼킨 듯이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아니, 안 돼요. 이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고약하고 질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한 벌이에요, 포터 군. 그러니 벌 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벌을 바꿀 수는 없죠. 안돼요, 내일 다섯 시에도 이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다음 날도,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대로 나머지 공부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놓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포터 군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 확실히 일깨워 줄 테니까 말이죠."

해리는 얼굴로 피가 솟구치고 귀에서는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고약하고 질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엄브릿지는 여전히 활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약간 겨우뚱한 채, 그를 지켜보았다. 마치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자, 다시 고함이라도 지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해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의자 옆에 책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것 봐요."

엄브릿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벌써 훨씬 더 성질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날 위해서 베껴 쓰기를 좀 해줘요, 포터 군. 아니, 그 깃펜으로 말고."

해리가 가방을 열려고 허리를 숙이자, 엄브릿지가 말했다.

"그보다는 나의 특별한 깃펜을 쓰도록 해요. 여기 있어요."

엄브릿지는 그에게 특별히 끝이 뾰족한, 길고 가느다란 검은 색 깃펜을 건네주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세요."

엄브릿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몇 번이나 쓸까요?"

해리가 엄브릿지의 끔찍하게 공손한 태도를 흉내 내면서 물었다.

"오, 그 내용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질 때까지 쓰도록 해요."

엄브릿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럼 시작해요."

엄브릿지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숙제처럼 보이는 양피지 더미 위로 몸을 숙이고 성적을 매겼다. 해리는 뾰족한 검은 깃펜을 집어 들었다. 그 순간 원가가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잉크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해리가 말했다.

"오, 잉크는 필요 없어요."

엄브릿지 교수가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깃펜을 종이에 대고 쓰기 시작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해리는 아픔을 못 이기고 혀 소리를 냈다. 양피지 위에는 피처럼 빨간 잉크로 쓴 글씨가 나타났다. 동시에 해리의 오른쪽 손등 위에 똑같은 글씨가 새겨졌던 것이다. 마치 조각칼로 살갗을 파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쳐다보는 순간, 스르르 사라졌다. 그 자리가 이전보다 약간 더 빨갛게 되었을 뿐,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했다.

해리는 엄브릿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두꺼비 같은 입술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리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양피지로 시선을 돌리고 깃펜을

들어 올렸다. 해리는 천천히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또다시 손등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의 살갗에 두 번째로 글씨가 새겨졌다. 하지만 그 상처는 순식간에 나아 버렸다.

똑같은 일이 계속되었다. 해리는 거듭 양피지 위에 똑같은 글씨를 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빨간 잉크가 진짜 잉크가 아니라 자신의 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양피지에 글씨를 쓸 때마다, 그의 손등에는 글씨가 새겨졌다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나곤 했다.

엄브릿지 교수의 방 창문 너머로 절은 어둠이 깔렸다. 하지만 해리는 언제까지 서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 시계조차 살펴보지 않았다. 엄브릿지 교수는 그의 기가 꺾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설사 밤새도록 이 깃펜으로 자신의 손등을 베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리 와요."

몇 시간쯤 지났을 때, 엄브릿지 교수가 말했다.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등이 쿡쿡 쑤시고 화끈거렸다. 상처는 흔적도 없이 멀쩡하게 나았지만, 그 자리는 빨갛게 부어올랐다.

"손을 쥐 봐요."

엄브릿지 교수가 말했다. 해리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뭉특하고 짧은 그녀의 손가락이 와 달자, 해리는 부르르 몸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손가락에 보기 흉한 낡은 반지들을 잔뜩 끼고 있었다.

"쯧쯧. 아직 별로 반성을 한 것 같지 않군요."

엄브릿지 교수가 쟁긋 웃으며 말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다시 한 번 해보죠. 알았죠? 이제 가 봐요."

해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엄브릿지의 방을 떠났다. 학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자정도 이미 지난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서 엄브릿지 교수의 귀에 들릴 염려가 없게 되자, 비로소 후닥닥 뛰기 시작했다.

해리는 소멸 마법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꿈 일기는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보우트러를 그림도 완성하지 못했다. 작문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음 날 해리는 첫 시간 수업인 점술 숙제를 하느라, 아침 식사도 건너뛰고 허겁지겁 꿈 두 개를 적당히 지어냈다. 그런데 론이 부스스한 몰골로 똑같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해리는 깜짝 놀랐다.

"너는 왜 어젯밤에 숙제를 안 했니?"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휴게실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론에게 해리가 물었다. 어젯밤 해리가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론은 정신없이 끓어떨어져 있었다. 그는 양피지 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글씨를 고적거리며 다른 할 일이 있었다고 우물쭈물 말꼬리를 흐렸다.

"그거면 될 거야."

론을 일기장을 탁 닫으며 말했다.

"나는 꿈속에서 새 신발을 샀다고 썼어. 설마 그걸 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겠지?"

두 사람은 서둘러 북쪽 탑으로 향했다.

"엄브릿지의 나머지 공부는 어땠어? 너에게 뭘 시키던?"

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저 베껴 쓰기야."

"그럼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네?"

론이 뜻밖이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해리가 말했다.

"아, 그리고 깜박 잊을 뻔했네. 금요일의 나머지 공부는 빼주겠다고 하던?"

"아니."

론이 안됐다는 듯이 신음 소리를 내었다. 이날도 해리에게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변신술 수업 시간에는 소멸 마법을 하나도 하지 못해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점심 시간에는 부우트러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식사를 걸러야만 했다. 한편 맥고나걸 교수와 그루불리 프랭크 교수, 시니스트라 교수는 또다시 새로운 숙제를 내주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날 저녁에도 그 숙제를 끝낼 가망성이 전혀 없었다. 엉브릿지와의 두 번째 너머지 공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안젤리나 존슨이 또다시 저녁 식사 때 그를 쫓아왔다. 그리고 그가 금요일에 있을 파수꾼 선발 테스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그의 태도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딱딱거리면서, 퀴디치 팀에 계속 남아 있고 싶다면 다른 일보다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할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별을 받고 있단 말이야!"

해리는 안젤리나 존슨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난들 퀴디치 경기보다 그 늙은 두꺼비란 방에 처박혀 있고 싶겠어?"

"그래도 별이 고작 베껴 쓰기 정도라니 다행이야."

헤르미온느가 위로했다. 해리는 의자에 쭉 늘어져서 자신의 스테이크와 피칸 파이를 내려다보았다. 이젠 더 이상 한 입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래... 듣기에는 별로 꼼찍한 별이 아닌 것 같지... 하지만..."

해리는 말을 할 듯이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거렸다. 어째서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조차 엉브릿지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하기가 망설여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표정을 보고 싶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더 꼼찍하게 여겨지고, 견디기가 더 힘들 것 같았다. 이것은 해리와 엉브릿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조의 기 사움 같은 것이었다. 해리는 절대로 엉브릿지에게 이 일로 징징거리는 꼴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엉브릿지는 쾌재를 부르며 좋아할 것이다.

"도대체 숙제를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

론이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에 숙제 좀 하지 그랬니?"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어디 갔었던 거야?"

"그냥... 산책 좀 했어."

론이 황급히 대답했다.

해리는 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두 번째 너머지 공부 역시 꼼짝하긴 마찬가지였다. 이제 해리의 손등은 훨씬 더 심하게 아프고 금방 빨개졌다. 상처는 마치 불에 덴 듯이 화끈거렸다. 해리는 상처가 저절로 낫는 것도 얼마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곧 손등 깊숙이 상처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엉브릿지는 그걸 보고 만족해 할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정이 지나 방을 나서는 순간까지, 해리가 한 말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단 두 마디뿐이었다.

하지만 밀린 숙제는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핀도르 휴게실로 돌아온 해리는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다. 그 대신 가방을 열고 스네이프 교수의 월장석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숙제를 끝냈을 때에는 거의 새벽 두 시 반이 다 되었다. 자신이 쓴 보고서가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나마 아무 거라도 써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꼼짝없이 스네이프와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해리는 쉬지 않고 이번에는 맥고나걸 교수가 내준 숙제에 달려들었다. 그 다음에는 그루불리 프랭크 교수에게 낼, 보우트러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적당히 작성했다. 마침내 비틀비틀 침대로 걸어간 해리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픽 쓰러져서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지치고 몽롱한 상태에서 목요일이 지나갔다. 론도 졸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론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나머지 공부도 지난번과 똑같았다. 다만 두 시간이 흐르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이 해리의 손등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핏방울까지 맺혔다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뾰족한 깃펜이 양피지를 긁는 소리가 멈추자, 엄브릿지 교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 좋아요."

책상 앞으로 돌아 나온 엄브릿지가 그의 손등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걸 보면 항상 다시 기억이 나겠군요. 안 그래요? 오늘 밤에는 그만 해도 좋아요."

"내일도 또 와야 하나요?"

해리가 아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가방을 집어 들면서 물었다.
"물론이죠."

엄브릿지가 또다시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루 저녁 더 하면, 그 교훈을 좀더 깊이 새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해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스네이프보다도 더 증오스런 선생이 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리핀도르 탑을 향해 걸어가면서, 해리는 훨씬 더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사악한 여자다. 해리는 7 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사악하고 빼뚤어지고 미친 늙은이-.

"론?"

계단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선 해리는 론과 딱 마주쳤다. 론은 빗자루를 손에 움켜쥐고 흙쪽이 라클란 조각상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해리를 보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로 산 클린스윕 11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려고 했다.

"뭘 하고 있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넌 뭘 하고 있니?"

해리가 얼굴을 찌푸렸다.

"어서 솔직히 말해 봐! 도대체 여기 숨어서 뭘 하는 거야?"

"사- 사실은 프레드와 조지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야."

론이 말했다.

"방금 전에 신입생을 한 무리 이끌고 지나갔거든. 틀림없이 다시 그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려는 거야. 휴게실에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 게다가 거기 헤르미온느가 있을 때는...."

론은 뭔가에 쫓기듯이 정신없이 떠들었다.

"하지만 빗자루는 왜 들고 있는 거야? 빗자루를 타고 날았던 거 아니야?"

해리가 따졌다.

"그- 그게 그러니까... 좋아, 솔직히 말할게. 하지만 웃지마, 알았지?"
론이 점점 더 얼굴을 붉히면서 변명하듯이 말했다.

"이제 쓸 만한 빗자루가 생겼으니까, 나- 나도 그리핀도르 파수꾼 선발 테스트에 지원해 볼까 해. 어서 마음껏 비웃어. 괜찮아."

"비웃지 않아."

해리가 말했다. 론이 눈을 끔벅거렸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오면 정말 멋지겠다! 난 네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어?"

"그럭저럭."

론은 해리의 반응을 보고 몹시 안심하는 눈치였다.

"찰리 형이나 프레드, 조지 형이 방학 때 퀴디치 연습을 할 때면 항상 나에게 파수꾼 시켰거든."

"그럼 오늘 밤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화요일부터 매일 밤마다 연습을 했어.... 그냥 혼자서 하는 연습이긴

하지만, 케이플이 나를 향해 날아오도록 마법을 걸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군. 사실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론은 몹시 초조하고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내가 선발 테스트에 나타나면, 프레드와 조지는 비웃느라 난리가 날 거야. 내가 반장이 된 이후로는 항상 나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해리는 몹시 안타까웠다. 두 사람은 휴게실을 향해서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래, 정말이야. 해리. 그런데 네 손등에 그게 뭐니?"

무의식중에 오른손으로 콧등을 긁고 있던 해리는 황급히 손을 감추려고 했다. 하지만 론이 클린스윕을 감추려고 했던 것만큼이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냥 상처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하지만 론은 해리의 손목을 붙잡고 손들을 자기 눈앞까지 들어 올렸다. 잠깐 동안 손등에 새겨진 글씨를 들여다보던 론은 토했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해리의 손을 높아 버렸다.

"그 여자가 너에게 베껴 쓰기를 시킨다고 말하지 않았니?"

해리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하지만 론이 그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것처럼. 해리도 론에게 그동안 엄브릿지 방에서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 늙은 할�이!"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을 때, 론이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뚱뚱한 여인은 액자에 머리를 기댄 채, 싸근싸근 졸고 있었다.

"그 여자는 미쳤어! 맥고나걸 교수님께 가서 모두 말씀드려!"

"아니야."

해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 여자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널 이겼다고? 하지만 그여자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솔직히 맥고나걸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난 모르겠어."

해리가 말했다.

"그럼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말해!"

"아니야."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왜 안 돼?"

"교장 선생님은 안 그래도 걱정이 많으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 지난 6월 이후로 덤블도어는 한 번도 해리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먼저 덤블도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난 네가 가야만 한다고-"

론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뚱뚱한 여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졸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빨리 암호를 대란 말이야. 나더러 너희들이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밤새도록 자지도 말고 기다리란 말이냐?"

지난 며칠과 다름없이 음침하고 흐린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해리는

대연회장에 들어설 때마다 습관처럼 교직원 테이블 쪽을 훑듯

쳐다보았지만, 진짜로 해그리드를 다시 보게 되리라는 희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곧 좀더 코앞에 닥친 문제들로 관심을 돌렸다.

산더미처럼 쌓인 숙제라든가 아직도 남은 엄브릿지와의 나머지 공부 같은 문제들이었다.

그래도 그날은 두 가지 희망이 해리를 버티게 해주었다. 하나는 주말이

거의 다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또 하나는 엠브릿지와의 마지막 나머지 공부가 아무리 끔찍하고 힘들더라도, 창문을 통해서 먼 발치에서나마 퀴디치 팀 파수꾼 선발 테스트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혹시 운이 좋으면 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처럼 암흑 같은 상황에 조금이라도 빛을 밝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고맙고 반가울 뿐이었다. 호그와트에서 이렇게 힘든 첫 주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저녁 다섯 시가 되자, 해리는 엠브릿지 교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틀림없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니. 레이스 덮개를 씌운 탁자 위에 텅 빈 양피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뾰족한 깃펜은 그 옆에 양전히 놓여 있었다.

"포터 군, 할 일은 잘 알고 있겠지."

엠브릿지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해리는 깃펜을 집어 들고 창 밖을 훑어보았다. 의자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길 수 있다면... 해리는 책상 앞으로 좀더 바싹 다가앉는 척하면서 슬쩍 의자를 옮겼다. 이제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이 경기장에서 봉봉 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다. 높이 솟은 세 개의 골대 밑에는 열두어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누가 론인지 순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리는 글씨를 썼다. 오른쪽 손등이 갈라지면서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견딜 수 없이 쓰라리고 아팠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붉은 피가 손목까지 타고 흘러내렸다.

해리는 또다시 창 밖을 슬쩍 내다보았다. 누군지 지금 골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실력이 아주 형편없었다. 해리가 지켜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케이티 벨이 무려 두 골이나 집어넣었다. 부디 저 파수꾼이 론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해리는 다시 피로 얼룩진 양피지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리는 엠브릿지가 뭔가 글씨를 쓰는 듯한 소리가 들리거나 책상 서랍을 열거나 할 때마다 그 틈을 타서 밖을 내다보았다. 세 번째 도전자는 실력이 꽤 괜찮았고, 네 번째는 꽝이었다. 다섯 번째는 불러저를 멋지게 잘 피했지만, 아주 손쉬운 수비에서 실수를 했다.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해리는 과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후보까지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양피지는 그의 손등에서 흘러내린 핏방울로 온통 얼룩져 있었다.

그의 손등은 쑤시고 화끈거렸다. 해리가 또다시 밖을 내다보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 교훈을 깊이 잘 새겼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삼십 분쯤 지났을 때, 엠브릿지 교수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렸다.

엠브릿지 교수는 그를 향해 다가오더니 반지를 낀 둥툭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새겨진 글씨를 살펴볼 때, 해리는 손등뿐만 아니라 이마에 난 흉터에서도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옆구리 근처 어딘가에서 너무나 이상한 감촉이 전해졌다. 억지로 손을 뺀 해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엠브릿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그 축 늘어진 입으로 만족스런 웃음을 지었다.

"아프지? 그렇지요?"

엄브릿지가 다정하게 물었다.

엄브릿지가 다정하게 물었다.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손이 아프다는 것일까? 아니면 방금 이마에 통증을 느꼈다는 걸 이 여자도 알고 있는 것일까?

"포터 군, 이제야 내 의사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군요. 그만 가도 좋아요."

그는 가방을 집어 들고 최대한 빨리 그 방을 벗어났다.

침착해야 해.

해리는 계단을 쏜살같이 뛰어 올라가면서 스스로를 타일렀다.

침착해야 해. 단지 내 생각을 수도 있어....

해리가 뚱뚱한 여인을 향해 소리치자, 초상화가 앞으로 휙 젖혀졌다.

요란한 함성 소리가 제일 먼저 그를 맞이했다. 론이 얼굴 가득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마구 달려왔다.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술잔에서는 버터 맥주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해리, 해냈어. 불었단 말이야. 내가 파수꾼이 됐어!"

"정말이야? 우와- 훌륭하다!"

해리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노력했다.

"버터 맥주 한 잔 해."

론이 그에게 병을 내밀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헤르미온느는 어디 갔지?"

"저기 있어."

버터 맥주를 들이켜고 있던 프레드가 벽난로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헤르미온느는 거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맥주잔이 거의 떨어질 듯이 위태롭게 간당간당 걸려 있었다.

"어쨌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헤르미온느도 기쁘다고 말했어."

론이 약간 짜증이 나는 듯 이야기했다.

"그냥 자게 내버려 둬."

조지가 활급히 말했다. 해리는 그들 주위에 몰려 있는 신입생들 몇 명의 얼굴에 틀림없이 방금 전에 코피를 흘린 듯한 흔적이 있음을 알아챘다.

"이리 와, 론. 올리버의 선수복이 너에게 맞는지 보자."

케이티 벨이 론을 불렀다.

"그의 이름표를 떼어 내고 그 자리에 네 이름표를 붙이면 될 거야...."

론이 자리를 비우자, 안젤리나가 해리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전에 너에게 화를 내서 미안해, 포터."

안젤리나가 불쑥 사과했다.

"너도 알다시피 팀을 관리하는 일은 피곤한 일이야. 나는 가끔씩 옛날에 우드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안젤리나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술잔 너머로 론을 바라보았다.

"이봐, 저 친구가 너랑 가장 절친한 사이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솔직히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

안젤리나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물론 약간 훈련을 하면 그럭저럭 쓸 만하긴 할 것 같아. 훌륭한 퀴디치 선수들을 배출한 집안 출신이니까 말이야. 나는 저 친구가 오늘 보여 준 것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재능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믿어. 오늘은 빅키 프로비셔와 제프리 후퍼 두 사람이 날기는 훨씬 더 잘 날았어. 하지만 후퍼는 지독한 엄살쟁이라서 항상 징징거리기만 했어. 그리고 빅키는 모임이란 모임에는 안끼는 데가 없어. 본인도 솔직히 인정하더군. 만약 퀴디치 훈련이 마법 클럽 모임과 겹치게 되면, 먼저 마법 클럽 모임에 갈 거라고 말이야. 어쨌든 내일 두 시에 연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나와야 해.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가능하면 론을 좀 많이 도와줘, 알았지?"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젤리나는 앤리샤 스피넷을 향해 걸어갔다.
해리는 헤르미온느 옆으로 다가가서 앉았다. 그가 살며시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헤르미온느가 움찔하더니 잠에서 깨어났다.

"오, 해리, 너구나. 론은 참 잘됐어, 그렇지?"
헤르미온느가 잠에서 덜 깐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너- 너무 피곤해서."

헤르미온느가 하품을 했다.
"모자를 만드느라 한 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 모자가 미친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

물론 해리도 경솔한 집요정들이 무심코 모자를 집어들도록 방 안 곳곳에 텔모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잘됐구나."

해리는 건성으로 맞장구를 친 다음, 재빨리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에게 빨리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 내 말 좀 들어 봐. 내가 엄브릿지 방에서 막 일어섰을 때, 그 여자가 내 팔을 건드렸는데...."

헤르미온느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해리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너는 퀴렐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이 엄브릿지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거지?"

"글쎄...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안 그래?"
해리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약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 자가 퀴렐을 지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엄브릿지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자는 이제 완전히 살아났으니까 말이야. 자기 몸을 가지게 되었으니, 다른 누군가의 몸에 기생할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그 여자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걸었을 수도 있어...."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 리 조던이 빈 맥주잔을 공중에 던지며 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잠깐 지켜보았다. 그때 헤르미온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아무도 널 만지지 않았는데, 이마가 쑤셨잖아.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이 이마의 통증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내 말은 그 통증이 엄브릿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쩌면 그 여자랑 함께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잖아."

"그 여자는 사악하고 생각이 비틀렸어."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 여자는 정말 끔찍해. 하지만... 해리, 덤블도어 교수님께 네 흉터가 다시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틀 동안 덤블도어 교수님을 찾아가 보라는 충고를 두 번이나 들었지만,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도 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이런 일로 교수님을 괴롭힐 생각은 없어. 방금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걸. 솔직히 여름방학 내내 이마의 흉터가 가끔씩 쑤시곤 했어. 다만 오늘 밤에는 훨씬 더 심했을 뿐이야."

"해리, 덤블도어 교수님은 이런 일로 찾아오는 걸 절대로 귀찮아하시지 않을 거야."

"알았어."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불쑥 내뱉고 말았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오직 그거 하나뿐이잖아.
내 흉터, 안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일을 알릴 생각이야. 시리우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

"해리, 편지에 그런 이야기를 쓰면 안 돼!"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다.

"벌써 잊어버렸니? 무디가 우리에게 편지를 쓸 때 꼭 주의하라고 말했잖아! 도중에 부엉이들을 가로챌지도 모른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

해리가 짜증을 부리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그만 자러 갈래. 론에게는 대신 말해 줘."

"어, 그래?"

헤르미온느가 약간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먼저 가면, 내가 자리를 뜨는 것도 별로 무례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 솔직히 나도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일은 모자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있잖아, 원한다면 네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 이것도 해보면 꽤 재미있다니까. 내 솜씨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젠 무늬도 넣고 방울도 달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걸."

해리는 기가 막힌 듯이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헤르미온느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가 자신의 제안에 솔깃해하고 있다고 애써 믿으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 싫어. 고맙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해리가 대답했다.

"어... 어쨌든 내일은 안 돼.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해리는 약간 풀이 죽은 헤르미온느를 뒤에 남겨 둔 채, 남학생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갔다.

제 14 장 퍼시와 패드 풋

다음 날 아침 해리는 누구보다도 일찍 눈을 떴다. 그는 한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드리워진 커튼 사이로 훌러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며 여유를 만끽했다. 학기의 첫 주가 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마치 마법의 역사 수업을 일주일 내내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온 세상이 잠든 것 같은 고요함과 싱그럽고 여린 햇빛을 보니, 이제 막 날이 밝은 것 같았다. 해리는 커튼을 젖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멀리서 지저귀는 새 소리와 깊이 잠든 그리핀도르 친구들의 느린 숨소리뿐이었다. 해리는 살그머니 가방을 열고 양피지와 깃펜을 꺼낸 다음, 침실로 나와서 휴게실로 향했다.

불이 깨진 벽난로 옆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찌그러진 낡은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해리는 곧장 의자로 다가가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양피지를 펼치며 휴게실 안을 둘러보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으레 휴게실을 뒤덮다시피 한 구겨진 종이 뭉치며 낡은 곱스톤, 텅 빈 약병, 사탕 껌데기들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만든 집요정 모자 또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금쯤 얼마나 많은 집요정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얻었을까 생각하면서, 해리는 잉크병을 열고 깃펜에 잉크를 묻혔다. 그리고 한동안 깃펜을 손에 든 채, 매끄러운 노란 양피지를 내려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록 해리는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벽난로를 응시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해리는 이제야 지난여름 동안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시리우스에게 알려 주고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의문들을 남김없이 털어놓으면서도, 편지를 가로챌지도 모르는 염탐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한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벽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해리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다시 한 번 깃펜에 잉크를 묻히고 양피지에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스누플즈

별일 없으시죠. 이곳에서 맞은 첫 번째 주는 정말 꼼찍했어요. 드디어 주말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새로운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선생님으로 엉브릿지 교수가 오셨어요. 아저씨의 어머니만큼이나 좋은 분이세요. 제가 편지를 쓴 것은, 어젯밤 엉브릿지 선생님과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지난여름에 제가 편지에 써 보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의 덩치 큰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답장이 오기를 기다릴게요.

해리

해리는 자신이 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보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짐작해 보려고 애를 썼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만 읽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시리우스가 해그리드에 대한 암시를 눈치 채고 그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려 주기만 바랄 뿐이었다.

해리는 해그리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싶지 않았다. 자칫하면 해그리드가 호그와트를 떠나서 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너무 지나친 관심을 끌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짧았지만, 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해리가 편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햇살이 방 안을 가로질러 절반쯤 비추었다. 위층 침실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양피지 두루마리를 봉인한 다음, 해리는 초상화 구멍 밖으로 기어 나가서 부엉이장으로 향했다.

"내가 너라면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어."

해리가 복도를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목이 달랑달랑한 낙이 벽에서 그의 코앞으로 황급히 튀어나오며 말했다.

"피브스가 저 복도 한가운데 있는 파라셀수스 흉상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주 재미있는 장난을 치려고 벼르고 있거든."

"혹시 지나가는 사람 머리 위에 파라셀수스를 떨어뜨리려는 것 아녜요?" 해리가 물었다.

"우습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목이 달랑달랑한 낙이 따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브스는 가벼운 장난 따위는 관심도 없어. 나는 어서 가서 피투성이 바론을 찾아가봐야겠다. 그러면 피브스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보자... 해리...."

"네, 안녕히 가세요."

해리는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대신, 왼쪽으로 돌아섰다. 부엉이장까지는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했지만, 이 편이 더 안전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하늘이 바라보이는 창문 앞으로 차례차례 지나면서, 해리는 점점 더 기분이 좋아졌다. 잠시 후면 퀴디치 훈련이 있다. 드디어 퀴디치 운동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뭔가 그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밑을 내려다보자, 해골처럼 비쩍 마른 회색 고양이 노리스 부인이 그의 옆을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었다. 노리스 부인은 등잔처럼 생긴 노란 눈으로 그를 한동안 빤히 돌아보더니, 월프레드 동상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해리가 노리스 부인의 등 뒤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틀림없이 뭔가 주인에게 고자질하러 가는 태도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토요일 아침에 부엉이장으로 가는 것은 전혀 거리낄 일이 아니었다.

이제 태양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온통 유리 창문이 달린 부엉이장으로 들어서자, 해리는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수백 마리의 부엉이들이 서까래에 둉지를 틀고 있는 둥근 방 안으로 강렬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부엉이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다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몇 마리는 방금 사냥에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해리가 헤드위그를 찾느라 고개를 뒤로 젓하고 걷다가 조그만 동물 뼈들을 밟자, 지푸라기가 깔린 마루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여기 있었구나."

둥근 천장 제일 높은 곳에서 헤드위그를 발견한 해리가 소리쳤다.

"이리 내려와. 편지를 가져왔어."

헤드위그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커다란 하얀 날개를 짹 펴더니 그의 어깨로 날아와 앉았다.

"그래. 이 봉투 바깥에 스누플즈라고 적혀 있어."

헤드위그는 노란 눈을 한 번 깜박거렸다. 해리는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해리는 헤드위그를 창문 쪽으로 데려갔다. 헤드위그는 그의 팔을 한 번 짹 움켜쥐더니 눈부시게 푸른 하늘로 출찍 날아올랐다. 해리는 헤드위그가 작은 점처럼 작아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 창문에서는 오두막이 아주 잘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창문에는 커튼이 굳게 드리워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점 피어나지 않았다.

금지된 숲의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얼굴에 와 닿는 신선한 바람을 즐기면서 그 나무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퀴디치 연습을 생각했다. 바로 그때 호그와트의 마차를 끌던 그 동물과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날개가 달린 말이 익룡처럼 검은 날개를 짹 펴더니 나무 위로 횡 날아올랐다. 흡사 기괴하게 생긴 거대한 새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것은 빙빙 원을 그리며 솟아오르더니, 다시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해리는 도저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만 심장만 터질 듯이 두근거릴 뿐이었다.

갑자기 부엉이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해리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초 챙이 손에 편지와 꾸러미를 들고 나타났다.

"안녕."

해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인사를 던졌다.

"어... 안녕."

초 챙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 오 분 전에야 오늘이 우리 엄마 생신이라는 게 생각났거든."

초 챙은 꾸러미를 내보였다.

"그럴구나."

해리는 머릿속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았다. 뭔가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날개 달린 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날씨가 참 좋지."

해리는 어색하게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무 당황해서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날씨라니. 고작 날씨 이야기나 하고 있다니.

"그래."

초는 적당한 부엉이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퀴디치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야.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

보지 못했어, 나는?"

"나도 마찬가지야."

초는 학교의 헛간 부엉이를 한 마리 골랐다. 그녀의 팔뚝 위에 내려앉은 부엉이는 그녀가 선물 꾸러미를 발목에 매다는 동안, 양전하게 한쪽 다리를 내밀고 있었다.

"그리핀도르는 새로운 파수꾼을 뽑았니?"

초가 물었다.

"응. 내 친구 론 위즐리가 뽑혔어. 너도 알지?"

"토네이도즈 팀을 싫어하는 그 친구?"

초가 다소 쌀쌀맞게 말했다.

"실력은 괜찮니?"

"응. 그런 것 같아. 사실 그 친구가 테스트받는 걸 보진 못했어.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거든."

초가 부엉이의 다리에 꾸러미를 매달다 말고 고개를 번쩍들었다.

"엄브릿지 그 여자는 정말 못됐어."

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단지 네가 그-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너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다니 말이야. 모두 그 이야기를 들었어. 학교 전체에 소문이 다 났으니까. 넌 아주 용감하게 그 여자와 맞선 모양이더라."

순간 해리는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는데, 부엉이 똥이 여기저기 흘어진 마루 위로 몸이 정말로 몇 센티미터쯤 둥둥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날아다니는 말 따위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 초가 그를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 동안 해리는 부엉이의 다리에 꾸러미를 매달고 있는 초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처가 난 손등까지 보여 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런 짜릿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는 순간, 또다시 부엉이장의 문이 열렸다.

관리인 필치가 씨근거리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훌쭉한 그의 얼굴에는 붉으락푸르락한 핏대가 섰고 그의 턱은 부르르 떨렸으며 힘없는 회색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단숨에 뛰어온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의 뒤를 이어 나타난 노리스 부인이 부엉이들을 올려다보며 배가 고풀 듯이 입맛을 다셨다. 그러자 머리 위에서는 불안하게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고, 커다란 갈색 부엉이가 위협적으로 부리를 딱딱거렸다.

"아하!"

필치가 해리를 향해 다가오면서 소리쳤다. 그의 축 처진 두 뺨은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네 녀석이 똥 폭탄을 대량 주문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해리는 팔짱을 끼고 관리인을 노려보았다.

"내가 똥 폭탄을 주문한다고 누가 그래요?"

초는 얼굴을 찌푸리며 해리와 필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쪽 다리를 내밀고 서 있는데 지친 헛간 부엉이가 그녀의 팔위에서 경고하는 울음소리를 냈지만, 못 들은 척했다.

"나에게도 소식통이 있지."

필치는 만족스런 듯이 말했다.

"이제 보내려고 하던 걸 그만 내놓아 보시지."

해리는 망설이지 않고 편지를 곧장 부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없어요. 벌써 보냈어요."

"보냈다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보냈어요."

해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필치는 화가 나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눈으로 해리의 옷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네 호주머니에 숨기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하지?"
"왜냐하면-."
"해리가 보내는 걸 저도 봤어요."
초가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필치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네가 봤다고-?"
"네. 제가 봤어요."
초는 분명하게 말했다. 필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초를 노려보았다.
그녀도 지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필치는 흉 돌아서더니 문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리고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해리를 돌아보았다.
"만약 똑 폭탄의 냄새라도 맡는 날에는...."
필치는 풍풍거리며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노리스 부인은 아쉬운
눈빛으로 부엉이들을 바라보더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해리와 초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고마워."
해리가 인사를 했다.
"천만의 말씀."
마침내 혀간 부엉이의 다리에 꾸러미를 매단 초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설마 정말 똑 폭탄을 주문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해리가 말했다.
"그런데 왜 필치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초는 창문 쪽으로 부엉이를 데려가며 말했다. 해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초 쟁만큼이나 해리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그런 일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엉이장에서 나왔다. 성의 서쪽 건물로 향하는 계단
앞에 이르자, 초가 말했다.
"난 이쪽으로 가야 해. 나중에... 보자, 해리."
초 쟁은 미소를 던지고 가 버렸다. 해리는 우쭐한 기분으로 씩씩하게
걸어갔다. 초 쟁과 끝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 한번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넌 아주 용감하게 그 여자와 맞선 모양이더라.... 초가 그를 용감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혼자 살아서 돌아온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물론 초는 케드릭을 더 좋아했다. 해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케드릭보다 먼저 무도회에 가자고 말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해리가 무도회 파트너 신청을 했을 때, 초는 거절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잘 잤어?"
대연회장의 그리핀도르 테이블에서 론과 헤르미온느를 만난 해리는
명랑하게 인사를 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론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음... 조금 있다가 쿠디치를 하잖아."
해리가 베이컨과 달걀이 담긴 커다란 접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
론은 먹고 있던 토스트 조각을 내려놓고 커다란 호박 주스잔을 집어
들어들었다.
"해리... 혹시 나랑 조금 일찍 나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나랑 연습 좀 하면 안 될까? 그럼 거리감을 좀 익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물론이지?"
해리가 말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헤르미온느가 심각하게 반대했다.

"너희 두 사람 모두 숙제가 많이 밀렸다"

헤르미온느가 말을 멈추었다. 아침 우편물이 도착한 것이다. 늘 그렇듯이 부엉이 한 마리가 <예언자 일보>를 입에 물고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설탕 그릇 옆에 신문을 톡 떨어뜨리더니, 한쪽 다리를 쑥 내밀었다. 헤르미온느는 가죽 주머니 안에 1크넛을 넣은 다음 신문을 집어 들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1면 기사를 살펴보았다. 부엉이는 다시 날아가 버렸다.

"뭐 재미있는 기사라도 있어?"

론이 물었다. 해리는 어떻게든 헤르미온느가 다시 숙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를 쓰는 론을 보며 씩 웃었다.

"아니."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쉬었다.

"운명의 세 여신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가 결혼을 한다는, 쓸데없는 기사뿐이야."

헤르미온느는 신문을 펼쳐 들고 얼굴을 파묻었다. 해리는 다시 달걀과 베이컨을 먹는 데 열중했다. 한편 론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표정으로 높이 있는 유리창 밖을 올려다보았다.

"잠깐만!"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소리쳤다.

"오, 안 돼... 시리우스!"

"무슨 일이야?"

해리는 황급히 신문을 낚아챘다. 그 바람에 신문 가운데 찢어져 버렸다.

헤르미온느와 해리는 각자 신문을 절반씩 손에 쥐고 읽어 내려갔다.

"마법부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하여 악명 높은 대량 학살자 시리우스 블랙이... 최근 런던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헤르미온느가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손에 쥔 반쪽 신문을 읽어 내려갔다.

"틀림없이 루시우스 말포이일 거야."

해리가 치를 떨며 말했다.

"기차역에서 시리우스를 알아보았거든...."

"뭐라고? 넌 그런 말을 하지!"

론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쉿!"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속삭였다.

"... '마법부는 블랙이 열세 명의 사람을 죽이고... 아즈카반의 감옥을 탈출한,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마법사 사회에 경고했다....' 나머지는 늘 하는 혀소리야."

헤르미온느가 반으로 찢어진 신문을 내려놓으며 겁에 질린 눈길로 해리와 론을 쳐다보았다.

"이제 시리우스는 절대로 그 집을 떠날 수 없을 거야. 덤블도어 교수님도 그렇게 경고했잖아."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해리는 자기가 들고 있는 <예언자 일보>를 우울하게 내려다보았다. 막힌 부인의 전천후 망토 가게에 대한 광고가 신문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일 중인 것 같았다.

"이봐, 여기 좀 봐!"

해리는 헤르미온느와 론이 볼 수 있도록 신문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난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어."

론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니, 여길 봐. 여기 이 작은 기사 말이야...."

론과 헤르미온느는 좀더 바싹 몸을 숙이고 자세히 신문을 읽었다. 신문 사설 오른쪽 하단에, 불과 1센티미터도 안 되는 길이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마법부 침입 사건

클래펑, 래버넘 가든 2번지에 사는 스터지스 포드모어(38세)는 8월 31일 마법부 무단 침입 및 강도 혐의로 위즌가모트에 소환되었다. 포드모어는 마법부의 경비 마법사인 에릭 먼치에 의해 체포당했다. 발견 당시 포드모어는 새벽 한 시에 일급 기밀이 보관되어 있는 방에 강제 침입하려고 시도 중이었다. 자신에 대한 변호를 거부하고 있는 포드모어는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아즈카반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스터지스 포드모어?"

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머리가 텁수룩한 그 친구 아니야, 그렇지? 그 친구도 기사~"

"론, 조용!"

헤르미온느가 걱정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론에게 주의를 주었다.

"아즈카반에서 6개월형이라고!"

해리가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렸다.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을 뿐인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던게 아니야. 도대체 새벽 한 시에 마법부에서 월 한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핀잔을 주었다.

"그럼 기사단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

론이 중얼거렸다.

"잠깐만... 스터지스는 우리를 경호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어. 기억나?"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다른 두 사람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원래는 킹스 크로스 역까지 우리를 경호할 사람들 중 하나였어. 그런데 스터지스가 나타나지 않아서 무디가 계속 짜증을 냈잖아. 그래서 스터지스가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모양이군. 안 그래?"

"맞아, 아마 사람들은 그가 불잡힌 줄 전혀 몰랐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어쩌면 누명을 쓴 걸지도 몰라!"

론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니, 내 말 좀 들어 봐!"

론은 위협적인 헤르미온느의 표정을 보자, 갑자기 목소리를 확 낮추며 속삭였다.

"마법부에서는 그가 덤블도어의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을 거야. 그래서 그를 마법부로 불러낸 거지. 스터지스는 문을 열 생각조차 없었어! 어쩌면 마법부에서 그를 체포하려고 모두 꾸며 낸 이야기일지 몰라!"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잠시 론의 주장을 되새겨 보았다. 해리는 너무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했지만, 헤르미온느는 꽤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야."

헤르미온느는 반쪽으로 찢어진 신문을 접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해리가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는 순간, 몽상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맞아. 이제 우리는 스프라우트 교수님이 내주신, 스스로 비료를 주는 관목에 대한 작문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점심 먹기 전에 맥고나걸 선생님의 이나니마투스 콘주루스 주문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해리는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산더미 같은 숙제들을 생각하자,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하늘은 저토록 눈부시게 푸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파이어볼트를 타 보지 못했다....

"정말이야. 오늘 밤에 다 할 수 있어."

비탈진 잔디밭을 지나 퀴디치 운동장으로 걸어가면서, 론이 위로하듯이 말했다. 그들은 각자 빗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들의 굿가에는 그러다가 틀림없이 O.W.L.에서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던 헤르미온느의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 헤르미온느는 너무 숙제에 열심히란 말이야. 그게 마로 그 애의 문제야."

론이 잠시 입을 다물더니 약간 걱정스런 어조로 덧붙였다.

"헤르미온느가 두 번 다시 자기 공책을 베끼지 못하게 한다고 했던 말, 설마 진심일까?"

"그래, 진심일 거야."

해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중요해. 퀴디치 팀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연습을 해야 하니까 말이야."

"네 말이 맞아."

론이 진심으로 맞장구를 쳤다.

"더구나 시간은 충분해."

퀴디치 운동장에 가까이 갔을 때, 해리는 오른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그곳에서는 어두컴컴한 금지된 숲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저 멀리 부엉이 몇 마리만이 부엉이장이 있는 탑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을 뿐, 하늘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해리는 걱정거리가 태산이었다. 날개 달린 말은 그에게 아무런 해도 입하지 않았다. 해리는 잠시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들은 탈의실에 있는 서랍장에서 공을 골라 연습을 시작했다. 론은 높은 골대 세 개를 지키고, 해리는 추격꾼이 되어서 케이플을 집어넣었다. 해리는 론이 꽤 잘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해리가 친 공의 사 분의 삼을 막아 냈다. 그리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더 좋아졌다. 두 시간 후에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성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으면서 헤르미온느는 자신이 그들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해리와 론은 진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퀴디치 운동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안젤리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벌써 와 있었다.

"잘 지냈니, 론?"

조지가 그에게 눈을 찡긋했다.

"응."

론은 운동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우리에게 솜씨를 보여 줄 준비가 되셨나? 귀영동이 반장님?"

프레드가 퀴디치 선수복 밖으로 형틀어진 머리를 불쑥 내밀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심술궂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만 해."

론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난생 처음 선수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보다 어깨가 넓은 올리버 우드의 옷을 물려받은 것인데도 그럭저럭

론에게 잘 맞았다.

"좋아. 모두들 나가자."

벌써 선수복으로 갈아입은 안젤리나가 주장 사무실에서 나왔다.

"앨리샤와 프레드는 공 상자를 가지고 나와. 오, 저기 우릴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있군. 하지만 부디 신경 쓰지 않길 바라, 알았지?"

억지로 태연한 척하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해리는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누구인지 벌써 짐작이 갔다. 과연 탈의실에서 나와 햇살이 눈부신 운동장으로 들어섰을 때, 슬리데린 퀴디치 팀으로부터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슬리데린 팀의 열성 팬들이 텅 빈 관중석 중간쯤에 모여서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로 커다랗게 울려 퍼졌다.

"위즐리가 타고 있는게 뭐지?"

말포이가 특유의 멀시 어린 느린 말투로 소리쳤다.

"도대체 저렇게 케케묵은 낡은 막대기에 하늘을 나는 마법을 왜 걸었을까?"

크레이브와 고일 그리고 팬시 파킨슨은 배꼽이 빠져라 큰 소리로 웃어 댔다. 얼른 빗자루에 올라탄 론은 땅을 박차고 솟아올랐다. 그의 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면서, 해리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냥 무시해 버려."

해리가 론을 따라잡으려고 박차를 가하면서 충고했다.

"어디 시합이 끝난 후에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

"해리,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태도야."

안젤리나가 퀘이풀을 옆구리에 끼고 그들 주위를 맴돌며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속력을 줄이고 하늘에 떠 있는 선수들 앞에 멈춰 섰다.

"좋아. 모두들 몸을 푸는 단계로 우선 패스 연습을 시작해보자. 팀 전체는—"

이봐, 존슨. 도대체 그 머리 스타일은 뭐야?"

팬시 파킨슨이 밑에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라도 벌레가 기어 나올 것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걸까?"

안젤리나는 길게 땋은 머리를 뒤로 훑 젖히면서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럼, 모두 흘어져.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해리는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돌아서서 운동장 끝으로 갔다. 론은 반대편 골대로 향했다. 안젤리나는 퀴풀을 높이 쳐들더니 프레드를 향해 힘껏 던졌다. 그는 다시 조지에게 패스를 하고, 조지는 해리에게, 해리는 론에게 패스를 했다. 론은 그만 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말포이를 선두로, 슬리데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함성을 지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퀴풀이 땅에 달기전에 불잡으려고 바닥을 향해서 돌진한 론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빗자루에 비스듬히 매달린 채, 얼굴을 붉히며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그 점이 무척 고마웠다.

"론, 이쪽으로 패스해."

안젤리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론은 퀴풀을 앤리샤에게 던졌고 앤리샤는 해리에게, 해리는 조지에게 패스했다.

"포터, 요즘 네 이마의 흉터는 어떠냐?"

말포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혹시 누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나오면 너로서는 신기록 아니니? 안 그래?"

조지가 안젤리나에게 공을 패스하자, 안젤리나는 뒤쪽의 해리에게 패스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공이었지만, 해리는 아슬아슬하게 공을 불잡아서 재빨리 론에게 패스했다. 론은 얼른 몸을 날렸지만, 몇 센티미터 차이로 공을 놓쳤다.

"이봐, 론. 정신 차려."

또다시 퀴풀을 쫓아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론을 보고, 안젤리나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론이 다시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론의 얼굴이 더 빨간지 퀴풀이 더 빨간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제 말포이와 슬리데린들은 운동장이 떠나가라 약자지껄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론은 간신히 퀴풀을 잡았다. 하지만 안도감 때문인지 너무 힘껏 공을 패스하는 바람에, 공이 케이티의 쪽 벙은 손을 지나서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혔다.

"미안!"

론은 신음 소리를 내며, 혹시 다치지 않았는지 보려고 황급히 앞으로

날아갔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케이티는 괜찮아!"

안제릴나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자기 팀 선수에게 공을 패스할 때는 빗자루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건 블러저가 할 일이야!"

케이티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밑에서는 슬리데린들이 발을
구르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프레드와 조지가 케이티에게 다가갔다.

"여기 이걸 먹어."

프레드가 호주머니에서 보라색이 나는 원가를 꺼내더니 케이티에게
주었다.

"순식간에 멈출 거야."

"좋아."

안젤리나가 소리쳤다.

"프레드, 조지. 제자리로 가서 방망이와 블러저를 들어. 론, 골대로
올라가. 해리, 내가 말을 하면 스니치를 풀어놓도록 해. 이제 우리는 론의
골대를 향해 공을 넣을 거야."

해리는 스니치를 가지려 쌍둥이 형제와 함께 날아갔다.

"론이 모든 것을 영망으로 만들고 있지, 안 그래?"

조지가 중얼거렸다. 공이 담긴 상자가 있는 곳에 착륙한 세 사람은
상자를 열고 블러저 하나와 스니치를 꺼냈다.

"긴자해서 그래. 오늘 아침에 나랑 연습할 때는 괜찮았어."

"그래, 너무 일찍 실력을 발휘하게 될까 걱정이다."

프레드가 우울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다시 공중으로 떠올랐다.

안젤리나가 호루라기를 불자, 해리는 스니치를 풀어놓았다. 동시에
프레드와 조지는 블러저를 날렸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해리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날개를
팔락거리는 작은 황금색 공을 다시 잡는것만이 그의 일이었다. 저 공은
자신을 잡은 수색꾼의 팀에 150 점을 안겨다 줄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속력과 기술을 필요로 했다. 해리는 빠르게 속력을 내면서 몸을
빙빙 돌리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추격꾼들을 따돌렸다. 따듯한 가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슬리데린의 함성소리가 그의 귀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곧바로 호루라기 소리가 그를
다시 멈춰 세웠다.

"그만- 그만- 그만!"

안젤리나가 비명을 지르듯이 고함을 쳤다.

"론, 중간 골대를 막지 않고 있잖아!"

해리는 론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두 개의 골대를 완전히 비워 둔 채,
왼쪽 끝에 있는 골대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다.

"어... 미안...."

"추격꾼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골대를 왔다갔다해야 해!"

안젤리나가 소리쳤다.

"골대를 지키거나 골대 주위를 돌아야 할 경우가 아니면, 가운데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지. 애매하게 한쪽 골대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이미 세 골이나 허용한 거라고!"

"미안해...."

론이 되풀이해서 사과했다.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베이컨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이 더욱 붉게 보였다.

"그리고 케이티, 그 코피 좀 어떻게 멈출 수 없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케이티가 소맷자락으로 흐르는 피를 막으려고 애를 쓰면서 말했다.

해리는 재빨리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면서 호주머니를
살펴보고 있었다. 프레드는 보라색이 나는 원가를 꺼내서 잠시 살펴보더니,
겁에 질려 새파랗게 변한 얼굴로 케이티를 돌아보았다.

"좋아, 그럼 다시 한 번 해보자."

안젤리나가 '그리핀도르 패배자들, 그리핀도르 패배자들'이라고 입을 모아 함창을 하고 있는 슬리데린들을 무시하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자루에 올라타고 있는 그녀의 태도에는 위엄이 넘쳤다.

이번에는 다시 날기 시작한 지 채 삼 분도 안 되어 안젤리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에 반대편 골대 주위를 맴돌고 있는 스니치를 발견했던 해리는 못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또 뭐야?"

해리가 가까이 있는 앤리샤에게 투덜거렸다.

"케이티야."

앤리샤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해리는 몸을 돌려서 안젤리나를 바라보았다. 프레드와 조지가 동시에 전속력으로 케이티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해리와 앤리샤도 그녀를 향해 날아갔다. 안젤리나가 제때에 훈련을 멈추게 한 것이 분명했다. 케이티는 이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분필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이다.

"병동으로 가야겠어."

안젤리나가 말했다.

"우리가 데려갈게."

프레드가 말했다.

"어- 그러니까 실수로 출혈 물집 알약을 삼켰을지도 몰라."

"몰이꾼과 주격군이 빠진 채, 연습을 계속할 수는 없어."

프레드와 조지가 케이티를 부축하고 성을 향해 날아가자. 안젤리나가 맥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가서 옷을 갈아입자."

슬리데린들은 탈의실로 향하는 그들의 뒤에 대고 계속 노래를 불러 댔다.

"연습은 어땠어?"

삼십 분 후에 론과 해리가 초상화 구멍을 지나서 그리핀도르 휴게실로 들어오자, 헤르미온느가 다소 쌀쌀맞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연습은-"

해리가 입을 열자마자, 론이 헤르미온느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을 가로챘다.

"완전히 엉망이었어."

헤르미온느는 론을 한 번 쓱 쳐다보았다. 금방 쌀쌀맞은 태도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너는 훈련이 처음이잖아."

헤르미온느가 그를 위로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야-"

"도대체 나 때문에 훈련이 엉망이 되었다고 누가 그래?"

론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무도 안 그랬어. 하지만 내 생각에-"

헤르미온느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당연히 형편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 봐. 네가 연습이 엉망이었다고 하길래 난 그저-"

"난 그냥 숙제나 할래."

론이 통명스럽게 말하더니 남학생 침실을 향해서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돌아보았다.

"론이 형편없었어?"

"아니야."

해리는 신의를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눈을 치켜뜨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실력 발휘를 다 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네가 말한 대로 이번이 첫

번째 훈련이니까..."

해리도 론도 그날 밤에는 별로 숙제를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았다.
해리는 론이 퀴디치 연습에서 자신이 형편없었다는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또한 '그리핀도르 패배자'라는 노랫소리를
머릿속에서 떨쳐 버리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숙제 더미에 파묻힌 채, 일요일 내내 휴게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동안 학생들은 휴게실을 채웠다가 썰물처럼 다시 빠져나갔다. 일요일도
환하고 맑은 날씨였다. 그리핀도르의 학생들은 대부분 그 해의 마지막
햇살을 실컷 즐기려는 듯이 운동장에 나가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해리는 누군가 머릿속을 마구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는 주중에 좀더 많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

해리가 론에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마침내 맥고나걸 교수의
이나니마투스 콘주루스 주문에 대한 기나긴 보고서를 마치고 시니스트라
교수의 목성에 있는 수많은 달에 대한, 역시 길고 어려운 보고서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그래."

론이 충혈된 눈을 비비며 다섯 번째로 망친 양피지 종이를 벽난로 속에
던져 버렸다.

"저기... 헤르미온느에게 숙제 해 놓을 걸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해
볼까?"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슬쩍 넘겨다보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크록생크를
올려놓고 앉아서 지니와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서는 한
쌍의 뜨개질바늘이 허공에 뜬 채, 이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집요정
양말을 열심히 뜨고 있었다.

"안 돼. 절대 보여 주지 않을 거야."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창 밖의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공부를 계속했다. 차츰 휴게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열한 시 반이 지나자, 헤르미온느도 하품을 하며 그들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거의 끝났니?"

"아니."

론이 짤막하게 대꾸했다.

"목성의 가장 큰 달은 칼리소트가 아니라 가니메데아야."

헤르미온느가 론의 어깨 너머로 그의 천문학 보고서 한 곳을 짚으며
말했다.

"그리고 화산이 있는 곳은 이오야."

"고맙구나."

론이 잘못된 부분을 썩썩 지우며 쏘아붙였다.

"미안해. 난 그저~"

"그래. 우리 잘못을 꼬집으려고 온 거라면 그만 됐어."

"론~"

"헤르미온느, 난 설교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난 여기 이 숙제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아니, 저걸 봐!"

헤르미온느가 제일 가까이 있는 창문을 가리켰다. 해리와 론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잘생긴 헛간 부엉이 한 마리가 창문틀 위에 앉아 론을
응시하고 있었다.

"헤르메스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래, 맞아!"

론이 조용히 깃펜을 내던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퍼시가 나에게 무슨 편지를 보낸 거지?"

론은 창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다. 헤르메스는 안으로 날아

들어오더니 론의 보고서 위에 앉아서 편지가 묶여 있는 한쪽 다리를 내밀었다. 론이 편지를 받자, 부엉이는 이오 위성을 그린 론의 보고서 위에 발자국을 남긴 채, 즉시 날아가 버렸다.

"이건 분명 퍼시의 글씨야."

론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두루마리 곁에 쓰인 글씨를 읽었다.
호그와트, 그리핀도르 기숙사, 로날드 위즐리. 론은 고개를 들고 다른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얼른 열어 봐!"

헤르미온느가 재촉했다. 해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론은 두루마리를 펼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피지를 따라 시선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도 점점 더 심하게 찌푸려졌다. 마침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론은 거의 토했던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 편지를 내던졌다. 두 사람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편지를 읽었다.

친애하는 론

나는 방금 전에야 네가 호그와트 반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름 아닌 마법부 장관님의 입을 통해서 말이야. 그분은 너희들이 새로운 선생님이신 엄브릿지 교수님께 들었다고 하시더구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척 기뻤다. 그리고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솔직히 나는 네가 나의 뒤를 따라오기보다는, 행여 프레드와 조지의 전철을 밟거나 않을까 항상 걱정했었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권위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책임을 짊어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론, 나는 너에게 축하 인사보다도 충고 몇 마디를 해주고 싶구나. 보통 아침 우편 대신 지금 이 밤중에 편지를 보내는 것도 그 때문이란다. 부디 괜히 이상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장관님께서 네가 반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얼핏 훌리신 몇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너는 아직도 해리 포터를 자주 만나고 있는 모양이더라. 하지만 론, 그 아이와 계속 시시덕거리며 어울리다가는 반장 배지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꼭 말해 주고 싶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넌 무척 놀란 게다. 그리고 포터는 항상 덤블도어가 가장 총애하는 학생이었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덤블도어는 조만간 호그와트에서 물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터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다른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다. <예언자 일보>를 보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도 정확히 알게 될 게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게다!

론, 너도 포터처럼 똑같이 자기 이름에 막칠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 너의 장래에도 아주 커다란 해를 입힐 수 있단다. 나는 학교를 졸업한 뒤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네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를 법정에까지 데려갔을 때, 포터는 위즌가모트 전원 앞에서 징계 청문회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렇게 보기 좋게 빠져나오지 못했어. 포터는 단지 기술적으로 벗어났을 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어.

어쩌면 너는 포터와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녀석이 아주 불안정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거나, 포터가 조금이라도 너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거든 즉시 돌로레스 엄브릿지 선생님께 말씀드리렴, 참으로 좋으신 분이니까 너에게 기꺼이 적절한 충고를 해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다시 너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구나. 내가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덤블도어 교수는 호그와트에서 곧 물러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론, 너는 덤블도어 그 사람이 아니라, 학교와 마법부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 엄브릿지 교수가 호그와트

내에서 꼭 필요하고 마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몹시 안타까웠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모든 일이 훨씬 더 쉬워질 거다. 내일 자 <예언자 일보>를 보렴!) 나는 단지 이 말만을 해주고 싶다. 지금 엄브릿지 교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학생은 일이 년 안에 학생회장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이다!

여름방학 내내 너를 만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구나. 우리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이 무척 괴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덤블도어 주변의 위험한 무리들과 계속 어울려 지내시는한, 나는 더 이상 그분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언젠가는 엄마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 덤블도어의 가까운 친구인 스터지스 포드모어가 최근에 마법부를 무단 침입한 죄로 아즈카반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꼭 알려 드리렴, 어쩌면 이 일로 엄마도 최근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 범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실지도 모르지.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마법부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셈이지. 론, 부디 가족이라는 정에 얹매여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행동의 그릇된 점까지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때가 되면, 그분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겠지. 그날이 오면, 나는 물론 기꺼이 그분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다.

부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특히 해리 포터에 대한 충고를 잊지 말거라. 다시 한 번 반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 사랑하는 형, 퍼시

해리는 론을 바라보았다.

"걱정 마, 론. 설사 네가 - 그러니까- 뭐라고 썼더라?"

해리는 퍼시의 편지를 그저 웃기는 농담처럼 생각한다는 티를 내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그리고 퍼시의 편지를 다시 살펴보는 척했다.

"그래, 바로 여기 있구나. 설사 네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 난 절대로 폭력적이 되지 않을게. 맹세할 수 있어."

"그만 돌려줘."

론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퍼시의 편지를 반으로 쪽 치었다.

"퍼시는 정말~"

론은 또다시 편지를 반으로 치었다.

"세상에서 제일가는~"

론은 또다시 편지를 반으로 치었다.

"멍청이야."

그리고 찢어진 조각을 불 속에 집어던졌다.

"서두르자. 우린 날이 밝기 전에 이 숙제를 끝내야만 해."

론이 시니스트라 교수의 보고서 숙제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거 이리 쥐 봐."

헤르미온느가 불쑥 입을 열었다.

"뭐라고?"

론이 물었다.

"그거 나 달라고. 내가 읽어 보고 틀린 걸 고쳐 줄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정말이야? 오, 헤르미온느, 넌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론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다.

"그저 '두 번 다시 이렇게 숙제를 미루어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라고 말하면 돼."

헤르미온느는 두 사람의 숙제를 양손에 받았다. 그러나 웬지 즐거운

표정이었다.

"너무너무 고마워, 헤르미온느."

해리가 힘없이 숙제를 건네주더니 의자에 텔썩 주저앉아서 졸린 눈을 비볐다. 자정이 지나자, 휴게실에는 세 사람과 크룩생크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헤르미온느의 깃펜이 보고서 여기저기를 고치며 사각거리는 소리와 책상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참고 서적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느라 책장을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해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 동시에 뱃속이 텅 비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피곤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순전히 저 벽난로 속에서 검게 타오르고 있는 편지 때문이었다. 호그와트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를 이상한 놈이라고,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해리도 잘 알고 있었다. <예언자 일보>가 몇 달 동안이나 그에 대해서 악의에 찬 비방을 해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런 내용이 쓰여 있는 퍼시의 편지를 직접 읽는 것은 또 달랐다. 퍼시가 론에게 그를 사귀지 말라고, 심지어 엄브릿지에게 가서 그를 고자질하라고 충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욱 절감하도록 만들었다. 해리는 지난 4년 동안 퍼시를 알고 지냈고 여름방학이면 그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심지어 퀴디치 월드컵 경기 때에는 그와 같은 천막을 쓰기도 했다. 또한 지난 트리위저드 시합의 두 번째 시험 때에는 그에게서 만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퍼시는 그가 불안정하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대부에 대한 연민이 밀려오면서, 해리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리우스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시리우스도 지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었다. 마법사 세계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리우스를 위험한 살인자에다 볼드모트의 열렬한 추종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리우스는 14년 동안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해리는 눈을 깜박했다. 방금 전 벽난로 속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잠깐 눈앞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시리우스에 대한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헛것을 본 거야.

"좋아. 이렇게 다시 적어."

헤르미온느가 자신이 적어 놓은 종이와 론의 보고서를 되돌려 주며 말했다.

"그런 다음 내가 써 준 결론을 덧붙이도록 해."

"헤르미온느, 넌 정말 내가 만난 최고의 친구야."

론이 힘없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너에게 무례하게 굴거든~"

"그래 봤자, 네가 다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헤르미온느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해리, 네 보고서는 끝에 몇 가지면 빼면 다 괜찮아. 아마 시니스트라 교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유로파(목성의 4 대 위성 중 하나 : 역주)는 쥐가 아니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해리?"

해리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불에 그을리고 낡아빠진 벽난로 앞 깔개 위에 웅크린 채, 불 속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해리?"

론이 망설이며 물었다.

"왜 거기 앉아 있는 거니?"

"방금 전 불 속에서 시리우스의 머리를 보았거든."

해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작년에도 이 벽난로 속에서 시리우스의 머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짜로 머리를 본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너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시리우스의 머리?"

헤르미온느가 다시 물었다.

"트리위저드 시합 때처럼 그가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너무 위- 시리우스!"

헤르미온느는 입을 딱 벌리고 벽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론은 깃펜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길 한가운데 시리우스의 머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싱끗 웃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 버리기 전에 너희들이 자러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리우스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매 시간 살펴보고 있었지."

"시간마다 벽난로 속에 나타났었단 말인가요?"

해리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없는지 살펴보려고 잠깐잠깐 나타났었지."

"하지만 그러다가 다른 사람 눈에라도 띄면 어떻게 해요?"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글쎄. 아마 신입생인 것 같은 한 여학생이 조금 전에 나를 얼핏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헤르미온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깜짝 놀라자, 시리우스는 황급히 덧붙였다.

"그 여학생이 나를 돌아보자마자, 내가 곧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틀림없이 그 여학생은 내가 이상하게 생긴 통나무거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시리우스,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헤르미온느가 잔소리를 시작했다.

"네 말투가 꼭 몰리 같구나. 하지만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리의 편지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말이야. 게다가 암호는 해독할 수도 있어."

해리가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듣자, 헤르미온느와 론이 동시에 해리를 쳐다보았다.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비난했다.

"깜박 잊었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부엉이장에서 초를 만나고 나자, 다른 모든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헤르미온느,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 비밀 정보는 한 마디도 새어 나가지 않도록 썼어. 그렇죠, 시리우스?"

"그래, 아주 훌륭했다."

시리우스가 빙그레 웃었다.

"어쨌든 서두르는 게 좋겠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 흉터 말이다."

"뭐라고요?"

론이 끼어들려고 하자,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가로막았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계속하세요, 시리우스."

"흉터가 또 아프다면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난해 동안 계속 아팠던 게 사실이잖아?"

"그래요. 덤블도어 교수님은 볼드모트가 어떤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마다 통증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해리는 늘 그렇듯이 론과 헤르미온느가 찔끔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무시해 버렸다.

"그렇다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머지 공부를 밟던 그날 밤에 그자는
몹시 화가 났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자가 돌아왔으니, 흉터가 더 자주 쑤시는 건 당연해."

시리우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나머지 공부를 할 때, 엄브릿지가 저를 만진 것과
흉터가 쑤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해리가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다."

시리우스가 말했다.

"나도 그 여자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죽음을
먹는 자는 아닐 거야-."

"그 여자는 그러고도 남을 여자예요."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온 세상이 착한 사람과 죽음을 먹는 자, 둘로만 나뉘지는
것은 아니야."

시리우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여자가 꽤 고약하다는건 나도 알아. 리무스가 그 여자에 대해서 한
말을 너도 들어 봤어야 하는데."

"루핀이 그 여자를 안단 말인가요?"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문득 첫 수업 시간에 엄브릿지가 위험한 잡종에
대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니야. 하지만 그 여자는 2년 전에 늑대인간 반대 법안을 제안한
장본인이야. 그 덕분에 루핀은 더 이상 직업을 얻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지."

해리는 요즘 들어 점점 더 추레해진 루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엄브릿지에 대한 미움이 더욱 깊어졌다.

"그 여자는 늑대인간을 왜 반대하는 거죠?"

헤르미온느가 화가 나서 물었다.

"무서운 게지."

시리우스가 흥분하는 헤르미온느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여자가 반 인간을 혐오하는 것은 분명해. 작년에는 인어들을 가두어
놓고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단다. 크리처 같은
부랑자들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판에 인어들을 괴롭히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상상해 봐라."

론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헤르미온느는 불쾌한 표정이었다.

"시리우스! 솔직히 아저씨가 조금만 크리처에게 관심을 쏟는다면,
틀림없이 크리처도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크리처에게 남아
있는 가족이라고는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덤불도어 교수님도 말씀하시길-"
헤르미온느가 잔소리를 늘어놓자, 시리우스가 도중에 끼어들었다.

"그래, 엄브릿지의 수업은 어땠니? 너희에게 잡종을 죽이는 훈련이라도
시키든?"

"아니요."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못 본 척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녀는 크리처를
옹호하던 말이 가로막히자,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마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한심한 교과서만 읽게 하는걸요."

론이 투덜거렸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지."

시리우스가 말했다.

"마법부 내부의 정보에 따르면, 퍼지는 너희들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전투 훈련이라고요!"

해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풀이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법사 군대라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퍼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덤블도어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봐 두려운 거겠지. 개인 군대를 양성해서 언젠가 마법부를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이 말을 듣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론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멍청한 말은 생전 처음 들어 봐요. 루나 러브굿이 하는 그 영터리 같은 말까지 다 포함해도 말이죠."

"그러니가 마법부를 상대로 우리가 마법을 쓸까 봐 겁이 나서, 퍼지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한 거로군요."

헤르미온느가 성난 얼굴로 말했다.

"맞아, 퍼지는 덤블도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불사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요즘 들어 퍼지는 덤블도어에 대해서 더욱 광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 이마다가는 퍼지가 날조된 죄목으로 덤블도어를 체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봐."

이 말을 듣자, 해리는 문득 퍼시의 편지가 떠올랐다.

"내일 자 <예언자 일보>에 덤블도어에 대해서 무슨 기사가 실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론의 형인 퍼시의 말에 따르면—"

"나도 모르겠다. 주말 내내 기사단 사람들을 한 명도 못 봤거든. 모두 굉장히 바빠서 말이야. 여기는 크리처와 나밖에 없어..."

시리우스의 목소리에는 쓸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해그리드에 대해서도 무슨 소식 못 들으셨어요?"

"아참. 해그리드는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

순간 충격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시리우스는 황급히 덧붙였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계시니까, 너희 세 사람도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해그리드는 틀림없이 무사할 게다."

"그래도 지금쯤 돌아올 때가 되었다면..."

헤르미온느가 몹시 불안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맥심 부인이 해그리드와 함께 있단다. 우리는 줄곧 부인과 연락을 취했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서로 헤어졌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해그리드가 다쳤거나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말이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해리와 론이 헤르미온느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애들아, 해그리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걸 묻지 말아라."

시리우스가 황급히 말했다.

"그러면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자꾸 더 관심을 끌게 될 뿐이야. 덤블도어도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으셔. 해그리드는 강하니까, 분명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세 사람을 보자, 시리우스는 다시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다음번 호그스미드 주말 방문이 언제지? 내가 생각해 봤는데, 개로 변한 채 우리가 함께 역까지 나갔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돼요!"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시리우스, <예언자 일보>도 못 보셨어요?"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거. 내가 어디에 있다는 소문이야 항상 떠돌고 있는 걸. 실제로는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어."

시리우스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단서를 잡은 것 같아요."

해리가 말했다.

"기차 안에서 말포이가 한 말도 웬지 그 개가 아저씨였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어요. 게다가 말포이의 아버지도 기차역에 있었고요. 아저씨도 루시우스 말포이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만약 말포이가 아저씨를 다시 알아보게 되면—"

"알았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시리우스는 무척 마음이 상한 것 같았다.

"그냥 생각만 해본 거야. 너희들이 나랑 함께 간다면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그렇죠. 하지만 아저씨가 다시 아즈카반으로 끌려가는 건 싫어요!"
해리가 말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르고, 시리우스는 불 속에서 벽난로 밖에 있는 해리를 육목히 쳐다보았다. 시무룩한 두 눈 사이로 굵은 주름이 잡혔다.

"넌 생각보다 네 아버지를 별로 닮지 않았구나."

마침내 시리우스가 쌀쌀맞게 말했다.

"제임스는 위험이 따를수록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만 가 봐야겠다. 크리처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시리우스가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분명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언제 다시 이 벽난로에 나타날 수 있을지, 편지에 써서 알려 주마.
알겠지? 네가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평 하는 소리가 나더니, 시리우스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도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 15 장. 호그와트 장학사

그들은 퍼시가 편지에서 말한 그 기사를 찾으려면, 다음 날 아침 <예언자 일보>를 살살이 뒤지다시피 해야 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우편물 배달 부엉이가 우유병 꼭대기로 신문을 떨어뜨리자마자, 헤르미온느는 혁 소리를 내며 신문을 활짝 펼쳤다. 거기에는 활짝 웃으며 천천히 눈을 깜박이고 있는 돌로레스 엉브릿지의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실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다.

마법부 교육 개혁 단행

돌로레스 엉브릿지 첫 번째 장학사로 임명되다

"엉브릿지가— 장학사라고?"

해리가 반쯤 먹다 남은 토스트를 스르르 떨어뜨리며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헤르미온느가 큰 소리로 기사를 읽었다.

어젯밤 마법부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대한 유례 없이 강경한 통제권을 마법부에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장관님께서는 최근 호그와트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점점 더 심려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부보좌관인 퍼시 위즐리 씨는 이렇게 말했다. "장관님은 이제 불안에 떠는 학부형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점차 용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훌러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일 사이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이 마법 학교의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교육 법령 22조가 통과되었는데, 그 법안에는 현 교장이 교사 자리에 적당한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면, 마법부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돌로레스 엠브릿지가 호그와트 교수로 임명된 것입니다."

어젯밤 위즐리 씨는 이렇게 말했다.

"덤블도어가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법부에서 엠브릿지를 임명한 것이죠. 물론 엠브릿지는 그 즉시 성공적으로—"

"그 여자가 뭐 어쨌다고?"

해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잠깐 기다려 봐. 아직 더 남았어."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즉시 성공적으로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 방식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마법부에 호그와트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근거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법부는 호그와트 장학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교육 법령 23조를 통과시킴으로써 정식으로 이 기능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호그와트의 추락한 교육의 질을 바로잡으려는 장관님의 계획으로, 흥미로운 새로운 정책입니다."

위즐리는 이렇게 말한다.

"대신문관은 동료 교육자들을 조사하고 그들이 기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엠브릿지 교수는 기존의 교수 자리와 더불어 이 새로운 직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이 제안을 수락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마법부의 새로운 움직임은 호그와트 학부모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덤블도어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 씨(41세)는 어젯밤 자신의 월셔 저택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수많은 학부형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덤블도어가 내린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에 대해서 걱정해 왔습니다. 마법부가 이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지난번 본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교수의 임명도 그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 중의 하나다. 늑대인간인 리무스 루핀이나 거인 혼혈인 루베우스 해그리드,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전직 오러 매드아이 무디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물론, 한때 국제 마법사 연맹의 최고 우두머리였고, 위즌가 모트의 의장 마법사였던 알버스 덤블도어가 더 이상 최고 명문 학교인 호그와트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소문 또한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

"저는 장학사 임명이,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교장이 호그와트에 있는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마법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위즌가모트의 원로인 그리젤다 마치뱅스와 타이배리어스 오그던은 호그와트에 장학사를 임명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임했다.

"호그와트는 학교입니다. 코넬리우스 퍼지의 전초 기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뱅스 여사는 항의했다.

"이것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신망을 떨어뜨리려는 추악한 시도입니다."

(마치뱅스 여사와 반동적인 도깨비 무리들과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기사가 17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헤르미온느는 신문을 덮고 테이블 너머로 다른 두 친구들을 쳐다보았다.

"이제 우리는 결국 엠브릿지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었어! 퍼지는 교육 법령인지 원지를 통과시켜서 엠브릿지를 억지로 이 학교에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 다른 선생님들을 감시할 권한까지 주었어!"

헤르미온느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 쉬었다. 그녀의 두 눈은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나도 알아."

해리가 이렇게 말하며, 불끈 친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에는 아직도 엠브릿지가 억지로 살갗에 새기게 만든 글씨의 윤곽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왜 그래?"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그를 바라보며 동시에 물었다.

"맥고나걸 선생님이 조사받는 거 하루빨리 보고 싶어."

론이 신나서 말했다.

"엠브릿지라고 해도 그 선생님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모를걸."

"이런!"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 가는 게 좋겠다. 만약 그 여자가 빈스 교수님 수업에 들어온다면, 늦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엠브릿지는 마법의 역사 수업을 참관하지 않았다. 수업은 지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지겹기 짹이 없었다. 그들이 두 시간짜리 마법약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에도, 엠브릿지는 스네이프의 지하 교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의 월장석에 관한 보고서 제일 꼭대기에 빠죽빠죽한 검을 글씨로 커다랗게 D라고 적어서 돌려주었다.

"너희들이 O.W.L.에서 이 과목 시험을 치렀을 때 받게 될 성적을 주었다."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숙제를 나누어 주던 스네이프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이걸 보면 앞으로 닉칠 시험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스네이프는 교실 앞으로 가더니 학생들을 향해서 돌아섰다.

"너희들이 낸 숙제의 평균 수준은 암담할 정도다. 이 숙제가 진짜 시험이었다면, 대부분 떨어졌을 것이다. 다양한 해독제의 종류에 관한, 이번 주 보고서에는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D를 받는 멍청이들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

"누가 D를 받았단 말이야? 하!"

말포이가 킬킬거리며 들으라는 듯이 떠들자, 스네이프는 히죽이죽 웃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훨끔훌끔 곁눈질을 하면서 그의 점수를 훔쳐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서둘러서 가방 속에 보고서를 집어넣었다. 이 사실은 혼자만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어떻게든 스네이프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해리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 적힌 지시 사항을 최소한 세 번 이상 한 줄 한 줄 읽고 또 읽었다. 그가 만든 마력 강화제는 헤르미온느의 약처럼 투명하고 선명한 푸른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분홍색인 네빌의 약에 비하면 푸른색에 가까웠다. 수업이 끝나자, 해리는 반항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심정으로 약이 담긴 플라스크를 스네이프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지난주처럼 나쁘진 않았지?"

지하 교실의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서,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이제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현관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했다.

"숙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안 그래?"

론과 해리가 모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헤르미온느가 말을 이었다.

"좋아. 나도 최고 점수를 기대하진 않았어. 특히 스네이프 선생님이 O.W.L.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말이야. 하지만 이 단계에서 통과만이라도 했다면 훨씬 힘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니?"

해리의 목구멍이 원가 빙정거리는 소리가 났다.

"물론 지금까지 시험 때까지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 지금 우리가 받은 점수는 일종의 출발선 같은 거야. 우린 이걸 기반으로 원가를 세울 수 있어."

그들은 다 함께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았다.

"만약 내가 'O'를 받았다면, 분명히 좋아서 어쩔 줄 몰랐을 거야."

"헤르미온느, 우리 점수가 궁금하다면 그냥 물어봐."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네가 말해 주고 싶다면-."

"나는 'P'를 받았어."

론이 국자로 그릇에 수프를 떠 담으며 말했다.

"이제 만족하느냐?"

"그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프레드가 불쑥 끼어들었다. 조지와 리 조던과 함께 방금 테이블에 나타난 프레드는 해리의 오른쪽에 앉았다.

"건전하고 선량한 'P'를 받은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야."

"하지만 P는...."

"Poor., 그러니까 형편없다는 거지."

리 조던이 말했다.

"그래도 D보다는 나, 안 그래? 'Dreadful, 끔찍하다'는 거 아니야?"

해리는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허리를 숙이고 잔기침을 하는 척했다. 하지만 기침을 멈췄을 때에도, 여전히 헤르미온느가 O.W.L. 성적 등급을 가지고 한참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럼 최고 점수는 '특출한', 즉 Outstanging'의 O겠네? 그리고 그 다음이 A이고-"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니, E야. 'Exceed Expectation, 즉 기대 이상'이란 말이지."

조지가 헤르미온느의 말을 정정해 주었다.

"그래서 프레드와 나는 항상 모든 과목에서 'E'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기대를 넘어서는 일이니까 말이야."

헤르미온느만 빼고 모든 아이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럼 E 다음에는 A, 그러니까 'Acceptable, 무난하다'겠네. 그리고 그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점수인 거지?"

"그래."

프레드는 수프 속에 둘빵을 풍덩 집어넣더니 그의 입속에 쑤셔 넣고 한 번에 꿀꺽 삼켜 버렸다.

"그럼 형들은 '형편없다'의 P와 '끔찍하다'의 D를 받았겠네."

론이 두 팔을 번쩍 들고 축하한다는 시늉을 했다.

"그 다음에는 'T'가 있어."

조지가 룬을 일깨워 주었다.

"T?"

헤르미온느가 질겁을 했다.

"O 보다도 더 낮은 점수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T는 또 뭐야?"

"Troll, 그러니까 트롤이야."

조지가 냉큼 대답했다. 해리는 또다시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조지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순간 해리는 O.W.L.의 모든 과목에서 T를 받고 헤르미온느에게 그 사실을 숨기느라 쩔쩔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너희들은 아직 참관 수업을 안 했니?"

프레드가 물었다.

"응, 그럼, 너희들은 참관 수업을 받았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점심 시간 바로 전에, 마법 수업이었어."

조지가 대답했다.

"어땠어?"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물었다. 프레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별로 나쁘지 않았어. 엄브릿지는 구석에 도사리고 앉아서 열심히 원가를 적었어. 너희들로 폴리트윅 선생님이 어떤지 잘 알잖아. 그 선생님은 엄브릿지를 그저 손님으로 대할 뿐,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 엄브릿지도 별로 말이 없었어. 그저 앤리샤에게 평소에 수업이 어떤 식인지 몇 마디 질문을 했고, 앤리샤는 수업이 아주 훌륭하다고 대답했어. 그게 전부야."

"난 늙은 폴리트윅 교수가 낮은 평가를 받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은 항상 모든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에 통과하도록 해주시잖아."

"오후 수업은 뭐니?"

프레드가 해리에게 물었다.

"트릴로니!"

"내가 트롤을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여자야."

"그리고 엄브릿지 그 여자도."

"어쨌든 오늘은 엄브릿지에게 성질내지 말고 착하게 굴어."

조지가 충고했다.

"네가 또다시 퀴디치 연습에 빠지면, 안젤리나는 미쳐 버릴 거야."

하지만 해리는 엄브릿지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해리는 어두운 점술 교실 제일 뒷줄에 앉아서 꿈 일기장을 꺼내고 있었다. 그때 론이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쭉쭉 칠했다. 뒤를 돌아보니 엄브릿지 교수가 교실 바닥에 있는 뚜껑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까지 신나게 떠들고 있던 학생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사뿐사뿐 걸어다니며 <꿈의 신탁>을 나눠 주고 있던 트릴로니 교수는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지자,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렸다.

"안녕하세요, 트릴로니 교수님."

엄브릿지 교수가 입을 짹 벌리고 웃으며 말했다.

"제 전갈을 받으셨지요? 참관 수업의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보냈는데?"

트릴로니 교수는 통명스럽게 고개를 한 번 까닥하더니, 몹시 기분이 상할 듯이 획 돌아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나눠 주었다. 엄브릿지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의자와 등받이를 붙잡더니 교실 앞쪽으로 끌고 갔다. 트릴로니 교수의 자리와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엄브릿지는 의자에 앉아서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가방에서 필기판을 꺼냈다. 그리고 고개를 바싹 쳐들고 수업이 시작되기를 열심히 기다렸다.

트릴로니 교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솔을 더욱 단단히 여미더니, 거대한 돋보기 안경 너머로 학생들을 쓱 살펴보았다.

"오늘도 꿈 해몽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겠어요."

트릴로니 교수는 배짱 좋게 평소처럼 꿈꾸는 듯이 뚱뚱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씩 짹을 짓도록 해요. 그런 다음 <꿈의 신탁>을 보면서 지난밤 상대방의 꿈을 서로 해석해 보세요."

트릴로니 교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바로 그 뒤에 앉아 있는 엠브릿지 교수를 보자, 즉시 패르바티와 라벤더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두 사람은 이미 패르바티가 최근에 꿈 꿈을 가지고 한창 토론 중이었다.

해리는 <꿈의 신탁>을 펼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엠브릿지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벌써부터 필기판에 열심히 원가를 적고 있었다. 몇 분 후에 엠브릿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트릴로니의 뒤를 따라서 교실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의 대화를 옆에 서서 듣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해리는 재빨리 책 위로 고개를 숙였다.

"어서 빨리 꿈 좀 생각해 봐."

해리는 룬을 재촉했다.

"늙은 두꺼비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는 내가 했잖아. 이번에는 네 차례야. 네가 말해봐."

룬이 항의했다.

"글쎄, 난 모르겠어...."

해리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생각나는 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스네이프를... 내 냄비에 빠뜨리는 꿈을 꿨다고 하자. 그래, 그게 좋겠어...."

룬을 깔깔 웃으며 <꿈의 신탁>을 펼쳤다.

"좋아. 넌가 꿈을꾼 날짜에 네 나이를 더하고, 꿈 제목을... 월로 할까?

'물에 빠뜨리기' 아니면 '냄비' 아니면 '스네이프'?"

"상관없어. 아무거나 골라."

해리는 등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엠브릿지 교수는 네빌에게 꿈 일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트릴로니 교수 옆에 나란히 서서 원가를 적고 있었다.

"그럼 어느 날 밤에 이 꿈을꾼 거지?"

룬이 계산에 열중하면서 물었다.

"나도 몰라. 어젯밤으로 하든지 마음대로 해."

해리는 엠브릿지 교수가 트릴로니 교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엿듣기 위해 애를 섰다. 이제 두 사람은 해리와 룬이 앉아 있는 곳에서 겨우 책상 하나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엠브릿지 교수는 또다시 원가를 적기 시작했고, 트릴로니 교수는 머리끝까지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이 수업을 맡으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죠? 정확히?"

엠브릿지는 트릴로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트릴로니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어깨를 움츠리며 그녀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마치 이 무례한 조사로부터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트릴로니는 이 질문이 완전히 무시해 버려도 좋을 만큼 그렇게 무례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았다. 트릴로니는 몹시 분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의 16년쯤 됐어요."

"상당한 기간이군요."

엠브릿지 교수가 필기판에 다시 적었다.

"그럼 덤블도어 교수가 당신을 채용했나요?"

"맞아요."

트릴로니 교수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엠브릿지 교수가 또다시 원가를 적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카산드라 트릴로니 예언자의 손녀의 손녀딸인가요?"

"맞아요."

트릴로니 교수가 더욱 고개를 높이 쳐들었다.

엄브릿지 교수는 또다시 적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부디 고쳐 주세요. 카산드라가 예언 능력을 가지게 된 이후로, 당신 집안에서 다시 예언자가 나온 건 당신이 처음 아닌가요?"

"그런 건 종종 세대를 건너뛰는 법이죠.... 그러니까 삼 세대쯤."

트릴로니 교수가 대답했다.

엄브릿지 교수의 두꺼비 같은 미소가 더욱 커졌다.

"물론이죠."

엄브릿지 교수는 또다시 원가를 받아 적으며 상냥하게 말했다.

"그럼 저를 위해서 한 가지만 예언해 주실래요?"

엄브릿지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원가 캐묻는 듯한 얼굴로 빤히 바라보았다.

트릴로니 교수는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트릴로니 교수는 앙상한 목 주위의 솔을 발작적으로 바싹 움켜쥐었다.

"저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시면 고맙겠군요."

엄브릿지 교수가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책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해리와 론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트릴로니 교수에게 쏠렸다. 그녀는 허리를 쭉 편다. 구슬 목걸이와 귀고리가 짤랑거렸다.

"마음의 눈은 명령에 따라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트릴로니 교수는 분노로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엄브릿지 교수는 부드럽게 대꾸하며 또다시 필기판에 글씨를 썼다.

"난- 하지만- 하지만... 잠깐만요!"

트릴로니 교수가 갑자기 평소와 같은 몽롱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면서 말했다. 하지만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비스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 나는 원가를 본 것 같아요... 당신에 관한 원가를.... 그러니까 원가가 느껴져요... 어둡고... 아주 위험한...."

트릴로니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엄브릿지 교수를 가리켰다. 엄브릿지는 눈썹을 추켜올린 채, 여전히 맥 빠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쩌면... 어쩌면... 당신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어요!"

트릴로니 교수가 극적인 어조로 말을 끝맺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브릿지 교수의 눈썹은 여전히 추켜올려진 상태였다.

"알았어요."

엄브릿지 교수는 또다시 필기판에 원가를 적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엄브릿지 교수는 가슴을 벌렁거리며 그 자리에 못 받힌 듯이 서 있는 트릴로니 교수를 남겨 두고 훅 돌아서 버렸다. 혼을 힐끗 바라본 해리는 그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 모두 트릴로니 교수가 늙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브릿지 교수가 너무 얄미웠기 때문에, 트릴로니 교수의 편을 들어 주고 싶었다. 적어도 트릴로니 교수가 그들을 급습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디, 그럼 꿈 일기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

트릴로니 교수가 해리의 코 밑에서 긴 손가락을 탁 튕기며 말했다.

이윽고 트릴로니 교수가 최대한 목청을 둇우며 해리의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자, 해리는 그녀에 대한 동정심이 싹 사라졌다. (모든 꿈이, 심지어 죽을 먹는 꿈까지도 확실하게 그의 꿈찍한 이른 죽음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동안에도 엄브릿지 교수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필기판에 열심히 기록을 했다. 마침내 종이 울리자 엠브릿지는 제일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십 분 후에 이어진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간에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이 교실로 들어갔을 때, 엠브릿지는 혼자 싱글싱글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방어 마법 이론> 책을 꺼내는 동안, 해리와 론은 산술점 수업에 들어갔었던 헤르미온느에게 점술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미처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전에, 엠브릿지 교수가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교실 안은 정적으로 훨씬졌다.

"지팡이 치우세요."

엠브릿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지시를 내렸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팡이를 꺼내 놓았던 학생들은 실망한 얼굴로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지난 시간에 1장을 끝냈으니까, 오늘은 모두 19페이지를 펴도록 하세요. 그리고 2장 '기본 방어술 이론과 파생'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말은 필요 없겠죠."

엠브릿지는 여전히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교탁 앞에 앉았다. 학생들은 19페이지로 책장을 넘기면서 거의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해리는 1년 내내 계속 책만 읽어도 될 만큼 책의 내용이 많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목차를 확인해 보려는 순간, 헤르미온느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엠브릿지 교수도 그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엠브릿지 교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전략을 세워 놓은 것처럼 보였다.

헤르미온느를 못 본 척하고 무시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줄 책상을 돌아서 헤르미온느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다른 학생들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나지막히 속삭였다.

"이번에는 또 뭐죠, 그레인저 양?"

"2장은 벌써 다 읽었어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럼 3장을 계속 읽도록 하세요."

"3장도 다 읽었어요. 책을 전부 읽었어요."

엠브릿지 교수는 눈을 깜빡이더니 즉시 본래 자세로 돌아왔다.

"좋아요. 그럼 슬링크하드가 15장에서 반-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말해 봐요."

"반-저주란 적당한 명칭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헤르미온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반-저주란 사람들이 그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에 불린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엠브릿지 교수가 눈썹을 움찔했다. 해리는 엠브릿지 교수가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헤르미온느의 실력에 탄복하고 말았다는 것을 눈치 챘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르미온느가 계속 말을 이었다. 엠브릿지 교수의 눈썹이 좀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엠브릿지와는 대조적으로 헤르미온느는 분명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슬링크하드는 저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주도 방어적으로 사용하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엠브릿지 교수는 속삭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목청을 높였다.

"그레인저 양, 미안하지만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슬링크하드 씨의 견해지 학생의 견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려고 하자, 엉브릿지 교수가 가로막았다.

"그만 해요."

그녀는 교실 앞으로 다시 걸어가서 학생들 앞에 섰다.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보여 주던 의기양양한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레인저 양, 그리핀도르에서 5점을 감점하겠어요."

이 말을 듣자,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유가 뭐죠?"

해리가 화를 냈다.

"너는 끼어들지 마!"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해리에게 속삭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엉브릿지 교수가 거리낌없이 대답했다.

"나는 마법부가 인정한 방식대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멋대로 의견을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과목을 맡으셨던 이전의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법부가 감사를 했다면 아마 단 한 분도 통과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단 한 분, 퀴렐 교수님만이 그래도 여러분의 나이에 걸맞는 수업을 하려고 애를 쓰신 것처럼 보이더군요."

"네. 퀴렐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었죠."

해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단 한 가지, 볼드모트가 그의 머리 뒤에 불어 있었다는 약점이 있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의 말이 끝나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포터 군, 한 주일 더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엉브릿지가 심술궂게 말했다.

해리의 손등에는 상처가 아울 틈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흘렀다. 해리는 저녁에 나머지 공부를 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엉브릿지 교수를 기쁘게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또 썼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두 주 동안이나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자. 제일 괴로웠던 점은 조지가 예언했던 대로, 안젤리나의 반발이었다. 화요일이 되자, 안젤리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그리핀도르 테이블로 내려온 해리를 구석에 몰아세우고서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다. 어찌나 그 소리가 요란했던지, 교직원 테이블에 앉아 있던 맥고나걸 교수가 황급히 두 사람에게로 쫓아내려왔다.

"존슨 양, 연회장에서 감히 이렇게 소동을 피우다니! 그리핀도르에 5점 감점이에요!"

"하지만 교수님, 포터가 또다시 성질을 부려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었단!"

"뭐라고? 포터?"

맥고나걸 교수가 해리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나머지 공부? 어느 선생님에게서?"

"엉브릿지 선생님이에요."

해리는 네모난 안경을 쓴 맥고나걸 교수님의 까만 눈동자를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어서 말해 보거라."

맥고나걸 교수는 등 뒤에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래번클로 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지난 월요일에 내가 주의를 주었는데도, 또다시 엉브릿지 교수님 수업 시간에 성질을 부렸단 말이니?"

"네."

해리는 마루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퍼터, 참을성이 있어야지! 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리핀도르에 또다시 감점 5 점이다!"

"하지만- 왜? 교수님, 안 돼요!"

해리는 이 불공평한 처사에 화가 났다.

"저는 벌써 엄브릿지 교수님께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 또 감점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공부를 해도 너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맥고나걸 교수가 쏘아붙였다.

"포터, 더 이상 불평은 그만둬라! 그리고 존슨 양, 앞으로 고함 지르기 대결 같은 것은 퀴디치 운동장에서만 하도록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주장 자리를 잊게 될 수도 있어요!"

맥고나걸 교수는 교직원 테이블로 성큼성큼 되돌아갔다. 안젤리나는 종오에 가득 찬 눈길로 해리를 쳐다보더니 획 돌아서 가 버렸다. 해리는 씩씩거리며 론의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매일 밤마다 나는 손등이 갈라지는 벌을 받고 있는데, 맥고나걸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그리핀도로의 점수를 깎았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일이지? 어떻게?"

"나도 알아."

론이 해리의 접시에 베이컨을 덜어 주며 위로했다.

"선생님도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예언자 일보>만 넘기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맥고나걸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니?"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완전히 가리고 있는 코넬리우스 퍼지의 사진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도 맥고나걸 선생님이 점수를 깎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에게 엄브릿지 앞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건 옳은 일이야."

헤르미온느는 마치 연설을 하듯이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신문 1면에 실린 퍼지는 강압적인 몸짓을 보였다.

래리는 마법 수업 시간 내내 헤르미온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변신술 수업에 들어가자, 그녀에 대해 섭섭했던 마음을 깨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엄브릿지 교수가 필기판을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아침 식사 때의 기억이 당장 그의 머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잘됐어."

론이 늘 앉는 자리에 앉으며 속삭였다.

"엄브릿지가 당하는 꼴을 한번 보자고."

맥고나걸 교수는 엄브릿지 교수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티를 눈곱만큼도 내지 않으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수업을 시작하죠."

맥고나걸 교수가 입을 열자, 즉시 교실 안이 잠잠해졌다.

"피니간 군. 이리 나와서 숙제를 가져가도록 해요. 브라운 양, 쥐가 담긴 이 상자를 운반해 주세요. 호들갑 떨 것 없어요. 해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 마리씩 나눠 주세요"

"흠흠."

엄브릿지 교수는 학기가 시작되던 첫날 밤에 덤불도어 교수의 연설을 방해했을 때처럼, 주책없이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맥고나걸 교수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다. 시무스는 해리의 숙제를 돌려주었다.

해리는 시무스의 시선을 피하며 얼른 숙제를 받아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간신히 A를 받았다.

"그럼, 모두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요. 단 토마스, 다시 한 번 쥐에게 그런 짓을 하면, 나머지 공부를 시키겠어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달팽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껍질이 남는 학생들도 그 주문의 요지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흐, 흐."

엄브릿지 교수가 다시 헛기침을 했다.

"무슨 일이시죠?"

맥고나걸 교수가 일자 눈썹을 만들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저는 그저, 제가 보낸 참관 수업 날짜와 시간에 대한 전갈을 받으셨는지~"

"물론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 교실에서 월하고 계신 건지 처음부터 여쭤 보았겠죠."

맥고나걸 교수가 엄브릿지 교수에게 헥 등을 돌렸다. 많은 학생들이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말했듯이,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쥐를 사라지게 하는 마법'을 연습하도록 하겠어요. 소멸 마법은~"

"흐, 흐."

"도대체~"

맥고나걸 교수는 엄브릿지 교수를 향해 돌아서며 차가운 어조로 무섭게 말했다.

"계속 제 수업을 방해하시면, 어떻게 저의 평소 교육 방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고 하시는 거죠? 대개의 경우 저는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엄브릿지 교수는 마치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은 사람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필기판 위로 양피지를 펼치더니 미친 듯이 원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라지게 할 동물이 복잡할수록 소멸 마법도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죠. 무척추동물인 달팽이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유류인 쥐는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법은 그저 밥먹듯이 쉽게 할 수 있는 마법이 아니에요. 주문은 다 알고 있을 테니,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저러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엄브릿지 앞에서 성질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

래리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에 대해 섭섭했던 마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엄브릿지 교수는 트릴로니 교수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맥고나걸 교수 뒤를 쫓아다니지는 않았다. 아마도 맥고나걸 교수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대신 한쪽 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원가를 계속 적었다. 그리고 마침내 맥고나걸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만 책상을 치우라고 말했을 때, 엄브릿지 교수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시작한다."

론은 벼둥거리는 쥐의 긴 꼬리를 붙잡아서, 라벤더가 들고 돌아다니는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

교실을 빠져나오면서, 해리는 엄브릿지 교수가 교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론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론이 헤르미온느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세 사람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일부러 뒤에 처졌다.

"호그와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됐죠?"

엄브릿지 교수가 물었다.

"올 12월이면 39년이에요."

맥고나걸 교수가 가방을 턱 닫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엄브릿지가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좋아요. 10 일 후에 참관 수업 결과를 받아 보게 될 겁니다."

"기대되는군요."

맥고나걸 교수는 냉정하고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너희 세 사람, 서둘러라."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재촉했다. 하지만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를 향해 미소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 또한 분명히 그를 향해 빙그레 웃어 주었다.

해리는 이제 오후 나머지 공부 시간이나 되어야 엄브릿지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금지된 숲을 향해 잔디밭을 걸어 내려갔을 때, 엄브릿지는 또다시 필기판을 들고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 옆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이 수업을 맡고 계시지 않죠? 맞나요?"

그들이 긴 탁자 앞에 도착했을 때, 엄브릿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탁자 위에는 사로잡힌 보우트러클들이 마치 살아 있는 나뭇가지처럼 쥐며느리를 찾아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뒷짐을 진 채, 발목의 복사뼈를 턱탁 부딪치며 대답했다.

"저는 해그리드 교수 대신 이 자리를 맡고 있는 임시 교사지요."

해리는 불안한 시선으로 론과 헤르미온느를 힐끗 바라보았다. 말포이는 크레이브와 고일의 귀에 대고 원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마법부 사람에게 해그리드에 관한 이야기를 고자질할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흠."

엄브릿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엄브릿지의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시길 꺼리시더군요. 해그리드 교수가 이토록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당신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리는 말포이가 열심히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저도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던블도어 교수님으로부터 이 주 정도 수업을 맡아 줄 수 없느냐는 내용의 전갈을 받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엄브릿지 교수가 필기판에 원가를 적었다. 이번 수업에는 방침을 바꾼 듯이 학생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신비한 동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해리는 기분이 으쓱해졌다. 적어도 학생들은 해그리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오랫동안 딘 토마스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엄브릿지 교수는 다시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를 향해 돌아섰다.

"객관적인 외부자로서, 그리고 임시직 교수로서 당신은 호그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행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던블도어 교수님은 아주 출중하세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는 학교의 운영 방식이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손한 표정으로 엄브릿지는 필기판에 짧게 몇 줄 적었다.

"올해 이 수업에서는 뭘 가르치실 계획인가요? 물론 해그리드 교수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O.W.L.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신비한 동물들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말했다.

"사실 별로 남은 동물들이 없어요. 유니콘과 니플러는 벌써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폴락과 크니즐을 해볼까 합니다. 크럽과 크날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도 해야겠죠...."

"어쨌든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엄브릿지 교수는 필기판에 확실하게 어떤 표시를 하며 말했다. 해리는 엄브릿지 교수가 '당신은'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고일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더더욱 못마땅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이 수업에서 부상자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고일은 멍청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러자 말포이가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제가 다쳤습니다. 히포그리프에게 당했습니다."

"히포그리프라고?"

엄브릿지 교수는 미친 듯이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그건 모두 말포이가 멍청하게 해그리드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해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나머지 공부를 하룻밤 더 해야겠군요."

엄브릿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쨌든 고마워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님.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 같군요. 10 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인사를 했다. 엄브릿지 교수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성을 향해 돌아갔다.

그날 밤 해리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엄브릿지의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의 손에서는 너무 많은 피가 흘러서 감고 있는 손수건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해리는 휴게실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가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을 보자, 무척 반가웠다. 특히 헤르미온느가 그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가슴 아프게 여겨서 너무 다행스러웠다.

"여기에 네 손을 담그도록 해. 머트랩의 종양을 식초에 담가서 길러 낸 용액이야. 도움이 될 거야."

해리는 피가 흐르는 쓰라린 손을 그릇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통증이 훨씬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크룩생크는 큰 소리로 가르랑거리며 그의 다리 주위를 빙빙 맴돌더니 그의 무릎 위로 펄쩍 뛰어올라 앉았다.

"고마워."

해리는 원손으로 크룩생크의 귀 뒤를 긁어 주면서 인사를 했다.

"나는 아직도 네가 이 일에 대해 항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가만 있지 않으실 거야."

"그래, 물론 그러시겠지."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엄브릿지가 장학사에게 반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즉시 해고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론이 뭔가 반박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는 풀이 죽어서 다시 입을 닫았다.

"그 여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헤르미온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 네가 막 들어왔을 때, 론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해."

"그래서 독약을 쓰자고 했어."

론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내 말은 그 여자가 너무 꼼찍한 선생님이고 그 여자 밑에서는 방어술을 하나도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론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그 여자는 자리를 잡았으니, 여기 계속 머무를 거야. 퍼지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

"글쎄... 오늘 나는 줄곧 생각해 봤어."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줄곧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가 뭘 한다는 거야?"

해리가 여전히 머트랩 종양 용액에 손을 담근 채, 의심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스스로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배우자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만 해."

론이 신음 소리를 냈다.

"우리끼리 별도로 공부를 또 하자는 말이야? 이제 겨우 이 주밖에 안 됐는데도 해리와 내가 얼마나 숙제가 밀렸는지 넌 모르니?"

"하지만 이건 숙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와 론은 눈이 휙둥그레져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세상에 숙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농담하지 마. 당연히 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는 평소 헤르미온느가 S.P.E.W. 이야기를 할 때처럼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하자는 거야. 해리가 엄브릿지 수업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 자신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만약 1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우리끼리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론이 막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도서관에 가서 주문들을 찾아보고 연습을 할 수는 있겠지."

"아니야. 책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우리에겐 선생님이 필요해. 주문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고쳐 줄 수 있는 적당한 선생님 말이야."

"혹시 루핀을 말하는 거라면...."

해리가 말을 꺼냈다.

"아니, 아니야. 루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루핀은 기사단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잖아. 게다가 호그스미드 주말이나 되어야 그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자주 만날 수가 없어."

"그럼 누구?"

해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헤르미온느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뻔하지 않니? 난 너를 말하는 거야, 해리."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론의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벽난로의 불길도 차츰 사그라졌다.

"내가 뭘?"

해리가 물었다.

"네가 우리에게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해리가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론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당연히 헤르미온느가 가끔씩 S.P.E.W.처럼 너무 황당한 계획을 이야기할
때마다, 둘이 주고받은 하던 짜증스러운 표정을 보게 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론은 전혀 짜증이 난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약간 인상을 찌푸린 채, 원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입을 열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무슨 생각이?"

해리가 반문했다.

"네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하지만...."

해리는 두 사람이 지금 그를 놀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씩
웃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난~"

"해리, 넌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내가?"

해리는 더욱더 크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모든 시험에서 네가 나보다 훨씬 앞섰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3학년 때 너는 나를 이겼어.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은 시험을 치렀고, 진정으로 그 과목을 이해하는 선생님이 계셨던
유일한 해였지. 어쨌든 나는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해리.
네가 한 일을 생각해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인지 알잖아. 솔직히 나는 이렇게 명청한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잘 모르겠는걸."

론이 약간 놀리듯이 웃으며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그리고 해리를
돌아보았다.

"한번 생각해 보자."

론은 원가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고일의 표정을 흉내 내었다.

"음... 1학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마법사의 돌을 구해 냈지."

"하지만 그건 운이었어. 실력이 아니었다고-."

해리가 말했다.

"2학년 때는 바실리크르를 죽이고 리들을 없애 버렸어."

론이 그의 말을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래. 하지만 퍽스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3학년 때는 백 명의 디멘터들과 동시에 싸웠어."

론은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여행이었던 걸 너도 알잖아.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는 시계가
아니었다면-"

"지난해에는 또다시 그 사람과 싸웠어-."

이제 론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다.

"내 말을 좀 들어 봐!"

해리는 거의 화를 낼 듯이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 모두 히죽히죽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말 좀 들어 보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모두 운이 좋았던 거야. 나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잘 몰랐고, 어느 것 하나 계획을 세워서 하지도 않았어. 난 그저 생각나는 대로 했을 뿐이야. 게다가 거의 항상 도움을 받아서—" 론과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그를 보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해리는 점점 더 약이 올랐다.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너희들이 나보다 깨나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히죽히죽 웃으며 앉아 있지 마.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나였어, 안 그래?"

해리는 잔뜩 열이 받아서 소리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더 잘 안다고, 안 그래? 난 절대로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서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해낸 게 아니었어. 나는 그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낸 거야. 아니면 추측을 잘 했겠지. 하지만 난 그저 얼떨결에 해냈을 뿐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제발 그만 웃어!"

머트랩 용액이 담긴 그릇이 마루에 엎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해리는 자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언제 일어섰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크록생크는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론과 헤르미온느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쑥 사라졌다.

"너희들은 그게 어떤 건지 몰라! 너희 두 사람은 그자와 대면한 적이 없었잖아, 안 그래? 너희들은 그저 온갖 주문을 외웠다가 그자를 향해 날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수업 시간 같은 때 하듯이? 언제나 너희는 스스로의 생각, 혹은 용기 같은 것 없이 죽음에 맞서고 있다고 확신했지. 마치 너희가 살해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죽는 것은 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있다는 듯 말이야. 수업 시간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런 일들을 직접 겪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너희 두 사람은 거기 앉아서 마치 내가 굉장히 똑똑한 소년이라서 목숨을 건지고 이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굴고 있잖아. 디고리는 명청해서, 그래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여기고들 있잖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해. 디고리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만약 볼드모트가 날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바로 내가 죽었을 거야."

"우린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친구."

론이 아연실색한 표정이 되었다.

"우린 디고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아니야, 네가 잘못—"

론이 난처한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해리, 너는 모르겠니?"

헤리미온느가 주저하며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린 네가 필요해. 우린 알아야만 해. 그-그자와 대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 보- 볼드모트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볼드모트의 이름을 소리 내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실이 해리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해리는 여전히 가쁘게 몰아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손등이 다시 견딜 수 없게 쿡쿡 쑤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산산조각이 나 쏟아져 버린 머트랩 용액이 너무나 아쉬웠다.

"그래... 한번 생각해 봐. 그렇게 할 거지?"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말했다.

해리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성질을 부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해리는 도대체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다.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난 그만 자러 가야겠어."

헤르미온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다.

"응... 잘 자."

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가?"

론이 해리에게 어색하게 물었다.

"응, 잠깐만. 이걸 좀 치우고."

해리는 바닥에 흘어진 그릇 조각을 손으로 가리켰다. 론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레파로."

해리가 부서진 그릇 조각을 지팡이를 겨누고 주문을 외웠다. 그릇 조각이 다시 모이더니 새것처럼 멀쩡해졌다. 하지만 쏟아진 머트랩 용액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해리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잠을 자고 싶었다. 하지만 억지로 기운을 모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론의 뒤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뒤숭숭한 밤은 또다시 길고 긴 복도와 굳게 잠긴 문들로 끝이 났다. 다음 날 그는 이마의 흉터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제 16 장 호그스 해드

처음 이야기를 꺼낸 뒤로 이 주가 흘렀지만, 헤리미온느는 해리에게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해리는 엄브릿지와의 나머지 공부를 끝냈다(손등에 새겨진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기나 할 것인지 염려스러울 정도였다). 론은 네 번이나 퀴디치 연습에 참가했고, 세 번째부터는 야단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변신술 수업에서 쥐를 사라지게 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사실 헤르미온느의 실력은 고양이를 사라지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9 월의 마지막 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화제가 다시 떠올랐다. 세 사람은 도서관에 앉아서 스네이프 교수가 내준 마법약 성분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해리, 어둠의 마법 방어술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 좀 해봤니?"

헤르미온느가 불쑥 말을 꺼냈다.

"물론이야. 그 할망구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해리는 투덜거렸다.

"내 말은 론과 나에게~"

그러자 론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고하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헤르미온느는 얼굴을 찌푸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그 생각 말이야."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시아의 해독제'장을 열심히 넘기며 보는 척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지난 이 주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때로는 헤르미온느가 처음 그 말을 꺼냈던 그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정신 나간 혀소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괴물들과 죽음을 먹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 가장 유용했던

주문들을 떠올리곤 했다. 말하자면 무의식중에 수업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아시아의 해독제'에 열중해 있을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해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런데?"

헤르미온느가 열성적으로 물었다.

"난 모르겠어."

해리가 시간을 끌며 론을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

론은 해리가 또다시 고함을 지르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대화에 끼어드는 것 같았다.

해리는 불편한 듯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행운 덕이었다고 말한 걸 너희들도 들었지?"

"그래, 해리."

헤르미온느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잘하지 못하는 척해도 아무 소용 없어. 왜냐하면 넌 잘하니까. 작년에 임페리우스 저주를 완벽하게 막아 낸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넌 패트로누스도 불러낼 수 있고, 성인 마법사들도 못하는 온갖 종류의 마법들을 할 수 있잖아. 빅터도 항상 말했어-."

순간 론이 어찌나 빨리 고개를 휙 돌렸는지, 목이 부러질 것 같았다.

론이 목덜미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래? 빅터가 뭐라고 그랬는데?"

"음- 그냥-"

헤르미온느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자기가 모르는 마법을 할 줄 안다고 했어. 그는 덤프트랭 졸업반인데도 말이야."

론이 의심스런 눈길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설마 아직도 그 녀석이랑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그게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지만,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내가 누구랑 펜팔을 하든 그건 내 맘-"

"그 녀석의 속셈은 너랑 그저 펜팔 친구를 하자는 게 아니야.'

론이 비난하듯이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짜증스러운 듯이 머리를 흔들더니,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론을 무시하고 해리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니?"

"너하고 론만이지?"

"글쎄."

헤르미온느가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해리, 제발... 또다시 화를 내진 마. 하지만 나는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해. 내 말은, 지금 우리는 보-볼드모트에-론, 제발 겁 좀 내지 마-. 맞서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맞서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다만 우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그래."

해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하지만 너희 두 사람 이외에 누가 나에게 마법을 배우겠다고 나설지 모르겠다. 난 미친놈이잖아, 기억하고 있지?"

"네가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지 알면, 아마 너도 깜짝 놀랄걸."

헤르미온느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봐."

헤르미온느는 해리 쪽으로 몸을 바싹 숙였다.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헤르미온느를 지켜보고 있던 론도 덩달아 몸을 숙였다.

"10월 첫 주가 호그스미드를 방문하는 날이라는 거 너도 알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날 마을에서 만나자고 말하면 어떨까? 그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왜 꼭 학교 밖에서 그래야 하지?"

론이 물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엄브릿지가 알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헤르미온느는 다시 중국산 깨무는 양배추의 도안을 베끼기 시작했다. 해리는 다가오는 호그스미드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시리우스가 9월 초에 벽난로를 통해 한 번 나타난 이후로, 일절 연락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시리우스에게 오지 말라고 말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은 해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시리우스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했다. 만약 호그스미드에서 커다란 검은개가 그들을 향해 거리를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구나 드레이코 말포이의 코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시리우스가 밖에 나오고 싶어 하는 걸 탓할 수는 없어."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자, 론이 말했다.

"시리우스는 2년 동안이나 줄곧 도망 다녔잖아.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줄 알지만, 어쨌든 그는 자유로웠어. 안 그래? 그런데 이제는 그 끔찍한 집요정과 함께 온종일 같혀 지내야만 하다니."

헤르미온느가 론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크리처에 대한 비방을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갔다.

"문제는 이거야."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말했다.

'보-보-볼드모트가-제발, 론 그만 좀 해-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시리우스는 계속 숨어 지내야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멍청한 마법부가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자에 대해서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시리우스가 무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뜻이지. 일단 그 멍청이들이 진짜 죽음을 먹는 자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땐 시리우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질 텐데... 그러니까 내 말은, 예를 들자면 시리우스에게는 그 표식이 없잖아."

"시리우스가 호그스미드에 나타날 만큼 그렇게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론이 격려하듯이 말했다.

"시리우스가 그런 줄 알면 덤블도어 교수님이 펄펄 뛰실 거야. 그리고 시리우스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해."

그래도 해리가 여전히 걱정스런 표정을 짓자, 헤르미온느가 한마디 거들었다.

"내 말 좀 들어 봐. 론과 나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의사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몇 명이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호그스미드에서 만나자고 말했어."

"알았어."

해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시리우스 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마, 해리."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말했다.

"시리우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네 걱정거리는 충분해."

물론 헤르미온느의 말이 맞았다. 해리는 숙제도 제대로 따라가기가 벅찼다. 비록 이제는 더 이상 저녁마다 엄브릿지와 나머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정이 훨씬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한편 론은 해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숙제가 밀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일주일에 두 번씩 퀴디치 연습을 해야 했고, 론은 거기에 반장 업무까지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모든 숙제를 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집요정들을 위한 옷가지를 만들 시간까지 있었다. 해리도 그녀의 뜨개질 솜씨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모자와 양말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였다.

호그스미드 방문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다. 바람이 좀 불기는 했지만 날씨는 좋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필치 앞에 길게 줄을 섰다. 그는 학생들의 이름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마을을 방문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명단을 일일이 맞추어 보았다. 문득 시리우스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호그스미드에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해리는 가슴이 아팠다.

해리가 필치 앞에 서자, 기숙사 관리인은 해리에게서 뭔가 수상쩍은 냄새를 맡으려는 듯이 코를 크게 킁킁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턱을 부르르 떨며 차갑게 고개를 까닥했다. 해리는 돌계단을 향해서 걸어갔다. 쌀쌀하지만 청명한 날이었다.

"필치가 왜 너에게 킁킁거린 거지?"

론과 해리, 헤르미온느가 나란히 정문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서둘러 걸어가고 있을 때, 론이 물었다.

"똥 폭탄 냄새가 나는지 조사한 것 같아."

해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에게 깜박 잊고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해리는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낸 후에 필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편지를 내놓으라고 다그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놀랍게도 헤르미온느는 이 이야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네가 똥 폭탄을 주문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던 말이지?
하지만 구가 그에게 그런 정보를 주었을까?"

"나도 몰라."

해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말포이일지도 몰라. 그러고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날개 달린 멧돼지 동상이 세워져 있는 높은 돌기둥 사이를 걸어갔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원쪽으로 돌아섰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말포이?"

헤르미온느는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글쎄... 어저면..."

헤르미온느는 호그스미드로 가는 동안,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우리 어디로 갈 거야?"

해리가 물었다.

"스리 브룸스틱스?"

"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퍼뜩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아니야. 거긴 항상 사람도 너무 많고 시끄러워. 아이들에게 호그스 해드 술집에서 만나자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호그스 해드는 대로변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나도 저기가 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해. 하지만 학생들은 거길 잘 안 가니까. 누가 엿들을 염려는 없을 거야."

중앙로를 따라 걷던 그들은 종코의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쳤다. 가게 안에는 당연히 프레드와 조지와 리 조던의 모습이 보였다.

한편 우체국에서는 부엉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골목 끝에서 작은 여관이 있는 옆길로 빠졌다. 문 위에 걸린 녹슨 봉에는 낡은 나무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그 간판에는 목이 잘린 멧돼지의

머리가 하얀 보자기 위에 피를 뚝뚝 흘리며 놓여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세 사람은 문 밖에서 망설이며 잠시 서 있었다.

"자, 들어가자."

헤르미온느가 약간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스리 브룸스틱스와는 달랐다. 그곳의 커다란 바는 따뜻하고 정갈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호그스 해드는 시커멓게 그을음이 얹은 협소하고 더러운 방 하나가 전부였다. 게다가 염소 우리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창문에는 먼지가 뾰족하게 끼어서 햇빛조차 들어올 수 없었다. 그 대신 거친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양초 토막에 불을 밝혀 놓았다. 처음에는 흙을 다져서 바닥을 만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해리는 수세기 동안 쌓여 온 듯한 흙먼지 밑에 돌이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리는 호그와트에 입학한 첫 해에 해그리드가 이 술집에 대해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호그스 해드에 가면 괴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해그리드는 이곳에서 두건을 쓴 낯선 사람에게서 용의 알을 얻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에 해리는 어째서 해그리드가 그 낯선 사람이 줄곧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얼굴을 가리는 것이 호그스 해드 술집의 유행인 모양이었다. 술집 안에는 더러운 회색 봉대로 얼굴 전체를 칭칭 동여맨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그 사람은 갈라진 봉대 틈새 입속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원가를 끊임없이 부어 넣고 있었다.

다른 두 사람은 두건을 뒤집어쓴 채, 창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그들이 강함 요크셔 사투리로 떠들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해리는 그자들을 디멘터가 아닌가 의심했을 것이다. 벽난로 옆의 어두운 한쪽 구석에는 두꺼운 검은 베일을 발끝까지 내려뜨린 마녀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베일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겨우 코의 위치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헤르미온느, 난 잘 모르겠어."

카운터를 향해 걸어가면서 해리가 속삭였다. 그는 특히 베일을 쓴 여자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저 여자가 혹시 엉브릿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니?"

헤르미온느는 대충 길이를 재 보듯이 베일을 쓴 여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엉브릿지는 저 여자보다 훨씬 작아."

헤르미온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게다가 설사 엉브릿지가 여기 왔다고 해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학교 교칠을 두 번, 세 번 살펴보았거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어. 나는 특별히 플리트윅 교수님께 학생들이 호그스 해드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지. 교수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자기 잔을 따로 가져갈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더군. 그 이외에도 공부 모임이나 숙제 모임에 관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난 다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쓸데없이 과시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건 안 되지. 더구나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게 꼭 숙제 모임은 아니잖아, 안 그래?"

술집 주인과 뒷방에서 나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주인은 회색 수염과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무뚝뚝하게 생긴 노인이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그의 모습이 웬지 해리의 눈에 낯익었다.

"뭐냐?"

술집 주인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버터 맥주 세 병 주세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술집 주인은 카운터 밑으로 몸을 숙이더니 먼지가 잔뜩 앉은 더러운 맥주병 세 개를 꺼내 카운터 위에 턱 내려놓았다.

"6 시클이다."

"내가 낼게."

해리가 선뜻 앞으로 나서며 은화를 내밀었다. 술집 주인은 그를 한 번 훑어보더니 잠깐 동안 그의 이마에 난 흉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낡은 나무 돈궤에 해리의 동전을 집어넣었다. 그 돈궤 서랍이 저절로 쓰 열리면서 동전을 받았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카운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러운 회색 봉대를 몸에 칭칭 감은 남자가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톡톡 두드리더니 술집 주인으로부터 또다시 김이 나는 술잔을 받았다.

"너희들 그거 알아?"

론이 카운터 쪽을 열심히 넘겨다보면서 속삭였다.

"여기서는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저 늙은이는 우리에게 무슨 술이든 상관하지 않고 팔거야. 사실 나는 항상 파이어워스키를 한번 먹어 보고 싶었는데-."

"론 너는- 반장-이야."

헤르미온느가 론을 구박했다.

"오, 그래...."

론의 얼굴에서 기대에 찬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랑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누구니?"

해리가 녹슨 버터 맥주 병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면서 물었다.

"그냥 몇 사람 있어."

헤르미온느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면서 시계를 쳐다보더니, 초조한 표정으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이 시간쯤 여기 있을 걸고 말했는데. 이 장소를 모를 리도 없고- 오, 저기, 이제 오는 것 같아."

그 순간 술집 문이 열렸다. 잠깐 동안 한 줄기 강렬한 햇살이 뽀얗게 먼지 낀 술집 안을 비추더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딘과 라벤더와 네빌이었다. 그 뒤를 이어서 패르바티와 파드마 패틸이 초와 함께 (이 순간 해리는 속이 뒤지어지는 것 같았다) 나타났다. 초의 옆에는 늘 킬킬 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여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루나 러브굿의 모습도 보였다(그녀는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따라 들어온 사람처럼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외에도 케이티 벨, 앤리샤 스피넷, 안젤리나 존슨, 콜린과 데니스 크리비, 어니 맥밀란,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 한나 아보트,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한 가닥으로 길게 머리를 땋은 후플푸프의 여학생, 그리고 래번클로의 남학생인 안토니 골드스틴과 마이클 코너, 테리 부트가 있었다. 곧이어 지니가 나타나고, 바로 뒤에 키가 크고 빼빼 마른, 들창코에 금발의 남학생이 따라왔다. 해리가 어렵잖이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후플푸프 퀴디치 팀 선수들 중의 한 명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제일 뒤에 프레드와 조지가 그들의 친구인 리 조던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들 세 사람은 종코이 장난감 가게에서 산 물건들로 가득 찬 커다란 봉투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냥 몇 사람이라고?"

해리가 순 목소리로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이게 그냥 몇 사람이라 말이야?"

"글쎄, 내 제안이 꽤 인기를 끌었던 모양이야."

헤르미온느가 신이 나서 말했다.

"론, 의자를 더 갖고 올래?"

한 번도 빠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더러운 행주로 유리잔을 닦고 있던 술집 주인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추었다. 이 술집이 이렇게 봄비기는 난생 처음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카운터로 다가간 프레드가 재빨리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버터 맥주... 스물다섯 병 주세요."

술집 주인은 한동안 그를 노려보더니, 마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은 사람처럼 짜증스럽게 행주를 훑 집어던졌다. 그리고 카운터 밑에서 뾰족하게 먼지 앓은 버터 맥주병을 꺼내기 시작했다.

"건배."

프레드가 맥주병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모두들 돈 좀 털어 봐. 난 이 맥주 값을 전부 낼 만한 돈이 없어."

해리는 왁자지껄 떠들면서 프레드에게 맥주병을 건네받고 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황망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제각기 호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꺼내고 있었다. 해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어쩌면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어떤 연설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꼼꼼한 생각이 들자, 헤르미온느를 재빨리 돌아보았다.

"도대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야?"

해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아이들이 뭘 기대하고 온 거지?"

"벌써 말했잖아. 저 아이들은 단지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 뿐이야."

헤르미온느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해리가 당장에라도 폭발할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자,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덧붙여 말했다.

"너는 아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말을 할 테니까."

"안녕, 해리."

맞은편에 앉아 있던 네빌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해리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를 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 안이 바싹바싹 말랐다. 론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초가 그에게 미소를 던졌다. 하지만 초의 친구인 곱슬곱슬한 붉은 머리의 여학생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해리에게 줄곧 의심스런 눈초리를 던지고 있었다. 자기는 결코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새로 도착한 두세 명의 아이들이 해리의 옆에 앉았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잔뜩 들떠 있는 얼굴이었고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오직 루나 러브굿만이 꿈꾸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제각기 의자를 차지하고 나자, 침묵이 찾아왔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해리에게 쏠렸다.

"흠, 흠."

헤르미온느가 잔뜩 긴장한 듯, 보통 때보다 더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음- 안녕."

아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옮겨 갔다. 하지만 간간이 계속해서 해리를 돌아보았다.

"음... 저기... 너희들도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알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 해리가 제안할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 아니, 내 말은 (이때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날카롭게 째려보았다)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음, 내 말은 진짜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말이야. 엄브릿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쓰레기 말고(갑자기 헤르미온느의 목소리가 훨씬 강해지고 자신감에 넘치기 시작했다). 그런 걸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맞아, 맞아."

안토니 골드스틴이 맞장구를 치자, 헤르미온느는 더욱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그래,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했어."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힐끗 곁눈질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법을 배우자는 거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주문을 쓸 수 있는 법을-"

"하지만 너도 어둠의 마법 방어술 O.W.L.에 합격하고 싶잖아, 안 그래?"

마이클 코너가 물었다.

"물론이야."

헤르미온느가 즉시 대답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야. 난 방어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헤르미온느가 깊이 심호흡을 하더니, 망설이던 말을 끝냈다.

"볼드모트가 돌아왔거든."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다. 초의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버터 맥주를 엎질렀고 테리 부트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 경련을 일으켰다. 파드마 패틸은 부르르 몸을 떨었고 네빌은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내다가 간신히 자신을 다잡아 기침을 하는 척했다. 이제 아이들은 일제히 해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쨌든... 그게 우리 계획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 계획에 참여하고 싶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금발의 후플푸프 퀴디치 선수가 다소 도전적으로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사실을 믿고-"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자마자, 금발의 남학생은 해리를 향해 고갯짓을 하면서 말을 가로막았다.

"그게 아니라, 덤블도어 교수님은 저 아이 말을 믿는 거겠지."

"넌 도대체 누구야?"

론이 시비조로 물었다.

"나는 자카리아스 스미스야."

남학생이 대답했다.

"우리는 저 아이가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 봐. 그 아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목적과는 별로-"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괜찮아, 헤르미온느."

해리가 입을 열었다.

해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 이유를 방금 깨달았던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했어야만 했다.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해리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하느냐고?"

해리는 자카리아스의 얼굴을 똑바로 쏘아보며 물었다.

"나는 그자를 봤어.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이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교생 앞에서 말씀하셨잖아. 만약 네가 교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내 말도 믿지 못하겠지. 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오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

해리가 말을 하는 동안, 모든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심지어

술집 주인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주인은 더러운 행주로 똑같은 유리잔을 계속 닦으면서 점점 더 더럽게 만들고 있었다. 자카리아스는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지난해에 덤블도어 교수가 우리에게 해준 말은 고작해야 케드릭 디고리가 그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것뿐이었어. 그리고 네가 케드릭의 시체를 가지고 호그와트로 돌아왔다는 사실뿐이었지. 상세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해주지 않았다고 디고리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어. 나는 우리 모두 그걸 알아야~"

"만약 네가 원하는 게 볼드모트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정확히 듣고 싶은 거라면,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요즘 들어 항상 폭발 직전에 있었던 해리의 분노가 또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해리는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자카리아스 스미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특히 초의 얼굴은 절대 쳐다보지 않을 작정이었다.

"난 케드릭 디고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네가 그거 때문에 여기 온 거라면,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해리는 돌아서서 헤르미온느를 노려보았다. 모든 게 그녀의 잘못처럼 여겨졌다. 헤르미온느는 그가 무슨 정신 나간 별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활당한지를 들으려고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카리아스 스미스조차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해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헤르미온느가 또다시 높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혹시 너희들이 방어술을 배우고 싶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어디서 연습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네가 패트로누스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이니?"

머리를 한 가닥으로 길게 땋은 여학생이 불쑥 끼어들었다.

이 말을 듣자, 아이들이 흥미로운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해리는 다소 주저하며 말했다.

"진짜 실체를 가진 패트로누스를 말이야?"

이 말을 듣자, 해리의 기억 속에 원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혹시 본즈 여사를 알고 있니?"

해리가 물었다. 그 여학생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우리 고모야. 나는 수잔 본즈야. 고모가 너의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런데- 그게 정말이야? 네가 수사슴 패트로누스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게?"

"맞아."

해리가 말했다.

"굉장하다, 해리!"

리가 몹시 감동받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난 그런 줄 전혀 몰랐어."

"우리 엄마가 론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했거든."

프레드가 해리를 보며 씩 웃었다.

"지금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틀린 말씀은 아니지."

해리가 힘없이 중얼거리자,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베일을 쓰고 혼자 앉아 있던 마녀가 약간 몸을 뒤척거렸다.

"덤블도어의 방에 있는 칼로 바실리스크를 죽이기도 했다면서?"

테리 부트가 물었다.

"벽에 걸린 초상화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해 주었어. 작년에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대 말이야.'

"어- 그래. 그랬어."

해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러자 저스틴 핀치 플레츨 리가 휘파람을 불었다. 크리비 형제는 경탄하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라벤더 브라운은 '우와!' 하고 나지막이 탄성을 질렀다.

해리는 목덜미 근처가 약간 따끈따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초만 빼놓고는 누구든 당당하게 쳐다볼 수 있었다.

"우리가 신입생이었을 때에는 마술의 돌을 구해 내기도 했어."

네빌이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마법사의 돌이야."

헤르미온느가 핀잔을 주었다.

"그래. 어쨌든 그걸 그 사람으로부터 구해 냈지."

네빌이 말을 끝냈다. 한나 아보트의 눈이 거의 금화만큼이나

휘둥그레졌다.

"게다가 작년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초가 한마디 거들었다.(해리의 시선이 재빨리 그녀에게 향했다. 토는 그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또다시 뱃속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용이랑 인어, 애크로맨투라, 그리고 여러 가지 괴물들을 다 통과했잖아."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감탄하며 웅성거렸다. 해리는 속이 울렁거렸다. 해리는 너무 기뻐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초에게 칭찬을 듣고 나자. 해리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을 하기가 더욱더 망설여졌다.

"얘들아."

그 순간 아이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나... 나는 일부러 경순한 척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

"용과 싸울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

マイ클 코너가 즉시 반박했다.

"정말 멋있는 비행 솜씨였어."

"올여름에 디멘터와 싸울 때도 너 혼자서 했어."

수잔 본즈가 말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어떤 일은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내기도 했어.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해리가 말끝을 흐렸다.

"너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여 주지 않고 그냥 꽁무니를 빼려는 거니?"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말했다.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 넌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을 수 없니?"

해리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론이 말을 가로챘다. 아마도 '꽁무니를 뺀다'는 말에 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어쨌든 론은 자카리아스를 한 방 때려 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자카리아스가 얼굴을 붉혔다.

"글쎄, 우리는 모두 해리에게서 마법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와서 저 녀석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

자카리아스가 중얼거렸다.

"해리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프레드가 그를 윽박질렀다.

"우리가 네 녀석 컷구멍 청소를 좀 해줄까?"

조지는 종코의 장난감 가게 봉투 안에서 길고 날카롭게 생긴 금속 도구를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물었다.

"아니면 귀 말고 네 몸 어디든 파 주지. 우린 이걸로 어딜 찌르든
상관없으니까 말이야."

프레드가 장단을 맞추었다.

"어서 하던 이야기나 계속하자."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쨌든 요점을 정리하면, 모두 다 해리에게 마법을 배우는데에 동의한
거지?"

동의를 표시하는 낮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오직 자카리아스만이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어저먼 프레드의 손에 들린 무시무시한
도구를 눈으로 연신 살피느라 너무 바빴는지도 몰랐다.

"좋아."

헤르미온느는 마침내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음 문제는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만나면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안젤리나가 제동을 걸었다.

"반드시 퀴디치 연습 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어."

"물론이지. 우리 팀 연습 시간과도 겹치면 안 돼."

"우리 팀도 마찬가지야."

자카리아스 스미스도 한마디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 모두 괜찮은 저녁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우린 지금 보-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과 맞서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말 한번 잘했어!"

어느 맥밀란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해리는 훨씬 전부터 그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쩌면 올해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할지 몰라. 심지어 앞으로 치르게
될 O.W.L. 보다도 더 말이야!"

그리고 맥밀란은 진지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 '절대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나서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자,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나는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마법부가 왜 그런 쓸모없는
선생을 우리 학교에 얹지로 집어넣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분명히
마법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어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선생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헤르미온느가 끼어들었다.

"우리 짐작에 엉브릿지가 우리에게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일종의
사병으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지.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를
동원해서 마법부와 맞서려고 한다는 거야."

이 말을 듣자, 거의 모든 아이들이 기절할 듯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직 단 한 사람, 루나 러브굿만 새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그래, 그럴듯한 말이야. 어쨌든 코넬리우스 퍼지는 자기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

"뭐라고?"

이 뜻하지 않은 정보에 해리는 머리를 한 대 얹어맞은 것 같았다.
"그렇다니까. 퍼지는 힐리오패스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루나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헤르미온느가 반박을 했다.
"맞아, 있다니까."
루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근데 힐리오패스가 뭐야?"
네빌이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건 불의 정령이야."
루나가 열심히 설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톡 튀어나온 눈을 크게 부릅뜨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덩치가 크고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생물인데, 온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뭐든 태워 버리지."
"그런 건 없어, 네빌."
헤르미온느가 딱 잘라 말했다.
"아니야, 있어!"
루나가 버럭 화를 냈다.
"미안하지만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였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잇지. 단지 네가 너무 편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넌 모든 걸 네 코앞에 직접 들이대야 직성이 풀리는—"
"흠흠."
지니가 너무나 그럴듯하게 엉브릿지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지니가 소리쳤다.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서 방어술 연습을 할지는 안 정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지니."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지니의 말에 찬성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리 조던이 제안했다.
"하지만 반드시—" 안젤리나가 또다시 앞으로 나섰다.
"알아, 알아. 퀴디치 연습 말이지."
헤르미온느가 마음이 급한 듯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거 말고도 결정할 게 또 있어. 앞으로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거야."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다. 선뜻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도서관을 어떨까?"
잠시 후에 케이티 벨이 의견을 냈다.
"우리가 도서관 안에서 마법을 쓰는 걸 핀스 부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해리가 말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빈 교실은?"
딘이 다른 의견을 냈다.
"그래. 맥고나걸 교수님이라면 자기 교실을 쓰도록 허락해주실 거야.
해리가 트리위저드 시합을 위해 연습을 할 때도 허락해 주셨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맥고나걸 교수님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해리는 잘 알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공부 모임이나 숙제 모임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모임은 훨씬 더 불온하게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했다.
"좋아. 그럼 어디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하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첫 번째 모임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너희들 모두에게 연락할게."

헤르미온느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양피지와 깃펜을 꺼내놓고 잠시 망설였다. 뭔가 말하기 힘든 말을 꺼내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 나는 모두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누가 이 자리에 왔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헤르미온느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모두들 이 일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다 서명을 하면, 엄브릿지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것이 되는 거야."

프레드가 제일 먼저 양피지를 집어 들더니 서슴없이 자기 이름을 썼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종이에 적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저하며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

조지가 양피지를 넘겨주자, 자카리아스는 밭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은근히 꽁무니를 빼다.

"나는 우리가 언제 모일지 어니한테서 들으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어니도 이름을 적는 일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가 눈을 치켜뜨며 그를 노려보았다.

"우- 우린 방장이잖아."

어니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혹시라도 이 명단을 들기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너도 말했듯이... 엄브릿지가 이걸 발견이라도 하면...."

"바로 네 입으로 이 모임이야말로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헤르미온느가 그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내가 보기엔- 그래."

어니가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맞아. 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니, 넌 정말로 내가 이 명단을 아무 데나 보관할 거라고 생각하니?"

헤르미온느가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아니야. 물론 아니겠지."

어니는 약간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나- 나는- 그래, 이름을 적을게."

어니 이후로는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오직 초의 친구만이 자기 이름을 적기 전에 원망하는 눈길로 초에게 한 번 던질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카리아스까지 서명을 하고 나자, 헤르미온느는 양피지를 다시 말아서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이제 아이들 사이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치 어떤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난 듯한 표정이었다.

"자,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

프레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조지와 리, 그리고 나는 아주 예민한 성질의 물건을 좀 사야 할 게 있어서, 그만 먼저 갈게."

나머지 아이들도 두세 명씩 짹을 지어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초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가방이 확실히 잠겼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끌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앞으로 훌러내려서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여자 친구는 팔짱을 낀 채, 혀를 쫓고 차면서 그 옆에 딱 버티고 서 있었다. 결국 초는 친구와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다. 친구가 연신 문 쪽으로 등을 떠미는 와중에도, 초는 뒤를 돌아보며 해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일이 아주 잘된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신이 나서 떠들었다. 이제 그녀와 해리, 론은 밝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호그스 해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중이었다. 해리와 론은

아직도 손에 버터 맥주병을 쥐고 있었다.

"자카리아스 녀석은 골치덩어리야."

론은 저 멀리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 스미스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도 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헤르미온느도 인정했다.

"하지만 후플푸프 테이블에서 내가 어니와 한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말을 엿듣고는 자기도 정말 오고 싶다고 하잖아.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 솔직히 마이클 코너와 그 친구들은 지니와 함께 오는 게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버터 맥주의 마지막 한 모금을 들이켜고 있던 론은 이 말을 듣자, 왁하고 구역질을 하면서 입에 든 맥주를 내뿜었다.

"그 녀석이 뭐라고?"

론이 벌컥 화를 내며 빠르게 지껄였다. 빨갛게 달아오른 그의 귀는 흡사 뺨건 날고기 조각을 말아 놓은 것처럼 보였다.

"내 여동생이- 내 여동생이 마이클 코너와 함께 다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이클 코너와 그 친구들이 여기 온 건 순전히 그 때문이야. 물론 그 아이들도 방어술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건 확실해. 하지만 지니가 마이클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언제부터 지니가?"

"작년 말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무도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울리기 시작했어."

헤르미온느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하이가로 접어들자, 스크리벤샤프트의 깃펜 가게 앞에서 걸음이 멈추었다. 가게 진열장에는 꽁깃털로 만든 멋진 깃펜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음... 나는 새 깃펜을 좀 사야겠어."

헤르미온느는 가게로 들어갔다. 론과 해리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 어떤 녀석이 마이클 코너였어?"

론이 격렬하게 따져 물었다.

"검은 머리."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어쩐지 그 녀석이 싫었어."

론이 주저 않고 말했다.

"그거 참 놀랍구나."

헤르미온느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난 지니가 해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론은 헤르미온느의 뒤를 따라서 깃펜이 든 구리 항아리들이 줄지어 늘어선 선발 옆을 지나갔다. 헤르미온느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론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물론 한때는 해리를 좋아했었지. 하지만 이미 몇 달 전에 해리를 포기했어. 물론 그렇다고 지니가 너를 싫어한다는 건 아니야."

헤르미온느는 검은색과 황금색이 섞인 긴 깃펜 하나를 열심히 살펴보면서, 친절하게 해리를 향해 한마디 덧붙였다.

한편, 아직까지도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던 해리는 론만큼 이 화제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론은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때 문득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해 주는 거지?"

론이 헤르미온느를 추궁했다.

"지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바로 이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래, 이걸 가야겠어."

헤르미온느는 계산대로 가서 15 시클과 2 크넛을 건네주었다. 그동안에도 론이 여전히 씩씩거리며 옆에 붙어 있었다.

"론, 네가 이러니까 그동안 지니가 마이클을 사귄다는 말을 너에게 하지 않은 거야."

뒤로 돌아서다가 그만 론의 발을 밟아 버린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지니는 네가 안 좋아할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발 그만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안 좋아한다고 그래?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론은 거리를 내려가는 동안 줄곧 입속으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눈짓을 하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론은 여전히 마이클 코너에 대해서 욕설과 악담을 퍼붓고 있었다.

"마이클과 지니는 그렇다고 치고... 너와 초는 어떻게 됐니?"

"그게 무슨 뜻이야?"

해리가 시치미를 냈다.

하지만 마치 그의 몸속에서 부글부글 물이라도 끓고 있는 것 같았다.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은 차가운 날씨 속에 더욱 두드러졌다.

"글쎄, 초는 너에게서 도통 눈을 떼지 못하던걸,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날 해리는 호그스미드가 이토록 아름다워 보이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제 17 장 교육 법령 24 조

해리는 남은 주말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마음으로 지냈다. 그와 론은 또다시 밀린 숙제를 해결하느라, 일요일 내내 고생을 해야만 했다. 비록 썩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마지막 가을 핫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휴게실 책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대신 숙제를 들고 밖으로 나가, 호숫가의 커다란 너도밤나무 그늘 아래에서 풍물며 공부를 했다. 당연히 모든 숙제를 제날짜에 다 끝낸 헤르미온느는 털실을 들고 나와서 뜨개질바늘에 마법을 걸었다. 그러자 바늘은 그녀의 옆에 둥둥 떠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모자와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해리는 드디어 엉브릿지와 마법부에 대항하여 뭔가 일을 벌이기 시작했고, 자신이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모임을 자꾸 되풀이해서 떠올렸다. 그 많은 아이들이

어둠의 마법에 맞설 수 있는 방어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일들을 들었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란... 게다가 초는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그가 보여 준 실력에 감탄하며 칭찬까지 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를 거짓말쟁이 괴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리는 한껏 기분이 고조되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월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즐겁고 행복했다.

해리와 론은 침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안젤리나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에 있을 퀴디치 연습에서 '슬로스 그립 룰'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연습해 보자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핫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휴게실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몇몇 아이들은 벌써 그 주위에 몰려들어 있었다.

커다란 공고문이 그리핀도르 게시판에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 공고문은 다른

모든 전단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 세일 중인 중고 마법책 목록이나 아구스 필치가 정기적으로 붙여 놓는 학교 규칙에 대한 경고문, 퀴디치 팀 훈련 시간표,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서로 교환하자는 제안문, 실험 지원자를 모집하는 위즐리 형제의 가장 최근 광고문, 호그스미드 주말 방문 일을 알리는 공고문, 분실물 광고 등이 전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새로운 공고문은 커다란 검은색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단정하고 깔끔한 서명 옆에 대단히 권위적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호그와트 장학사의 포고령

이제부터 모든 학생들의 조직이나 모임, 팀, 단체, 클럽 활동 등을 일절 금지한다.

이제부터 조직, 모임, 팀, 단체 클럽 활동이란, 세 명이상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장학사인 엠브릿지 교수로부터 재조직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장학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학생 조직이나 모임, 팀, 단체 클럽 활동도 있을 수 없다.

장학사가 인정하지 않은 조직이나 모임, 팀, 단체, 클럽 활동을 만들거나 가입한 학생은 누구든지 퇴학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명령은 교육 법령 24 조에 따른 것임.

장학사, 돌로레스 제인 엠브릿지

해리와 론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2학년 학생들 머리 너머로 이 공고문을 읽었다.

"설마 곱스톤 클럽을 폐쇄하려는 건 아니겠지?"

한 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곱스톤 클럽은 괜찮을 거야."

론이 등 뒤에서 음산한 목소리로 불쑥 대답하자, 2학년 학생은 펄쩍 뛸 듯이 놀랐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운이 좋을 것 같지 않군, 안 그래?"

론이 해리에게 물었다. 놀란 2학년 학생들은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다.

해리는 그 공고문을 다시 한 번 읽고 있었다. 토요일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던 행복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해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다.

"엠브릿지는 알고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

론이 즉시 반박했다.

"그 술집에서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은 거야.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믿을 수 있는지 우린 잘 몰라. 어느 누군가 엠브릿지에게 쫓아가서 고자질했을 수도 있지."

해리는 그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심지어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카리아스 스미스, 그 녀석이야!"

해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론이 주먹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치며 소리쳤다.

"아니면 마이클 코너 그 녀석도 웬지 수상쩍어 보였어."

"헤르미온느는 아직 이 공고문을 못 봤을까?"

해리가 여학생 침실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서 가서 말해 주자.'

론은 얼른 앞으로 뛰어가더니 문을 열고 나선형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섯 번째 계단을 밟는 순간,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계단이 돌로 만든 나선형 미끄럼틀처럼 쭉쭉 늘어났다.

론은 잠깐동안 두 팔을 풍차 날개처럼 미친 듯이 휘저으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곧 뒤로 벌렁 자빠지면서 방금 만들어진 미끄럼틀을 타고 해리의 발밑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

"우리는 여학생 침실에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

해리는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론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

그때 4학년 여학생 두 명이 키키클거리며 돌 미끄럼틀을 타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누가 위로 올라오려고 했나 봐?"

여학생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미끄럼틀에서 일어나더니 론과 해리에게 살짝 윙크를 했다.

"나야..."

론은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 이건 불공평해!"

론이 해리에게 투덜거렸다. 여학생들은 아직도 신이 나서 깔깔거리며 초상화 구멍 쪽으로 가 버렸다.

"헤르미온느는 남학생 침실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래,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이야."

두 사람 앞으로 멋지게 미끄러져 내려온 헤르미온느는 발딱 일어서며 말했다.

"'호그와트의 역사' 책에 보면, 이 학교의 창립자들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했대. 어쨌든 여학생 침실에는 왜 들어오려고 했는데?"

"널 만나려고, 이것 좀 봐!"

론이 헤르미온느를 계시판 앞으로 끌고 갔다.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공고문을 읽어보더니, 표정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누군가 그 여자에게 고자질을 한 게 틀림없어!"

론이 화를 냈다.

"그럴 리가 없어."

헤르미온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너무 순진해. 단지 네가 약속을 잘 지키고 명예를 중시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 아이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서명을 한 양피지 종이에 내가 주문을 걸어 놓았거든."

헤르미온느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날 믿어. 만약 누군가 엉브릿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면, 금방 들통이 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곧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걸."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론이 열심히 물었다.

"두고 봐."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엘로이즈 미전의 여드름쯤은 그저 귀여운 주근깨 정도로밖에 안 보이게 될걸. 어서 식당으로 내려가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이 공고문이 기숙사 전체에 다 붙었는지 궁금해."

대연회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엉브릿지의 공고문이 그리핀도르 기숙사에만 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연회장의 떠들썩한 말소리와 분주한 움직임에서 평소와 다른 특별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학생들은 테이블 주위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아침에 나붙은 공고문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자리에 앉자마자, 네빌과 딘, 프레드, 조지, 그리고 지니가 우르르 몰려왔다.

"너도 그거 봤니?"

"엉브릿지가 알아차렸을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이들은 모두 해리만 바라보았다. 해리는 주위를 돌아보며 근처에 다른 선생님들이 없는지 확인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든 계획한 대로 할 거야."

해리가 침착하게 말했다.

"난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조지가 활짝 웃으며 해리의 팔을 톡 쳤다.

"두 분 반장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신가?"

프레드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빙정거리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물론이야."

헤르미온느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저기 어니와 한나 아보트가 온다."

론이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저 래번클로 녀석들과 스미스도 오는걸. 하지만 얼굴이 종기투성이가 된 녀석은 아무도 없군."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랐다.

"종기 따위는 신경 쓰지 마. 그보다도 저 멍청이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의심을 살 거야. 어서 저리 가서 앉아!"

헤르미온느가 어니와 한나에게 소리 없이 입을 벙긋거리며 어서 후풀푸프의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미친 듯이 손짓을 했다.

"너희들에게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내가 마이클에게 가서 말할게."

지니가 초조한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휴... 저 바보들..."

지니는 황급히 래번클로 테이블로 갔다. 해리는 걸어가는 지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다지 멀지 않은 자리에 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호그스 해드에 데려왔던 곱슬머리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엉브릿지의 공고문을 보고, 초도 겁에 질려서 더 이상 그들과 만나지 않을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이 마법의 역사 수업을 듣기 위해서 대연회장을 막 떠나려 할 때까지도, 공고문의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실감할 수 없었다.

"해리! 론!"

그때 안젤리나가 얼빠진 표정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안젤리나가 가까이 다가오자, 해리가 침착하게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우린 그래도 계획대로..."

"엉브릿지가 그 공고문에 퀴디치 팀도 넣은 걸 알고 있었니? 그리핀도르 팀을 다시 만들려면 그 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해!"

안젤리나가 해리에게 말했다.

"뭐라고?"

해리가 되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

론은 사색이 되어서 중얼거렸다.

"공고문을 읽어 봐. 거기에 팀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해리, 내 말을 잘 들어.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다시 말할게. 제발, 제발 앞으로는 엉브릿지에게 화를 내지 마. 화를 냈다가는 두 번 다시 퀴디치를 못 하게 할 수도 있어."

"알았어. 알았어."

해리는 선선히 대답했다. 안젤리나가 당장에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걱정하지 마. 행동을 조심할게."

"틀림없이 엉브릿지는 마법의 역사 수업에 들어올 거야."

빈스 교수의 수업에 가면서 론이 우울하게 말했다.

"아직까지 빈스 교수의 수업은 참관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 여자가 그 수업에 온다는 데 뭐든지 걸어도 좋아."

하지만 론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오직 빈스 교수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의자에서 4, 5센티미터쯤 둑둥 허공에 뜯 채, 변함없이 졸린 목소리로 거인 전쟁에 관한 사설을 늘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리는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빈스 교수의 말을 애써

귀담아들을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씩 팔꿈치로 톡톡 치며 짜려보는 헤르미온느를 무시한 채, 양피지 종이 위에 낙서를 끼적거렸다. 하지만 너무 아프게 옆구리를 쿡 찌르는 바람에, 순간 짜증이 나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왜 그래?"

헤르미온느가 창문을 가리켰다. 해리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헤드위그가 좁은 창틀에 앉아서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헤드위그의 발에는 편지가 둑여 있었다. 해리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방금 전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왜 평소처럼 그 시간에 편지를 배달하지 않았을까? 이제 다른 학생들도 헤드위그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시작했다.

"오, 난 언제나 저 부엉이를 좋아했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니?"

라벤더가 패르바티에게 한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빈스 교수 쪽을 슬쩍 살펴보았다. 그는 학생들의 주의가 보통 때보다도 더욱 산만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책을 읽고 있었다. 해리는 살그머니 의자에서 빠져나와 허리를 숙이고 창문 쪽으로 종종걸음을 쳤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해리는 헤드위그가 다리를 안으로 들이밀고 편지를 전해 준 다음, 부엉이장으로 다시 날아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몸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창문이 열리자마자, 헤드위그는 교실 안으로 풀썩 뛰어들더니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해리는 초조하게 빈스 교수 쪽을 계속 돌아보면서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헤드위그를 어깨 위에 앉힌 채, 몸을 잔뜩 숙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무사히 자리에 앉은 해리는 헤드위그를 무릎에 내려서 다리에 둑여 있는 편지를 풀려고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해리는 헤드위그의 깃털이 마구 헝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부분은 깃털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게다가 한쪽 날개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다쳤구나!"

해리가 헤드위그 위로 머리를 숙이며 속삭였다.

헤르미온느와 론이 바싹 옆으로 다가왔다. 헤르미온느는 손에 쥐고 있던 깃펜조차 내동댕이쳐 버렸다.

"이거 봐. 여기 날개가 이상해."

해리가 날개를 살짝 건드리자, 파르르 몸을 떨고 있던 헤드위그가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그리고 마치 몸을 잔뜩 부풀리려는 듯이 온몸의 깃털을 곤두세우고

원망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빈스 교수님."

해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보았다.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책에서 눈길을 뗀 빈스 교수는 늘 그렇듯이 불현듯 방 안 가득 앉아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다.

"몸이 좋지 않다고?"

빈스 교수는 명하니 그의 말을 따라했다.

"네, 너무 안 좋아요."

해리는 헤드위그를 등 뒤로 숨긴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무래도 병동에 가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빈스 교수는 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완전히 얼이 빠진 것 같았다.

"알았어요. 그래요, 병동으로 가도록. 그럼, 퍼킨스..."

일단 교실 밖으로 나오자, 해리는 다시 헤드위그를 어깨 위에 앉히고 재빨리 복도를 달려 내려갔다. 빈스 교수의 교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물론 다친 헤드위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해그리드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선택이라고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를 찾아가서 부디 도와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해리는 창문 너머로 사나운 바람이 불고 있는 어두컴컴한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해그리드의 오두막 근처 어디에도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만약 수업이 없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교무실에 있을 것이다. 해리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헤드위그는 그의 어깨 위에 앉아서 힘없이 울고 있었다.

교무실 문 앞에는 돌로 만든 이무기 상 두 개가 버티고 앉아 있었다. 해리가 다가가자, 그 중 하나가 짹 소리를 질렀다.

"넌 지금 교실에 있어야 하잖아. 이 녀석아."

"급한 일이야."

해리가 딱 잘라서 말했다.

"오호라, 급한 일이라고?"

또 다른 이무기가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 안 그래?" 해리는 문을 똑똑 두드렸다.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맥고나걸 교수와 딱 마주쳤다.

"설마 또 별을 받는 건 아니겠지?"

그를 보자마자, 맥고나걸 교수가 네모난 안경 뒤로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닙니다. 교수님!"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수업 시간에 나온 거지?"

"아주 급하신 일이랍니다."

두 번째 이무기가 빙정거렸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건 제 부엉인데 몹시 다쳤거든요."

해리가 설명했다.

"다친 부엉이라고 그랬니?"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맥고나걸 교수의 어깨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언자 일보'를 손에 든 채, 입에는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었다.

"네."

해리는 헤드위그를 조심스럽게 어깨에서 내렸다.

"다른 배달 부엉이들보다 늦게 나타났는데, 날개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보세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이로 파이프를 짹 물고 해리에게서 헤드위그를 넘겨받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흠."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 문 파이프가 달랑거렸다.

"뭔가에 공격을 받은 것 같구나. 그게 원지는 모르겠지만, 세스트랄이 가끔 새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해그리드가 호그와트의 세스트랄은 부엉이를 건드리지 않도록 잘 훈련시켜 놓았는데."

해리는 세스트랄이 원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그저 헤드위그가 무사한지 그것만 알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는 날카로운 눈으로 해리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 부엉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고 있니, 포터?"

"저... 런던이에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일자로 되는 것을 보고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가 '런던'이 곧 '그리울드 광장 12 번지'를 뜻한다는 걸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망토 안쪽에서 외알 안경을 꺼내더니 눈에 끼고

헤드위그의 날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엉이를 잠시 나에게 맡긴다면, 이 정도 상처는 내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어쨌든 며칠 동안 멀리 날아서는 안 된다."

"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리가 대답했다. 바로 그때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천만에."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더니 획 돌아서서 교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잠깐만, 월헬미나! 포터의 편지!"

맥고나걸 교수가 소리쳤다.

"아, 맞아요!"

해리는 잠깐 동안 헤드위그의 다리에 묶여 있던 편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편지를 넘겨주더니 다시 헤드위그를 데리고 교무실 안으로 사라졌다. 헤드위그는 그가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떠나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다소 죄책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포터!"

"네, 교수님?"

맥고나걸 교수는 복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어느 쪽에서도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명심해라."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의 손에 쥔 양피지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호그와트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편지들은 모두 감시를 당할 수도 있어.

알겠지?"

"저도..."

해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학생들이 복도를 따라 파도처럼 밀려왔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교무실로 들어갔다. 해리는 학생들 틈에 훨씬 있어서 운동장으로 나갔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벌써 바람이 부는 외진 구석에 서서 잔뜩 옷깃을 올려 세운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면서 그들을 향해 서둘러 다가갔다. 양피지에는 시리우스의 필체로 딱 다섯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헤드위그는 괜찮아?"

해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헤드위그는 어디다 맡겼니?"

론이 물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님한테.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님을 만났는데..."

해리는 두 사람에게 맥고나걸 교수가 했던 말을 다시 들려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전혀 충격을 받은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다.

"뭐야?"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방금 론에게 이야기하는 중이었어. 누군가 헤드위그를 가로 채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내 말은 헤드위그가 지금까지 날다가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안 그래?"

"그건 그렇고 누가 보낸 편지야?"

론이 해리에게서 편지를 받아 들며 물었다.

"스누플즈야."

해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휴게실에 있는 그 벽난로를 말하는 건가?"

"당연하지."

헤르미온느가 편지를 함께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아주

어두웠다.

"아무도 이 편지를 읽지 않았어야 할 텐데..."

"하지만 봉인도 그냥 있고 모든 게 다 정상이야."

해리는 헤르미온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안심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게다가 우리가 전에 어디서 시리우스와 만났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다시 수업 종이 울리자, 헤르미온느는 가방을 어깨에 메며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마법으로 양피지를 다시 봉인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플루 가루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에게 오지 말라고 어떻게 경고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들은 마법약 수업을 위해 지하 교실로 향하는 돌계단을 내려갔다. 세 사람은 모두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드레이크 말포이의 거친 목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는 스네이프 교실 문 밖에 서서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양피지 종이를 흔들며, 들으라는 듯이 필요 이상으로 시끄럽게 떠들어 대고 있었다.

"슬리데린 퀴디치 팀은 그냥 그대로 연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엄브릿지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지. 오늘 아침에 내가 찾아가서 제일 먼저 부탁을 드렸거든. 사실 그거야 당연한 일이다.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를 아주 잘 아시거든. 아버지는 항상 마법부를 드나드시니까. 그런데 그리핀도르 녀석들도 연습을 계속하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걸, 안 그래?"

"화내지 마."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에게 타이르듯 속삭였다. 두 사람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성난 표정으로 말포이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말포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말포이가 그의 회색 눈을 해리와 론을 향해 심술궂게 번뜩이며 더욱더 목청을 높였다.

"만약 이게 마법부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면, 그 녀석들은 별로 가망성이 없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마법부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아서 위즐리를 내쫓을 구실만 찾고 있다더군. 게다가 포터 녀석으로 말하자면, 마법부가 그 녀석을 성 응고 병원에 가두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야. 성 응고 병원에서는 마법으로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들을 특별 수용하고 있거든."

말포이가 눈알을 뒤틀리며 입을 헤벌리고 얼굴 근육을 일그러뜨렸다.

그 모양을 보고 크레이브와 고일은 늘 그렇듯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팬시 파킨슨도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바로 그때 뭔가가 해리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그를 쓰러뜨렸다. 잠시 후에 해리는 네빌이 방금 그의 옆을 지나서 말포이를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빌, 안 돼!"

해리는 앞으로 몸을 날려서 네빌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네빌은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말포이에게 다가가려고 미친 듯이 몸을 베동거렸다. 말포이는 한동안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날 좀 도와줘!"

해리가 론에게 소리쳤다. 그는 간신히 네빌의 목을 끌어안아 슬리데린 패거리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고 있는 중이었다. 크레이브와 고일은 어깨를 구부정하게 세운 채, 싸울 태세를 갖추고 말포이의 앞으로 나섰다. 론은 네빌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해리와 함께 힘을 합쳐 간신히 네빌을 그리핀도르 자리까지 끌고 오는 데 성공했다. 네빌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다. 해리가 그의 목을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 띄엄띄엄 새어 나왔다.

"웅고 병원... 놀리면... 안 돼..."

그때 지하교실의 문이 열리면서 스네이프가 나타났다. 그리핀도르 출을 살펴보던 그의 검은 눈이 한창 네빌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해리와 론에게 머물렀다.

"포터, 위즐리, 롱바텀, 싸우고 있는 거냐?"

스네이프가 차갑고 비꼬는 어조로 물었다.

"그리핀도르는 10 점 감정이다. 포터, 그만 롱바텀을 놓아줘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거다. 다들 교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리는 네빌을 놓아주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해리를 가만히 노려보고 서 있었다.

"널 말리지 않을 수 없었어."

해리가 가방을 집어 들며 말했다.

"크레이브와 고일이 널 반쯤 죽였을 거야."

네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더니 지하 교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론이 네빌의 뒤를 따라가며 천천히 물었다. 해리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마법으로 머리가 이상해져서 성 웅고 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네빌을 성나게 했는지, 해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덤블도어 교수님께 어느 누구에게도 네빌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다. 네빌조차도 해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교실 뒤쪽의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양피지와 깃펜과 '1000 가지 마법 약초와 곰팡이' 책을 꺼냈다. 학생들은 방금 네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스네이프 교수가 턱 소리를 내며 지하 교실의

문을 닫자,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오늘은 우리 수업에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다."

스네이프는 지하 교실의 어두운 한쪽 구석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엉브릿지 교수가 무릎 위에 필기판을 올려놓은채 앉아 있었다. 해리는 눈썹을 추켜올리며 론과 헤르미온느를 슬쩍 곁눈질했다. 스네이프와 엉브릿지는 그가 가장 미워하는 두 선생님이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싫은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오늘은 마력 강화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다.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두고 간 용액을 각자 찾아가도록 해라. 만약 제대로 만들었다면, 주말 동안 용액이 잘

숙성되었을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칠판에 있다."

스네이프는 다시 지팡이를 휘둘렀다.

"실시하도록"

처음 삼십 분 동안 엉브릿지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적기만 했다.

해리는 그녀가 스네이프에게 무슨 질문을 할지 너무나 궁금했다. 어찌나 거기에 정신이 팔렸던지, 해리는 또 다시 마법약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해리, 살라マン더의 피를 넣어야지!"

헤르미온느가 신음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가 잘못된 성분을 넣으려는 것을 벌써 세 번째 막아 주는 것이었다.

"자동 주스가 아니야!"

"아참, 그렇지."

해리는 명하니 병을 내려놓으면서도, 구석 자리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엉브릿지가 방금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하!"

엉브릿지가 스네이프를 향해서 책상 두 줄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가자, 해리는 기대된다는 듯이 조그맣게 탄성을 질렀다. 스네이프는 허리를 숙이고 딘

토마스의 냄비를 살펴보는 중이었다.

"이 수업은 아주 수준이 높은 것 같군요."

엄브릿지가 스네이프의 등 뒤에서 불쑥 말을 걸었다.

"솔직히 마력 강화제 같은 마법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권할 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 생각에 마법부에서는 차라리 이 과정을 수업에서 빼는 것을 더 선호할 거예요."

스네이프는 천천히 허리를 펴더니 엄브릿지를 향해 돌아섰다.

"호그와트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었죠?"

엄브릿지가 필기판 위에 깃펜을 올려놓은 채 물었다.

"14년입니다."

스네이프가 대답했다. 그의 표정만 봐서는 도무지 속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해리는 열심히 그를 지켜보면서, 마법약에 원가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즉시 쉬하고 위협적인 소리가 나면서 청록색이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에 지원하셨다고 하던데요?"

엄브릿지 교수가 스네이프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스네이프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셨죠?"

스네이프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맞습니다."

엄브릿지는 필기판에 원가를 휘갈겨 썼다.

"이 학교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해서 어둠의 마법 방어술 자리에 지원하셨죠?"

"네."

스네이프가 거의 입술을 다문 채, 들릴 듯 말 듯 대답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왜 덤블도어 교수가 계속해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선임하는데 반대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직접 물어보시죠."

스네이프가 빙정거렸다.

"오, 그러죠."

엄브릿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네이프가 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오, 물론이에요. 그럼요. 마법부에서는 교수들의... 음... 배경을 완전히 파악하고자 한답니다."

엄브릿지는 돌아서서 팬시 파킨슨에게 다가가더니 수업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스네이프가 해리를 돌아보는 바람에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해리는 황급히 마법약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제 그의 마법약은 끈끈하게 엉겨 붙으면서 고무가 타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포터, 또다시 빵점이구나."

스네이프가 심술궂게 말하며 지팡이를 휘두르자, 해리의 냄비 안이 순식간에 텅 비어 버렸다.

"이 마법약의 올바른 제조법에 관한 보고서를 써서 나에게 제출해라. 네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밝혀 써야 한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내도록. 알았나?"

"네."

해리는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스네이프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고, 오늘 저녁에는 퀴디치 연습까지 있었다. 결국 그것은 또다시 이를 밤을 꼬박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해리는 바로 오늘 아침에 그토록 행복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이 지겨운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무래도 점술 수업을 빼먹어야 할 것 같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웃깃과 모자 사이로 와 달은 바람이 칼로 에는 듯 쌀쌀했다.

"몸이 아픈 척하고 대신 스네이프의 보고서를 써야겠어. 그래야 밤을 꼬박 새우지 않을 거야."

"점술 수업을 빼먹을 순 없어."

헤르미온느가 무자비하게 말했다.

"이런,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넌 점술 수업 도중에 걸어 나온 적도 있잖아. 트릴로니 교수를 미워하면서!"

"난 트릴로니를 미워하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도도하게 말했다.

"단지 끔찍하게 형편없는 선생님이고 진짜 늙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지만 해리는 벌써 마법의 역사 수업을 빼먹었어. 그런데다 오늘 또 다른 수업까지 빼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헤르미온느의 말을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양심에 찔렸다. 결국 30 분 후에 해리는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후텁지근한 점술 교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했다. 트릴로니 교수가 다시 '꿈의 신탁'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마자, 해리는 여기 앉아서 거짓말로 지어낸 꿈의 의미를 찾느라 골머리를 썩이느니 차라리 스네이프가 벌로 내준 보고서를 쓰는 게 백 번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점술 수업에서 골이 난 사람은 해리 혼자만이 아닌 것 같았다. 트릴로니 교수는 해리와 론 사이의 책상 위에 '꿈의 신탁'을 탁 내려놓더니 입술을 빼죽거리며 핵 돌아섰다. 그리고 다음 책을 시무스와 딘에게 훑 던지는 바람에 시무스의 머리를 가격할 뻔했다. 결국 마지막으로 던진 책이 네빌의 가슴에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네빌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자, 그럼 시작해요!"

트릴로니 교수가 높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뭘 해야 할지는 다들 알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책 펴는 법까지 다시 가르쳐야 할 만큼 내가 자격 미달의 선생인가요?"

학생들은 어리둥절해서 선생을 바라보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트릴로니 교수는 긴 등받이가 있는 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돋보기 너머로 커다랗게 보이는 그녀의 두 눈에 분노에 찬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해리는 론에게 바싹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내 생각에 참관 수업 결과를 받은 것 같아."

"교수님?"

그때 패르바티 패틸이 조심스런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그녀와 라벤더는 항상 트릴로니 교수를 존경해 왔다).

"교수님, 혹시 원가 잘못된 일이라도?"

"잘못된 일이라고!"

트릴로니 교수가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물론 아니예요! 그저 모욕을 당했을 뿐이예요... 나에 대한 지독한 모욕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방을 당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이에요!"

트릴로니 교수는 부르르 떨며 한숨을 내쉬더니 패르바티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안경 밑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지난 16년 동안의 혼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건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죠. 하지만 그래도 모욕까지

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수님, 누가 선생님을 모욕했죠?"

패르바티가 망설이며 물었다.

"정부 기관이죠!"

트릴로니 교수는 분노로 떨리는, 깊고 극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아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세속적인 눈을 가진 자들... 물론 우리 예언자들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언제나 핍박을 받았죠. 아, 슬프게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트릴로니 교수는 울음을 끌꺽 삼키더니 솔 자락으로 젖은 뺨을 닦았다. 그리고 소맷자락에서 수가 놀인 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피브스가 야유하는 휘파람을 불 때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코를 풀었다.

론이 킁킁거리고 웃자, 라벤더가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째려보았다.

"교수님... 혹시 그 말씀은... 엉브릿지 교수님이 원가..."

패르바티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내 앞에서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트릴로니 교수는 목에 걸린 구슬이 요란하게 짤랑거리고 안경이 번쩍할 정도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짹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은 공부나 계속하세요!"

트릴로니 교수는 남은 수업 시간 동안 안경 너머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일종의 위협처럼 들리는 말을 끝없이 중얼거리며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만 떠나는 게 좋을걸... 나에게 이런 모욕을... 근신이라니... 두고 보겠어..."

어떻게 감히 이런..."

"너와 엉브릿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 시간에 다시 헤르미온느를 만난 해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엉브릿지도 트릴로니가 늙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트릴로니를 근신에 처한 모양이야."

바로 그때 엉브릿지가 머리에는 검은 벨벳 리본을 달고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엉브릿지 교수님."

학생들이 맥 빠진 목소리로 합창을 했다.

"지팡이를 치우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쓸데없이 지팡이를 꺼내 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법 방어 이론 34 페이지를 평고 3 장 '마법 공격에 대한 비공격적인 대응을 위한 사례'를 읽도록 하세요. 말은..."

"필요 없을 거예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합창을 했다.

"퀴디치 연습은 없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휴게실로 들어갔을 때, 안젤리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가만히 있었는데!"

해리가 지레 겁을 먹고 소리쳤다.

"안젤리나,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맹세할 수 있어."

"나도 알아, 안다니까."

안젤리나가 우울하게 말했다.

"엉브릿지가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어."

"뭘 생각한다는 거야?"

론이 벌컥 화를 냈다.

"슬리데린 팀에게는 벌써 허락을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린 안돼?"

하지만 해리는 엉브릿지가 그들에게 그리틴도르 퀴디치 팀을 없앨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고소해 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갔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무기를 그렇게 쉽게 단념하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자. 최소한 너는 스네이프가 내준 숙제를 할

시간이 생겼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해리가 쏘아붙였다. 한편 론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퀴디치 연습도 없고, 마법약 공부를 또 해야 하는데?"

해리는 의자에 텀썩 주저앉더니, 마지못해 가방에서 마법약 숙제를 꺼냈다.

하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시리우스가 나타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리는 몇 분마다 불 속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게다가 휴게실 안은 천장이 떠나갈 듯이 시끄러웠다. 프레드와 조지가 마침내
꾀병용 과자세트의 한 종류를 완성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 관중 앞에서 교대로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프레드가 오렌지 색깔이 나는 반쪽을 깨물더니 그들 앞에 놓인 양동이에
보란 듯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보라색 반쪽을 얹자마자, 구토가 순식간에 멈추었다. 옆에서 이들의 시범을 도와주고 있던 리
조던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시범이 끝날 때마다 스테이프가 해리의 마법약을
사라지게 할 때 사용했던 소멸 마법을 써서 양동이에 든 구토물을 사라지게
했다.

토하는 소리와 박수 소리, 프레드와 조지가 관중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자, 해리는 마력 강화제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헤르미온느까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박수 소리와 구토물이 프레드와 조지의 양동이 바닥에
털썩

떨어지는 소리 사이사이에 헤르미온느의 못마땅한 콧방귀 소리가 끼어들었는데,
해리는 그 때문에 더욱더 정신이 산란해졌다.

"차라리 그냥 가서 못 하게 해."

그리핀 발톱 가루의 분량을 네 번째 다시 고쳐 쓴 해리가 버럭 짜증을 냈다.

"그럴 수는 없어. 원칙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헤르미온느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무슨 지저분한 걸 먹든 그건 그들의 권리야. 게다가 다른 멍청이들이 그걸
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규칙을 찾을 수도 없었어. 어떤 식으로든 그게
위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어쨌든
보기에는

위험한 것 같지 않은 걸."

헤르미온느와 해리, 론은 조지가 양동이에 한바탕 토해 내고 나머지 반쪽은
먹은 다음, 허리를 쪽 펴고 일어서서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멍출 줄 모르는
환호성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왜 프레드와 조지가 O,W,L 시험을 세 개밖에 통과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프레드와 조지, 리가 열광하는 관중으로부터 금화를 긁어모으는 광경을
지켜보며, 해리가 중얼거렸다.

"저 방면에는 정말 도사란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일에만 도통했지."

헤르미온느가 한심하다는 듯이 비웃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론이 목청을 높였다.

"헤르미온느, 저들은 벌써 26 갈레온이나 벌었다고."

위즐리 형제들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뿔뿔이 훑어진 것은 그 후로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프레드와 리, 조지는 그날의 수입을 계산하느라 좀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결국 휴게실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만 남게 된 것은 자정이
꽤

지난 시각이었다. 마침내 프레드가 갈레온이 잔뜩 든 상자를 여보란 듯이
짤랑거리며 남학생 침실로 향하는 문을 닫고 나갔다. 헤르미온느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해리는 마법약 보고서를 더 이상 한 줄도 쓰지 못하고 그만 책을
덮어

버렸다. 오늘은 공부를 포기하기로 하고 책을 밀쳤을 때, 안락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론이 갑자기 입을 딱 벌리며 눈을 크게 뜨더니 불 속을 바라보았다.

"시리우스!"

론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해리가 재빨리 흑 돌아섰다. 시리우스의 지저분한 검은 머리가 또다시 불 속에 나타났다.

"안녕."

시리우스가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세 사람이 벽난로 앞 깔개에 무릎을 끊고 앉아서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크룩생크는 큰 소리로 울더니 불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시리우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들이밀려고 애를 썼다.

"별일 없었니?"

시리우스가 물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크룩생크가 수염을 불에 그슬리기 전에 뒤로 끌어당겼다.

"마법부에서 또 다른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 법령에 따라서 퀴디치 팀도 모일 수 없게 되고..."

"어둠의 마법 방어술 비밀 모임도 할 수 없게 되었군?"

시리우스가 말을 잇자, 모두들 잠깐 동안 말문이 막혔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해리가 물었다.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장소를 골랐어야지."

시리우스가 더욱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호그스 해드라니..."

"하지만 스리 브룸스틱스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헤르미온느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거긴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하지만 그만큼 엿듣기가 더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지. 넌 아직 배울 게 많구나. 헤르미온느."

시리우스가 말했다.

"누가 우리 이야기를 엿들었나요?"

해리가 물었다.

"물론 먼던구스지."

아이들이 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시리우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베일을 쓴 마녀가 먼던구스였단다."

"그 사람이 먼던구스였어요? 도대체 호그스 해드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해리는 어안이벙벙했다.

"그가 뭘 하고 있었을 것 같니?"

시리우스가 약간 짜증을 냈다.

"당연히 널 지켜보고 있었지."

"그럼 아직도 제가 미행을 당하고 있단 말인가요?"

해리가 화가 나서 물었다.

"그래, 맞아. 당연하지 않니, 안 그래? 주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법적인 모임이나 조직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전혀 화가 나거나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듯이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덩이 우리를 아는 척하지 않았죠?"

론이 약간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덩은 20년 전에 호그스 해드에서 출입 금지를 당한 적이 있단다. 그리고 그

술집 주인은 아주 기억력이 좋거든. 무디가 가지고 있던 여벌의 투명 망토는 스터지스가 체포될 때, 뒤집어버렸어. 그래서 요즘에 덩은 주로 마녀로 변장하고 다니지. 그건 그렇고... 론, 나는 네 어머니의 전갈을 너에게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 그래요?"

론의 목소리가 약간 조조하게 들렸다.

"어머니 말씀이, 네가 불법적인 어둠의 마법 방어술 비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 하에서도 안 된다고 하셨다. 너는 틀림없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장래를 망치게 될 거라고 하셨어.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고,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를 걱정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게 네 어머니의 생각이시다. 또한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도 이 모임을 계속하지 말라고 총고하셨다. 물론 그녀가 너희 두 사람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부디 너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부엉이가 가로채이면 너희들 모두가 진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까 봐 그럴 수 없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오늘 밤 임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직접 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셨다."

"무슨 임무죠?"

론이 재빨리 물었다.

"너는 신경 쓸 것 없어. 그저 기사단 일이란다."

시리우스가 말했다.

"어쨌든 이 말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부디 어머님께 내가 분명히 전했다고 말하렴. 솔직히 그다지 날 미더워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동안 크록생크가 야옹 하고 울면서 앞발로 시리우스의 머리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 한편 론은 깔개에 난 구멍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럼 아저씨도 저에게 방어술 모임에 끼지 말라고 총고하고 싶으세요?"

마침내 론이 중얼거렸다.

"나? 물론 아니지!"

시리우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걸!"

"정말이세요?"

갑자기 해리는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물론이지! 너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엉브릿지 같은 늙은 노파에게 명령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리우스가 말했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는 항상 저더러 몸조심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호그와트 내부의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잖니!"

시리우스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호그와트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그러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생각은 아주 훌륭한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다가 만약 퇴학이라도 당하게 되면요?"

헤르미온느가 야릇한 표정으로 물었다.

"헤르미온느, 이건 전부 네 생각이었어!"

해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건 나도 알아. 난 다만 시리우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뿐이야."

헤르미온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무 대책도 없이 학교 안에 가만히 죽치고 있느니, 퇴학을 당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편이 낫지."

시리우스가 대답했다.

"거봐, 들었지? 들었지?"

해리와 론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래, 이 모임을 어떻게 조직할 생각이니? 어디서 모일 거지?"

"지금 그게 좀 문제예요. 어디서 모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집은 어떨까?"

시리우스가 제안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론이 신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세 사람은 일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심지어 시리우스의 머리까지도 불길 속에서 옆으로 돌아갔다.

"아저씨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겨우 친구 네 명이서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 집에 모였잖아요. 게다가 네 명 모두 동물로 변신할 수도 있었고요.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투명 망토 하나에 네 명 모두가 몸을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스물여덟 명이나 되고, 애니마구스는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다 뒤집어쓰려면 투명 망토가 아니라, 투명 천막이 필요할 거예요."

"맞는 말이다."

시리우스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어딘가 적당한 곳을 찾을 거라고 믿는다. 옛날에는 4층 복도에 있는 커다란 거울 뒤로 깨 넓은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라면 주문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을거야."

"프레드와 조지가 그러는데, 거기도 막혔대요."

해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시리우스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내가 좀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그 순간 시리우스가 말을 멈추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나타나면서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는 옆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벽난로의 단단한 벽돌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시리우스?"

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해리는 명하니 입을 벌린 채, 불 속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론과 헤르미온느를 향해 돌아섰다.

"도대체 왜 그러는...?"

바로 그때 헤르미온느가 공포에 찬 신음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불 속을 향하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웅툭하고 짤막한 그 손가락에는 유행이 지난 보기 흉한 반지가 잔뜩 끼워져 있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황급히 달아났다. 남학생 침실로 가는 문 앞에서 해리는 뒤를 한 번 돌아보았다. 엉브릿지의 손은 아직도 불길 속에서 원가를 움켜쥐려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시리우스의 머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안달하는 것 같았다.

제 18 장 덤블도어의 군대

"해리, 그동안 엉브릿지가 네 편지를 읽고 있었던 거야.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럼, 엉브릿지가 헤드위그를 공격했단 말이야?"

해리가 벌컥 화를 냈다.

"내 생각에는 그게 틀림없어."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개구리 잘 봐. 도망치려고 하잖아."

해리는 어느새 책상 다른 편으로 펄쩍펄쩍 뛰어 달아난 황소개구리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아씨오!"

그러자 개구리는 다시 그의 손안으로 맥없이 끌려 들어왔다. 마법 수업은 개인적인 잡담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왔다갔다할 일이 너무 많고 번잡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의 말을 엿들을 위험이 거의 없었다. 더구나 오늘은 개굴개굴 떠들어 대는 황소개구리들과 까악까악 우는 까마귀들이 교실 안에 가득했고, 밖에서는 퍼붓듯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교실 창문을 요란하게 두드려 대고 있었다. 덕분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엉브릿지가 시리우스를 거의 잡을 뻔했던 상황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난 필치가 똥 폭탄을 주문했다면서 널 야단칠 때부터 뭔가 의심스러웠어.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도 너무 터무니없었거든."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네 편지를 한번 읽어 보면 네가 똥 폭탄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금방 밝혀졌을 거라는 거지. 넌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테고 말이야. 사실 그건 너무 싱거운 장난이야. 하지만 만약 누군가 네 편지를 읽어 볼 구실을 찾는 거라면? 엉브릿지가 뒤에서 조종하기에는 완벽한 방법이지. 필치에게 슬쩍 엉뚱한 소리를 흘려서 지저분한 짓은 다 시키고 편지를 손에 넣도록 한다. 그런 다음 편지를 다시 그에게서 훔치든지, 아니면 한번 보자고 하든지 무슨 수를 쓰는 거지. 내 생각에 필치는 한번 보자고 해도 절대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 필치가 언제 학생들의 권리 같은 것에 신경이나 쓴 적이 있어? 그런데 해리, 그러다가 네 개구리 배 터져 죽겠다."

해리는 밑을 내려다보았다. 무심결에 황소개구리를 어찌나 꽉 누르고 있었던지 눈알이 톡 튀어나오려고 했다. 해리는 황급히 개구리를 책상 위에 옮겨놓았다.

"어쨌든 어젯밤에는 아주 아슬아슬했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엉브릿지가 알았을까 그게 궁금하네, 실렌시오."

헤르미온느가 침묵 마법 주문을 외치자, 실험 대상이 된 개구리는 소리 없이 입만 딱 벌린 채, 원망스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만약 스누플즈가 엉브릿지 손에 잡혔다면..."

해리가 헤르미온느의 말을 받았다.

"오늘 아침에 당장 아즈카반으로 끌려갔을 거야."

해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황소개구리가 초록색 풍선처럼 마구 부풀어 오르면서 쑥쑥 바람 새는 소리를 냈다.

"실렌시오!"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개구리를 향해 황급히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러자 황소개구리는 소리 없이 그들 눈앞에서 쭈그러들었다.

"이제 시리우스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시리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군. 부엉이를 보낼 수도 없고 말이야."

"설마, 시리우스가 또다시 이런 모험을 하진 않을 거야."

론이 말했다.

"시리우스는 바보가 아니야. 하마터면 그 여자 손에 거의 잡힐 뻔했다는 걸 알고 있어. 실렌시오."

그의 앞에 놓여 있던 커다랗고 못생긴 까마귀가 그를 조롱하듯이 까악 하고 울었다.

"실렌시오. 실렌시오!"

까마귀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네 지팡이 사용법이 잘못된 거야."

헤르미온느가 론을 지켜보며 총고했다.

"지팡이를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돼. 특하고 치듯이 움직여야지."

"까마귀는 개구리보다 더 어렵단 말이야."

론이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좋아, 그럼 바꾸자."

헤르미온느는 론의 까마귀를 집어 들더니, 자신의 뚱뚱한 황소개구리와 자리를 바꿨다.

"실렌시오!"

까마귀는 지지 않고 날카로운 부리를 계속해서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주 잘했어요, 그레인저 양!"

갑자기 플리트윅 교수의 순 목소리가 들리자, 세 사람은 기절초풍할 듯이 놀랐다.

"이번에는 위즐리 군이 한번 해보세요."

"네? 아, 그러죠."

론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어... 실렌시오!"

하지만 개구리를 향해 너무 세게 지팡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개구리의 눈을 쿡 찌르고 말았다. 개구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지르며 책상 위를 펄떡펄떡 뛰어다녔다.

결국 해리와 론에게만 특별히 침묵 마법을 따로 연습하라는 숙제가 주어진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되어도 학생들은 교실 안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 그들은 학생들로 붐비는 시끄러운 1층 교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피브스는 샹들리에 근처에서 할 일 없이 나른하게 떠다니다가, 이따금 학생들의 뒤통수를 향해서 잉크 폭탄을 던지곤 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안젤리나가 수다를 떨고 있는 학생들 틈을 비집고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드디어 허락을 얻었어!"

안젤리나가 소리쳤다.

"퀴디치 팀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됐어!"

"굉장하다!"

"맞아."

안젤리나가 활짝 웃었다.

"내가 맥고나걸 선생님을 찾아갔거든. 아마 맥고나걸 선생님이 덤블도어 선생님께 부탁을 드린 것 같아. 어쨌든 엉브릿지도 결국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일곱 시에 운동장으로 내려오도록 해. 그동안 연습 못한 것을 보충해야지. 우리의 첫 번째 시합이 겨우 삼 주밖에 안 남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지?"

안젤리나는 다시 사람들 틈을 헤치며 그 자리를 떠났다. 피브스가 그녀를 향해 잉크 폭탄을 던졌지만,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머리를 스지고 지나가면서 그 옆에 있던 애꿎은 신입생에게 명중했다. 안젤리나는 금방 눈앞에서 사라졌다.

싱글벙글하던 론의 얼굴이 창 밖을 내다보는 순간, 약간 굳어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세찬 빗줄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던 것이다.

"부디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야겠군. 그런데 헤르미온느, 왜 그래?"

헤르미온느도 창 밖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을 잔뜩 지푸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밖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그냥... 생각 중이야."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이마를 짹그리며 비가 훌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시리... 아니, 스누플즈에 대해서?"

해리가 물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보다는... 그냥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때?"

해리와 론이 기가 막힌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한 가지는 확실하군. 네가 네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짜증 나는 일이라는 것 말이야."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비로소 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새삼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난 그냥 좀 의심스럽다는 거야."

헤르미온느는 좀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걸까? 어둠의 마법 방어술 모임을 시작한 게?"

"무슨 소리야?"

론과 해리가 동시에 소리쳤다.

"헤르미온느, 이건 처음부터 순전히 네 생각이었어!"

론은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알아."

헤르미온느가 손가락을 비틀며 대답했다.

"하지만 스누플즈와 이야기를 하고 나니 웬지..."

"스누플즈도 그 생각에 찬성했잖아."

해리가 말했다.

"그래.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

헤르미온느는 슬그머니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피브스는 오줌을 내깔길 자세를 취하고 엎드린 채, 둉둥 떠다녔다. 세 사람은 거의 자동적으로 가방을 들어서 피브스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머리 위를 가렸다.

"차라리 딱 까놓고 말해 보자."

세 사람이 다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 해리가 성난 목소리로 따졌다.

"시리우스가 우리 계획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넌 오히려 이 일을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헤르미온느는 약간 긴장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솔직히 넌 그의 판단력을 믿니?"

"물론이지!"

해리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는 언제나 가장 훌륭한 조언을 해주었어!"

그 순간 잉크 폭탄 하나가 그들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케이티 벨의 귀를 정통으로 맞혔다. 케이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으로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서 피브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넌 그가 좀... 그러니까...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리볼드 광장에 갈혀

지내게 된 이후로 말이야. 그가 웬지 우리를 통해서... 뭐랄까... 대리 만족을 하려는 것 같지 않니?"

"대리 만족을 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해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말은... 그러니까... 스누플즈가 마법부에서 나온 사람의 코앞에서 비밀 방어

단체를 만들고 싶어서 몸이 달았다는 거지. 그는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몹시 짜증이 난 상태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자꾸 부추기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몰라."

론은 기가 막혀 죽겠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시리우스 말이 맞아. 넌 꼭 우리 엄마처럼 말하는구나."

헤르미온느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는 순간, 피브스가 날쌔게 밑으로 급강하를 하더니 케이티의 머리 위에다 남은 잉크를 몽땅 쏟아 부어 버렸다.

해가 저문 후에도 날씨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저녁 일곱 시가 되어서 연습을 위해 퀴디치 운동장으로 나간 해리와 론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었다. 그들의 발은 흠뻑 젖은 잔디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회색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천둥이 쳤다. 비록 금방 다시 나가야 하는 줄은 알지만, 따뜻하고 밝은 탈의실에 들어서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행 연습을 피하기 위해서 꾀병용 과자세트를 쓸지 말지 한창 고민하고 있는 조지와 프레드를 발견했다.

"안젤리나라면 틀림없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차릴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구역질 사탕을 사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지 않는 건데 그랬어."

프레드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럼 발열 사탕을 써볼까?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

조지가 중얼거렸다.

"그게 효과가 있어?"

론이 귀가 솔깃해서 물어보았다. 좀 전부터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더욱 요란해지면서 비바람이 사납게 울부짖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이지. 먹자마자 당장 열이 치솟는 걸."

프레드가 대답했다.

"하지만 고름이 가득 찬 커다란 종기까지 텁텁 솟아나게 돼. 우린 아직 그걸 막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

조지가 말을 이었다.

"종기 같은 건 전혀 안 보이는데?"

론이 쌍둥이 형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물론 네 눈에는 안 보이겠지."

프레드가 우울하게 말했다.

"그 종기는 우리가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다니는 부위에 난 게 아니거든."

"하지만 빗자루에 앉으면 아파서 죽을 지경일 딱 그런 자리에..."

"좋아, 모두들, 내 말 잘 들어."

바로 그 순간 안젤리나가 주장실에서 나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연습하기에 적당한 날씨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면 이런 날씨에 슬리데린 팀과 시합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해리, 지난번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후플푸프 팀과 경기를 했을 때, 빗물에 안경이 흐려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었니?"

"내가 아니라 헤르미온느가 그랬어."

해리는 지팡이를 꺼내 들고 안경을 톡 치며 주문을 외웠다.

"임페르비우스!"

"우리 모두 그 방법을 써 보는 게 좋겠다."

안젤리나가 말했다.

"비가 얼굴로 곧장 들이닥치는 것만 막을 수 있어도, 시야를 확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럼 모두 다 함께... 임페르비우스! 좋아, 이제 나가자."

선수들은 일제히 망토 안주머니에 다시 지팡이를 집어넣고 빗자루를 어깨에 멘 채, 안젤리나의 뒤를 따라서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철퍼덕거리며 운동장 한가운데까지 걸어갔다. 임페르비우스 마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날은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비의 장막이 온 운동장을 훔쓸고 있었다.

"좋아, 그럼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시작이다."

안젤리나가 소리쳤다.

해리가 힘껏 땅을 박차고 솟구쳐 오르자, 온 사방으로 흙탕물이 튀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스니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했다.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블러저조차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습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해리는 블러저에 맞아 떨어질 뻔했다. 결국 블러저를 피하기 위해서 슬로스 그립 를 전법을 써야만 했다. 사실 눈앞이 전혀 안 보이기는 안젤리나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다른 선수들이 월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바람이 어찌나 심한지 멀리 떨어져 있는 해리 귀에까지도 호수 표면을 두드리며 짹짹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려올 정도였다.

안젤리나는 이런 상태로 거의 한 시간 동안 고집을 부린 끝에, 결국 연습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어서 투덜거리는 선수들을 이끌고 탈의실로 되돌아가면서도, 끝까지 이런 연습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다. 프레드와 조지는 특히

더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어기적어기적 걸으면서 오만상을 다

썼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던 해리는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를 들었다.

"내 것 몇 개는 터진 것 같아."

프레드가 맥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건 터지지 않았어."

조지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육신육신 쑤셔 미치겠어... 더 커진 것 같아."

"아야!"

해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고통으로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이마의 흉터가 다시 찌르는 듯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팠다.

"왜 그래?"

한꺼번에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가 수건을 밑으로 내렸다. 안경을 쓰지 않은 그의 눈에는 탈의실 안이 뿌옇게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냥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 그래."

하지만 해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론을 쳐다보았다. 다른 선수들이 전부 탈의실 밖으로 나가고 제일 뒤에 처진 두 사람은 모자를 귀까지 푹 덮어쓰고 망토를 입을 막은 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일이야?"

앨리샤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론이 물었다.

"또 그 흉터 때문이야?"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론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창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빗속을 내다보았다.

"서...설마 그자가 지금 가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아니야."

해리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마의 흉터를 손으로 문질렀다.

"그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내 이마가 아팠던 건... 그자가... 화가 났기 때문이야."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을 내뱉었다. 그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이 말이 마치 다른 사람이 한 말처럼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즉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분명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볼드모트는 머리끝까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를 보았니?"

론은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라도 본 거야?"

해리는 말없이 발만 내려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고통이 지나간 후에 마음과 정신이 다시 평온해지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지럽고 혼란스런 형상들, 울부짖는 목소리들...

"그자는 뭔가를 끝내고 싶어 하는데 좀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해리가 말했다. 또다시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론이 말했다.

해리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나서 손바닥으로 눈을 깎 눌렀다. 감은 눈 속에 작은 별들이 무수히 보였다. 그는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옆 자리에 론이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거니?"

론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브릿지 교수의 방에서 네 흉터가 아팠을 때 말이야. 그때도 그 사람이 화가 난 거니?"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도대체 뭐야?"

해리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았다.

해리는 엄브릿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흉터가 쑤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감정이 치솟았다... 마구 가슴이 뛰는 듯한 낯선 감정이... 그것은 행복감이었다...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 자신은 너무나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번에는 그자가 기뻐했기 때문이었어."

해리가 말했다.

"정말이야. 그자는...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가 호그와트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는..."

해리는 그리즐드 광장에 있는 론의 침실에서 그의 흉터가 견딜 수 없이 아팠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화가 났었어..."

해리는 론을 돌아보았다. 론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정도면 트릴로니 교수님 뒤를 이어도 되겠다."

론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해리가 말했다.

"물론이지. 넌 네가 뭘하고 있는지 아니?"

론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더불어 경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리, 넌 그자의 마음을 읽고 있어."

"아니."

해리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저... 그자의 기분일 뿐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 작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덤블도어 교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교수님 말씀이, 볼드모트가 가까이 있거나 강렬한 증오심을 느낄 때면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제 나는 그자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느낄 수 있게 된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나운 바람과 세찬 빗줄기가 더욱 강하게 건물을 두드렸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마침내 론이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는 시리우스에게 말했어."

"그럼 이번에도 그에게 말해 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엄브릿지가 부엉이와 벽난로까지도 전부 감시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니?"

"음, 그럼 덤블도어 교수님께라도..."

"방금 말했잖아. 교수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셔."

해리는 통명스럽게 대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에 걸린 망토를 집어 들고 어깨에 걸쳤다.

"교수님께 다시 말씀드려 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론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해리를 바라보며 망토자락을 단단히 여몄다.

"그래도 덤블도어 교수님은 알고 싶어 하실 거야."

해리는 그저 어깨만 으쓱했다.

"어서 가자. 아직도 침묵 마법을 연습해야 해."

입을 다문 두 사람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버린 잔디밭을 미끄러지고 첨벙거리며, 서둘러 어두운 운동장을 빠져나갔다. 해리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볼드모트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도대체 뭘까?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어. 아주 은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오직 훔쳐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 예를 들면 무기 같은 것. 지난번에는 그가 갖고 있지 못했던... 어떤 것?"

해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호그와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채, 엄브릿지와 마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투쟁하느라 너무 바빴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문득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 무기가 무엇이든 간에, 만약 볼드모트가 그 무기에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다면, 그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불사조

기사단이 그를 방해하며 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일까? 그

무기는 어디 있을가?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밈블러스 밍블토니아."

론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해리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벌써 휴게실로 들어가는 초상화 구멍 앞에 와 있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일찍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의자 근처에 크록생크만 몸을 말고 앉아 있었고, 갖가지 방울이 달린 집요정 털모자가 벽난로 옆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스러웠다.

이마의 흉터가 아팠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어서 빨리 덤블도어 교수를 찾아가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지겨웠다.

론이 걱정스런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마법 책들을 꺼내서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저 겉으로만 숙제에 집중하고 있는 척했을 뿐이었다. 론이 그만 자러 가야겠다고 말할 때까지, 해리는 거의 한 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자정이 가까워 오도록, 해리는 고추냉이와 당귀 그리고 재채기풀의 사용법에

대한 구절을 읽고 또 읽었지만 단 한 마디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식물들은 뇌를 자극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정신착란 마법약을 만드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 혼란스러움과 무모한 감정을 일으키길 원하는 마법사는...

헤르미온느는 시리우스가 그리볼드 광장에 갇혀 지낸 이후로 무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뇌를 자극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만약 볼드모트의 기분을 그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예언자 일보'에서는 그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착란 마법약을 만드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의 말이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어째서 그가 볼드모트의 기분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들 사이의 이 이상한 연관성은 무엇인가? 덤블도어 교수님조차 단 한 번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었던 이 이상한 관계란?

...혼란스러움과 무모한 감정을 일으키길 원하는 마법사는...

어떻게 해리가 잠이 들 수 있었을까...

벽난로 앞의 안락의자는 따뜻하고 편안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여전히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크록생크는 가르랑거리고 불꽃은 이글이글 타올랐다. 해리의 손에서 책이 슬며시 미끄러지면서 벽난로 앞 깔개위로 톡 떨어졌다. 그의 머리가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그는 또다시 창문이 없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고요한 정적 속에 그의 발소리만 울려 퍼질 때름이었다. 복도 제일 끝에 있는 문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흥분으로 더욱 빨리 뛰었다. 저 문을 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해리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의 손가락 끝이 거의 손잡이에 닿을 듯 가까웠다.

"해리 포터!"

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휴게실 안의 촛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 누구지?"

해리는 의자에서 몸을 똑바로 일으키며 소리쳤다. 벽난로 불마저 거의 사그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도비가 해리 포터의 부엉이를 가져왔어요!"

꽥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도비?"

해리는 목멘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어둠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집요정 도비는 헤르미온느가 여섯 개의 털모자를 두고 간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커다랗고 뾰족한 귀가 모자 아래로 삐죽이 나와 있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헤르미온느가 공들여 짠 모자들을 모두 머리에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도비는 모자 위에 또 다른 모자를 계속 겹쳐 쓰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최소한 7, 8 센티미터는 더 커 보였다. 그리고 모자 꼭대기에 달린 방울 위에는 헤드위그가 앉아서 점잖게 울고 있었다. 상처가 다 나은 것이 분명했다.

"도비가 해리 포터의 부엉이를 돌려드리겠다고 자청했어요."

집요정이 꽉꽉거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님 말씀이 이제 부엉이는 완전히 나았답니다."

도비는 펜처럼 뾰족한 코끝이 너덜너덜한 깔개에 달을 정도로 깊숙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헤드위그는 아직도 섭섭한 듯이 한 번 울더니 해리가 앉은 의자의 팔걸이로 날아와 앉았다.

"도비, 고마워!"

해리는 헤드위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깜박거렸다. 꿈속에서 본 문에 대한 기억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했다. 도비를 다시 돌아본 해리는 이 집요정이 대여섯 개의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말을 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바람에 도비의 발은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커 보였다.

"저... 헤르미온느가 그동안 놓아둔 옷들을 전부 네가 가져갔었니?"

"아니에요, 해리 포터."

도비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몇 개는 윙키에게도 가져다주었죠."

"맞아, 윙키는 어떻게 지내지?"

해리가 물었다. 갑자기 도비의 귀가 촉 들어졌다.

"윙키는 아직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답니다."

도비는 테니스공만큼이나 커다란 초록색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깔며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여전히 옷 같은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해리 포터. 사실 다른 집요정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여기저기에 모자와 양말을 감추는 두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머지않아 더 이상 아무도 그리핀도르 기숙사를 청소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집요정들은 그걸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답니다. 해리 포터, 하지만 도비는 상관없어요. 언제나 해리 포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도비는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도비는 또다시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당신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군요."

도비는 몸을 일으키며 수줍은 표정으로 해리의 안색을 살폈다.

"도비는 해리 포터가 꿈을 꾸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당신은 나쁜 꿈을 꾸셨나요?"

"그렇게 나쁜 꿈은 아니었어."

해리가 길게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다.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꿈도 꾼 적이 있는걸."

집요정은 공처럼 동그랗고 커다란 눈으로 해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귀를 촉 들어뜨린 채,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비는 어떻게든 해리 포터를 도와드리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해리 포터는 도비를 해방시켜 주셨고, 도비는 그 때문에 지금 많이, 아주 많이 행복하거든요."

해리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도비, 넌 날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마음만은 고마워."

해리는 허리를 숙이고 마법약 책을 집어 들었다. 내일은 반드시 이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해리가 책을 덮자, 그의 손등에 생긴 하얀 흉터 자국이 벽난로 불빛을 받아 도드라져 보였다. 엉브릿지의 나머지 공부로 인한 결과였다.

"잠깐만...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도비."

해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요정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말씀만 하세요. 해리 포터!"

"스물여덟 명이 모여서 어둠의 마법 방어술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물론 선생님들 눈에 띵면 절대 안 돼. 특히 엉브릿지 교수는."

해리가 책을 짚 손에 불끈 힘을 주자, 하얀 흉터가 진줏빛으로 더욱 또렷하게 빛났다. 해리는 도비가 이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얼굴이 굳어지고 귀를 늘어뜨릴

거라고 예상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찾아보겠다고 적당히 둘러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비에게 별로 큰 희망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도비는 신나게 귀를 쫑긋거리며 깡충깡충 뛰고 손뼉을 쳤다.

"도비가 완벽한 장소를 안답니다. 해리 포터!"

도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도비가 호그와트에 왔을 때, 다른 집요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오고 가는 방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또는 필요의 방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

해리는 호기심이 동했다.

"왜냐하면 그 방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순간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도비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방은 어떤 때에는 그곳에 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찾는 걸 알면, 그곳에 나타난답니다. 도비도 그 방을 한번 써 봤어요."

갑자기 도비는 목소리에 힘이 빠지면서 죄지은 사람의 표정을 지었다.

"윙키가 너무 술이 취했을 때, 도비는 그녀를 그 방에 숨겼지요. 그리고 그 방에서 버터 맥주 해독제와 윙키를 누이기에 딱 맞는 집요정 크기의 침대를 발견했답니다. 도비는 필치 씨가 청소용품이 떨어지면, 그곳에 가서 청소용품을 가져온다는 걸 안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급할 때는 그 방에 요강들이 가득하겠지?"

해리는 갑자기 지난 크리스마스 무도회 때 덤블도어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도비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라운 방이거든요."

"그 방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해리가 의자에 몸을 더욱 꼿꼿이 세우고 앉으며 물었다.

"극히 적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필요한 순간에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가긴 하지만, 두 번 다시 발견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방이 언제나 그곳에서 자기를 불러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거 아주 귀가 솔깃한걸."

해리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완벽한 장소일 것 같아, 도비. 그 방이 어디 있는지 언제 가르쳐 줄 수 있지?"

"언제든지요, 해리 포터."

도비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해리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 갈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해리는 당장 도비와 함께 그곳에 가 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가서 투명 망토를 가져올 작정으로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바로 그때 헤르미온느의 목소리와 비슷한 어떤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건 무모한 짓이야. 어쨌든 지금은 시간도 너무 늦었고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

"오늘 밤은 안되겠어, 도비."

해리가 마지못해 거절하며 다시 의자에 텔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야. 이런 기회를 그냥 날리고 싶진 않아.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해. 이봐, 그 필요의 방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나에게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을까?"

두 시간짜리 약초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 물이 질펀한 채소밭은 첨벙첨벙 가로질러 가는 동안, 그들의 긴 망토 자락은 바람에 마구 휘날리며 다리에 칭칭 감겼다. 수업 시간에도 우박처럼 온실 지붕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빗소리 때문에 스프라우트 교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의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 장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운동장에서 건물 1층에 있는 빈 교실로 옮겼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안젤리나는 점심 시간에 팀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퀴디치 연습이 취소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잘됐어."

안젤리나의 말을 들은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방어술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를 찾아냈거든. 오늘 밤 여덟 시에 7층에 있는, 트롤에게 얻어맞는 정신 나간 바르나바의 벽걸이 양탄자 맞은 편에서 만나자. 케이티와 앤리샤에게 말 좀 전해 줄 수 있지?" 안젤리나는 약간 주춤하는 기색이었지만, 곧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리는 다시 허겁지겁 소시지와 으깬 감자로 달려들었다. 잠시 후 호박 주스를 마시기 위해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헤르미온느가 눈에 들어왔다.

"왜 그래?"

해리가 목이 메어 우물거렸다.

"도비의 계획은 항상 안전하지 않았어. 도비가 네 팔의 뼈를 부러뜨리게 했던 일을 잊어버렸니?"

"하지만 그 방은 도비가 그저 꾸며낸 헛소리가 아니야. 덤블도어 교수님도 그 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걸. 크리스마스 무도회 때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헤르미온느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에게 그 방에 대해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그럼 좋아."

헤르미온느는 통명스럽게 대답하고 더 이상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날 내내 론과 함께 그들은 호그스 해드에서 명단에 서명을 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그날 저녁에 만날 장소를 알려 주었다. 하지만 초 챙과 그녀의 친구에게는 지니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바람에, 해리는 약간 실망스러웠다. 어쨌든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 해리는 이 소식이 호그스 해드에 모였던 스물다섯 명 전부에게 전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 시 반이 지나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그린핀도르의 휴게실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해리는 오래된 양피지 조각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5학년들은 아홉 시까지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7층으로 올라갔다.

"이걸 꼭 잡아."

제일 마지막 계단의 꼭대기에 서자, 해리가 양피지 조각을 펼쳐 들며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지팡이로 양피지를 톡 치면서 주문을 외웠다.

"나는 천하의 명탕구리임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검은 양피지 조각 위에 호그와트 지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름이 붙은 작은 검은 점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필치는 2층에 있어."

해리가 지도를 바싹 눈앞에 들이대며 말했다.

"노리스 부인은 4층에 있고."

"엄브릿지는?"

헤르미온느가 초조하게 물었다.

"자기 방에 있어."

해리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좋아, 어서 가자."

그들은 복도를 따라서 도비가 해리에게 설명해 준 장소로 서둘러 이동했다. 트롤들은 길들여 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정신 나간 바르나바의 어리석은 시도가 그려져 있는 거대한 벽걸이 양탄자 맞은 편은 텅 빈 벽뿐이었다.

"됐어."

해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한편 좀 먹은 양탄자 속의 트롤 하나가 무용 선생을

자처하는 바르나바를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려치려고 하다가 그만 동작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도비 말에 따르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이 벽 앞을 세 번 지나라고 했어."

그들은 텅 빈 벽이 바로 끝나는 지점에 있는 유리창에서부터, 반대편에 있는 거의 사람 키만 한 꽃병 앞을 정확히 왔다갔다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 론은 정신을 집중하느라 오만상을 다 썼다. 헤르미온느는 숨을 죽이고 뭔가를 중얼거렸다. 한편 해리는 주먹을 불끈 훈 채, 앞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우리는 방어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해리는 생각했다. 우리에게 연습할 장소만 준다면...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를...

"해리!"

그들이 세 번째로 다시 돌아섰을 때,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눈부시게 윤이 나는 문이 벽에 나타난 것이다. 론은 넋을 잃고 그 문을 바라보았다. 해리는 손을 뻗어서 놋쇠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방에는 8층 아래에 있는 지하 교실을 밝히는 횃불과 똑같이 생긴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벽에는 나무로 만든 책꽂이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닥에는 의자 대신 커다란 비단 방석들이 놓여 있었다. 저 멀리 방 끝에 있는 선반에는 스니코스코프, 비밀

탐지기, 그리고 적을 비추는 금이 간 커다란 거울 같은 각종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 거울을 작년에 가짜 무디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물건이 틀림없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기절 마법을 연습하기에 딱 좋겠는걸."

론이 발로 방석을 쿡쿡 밟으며 신이 나서 말했다.

"그리고 이 책들 좀 봐!"

헤르미온느도 잔뜩 들떠서 가죽 장정이 된 커다란 책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나갔다.

"일반적인 저주와 대응법에 대한 개론서, 어둠의 마법 허점 찌르기, 자기 방어를 위한 주문... 우와..."

헤르미온느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해리를 돌아보았다. 해리는 수백 권의 책들을 보자, 헤르미온느가 비로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정말 대단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

헤르미온느는 더 이상 야단법석을 떨지 않고 책꽂이에서 '저주받은 자를 위한 저주'라는 책을 꺼내더니 가장 가까이 놓인 방석 위에 주저앉아서 정신없이 읽기 시작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지니와 네빌, 라벤더, 패트리샤 그리고 딘이 나타났다.

"우와!"

딘은 몹시 감동받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해리는 이 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명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속속 도착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여덟 시가 되자, 방 안에 있는 방석이 다 찼다. 해리는 문쪽으로 걸어가서 자물쇠 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렸다. 딸깍하는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해리를 주목했다. 헤르미온느는 '저주받은 자를 위한 저주'의 읽던 곳을 조심스럽게 표시해 놓고 책을 옆으로 밀었다.

"여기는 우리가 마법 연습을 위해서 찾아낸 장소야."

해리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곳이 꽤 쓸 만하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 환상적이야!"

초가 소리쳤다.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동의한다는 말을 한마디씩 했다.

"그거 참 이상하군."

프레드가 얼굴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도 언젠가 한 번 필치를 피해 이 방에 숨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 조지? 하지만 그때는 그저 빗자루 보관함이었어."

"이봐, 해리. 이 물건들은 다 뭐야?"

뒤쪽을 살펴보던 딘이 스니코스코프와 적을 비추는 거울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어둠의 탐지기들이야."

해리는 방석 사이를 헤치고 뒤쪽으로 걸어갔다.

"기본적으로 그 기구들은 모두 어둠의 마법사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거야. 하지만 그 기구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거든."

해리는 잠깐 동안 적을 비추는 금이 간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림자 같은 것들이 거울 안에서 어うま거렸다. 하지만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해리는 뒤로 돌아섰다.

"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출곧 생각해 봤어. 그리고..."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다.

"무슨 일이지, 헤르미온느?"

"나는 우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당연히 해리가 우리의 지도자잖아."

초가 헤르미온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서슴없이 말했다.
해리는 또다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건 그래. 하지만 나는 제대로 투표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헤르미온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말했다.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야지 해리의 권위가 서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해리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심지어 자카리아스 스미스까지도 마지못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어... 고마워."

해리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또 뭐지, 헤르미온느?"

"우리에게도 적당한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손을 번쩍 치켜든 채, 명랑하게 말했다.

"그러면 단결 정신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반 엉브릿지 연맹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안젤리나가 의견을 냈다.

"아니면 마법부는 명청이들의 집단이다?"

프레드가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뭘 하는지 잘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해 왔어."

헤르미온느가 프레드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야 밖에서도 마음 놓고 이 모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방어 연합(Defence Association)은 어때?"

초가 말했다.

"그리고 줄여서 'D,A'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알겠어?"

"그래 D,A가 좋겠다. 하지만 덤블도어의 군대(Dumbledore's Army)의 줄임말로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덤블도어야말로 마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니까 말이야, 안 그래?"

이 말을 듣자,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모두 D,A라고 부르는 데 찬성하는 거지?"

헤르미온느가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든 아이들의 숫자를 셨다.

"그럼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이 제안은 통과되었어!"

헤르미온느는 아이들 모두의 서명이 담긴 양피지 종이를 벽에 붙이더니 제일 꼭대기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썼다.

'덤블도어의 군대'

"좋아."

헤르미온느가 다시 자리에 앉자, 해리가 말했다.

"그럼 연습을 시작해 볼까? 내 생각에 우리가 제일 먼저 연습해야 할 방어술은 엑스펠리아르무스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것은 무장 해제 마법이지. 아주 기초적인 마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쓸모가 있어."

"오, 제발 그만둬."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팔짱을 낀 채, 눈알을 굴리며 말했다.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데 엑스펠리아르무스가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난 그 사람과 싸울 때 이 마법을 썼어.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이 마법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

해리가 침착하게 말했다. 스미스는 바보처럼 입을 딱 벌렸다. 다른 아이들도 숨을 죽인 채,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도 좋아."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스미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좋아."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자, 입 안이 자꾸 마르는 것 같았다.

"지금부터 둘씩 짹을 지어서 마법을 연습해 보자."

친구들에게 아래라저래라 명령을 내리다 보니 너무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훨씬 더 이상했다. 모두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로 짹을 지었다. 예상했던 대로 네빌만이 혼자 남았다.

"너는 나랑 연습하면 돼."

해리가 네빌에게 말했다.

"좋아, 셋을 세면 연습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갑자기 엑스펠리아르무스를 외치는 고함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지팡이가 날아다녔다. 주문을 잘못 맞은 선반 위의 책들이 허공에 둉동 떠다니기도 했다. 네빌은 도저히 민첩한 해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네빌의 지팡이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더니 불꽃을 튀기며 천장에 부딪쳤다.

그리고 덜커덕 소리와 함께 책꽂이 위에 떨어졌다. 해리는 소환 마법으로 그

지팡이를 다시 불러들였다. 주위를 살펴본 해리는 먼저 기초적인 마법부터 연습시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대로 마법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지는 못하고, 그저 주문이 힘없이 허하고 그들에게 달는 순간, 펄쩍 뒤로 물러서거나 얼굴을 징그리게 만들 뿐이었다.

"엑스펠리아르무스!"

네빌이 소리쳤다. 아무 생각 없이 공격을 당한 해리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해냈어!"

네빌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이걸 해내기는 처음이야. 드디어 해냈어!"

"잘했어!"

해리는 네빌을 격려했다. 하지만 진짜 결투에서는 상대가 지팡이를 느슨하게 손에 쥔 채, 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일은 없을 거라는 지적을 굳이 하지는

않았다.

"이봐, 네빌. 잠깐 동안 론과 헤르미온느와 교대로 연습할 수 있겠지? 나는 다른 아이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올 테니까."

해리는 아이들 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자카리아스 스미스에게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안토니 골드스틴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입을 열 때마다, 오히려 자기 지팡이가 손에서 빠져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머지 않아 이 수수께끼는 쉽게 풀렸다. 프레드와 조지가 스미스의 등 뒤에서 서서 교대로 그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던 것이다.

"미안해, 해리."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조지가 황급히 사과를 했다.

"그냥 참을 수가 있어야지."

해리는 다른 아이들을 살펴보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썼다. 지니는 마이클 코너와 짹을 이루고 있었는데, 솜씨가 아주 훌륭했다. 반면 마이클은 실력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지니에게 주문을 걸기가 싫은 것 같았다. 어니 맥밀란은 지팡이를 불필요하게 많이 휘둘러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방어할 틈을 자꾸 주었다. 크리비 형제는 열성적이었지만 정확성이 떨어져서 책꽂이의 책들이 허공을 날아다니도록 만든 주범이 되었다. 루나 러브굿은 실력이 들쑥날쑥이었다. 이따금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의 손에서 지팡이를 빼앗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에는 그저 그의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만들 뿐이었다.

"좋아, 그만!"

해리가 소리쳤다.

"그만! 그만!"

호루라기가 있어야겠군. 해리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제일 가까이 쓰여 있는 책 더미 위에 호루라기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해리는 그것을 집어

들고 세게 불었다. 모두들 지팡이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하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점들이 많아."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다시 한 번 해보자."

해리는 다시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었다. 아이들의 솜씨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처음에 해리는 일부러 초와

그녀의 친구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모두 두 번씩 돌아보고 나자, 더 이상 그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다.

"오, 안 돼!"

해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초가 긴장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엑스펠리아르미우스! 아니, 엑스펠리멜리우스! 오, 미안해. 마리에타!"

그만 곱슬머리 친구의 소매에 불이 붙었다. 마리에타는 자신의 지팡이로 불을 끄더니, 마치 그것이 해리의 잘못이라도 되는 듯이 그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내가 긴장해서 그래. 그 전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초가 해리에게 원망스러운 듯 말했다.

"아주 훌륭했어."

해리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초가 눈을 치켜뜨자, 해리는 얼른 말을 바꿨다.

"그래, 아니야. 솔직히 형편없었어. 하지만 나는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저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친구인 마리에타는 기분 나쁜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흑 돌아서서 가 버렸다.

"저 친구는 신경 쓰지 마."

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끌고 왔어. 저 친구의 부모님은 엉브릿지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하시거든. 저 친구의 엄마가 마법부에서 일을 하고 계셔."

"너희 부모님은 어때시니?"

"물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엉브릿지의 반대편에 서는 걸 반대하시지."

초는 자랑스럽게 허리를 쭉 펴며 말했다.

"하지만 케드릭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자와 맞서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초는 문득 말을 멈추고 몹시 곤혹스런 표정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테리 부트의 지팡이가 봉 하고 허공을 날아서 해리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앨리샤 스피넷의 코를 정통으로 맞혔다.

"우리 아버지는 반 마법부 운동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셔!"

루나 러브굿이 해리의 등 뒤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한편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는 머리 위로 뒤집힌 망토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우리 아빠는 항상 퍼지에게 원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퍼지가 수많은 도깨비들을 암살했다는 거야! 게다가 미스터리 부서를 이용해서 꼼짝한 독약을 개발하고 있대.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약을 먹이려고 한다는 거야. 또 그의 엉거불라 슬래쉬킬터로 말하자면..."

"그게 뭔지 물어보지 마."

초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려고 하자, 해리가 재빨리 옆에서 속삭였다.
초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이봐, 해리!"

헤르미온느가 반대편 끝에서 그를 불렀다.

"시간을 확인해 봤니?"

문득 시계를 내려다 본 해리는 깜짝 놀랐다. 벌써 아홉 시십분이나 되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 기숙사 휴게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필치에게 붙잡혀서 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다. 해리가 호루라기를 불자, 모두들

'엑스펠리아르무스!'라고

소리치던 것을 멈추었다. 마지막 지팡이 두 개가 바닥에 덜커덕 떨어졌다.

"아주 잘했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어서 떠나도록 하자.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게 어때?"

"더 빨리 만나자!"

딘 토마스가 열성적으로 소리치자, 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하지만 안젤리나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퀴디치 시합이 곧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퀴디치 연습도 해야 해!"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때 봐서 모임을 더 자주 가질지 결정하면 돼. 어서... 그만 가는게 좋겠어."

해리는 다시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꺼내 들고 7층에 선생님들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리고 서너 명씩 짹을 지어서 방을 빠져나가도록 한 다음, 지도에 나타난 작은 점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그들이 무사히 기숙사에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후풀푸프 아이들은 부엌으로 이어지는 지하 복도로 향했고, 래번클로 아이들은 성의 서쪽에 있는 탑으로 향했다. 그리핀도르 아이들은 7층 복도를 따라서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가 있는 곳으로 갔다.

"해리,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마침내 헤르미온느와 해리, 론, 세 사람만 남게 되자, 그녀가 말했다.

"그래, 정말이야!"

론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문이 다시 스르르 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리, 내가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빼앗는 걸 봤니?"

"고작 한 번뿐이었지."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쏘아붙였다.

"난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번이 아니었어. 최소한 세 번은 내가 너를 이겼는데."

"그래. 네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쳐서 떨어뜨린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럴겠지."

그들은 휴게실로 오는 동안 줄곧 그 문제로 입씨름을 벌였다. 하지만 해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호그와트 비밀 지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자신 때문에 긴장했다고 말하던 초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고 있었다.

제 19 장 사자와 뱀

다음 두 주 동안 해리는 가슴에 신비한 부적이라도 품고 다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소중한 비밀 덕분에 엉브릿지의 수업 시간도 훨씬 견딜 만했고, 심지어 그녀의 톡 튀어나온 끔찍한 눈을 마주 보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해리와 D,A는 바로 엉브릿지의 코앞에서 그녀와 마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엉브릿지의 수업 시간마다, 해리는 월버트 슬링크하드의 책을 읽는 척하면서 가장 최근에 가졌던 비밀 모임에 대한 흐뭇한 기억을 되새기곤 했다. 네빌이 멋지게 헤르미온느의 무기를 빼았던 일, 콜린 크리비가 모임에 세 번 참석한 끝에 드디어 장애 마법을 성공시킨 일, 그리고 패르바티 패털이 분해 주문을 훌륭하게 성공시켜 스니코스코프가 잔뜩 놓여 있던 책상을 먼지만큼이나 작게 부서뜨렸던 일 등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D,A 모임을 매주 딱 정해진 날로 고정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났다. 서로 다른 세 개의 퀴디치 팀의 연습 날짜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만 하는 데다가, 날씨에 따라서 연습 시간이 종종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별로 불만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모임 시간을 계속 바꾸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 설사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임 시간을 짐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르미온느는 다음 모임의 시간과 날짜를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마법을 생각해 냈다. 서로 다른 기숙사 학생들이 자꾸 대연회장을 왔다갔다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르미온느는 D,A 회원들 모두에게 가짜 갈레온을 나누어 주었다(처음에 론은 금화가 담긴 바구니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헤르미온느가 진짜 금을 나누어 준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금화 가장자리에 숫자가 보이지?"

그들이 네 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 헤르미온느가 금화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금화는 횃불의 빛을 받아서 노랗고 눈부시게 빛났다.

"진짜 갈레온에는 이 동전을 찍어 낸 도깨비를 알려 주는 일련번호가 찍혀 있어. 하지만 이 가짜 금화에 있는 숫자는 수시로 변하면서 다음번 모임의 시간과 날짜를 알려 줄 거야. 날짜가 변경되면 동전이 뜨겁게 달아오를 테니까 항상 주머니속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만져 보도록 해. 우리 모두 하나씩 금화를 가지면, 해리가 다음번 모임의 날짜를 정해서 자기 금화의 숫자를 바꿀 거야. 그러면 다른 금화들도 모두 따라서 숫자가 변할 거야. 내가 여기다가 변화

마법을 걸어 놓았거든."

헤르미온느의 말에 모두들 눈만 끔뻑이며 아무 대답이 없었다. 헤르미온느는 약간 당황스런 표정으로 자기를 빤히 올려다보는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글쎄... 난 이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헤르미온느가 망설이며 말했다.

"혹시 임브릿지가 우리 호주머니를 뒤져 보더라도, 갈레온을 가지고 다니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걸 사용하기 싫다면..." "네가 변화 마법을 할 수 있단 말이니?"

테리 부트가 물었다.

"그래"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그건 N,E,W,T 수준 마법이잖아."

테리 부트가 주저하며 말했다.

"아, 그거..."

헤르미온느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아, 그래... 맞아... 그건 그래..."

"왜 너 같은 애가 래번클로로 오지 않았지?"

테리 부트가 거의 경탄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지녔는데?"

"사실 마법의 모자가 나를 분류할 때, 래번클로에 집어넣을지 심각하게 망설이긴 했어."

헤르미온느가 쾌활하게 말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핀도르로 결정했지. 어쨌든 이 갈레온을 사용할 거야.

말거야?"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찬성의 뜻을 표하더니 앞으로 한 명씩 걸어 나와 바구니에 든 금화를 집어 들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슬쩍 곁눈질했다.

"이걸 보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니?"

"아니, 무슨 생각인데?"

"죽음을 먹는 자들의 문신이야. 볼드모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을 만지자, 문신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그가 그들을 소집한다는 것을 알았어."

"음... 맞아."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하지만 난 우리 회원들의 삶에 새기기보다는 동전 조각에 날짜를 새길 생각을 했지."

"그래... 나도 네 방식이 더 마음에 들어."

해리가 씩 웃으며 갈레온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 금화의 단 하나 문제점은 자신도 모르게 써 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론은 둉시 유감스런 표정으로 자신의 가짜 갈레온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가짜랑 헛갈릴 진짜 갈레온이 하나도 없는 걸."

첫 번째 퀴디치 시합인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의 시합 날이 점점 다가오자, D,A 모임은 당분간 중단되었다. 안젤리나가 거의 날마다 연습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기숙사 간 퀴디치 컵 대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탓에, 다가오는 시합에 대한 관심과 흥분은 더욱더 커졌다. 래번클로와 후플푸프의 학생들은 이 시합의 결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왜냐하면 다음 해에는 양쪽 팀과 시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로 경쟁하는 팀의 기숙사 사감들도 비록 스포츠맨 정신이라는 점잖은 가면으로 본심을 감추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반드시 자기 팀이 승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심지어 시합을 바로 앞둔 주일이 되자, 맥고나걸 교수는 평소에 내주던 숙제까지 내주지 않았다. 그걸 보고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가 슬리데린 팀을 이기는 일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지금도 숙제 말고도 너희들이 할 일이 아주 많을 거다."

맥고나걸 교수가 거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해리와 론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엄숙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의 귀를 믿지 못했다.

"이제는 내 방에 퀴디치 우승컵이 놓여 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단다, 애들아.

난 그걸 스네이프 교수에게 절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 틈틈이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도록, 알았지?"

스네이프 교수 역시 열성만큼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슬리데린 팀의 연습을 위해서 어찌나 자주 퀴디치 경기장을 예약해 놓았던지, 그리핀도르 팀은 연습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어야만 했다. 스네이프는 또한 슬리데린 학생들이 복도에서 그리핀도르 선수들에게 뜻된 주문을 걸려고 한다는 수많은 불평을 뜯 들은 척했다. 앤리샤 스피넷의 눈썹이 너무 무성하게 빨리 자라서 눈을 뒤덮고 입까지 가로막을 지경이 되어 병동을 찾았을 때에도, 스네이프는 앤리샤가 틀림없이 자기 자신에게 발모 마법을 걸려고 했을 거라고 고집을 부렸다. 또한 슬리데린의 파수꾼인 마일즈 블레칠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앤리샤의 등 뒤에서 주문을 쏘았다고 주장하는 열네 명의 목격자들의 말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는 내심 그리핀도르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은 한번도 말포이네 팀에게 져 본 적이 없었다. 솔직히 우드에 비하면 론의 실력이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걸 따라잡기 위해 론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한 번 실수를 저지르면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 골이라도 빼앗기면, 론은 당황해서 점점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반면 상태가 좋을 때에는, 정말로 아주 멋진 방어를 해내기도 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어느 연습에서는 한 손으로 빗자루에 매달린

채, 골대로부터 퀘이풀을 힘껏 쳐 낸 적도 있었다. 어찌나 세게 쳤던지, 퀘이풀은

경기장 높이만큼 치솟았다가 반대편에 있는 중앙 골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른 선수들은 이거야말로 최근에 아일랜드의 국제적인 파수꾼인 베리 라이안이 폴란드의 최고 추격꾼, 라디스라우 자모이스키에 맞서서 보여 준 수비에 버금갈 만한 멋진 솜씨였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프레드까지도 론 덕분에 자기와 조지의 어깨가 으쓱해졌다면서, 이제 론과 그들이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까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자기들은 지난 4년 동안 그 사실을 부인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경기장에 나서기도 전에 론을 바싹 약 올리려고 하는 슬리데린 팀의 교활한 전술에 그가 얼마나 알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해리는 4년 넘게 그들의 비열한 야유를

참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온몸의 피가 싸늘해지기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길 수가 있었다.

"이봐, 포터! 워링턴이 지난 토요일에 너를 빗자루에서 떨어뜨렸다고 맹세하는 소리를 들었겠지!"

"그러지 않아도 워링턴의 조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혹시 내 옆에 있는 노린 건 아닌지 오히려 내가 조바심이 나던걸."

해리가 이렇게 맞받아치자, 론과 헤르미온느는 배를 움켜쥐고 웃어 댔다. 한편 팬시 파킨슨의 얼굴에서는 능글맞은 미소가 짹 사라졌다.

하지만 론은 모욕이나 농담, 빙정거림이 오고 가는 냉혹한 싸움을 결코 견디지 못했다. 한 번은 그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 슬리데린 학생들이 그를 놀려 댄 적이 있었다. 그중에는 그보다도 훨씬 큰 7학년 학생들도 있었다.

"위즐리, 너는 병동에 벌써 예약을 해 놓았ダメ?"

론은 웃지 않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또 한 번은 말포이가 케이플을 떨어뜨리는 론을 흉내 낸 적이 있었다(말포이는 그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놀려 대느라 바빴다). 론은 귀까지 새빨갛게 변하면서 어찌나 손을 심하게 떨던지 뭐든 손에 들고 있었다간 금방 떨어뜨릴 것 같았다.

울부짖는 바람과 몰아치는 목우 속에 10월이 지나가고, 강철처럼 차가운 11월이 찾아왔다. 아침마다 두꺼운 서리가 내리고, 밖으로 드러난 손과 얼굴을 칼로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대연회장의 천장은 연한 진줏빛이 감도는 회색으로 변했고, 호그와트 주변의 산들은 머리에 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성 안의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올 때에는 두꺼운 용 가죽 장갑을 끼어야만 했다.

시합 날 아침은 맑고 차가운 날씨였다. 잠에서 깨어난 해리는 론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론은 두 팔로 무릎을 끌어안은채, 침대 위에 앉아서 허공을 멍하니 노려보고 있었다.

"괜찮니?"

해리가 물었다.

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론이 잘못해서 민달팽이 구역질 마법을 자신에게 걸었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처럼 입을 꾹 다문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을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어서 가자."

해리는 론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애를 썼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대연회장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연회장 안은 보통 때보다도 더욱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 그들이 슬리데린 테이블 옆을 지나가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해리가 주위를 돌아보니, 슬리데린이 평소에 늘 쓰던 초록색과 은색의 목도리와 모자 이외에 왕관처럼 보이는 은색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많은 학생들이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리며 론에게 손을 흔들었다. 해리는 그들 옆을 지나가면서 배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려고 했다. 하지만 론이 너무 빨리 슬리데린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바람에 배지에 적힌 글씨를 읽어 볼 틈도 없었다.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리핀도르 학생들은 모두 빨간색과 황금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뜨거운 환호성은 론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지막 남은 실낱 같은 용기마저 사라지게 한 것 같았다. 론은 최후의 만찬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가장

가까운 의자에 무너지듯이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미쳤어."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완전히 미쳤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해리는 시리얼을 론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넌 괜찮아. 초조해하는 게 당연해."

"난 쓰레기야."

론이 다시 중얼거렸다.

"난 비열한 놈이야. 청찬받으려고 퀴디치 시합을 할 순 없어.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진정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번에 네가 발로 한 그 멋진 방어를 생각해 봐. 조지와 프레드까지도 정말 굉장히 말했잖아..."

론이 괴로운 얼굴로 돌아보았다.

"그건 우연이었어."

론이 처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냥 너희들이 아무도 못 본 사이에 빗자루에서 미끄러져서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우연히 발로 퀘이풀을 걷어찼을 뿐이야."

"어쨌든 그런 우연을 몇 번만 더 하면 시합에서 이기게 되는 거야. 안 그래?"
해리는 이 고백을 듣고 순간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지만, 얼른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론을 위로했다.

그때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빨간색과 황금색의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장미꽃 장식을 달고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기분이 어때?"

지니가 론에게 물었다. 그는 다 먹은 시리얼 그릇 밑바닥에 남은 우유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당장 거기에라도 빠져 죽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냥 초조해서 그래."

해리가 대신 대답을 해주었다.

"그건 좋은 징조야. 긴장을 안 하면, 넌 항상 시험을 망치잖아."

헤르미온느가 진심으로 말했다.

"안녕."

그들의 등 뒤에서 꿈꾸는 듯이 몽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 결에 루나 러브굿이 래번클로 테이블에서부터 건너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 명은 공공연히 손가락질을 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서 구했는지 거의 실제 크기만 한 사자 머리 모양의 모자를 당장에라도 벗겨질 듯 아슬아슬하게 머리 위에 쓰고 있었다.

"난 그리핀도르 팀을 응원하고 있어."

루나는 보란 듯이 자신의 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 좀 봐."

루나는 손을 올리더니 지팡이로 모자를 톡 쳤다. 그러자 모자가 커다란 입을 딱 벌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펄쩍 뛸 정도로 진짜 사자와 똑같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멋지지 않니?"

루나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는 이 녀석에게 슬리데린을 상징하는 뱀을 씹어 먹도록 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지. 어쨌든 행운을 빈다, 로날드!"

루나는 다시 출찍 떠나 버렸다. 그들이 루나의 모자가 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안젤리나가 케이티와 앤리샤를 데리고 허둥지둥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다행스럽게도 앤리샤의 눈썹은 품프리 부인 덕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준비되는 대로 당장 경기장으로 나와. 날씨 상태와 변화를 살펴봐야 하니까."

"금방 갈 거야. 하지만 론이 아침 식사를 좀 해야 해."

해리가 안젤리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십 분이 지나도록 론이 단 한 입도 더 먹지 못하자, 해리는 그냥 탈의실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헤르미온느도 얼른 따라서 일어났다. 그리고 재빨리 그의 팔을 끌고 옆으로 가더니 황급히 속삭였다.

"슬리데린 아이들이 달고 있는 배지의 글씨를 론이 보지 못하게 해줘."

해리는 영문을 몰라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때 론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얼빠진

표정으로 그들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왔다.

"론, 행운을 빌어."

헤르미온느가 발뒤꿈치를 들고 론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해리, 너도..."

대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론은 비로소 정신이 약간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헤르미온느가 입을 맞춘 자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론은 정신이 완전히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해리는 슬리데린의 테이블 옆을 지나면서 왕관 모양의 배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배지에 새겨진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위즐리는 우리의 왕'

틀림없이 좋은 뜻은 아닐 거라는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해리는 황급히 론을 데리고 연회장을 지나 돌계단을 내려갔다. 바깥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발밑에서는 서리가 내려 빛나는 풀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들은 경기장을 향해 서둘러 비탈진 잔디밭을 내려갔다. 하늘은 진주처럼 하얗게 빛났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다. 햇빛만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야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해리는 걷는 동안에도 론의 기운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이런 유리한 점들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론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안젤리나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로 들어온 선수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해리와 론은 선수복을 입고(론이 어찌나 여러 번 앞뒤를 바꿔 입었는지, 결국에는 안젤리나가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려 오기까지 했다). 자리에 앉아서 경기 전에 주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웅웅거리는 함성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성에서 쏟아져 나온 관중이 차차 경기장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방금 전에야 슬리데린 팀의 최종 선수 명단을 손에 넣었어."

안젤리나가 양피지 한 장을 펼쳐 들며 말했다.

"작년의 물이꾼이었던 데릭과 볼은 팀을 떠났어. 하지만 몬태규가 그 자리에 대신 고릴라를 넣은 것 같아. 비행 실력이 좋은 인간 대신 말이야. 그 고릴라들은 크레이브와 고일이라고 하는 멍청이들인데, 난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

해리와 론이 동시에 말했다.

"어쨌든 빗자루의 앞뒤를 구별할 만한 지능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군."

안젤리나는 다시 양피지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며 말을 마쳤다.

"하긴 지난번 데릭과 볼도 도로 표지판 없이 어떻게 경기장에 찾아오는지 항상 놀랄 정도였지."

"크레이브와 고일도 똑같은 녀석들이야."

해리가 안젤리나를 안심시켰다. 그때 관중석을 향해서 우르르 올라오는 수백 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일부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해리는 조금씩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안에 떠는 론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론은 배를 움켜쥔채, 앞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을 잿빛이었다.

"시간이 됐어."

안젤리나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 모두들... 행운을 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선수들은 빗자루를 어깨에 멘 채, 탈의실에서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출지어 나왔다.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요란한 박수 소리와 휘파람 소리에 파묻히기는 했지만 해리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슬리데린 선수들이 줄지어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역시 가슴에 왕관 모양의 은 배지를 달고 있었다. 몸집이 꼭 두들리 더즐리처럼 생긴, 슬리데린의 새로운 주장 몬태규의 굵은 팔뚝은 흡사 텔 난 행처럼 보였다. 그의 뒤에는 크레이브와 고일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몬태규 놓지 않게 커다란 덩치로 새로 받은 롤이꾼의 둥동이를 휘두르며 멍청하게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말포이의 금발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능글맞게 웃으며 가슴에 단 왕관 모양의 배지를 톡톡 쳤다.

"주장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도록."

주심인 후치 부인이 지시를 내리자, 안젤리나와 몬태규가 서로 손을 내밀었다. 해리는 몬태규가 일부러 안젤리나의 손을 으스러져라 짹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안젤리나는 눈썹 하나 짹그리지 않았다.

"빗자루에 올라타라."

후치 부인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더니 힘껏 불었다.

공이 상자에서 나오면서 열네 명의 선수들도 공중으로 솟아 올랐다. 해리가 슬쩍 곁눈질을 해보니, 론은 골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해리는 블러저를 피해서 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반짝이는 황금빛을 찾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기장의 넓은 면으로 향했다. 경기장 반대편에서는 드레이코 말포이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존슨... 존슨이 케이플을 잡았습니다. 저 선수가 바로 제가 몇 년 동안이나 그토록 매달렸는데 아직도 저와 외출 한 번 해주지 않는 여학생입니다."

"조던!"

맥고나걸 교수가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주었다.

"그저 더 재미있으라고 농담 한마디 한 겁니다, 교수님. 지금 막 존슨이 워링턴을 따돌리고 몬태규의 곁을 지나서... 아, 이런... 크레이브가 뒤에서 친 블러저에 맞았군요. 몬태규가 케이플을 잡았습니다. 몬태규, 경기장으로 막 되돌아가려고 하던 중... 조지 위즐 리가 친 멋진 블러저가 날아와서 몬태규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케이플을 케이티 벨이 다시 잡았군요. 그리핀도르의 케이티 벨, 앤리샤 스피넷에게 역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넷은..."

리 조던의 경기 해설이 운동장 안에 짜렁짜렁 울려 퍼졌다. 해리는 컷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고함을 지르고 우우 야유를 퍼부으며 노래를 부르는 관중의 함성 소리 속에서도 애써 해설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워링턴을 따돌리고 다시 블러저를 피했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앤리샤!..."

관중도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노랫소리일까요?"

리가 잠시 해설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슬리데린이 응원단이 앉아 있는 초록색과 은색의 바다에서 우렁찬 노랫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위즐리는 단 한 번의 공격도 막아 낼 수 없어.

위즐리는 단 하나의 골대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슬리데린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른다네.

위즐리는 우리의 왕.

위즐리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났어.

언제나 케이플을 놓친다네.

위즐리는 틀림없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야.

위즐리는 우리의 왕.

"그리고 앤리샤가 다시 안젤리나에게 케이플을 넘겼습니다!"

리가 다시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방금 들은 노랫소리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옆으로 헉 비껴갔다. 리는 어떻게든 슬리데린의

노랫소리를 끊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자, 이제 안젤리나 선수입니다. 그녀가 퀘이플을 넣기 위해 곧장 파수꾼에게 맞설 것처럼 보입니다. 슛, 아아아아... 이런..."

슬리데린의 파수꾼인 블레칠 리가 퀘이플을 막아 냈다. 재빨리 다가온 워링턴은 공을 넘겨받자마자, 앤리샤와 케이티 사이를 지그재그로 파고들었다. 그가 론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밑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도 점점 더 커졌다.

위즐리는 우리의 왕.

위즐리는 우리의 왕.

언제나 퀘이플을 놓친다네.

위즐리는 우리의 왕.

해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스니치 찾는 일을 포기한 채, 론을 향해 파이어볼트를 돌렸다. 거대한 몸집의 워링턴이 그를 향해 돌진하는 동안, 그는 경기장 맨 끝에서 세 개의 골대 앞을 왔다갔다하며 외롭게 떠 있었다. "워링턴이 퀘이플을 가지고 골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블러저의 공격 영역을 벗어난 그는 이제 파수꾼 한 명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래쪽 슬리데린 관중석에서 우렁찬 노랫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위즐리는 단 한 번의 공격도 막아 낼 수 없어.

위즐리는 단 하나의 골대도 지킬 수 없어.

"그리핀도르의 파수꾼 위즐리에게는 이번이 첫 번째 시험이 되겠군요. 그는 물이꾼인 프레드와 조지의 형제이며, 그리핀도르 팀의 전도 유망한 새로운 실력자입니다. 힘을 내요. 론!"

하지만 슬리데린 쪽에서 기쁨에 찬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론이 두 팔을 짹 벌린 채, 허둥지둥 날아다니는 동안, 퀘이플은 높이 솟아서 론의 중앙 골대 속으로 곧장 들어가 버린 것이다.

"슬리데린의 득점입니다!"

관중의 환호성과 야유 소리 속에서 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슬리데린이 10 점을 얻었습니다. 론, 운이 나쁘군요."

슬리데린 학생들은 더욱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위즐리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났어.

언제나 퀘이플을 놓친다네.

"그리핀도르 선수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티 벨 선수가 탱크처럼 전진하고 있습니다."

리는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제 슬리데린의 노랫소리는 거의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리조차도 자신의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

위즐리는 틀림없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야.

위즐리는 우리의 왕.

"해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안젤리나가 케이티를 따라잡기 위해 그의 옆을 횡 지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어서 가!"

해리는 비로소 자신이 한동안 허공에 가만히 떠서 스니치를 잡겠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넋을 잃고 경기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들짝 놀란 그는 다시 경기장 안을 빙빙 돌며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 떠나가라 불러 대는

노랫소리를 무시하려고 애를 썼다.

위즐리는 우리의 왕.
위즐리는 우리의 왕.

하지만 어디에도 스니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말포이도 여전히 경기장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다가 그만 운동장 한복판에서 서로 딱 마주치고 말았다. 해리는 말포이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위즐리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다시 워링턴이 잡았습니다."

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는 푸시에게 퀘이플을 넘겼고 푸시는 스피넷을 따돌렸습니다. 힘을 내, 안젤리나. 너는 그 녀석을 따라잡을 수 있어. 아, 안타깝군요. 하지만 프레드 위즐리가 멋지게 블러저를 날렸습니다. 아니 조지 위즐리인가? 지금 이 판국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두 사람 중 하나겠죠. 워링턴이 퀴어풀을 떨어뜨리자, 케이티 벨이... 아, 케이티 벨도 퀴어풀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몬태규가 차지했군요. 슬리데린의 주장인 몬태규가 퀴어풀을 차지하고 경기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어서, 그리핀도르, 그를 막아요!"

해리는 일부러 슬리데린의 골대를 넘어서 경기장 끝까지 날아갔다. 론의 끝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슬리데린의 파수꾼 곁을 지나갈

때, 블레ഴ리가 밑에 있는 관중을 따라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즐리는 단 한 번의 공격도 막아 낼 수 없어.

"푸시는 또다시 앤리샤를 따돌리고 곧장 골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론, 어서 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굳이 볼 필요도 없었다. 슬리데린의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비명 소리와 환호성이 그리핀도르 쪽에서 흘러나온 비통한 신음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우연히 밑을 내려다본 해리는 관중석 맨 앞에 있는

불독같은 얼굴의 팬시 파킨슨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예 경기장에 등을 돌린 채. 우레 같은 함성을 지르는 슬리데린의 응원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래서 슬리데린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른다네.

위즐리는 우리의 왕.

하지만 20 대 0 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직도 그리핀도르가 점수를 만회하거나 스니치를 잡을 시간은 충분했다. 몇 골만 넣으면, 평소처럼 다시 그리핀도르가 앞서게 될 것이다. 해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뭔가 반짝이는 것을 쫓아서 다른 선수들 틈을 요리조리 헤집고 날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몬태규의 시곗줄이었다.

결국 론은 두 골을 더 허용하고 말았다. 이제 해리는 한시라도 빨리 스니치를 찾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스니치만 잡으면, 경기도 곧 끝날 것이다.

"그리핀도르의 케이티 벨 선수, 푸시를 따돌리고 몬태규를 따돌렸습니다. 잘 피하고 있군요, 케이티 선수. 이제 다시 존슨에게 퀴어풀을 던졌습니다.

안젤리나

존슨 선수, 퀴어풀을 가지고 워링턴 옆을 지나서 골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서,

안젤리나... 그리핀도르의 특점입니다! 점수는 40 대 10입니다. 40 대 10.

푸시가

케이풀을 잡았습니다."

해리는 그리핀도르의 응원석 한가운데에서 루나의 우스꽝스런 모자가 우렁차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자, 문득 용기가 생겼다. 겨우 30 점 차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어. 크레이브가 그를 향해 로켓처럼 날려 보낸 블러저를 살짝 피한 해리는 스니치를 찾아서 미친 듯이 경지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눈으로는 말포이가 혹시라도 먼저 발견한 듯한 기색을 보이는지 계속 주시했다. 하지만 말포이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주위를 날아다니며 헛되이 스니치를 찾고 있었다.

"푸시가 워링턴에게, 워링턴이 몬태규에게, 몬태규가 다시 푸시에게 케이풀을 넘겼습니다. 이때 존슨이 공을 가로챕니다. 존슨 선수가 다시 벨에게... 아주 멋진

광경. 아니 유감스런 광경입니다. 슬리데린의 고일이 친 블러저에 벨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가 공을 잡았습니다."

위즐리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났어.

언제나 케이풀을 놓친다네.

위즐리는 틀림없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야.

그 순간, 마침내 해리는 발견했다. 날개를 파닥거리는 작은 황금색 스니치가 슬리데린 쪽 경기장 끝, 바닥 가까운 곳에서 둉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쓴살같이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말포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해리의 왼편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빗자루 위에 초록색과 은색의 원가가 납작 엎드려 있는 것만이 보일 뿐이었다... 스니치는 골대의 밑을 한바퀴 빙 돌더니 관중석 반대편을 향해서 톡 튀어나갔다. 스니치가 방향을 바꾼 덕분에 말포이가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해리는 파이어볼트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와 말포이는 이제 막상막하의 상황이었다.

땅 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자, 해리는 스니치를 향해 빗자루 밖으로 오른손을 쭉 뻗었다. 오른쪽에서는 말포이 역시 손을 쭉 내밀고 스니치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회오리바람 같은, 필사적이고 숨 가쁜 몇 초가 흘렀다. 해리의 손가락이 버둥거리는 작은 공에 가까이 달았다. 말포이의 손톱이 절망적으로 해리의 손등을 긁었다. 해리는 몸부림치는 공을 손에 꼭 쥔 채. 빗자루를 위쪽으로 돌렸다. 그리핀도르 관중은 승리를 확신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승리한 것이다. 론이 몇 골을 먹었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두들 그리핀도르의 승리만을 기억할 것이다.

탁.

블러저 하나가 해리의 등에 명중했다. 그는 빗자루에서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다행히 해리는 스니치를 잡기 위해 바닥까지 바싹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겨우 2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땅바닥에

털썩 나자빠지면서 심하게 나뒹굴었다. 해리는 후치 부인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다. 동시에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성난 함성 소리, 휘파람 소리가 뒤섞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곧이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안젤리나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들렸다.

"너 괜찮니?"

"물론이야."

해리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안젤리나의 손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후치 부인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슬리데린 선수들 중 한 명을 향해

쓴살같이 날아갔다. 하지만 해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크레이브, 그 나쁜 놈이었어."

안젤리나가 치를 떨며 말했다.

"네가 스니치를 잡는 걸 본 순간, 너를 향해 블러저를 날린 거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 해리! 우리가 이겼다고!"

해리는 등 뒤에서 누군가 콧방귀를 뀌는 소리를 들었다. 손에 스니치를 꼭쥔 채로 뒤를 돌아보니 분노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된 드레이코 말포이가 내려와 있었다. 그는 빙정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위즐리를 살려 줬군, 안 그래? 그렇게 형편없는 파수꾼은 생전 처음 보겠더라. 그 녀석은 정신병원에서 태어났어... 어때, 내가 지은 노래가 마음에 드냐, 해리?"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리고 차례차례 밑으로 내려온 팀의 다른 선수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은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오직 혼만이 골대 옆에 착륙해 빗자루에서 내리더니 탈의실을 향해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다.

"우린 다른 노래를 하나 더 지을 생각이야!"

케이티와 앤리샤가 해리를 덥썩 껴안을 때, 말포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직 적당한 운율을 찾지 못했지. 다음 노래는 그 똥뚱하고 못생긴... 그 녀석의 엄마에 대한 거라고, 어디 두고 봐."

"쓸데없이 오기만 살아가지고."

안젤리나가 구역질 나는 표정으로 말포이를 노려보았다.

"그 무능력한 실패자에게 꼭 맞는 노래도 아직 짓지 못했어. 너도 알지만 그 녀석의 아버지는..."

프레드와 조지는 말포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금방 알아들었다.

해리의 손을 잡고 신나게 흔들고 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포이를 돌아보았다.

"그냥 내버려 둬."

안젤리나가 프레드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신경 쓰지 마, 프레드. 혼자 실컷 고함 지르라고 해. 시합에서 지니까 약이 올라 저려는 거야."

"하지만 넌 위즐리 식구들을 좋아하지? 안 그래, 포터?"

말포이가 계속 빙정거렸다.

"방학 때도 그 집에서 지내고 모든 걸 다 거기서 하잖아. 안 그래? 도대체 그 지독한 냄새를 어떻게 참는지 몰라. 하긴 머글들 손에 자랐으니 위즐리네 헛간 냄새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해리는 조지를 꽉 붙잡았다. 한편 안젤리나와 앤리샤, 케이티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말포이를 향해 덤벼들려고 하는 프레드를 말리고 있었다. 이제 말포이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해리는 후치 부인을 찾아보았지만, 부인은 아직도 블러저 반칙 공격을 한 크레이브를 야단치고 있었다.

"아니면 네 녀석 엄마네 집에서 풍기던 악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지, 포터. 위즐리네 돼지우리에 가면 옛날 생각이..."

해리는 자신이 언제 조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는지 의식조차 할 수 없었다. 생각나는 것은 오직 다음 순간 두 사람 모두 말포이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모든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최대한 말포이를 괴롭혀 주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지팡이를 뽑아 들 새도 없이, 해리는 스니치를 움켜쥔 손을 뒤로 젖혔다가 말포이의 배를 힘껏 갈겼다.

"해리! 해리! 조지! 안 돼!"

해리는 여학생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말포이는 마구 고함을 지르고 조지는

욕설을 퍼붓고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온 사방에서 관중의 함성이

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해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마침내 옆에 있던 누군가가 '임페디멘타!' 하고 주문을 외쳤다. 주문을 맞고 뒤로 벌렁 쓰러진 해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말포이를 흠씬 두들겨 패 주려던 것을 멈추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하다니 제정신이니?"

해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자, 후치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바로 그녀가 해리에게 장애 마법을 쓴 것이다. 후치 부인은 빗자루를 멀리 내팽개쳐 둔 채. 한 손에는 호루라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말포이는 몸을 잔뜩 꼬부리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징징 울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조지는 통통 부어오른 입술을 자랑하고 있었고, 프레드는 아직도 세 명의 추격꾼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한편 크레이브는 뒤에 서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런 행동은 난생 처음 본다! 너희 두 사람 다 성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곧장 기숙사 사감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해! 어서, 지금 당장!"

해리와 조지는 숨만 씩씩거릴 뿐,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떠났다. 관중의 함성과 야유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마침내 현관 입구에 도착하자, 그들의 발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해리는 문득 오른손에서 뭔가가 아직도 버둥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른손 마디는 말포이의 턱에 부딪혀 시퍼렇게 망이 들었다. 손을 내려다본 해리는 손가락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스니치의 은빛 날개를 발견했다. 스니치는 어떻게든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맥고나걸 교수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들의 뒤를 따라서 씩씩거리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목에 두르고 있는 그리핀도르 목도리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풀어 헤치며, 격노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들어가!"

맥고나걸 교수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빽 소리쳤다. 해리와 조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맥고나걸 교수는 책상 뒤로 돌아가더니 그들을 똑바로 마주 보고 섰다.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온몸을 떨면서 그리핀도르 목도리를 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수치스런 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둘이서 한 사람을 때리다니! 어디 설명을 해봐!"

"말포이가 저희를 약 올렸습니다."

해리가 딱딱하게 말했다.

"너희들을 약 올렸다고!"

맥고나걸 교수가 책상을 탕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과자를 넣어 두는 양철통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마룻바닥에 생강 과자가 와르르 쏟아졌다.

"말포이는 방금 시합에서 졌으니, 너희들을 약 올리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 세상에 그렇다고 너희 두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포이는 저희 부모님을 모욕했습니다."

조지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해리의 어머니도요."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은 그 일을 후치 부인의 판결에 맡기지 않고, 머글식의 싸움질을 보여 주기로 했단 말이냐, 그래?"

맥고나걸 교수가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아무 생각도..."

"에헴, 에헴."

조지와 해리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돌로레스 엉브릿지가 거대한 두꺼비를 더욱더 연상시키는 초록색 트위드 망토를 온몸에 두른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소름 끼치게 무시무시한 미소를 보자, 해리는 곧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맥고나걸 교수님?"

엄브릿지 교수는 끔찍하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의 얼굴로 피가 활활 뜨거워졌다.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도와주신다니요?"

맥고나걸 교수가 애써 분노를 참으며 되풀이했다. 엄브릿지 교수는 여전히 그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 왔다.

"제가 권위를 좀더 높여 드리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해리는 순간 맥고나걸 교수의 코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맥고나걸 교수는 엄브릿지 교수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너희 두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말포이가 너희를 뭐라고 약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너희 가족들을 전부 다 모욕했다고 해도 상관없어. 너희들의 행동은 수치스런 짓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일주일동안 징계를 내리겠다. 그런 얼굴로 날 보지 마라, 포터. 넌 벌을

받아 마땅해!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이..."

"에헴, 에헴."

맥고나걸 교수는 마치 신에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엄브릿지 교수를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렸다.

"뭐죠?"

"그 정도 벌로는 부족할 것 같군요."

엄브릿지는 더욱더 커다랗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두 눈을 부릅떴다.

"죄송하지만 전 징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맥고나걸 교수는 엄브릿지에게 지지 않고 태연한 미소를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 바람에 그녀의 턱은 마치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이 학생들은 제 기숙사 소속이니까요, 돌로레스."

"글쎄, 사실은 미네르바, 내가 어떤 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엄브릿지는 명청한 미소를 지었다.

"그걸 어디다 두었더라? 코넬리우스가 방금 보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엄브릿지는 자신의 핸드백 안을 뒤지면서 얹지로 꾸민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장관님께서 방금 보내셨는데... 아, 여기 있군..."

엄브릿지는 양피지 한장을 꺼내 펴더니 목청을 가다듬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에헴, 에헴. 교육 법령 25 조..."

"또 다른 법령이라니, 안 돼!"

맥고나걸 교수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맞아요."

엄브릿지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미네르바. 우리에게 또 다른 법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내가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을 재조직하는 걸 허락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날 얼마나 무시하고 깔아뭉갰는지 기억하고 있겠죠? 당신이 이 문제를 덤불도어에게 가져가서, 팀을 허락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게 하지 않았나요? 난 그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장관님께 보고를 했죠. 장관님께서도 장학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학사는... 그러니까 나는 일반 교수님보다도 더 권위가 없을 테니까요!

미네르바, 이제 당신도 깨달았겠죠? 내가 그리핀도르 팀을 재조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올바른 일이었는지? 정말 성질이 사나운 아이들이죠. 어쨌든 이제부터 법령을 읽어 주겠어요. 에헴... 에헴... '앞으로 장학사는 호그와트의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징벌과 허가, 권리 박탈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또한 다른 교직원에 의해 내려진 모든 징벌과 허가, 권리 박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마법부, 코넬리우스 퍼지의 서명, 멀린 1등급, 등등...'" 엉브릿지는 여전히 능글능글 웃으며 양피지를 돌돌 말아서 가방 속에 집어 넣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두 사람이 두 번 다시 퀴디치 경기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엉브릿지가 해리와 조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해리는 손에 든 스니치가 미친 듯이 버둥거리는 것을 느꼈다.

"금지시킨다고요?"

해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두 번 다시 퀴디치를 할 수 없도록...?"

"그래요, 포터 군. 내 생각에는 평생 출전 금지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엉브릿지는 더욱더 입이 찢어져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방금 한 말의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해리를 바라보았다.

"포터 군과 여기 있는 위즐리 군, 그리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의 쌍둥이 형제까지도 출전을 금지시키는 게 좋겠어요. 팀 동료들이 그를 막지 않았더라면, 그 학생 또한 틀림없이 젊은 말포이 군을 공격했을 테니까요. 물론 그들의 빗자루까지도 몰수할 생각이에요. 그 빗자루는 내 방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야 나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도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랍니다, 맥고나걸 교수님."

엉브릿지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맥고나걸 교수를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그리핀도르 다른 선수들은 퀴디치 경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엉브릿지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표정을 방을 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시무시한 침묵만이 남았다.

"출전 금지라니..."

그날 저녁 늦게 휴게실에서는 안젤리나가 얼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출전 금지라니. 수색꾼도 물이꾼도 없이 도대체 우리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무지 시합에서 이겼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해리가 쳐다보는 곳마다 우울하고 성난 얼굴들뿐이었다. 선수들 전원이 벽난로 주위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오직 론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시합이 끝난 이후로 그는 종적을 감추었던 것이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앨리샤가 맥없이 말했다.

"호루라기를 분 이후에 블러저를 친 크레이브는 어떻게 됐지? 그도 출전 금지를 당했을까?"

"아니야."

지니가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그냥 베껴 쓰기 벌을 받았대. 몬태규가 저녁 식사 때 웃으면서 신나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

"게다가 아무 짓도 안한 프레드까지 출전 금지를 시키다니!"

앨리샤가 주먹으로 무릎을 내려치며 화를 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 건 내 탓이 아니야."

프레드가 잔뜩 혐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 세 사람이 날 불잡지 않았어도, 난 그 더러운 자식을 납작하게 두들겨

패 주었을 거야."

해리는 어두운 창 밖을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가 낮에 잡은 스니치는 휴게실 안을 빙빙 날아다녔다.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스니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편 크룩생크는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뛰어다니며 스니치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난 그만 자러 갈래."

안젤리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악몽일지도 몰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린 아직 시합조차 안 했다는 걸 알게 될지도..."

케이티와 앤리샤도 곧 안젤리나의 뒤를 따라갔다. 잠시 후에 프레드와 조지가 터벅터벅 침실로 올라갔다. 그들은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인상을 쓰며 노려보았다. 지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 결국 벽난로 앞에는 헤르미온느와 해리만이 남았다.

"혹시 론을 봤니?"

헤르미온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해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 너 혹시 론이 어디 있는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빼거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가 횾 열렸다. 그리고 론이 구멍 속에서 기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머리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발견하는 순간,

론은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어디 갔었니?"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산책했어."

론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도 퀴디치 선수복을 입고 있었다.

"몸이 얄 것 같다. 어서 이리 와서 앓아!"

헤르미온느가 재촉했다. 비틀거리며 불가로 다가온 론은 해리의 시선을 피하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해리가 잡아 온 스니치는 그들의 머리 위를 빠르게 날아 다녔다.

"미안해."

론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뭐가?"

해리가 물었다.

"내가 퀴디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말이야. 난 내일이 되자마자 팀을 그만두겠어."

"네가 팀을 그만두면, 이제 우리 팀에는 선수가 세 명밖에 남지 않게 돼."

해리가 쌀쌀맞게 말했다.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해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난 평생 출전 금지를 당했어. 프레드와 조지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론이 비명을 질렀다. 헤르미온느가 전후사정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해리는 차마 그 이야기를 다시 입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론은 더욱더 풀이 죽었다.

"모두 다 내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가 말포이를 때린 건 아니야."

해리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지만 않았어도..."

"이 일은 그것과 아무 상관 없어."

"그 노래 때문에 내가 긴장했어."

"그런 노래를 들으면 누구라도 긴장할 거야."

헤르미온느는 입씨름을 하는 두 사람을 피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창틀에 기대어 휘날리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이봐, 그만 뛰!"

해리가 벌컥 화를 냈다.

"네가 그렇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이미 상황은 최악이야!"

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축축하게 젖은 망토 자락을 힘없이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 론은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평생 가장 비참한 기분이야."

"모임이라도 만들어야겠군."

해리가 신랄하게 말했다.

"이봐, 너희들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났어."

헤르미온느가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러셨나?"

해리가 빙정거렸다.

"그래."

헤르미온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창가에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해그리드가 돌아왔어."

제 20 장 해그리드의 이야기

해리는 쓴살같이 남학생 침실로 달려가더니 트렁크에서 호그와트 비밀 지도와 투명 망토를 들고 나왔다. 어찌나 둉작이 재빨랐는지, 해리와 론은 헤르미온느가

여학생 침실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떠날 준비를 다 끝냈다. 헤르미온느는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낀 채, 집요정을 위해 짠 텸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론이 짜증스러운 듯이 혀를 췄 췄 차자,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밖은 춥단 말이야!"

초상화 구멍을 기어 나간 세 사람은 재빨리 투명 망토를 뒤집어썼다. 이제 부쩍 키가 큰 론은 발을 감추기 위해서 잔뜩 몸을 웅크려야만 했다. 그리고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필치나 노리스 부인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운 좋게도 목이 달랑달랑한 낙 이외에는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끔찍하게도 '위즐리는 우리의 왕'과 비슷하게 들리는 어떤 곡조를 흥얼거리며 명하니 허공을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그들은 현관을 지나서 눈 덮인 고요한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저 앞에서 환하게 빛나는 네모난 창문과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보자, 해리는 가슴이 뛰었다.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하자,

다른 두 사람은 비틀거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의 뒤를 쫓아왔다. 그들은 수복이

쌓인 눈을 신나게 우두둑 밟으며 해그리드의 나무 문 앞에 도착했다. 해리는 손을 들어서 세 번 문을 두드렸다. 오두막 안에서는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해그리드, 우리예요!"

해리가 열쇠의 구멍에 대고 속삭였다.

"이런,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투명 망토 아래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활짝 웃었다. 해그리드의 목소리에 반가워 하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었다.

"방금 전에 집에 왔는데... 저리 비켜라, 팽. 저리 비켜, 이 망령 난 개 같으니라고."

자물쇠가 돌아가면서 빠거덕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해그리드의 머리가 나타났다.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춰라!"

해그리드가 그들의 머리 위로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주의를 주었다.

"망토를 쓰고 있구나, 그렇지? 자, 어서 들어와라, 들어와."

"죄송해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세 사람은 해그리드를 밀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투명 망토를 벗자, 비로소 해그리드의 눈앞에 모습이 나타났다.

"전 다만... 오, 해그리드!"

"아무 일도 아니란다, 아무 일도 아니란니까."

해그리드는 재빨리 문을 닫더니, 허둥지둥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렸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해그리드의 머리카락은 붉은 피가 엉겨붙어 마구 헝클어져 있었고, 시퍼렇게 멍이 든 왼쪽 눈은 너무 통통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얼굴과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였고, 아직도 피가 흐르는 데도 있었다. 해그리드는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어쨌든 지금 방금 집으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두툼한 검은 여행용 망토가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아이들 몇 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배낭이 문 옆의 벽에 기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는 더 키가 크고 어깨도 세 배쯤 더 넓은 해그리드는 절뚝거리며 벽난로 쪽으로 다가가더니 구리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해리가 물었다. 그동안에도 팽은 그들 주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얼굴을 핥으려고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잖니."

해그리드가 딱 잘라서 말했다.

"차 마실래?"

"괜히 둘러대지 말아요! 그런 올골을 하고서!"

"난 괜찮다니까."

해그리드는 허리를 펴더니 그들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려고 하다가 그만 얼굴을 찡그렸다.

"오 세상에, 너희 세 사람을 다시 보니 정말 좋구나. 여름방학은 잘 보냈니?"

"해그리드, 공격을 당했군요!"

론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아무 일도 아니란다!"

해그리드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우리 중 한 명의 얼굴이 짓이긴 고깃덩어리 같은 꼴을 하고 나타난다면, 그래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실 건가요?"

론이 떠져 물었다.

"해그리드, 폼프리 부인을 찾아가야겠어요."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주 심해 보이는 상처들도 있어요."

"내가 직접 치료할 거다, 알았지?"

해그리드가 그들을 만류했다. 그리고 오두막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나무 식탁으로 걸어가더니, 식탁보를 한옆으로 훑 걸었다. 초록 빛깔이 감도는 날고기가 놀여 있었다. 그 고깃덩어리는 보통 자동차 타이어보다도 약간 더 컸다.

"그걸 먹을 생각은 아니죠, 해그리드?"

론이 허리를 숙이며 좀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그렇지. 이건 용 고기야. 나도 먹으려는 게 아니야."

해그리드는 고깃덩어리를 집어 들더니 왼쪽 뺨에 철썩 붙였다. 초록색 피가 그의 수염까지 주르르 흘러내리자, 해그리드는 만족스런 신음 소리를 내었다.

"훨씬 낫군. 이건 통증을 덜어 준단다."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해리가 물었다.

"안 된다, 해리. 일곱 비밀이야. 너희들에게 말해 주는 건 내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이란다."

"거인에게 맞은 건가요?"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물었다. 해그리드의 손가락 사이로 용고기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 고기는 그의 가슴 위로 툭 떨어졌다.

"거인이라고?"

해그리드는 허리띠 아래로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아서 다시 얼굴에 붙였다.

"누가 거인에 대해 뭐라고 하든?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누가 너희들에게 내가... 내가 어디 갔었는지...?"

"그냥 우리가 추측한 거예요."

헤르미온느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오, 그랬단 말이지, 그래?"

해그리드가 고깃덩어리로 가리지 않은 한쪽 눈을 그녀 쪽으로 고정시켰다.

"사실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론이 말했다. 해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해그리드는 그들을 빤히 쳐다보더니 흥하고 콧웃음을 쳤다. 그리고 고깃덩어리를 다시 식탁 위로 훑 던지더니 주전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제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너희 세 명처럼,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꼬마들은 생전 처음 본다."

해그리드는 펄펄 끓는 물을 양동이 모양으로 생긴 세 개의 머그잔에 부으면서 중얼거렸다.

"칭찬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너무 시끄럽다고도 하고, 주제넘게 간섭한다고도 하지."

그의 수염이 씰룩거렸다.

"거인들을 찾았다네요?"

해리가 씩 웃으며 식탁 앞에 앉았다. 해그리드는 세 사람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더니 다시 고깃덩어리를 집어서 얼굴에 붙였다.

"그래, 맞아. 그랬다."

해그리드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서 찾았나요?"

헤르미온느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물었다.

"솔직히 거인들을 찾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덩치가 위낙 크니까."

해그리드가 말했다.

"어디 있었죠?"

론이 물었다.

"산속에."

해그리드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술술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머글들이 그들에게 당하지...?"

"당하고 있어."

해그리드가 우울하게 말했다.

"다만 머글들의 죽음이 항상 산악 사고인 것처럼 감춰져서 그렇지."

해그리드는 고깃덩어리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제일 심한 상처 부위를 덮었다.

"해그리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이야기해 주세요!"

론이 졸라 댔다.

"거인들에게 공격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 해리가 디멘터들에게 공격당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그리드는 마시던 차를 푹 내뿜는 동시에 들고 있던 고깃덩어리를 놓쳐 버렸다. 해그리드가 기침을 캑캑하며 입에 든 것을 턱탁 튀기자, 엄청난 분량의 침과 차, 용의 피가 식탁 위로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고깃덩어리가 미끄러지면서 마룻바닥 위에 털썩 떨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디멘터들에게 공격당했다고?"

해그리드가 고함을 질렀다.

"아직 몰랐어요?"

헤르미온느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내가 떠난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전혀 몰라. 비밀 임무를 맡고 있었거든. 어디를 가든 부엉이들이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어. 망할 놈의 디멘터들! 설마 농담은 아니겠지?"

"물론이에요. 디멘터들이 리틀 위닝에 나타나서 제 사촌과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마법부가 저를 퇴학시켰죠."

"뭐라고?"

"결국 저는 청문회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설명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거인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네가 퇴학을 당했다고?"

"아저씨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제 여름방학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그리드는 한쪽 눈으로 노려보았다. 해리도 지지 않고 똑바로 아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진한 결의가 가득했다.

"오, 좋아."

해그리드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허리를 숙이더니 팽의 입에서 용 고기를 다시 빼앗았다.

"오, 해그리드, 그만둬요. 비위생적이에요."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만류했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벌써 고깃덩어리를 통통 부은 눈에 철썩 붙였다. 그는 차를 한 모금 꿀꺽 들이켠 후에 입을 열었다.

"그래, 학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출발했지."

"그러니까 맥심 부인이랑 함께 갔었군요?"

헤르미온느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수염이나 초록색 고깃덩어리에 가려지지 않은, 얼마 안 남은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표정이 번졌다.

"우리 단둘이서 떠났지.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올림프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녀는 세련되고 화려한 옷을 입는 여자가 아니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과연 그녀가 바위산을 기어오르고 동굴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단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

"그럼 아저씨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해리가 물었다.

"거인들이 사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덤블도어 교수님이 알고 계셨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다."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거인들은 숨어 사나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비밀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

해그리드가 텁수룩한 머리를 저었다.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저 자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면 상관하지 않았지. 하지만 거인들이 사는 곳은 찾아가기가 아주 어려워. 어쨌든 인간들에게는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단다.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

"한 달이요?"

론이 소리쳤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오래 계속되는 여행이 있다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 본 사람 같았다.

"하지만... 왜 그냥 포트키 같은 것을 쓰지 않았지요?"

눈을 가늘게 뜨고 론을 바라보는 해그리드의 눈빛에는 이상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너무 한심해서 차라리 불쌍하다는 표정이었다.

"론, 우리는 감시를 당하고 있어."

해그리드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해그리드가 설명했다.

"마법부에서는 계속 덤블도어 교수와 함께,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감시하고 있어."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해리는 한시라도 빨리 해그리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얼른 대답했다.

"마법부에서 덤블도어 교수님을 감시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데 마법을 쓰지 못했단 말이죠?"

론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줄곧 머글처럼 행동해야만 했나요?"

"꼭 그런 건 아니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우린 그저 좀더 조심해야만 했어. 왜냐하면 올림프와 나는 사람들 눈에 좀 띠는 편이니까 말이지..."

론이 코를 쟁쟁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콧방귀를 뀌는 소리도 아닌 어중간한 소리를 내더니, 얼른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미행을 당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우린 함께 휴가 여행을 떠나는 척했지.

프랑스로 들어가서 올림프의 학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했어.

마법부에서 나온 누군가가 우리 뒤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우린 서두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사실 나는 마법을 부릴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마법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을 꼬투리를 찾으려고 노리고 있었지. 디종 근처까지 가서야 간신히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그 지긋지긋한 놈을 떨쳐 버릴 수 있었어."

"어머머, 디종이라고요?"

헤르미온느가 흥분해서 떠들었다.

"저도 방학 때 거길 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거기서..."

하지만 론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는 순간, 헤르미온느는 입을 딱 다물었다.

"그 이후로는 더러 마법을 쓸 기회가 있었지. 썩 나쁜 여행은 아니었어.

폴란드 국경을 넘을 때 미친 트롤 한 쌍을 만나기도 하고, 민스크에 잇는 한 술집에서 흡혈귀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일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로웠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거인들의 훈적을 찾아서 산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일단 거인들이 있는 곳 근처에 가자, 다시 마법을 삼가야만 했지. 거인들이 마법사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저음부터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 게다가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도 반드시 거인들을 찾아갈 거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벌써 거인들에게 제 사람들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더러

거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라고 지시하셨지. 근처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야."

해그리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랫동안 차를 마셨다.

"계속 해주세요!"

해리가 졸라댔다.

"마침내 그들을 찾았단다."

해그리드가 씩씩하게 말했다.

"밤새도록 산 하나를 넘어가니, 우리들의 발 아래로 그들이 있었어. 거대한 그림자 밑에 작은 모닥불들이 타오르고 있더군. 마치 움직이는 산을 보는 것 같았어."

"거인들은 얼마나 크던가요?"

론이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다.

"약 6 미터 정도 되더군. 어떤 거인은 7 점 5 미터도 넘는 것 같았어."

해그리드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몇 명이나 있던가요?"

해리가 물었다.

"내가 보기엔 70 명에서 80 명 정도 되는 것 같더군."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그게 전부예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래."

해그리드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80 명만 남았어. 한때는 꽤 많은 거인들이 있었지. 전세계에 백여 개가 넘는 다양한 거인 종족들이 흩어져 살았거든.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거인들은 죽어갔지. 물론 일부는 마법사들에게 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거인들끼리 서로 죽였어.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거인들은 지금처럼 한곳에 다 모여 살 수 있는 종족이 아니거든. 덤블도어 교수님은 모두 다 마법사들의 잘못이라고 하더군. 마법사들 때문에 거인들은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 사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거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죠?"

해리가 해그리드를 재촉했다.

"우리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어. 어둠을 틈타서 몰래 숨어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새벽 세시쯤 되니까, 거인들이 앉은 채로

잠이 들더군. 하지만 우리는 감히 잠을 잘 엄두를 내지 못했어. 거인들 중에 누구라도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거인들의 코 고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거든. 아침 무렵이 되자, 산사태가 다 일어나더군. 어쨌든 우리는 환하게 날이 밝아서야 거인들을 만나려 내려갔어."

"정말인가요?"

론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거인들의 야영지로 곧장 걸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러 주셨거든.

걸그에게 선물을 바치고 예의를 표하는 거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누구 선물이라고요?"

해리가 물었다.

"오, 걸그... 그러니까 족장을 뜻하는 거야."

"누가 걸그인지 어떻게 알죠?"

론이 꼬치꼬치 캐묻자, 해그리드는 장난으로 투덜거리는 시늉을 했다.

"아주 간단해. 제일 낭치가 크고 제일 못생기고 제일 게으른 놈이 족장이지.

다른 거인들이 음식을 가져오기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든. 죽은 염소나

뭐 그런 걸 말이지. 이름은 카커스였는데 키가 대략 6 점 7 미터에서 7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았어. 무게는 코끼리 두 마리야 맞먹을 것 같더군. 피부는 마치 코뿔소 가죽처럼 두꺼웠어."

"그런데 그런 거인을 향해서 그냥 걸어갔단 말인가요?"
헤르미온느가 숨을 죽이고 물었다.

"그래... 그에게로 내려갔지. 계곡 아래에 누워 있었거든. 거인들은 꽤 높은 네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모여 살았어. 한쪽에는 호수가 있었지.

카커스는

바로 그 호수가에 누워서 다른 거인들에게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단다. 올림프와 나는 산언덕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어."

"하지만 거인들이 아저씨를 보았을 때, 죽이려고 하진 않았나요?" 론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로 물었다.

"분명히 그럴 생각도 있었겠지."

해그리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던블도어 교수님이 시키신 대로 행동했어. 가져온 선물을 높이 들고 다른 거인들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걸그만 바라보라고 하셨거든.

우리는 그대로 했지. 그랬더니 다른 거인들은 우리가 카커스의 발밑에 다다를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더군. 우리는 공손히 절을 하고 그의 발 앞에 선물을 내려놓았어."

"거인에게 바친 선물이 뭐였죠? 먹을 거였어요?"

론이 열심히 물었다.

"아니야. 먹을 거라면 거인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 우리는 마법을 바쳤어. 거인들도 마법을 좋아해. 단지 그 마법을 써서 거인들을 괴롭히는 마법사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우리가 첫째 날 그에게 바친 선물은 구브라이시안

불의 가지였어."

헤르미온느가 나지막이 '와우!' 하고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해리와 론은 둘 다 이마를 찌푸리며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가지라고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답답하다는 듯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쯤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플리트윅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최소한 두 번은 말씀하셨다고!"

"어쨌든 말이다."

론이 뭐라고 대꾸하기 전에, 해그리드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던블도어 교수님이 이 나뭇가지에 마법을 걸어서 영원히 타오르도록 만드셨지. 그건 아무 마법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나는 그것을 눈이 쌓인 카커스의 발밑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알버스 던블도어가 거인들의 걸그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카커스가 뭐라고 그랬나요?"

해리가 흥미진진하게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말을 모르거든."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농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

해그리드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던블도어 교수님께서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의를 주셨거든.

카커스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니 우리말을 알아듣고 통역해 줄 거인을 불렀어."

"그래서 족장이 선물을 좋아하던가요?"

론이 물었다.

"그럼. 그게 뭔지 알아차리자, 한바탕 폭풍이 일어났지."

해그리드는 용 고기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다시 통통 부은 눈에 갖다 댔다.

"무척 기뻐하더군.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의 사신이 내일 다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걸그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왜 그날 바로 거인들과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께서는 일을 천천히 진행하실 원하셨어."

해그리드가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걸 거인들에게 보여 주라고 하셨지. '또 다른 선물을 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다른 선물을 가지고 진짜 다시 찾아가는 거야. 그럼, 좋은 인상을 심어 주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거인들에게 첫 번째 선물을 시험해 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말씀하셨어. 또 다른 선물을 받고 싶어 하도록 말이야. 어쨌든 카커스 같은 거인들은 일단 너무 많은 걸 알려 주었다 싶으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죽어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손히

절을 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작은 동굴을 찾아서 그날 밤을 보냈지.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다시 찾아가자, 이번에는 카커스가 자리에 일어나 앉아서 우리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더군."

"그래서 그와 이야기를 했나요?"

"그럼. 먼저 그에게 멋진 전투 모자를 선물했지. 도깨비들이 만든 건데 절대 부서지지 않는 모자야. 그런 다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별다른 말은 안 했어. 주로 듣기만 했지. 하지만 그건 아주 좋은 징조였어. 덤블도어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국에 남은 마지막 거인들을 죽이려는 시도에 맞서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인 거야. 카커스는 덤블도어가 하는 말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 몇몇 다른 거인들, 특히 우리말을 좀 알아듣는 거인들도 빙 둘러앉아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 결국 그날은 잔뜩 희망에 부풀어 그곳을 떠났지. 다음 날 다시 선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날 밤에 모든 일이 어긋나 버렸어."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론이 재빨리 물었다.

"내가 말했듯이, 거인들은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종족이 아니야."

해그리드가 서글프게 말했다.

"더구나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고는 살아가지 못해. 그들도 어쩔 수 없어.

거의 몇 주마다 서로 싸우다가 거인들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지.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싸우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싸웠지. 옛날 부족의 남은 후예들도 서로 싸웠어. 먹을 것이나 가장 좋은 모닥불이나 잠자리를 둘러싼 사소한 다툼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웠어. 그러다가는 모든 종족이 곧 멸종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서로 구획을 나누었지. 하지만..."

해그리드는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날 밤 싸움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동굴 입구에 서서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 싸움을 지켜보았어. 싸움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천지를

진동하는 그 소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지. 다시 태양이 떠올랐을 때. 하얀 눈은 피로 물들었고, 호수 바닥에는 거인의 잘린 머리가 뒹굴고 있었어."

"누구의 머리였죠?"

헤르미온느가 입을 딱 벌리며 물었다.

"바로 카커스의 머리였지."

해그리드가 침울하게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걸그인 골고마스가 나타났어."

해그리드는 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걸그와 우호적으로 만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족장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 웬지 골고마스가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은 해야만 했어."

"그를 찾아가서 만났단 말인가요?"

론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가 다른 거인의 머리를 자르는 걸 직접 보고도 말이죠?"

"물론이야."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겨우 이틀만에 포기하려고 그 먼길을 간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카커스에게 바치려던 다음 선물을 가지고 계곡으로 내려갔어.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이젠 글렀다는 걸 깨달았지. 그는 카커스의 전투 모자를 쓰고 가만히 앉아서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를 훑쳐보고 있었어. 골고마스는 가장 덩치가 큰 거인들 중의 하나로, 몸집이 어마어마했어. 머리는 검고 이빨 또한 그에 어울릴 정도로 새까맸지. 목에는 뼈로 만든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인간의 뼈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 어쨌든 나는 한번 해보기로 했어. 둘둘 만 커다란 용가죽을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지. '거인들의 걸그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거꾸로 매달렸지. 두 명의 거인이 나를 움켜잡은 거야."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해리가 물었다.

"올림프가 거기 없었다면,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올림프는 지팡이를 꺼내더니 마법을 날렸어. 그렇게 재빠른 솜씨는 정말 생전 처음 봤단다. 마치 기적 같았지. 나를 붙잡고 있는 두 거인의 눈을 향해서 결막염 주문을 쏘자, 그들은 즉시 나를 떨어뜨렸어. 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곤경에 빠졌지. 거인들에게 마법을 썼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거인들이 마법사를

싫어하는 이유였는데 말이야. 우리는 도망쳐야만 했어. 그리고 이젠 두 번 다시 거인들의 야영지로 들어가긴 다 틀렸다는 걸 알았지."

"안됐군요. 해그리드."

론이 조용히 말했다.

"거기에 사흘밖에 안 있었다면, 다시 돌아오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우리는 사흘 만에 떠나지 않았어!"

해그리드가 자존심이 상한 듯이 소리쳤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믿고 계신데!"

"하지만 방금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늦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 그건 불가능했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했어. 이틀 동안 동굴 안에 납작 엎드려서 그들을 지켜보았지. 하지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가 또 다른 거인 목을 잘랐나요?"

헤르미온느가 당장에라도 토할 것 같은 어조로 말했다.

"차라리 그러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어."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골고마스가 모든 마법사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단지 우리를 싫어했던 거야."

"그럼 죽음을 먹는 자들이?"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맞아."
해그리드가 더욱더 침울해졌다.
"죽음을 먹는 자 두 명이 날마다 그를 찾아와서 선물을 바쳤어. 걸그는 그들을 거꾸로 매달지 않았지."
"그들이 죽음을 먹는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론이 말했다.
"그들 중의 한 명이 내가 아는 녀석이었어."
해그리드가 이를 갈았다.
"맥네어, 기억나니? 벅빅을 죽이려고 마법부가 보냈던 녀석 말이야. 맥네어, 바로 그 자식이었어. 골고마스만큼이나 죽이는 걸 좋아하는 놈이니, 둘이 죽이 맞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지."
"그럼 맥네어가 거인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 편에 가담하도록 했단 말인가요?"
헤르미온느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요 녀석들, 입 좀 닥치고 있거라. 아직 내 이야기가 안 끝났어!"
해그리드가 벌컥 화를 냈다. 처음에는 한 마디도 안 하겠다고 그토록 꼬무니를 빼더니,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와 올림프는 한참 상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 걸그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른 모든 거인들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야.
우리는 다른 거인들을 설득해야만 했지. 골고마스가 걸그가 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인들을."
"그런데 어느 거인이 그런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론이 물었다.
"물론 흠씬 두들겨 맞은 거인들이지, 안 그렇겠니?"
해그리드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거인이라면 골고마스를 피해 다녔지. 우리처럼
골짜기 근처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중 몇 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어."
"거인들을 찾으러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갔단 말인가요?"
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건 거인들이 아니었던단다."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오히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더 걱정이었지. 덤블도어 교수님은, 가능한
절대로 그들과 맞붙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우리가 근처에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지. 골고마스가 우리에 대해서 말했을 테니까.
우리는 거인들이 잠든 한밤중에 동굴 속으로 몰래 들어갈 작정이었어. 하지만
맥네어와 또 한 명이 우리를 찾으려고 산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지. 나는
당장에라도 그들을 덮치려고 하는 올림프를 말리느라 진땀을 흘렸단다."
이 말을 하는 해그리드의 입이 저절로 헤벌어지며, 무성한 수염이 들썩거렸다.
"올림프는 그 녀석들을 해치우고 싶어서 펄펄 뛰었지. 일단 성질이 나면,
물불을 안 가린다니까. 올림프... 정말 불 같은 여자야... 프랑스인의
기질이지..."
해그리드는 둥동한 눈으로 불을 바라보았다. 해리는 그가 달콤한 회상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다가, 삼십 초가 지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른 거인들을 만나기는 했나요?"
"뭐라고? 아, 아... 그래. 만났지. 그래, 카커스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는 숨어 있던 동굴에서 기어 나와 계곡 아래로 내려갔단다. 죽음을 먹는
자들의 흔적을 계속 살피면서 말이지. 몇몇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만, 말짱
헛수고였지. 그런데 여섯 번째 동굴에서 숨어 있는 세 명의 거인들을 발견한

거야."

"동굴 안이 엄청 비좁았겠군요."

론이 말했다.

"옴싹달싹도 할 수 없었지."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거인들의 눈에 띄었을 때, 공격을 하지 않던가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물론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심하게 다친 상태였지.

세 명 모두 말이야. 그들은 골고마스의 패거리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쓰러졌지.

그리고 정신이 들자, 간신히 기어서 제일 가까운 피난처로 숨어든 거였어.

어쨌든 그들 중에 한 명이 우리말을 약간 할 수 있어서 다른 두 거인들에게 통역을 해주었지.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대로 째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상당한 거인들을 찾아다녔지. 결국 거인들 중에 예닐곱 명

정도는 설득한 것 같았어. 어느 순간에는 말이야."

"예닐곱 명이라고요?"

론이 열광적으로 부르짖었다.

"나쁘지 않은걸요. 그럼, 그 거인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그 사람과 맞서 싸울 건가요?"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느 순간에는 '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해그리드?'"

해그리드가 풀 죽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골고마스의 무리가 동굴을 습격한 거야. 그들 중에 단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더 이상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

"그...그럼... 거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단 말인가요?"

론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단 한 명도."

해그리드는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더니, 다시 고깃덩어리를 들어 얼굴에 갖다 댔다.

"하지만 우리는 맡은 일을 다 했어. 거인들에게 덤플도어 교수님의 뜻을 전달했고, 그들 중의 몇 명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을 기억할지도 몰라. 혹시 골고마스 밑에서 지내기 싫은 거인들이 산에서 내려올지도 모르지. 우연히 덤플도어 교수님의 친절한 제안을 떠올리고... 찾아올지도..."

이제 눈이 거의 창문까지 높이 쌀었다. 해리는 문득 망토 무릎이 축축하게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팽이 해리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옮겨놓고 침을 줄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그리드?"

해그리드가 잠시 후에 조용히 물었다.

"응?"

"혹시... 거기 있을 때, 무슨 이야기 듣지 못했어요? 어떤 흔적이라도... 어... 어머니에 대해서 말이죠."

해그리드의 까만 눈동자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는 약간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깜박...이...잊었어요."

"죽었단다."

해그리드가 중얼거렸다.

"몇 년 전에 죽었다고 그들이 말해 줬어."

"오... 저... 정말 미... 미안해요."

헤르미온느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그리드는 거대한 어깨를 으쓱하며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별로 기억도 안 나는걸. 대단한 분도 아니었어."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헤르미온느는 불안한 듯이 해리와 론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뭐라고 말 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는 아직도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해그리드."

론이 피로 얼룩진 해그리드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는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리우스 말에 따르면,
맥심 부인은 벌써 오래 전에 돌아왔다던데..."

해리도 한마디 덧붙였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나요?"

론이 물었다.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니까!"

해그리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나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려 대는 소리에 그의 나머지 말이 묻혀 버렸다.

헤르미온느는 혁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컵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 팽이 킅킁 짖어 댔다. 네 사람은 동시에 문 옆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넓적하고 땅딸막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커튼 뒤로 어른거렸다.

"그 여자야!"

론이 속삭였다.

"이 밑으로 숨어!"

해리가 투명 망토를 헤르미온느와 자신의 머리 위로 훅 덮어쓰면서 재빨리
말했다. 한편 론은 식탁 주위를 황급히 돌아서 망토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서로 꼭 껴안은 채, 한쪽 구석으로 주춤주춤 몰려섰다. 팽은 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 대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것 같았다.

"해그리드, 우리 잔을 숨겨요!"

해그리드는 해리와 론의 잔을 얼른 집어 들어서 팽이 잠을 자는 바구니의
방석 밑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팽은 문을 향해 경중경중 뛰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발로 그를 옆으로 밀친 다음, 문을 열었다.

초록색 트위드 망토를 입고 그와 똑같은 색깔의 모자를 귀까지 놀려쓴
엄브릿지 교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잔뜩 오므린 채,
해그리드의

얼굴을 제대로 살펴보려는 듯이 몸을 잔뜩 뒤로 젖혔다. 그녀의 키가
해그리드의

배꼽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그리드군요?"

엄브릿지는 마치 귀가 먼 사람에게 말하듯이 큰 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대답을 기다릴 생각도 하지 않고, 엄브릿지는 톡 튀어나온 눈을 사방으로
굴리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저리 비켜."

엄브릿지는 팽을 향해 핸드백을 휘두르며 쏘아붙였다. 팽은 그녀를 향해
펄쩍펄쩍 뛰면서 얼굴을 핫으려고 했다.

"저...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지만,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무례하신
건가요?"

"제 이름은 돌로레스 엄브릿지예요."

엄브릿지는 오두막집 안을 한 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두 번이나 론과
헤르미온느 사이에 꽉 끼어 있는 해리가 서 있는 구석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돌로레스 엄브릿지?"

해그리드는 모두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럼 마법부 직원 중의 한 사람이 아닌가요? 퍼지와 함께 일하는?"

"맞아요, 나는 마법부 차관이었죠."

엄브릿지는 오두막집 안을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벽에 걸린 배낭에서부터
벗어 놓은 여행용 망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선생이죠."

"오, 용감하시군요. 그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데..."

"그리고 호그와트 장학사이기도 하죠."

엄브릿지는 해그리드의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개를 끝냈다.

"그게 뭐죠?"

해그리드가 인상을 찌푸렸다.

"바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엄브릿지가 마룻바닥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있는 해그리드의 잔을 손으로 가리켰다.

"아, 그거 말이죠."

해그리드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서 있는 구석을 연신 힐끗힐끗 쳐다보며 어쩔 줄 몰랐다.

"그... 그러니까 팽이 그랬어요. 팽이 잔을 깨뜨렸죠. 그래서 다른 잔을 꺼내 쓰고 있는 중이었죠."

해그리드는 자신이 마시고 있던 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용 고기를 눈에 대고 있었다. 엄브릿지는 이제 해그리드를 똑바로 마주 보며 오두막집 대신 그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무슨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엄브릿지가 조용히 물었다.

"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해그리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팽이 대답까지 하나요?"

"뭐... 그냥 말버릇이죠."

해그리드가 불안한 표정이 되었다.

"가끔 팽에게 거의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걸곤 하죠."

"성문에서부터 당신의 오두막집 앞까지 세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아 있더군요."

엄브릿지가 매끄럽게 말했다. 헤르미온느가 자신도 모르게 혁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해리가 재빨리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다행히 팽이 큰 소리로 코를 킁킁거리며 엄브릿지의 망토 자락을 냄새 맡고 다니는 통에, 엄브릿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제가 방금 돌아왔거든요."

해그리드가 솔뚜껑만 한 손으로 배낭을 가리켰다.

"아마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모양이군요."

"하지만 오두막집에서 나가는 발자국은 없었어요."

"글쎄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모르겠군요..."

해그리드는 조조하게 수염 끝을 잡아당기더니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이 또다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서 있는 구석을 힐끗 쳐다보았다.

"저..."

엄브릿지는 흑 돌아서더니 주위를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오두막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침대 밑을 들여다본 다음, 해그리드의 찬장까지

열어 보았다. 그녀는 벽에 바싹 몸을 붙이고 서 있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의 코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기도 했다. 실제로 해리는 엄브릿지가 지나가는 동안, 배를 한껏 집어넣고 있어야만 했다. 해그리드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대한 솥 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엄브릿지는 다시 흑 돌아서더니 질문을 던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쩌다 그렇게 부상을 당했죠?"

해그리드는 황급히 용 고기를 얼굴에서 떼어 냈다. 하지만 해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수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얼굴에 온통 뒤엉킨 핏자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눈 주위에 검푸른 상처가 오히려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저 좀... 사고를 당했죠."

해그리드가 더듬거렸다.

"무슨 사고였죠?"

"너... 넘어졌어요."

"넘어졌단 말이죠."

엄브릿지가 냉정하게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네, 그렇습니다. 치... 친구의 빗자루를 타... 타다가 말이죠. 전 날지는 못하거든요. 제 몸집을 보세요. 절 태울 수 있는 빗자루가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아브락산 말을 기르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날개가 달린 커다란 짐승인데... 어쨌든 그 중에 한 놈을 타고..."

"그래, 어딜 다녀왔죠?"

엄브릿지는 횡설수설 헛소리를 늘어놓는 해그리드의 말을 냉정하게 자르며 물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물었어요."

엄브릿지가 말했다.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당신 수업을 대신 해야만 했죠. 당신 동료들은 아무도 당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더군요. 당신은 행선지도 남기지 않고 떠났어요.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죠?"

해그리드는 고깃덩어리로 가리지 않은 한쪽 눈으로 엄브릿지를 꼼벅꼼벅 쳐다보았다. 해리는 그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거... 건강 때문에 멀리 가 있었죠."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건강 때문이라고요."

엄브릿지가 말하면서 통통 봇고 시퍼렇게 멍이 든 해그리드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침목 속에 용의 피가 해그리드의 조끼 위로 똑똑 떨어졌다.

"그렇군요."

"그래요. 저... 저 신선한 공기가... 그러니까..."

"사냥터지기면서 신성한 공기를 마시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엄브릿지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그리드의 얼굴 중에서 시퍼렇게 멍이 들지 않고 남아 있는 눈곱만 한 부분이 빨갛게 물이 들었다.

"그저... 약간 경치를 바꿔 보는... 뭐 그런 거죠."

"산으로 말인가요?"

엄브릿지가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어. 해리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산이라고요?"

해그리드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요, 남프랑스였어요. 태양과... 바다..."

"그래요? 그런데 별로 타지도 않았군요."

"아... 예... 그게 예민한 피부라서."

해그리드는 억지로 아양 떠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야 비로소 해리는 해그리드의 이 두 개가 부러진 것을 알아차렸다. 엄브릿지는 얼음처럼 냉정하게 해그리드를 마주 보았다. 해그리드의 미소가 점차 사라졌다. 엄브릿지는 핸드백을 팔 위로 끌어올리며 말했다.

"당연히 당신의 뒤후는 귀환에 대해서 장관님께 보고를 하겠어요."

"좋습니다."

해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유감스럽게도 나의 동료들을 조사하는 것 또한 장학사로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금방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엄브릿지는 헥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를 조사한다고요?"

해그리드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맞아요."

엄브릿지가 문 손잡이를 불잡은 채,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마법부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선생들을 추려 내기로 결정했죠. 해그리드, 잘 자요."

그녀는 땀깍하고 문을 닫았다. 해리가 투명 망토를 걷어치우려고 했지만, 헤르미온느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직은 안 돼."

헤르미온느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직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해그리드도 똑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더니 커튼을 조금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성으로 돌아가고 있어. 제기랄...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그래?"

"맞아요. 트릴로니 교수도 벌써 경고를 받았어요."

해리가 망토를 걷으며 말했다.

"음...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월 가르치실 계획이에요, 해그리드?"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아주 많은 계획이 있단다."

해그리드가 용 고기를 식탁 위에 다시 집어 들더니 얼굴에 턱 붙이면서 열의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O,W,L 학년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몇몇 생물들을 남겨 두었지. 기다려 보렴, 정말 특별하단다."

"음... 어떤 식으로 특별하다는 거죠?"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할 수 없단다.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이봐요. 해그리드."

헤르미온느는 더 이상 속마음을 감추려 하지 않고 다급하게 말했다.

"해그리드가 너무 위험한 생물을 수업 시간에 가져오면, 엄브릿지 교수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하다고?"

해그리드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위험한 건 절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거야."

"해그리드, 어떻게든 엄브릿지의 조사를 통과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락을 어떻게 돌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엄브릿지도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크날과 고슴도치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뭐 그런 거 말이에요!"

헤르미온느가 열심히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재미가 없잖니, 헤르미온느."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난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계획이 있단다.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그걸 길러 왔지. 아마 영국 내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건 내가 가진 게 유일할 거야."

"해그리드, 제발..."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간절했다.

"엄브릿지는 덤블도어 교수님과 친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구실을 다 찾고 있어요. 해그리드,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에게 O,W,L 에 꼭

나오는, 뭔가 재미없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저 길게 하품을 하면서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커다란 침대를 간절한 눈빛으로 자꾸만 곁눈질했다.

"얘들아,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다. 게다가 너무 늦었구나."

해그리드는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살짝 쳤다. 그런데도 헤르미온느는 무릎이 탁 꺾이면서 마루에 쿵 하고 주저앉았다.

"이런, 미안하다."

해그리드는 헤르미온느의 목덜미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봐,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들의 수업을 위해서 아주 좋은 걸 준비해

두었던단다. 이제 너희들은 그만 성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발자국을 지우는 걸 잊지 말아라."

"네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잠시 후에 론이 말했다. 근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눈 쓰인 운동장을 지나서 성으로 되돌아가는 중이었다. 헤르미온느가 소멸 마법을 쓴 덕분에 그들 뒤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나는 내일 다시 올 거야."

헤르미온느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하다면, 내가 해그리드를 위해서 수업 계획서를 짜 주겠어. 그 여자가 트릴로니를 내쫓는 건 상관없지만, 해그리드까지 데려갈 수는 없어!"

제 21 장 뱀의 눈

일요일 아침이 되자, 헤르미온느는 60 센티미터 높이까지 쌓인 눈을 해치고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을 다시 찾아갔다. 해리와 론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는 산더미처럼 밀린 숙제에 거의 깔려 죽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게실에 남아서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함성 소리에 귀를 막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썰매를 타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가장 최악의 순간은, 마법에 걸린 눈 뭉치가 그리핀도르 탑까지 날아와서 창문에 턱 부딪힐 때였다.

"이봐!"

마침내 인내심을 잃어버린 론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고향을 질렀다.

"난 반장이야. 한 번만 더 창문에 눈을 던지면... 어이쿠!"

론은 재빨리 창문 안으로 머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였어."

론은 창문을 광 닫으면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제기랄."

헤르미온느는 점심 시간 직전에 해그리드의 오두막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무릎까지 흠뻑 젖은 채,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어떻게 됐니?"

헤르미온느가 들어오자, 론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해그리드가 수업 계획을 받아들였어?"

"노력은 했어."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옆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꺼내 약간 복잡하게 이리저리 흔들자, 지팡이 끝에서 뜨거운 바람이 훌러나왔다. 헤르미온느가 그것을 옷자락에 가까이 댔다. 김이 나면서 망토가 마르기 시작했다.

"내가 갔을 때는 해그리드가 집에 없었어. 삼십 분 가까이나 문을 두드렸지. 그리고 얼마 지나서야 해그리드가 숲 속에서 걸어 나오더군."

해리가 신음 소리를 내었다. 금지된 숲이야말로 해그리드를 파면시키기에 딱 맞는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장소였던 것이다.

"거기서 뭘 기르고 있대? 해그리드가 뭐라고 말해 줬어?"

해리가 물었다.

"아니."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저었다.

"해그리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해. 난 엉브릿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 주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도 키메라 대신 크날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 오, 그렇다고 키메라를 가져오진 않을 거야." 순간, 해리와 론의 얼굴에 겁먹은 표정이 떠오르자,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키메라 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말하는 걸 봐서,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나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님의 수업 계획을 그냥 따르는 편이 좋겠다고 셀 수 없이 여러 번 말해 줬어.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의 절반도 귀담아듣지 않더라고. 해그리드는 약간 묘한 상태였어. 게다가 아직도 어떻게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말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해그리드가 교직원 테이블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모든 학생들이 기뻐하며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프레드나 조지, 리 같은 몇몇 학생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그리핀도르와 후풀푸프 테이블 사이를 달려 나가서 해그리드의 커다란 손을 덥석 잡기도 했다. 하지만 패르바티와 라벤더 같은 학생들은 실망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해리는 많은 학생들이 그루블리 프랭크 선생님의 수업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루블리 프랭크 선생님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수업은, 적어도 누군가 그들의 목을 떼어 갈 위험이 있는 수업은 아니었다.

화요일이 되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추위를 막기 위해 온 얼굴을 감싼 채,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걱정이었지만, 다른 학생들, 특히 말포이 패거리들이 엉브릿지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눈 속을 헤치며 힘들게 해그리드 앞으로 갔을 때, 장학사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해그리드는 숲 가장자리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토요일 밤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던 자리가 이제는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물들고, 몇몇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해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혹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독을 지닌 어떤 생물에게 공격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게다가 해그리드는 그러지 않아도 보기 흉한 몸골에 음산한 분위기를 더하려는 듯이, 어깨 위에 죽은 소를 반으로 잘라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짚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저기서 공부할 거란다!"

해그리드는 등 뒤에 있는 어두운 숲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한껏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좀더 잘 감추기 위해서지! 게다가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뭐가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한다는 거야?"

해리는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공포에 질려 있었다.

"뭐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고 그랬는지, 넌 혹시 들었니?"

해리는 말포이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숲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때도 말포이는 겁을 내고 무서워했었다. 해리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퀴디치 시합 이후로 말포이를 골려 줄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대환영이었던 것이다.

"준비됐니?"

해그리드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신나게 말했다.

"좋아. 나는 5년 동안 숲 속 여행을 아껴 두고 있었지. 숲에 들어가면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아주

보기 드문 거란다. 아마 영국에서 이걸 길들이는 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일 거라고..."

"길들인 게 확실한가요?"

말포이가 더욱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사나운 동물을 수업 시간에 데려온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슬리데린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다. 그리핀도르의 몇몇 학생들까지도 말포이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론 그건 길들여져 있지."

해그리드는 얼굴을 찌푸리며 어깨에 매고 있던 죽은 소를 좀더 위로 추켜올렸다.

"그럼 도대체 얼굴은 왜 그렇게 된 거죠?"

말포이가 따져 물었다.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해그리드가 벌컥 화를 냈다.

"자, 이제 그 멍청한 질문이 다 끝났으면, 그만 날 따라와라!"

해그리드는 돌아서서 숲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하지만 모두들 썩 내키지 않는 것 같았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슬쩍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한숨을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앞장서서 해그리드의 뒤를 따라갔다.

약 십 분쯤 따라가니, 나무들이 너무나 빽빽이 들어서서 해질 때처럼 항상 어둡고 바닥에는 눈 한 점 쌓여 있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해그리드는 짊어지고 온 소를 꼽 하고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학생들을 향해서 돌아섰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장에라도 뭔가가 덮치지 않을까 하는 초조한 눈길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무 사이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다.

"이리 모여라. 이리로 모여."

해그리드가 아이들을 격려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것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들 거다. 하지만 어쨌든 나도 그것들을 부를 거야. 그래야 내가 온 줄 알고 좋아할 테니까 말이다."

해그리드는 텁수룩한 머리를 훤히며 얼굴로 훌러내린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겼다. 그리고 기묘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뭔가 무시무시한 새를 부르는 신호처럼 어두운 숲 전체로 울려 퍼졌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사실은 너무 겁에 질려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해그리드는 또다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었다. 일 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은 과연 무엇이 나타날지 불안한 얼굴로 어깨너머를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해그리드가 세 번째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거대한 가슴을 잔뜩 부풀리는 순간, 해리는 론을 툭 치면서 옹이진 두 그루의 주목나무 사이의 캄캄한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얗게 번뜩이는 두 개의 눈이 어둠 속에서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용처럼 생긴 얼굴과 목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늘로 뒤덮인, 날개 달린 거대한 검은 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길고 검은 꼬리를 흔들면서 잠깐 동안 아이들을 둘러본

후, 고개를 숙이고 뾰족한 이빨로 죽은 소의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자, 해리는 커다란 안도감에 훙싸였다. 마침내 자기가 본 동물이 헉된 공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그것은 진짜였다. 해그리드도 그

동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해리는 의기양양하게 론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론은

여전히 나무 사이를 두리번거리더니, 잠시 후에 속삭였다.

"해그리드는 왜 다시 부르지 않는 거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론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초조하게 뭔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몇 센티미터 앞에 서 있는 말을 보지 못하고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해리 이외에 그 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명뿐인 것 같았다. 고일의 바로 뒤에 서 있는 단단한 체격의 슬리데린 학생

한 명이 징그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말을 쳐다보고 있었고, 네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길고 검은 꼬리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오, 저기 한 마리가 더 오는구나."

해그리드가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두 번째 검은 말이 어두운 나무 사이에서 모습을 나타났다. 그 말은 가죽 날개를 몸에 바싹 붙이더니 머리를 숙이고 고기를 뜯어먹었다.

"자, 이제 손을 들어보렴. 저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마침내 그 이상한 말의 수수께끼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한껏 마음이 들뜬 해리는 손을 번쩍 들었다. 해그리드가 해리는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난 네가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 해리."

해그리드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릭 너도, 네빌도? 그럼..."

"잠깐만요."

말포이가 잔뜩 비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우리더러 뭘 보라는 거죠?"

해그리드는 대답 대신, 땅 위에 놓인 죽은 소를 가리켰다. 모든 학생들이 고깃덩어리를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다음 순간, 몇몇 아이들은 혁하고 숨을 들이쉬었고, 패르바티는 비명을 질렀다. 해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뼈에 붙은 살점이 저절로 떨어지면서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은 정말 기괴해 보였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지?"

패르바티가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도대체 뭐가 저걸 먹고 있는 거지?"

"세스트랄이란다."

해그리드가 으스대며 말했다. 순간 해리 옆에서 헤르미온느가 알겠다는 듯이 '아!' 하고 나지막이 탄성을 질렀다.

"호그와트에서는 그 무리들을 이 숲 속에서 기르고 있었지. 자. 누가..."

"하지만 그건 아주, 아주 재수없는 동물이에요!"

패르바티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그 동물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온갖 끔찍한 불행이 닥친다고 트릴로니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아니다. 아니야."

해그리드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건 그저 미신일 뿐이야. 세스트랄은 재수 없는 동물이 아니란다. 오히려 아주 똑똑하고 쓸모 있는 놈들이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 덤불도어 교장 선생님께서 순간이동 마법을 쓰지 않고 긴 여행을 떠나실 때면 저걸 타고 가시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로 학교 마차를 끈단다. 저기 두 마리가 더 오는구나, 봐라..."

또 다른 두 마리의 말이 나무 사이에서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 중 한 마리는 패르바티의 옆을 바싹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부르르 몸을 떨더니 나무에 바싹

붙어서 소리쳤다.

"뭔가 느껴졌어. 아마 내 근처에 있나 봐!"

"걱정하지 마라. 널 다치게 하진 않을 테니."

해그리드가 인내심을 가지고 달랬다.

"자, 이제 왜 누구는 저걸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는 헤르미온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어서 말해 보렴."

해그리드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스트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답이다."

해그리드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핀도르에 10 점이다. 이제 세스트랄은..."

"에헴, 에헴."

어느 사이에 엠브릿지 교수가 와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초록색 모자와 망토를 입은 채, 손에는 필기판을 들고 해리에게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 한편 엠브릿지의 헛기침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그리드는 이 녀석이 왜 이런 소리를 냈을까 하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세스트랄을 가많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에헴, 에헴."

"오, 안녕하세요!"

비로소 소리가 나는 곳을 알아차린 해그리드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두막집으로 보낸 전갈을 받지 못하셨나요?"

엠브릿지는 지난번과 다름없이 큰 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마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였다.

"오, 받았습니다."

해그리드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이곳을 제대로 찾아오셔서 다행이군요. 보시다시피... 아니, 혹시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는 세스트랄을 공부하고..."

"뭐라고요?"

엠브릿지가 인상을 쓰면서 귀 뒤로 손을 갖다 댔다.

"뭐라고 하셨죠?"

해그리드는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저... 세스트랄이요!"

그는 큰 소리로 설명했다.

"커다랗고... 날개가 달린 말이요!"

해그리드는 거대한 팔을 퍼덕거렸다. 엠브릿지 교수는 눈을 치켜뜨더니, 필기판에 뭔가 적으며 중얼거렸다.

"조악한... 시늉에... 의지함..."

"그게... 어쨌든... 음...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해그리드는 어쩔 줄 모르고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다.

"기억력이... 대단히... 나쁜... 것처럼... 보임."

엠브릿지는 모두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드레이코 말포이는 마치 크리스마스가 한 달이나 앞당겨 오기라도 한 표정이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느라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 버렸다.

"아, 그래."

해그리드는 엠브릿지의 필기판을 향해 불편한 눈초리를 한 번 던지더니, 용감하게 말을 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무리를 기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게. 처음에는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다섯 마리로 시작했단다. 바로 이 녀석이지."

해그리드는 제일 먼저 나타난 말의 머리를 톡톡 쳤다.

"테네브러스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놈이지. 이 숲속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기도 하단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엠브릿지가 큰 소리로 불쑥 끼어들었다.

"마법부에서는 세스트랄을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해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저 킬킬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세스트랄은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심하게 괴롭히면 약간 깨물 수는 있죠."

"폭력적인... 생각을... 하며... 즐기는... 경향이... 있음."

엠브릿지가 다시 필기판에 글씨를 휘갈겨 쓰면서 중얼거렸다.

"그게 아니에요, 이봐요!"

해그리드는 이제는 약간 불안한 표정이 되었다.

"내 말은 개도 미끼를 보면 문다는 뜻이에요. 다만 세스트랄은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겼을 뿐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단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안 그래요?"
엄브릿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쓰던 것을 마저 다 쓰고 나더니,
해그리드를 쳐다보며 다시 큰 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평소처럼 그대로 가르치세요. 전 그냥 좀 돌아다니죠."
엄브릿지는 걷는 시늉을 했다. 말포이와 팬시는 소리를 참으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엄브릿지는 손가락으로 학생들을 하나하나 가리켰다.
"질문을 좀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입을 가리키며 말을 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해그리드는 얼빠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염브릿지가 왜 쉬운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구는지 영문을 알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 헤르미온느는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고약한 늙은이, 나쁜 할망구 같으니라고!"
엄브릿지가 팬시 파킨슨 쪽으로 걸어가자, 헤르미온느가 중얼거렸다.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이 심술궂고 사악하고 못된..."
"음... 어쨌든... 그러니까 세스트랄에 대해서는 배울 게 아주 많이 있단다."
해그리드는 어떻게든 다시 수업의 흐름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학생은 해그리드 교수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이때 염브릿지가 낭랑한 목소리로 팬시 파킨슨에게 질문을 던졌다.
헤르미온느와 마찬가지로 팬시 파킨슨의 두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배를 움켜쥐고 너무 웃다가 훌린 눈물이었다. 지금도 웃음을 참느라 거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아니요... 왜냐하면... 대개는... 그냥... 으르릉거리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엄브릿지는 필기판에 재빨리 휘갈겨 썼다. 해그리드의 얼굴에서 멍이 안 든
부분이 다시 빨갛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팬시의 대답을 못 들은 척했다.
"음... 그러니까... 세스트랄에 대해선 배울 게 많단다. 세스트랄은 이것들처럼
일단 길이 들면, 결코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단다. 방향 감각이 아주 뛰어나거든.
어디든 가고 싶은 곳만 말하면..."
"물론 그것들이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겠죠."
말포이가 큰 소리로 빙정거렸다. 그러자 팬시 파킨슨이 또다시 배를 움켜쥐고
발작을 일으키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염브릿지 교수도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네빌을 향해 돌아섰다.
"롱바텀, 세스트랄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
엄브릿지가 물었다. 네빌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죽는 걸 본 적이 있니?"
엄브릿지가 전혀 다른 어조로 물었다.
"저... 저희 할아버지요."
네빌이 대답했다.
"저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엄브릿지가 둥툭한 손가락으로 말들을 가리켰다. 이제 세스트랄들은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다 뜯어먹고 거의 빼만 남겨놓고 있었다.
"전... 괜... 괜찮은 것... 같아요..."
네빌이 해그리드를 슬쩍 곁눈질하며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생들이... 너무... 억눌려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함."
엄브릿지는 다시 중얼거리며 필기판에 평가 내용을 썼다.
"아니에요!"
네빌은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게 아니에요. 전 저것들이 무섭지 않아요!"
"괜찮다."
엄브릿지가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네빌의 어깨를

툭툭 쳤다. 하지만 해리의 눈에는 마치 능글맞은 비웃음처럼 보였다.

"그럼, 해그리드."

엄브릿지는 해그리드를 올려다보며, 또다시 커다란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군요... 열흘 이내에 참관 수업의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엄브릿지는 필기판을 가리키더니 손으로 원가를 받아 드는 시늉을 했다.

그리고 웅툭하고 짧은 손가락 열 개를 짹 펼쳐보였다. 초록색 모자 밑에서 이를 들어내 놓고 웃는 그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두꺼비처럼 보였다.

엄브릿지는 미친 듯이 웃고 있는 말포이와 팬시 파킨슨을 뒤로한 채, 분주하게 그곳을 떠났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네빌은 어쩔 줄 모르고 얼떨떨하게 서 있었다.

"치사하고 더럽고 비비 꼬인 늙은 이무기 같으니라고!"

그로부터 30 분 후에 그들은 아침에 만들어 놓은 눈 속 터널을 지나서

성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헤르미온느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그 여자의 속셈이 뭔지 너희들도 알고 있지? 혼혈에 대한 그 못된 편견이 또 발동하기 시작한 거야. 해그리드를 멍청한 트롤쯤으로 몰아세우려는 거지. 단지 해그리드의 엄마가 거인족이란 이유 때문에 말이야. 이건 너무 부당해.

해그리드의 수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또다시 폭탄 꼬리 스크루트였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하지만 세스트랄은 괜찮아. 사실 해그리드 기준으로 보자면, 아주 훌륭한 거지!"

"엄브릿지는 세스트랄이 위험하다고 했어."

론이 중얼거렸다.

"그럼 해그리드는 이렇게 말할걸.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마 그루블리 프랭크 같은 선생님이라면, N,E,W,T 수준이 되기 전에 세스트랄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일은 없었겠지. 하지만 너무 흥미롭지 않니?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나도 볼 수 있었으면!"

"정말이니?"

해리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겁먹은 얼굴이 되었다.

"오, 해리... 미안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리석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해리가 얼른 안심을 시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니 놀랐어. 한 반에 세 명씩이나..."

론이 말했다.

"그래, 위즐리. 우리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갑자기 심술궂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북이 쌓인 눈 때문에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이 바로 그들 뒤에까지 쫓아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혹시 누군가 뛰지는 꼴을 보면, 케이플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은 요란하게 웃으며 그들 옆을 학 지나갔다. 그들은 '위즐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위즐리는 귀까지 새빨갛게

물들었다.

"무시해, 무시해 버려."

헤르미온느는 이렇게 속삭이며 지팡이를 꺼내더니 다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마법을 걸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온실까지 가는 길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눈을 녹이면서 보다 쉽게 갈 수 있었다.

더 많은 눈과 함께 12 월이 찾아왔다. 5 학년들에게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숙제도 함께 동반되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론과 헤르미온느가 해야 할 반장 업무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들에게는 성을 장식하는 일을 감독하고, ("피브스가

반짝이 줄의 한쪽 끝을 붙잡고 네 목을 조르려고 하는 동안, 넌 그걸 어떻게든 벽에 걸어야만 해." 론은 이렇게 투덜거렸다.) 1.2학년들이 노는 시간에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책임이 맡겨졌다.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웠던 것이다. ("이번 하급생들은 시건방진 꼬마 불량배들이야. 우리가 1학년 때에는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론은 투덜거렸다.) 그리고 아구스 필치와 교대로 복도 순찰도 해야만 했다. 필치는 잔뜩 고조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마법사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뚱만 잔뜩 들었어." 론은 화를 냈다.) 어찌나 바빴는지 헤르미온느는

집요정의 모자를 뜨는 일조차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모자가 세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안달했다.

"아직도 그 가엾은 집요정들을 다 해방시키지 못했는데, 모자가 부족해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넘겨야만 하다니!"

해리는 차마 그녀가 만든 모자와 양말들을 전부 도비가 가져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마법 역사 숙제 위로 얼른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해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학교 생활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호그와트를 멀리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던 것이다.

퀴디치 시합에 출전 금지 조치를 당한 데다가 해그리드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겹쳐서, 해리는 이곳에 대해 강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 D,A 모임뿐이었다. 그렇지만 D,A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모임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헤르미온느는 부모님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갈 예정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론은 우스워서 어쩔 줄 몰랐다.

머글들이

기다란 널빤지를 발에 붙이고 산을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론은 버로우의 집에 갈 예정이었다. 해리는 며칠 동안이나 부러운 마음을 애써 감춰야만 했다. 하지만 해리가 론에게 크리스마스 때 집에 어떻게 갈 생각이냐고 물었을 때, 론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도 같이 가야지! 내가 말 안했나? 엄마가 몇 주 전에 편지를 보내서 너를 초대하라고 하셨어!"

헤르미온느는 눈알을 굴렸지만, 해리는 갑자기 기운이 솟구쳤다. 버로우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을 하니, 너무 신이 났다. 단지 시리우스와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약간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하지만 시리우스까지 크리스마스 휴일에 초대해 달라고 위즐리 부인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시리우스가 그리볼드 광장을 떠나는 걸 덤블도어 교수님이 허락해 주실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왠지 위즐리 부인이 시리우스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항상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던 것이다. 시리우스는 지난번 벽난로에 나타났던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엄브릿지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는 한 그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리는 어머니의 낡은 저택에서 크리처와 외로운 말씨름이나 벌이면서 혼자 지낼 시리우스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해리는 크리스마스 전의 마지막 D,A 모임을 위해서 필요의 방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방에 불을 켰을 때, 도비가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손수 이 방을 장식해 놓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단박에 누구 솜씨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해리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수백 개의 싸구려 황금색 장식들을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을 집요정은 도비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해리가 간신히 마지막 장식을 떼어 내고 있을 때, 뻐걱하고 문이 열리더니 루나 러브굿이 평소처럼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안녕."

러브굿은 남아 있는 장식물을 둘러보며 흐리멍덩하게 인사를 했다.

"멋지구나. 네가 꾸몄니?"

"아니, 집요정 도비가 그랬어."

"겨우살이(크리스마스에 겨우살이 밑에 있는 소녀에게 키스해도 되는 관습이 있음)야."

루나가 해리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커다랗고 하얀 열매 덩어리를 가리키며 몽롱하게 말했다. 해리는 황급히 그 밑에서 옆으로 비켜섰다.

"잘 생각했어. 가끔 나글스에 감염되어 있기도 하거든."

루나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때마침 안젤리나와 케이티, 앤리샤가 도착했기 때문에, 해리는 니글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는 세 사람 모두 몹시 추워 보였다.

"네 자리를 채웠어."

안젤리나가 망토를 벗어서 한쪽 구석에 던지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 자리를 채우다니?"

해리는 어리둥절했다.

"너와 프레드와 조지 말이야. 다른 수색꾼을 구했던 말이야!"

안젤리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누군데?"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지니 위즐리야."

안젤리나가 지팡이를 깨내더니 팔운동을 했다.

"하지만 지니도 꽤 쓸 만해. 물론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젤리나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한 번 쳐다보았다.

"하지만 넌 할 수가 없으니..."

해리는 입술을 깨물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생각 같아서는, 팀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백 배는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걸 단 일 초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몰이꾼은 어떻게 됐어?"

해리는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며 물었다.

"앤드류 키르케, 그리고 잭 슬로퍼."

앨리샤가 시들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별로 뛰어나진 않아. 하지만 선수가 되겠다고 나타난 다른 명청이들에 비하면..."

곧이어 론과 헤르미온느, 네빌이 도착하자 이 괴로운 대화도 끝이 났다. 오분도 안 돼서 방 안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해리는 원망에 가득 찬 안젤리나의 성난 얼굴을 쉽게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좋아. 오늘 저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해야 할 것 같아."

해리가 모든 아이들을 향해 지시를 내렸다.

"왜냐하면 오늘이 크리스마스 휴가 전 마지막 모임이니까. 앞으로 삼 주나 월간에 지금 당장 새로운 마법을 시작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새로운 마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온 방 안에 다 들리도록 투덜거렸다.

"그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야..."

"해리가 너에게 왜 그 말을 진작 안 해주었는지, 우리도 정말 안타깝다."

프레드가 큰 소리로 구박을 하자, 몇몇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해리는 초챙이 따라 웃는 것을 보고, 마치 계단을 헛디뎌 미끄러졌을 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둘씩 짹을 지어 연습을 하면 돼. 우선 장애 마법부터 시작해 보자. 딱 십 분만 해본 다음, 방석을 꺼내 놓고 다시 기절 마법을 연습하는 거야."

아이들 모두 그의 말에 따라서 짹을 지었다. 해리는 평소처럼 네빌과 짹을 지었다. 방 안은 곧 '임페디멘타!'라고 간간이 외치는 주문 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일 분 정도 꼼짝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동안 상대방은 할 일

없이 다른 사람들이 연습하는 광경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마법이 풀리면, 역할을 바꿔서 연습을 계속했다.

네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늘었다. 세 번이나 연달아 몸이 얼어붙은 후에, 해리는 네빌을 론과 헤르미온느와 짹을 지어 주었다. 방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가 초 옆을 지나갈 때, 초는 그를 보고 활짝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다시 그녀의 곁을 지나고 싶은 유혹을 몇

번이나 참아야만 했다.

장애 마법을 십 분 동안 연습한 후에, 그들은 마루 위에 방석을 짹 늘어놓고 기절 마법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이 마법을 연습할 수가 없었다. 결국 절반은 다른 아이들이 연습하는 걸 지켜보며 기다렸다가 다시 교대하곤 했다.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해리는 자부심으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빌이 애초에 겨냥했던 딘이 아니라, 파드마 패틸을 기절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더 목표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엄청난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나자, 해리는 그만 하라고 소리쳤다.

"아주 잘했어."

해리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활짝 웃었다.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면, 좀더 굉장한 마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패트로누스 마법이라도..."

아이들은 흥분해서 웅성거렸다. 늘 그렇듯이 아이들은 두셋씩 짹을 지어 방을 떠났다. 모두들 해리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라는 인사를 했다. 해리는 즐거운 기분으로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방석을 모아서 깨끗이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이 방을 떠난 후에도 남아 있었다. 초가 아직도 그 방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초에게서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듣고 싶었다.

"아니야, 너 먼저 가."

해리는 초가 친구인 마리에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심장이 목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해리는 쓱아 올린 방석을 똑바로 정리하는 척했다. 이제는 틀림없이 두 사람뿐일 것이다. 해리는 초가 곧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대신 커다랗게 코를 출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급히 뒤를 돌아본 해리는 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 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해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초는 소리 없이 울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야?"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초는 머리를 흔들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미... 미안해."

초는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난... 그저... 이런 걸 모두 배우다 보니... 혹시 그가 이걸 알았다면... 아직까지... 살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리의 심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그걸 왜 몰랐을까. 초는 케드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케드릭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

해리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케드릭은 아주 잘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미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볼드모트가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

초는 볼드모트의 이름을 듣자, 땀꼭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넌 아기였을 때에도 살아남았잖아."

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맞아."

해리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며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그 이유는 몰라. 어느 누구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건 전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야."

"아니, 가지 마!"

초가 다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초가 다시 땀꾹질을 했다. 눈두덩이 빨개지고 부어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뻤다. 해리는 가슴이 저리고 아팠다.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마디만 했어도 너무나 기뻤을 것이다...

"너에게 무척 힘든 일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초가 다시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는 케드릭이 죽는 걸 직접 보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또 꺼내서... 아마 넌

그 일을 그만 잊고 싶을 거야."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넌 저... 정말 출중한 선생님이야. 지금까지 나는 기절 마법 같은 건 할 줄 몰랐어."

초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해리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해리는 당장에라도 그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발짝도 걸음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겨우살이야."

초가 그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장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어쩌면 나글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

해린느 웬지 입술이 바싹 타들어 갔다.

"나글스가 뭔데?"

"나도 몰라."

초가 가까이 다가왔다. 해리는 머릿속이 정지되는 것 같았다.

"루나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루나 말이야."

초는 흐느낌과 웃음이 뒤섞인 묘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의 얼굴에 난 주근깨 숫자까지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해리, 난 네가 정말 좋아."

해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얼얼하고 울렁울렁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팔과 다리, 머리까지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초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해리는 그녀의 속눈썹에 매달린 눈을 방울까지 볼 수 있었다...

삼십 분 후에 다시 휴게실로 돌아온 해리는 벽난로 옆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발견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침실로 올라가고 없었다. 헤르미온느는 아주 긴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미 절반쯤 쓰인 양피지 두루마리가 책상 가장자리에 늘어져 있었다. 한편 론은 깔개 위에 엎드려서 변신술 숙제를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었다.

"뭐 하고 온 거야?"

해리가 헤르미온느의 옆 자리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자, 론이 물었다.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멍한 상태였던 것이다. 방금 일어난 일을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덤까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해리, 넌 괜찮니?"

헤르미온느가 깃펜 너머로 그를 넘겨다보며 물었다.

해리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괜찮은지 어떤지 자기 자신도 잘 몰랐던 것이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론은 해리의 얼굴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팔꿈치를 받치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해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과연 그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해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을 때, 헤르미온느가 먼저 그의 짐을 덜어 주었다.

"초 때문이야?"

헤르미온느가 대단히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초가 너를 기다렸구나?"

허를 찔리고 얼이 빠진 해리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론은 재미있다는 듯이 킬킬거리다가 헤르미온느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정색을 했다.

"그래, 초가 뭐라고 하던?"

론이 일부러 태연한 목소리로 꾸미며 물었다.

"초는..."

해리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초는..."

"초랑 키스했니?"

헤르미온느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 순간 론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깔개 위에 잉크병이 쓸어졌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해리만 열심히 쳐다보았다.

"그랬어?"

론이 다그쳤다. 해리는 호기심과 환희가 뒤섞인 론의 얼굴과 살짝 인상을 쓰고 있는 헤르미온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와!"

론이 불끈 친 주먹을 의기양양하게 치켜들더니, 창가에 앉아 있던 소심한 표정의 2학년생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정도로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었다.

해리는

깔개 위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는 론을 바라보며,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다. 헤르미온느는 정말 꼴불견이라는 표정으로 론을 잠깐 내려다보더니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 어땠어?"

마침내 론이 해리를 빤히 올려다보면서 물었다.

해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축축했어."

론은 도대체 좋았다는 건지, 혐오스러웠다는 건지 구별하기 힘든 묘한 소리를 질렀다.

"왜냐하면 초는 울고 있었거든."

해리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네 키스가 그렇게 형편없었나?"

론의 미소가 점차 사라졌다.

"몰라. 아마 그랬을 거야."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해리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여전히 편지를 쓰는 데 열중하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톡 던졌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론이 날카롭게 따졌다.

"왜냐하면 초는 요즘 주로 울면서 지내거든. 식당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딜

가나 눈물을 흘리고 있어."

"넌 키스를 하면 초의 기분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구나."

론이 씩 웃으며 말했다.

"론, 넌 내가 재수 없이 마주친 돌탱이들 중에 가장 눈치 없고 둔한 녀석이야."

헤르미온느가 깃펜을 잉크병에 담그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키스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대체 뭐란 말이야!"

론은 기분이 상해서 투덜거렸다.

"맞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지?"

헤르미온느는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서 못 봐 주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지금 초의 기분이 어떤지 이해하지 못하겠니?"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응."

해리와 룬이 동시에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푹푹 한숨을 쉬면서 깃펜을 내려놓았다.

"물론 초는 케드릭의 죽음 때문에 무척 슬퍼하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훈란스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 거야. 한때는 케드릭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해리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초 자신도 누굴 더 좋아하는지 모를 테니까 말이야. 어쩌면 내심 죄책감도 느끼고 있을 거야. 해리와 키스를 하는 게 케드릭의 기억에 대한 모독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지. 해리와 사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해리에 대한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훈란스러울지도 몰라. 해리는 케드릭이 죽는 순간에 케드릭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너무나 괴로운 거야. 초는 래번클로 퀸디치 팀에서 쫓겨날까 봐 그것도 걱정하고 있어. 요즘 비행 솜씨가 형편없어졌거든."

헤르미온느가 일장 연설을 마치자, 어리벙벙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룬이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이 그 모든 감정을 동시에 다 느낄 순 없어. 그럼 터져 버리고 말 거야."

"네가 코딱지만 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모두 그런 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탁 쏘아붙이더니 다시 깃펜을 집어 들었다.

"하지만 초가 먼저 시작했어."

해리가 변명을 했다.

"난 아무 짓도... 초가 나에게 다가왔어. 그리고는 내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 탓이 아니야, 해리."

룬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해리를 위로했다.

"넌 그냥 초에게 잘해 주면 돼. 물론 그랬겠지, 그치?"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고개를 들고 물었다.

"글쎄... 난 그저 등을 살짝 두드려 주었는데..."

해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헤르미온느는 눈알을 부라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래, 그 정도면 양호해. 그런데 초를 다시 만날 거니?"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당연히 만나겠지, 안 그래? D.A 모임을 계속할 거잖아?"

"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의 말을 듣자,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지면서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해리는 초와 함께 어딘가... 아마도 호그스미드 같은 곳에...를 가서 몇

시간 동안 단 둘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방금 그런 일이 있었으니, 초는 틀림없이 그가 데이트를 신청해 오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해리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초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기회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야."

헤르미온느는 다시 편지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해리가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지 않다면?"

론은 평소와 다르게, 몹시 심술궂은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해리는 벌써 오래 전부터 초를 좋아했어. 안 그래, 해리?"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초를 좋아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그가 머릿 속에 그렸던 초의

모습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초가 아니라,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초였다.

"그건 그렇고 넌 누구에게 그런 장편소설을 써서 보내는 거냐?"

론이 이제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는 편지를 슬쩍 들여다보려고 하자, 헤르미온느가 헥 낚아챘다.

"빅터야."

"크롬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빅터가 또 있니?"

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 후로 이십 분 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론은 짜증스런 한숨을 푹푹 내쉬며 지우고 다시 쓰기를 수없이 되풀이한 끝에 간신히 변신술 숙제를 마쳤다. 헤르미온느는 지치지 않고 마지막 한 줄까지 양피지를 다 채우더니, 조심스럽게 둘둘 말아서 봉인을 했다. 해리는 벽난로 속을 멍하니 들여다보면서, 저기에 시리우스의 머리가 나타나 여자에 대해서 현명한 충고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길을 점점 더 사그라지더니 나중에는 빨갛게 달아올랐던 장작마저 재가 되어 부서졌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휴게실 안에는 또다시 그들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잘 자."

헤르미온느가 커다랗게 하품을 하더니 여학생 침실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헤르미온느는 크롬의 어디가 좋을까?"

해리와 함께 남학생 침실로 올라가던 론이 물었다.

"글쎄."

해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대답을 했다.

"크롬은 우리보다 더 나이도 많고... 게다가 국제적인 큐디치 선수니까..."

"그야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녀석은 불평만 늘어놓는 멍청이잖아, 안그래?"

론은 바싹 약이 오른 것 같았다.

"그래, 덩치 큰 얼간이지."

입으로는 이렇게 맞장구를 쳤지만, 해리의 머릿속은 온통 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딘과 시무스, 네빌은 벌써 잠이 들었다. 해리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안경을 벗어 놓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침대 기둥의 커튼을 내리지 않고 네빌의 침대 옆에 난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만약 어젯밤 바로 이 시간에, 자신이 앞으로 스물네 시간 이내에 초 쟁과 입맞춤을 하게 되리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잘 자."

오른쪽 어둠 속에서 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자."

해리가 대답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혹시 다음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녀는 좀더 행복해할지도 몰라. 이번에는 꼭 초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말해야겠다. 초는 그걸

기다리다가 지금쯤 정말로 토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도 케드릭 생각을 하며 울고 있을까? 해리는 생각이 왔다갔다했다. 헤르미온느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진 것 같았다.

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여자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소한 점술보다는 훨씬 더 쓸모 있을 거야.

네빌은 자면서 코를 킁킁거렸다. 어둠 속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D,A 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초는 그가 거짓 평계로 자기를 여기까지 끌어냈다고 큰 소리로 비난하고 있었다. 여기 오면, 그가 개구리 초콜릿 카드 150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해리는 변명을 했지만, 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케드릭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주었던 말이야, 이거 봐!' 초는 망토 안에서 카드를 한 웅큼 꺼내더니 공중으로 던졌다. 그 순간 초는 헤르미온느로 변했다. '넌 그녀에게 약속을 했어... 너도 알잖아, 해리. 난 네가

그녀에게 대신 뭔가 다른 걸 줘야 한다고 생각해. 파이어볼트는 어때?' 해리는 엉브릿지가 파이어볼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초에게 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자긴 그저 도비의 머리를 닦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기 위해서 D,A 방에 왔을 뿐이라고 따졌다...

갑자기 꿈이 바뀌었다...

해리는 자신의 몸이 매끄럽고 힘차고 유연해진 것을 느꼈다. 반짝이는 금속 창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 그는 차갑고 검은 돌 위를 지나갔다. 지금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배로 기어가고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이었지만, 해리는

이상한 빛을 발하며 뿌옇게 흔들리는 주변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볼 때에는 복도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한 남자가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복도 저 끝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이 희미하게 빛났다...

해리는 혓바닥을 날름거렸다. 공기 중에 떠도는 남자의 냄새가 맛으로 느껴졌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좋고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앉아서...

해리는 그 남자를 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눌러야만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몸을 움직였다...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자, 은빛 망토가 그의 무릎 위에서 떨어졌다. 해리는 그의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떨리는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허리춤에서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해리는 바닥에서 머리를 높이 쳐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을 가했다. 그의 날카로운 이빨이 그 남자의 살 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턱 밑에서 그 남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따뜻한 피가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다. 남자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더니... 곧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남자는 벽에 털썩 몸을 기댔다... 피가 바닥까지 철철 흘러내렸다...

갑자기 그의 이마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다...

"해리! 해리!"

해리는 눈을 떴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뻑 젖어 있었다. 침대보가

죄수들에게 씌우는 구속복처럼 그의 몸에 칭칭 감겨 있었다. 해리는 마치
빨갛게

달아오른 주전자를 이마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았다.

"해리!"

론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리의 침대 발치에는
몇몇 아이들이 서 있었다. 해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고통 때문에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옆으로 몸을 비틀며 침대 가장자리에 대고 활각
토했다.

"해리가 정말 아픈가 봐. 누굴 불러와야 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 해리!"

어서 론에게 말해야만 한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해리는 또다시 토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죽을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고통으로 눈앞이 흐렸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공격을 당했어..."

해리는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헐떡거렸다.

"뭐라고?"

론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졌다.

"너희 아버지 말이야! 물렸다고. 아주 위험해. 온 사방이 피투성이야..."

"내가 사람을 불러올게."

또다시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침실 밖으로 달려 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해리, 이봐... 넌... 그냥 꿈을 꾼 거야."

론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해리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어떻게든 론을 이해시켜야만 했다.

"꿈이 아니었어... 보통 꿈이 아니었다고... 난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그랬어..."

해리는 시무스와 단이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다. 여전히 발작을 일으키듯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이마의
통증은 조금씩 사라졌다. 해리는 순간 다시 활각 구역질을 했다. 다행히도 론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해리, 넌 지금 몸이 안 좋아. 네빌이 도움을 청하러 갔어..."

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괜찮아."

해리가 잠옷으로 입을 닦으며 목이 메어 소리쳤다. 그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마구 떨렸다.

"난 멀쩡해. 네가 지금 걱정해야 할 사람은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를 빨리
찾아내야 해... 피를 흘리고 계신단 말이야... 내가... 아니, 거대한 뱀이
그랬어..."

해리는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론이 그를 붙잡아 자리에 눕혔다. 단과
시무스는 여전히 침대 옆에 서서 수군덕거리고 있었다. 일 분이 지났는지,
십분이

지났는지 해리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와들와들 몸을 떨면서 서서히 이마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황급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네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이에요, 교수님..."

체크 무늬 가운을 입은 맥고나걸 교수가 허둥지둥 침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뾰족한 그녀의 코끝에는 안경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포터, 무슨 일이냐? 어디가 아픈 거지?"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치료한답시고 법석을 떨며 소용도 없는 약을 얹지로 먹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불사조 기사단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론의 아버지요."

해리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론의 아버지가 뱀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아주 위험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네가 그걸 보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맥고나걸 교수가 검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잠이 들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럼 꿈을 꾸단 말이니?"

"아니에요!"

해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처음에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꿈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건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위즐리씨는 마루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대한 뱀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위즐리 씨가 쓰러졌어요.

누군가

어서 빨리 그를 찾아내야만 해요..."

맥고나걸 교수는 마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어떤 것을 바라보듯이, 한동안 커다란 안경 너머로 그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미친 것도 아니라고요!"

해리는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말했잖아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포터, 난 네 말을 믿는다."

맥고나걸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운을 입어라. 교장 선생님을 뵈러 가자꾸나."

제 22 장 마법 질병과 상해를 위한 성 뭉고 병원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 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침대에서 당장 뛰어내렸다. 그리고 가운을 걸치고 안경을 다시 썼다.

"위즐리, 너도 함께 가자."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그들은 맥고나걸 교수와 함께, 동상처럼 우뚝 서 있는 네빌과 딘, 시무스의 앞을 지나서 침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휴게실로 내려간 다음, 초상화 구멍을 빠져나가 달빛이 비치는 복도를 걸어갔다. 해리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공포가 밖으로 밀려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해리는 덤블도어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치솟았다. 그들이 이렇게 침착하게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위즐리 씨는 피를 흘리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날카로운 송곳니(해리는 '내 송곳니'라는 생각을 간신히 억눌렀다)에 독이라도 들었다면? 노리스 부인이 등잔불 같은 눈으로 옆을 지나가는 그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쑥 소리를 냈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가 '어이!' 하고 쫓아 버리자, 노리스 부인은

그늘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 몇 분 후에 그들은 덤블도어 방 입구를 지키는

이무기 상 앞에 도착했다.

"피징 위즈비."

맥고나걸 교수가 암호를 말했다.

이무기들은 갑자기 되살아나더니 펼떡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시에 벽이
둘로 갈라지면서 나선형 에스컬레이터처럼 끊임없이 위로 빙빙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타났다. 세 사람은 움직이는 계단 위에 올라섰다. 등 뒤에서 쿵
하고

벽이 닫히고 그들은 원을 그리며 위로 올라갔다. 이후 그립인처럼 생긴 놋쇠
손잡이가 달린 눈부시게 윤이 나는 떡갈나무 문이 나타났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이었지만, 방 안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덤블도어 교수가 적어도 열두명은 넘는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맥고나걸 교수가 그립인 손잡이로 문을 세 번 두드리자, 마치 누군가
전원이라도 깨 버린 것처럼 갑자기 목소리들이 뚝 끊어졌다. 곧이어 저절로
문이

열렸다.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와 론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반쯤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긴 탁자 위에는 이상한 은색 가구들이
평소처럼 빙빙 돌아가거나 김을 내뿜지 않고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벽을 온통
뒤덮은 호그와트의 옛날 교장 선생님들의 초상화들은 하나같이 액자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문 뒤에서는 화려한 붉은색과 황금색 깃털을 지닌,
백조만 한 크기의 새가 날개 밑에 머리를 파묻은 채, 햇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오, 당신이군요... 맥고나걸 교수... 그리고... 이런!"

덤블도어 교수는 책상 너머 높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촛불을 향해 몸을 숙였다. 눈처럼
하얀 잠옷 위에, 보라색과 황금색의 자수가 화려하게 수놓인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자다 깐 기색이 아니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파랗고 투명한 눈으로 맥고나걸 교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덤블도어 교수님, 포터가... 그러니까, 악몽을 꿰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입을 열었다.

"해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악몽이 아니었어요."

해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그를 돌아보았다.

"좋다, 포터. 그럼 네가 직접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렴."

"저...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해리는 과연 덤블도어 교수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두렵고 절망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깍지 낀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자, 약간 성질이 났다.

"그건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그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전
보았어요..."

해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론의 아버지... 위즐리 씨가 거대한 뱀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방금 그의 입에서 내뱉은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약간 황당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까지 들렸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덤블도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묵묵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론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해리와
덤블도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보았지?"

덤블도어가 여전히 해리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물었다.

"저... 저도 모르겠어요."

해리는 화가 나서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저 제 머릿속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덤블도어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은... 혹시 기억나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위치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지 말이야. 그냥 희생자 옆에 서서 지켜보았니? 아니면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니?"

이 이상한 질문을 받고 해리는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린 채, 덤블도어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바로 그 뱀이었어요."

해리가 말했다.

"뱀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보았어요."

한동안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에 덤블도어는 여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론을 한 번 쳐다보더니, 좀더 긴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서가 심각하게 다쳤니?"

"네."

해리가 힘을 주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왜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 뱀의 이빨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덤블도어 교수는 무관심하게도 그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걸까?

순간 덤블도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행동이 어찌나 재빨랐는지, 해리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덤블도어는 천장 가까이 걸려 있는 오래된 초상화 중 하나에게 말을 걸었다.

"에버라드? 그리고 딜리스, 당신도!"

짧고 검은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린, 헬색 나쁜 마법사 한 사람과 바로 옆에 걸린 액자 속의 곱슬거리는 긴 은발의 늙은 마녀 한 사람이 즉시 눈을 떴다. 방금 전까지도 죽은 듯이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다.

"듣고 있었소?"

덤블도어가 물자, 마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녀도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 남자는 붉은 머리에 안경을 썼소."

덤블도어가 설명했다.

"에버라드, 당신은 경보를 울려야 할 것 같소. 그 남자를 엉뚱한 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말이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더니 액자 옆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옆에 걸린 액자 속으로 들어가거나(호그와트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이제 한 액자 속에는 배경이 되는 검은색 커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른 한 액자에는 멋진 가죽 의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해리는 벽에 걸린 다른 많은 교장 선생님들도 비록 그럴듯하게 코를 골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실눈을 뜨고 그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두런두런 떠들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에버라드와 딜리스는 호그와트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었지."

덤블도어가 해리와 론, 맥고나걸 교수를 쑥 둘러보더니 문가에 있는 횃대 위에서 잠을 자는 새 옆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명성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중요한 마법사 기관마다 두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 있단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

줄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위즐리 씨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해리가 말했다.

"세 사람 모두 여기 앉아요."

덤블도어는 해리의 말을 무시하며 말했다.

"에버라드와 딜리스가 돌아오려면 몇 분은 걸릴 테니까. 맥고나걸 교수님, 의자 좀 불러내 주겠소?"

맥고나걸 교수는 가운 호주머니에서 지팡이를 꺼내더니 허공에 휘둘렀다. 그러자 의자 세 개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덤블도어가 해리의 청문회 때 불러냈던

팔걸이 의자가 아니라, 등받이가 똑바로 세워진 딱딱한 나무 의자였다. 해리는 어깨 너머로 덤블도어를 쳐다보며 자리에 앉았다. 이제 덤블도어는 한

손가락으로 깃털이 달린 퍽스의 황금색 머리를 쓰다듬었다. 불사조는 즉시 눈을 떴다. 그리고 아름다운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까맣게 반짝이는 눈으로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다.

"망을 좀 봐야겠구나."

덤블도어가 속삭이듯 조용히 새에게 말했다.

순간 불길이 확 일어나더니 불사조가 사라졌다. 이제 덤블도어는 허리를 숙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은색의 섬세한 기구들 중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책상 위로 옮기더니 그것을 마주 보고 앉아서 지팡이 끝으로 살짝 건드렸다.

기구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박자에 맞추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꼭대기에 달린 작은 은색 관에서 열은 초록색 증기가 폭폭 솟아올랐다. 덤블도어는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그 증기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몇 초가 지나자, 폭폭 솟아오르던 증기는 절은 연기구름이 되어 꼬불꼬불 하늘로 올라갔다. 연기 끝에서 뱀의 머리가 점점 자라나더니 아가리를 딱 벌렸다. 해리는 이 기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덤블도어에게서 그의 말이 옳다는 신호가 떨어지기를 열심히 고대하며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고말고."

덤블도어는 놀란 기색도 없이 연기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본질은 나누어져 있나?"

도무지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연기가 만든 뱀은 즉시 둘로 갈라졌다. 두 마리의 뱀은 어둠 속에서 뜬리를 틀며 파르르 떨고 있었다.

대단히

흡족한 표정의 덤블도어는 또다시 지팡이를 들어 기구를 살짝 건드렸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점차 느려지고 작아지더니 뱀 모양의 연기도 희미해지면서 결국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덤블도어는 좁고 긴 턱자 위로 기구를 다시 옮겨 놓았다. 해리는 초상화 속의 수많은 옛날 교장들이 눈으로 출곧 그의 뒤를 쫓다가, 그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얼른 다시 잠자는 척하는 것을 보았다. 해리는 그 이상한 은색 기구가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오른쪽 벽 꼭대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에버라드라는 마법사가 숨을 헐떡이며 다시 초상화 속에 나타난 것이었다.

"덤블도어!"

"무슨 소식이 있소?"

덤블도어가 황급히 물었다.

"나는 사람들이 달려올 때까지 계속 고함을 질렀소."

마법사는 등 뒤에 있는 커튼에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소. 그들은 내 말을 반신반의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살펴보겠다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소. 거기에는 초상화가 없어서 내가 따라가 지켜볼 수가 없었지. 어쨌든 몇 분 후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올라오더군. 상태가 무척 심각해 보였소. 온몸이 피투성이였지.

나는

얼른 엘프리다 크랙의 초상화로 자리를 옮겨서 그들이 떠나는 걸 끝까지 지켜보았소."

"괜찮다."

덤블도어는 혼이 발작이라도 일으킬 듯이 행동하자, 조용히 타일렀다.

"딜리스에게 그가 도착하는 걸 지켜보라고 지시해 놓았단다. 그러니..."

바로 그 순간 곱슬거리는 은발의 한 마녀가 액자 속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챕캑 기침을 하며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이 그를 성 뭉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덤블도어... 바로 내 초상화 앞을 지나갔는데, 아주 안 좋아 보이더군요."

"고맙소."

덤블도어는 맥고나걸 교수를 향해 돌아섰다.

"미네르바, 당신은 가서 위즐리네 다른 아이들도 깨워 주시겠소?"

"물론이죠..."

맥고나걸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론을 슬쩍 쳐다보았다.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런데 덤블도어... 몰리는 어떻게 하죠?"

맥고나걸 교수가 문 앞에 서서 물었다.

"혹시 오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는 일이 끝나면, 퍽스가 그 일을 맡아서 할 거요. 하지만 벌써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몰리의 그 놀라운 시계가..."

덤블도어가 중얼거렸다. 해리는 무슨 시계를 말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시각 대신, 위즐리 가족들이 제각기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계였다. 위즐리 씨를 나타내는 시곗바늘이 지금쯤 '생명 위독'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해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위즐리 부인이 시계를 보지 못하고

자고 있을지도 몰랐다. 순간 위즐리 부인의 보가트가 싸늘하게 식은 위즐리 씨의

시체로 모습을 바꾸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안경이 비스듬히 벗겨진 채. 그의 얼굴 위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위즐리 씨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제 덤블도어는 해리와 론의 등 뒤에서 선반을 열심히 뒤지고 있었다. 잠시 후에 시커멓게 변한 낡은 주전자를 꺼내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포터스!'라고 중얼거렸다. 다음 순간 주전자가 진동을 하더니 이상한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덤블도어는 또 다른 초상화를 향해서 걸어갔다. 이번에는 뾰족한 수염을 기른, 영리해 보이는 마법사였다. 그는 슬리데린을 나타내는 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진짜로 깊이 잠이 든 모양이었다. 덤블도어가 그를 깨우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잘 듣지 못했다.

"피니어스, 피니어스."

방 안에 줄지어 걸려 있는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잠이 든 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서 액자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영리해 보이는 마법사가 계속 잠자는 척을 하자, 몇몇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피니어스! 피니어스! 피니어스!"

그는 더 이상 자는 척을 하지 못하고, 과장되게 몸을 떨면서 눈을 크게 뜬다.

"누가 날 불렀나?"

"피니어스, 다시 한 번 당신의 다른 초상화를 좀 방문하고 와 주시오."

덤블도어가 부탁했다.

"또 다른 전갈이 있어서 말이오."

"나의 다른 초상화를 방문하고 오라고?"

피니어스가 하품을 하는 척하면서(그러나 방 안을 살피던 그의 눈길은 곧 해리에게 머물렀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오, 싫어요. 덤블도어. 오늘 난 너무 피곤해요."

피니어스의 목소리가 웬지 해리의 귀에 익었다. 저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하지만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폭풍처럼 사납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리는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이건 반항행위요!"

뚱뚱하고 코가 빨간 마법사가 주먹을 휘두르며 목청을 높였다.

"임무 태만이오!"

"우리는 호그와트 혼직 교장에게 봉사하기로 서약한 몸이오!"

당장에라도 쓰러질 듯 허약해 보이는 늙은 마법사가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그가 덤블도어의 전임 교장이었던 아르만도 디펫임을 알아보았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피니어스!"

"덤블도어, 내가 한번 설득해 볼까요?"

눈매가 날카로운 한 마녀가 유난히 굵은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것은 마치 자작나무 회초리처럼 보였다.

"아, 좋아요."

피니어스라고 불리는 마법사가 약간 겁먹은 눈길로 그녀의 지팡이를 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마 지금쯤은 그 녀석이 내 조상화를 없애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오. 그 녀석은 조상들을 거의 모두 없애 버리고 있소."

"시리우스도 당신의 조상화를 없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소."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해리는 피니어스의 목소리를 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퍼뜩 떠올랐다. 그리몰드 광장에 있는 그의 침실에 걸려 있던 그 텅 빈 액자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그에게 가서 아서 위즐리가 심하게 다쳤다고 전해 주시오. 그리고 그의 부인과 아이들, 해리 포터가 곧 그의 집으로 갈 거라고도 말해 주시오. 내 말 알겠소?"

"아서 위즐리 부상, 아내와 아이들과 해리 포터가 도착할 예정임."

피니어스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알았어요, 알았어. 좋아요..."

피니어스는 조상화 틀 밖으로 몸을 내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고 프레드와 조지, 지니가 맥고나걸 교수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부스스한 몰골에 여전히 잠옷 바람인 세 사람은 몹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해리... 무슨 일이야?"

지니가 겁에 질려 물었다.

"맥고나걸 선생님 말씀이 우리 아빠가 다친 걸 보았다던데..."

"너희 아버님은 불사조 기사단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당하셨다."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보다 먼저 대답했다.

"지금 성 뭉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시리우스의 집으로 보낼 생각이다. 버로우보다는 거기가 훨씬 병원과 가까우니까. 거기 가면 어머니도 와 계실 게다."

"저희는 어떻게 가죠? 플루 가루를 쓰나요?"

프레드가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다. 플루 가루는 안전하지 않아. 감시를 당하고 있거든. 포트키를 쓰도록 하자."

덤블도어는 그의 책상 위에 멀쩡히 놓여 있는 낡은 주전자를 가리켰다.

"우리는 지금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다. 너희들을 보내기 전에, 주변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바로 그때 방 한 가운데에서 불꽃이 번쩍 튀었다. 그리고 황금 깃털 하나가 마루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퍽스의 신호야."

덤블도어는 떨어지는 깃털을 잡으며 말했다.

"엄브릿지 교수가 너희들이 침실 밖으로 나온 걸 알아차린 모양이구나.

미네르바, 어서 가서 그 여자를 불잡아 주시오. 무슨 이야기든 둘러대도록 해요."

맥고나걸 교수가 쌩하고 사라졌다.

"그 녀석 말이 대환영이랍니다."

덤블도어의 등 뒤에서 심드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니어스라는 마법사가 슬리데린의 깃발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고손자 녀석은 항상 손님을 환영하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리 와라."

덤블도어가 위즐리 형제들과 해리에게 말했다.

"누가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해리와 다른 아이들은 덤블도어의 책상 주위로 몰려들었다.

"너희 모두 전에 포트키를 써 본 적 있지?"

덤블도어가 물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손을 내밀어 검게 변한 주전자를 붙잡았다.

"좋아. 그럼 셋을 세겠다. 하나... 둘..."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덤블도어가 셋을 세기 전까지, 그 무한히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흐르는 동안 해리는 덤블도어를 올려다보았다(아주 가까이

서 있었던 것이다). 포트키를 바라보던 덤블도어의 투명하고 푸른 눈이 해리의 얼굴로 향했다.

그 즉시 해리의 흉터가 볼로 지지듯이 아프기 시작했다. 마치 옛날 그 자리가 다시 터진 것 같았다.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끔찍하게 강렬한 증오심이

해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잠깐 동안 해리는 오직 무조건 덤비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덥석 물고 싶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살 속 깊숙이 어금니를 박고 싶었다....

"...셋."

해리는 배꼽 안쪽에서 강력한 경련이 일어났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면서 그의 손이 주전자에 착 달라붙었다. 주전자가 그들을 끌고 갔다. 온갖 색깔들이 소용돌이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그들 모두는 빠르게 앞으로 날아갔다. 그 와중에 해리는 다른 사람들과 쿵쿵 부딪히기도 했다. 마침내 주전자가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밭이 땅에 닿는 순간, 해리는 풀썩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돌아왔군. 동족의 배신자 새끼들이. 너희 아버지가 죽어 간다는 게 사실이냐?"

"나가 있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이리저리 바닥을 더듬으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그리볼드 광장 12 번지의 어두운 지하 부엌에 떨어진 것이다. 빛이라고는 벽난로 불빛과 꺼질 듯이 깜박거리는 촛불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외롭게 훌로 먹다 남은 저녁 식사를

비추고 있었다. 크리처는 허리에 두른 천을 움켜쥔 채, 현관 복도로 이어지는 문

밖으로 사라지면서 적의에 찬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시리우스는 걱정스런 얼굴로 허둥지둥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수염도 깎지 않고 낮에 입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심지어 먼던구스에게서 풍기던 고약한 술 냄새까지 났다.

"무슨 일이냐?"

시리우스는 손을 내밀어 지니를 일으켜 세웠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말이, 아서가 심하게 다쳤다고 하던데..."

"해리에게 물어보세요."

프레드가 대답했다.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고 싶어요."

조지가 말했다. 쌍둥이 형제들과 지니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문 밖에서는 계단을 올라가던 크리처의 발소리가 멈추었다.

"그게..."

해리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맥고나걸이나 덤블도어 교수 앞에서 말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저는... 일종의... 환상을 보았어요..."

해리는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말해 주었다. 하지만 뱀의 시선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뱀이 공격할 때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이야기를 약간 바꾸어서 전달했다. 여전히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던 론이 그를 잠깐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레드와 조지, 지니는 한동안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해리도 이것이 자신의 상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웬지 그들의 표정은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들이 단지 그가 그 광경을 보았다는 말만 듣고도 그를 비난한다면, 그 순간 뱀의 몸속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엄마는 오셨나요?"

프레드가 시리우스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시리우스가 대답했다.

"엄브릿지가 끼어들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데려오는 일이 가장 시급했거든. 아마 덤블도어 교수님이 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실 거야."

"어서 성 뭉고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지니가 오빠들을 쳐다보며 재촉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다.

"시리우스, 망토나 뭐든 좀 빌려 줄 수 있으세요?"

"기다려라. 지금 당장 성 뭉고 병원으로 갈 수는 없다!"

시리우스가 그들을 말렸다.

"저희는 당연히 성 뭉고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분은 저희 아빠라고요!"

프레드가 세차게 고집을 부렸다.

"병원 쪽에서 아서가 공격당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설명할 거지? 부인에게조차 알리기 전인데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죠?"

조지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왜냐하면 해리가 16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시리우스가 벌컥 화를 냈다.

"마법부가 그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너희들은 전혀 모르겠니?

하지만 프레드와 조지는 마법부가 뭘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론은 여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이 없었다.

지니가 말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해리 말고 어디 다른 데서 들었을 수도..."

"누구 말이냐?"

시리우스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내 말 좀 들어 봐라. 네 아버지는 기사단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당한 거야.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수상쩍은 상황이란 말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지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봐라. 기사단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어..."

"그 명청한 기사단 따위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프레드가 고함을 질렀다.

"지금 우리는 죽어 가는 아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지도 소리쳤다.

"너희 아버지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 너희들이 기사단 일을 망친다면 전혀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시리우스도 똑같이 화를 냈다.

"바로 이렇게 때문에 너희들은 기사단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말은 쉽게 하는군요. 여기 처박혀 지내면서!"

프레드가 신랄하게 쏘아붙였다.

"아저씨가 목숨을 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생기가 없는 시리우스 얼굴에서 핏기가 썩 사라졌다. 잠깐 동안 그는 프레드를 한 대 후려치기라도 할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곧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척 힘들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 최소한 너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려야만 해, 알겠지?"

프레드와 조지는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의자로 걸어가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해리는 론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인지, 어깨를 으쓱하는 것인지 잘分辨하기 힘든 우스꽝스런 동작을 하더니 역시 자리에 앉았다. 몇 분 동안 시리우스를 노려보고 서 있던 쌍둥이 형제들은 지니 맞은편에 앉았다.

"잘했다."

시리우스가 그들을 격려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기다리는 동안 목이나 축이자꾸나. 아씨오 버터 맥주!"

시리우스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식품 저장실에 있던 여섯 병의 맥주가 그들을 향해서 날아오더니 남아 있는 음식물을 옆으로 밀치며 식탁 위로 쭉 미끄러졌다. 그리고 여섯 사람 앞에 딱 멈춰 섰다. 그들은 모두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한동안 부엌 벽난로가 타닥거리며 타는 소리와 맥주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해리는 그저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 있기가 싫어서 맥주를 몇 모금 들이켰다. 그의 뱃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죄책감으로 꽉 차 있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위급한 상황을 알림으로써 위즐리 씨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아무리 스스로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너에게 송곳니 따위는 없어.

해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버터 맥주병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넌 그때 침대에 있었어. 넌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 덤블도어 교수님의 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해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난 분명 덤블도어 교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맥주병을 쾅 하고 내려놓았다. 그 바람에 맥주병이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때 허공에서 팍 하고 불꽃이 터지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지저분한 접시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그들 앞에 황금색 불사조의 꼬리 깃털과 함께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가 톡 떨어졌다.

"퍽스야!"

시리우스가 즉시 양피지를 집어 들었다.

"이건 덤블도어의 글씨가 아닌걸. 네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가 틀림없어. 여기..."

시리우스는 조지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황급히 편지를 펴더니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아빠는 아직 살아 계시다. 나는 지금 성 뭉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란다. 너희들은 거기 가만히 있거라. 가능한 빨리 소식을 전해주마. 엄마."

조지가 식탁을 들러보았다.

"아직 살아 계시대...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조지는 굳이 하던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해리의 귀에도 그 말은 위즐리 씨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던 것이다. 론은 아직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의 편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편지가 어떤 위로의

말이라고 들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프레드는 조지의 손에서 양피지를 뺏더니 직접 읽어 보고는, 해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버터 맥주병을 쥔 해리의 손이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좀더 세게 병을 움켜잡았다.

해리는 이렇게 늦게까지 자지 않고 앓아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시리우스가 도중에 한 번 그만 모두 자러 가는 게 어떨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보았지만, 아이들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아무 말 없이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서 양초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따금씩 맥주병을 들었다 내려놓는 것이 전부였다. 어쩌다 입을 열 때에는 몇 시인지 시간을 물어보고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하다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위즐리 부인이 성 뭉고 병원에 간지도 오래되었으니 진작 소식이 전해졌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마침내 프레드가 머리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지니는 고양이처럼 의자 위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앓아 있었지만, 눈은 크게 뜨고 있었다. 해리는 벽난로 불빛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론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앓아 있었기 때문에, 자는지 깨어 있는지 도통 구별할 수가 없었다. 이 가족의 불행에 뜻하지 않게 끼어든 해리와 시리우스는 이따금 서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론의 시계로 새벽 다섯 시십 분이 지났을 때. 부엌문이 열리더니 위즐리 부인이 들어왔다. 부엌에 앓아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프레드와 론, 해리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당장에라도 쓰러질 듯이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위즐리 부인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피곤에 지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단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자. 지금은 빌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어. 아침이 되면 다시 회사에 나가야 하지만."

프레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다시 의자에 앓았다. 조지와 지니는 재빨리 달려가서 엄마를 와락 껴안았다. 론은 떨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마시다 남은 맥주병을 내려놓았다.

"아침을 준비해야지!"

시리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나게 소리를 질렀다.

"이 망할 놈이 집요정은 어디 있는 거야? 크리처! 크리처!"

하지만 크리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휴, 그 녀석은 잊어버려야지."

시리우스는 자기 앞에 앓아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 보았다.

"그럼 아침 식사로... 어디 보자... 베이컨과 계란 일곱 개... 그리고 차와 토스트..."

해리는 시리우스를 돋기 위해 얼른 화덕 쪽으로 갔다. 기뻐하는 위즐리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즐리 부인이 그의 꿈에 대해서 물어볼까 겁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오자마자, 위즐리

부인은 그의 손에서 접시를 빼앗더니 그를 덤석 껴안았다.

"해리, 네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구나."

위즐리 부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몇 시간 후에나 아서를 발견했을지도 몰라. 그럼 그땐 너무 늦었겠지. 네 덕분에 아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게다가 덤블도어 교수님은 아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까지 생각해 내실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서가 어떤 곤경에 빠졌을지 모른단다. 가엾은 스터지스를 봐라..."

해리는 더 이상 위즐리 부인의 인사를 참고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인은 곧 그를 품에서 떼어 놓더니 시리우스에게 돌아서서 밤새 아이들을 돌봐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시리우스는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위즐리 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모두 이곳에서 지내는 게 어떨겠느냐고 이야기를 꺼냈다.

"오, 시리우스,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은 병원에서 좀더 지내야 한다고 하니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지낸다는 것을 뜻하는..."

"손님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법입니다!"

누가 봐도 시리우스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위즐리 부인은 활짝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더니 아침 준비를 거들기 시작했다.

"시리우스,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해리는 이제 더 이상 일 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어두컴컴한 식품 저장실로 가자, 시리우스가 뒤를 따라왔다. 해리는 뜰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그가 꿈에 본 것들을 대부에게 자세히 털어놓았다. 물론 그가 뱀이 되어 위즐리 씨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빼뜨리지 않았다.

시리우스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덤블도어 교수님께도 이 이야기를 했니?"

"그럼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게 걱정할 만한 일이었다면, 틀림없이 너에게 말씀해 주셨을 게다."

시리우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해리가 좀더 목소리를 높였다.

"시리우스, 저... 저는 아무래도 점점 미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덤블도어 교수님 방에 들어갔을 때, 포트키를 쓰기 직전이었는데, 잠깐 동안 다시 뱀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마의 흉터가 마구 쑤시면서 그에게 덤비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해리는 시리우스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어둠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건 환상을 보고 난 여파 때문일 게다. 그게 전부야. 그때까지도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나 뭐 그랬겠지."

시리우스가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해리가 고개를 저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안에 뱀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넌 잠을 좀 자야겠다."

시리우스가 딱 잘라 말했다.

"아침을 좀 먹고 나서 위층으로 가서 잠을 자거라. 그런 다음 점심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서를 보러 가렴. 넌 지금 충격을 받았어. 너는 네가 목격한 그 장면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네가 그걸 목격하길 천만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서는 죽었을 게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 하렴."

시리우스는 해리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그를 어둠 속에 훌로 남겨 두고 식품 저장실을 나가 버렸다.

해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오전 내내 잠을 잤다. 해리는 지난여름 몇 주 동안 론과 함께 썼던 침실로 올라가긴 했다. 론이 침대에 기어 들어가자마자 굽어떨어진 반면, 그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차가운 금속 침대 난간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일부러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불편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혹시라도 잠이 들면 꿈속에 다시 뱀이 되어서 이번에는 론을 공격하려 들거나 혹은 집

안을 기어 다니며 차례차례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들까 봐 겁이 났던
것이었다.

룬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해리는 자신도 한숨 푹 자고 일어난 척했다. 그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호그와트에서 트렁크가 도착했다. 덕분에 그들은 머글
옷으로

갈아입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해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망토를
벗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으면서 신나게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런던 시내를
안내하기 위해서 통스와 매드아이가 나타나자, 그들은 매드아이가 마법의 눈을
가리기 위해 한쪽으로 비스듬히 쓴 중절모자를 보면서 또 한바탕 웃어 댔다.

그리고 차라리 빛나는 분홍색 짧은 머리를 한 통스가 오히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덜 끌 거라고 진심으로 충고했다.

통스는 해리가 위즐리 씨의 부상 장면을 보았다는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해리는 그거야말로 가장 입에 올리기 싫은 화제였다.

"혹시 너의 가문에 예언자의 혈통이 있는 게 아닐까?"

시내 중심부로 향하는 지하철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통스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다.

"없어요."

해리는 트릴로니 교수를 생각하자, 웬지 모욕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맞아."

통스가 뭔가 깊이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그건 아니야. 네가 한 건 진짜 예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넌 미래를 본
게 아니라, 현재를 본 거란 말이지. 그것 참 이상하지 않니? 비록 쓸모 있긴
하지만..."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다음 역에서 내려야만
했다.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역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리느라 북새통인
가운데,

해리는 제일 앞서 걸어가는 통스 뒤로 프레드와 조지를 먼저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통스를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무디는 중절모자를
비스듬히 푹 눌러쓴 채. 지팡이를 움켜쥔 손을 코트 속으로 찔러 넣었다.

해리는

감추어진 마법의 눈이 줄곧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꿈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리는 매드아이에게 성 뭉고
병원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 물어보았다.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다."

무디가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상점이 줄지어 서 있고 크리스마스
쇼핑객들로 넘쳐나는 커다란 도로 위로 올라왔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무디는 해리를 앞장세우고는 바로 뒤에서 뚜벅뚜벅 따라왔다. 해리는 중절모자
밑에 숨겨진 눈이 온 사방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병원을 지을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 다이애건
앨리에는 그만큼 넓은 터가 없었고 그렇다고 마법부처럼 땅속에 지을 수도
없었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결국 이곳에 건물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단.
이론상으로는, 아픈 마법사들이 사람들 틈에 뒤섞여서 마음대로 병원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였지."

무디는 시끄럽게 떠드는 쇼핑객들 때문에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리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쇼핑객들은 전기 제품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 근처 가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여기다."

무디가 잠시 후에 말했다. 그들은 퍼지 and 도우즈 상점이라고 쓰여 있는,
붉은 벽돌의 커다란 구식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고 누추해 보였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날개가 비뚤어진 나무 조각 인형들이 제멋대로 늘어서 있었는데,

최소한 10년은 유행에 뒤떨어진 듯한 옷을 입고 있었다. 먼지 낀 문에는
커다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수리 중."

해리는 비닐 쇼핑 가방을 잔뜩 짊어진 덩치 큰 여자가 옆을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저 집이 열려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여기다."

통스는 특별히 못생긴 여자 인형이 진열되어 있는 한 유리창 앞으로 그들을
불러 모았다. 가짜 속눈썹을 간신히 대롱대롱 달고 있는 인형은 앞치마가 달린
초록색 나일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모두 다 준비됐니?"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무디는 또다시 해리를
앞으로 떠밀며 재촉했다. 통스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제일 못생긴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숨결이 달자, 유리 위에 뾰족하게 김이 서렸다.

"와처, 아서 위즐리를 보러 왔어요."

통스가 말했다.

아주 잠깐 동안 해리는 유리창 너머로 그렇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인형에게
들리기를 기대하는 통스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버스들이 부르릉거리고 쇼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상황이
어찌됐든 인형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해리는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인형이 고개를
까닥하더니

손짓을 했기 때문이었다. 통스는 지니와 위즐리 부인의 팔을 끌고, 진열장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더니 곧 사라졌다.

프레드와 조지, 론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해리는 서로 어깨를 밀치며 오고
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느 누구도 퍼지 and 도우즈 상점의 보기 흉한
진열장까지 들여다보고 있을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방금
그들의 눈앞에서 여섯 명의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았다.

"어서 가자."

무디가 해리의 등을 쿡 찌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물의 장막처럼
느껴지는 것을 지나서,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로 들어갔다.

보기 흉한 인형이나 그 인형이 서 있던 진열장 따위는 흔적조차 없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병원 출입구쯤 되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는 마녀와 마법사들이 흔들흔들하는 나무 의자 위에 줄지어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얼굴로 지난 호 '마녀 주간지'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코끼리 다리가 달리거나 손이 하나 더 달려
있는, 보기만 해도 섬뜩한 돌연변이 기형이었다. 병원 안이라고 해도 바깥
거리와 다를 바 없이 시끄러웠다. 수많은 환자들이 저마다 괴상한 소리를 질러
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일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는 한 마녀는 '예언자
일보'를 접어서 야단스레 부채질을 하면서도 땅을 뻘뻘 훌리고 있었는데,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마치 김이 새어 나오듯이 쑥쑥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쪽 구석의 구접스럽게 생긴 한 마법사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종을 치듯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와 동시에 그의 머리가 어찌나 세차게 진동을
하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꽉 잡고 있어야만 했다.

한편 연한 초록색 망토를 입은 마녀와 마법사들은 환자들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엉브릿지처럼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필기판에 받아 적었다.

해리는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문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팡이와 뼈가 X 자로
교차된 그림이었다.

"저 사람들이 의사인가?"

해리가 론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의사라고?"

론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사람들을 마구 칼로 자르는 그 머글 멍청이 말이야? 절대 아니지. 저들은 치료사들이야."

"이쪽으로 와라."

위즐리 부인이 한쪽 구석에서 또다시 종소리를 내며 진동하고 있는 마법사의 머리 너머에서 그들을 불렀다. 그들은 부인을 따라서 '면회'라고 적힌 책상에 앉아 있는 뚱뚱한 금발 마녀 앞에 줄지어 섰다. 마녀의 뒤편 벽에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청결한 냄비는 약이 독약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격 있는 치료사가 인정하지 않은 해독제는 독이다.'

그 밖에도 곱슬거리는 은발을 길게 늘어뜨린 마녀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딜리스 덜웬트

성 봉고 병원 치료사 1722, 1741

호그와트 마법 학교 교장 1741, 1768

딜리스는 마치 그들의 수를 헤아리듯 위즐리 일행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눈을 징긋하더니 초상화 밖으로 빠져나와 사라졌다. 한편 줄 맨 앞에서는 젊은 마법사 하나가 기묘한 춤을 추듯이 몸을 흔들며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는 사이사이로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는 마녀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이 신발은... 어이크... 제 형이 제게 준... 아이쿠... 신발인데... 아야... 자꾸만...

제 발을... 으악... 깨물어서... 아이쿠... 이걸 좀 봐 주십시오...

으아아아악... 무슨

저주가 걸린 모양인데... 에구구... 난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그는 뜨겁게 달구어진 석탄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처럼 한 발을 들었다가 또 다른 발을 들었다가 하면서 경총경총 뛰었다.

"그 신발 때문에 이 글씨까지 못 읽는 건 아니겠죠?"

금발 마녀가 신경질을 내면서 책상 왼쪽에 붙은 커다란 안내판을 가리켰다.

"당신은 5층에 있는 마법 상해과로 가세요. 안내문에 적혀 있는 대로 말이죠. 다음!"

마법사가 경총경총 뛰면서 옆으로 비켜나자, 위즐리 일행은 앞으로 몇 발짝 나갈 수 있었다. 해리는 총별 안내문을 읽어 보았다.

1층, 인재 사고

냄비 폭발, 지팡이 역발사, 빗자루 파손 등등

2층, 생물에 의한 부상

물림, 찔림, 화상, 가시 박힘

3층, 마법 해충

전염병(예를 들어 천연두)

소멸 질병, 연주창 등등

4층, 마법약과 식물에 의한 중독

발진, 구토, 자제할 수 없는 웃음 등등

5층, 마법 상해

제거할 수 없는 저주, 주술, 잘못 사용된 마법 등등

6 층, 방문자 휴게실, 매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병원의 도우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줄 앞에는 보청기를 손에 든 꼬부랑 마법사가 서 있었다.

"브로드릭 보드를 만나러 왔소!"

그는 소리를 질렀다.

"49 호실로 가세요. 하지만 괜히 시간 낭비만 하시는 것 같군요."

마녀는 거만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아직도 자기가 찻주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몹시 피곤해 보이는 마법사 한 사람이 어린 딸의 손목을 꼭 잡고 다가왔다. 그녀는 놀이옷 등에 불쑥 솟아난, 깃털이 달린 거대한 날개로 아빠의 머리를 탁탁 치고 있었다.

"5 층으로 가세요."

마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한마디 톡 던졌다. 그 남자는 이상하게 생긴 풍선이라도 되는 듯이 딸아이를 불잡고, 책상 옆에 있는 이중문으로 사라졌다.

"다음!"

위즐리 부인이 책상 옆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위즐리 부인이 인사를 했다.

"제 남편인 아서 위즐리가 오늘 아침에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서 위즐리."

마녀는 자기 앞에 놓인 긴 명단을 손가락으로 재빨리 짚어 내려갔다.

"그래요. 2 층 오른쪽 두 번째 방이군요. 다이 르윌린 병동이에요."

"고마워요.어서 가자, 얘들아."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그들은 이중문을 지나서 좁은 복도를 걸어갔다.

그곳에는 더 많은 유명한 치료사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양초가 들어

있는 크리스털 전구가 커다란 비누거품처럼 천장 주위를 둥둥 떠다니며 불을 밝히고 있었다. 연한 초록색 망토를 입은 더 많은 마녀와 마법사들이 방금 그들이 지나온 문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어떤 문을 통과했을 때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노란 가스가 복도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들은 생물에 의한 부상 층인 2 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오른쪽 두 번째 방문 앞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 '위험한' 다이

르윌린 병실, 심각하게 물린 환자들.

그 밑에는 놋쇠 집게에 손으로 쓴 카드가 꽂혀 있었다.

담당 치료사, 히포크라테스 스메스윅. 견습치료사, 어거스투스 파이.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겠어요, 몰리."

통스가 말했다.

"아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가족들을 만나야죠."

매드아이도 통스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리고 마법의 눈을 빙글빙글 돌리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해리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해리의 손을 불잡고 병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해리, 바보처럼 굴지 마라. 아서도 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을 거야."

병실 안은 좁고 지저분했다. 높고 좁은 단 하나의 창문이 문 맞은편 벽에 나 있었다. 병실을 비추는 것은 천장 가운데 매달려 있는 반짝이는 크리스털 전구였다. 떡갈나무 판자가 둘러쳐진 벽에는 약간 못되게 보이는 마법사의 초상화 하나가 걸려 있었다.

'어쿠하트 랙해로우, 1612, 1697, 탈장 저주 고안자'

병실에는 환자가 세 명밖에 없었다. 위즐리 씨는 병실 제일 안쪽에, 작은 창문 옆 병상에 누워 있었다. 해리는 높이 쌓아 올린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침대 위로

쏟아지는 한 줄기 핫빛 아래에서 '예언자 일보'를 읽고 있는 위즐리 씨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위즐리 씨는 자기를 향해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고 활짝 웃었다.

"어서 와라!"

위즐리 씨는 신문을 얼른 옆으로 내던졌다.

"빌은 방금 떠났소, 몰리. 직장에 돌아가 봐야 한다면서 말이오. 하지만 나중에 당신에게 들르겠다고 했소."

"당신은 좀 어때요, 아서?"

위즐리 부인이 허리를 숙이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더니 걱정스럽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몹시 수척해 보여요."

"나는 이제 완전히 다 나았소."

위즐리 씨는 환하게 웃으며 성한 팔로 지니를 껴안았다.

"이 봉대만 풀면, 나는 집으로 갈 거요."

"왜 아직까지 봉대를 풀지 못하는 거죠, 아빠?"

프레드가 물었다.

"봉대를 풀려고 할 때마다 미친 듯이 피가 쏟아져서 말이다."

위즐리 씨는 손을 뻗어서 사물함 옆에 놓여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더니, 여섯 개의 의자를 불러내어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혔다.

"아마 그 뱀의 이빨에 상처를 아울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특이한 독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치료사들이 곧 해독제를 찾아낼 거라고 장담했단다. 나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구나. 어쨌든 그때까지 나는 매시간 헐액 보충 마법약을 먹어야만 한단다. 하지만 저기 저 환자는 말이다..."

위즐리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맞은편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 남자는 병색이 완연한 몰골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늑대인간에게 물렸단다. 전혀 손쓸 방법이 없지."

"늑대인간이라고요?"

위즐리 부인이 깜짝 놀라며 속삭였다.

"그런데 일반 병실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1인실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보름달까지는 아직 두 주나 남았어."

위즐리 씨는 조용히 위즐리 부인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 아침 내내 치료사들이 그를 붙잡고, 보통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더군. 나도 그에게 말해 주었어. 물론

이름은 말하지 않고 말이야. 개인적으로 늑대인간을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고 자신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조지가 물었다.

"조용히 입 닥치지 않으면 날 물겠다고 하더군."

위즐리 씨는 유감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여자는 뭐에 물렸는지 치료사에게 절대 말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 저 여자가 금지된 생물을 취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게 뭔지 몰라도, 넓적다리 살점이 둥텅 떨어져 나가고 거즈를 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풍긴단다."

"아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프레드가 의자를 침대 곁으로 바싹 끌어당기며 물었다.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위즐리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해리에게 던졌다.
"아주 간단하단다.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뱀이 와서 날 물었어."
"아빠가 공격을 당했다는 기사가 '예언자 일보'에 실렸나요?"
프레드는 위즐리 씨가 옆으로 던져 놓은 신문을 손으로 가리켰다.
"아니, 물론 아니다."
위즐리 씨가 다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법부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게 크고 무서운 뱀이..."
"아서!"
위즐리 부인이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나를 공격했다는 걸 말이다."
위즐리 씨가 황급히 말을 끝냈다. 하지만 해리는 위즐리 씨가 원래 하려던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조지가 물었다.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위즐리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예언자 일보'를 집어 들더니 신문을 펼쳐 들고 말했다.
"너희들이 왔을 때, 나는 윌리 위더순스가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있었단다. 윌리가 지난여름 화장실이 역류했던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졌다는 걸 알고 있니? 그가 쓴 주문이 잘못 맞아서 화장실이 폭발해 버렸단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찾았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쓴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아빠가 '임무 중'이었다고 하던데, 그 임무라는 게 뭐죠?"
프레드가 작은 목소리로 불쑥 끼어들었다.
"네 아버지 말씀을 들어라. 여기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아서, 윌리 위더순스 이야기나 계속하세요."
"그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는 화장실 사건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갔단다. 나로서는 아마 돈을 쓴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지."
위즐리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걸 지키고 계셨죠?"
조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무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찾고 있다던 그거?"
"조지, 조용히 하지 못하겠니!"
위즐리 씨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런데..."
위즐리 씨는 다시 목청을 높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머글들에게 깨우는 손잡이를 팔아서 불잡혀 온 거야. 과연 윌리가 이번 사건에서는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겠다. 여기 실린 기사에 의하면 머글 두 명이 손가락을 잃고 응급 뼈 재생과 기억 조작을 위해 여기 성 뭉고 병원에 와 있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해봐라! 머글이 성 뭉고 병원에 와 있다니! 도대체 어느 병실에 있는 걸까?"
위즐리 씨는 혹시 표지판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사람이 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해리?"
프레드가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며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아주 거대한 뱀을? 그자가 돌아오던 날 밤에 그걸 봤다며, 안 그래?"
"그만 해라."

위즐리 부인이 야단을 쳤다.

"아서, 매드아이와 통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다시 아이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너희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만 나가 봐라."

그들은 복도로 우르르 몰려 나갔다. 매드아이와 통스가 들어오더니 병실 문을 닫았다. 프레드는 눈을 치켜 떴다.

"좋아.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겠다는 거지."

프레드는 호주머니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걸 찾는 거니?"

조지가 살구색 나는 줄이 뒤엉킨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었다.

"내 속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니까."

프레드가 씩 웃었다.

"어디 성 뭉고 병원의 문에도 접근불가 마법이 걸려 있는지 볼까?"

프레드와 조지가 뒤엉킨 줄을 풀자, 늘어나는 귀 다섯 개가 되었다. 프레드와 조지는 그것을 각자에게 하나씩 주었다. 하지만 해리는 받기를 망설였다.

"어서 받아, 해리! 너는 우리 아빠의 목숨을 구했잖아. 너야말로 아빠의 이야기를 엿들을 만한 권리가 있어!"

해리는 어쩔 수 없이 쌍둥이 형제들이 하라는 대로 늘어나는 귀의 한쪽 끝을 귀에 꽂았다.

"좋아, 어서 가자!"

프레드가 속삭였다. 살구색 나는 줄은 길고 빠빠 마른 지렁이처럼 구불구불 기어서 문 밑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에 해리는 깜짝 놀라 나자빠질 뻔했다. 통스가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똑똑하게 들렸던 것이다.

"그 지역을 다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뱀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을 공격한 후에 곧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도 뱀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저 정찰을 하기 위해 보낸 것 같아."

무디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그자가 별로 운이 없었잖아, 안 그래? 그래서 자기를 가로막는 게 뭔지 좀더 알아보려고 했겠지. 아서가 거기 없었다면, 그 짐승은 좀더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을 거야. 그래, 포터는 이 모든 일을 다 보았다고 말하던가?"

"그래요."

위즐리 부인은 약간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는 심지어 해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순간을 기다려 왔던 것 같더군요."

"그렇군. 확실히 포터 그 녀석에게는 뭔가 재밌는 구석이 있단 말이야. 물론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와 이야기할 때에는 해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위즐리 부인이 속삭였다.

"당연히 걱정되겠지. 그 녀석은 그 사람의 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분명히 포터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애에게 씩기라도 하면..."

해리는 그만 귀에 꽂고 있던 늘어나는 귀를 빼 버렸다. 망치질을 하듯 심장이 마구 뛰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해리는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여전히 늘어나는 귀를 귀에 꽂은 채,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23 장 격리 병동에서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덤블도어가 더 이상 해리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그는 볼드모트가 해리의 눈 뒤에서 노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어쩌면 그 반짝이는 초록색 눈이 갑자기 빨갛게 변하면서 고양이 눈처럼 눈동자가 가늘어질까 두려웠던 것일까? 해리는 언젠가 퀴렐 교수의 뒤통수에서 빠져나왔던 뱀처럼 생긴 볼드모트의 끔찍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만약 볼드모트가 그의 머리를 뚫고 나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동안 해리는 자신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치명적인 어떤 병균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과는 지하철 좌석에 조차 함께 앉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볼드모트에게 오염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뱀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면서 소름 끼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동시에 그의 뱃속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추종자들 이외에, 그가 쳐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훔쳐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무기처럼. 그가 지난번에는 가지지 못했던 것.

내가 바로 그 무기야. 해리는 생각했다. 그 생각은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약처럼 그의 온 몸을 마비시켰다. 흔들리는 지하철을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던 해리는 비오듯 땀을 흘렸다. 내가 바로 볼드모트가 사용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무기였어.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거야.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하지만 효과가 없었던 거지. 내가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 줄곧 누군가를 불일 수는 없었으니까... 지난밤에 위즐리 씨를 공격한 것은 바로 나였어. 나였던 거야. 볼드모트가 나에게 그걸 시켰어. 어쩌면 바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읽고 있을지도 몰라...

"해리, 너 괜찮니?"

위즐리 부인이 지니 앞으로 몸을 숙이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덜컹거리는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어디 아프니?"

아이들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해리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보험 광고판을 옮겨다보았다.

"해리, 정말 괜찮은 거니?"

위즐리 부인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이제 그들은 그리볼드 광장의 무성한 잔디밭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너무 창백해 보이는구나. 오늘 아침에 잠을 좀 자긴 했니? 가자마자 넌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저녁 식사 전까지 두 시간쯤 잘 수 있을 거야. 알았지?"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야말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실이었다. 그건 지금 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위즐리 부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해리는 곧장 트롤 다리 우산꽃이 옆을 지나서

위층으로 올라가 론과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해리는 두 개의 침대와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의 텅 빈 액자 사이를 왔다갔다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과 끔찍한 상상들로

들끓었다.

내가 어떻게 뱀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애니마구스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어쩌면 볼드모트가 애니마구스였을지도... 그래. 해리는 생각했다. 그게 맞을 것이다. 그는 이따금 뱀으로 변하곤 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우리 두 사람 모두 변신을 한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불과 오분

안에 런던까지 갔다가 다시 내 침실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덤블도어 교수를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마법사다. 어쩌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순간이동시키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순간 해리는 날카로운 공포의 전율에 사로잡혔다. 이건 미친 생각이야. 만약 볼드모트의 영혼이 나에게 씌었다면, 지금 나는 그에게 불사조 기사단 본부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야! 그는 누가 기사단에 있고 시리우스가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될 거야. 게다가 난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 내가 여기 왔던 첫날 밤 시리우스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가 그리즐드 광장을 곧장 떠나는 것이다. 그는 홀로 호그와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니, 그것도 아니다. 호그와트에는 아직도 다치거나 부상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시무스나 딘 혹은 네빌이 다음 차례가 된다면? 해리는 걸음을 멈추고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의 텅 빈 액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에게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는 다른 마법사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프리벳가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 꼭 그래야만 한다면, 더 이상 여기서 서성거려봤자 쓸데없는 짓이었다. 해리는 예상보다 6 개월이나 빨리 대문 앞에 나타난 그를 보고 더즐리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를 쓰며, 트렁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뚜껑을 쾅 닫고 고리를 잠근 다음, 거의 자동적으로 헤드위그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제야 비로소 헤그위드가 아직도 호그와트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새장을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해리는 트렁크의 한쪽 끝을 잡고 문을 향해 질질 끌고 갔다. 그때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치는 건가, 그래?"

해리는 방 안을 돌아보았다. 어느 틈에 초상화 안으로 돌아온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몸을 액자 밖으로 내민 채, 해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예요."

해리는 짤막하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가방을 끌고 걸어갔다/

"난 그리핀도르 기숙사 학생이라면 용감한 줄 알았지. 내가 보기에도 넌 차라리 우리 기숙사에 들어오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우리 슬리데린들은 물론 용감하지만

어리석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우린 항상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내 목숨을 살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해리는 문 바로 앞에 깔린, 좀먹고 울퉁불퉁한 양탄자 위로 트렁크를 끌어내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알겠어. 이건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넌 고상하다는 거군."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해리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하면서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비로소 천천히 입을 떴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너에게 보내는 전갈을 가져왔어."

해리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뭔데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마."

"난 지금 꼼짝 않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내용이 뭐죠?"

해리가 여전히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소리쳤다.

"방금 내가 말했잖아. 이 멍청이."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능청을 부렸다.

"덤블도어가 말하기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래."

"어째서?"

해리가 트렁크를 떨어뜨리며 간절하게 물었다.

"어째서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다른 말은 없었나요?"

"아무 말도 없었어."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해리가 건방지다고 생각한 듯이 가느다랗고 검은 눈썹을 주켜올렸다. 그 순간 해리는 무성한 수풀에서 뱀이 고개를 내밀 듯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그는 지칠대로 지치고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지난 열두 시간 동안 공포와 안도감을 되풀이해서 경험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덤블도어는 여전히 그와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가요? 전부라고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라고요? 내가 디멘터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말은 고작 그 한 마디뿐이었어요.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할 동안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해리! 하지만 우린 너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네 작은 머리로는 그걸 감당해 낼 수 없을 테니까!"

"바로 그거야."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해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래서 난 절대 선생 같은 건 되고 싶지 않다니까! 어린애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이 바람만 잔뜩 들어간 가엾은 앵무새야. 호그와트의 교장이 너에게 사소한 모든 일까지 절대로 털어놓지 않는 데에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니?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덤블도어의 지시를 따르면 결코 손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아니, 너도 다른 젊은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너 혼자서만 느끼고 생각한다고 확신하지. 너 혼자서만 위험을 알아차리고 너 혼자서만 어둠의 마왕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미리 알아차릴 만큼 똑똑하다고..."

"그렇다면 그자가 나에 대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인가요?"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나?"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할 일 없이 자신의 비단 장갑을 살펴보는 척했다.

"자, 이제 너만 괜찮다면, 난 그만 가 봐야겠다. 사춘기 소년의 고뇌를 들어주는 것보다 좀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잘 있거라."

그는 액자 가장자리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더니 눈앞에서 사라졌다.

"좋아요, 가 버려요!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께는 전혀 고맙지 않다고 전해 주세요!"

해리는 텅 빈 액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텅 빈 액자는 고요하기만 했다. 해리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다시 침대 발치에 끌어다 놓고, 좀먹은 침대 이불 위에 눈을 감고 엎드렸다. 온몸이 무겁고 쑤셨다.

해리는 마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기분이었다... 초 챕이 겨우살이 밑에서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던 일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데 불과 스물네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죽고 싶을 만큼 피곤했지만, 잠들기가 겁이 났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덤블도어는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 말은 아마 잠을 자도 좋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웠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어둠 속으로 차츰 빠져들었다.

그러자 머릿속 필름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꿈을 펼쳤다. 그는 검은 문을 향해서 텅 빈 복도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울퉁불퉁한 돌 벽과 횃불, 그리고 왼쪽에는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보이는 문이 열려 있었다.

해리는 검은 문 앞에 이르렀지만 열 수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가 열렬히 갈망하는

무언가가 바로 저 너머에 있었다...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 그의 흉터가

쑤시는 것만 멈출 수 있다면... 그렇다면 좀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해리..."

아득히 먼 곳에서 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저녁이 준비되셨대. 하지만 더 자고 싶으면 그냥 자도 된다고 그러셨어."

해리는 간신히 눈을 떴다. 하지만 론은 벌써 방을 나가고 없었다.

론은 나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은 거야.

해리는 생각했다.

무디가 하는 말을 들은 이후로는...

해리는 이제 어느 누구도 그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모두들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해리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나타나서 괜히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해리는 몸을 뒤척이다가 곧 다시 잠이 들었다. 한참 후에 깨어나 보니, 이를 새벽이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렸다.

론은

옆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눈을 찌푸리며 방 안을 둘러보던 해리는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다시 초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득 덤블도어가 그를 감시하라고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를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공격할까 봐.

자신이 불결하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덤블도어의 말을 듣고 떠나 버리지 않은 걸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다. 만약 앞으로 그리볼드 광장에서의 생활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프리벳가에서 지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침 내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느라 분주했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캐롤을 흥얼거리며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서 기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목소리가 썰렁한 응접실에 혼자 앉아 있는 해리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는 창 밖으로 당장에라도 눈이 쏟아질 듯이 점점 흐려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쑥덕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잔인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응당 그래야 하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점심 무렵이 되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위즐리 부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해리는 못 들은 척하고 위층으로 깊숙이 숨어 버렸다.

저녁 여섯 시쯤 되었을 때, 현관 벨이 울리고 블랙 부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벽박의 방에 숨어 있던 해리는 아마 먼던구스나 다른 기사단 단원이 찾아온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벽에 몸을 기댄 채, 더욱더 편안하게 늘어졌다. 그리고 히포그리프에게 죽은 쥐를 먹이며 자신의 배고픔은 잊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잠시 후에 누군가 마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여기 있는 줄 다 알아."

헤르미온느의 목소리였다.

"잠깐 나올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기는 웬일이야?"

해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벅벅은 혹시 먹다가 떨어뜨린 고기 조각이라도 없을까 해서 지푸라기가 깔린 마루 위를 발톱으로 벅벅 굽기 시작했다.

"넌 엄마 아빠랑 스키를 타러 가기로 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스키는 내 적성에 안 맞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어쨌든 나도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어."

헤르미온느의 머리 위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추위로 빨갛게 얼어 있었다.

"하지만 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론이 하도 웃어 대는 게 알미워서, 스키가 정말 재밌다고 말했거든. 엄마 아빠는 무척 실망하셨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호그와트에 남아서 공부를 있다고 말씀드렸어. 두 분 다 내가 잘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결국 이해하셨지. 그건 그렇고."

헤르미온느가 씩씩하게 말했다.

"네 침실로 가자. 론의 어머님이 불을 피워 주셨거든. 샌드위치도 올려 보내 주신다고 하셨어."

해리는 그녀의 뒤를 따라서 2층으로 갔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는 순간, 론과 지니가 침대 위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구조 버스를 타고 왔어."

해리에게는 미처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걸음을 벗으며 명랑하게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어제 아침에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지. 엉브릿지는 너희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감쪽같이 없어진 걸 알고 벌써 노발대발하고 있어.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위즐리 씨가 성 뭉고 병원에 입원해서 너희들에게 병문안 허가를 내주었다고 설명했는데도 말이지."

헤르미온느는 이렇게 말하고 지니 옆에 앉았다. 이제 세 사람은 일제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기분은 어떠니?"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좋아."

해리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 해리."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론과 지니가 그러는데, 성 뭉고 병원에 다녀온 뒤로는 계속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면서."

"그래? 그랬어?"

해리는 론과 지니를 노려보았다. 론은 슬그머니 시선을 발 아래로 떨구었지만, 지니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다.

"그래, 그랬잖아! 아무도 안 보려고 했으면서!"

지니가 말했다.

"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 너희들이었어!"

해리가 화를 냈다.

"어쩌면 번갈아 쳐다보다가 서로 바라보는 걸 못 보았는지도 모르지."

해리가 획 돌아서며 면박을 주었다.

"이제 오해는 그만 풀어."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다른 애들에게 들었어. 어젯밤에 늘어나는 귀로 엿들었..."

"그랬어?"

해리는 호주머니 속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펄펄 눈이 내리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내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군. 그래, 나도 그 일에 익숙해져야겠지."

"해리, 우리는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넌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줄곧 우리를 피해 다니기만..."

지니가 말했다.

"난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해리는 점점 더 속이 비틀렸다.

"그래서 네가 멍청하다는 거야."

지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자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마치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굴잖아. 하지만 난 그게 어떤 기분인지 말해 줄 수 있어."

해리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더니 즉시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잊고 있었어."

"잊을 수 있었다니 다행이었네."

지니가 쌀쌀맞게 말했다.

"미안해."

해리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그럼 너도 내가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니?"

"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있어?"

지니가 물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공백기가 없어?"
해리는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해 보았다.

"응."

"그럼 넌 그 사람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야."

지니는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자가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 때, 나는 몇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어. 어딘가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 보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해리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반짝 희망이 불타올랐다.

"하지만 네 아빠와 뱀에 대한 꿈은..."

"해리, 넌 전에도 꿈을 꾼 적이 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작년에 볼드모트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잖아."

"이번에는 달라."

해리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뱀의 몸 안에 있었어. 마치 내가 뱀이 된 것 같았다고... 만약 볼드모트가 나를 런던으로 순간이동시킨 거라면...?"

"도대체 넌 언제쯤이나 '호그와트 역사'를 읽을 거니?"

헤르미온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읽으면 호그와트 안에서는 순간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아무리 볼드모트라고 해도 널 침실 밖으로 날아가게 할 순 없어, 해리."

"넌 침대에서 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어."

론이 말했다.

"너를 깨우기 전에 한 일 분 동안 꿈을 꾸며 몸부림치는 널 지켜보고 있었거든."

해리는 생각에 잠겨서 다시 방 안을 왔다갔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침대 위의 접시에서 샌드위치를 집어 입 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나는 무기가 아냐.'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안도감과 희망으로 가슴이

벽차올랐다. 심지어 '신의 축복을, 메리 히포그리프.'라고 목청껏 노래 부르며 그들이 있는 방문 앞을 지나 벽벽의 방으로 요란하게 걸어가는 시리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함께 따라 부르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났다.

어떻게 꿈에라도 프리벳가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을 했을까? 시리우스는 해리가 돌아온 데다가 다시 집 안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런 시리우스의 마음은 곧 모두에게 전염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지난여름의 우울한 집주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이 호그와트에서 보다 더 즐겁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그만큼은 즐거워야 한다고 작정한 것 같았다. 그는 크리스마스날 직전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쉴 새 없이 쓸고 닦고 장식을 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의 저택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했다. 녹슨 양들리에는 뽀얀 거미줄 대신 호랑가시나무 화환과 황금색과 은색의 장식 리본을 드리우고 있었고, 낡은 양탄자 위에는 마법 눈이 수북히 쌓여 반짝이고 있었다. 먼던구스가 구해 온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는 살아 있는 요정들로 장식이 되어서, 시리우스의 가계도 앞을 떡 가로막고 서 있었다. 심지어 복도 벽에 늘어서 있는 집요정들의 머리에까지 산타클로스의 모자와 수염을 붙여 놓았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을 뜯 해리는 침대 밑에 잔뜩 쌓여 있는 선물을 꾸러미를 발견했다. 론은 이미 자신이 받은 선물을 거의 절반쯤 풀어 보고 있는 중이었다.

"올해는 수입이 짭짤해."

론이 구름처럼 널려 있는 포장지 더미 속에서 해리에게 말했다.

"빗자루용 나침반 고마워. 아주 훌륭해. 헤르미온느의 선물은... 숙제 계획장이야."

자기가 받은 선물을 살펴보던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글씨가 적힌 물건을 발견했다. 그의 선물도 역시 일기장 비슷한 공책이었다. 다만 첫장을 열 때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시리우스와 루핀은 '실용 방어 마법과 사용법'이라는 훌륭한 책 시리즈를 선물했다. 거기에는 설명하는 모든 주문과 반 주문에 대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그림이 실려 있었다. 해리는 1장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책 보기에도 D,A를 위한 계획을 짜는 데 대단히 유용할 것 같았다. 해그리드는 이빨을 가진 갈색 텔 지갑을 선물로 보냈다. 아마도 소매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같았지만, 불행하게도 손가락을 깨물리지 않으면 한 푼도 집어넣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통스의 선물은 움직이는 작은 파이어볼트 모형이었다. 해리는 방

안을 빙빙 날아다니는 모형 빗자루를 보면서 진짜 파이어볼트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론은 그에게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 한 상자를 선물했고, 위즐리 부부는 늘 그렇듯이 손으로 짠 점퍼와 다진 고기 파이를 선물했다. 도비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림을 선물했는데, 아마도 직접 그린 것 같았다. 해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아 보일까 그림을 이쪽저쪽 뒤집어 보고 있는데, 침대 발치에서 뽕 하는 소리와 함께 프레드와 조지가 나타났다.

"메리 크리스마스."

조지가 인사를 했다.

"잠깐 동안 밑에 내려가지 마."

"왜 그러는데?"

론이 물었다.

"엄마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 퍼시가 크리스마스 점퍼를 돌려보냈거든."

프레드가 우울하게 말했다.

"쪽지 한 장 없이 말이야. 아빠가 어떠신지 묻지도 않고 병문안을 가겠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어."

조지가 덧붙였다.

"우리가 위로를 해드리자. 퍼시는 쥐똥만큼도 가치가 없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프레드는 이렇게 말하며 침대를 돌아 나와 해리의 초상화를 들여다보았다.

"그래 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걸."

조지는 개구리 초콜릿을 입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루핀에게 맡겨. 우리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기 전까지, 루핀이 최선을 다해 엄마를 위로해 줄 거야."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뭐니?"

프레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도비의 그림을 쳐다보며 물었다.

"커다란 검은 눈을 가진 긴팔원숭이처럼 보이는데."

"이건 해리야!"

조지가 그림 뒷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뒤에 쓰여 있는 글씨를 봐!"

"아주 비슷한걸."

프레드가 씩 웃으며 말했다. 해리는 새로 받은 숙제 계획장을 그에게 던졌다. 맞은편 벽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공책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상세히 표시를 한 후에는 뭐든지 해도 좋아요!"

그들은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은 헤르미온느와 마주쳤다.

"책 고마워, 해리!"

헤르미온느는 즐거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수비학의 새로운 이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향수 정말 특이하더라, 론."

"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누구 선물이니?"

론이 헤르미온느의 손에 든 선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것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다.

"크리처 거야."

헤르미온느가 명랑하게 말했다.

"설마 옷은 아니겠지!"

론이 그녀에게 경고하듯 말했다.

"너도 시리우스가 한 말 들었잖아. 크리처는 이미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해방시킬 수도 없다고!"

"옷은 아니야. 물론 내 맘 같아선 크리처에게 그 더럽고 낡아 빠진 걸레 조각 말고 다른 걸 주고 싶어. 하지만 이건 웰트 이불이야. 그의 침실을 좀 환하게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무슨 침실?"

시리우스의 어머니 초상화 앞을 지나자, 해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시리우스가 그러는데 그건 침실이 아니라, 거의 무슨 토굴이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부엌 벽장 속에 있는 보일러 밑에서 자는 게 틀림없어."

그들이 지하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위즐리 부인밖에 없었다. 부인은 화덕 옆에 서서 지독한 감기에 걸린 사람같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다. 아이들은 모두 슬며시 시선을 피했다.

"여기가 크리처의 침실이란 말이야?"

론이 식품 저장실 맞은편 구석에 있는 시커먼 문으로 다가갔다. 해리는 한 번도 그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래."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한 것 같았다.

"저... 노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론이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위층에서 또 여기저기 엿보고 다니는 모양이야."

론이 말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문을 활짝 열었다.

해리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벽장 안은 커다란 구식 보일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일러 파이프 바로 밑의 빈 공간에 크리처는 둉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 닥치는 대로 끌어 모은 천 뭉치와 냄새나는 낡은 담요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 크리처가 매일 밤 몸을 웅크리고 자는 자리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상한 뺑 조각과 묵은 치즈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구석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고 있는 작은 물건들과 동전들은 아마도 시리우스가 집을 청소할 때 내버린 물건들을 크리처가 까치처럼 주워다 놓은 것 같았다. 심지어 시리우스가 지난여름에 던져 버린 은제

액자 속에 든 가족 사진까지 숨겨 놓았다. 비록 유리는 깨졌지만, 아직도 흑백 사진 속의 사람들은 거만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덤블도어의 펜시브에서 재판받는 걸 보았던 그 검은 머리의 눈꺼풀이 두꺼운 여자도 있었다. 바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었다. 순간 해리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크리처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속 인물이 틀림없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앞에

그녀를 세워 놓고 그 위에만 마법 테이프로 어설프게 유리를 붙여 놓았던 것이다.

"여기다 그냥 선물을 놓고 가는 게 좋겠어."

헤르미온느가 걸레 뭉치와 담요들이 있는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려놓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중에 이걸 보면 좋아할 거야."

"다들 생각 좀 해보자."

그들이 벽장문을 조용히 닫는 순간, 식품 저장실에서 시리우스가 나오며 말했다.

"혹시 최근에 크리처를 본 사람 있어?"

"저는 우리가 여기 돌아온 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크리처에게 부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

시리우스가 이마를 찌푸렸다.

"맞아. 나도 그를 본 게 그걸로 마지막인 것 같아. 아마 위층 어딘가에 있겠지."

"여길 떠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가라고 말했을 때, 설마 집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로 듣진 않았겠죠?"

"그렇지, 그건 아니야. 집요정은 옷을 받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 없어. 그들은 이 집에 매인 몸이니까."

시리우스가 말했다.

"집요정이 정말로 원하면 집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해리가 그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다.

"도비는 그랬는걸요. 3년 전에 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말포이 집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벌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그럴 수 있어요."

시리우스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다.

"내가 나중에 찾아보지. 아마 위층에서 어머니의 옛날 바지나 뭐 그런 걸 끌어안고 울고 있을 거야. 물론 세탁물 건조장 안에 기어 들어가서 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괜히 내 희망 사항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지."

프레드와 조지, 론은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헤르미온느는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일단 크리스마스 점심을 먹은 후에, 위즐리 가족과 해리, 헤르미온느는 매드아이와 루핀의 호위를 받으며 위즐리 씨를 병문안 갈 예정이었다. 때마침 먼던구스가 크리스마스 푸딩과 사소한 몇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나타났다. 지하철이 크리스마스에는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자동차를

'빌려' 왔다는 것이었다. 해리는 과연 자동차 주인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웠지만, 어쨌든 그 자동차는 한때 위즐리네의 낡은 포드 앵글리아처럼 내부가 넓어지는 마법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보통 크기의

자동차였지만, 운전을 하는 먼던구스까지 포함하여 열 명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가 앉을 수가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차에 타기 전까지 계속 망설였지만... 해리는 위즐리 부인의 마음속에서 먼던구스에 대한 혐오감과 마법을 쓰지 않고 돌아다닐 것에 대한 부담감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운 바깥 날씨와 아이들의 간청이 승리를 거두었다. 부인은 우아하게 뒷좌석의 프레드와 빌 사이에 앉았다.

거리가 아주 한산했기 때문에, 성 봉고 병원까지는 금방 도착했다. 몇몇 마녀와 마법사들이 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거리를 슬며시 올라오고 있었다. 해리와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에서 내리고, 먼던구스는 모퉁이에서 그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은 태연하게 초록색 나일론 옷을 입은 인형이 서 있는 진열장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서, 차례차례 유리 진열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병원 접수대 앞은 흥겨운 잔치 마당처럼 보였다. 성 봉고 병원을 밝혀 주던 크리스털 전구는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칠해져서, 빛나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든 문 앞에는 호랑가시나무가 걸려 있었고, 구석구석

마법 눈과 반짝이는 고드름으로 뒤덮이고 꼭대기에 빛나는 황금별이 달려 있는 하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다. 병원은 지난번 그들이 찾아왔을 때보다 덜 붐볐다. 하지만 방을 반쯤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왼쪽 콧구멍에 호두를 잔뜩 쑤셔 박은 마녀가 해리를 밀치고 앞으로 달려갔다.

"집안 싸움이라도 하셨나 보죠?"

접수대 뒤에서 금발의 마녀가 히죽히죽 웃으며 말했다.

"오늘만 당신 벌써 세 번째예요. 마법 상해, 5층으로 가세요."

잠시 후에 그들은 무릎 위에 먹다 남은 칠면조 요리가 담긴 쟁반을 옮겨놓고 우울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위즐리 씨를 만났다.

"어디 아픈 데 없죠, 아서?"

모두들 위즐리 씨와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건네주고 나자, 위즐리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좋아. 좋아."

위즐리 씨가 약간 과장되게 말했다.

"당신은 어... 아직 스메스윅 치료사를 못 만났지?"

"못 만났는데요, 왜요?"

위즐리 부인이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위즐리 씨는 손을 휘저으며 자기 앞에 쌓인 선물을 풀기 시작했다.

"모두들 잘 지냈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았니? 오, 해리, 이거 정말 멋지구나!"

위즐리 씨는 퓨즈 전선과 드라이버가 든 해리의 선물을 펼쳐 보고 좋아했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은 그의 대답에 썩 만족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남편이 해리의

손을 잡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자, 부인은 재빨리 잠옷 밑으로 봉대가 감긴 곳을 살펴보았다.

"아서, 벌써 봉대를 갈았군요. 왜 하루나 더 일찍 봉대를 바꾼 거죠?

병원에서는 내일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부인이 쥐덫처럼 뭉가 꼬투리를 잡았다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위즐리 씨는 약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슴까지 이불을 끌어당겼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저..."

위즐리 씨는 마음속을 훤히 깨뚫어 보는 것 같은 위즐리 부인의 눈초리에

점점 주눅이 들었다.

"몰리, 제발 화내지 말아요. 하지만 어거스투스 파이가 한가지 제안을 했다오. 그 사람은 견습 치료사인데, 아주 친절하고 그러니까... 저... 대체 의학에 관심이

많아. 다시 말하자면... 옛날 머글 치료법 같은 거 말이오... 머글들은 그걸 '수술'이라고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머글들 상처에는..." 그 순간 위즐리 부인이 비명도, 고함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내질렀다. 루핀은 은근슬쩍 침대 곁을 떠나서 늑대인간 옆으로 가 버렸다.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는 그 환자는 아까부터 시생 어린 눈초리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위즐리 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빌은 차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레드와 조지도 덩달아 싱글싱글 웃으며 그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위즐리 부인의 목소리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점점 더 커졌다. 같이 온 손님들이 자리를 피해 슬금슬금 달아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게 분명했다.

"머글 치료법에 손을 댔다고 나에게 말하려는 건가요?"

"손을 대려는 게 아니오, 몰리."

위즐리 씨가 애원하듯이 말했다.

"이건 그... 그냥 파이와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을 뿐이오. 다만 불행하게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상처에는 그게 생각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요?"

"그... 글쎄, 당신이 수술에 대해서 뭐... 뭘 아는지 모르겠군."

"당신의 삶을 실로 꿰매려고 했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위즐리 부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아서,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도 차나 한 잔 마시고 올게요."

해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헤르미온느와 론, 지니도 거의 동시에 문 쪽으로 쓴살같이 도망쳤다. 문이 쾅 닫히자마자, 위즐리 부인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일반적인 의견이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죠?"

"정말 아빠다운 행동이야."

지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다.

"수술이라니... 그게 뭐지...?"

"글쎄, 어쨌든 비마법적인 상처에는 꽤 효과적인 방법이야."

헤르미온느가 공정하게 평가했다.

"하지만 뱀의 독에 실을 녹이거나 뭐 그런 성분이 들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휴게실이 어디지?"

"6 층이야."

해리는 안내 데스크 너머에 붙어 있던 표지판을 기억해 내고 말했다.

이중문을 지나서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형상궂게 보이는 치료사들의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는 흔들리는 계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치료사들이 그들을 불러 세우며 온갖 이상한 병명을 대면서 끔찍한 치료법을 제안했다. 론은 한 중세 마법사가 그에게 스팟터그로이트의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게 분명하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정말로 화가 났다.

"도대체 그게 뭐지?"

그 치료사가 원래 주인을 마구 옆으로 밀치며 초상화 여섯 개까지 그를 쫓아오자, 론이 벌컥 화를 내며 물었다.

"가장 치명적인 피부 질환 중에 하나지. 그 병에 걸리면 마마 자국이 남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흉측한 모습이 될 거요."

"도대체 누구보고 흉측하다고 하는 거야!"

론이 귀까지 벌게지면서 소리쳤다.

"유일한 치료법은 두꺼비의 간을 꺼내서 목 주위에 단단히 묶은 다음,
보름달이 뜰 때 뱀장어의 눈깔이 잔뜩 든 통에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라오."

"난 스팟터그로이트에 걸리지 않았어!"

"하지만 젊은 양반, 당신 얼굴에 보이지 않게 난 흡집들은..."

"그건 주근깨란 말이야!"

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장 네 초상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만 날 좀 내버려둬!"

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자, 모두들 웃음을 감추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여기가 몇 층이지?"

"6 층인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니야, 여긴 5 층이야. 한 층 더 올라가야..."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딛고 올라서는 순간, 해리는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문에 달린 작은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문에는 여기서부터 '마법 상해' 층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창문 너머에서 한 남자가 유리창에 코를 짓누르며 그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구불거리는 금빛 머리카락과 투명한 푸른 눈동자, 그리고 눈부시게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공허한 미소...

"세상에!"

론도 그 남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 이럴 수가! 록허트 교수야!"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전직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가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긴 보라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얘들아, 안녕! 내 사인을 받으러 왔구나?"

록허트가 말했다.

"하나도 안 변했군, 그렇지?"

해리가 지니에게 속삭였다. 지니는 싱글싱글 웃었다.

"요... 요즘 어떠세요, 교수님?"

론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록허트가 처음 이 성 뭉고 병원에 오게 된 것은, 론의 지팡이가 잘못 발사되어 그의 기억력을 심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록허트가 먼저 론과 해리의 기억을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해리는 그다지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아주 잘 지낸다, 고마워!"

록허트가 원기 왕성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호주머니에서 약간 뭉툭해진 공작깃털 펜을 꺼내 들었다.

"사인을 얼마나 해줄까? 이제 난 필기체를 쓸 수 있단다!"

"저... 지금은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론이 얼른 사양했다. 하지만 해리가 불쑥 그에게 다시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눈을 치켜떴다.

"교수님, 이렇게 복도를 돌아다니셔도 되나요? 병실에 가만히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록허트의 얼굴에서 미소가 썩 사라졌다. 그는 잠시 해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말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없었나?"

"어... 있어요. 그럼요. 호그와트에서 저희를 가르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가르쳤다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록허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에서 다시 커다란 미소가 떠올랐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쳤겠지, 안 그래? 그럼 이제 사인을 받는 게 어떨겠니? 물론 한 열두 장쯤 받고 싶겠지? 그래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네 어린 친구들에게 모두 나눠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 제일 끝에 있는 문이 열리며, 누군가 고개를 내밀고 소리를 쳤다.

"질데로이, 이 장난꾸러기 녀석. 또 어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마치 엄마처럼 보이는 치료사 하나가 머리에는 반짝거리는 화환을 쓰고 복도를 부산하게 달려왔다. 그 여자는 해리와 다른 아이들을 보더니 반갑게 미소를 지었다.

"오, 질데로이, 손님이 찾아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냐! 게다가 크리스마스 날에! 가엾은 녀석, 생전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말이야. 안 그러냐?"

"사인을 해주고 있었어요!"

질데로이는 또다시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으며 치료사에게 말했다.

"사인을 아주 많이 받고 싶대요. 그리고 절대 거절하면 안된다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많이 찍어 놀을 걸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어 주렴."

치료사가 록허트의 팔을 붙잡고 마치 그가 조숙한 두 살짜리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랑스럽다는 미소를 지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렇게 사인해 주기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희망하고 있어. 이쪽으로 들어오겠니? 그는 격리 병동에 있단다.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몰래 빠져나온 거야. 물론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니란다!"

치료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위험하지. 가엾은 것...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니... 너희들이 그를 찾아와 준다면 정말 고맙겠구나."

"저, ... 사실 우리는 지금..."

론은 쓸데없이 손으로 위층을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하지만 기대에 가득 차서 웃고 있는 치료사의 얼굴을 보니, '차를 마시러 가야 해요.'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맥없이 서로만 쳐다보다가 록허트와 치료사의 뒤를 따라갔다.

"금방 나오자."

론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치료사는 지팡이로 제이너스 식기 병동의 문을 가리키더니 중얼거렸다.

"알로호모라."

문이 활짝 열리자, 치료사는 질데로이의 팔을 꽉 잡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안락의자에 그를 앉혔다.

"여기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병실이란다."

치료사가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지니에게 작은 소리로 설명해 주었다.

"마법 상해를 입은 불치 환자들을 위한 병실이지. 물론 강력한 치료약과 주문을 써서 혹시 운이 좋으면 약간 낫는 경우도 있단다. 질데로이는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 보드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효과가 있어서 언어 능력이 상당히 많이 회복되었단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한 마디도 못하지만 말이다. 자,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나눠 주는 일을 끝내야겠구나. 너희들끼리 이야기 많이 나누렴."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병실 안은 한눈에 보아도 환자가 영원히 집처럼 머물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위즐리 씨의 병실보다도 침대 주위에 개인적인 물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질데로이 침대 머리의 벽에는 온통 그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새로 온 손님들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진에 어린아이처럼 뻐뚤빼뚤한 글씨로 그의 사인이 되어 있었다. 한편 질데로이는 치료사의 손에 이끌려서 의자에 앉자마자, 새 사진 봉지를 꺼내더니 깃펜을 움켜쥐고 열정적으로 사인을 하기 시작했다.

"너는 이걸 봉투에 넣으렴."

질데로이는 사인이 끝날 때마다 지니의 무릎 위에 사진을 하나씩 던지면서 말했다.

"난 잊혀지지 않았어. 그렇고말고. 아직도 수많은 팬들의 편지를 받고 있단 말이야. 글래디스 구전은 매주 편지를 보내오고 있지... 하지만 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질데로이는 잠깐 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활짝 웃으며,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사인을 시작했다.

"아마 내가 잘생겨서 그렇겠지..."

맞은편 침대에는 헐색이 누르스름하고 침울한 표정을 한 마법사가 천장을 명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는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전혀 주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또 한 침대에는 온 얼굴이 털로 뒤덮인 여자가 있었다. 해리는 2학년때 헤르미온느가 비슷하게 당했던 일이 떠올랐다. 물론 헤르미온느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치료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 한편 병실 제일 끝에 있는 두 개의 침대 주위에는 꽂무늬가 그려진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환자나 그 손님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거 받아요, 아그네스."

치료사가 얼굴에 털이 난 여자에게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밀며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봐요, 웃지 않았죠, 안 그래요? 당신 아들이 부엉이를 보냈는데, 오늘 밤 면회를 오겠다고 하는군요. 너무 잘됐죠?"

아그네스는 몇 번 큰 소리로 짖었다.

"그리고 이봐요, 브로드릭. 당신은 화분과 매달 다른 히포그리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멋진 달력을 받았어요. 이걸 놀아 두면 주위가 환해질 거예요, 안 그래요?"

치료사는 중얼거리고 있는 남자에게 부산하게 다가가더니, 침대 옆 서랍장 위에 긴 촉수가 달린 보기 흉한 화분을 내려놓고 벽에는 지팡이로 달력을 붙였다.

"오, 롱바텀 부인, 벌써 가시게요?"

해리의 고개가 저절로 흑 돌아갔다. 병실 제일 끝에 있는 두 개의 침대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옆으로 열리면서 병문안 왔던 두 사람이 침대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한 사람은 초록색 긴 드레스를 입고 좀먹은 여우털 목도리에, 박제한 독수리처럼 생긴 것으로 장식한 게 분명한 뾰족 모자를 쓴 늙은 마녀였다. 그리고 강인하게 생긴 그녀의 뒤에서 완전히 풀 죽은 표정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은... 네빌이었다.

문득 모든 상황이 이해되면서, 해리는 저 구석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네빌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병실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뭔가 시선을 돌릴 만한 것이 없을까 안타깝게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롱바텀'이라는 이름을 듣고 벌써부터 고개를 쳐들고 있던 론은 해리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네빌!"

네빌은 아슬아슬하게 총알을 피하는 사람처럼 깜짝 놀라 펄쩍 뛰며 목을 잔뜩 움츠렸다.

"우리야, 네빌!"

론이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도 봤니? 롤허트가 여기 있더라! 그런데 넌 누굴 찾아왔니?"

"네빌, 네 친구들이냐?"

네빌의 할머니가 그들을 향해 몸을 숙이며 우아하게 말했다. 네빌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포동포동한 그의 얼굴이 점점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네빌의 할머니는 해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갈고리 같은 주름진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래, 그렇군. 네가 누군지 알겠다. 그렇고말고. 네빌이 네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단다."

"저... 고맙습니다."

해리는 악수를 했다. 하지만 네빌은 줄곧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발밑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위즐리 남매로구나."

롱바텀 부인은 위엄 있게 론과 지니에게 차례차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너희 부모님을 알고 있단다. 물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주 좋은 분들이지. 좋은 분들이야. 그리고 네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로구나?"

헤르미온느는 롱바텀 부인이 자기의 이름을 알자,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래, 네빌에게 네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 그 아이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도와주었다면서? 네빌은 착한 녀석이야."

롱바텀 부인은 뼈만 남은 뾰족한 코를 내리깔며 네빌을 평가하듯이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아버지의 재능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지."

부인은 병실 끝에 있는 두 개의 침대를 향해서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렸다. 그 바람에 그녀의 모자 위에 달려 있던 박제된 독수리가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떨어졌다.

"뭐라고?"

론이 입을 딱 벌렸다(해리는 재빨리 론의 발을 밟고 싶었지만, 긴 망토가 아니라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발을 밟는 게 너무 어려웠다).

"저 끝에 계신 분이 네 아빠야, 네빌?"

"이게 무슨 말이니?"

롱바텀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직도 네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니, 네빌?"

네빌은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흔들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해리는 그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곤경에서 어떻게 네빌을 구해 낼 수 있을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롱바텀 부인이 버럭 화를 냈다.

"네빌, 넌 자랑스러워해야 해! 자랑스럽단 말이다! 단 하나뿐인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자고, 저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게 아니야! 알겠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빌은 여전히 해리와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힘없이 말했다. 한편 론은 두 침대에 앉아 있는 환자의 모습을 어떻게든 보려고 뒤큄지를 들썩거렸다.

"그런데 네 태도가 참 이상하구나!"

롱바텀 부인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자부심에 가득 찬 태도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지니에게 말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 사람의 추종자들에게 고문을 당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단다."

헤르미온느와 지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론은 목을 길게 빼고 네빌의 부모님을 보려고 하다가, 그만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오러였지. 마법사 사회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오러였어."

롱바텀 부인이 말을 이었다.

"재능이 뛰어난 부부였지. 아, 앤리스, 왜 그러냐?"

네빌의 어머니가 잠옷을 입은 채, 침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무디가 보여 준 초창기 불사조 기사단의 옛날 사진에서 보았던 그 통통하고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훌쭉하고 늘어졌으며, 그녀의 두 눈은

켕했고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은 생기 없이 푸석푸석했다. 그녀는 원가를 손에 들고 네빌을 향해서 수줍게 손짓했다.

"또 뭐냐?"

롱바텀 부인이 약간 지친 듯이 말했다.

"좋아, 앤리스. 좋아. 네빌, 저게 뭔지 몰라도 어서 받아라."

하지만 네빌은 벌써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빈 껌질뿐인 드루블즈 풍선껌 종이를 그의 손 안에 떨어뜨렸다.

"아주 잘했구나, 아가야."

네빌의 할머니는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등을 토닥거렸다.

하지만 네빌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인사를 했다.

"고마워요, 엄마."

그의 어머니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비틀비틀 침대로 돌아갔다. 네빌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누구라도 웃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우린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롱바텀 부인이 긴 초록색 장갑을 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모두 만나서 반갑구나. 네빌,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넣어라. 네 엄마가 준 껌 종이로 네 침실을 도배하고도 남겠구나."

하지만 해리는 네빌이 병실을 나가면서 그 껌 종이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다시 슬쩍 찔러 넣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문이 닫혔다.

"난 몰랐어."

헤르미온느는 당장에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도 몰랐어."

론은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나도."

지니가 속삭였다. 그리고 모두들 해리를 바라보았다.

"난 알고 있었어."

해리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아즈카반에 간 건 그것 때문이야.

네빌의

부모님이 미쳐 버릴 때까지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썼다고 했어."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그랬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몸서리를 치며 소리쳤다.

"크리처가 잠자리에 숨겨 놓은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이때 잔뜩 성이 난 록허트의 목소리가 긴 침묵을 깨뜨렸다.

"이봐. 내가 괜히 쓸데없이 필기체를 배운 줄 알아!"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4권에서 계속됩니다.)

다. 네빌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누구라도 웃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우린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롱바텀 부인이 긴 초록색 장갑을 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모두 만나서 반갑구나. 네빌,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넣어라. 네 엄마가 준 껌 종이로 네 침실을 도배하고도 남겠구나."

하지만 해리는 네빌이 병실을 나가면서 그 껌 종이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다시 슬쩍 찔러 넣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문이 닫혔다.

"난 몰랐어."

헤르미온느는 당장에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도 몰랐어."

론은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나도."

지니가 속삭였다. 그리고 모두들 해리를 바라보았다.

"난 알고 있었어."

해리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아즈카반에 간 건 그것 때문이야.

네빌의

부모님이 미쳐 버릴 때까지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썼다고 했어."

"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그랬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몸서리를 치며 소리쳤다.

"크리처가 잠자리에 숨겨 놓은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이때 잔뜩 성이 난 록하트의 목소리가 긴 침묵을 깨뜨렸다.

"이봐. 내가 괜히 쓸데없이 필기체를 배운 줄 알아!"

제 24 장 오클러먼시

한편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던 크리처는 그동안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시리우스의 말에 따르면, 다락방에서 뾰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발견되었는데, 자신의 벽장 안에 숨겨 둘 블랙 가문의 유물들이 더 없을까 찾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시리우스는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는 왠지 마음이 찜찜했다. 다시 나타난 크리처는 전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보였다. 들으라는 듯이 혼자 종얼종얼하던 버릇도 사라졌고 평소보다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다. 해리는 크리처가 한두 번 악의에 찬 눈길로 그를 노려보는 것을

눈치 채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크리처는 번번이 다른 곳으로 얼른 시선을 돌렸다.

해리는 자신이 품고 있는 막연한 의혹을 시리우스에게는 털어놓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면서, 시리우스의 쾌활한 기분도 빠르게 사라졌다.

그들이 호그와트로 돌아갈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위즐리 부인이

'우울증'이라고 불렀던 증세도 점점 심해졌다. 그럴 때면 말수도 적어지고 통명스러워졌으며 종종 몇 시간 동안이나 벽벽의 방에 틀어박혀 있기도 했다.

시리우스의 우울한 기분은 마치 독가스처럼 집 전체에 퍼지고 문틈으로 스며들어, 마침내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감염되었다.

해리는 또다시 크리처와 시리우스, 단둘만 이 집에 달랑 남겨 둔 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호그와트로 돌아갈 날이 기다려지지 않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학교로 돌아가면, 그는 또다시 돌로레스 엠브릿지의 횡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없는 동안, 엠브릿지는 아마 또 다른 법령을 열두 개는 더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출전 금지까지 당했으니 앞으로는 손꼽아 기다릴 퀴디치 시합도 없었고,

시험에 다가올수록 숙제만 점점 더 많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게다가 덤블도어 교수와는 여전히 서먹서먹하기만 했다. D.A 만

없었더라면, 해리는 제발 호그와트에 가지 않고 그리볼드 광장에 남아 있게 해달라고 시리우스에게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학교에 돌아가기가 두려워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리."

위즐리 부인이 론과 해리의 침실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두 사람은 헤르미온느와 지니, 크록생크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법사 체스 게임을 하는 중이었다.

"잠깐 부엌으로 내려올래? 스네이프 교수님이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구나."

해리는 위즐리 부인의 말을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그의 성장 중 하나가 론의 졸과 한창 격전을 벌이는 중이라서,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납작 뭉개 버려. 뭉개 버리라고. 그 녀석은 한낱 졸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 명청아, 아, 위즐리 아줌마, 죄송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네이프 교수님이 부엌에서 기다리신다. 너랑 얘기하고 싶으시단다."

해리는 순간 덜컥 겁이 나서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 론과 헤르미온느와 지니를 둘러보았다. 그들 모두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십오 분 동안이나 헤르미온느의 손에 억지로 붙잡혀 있었던 크록생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얼씨구나 체스판 위로 얼른 뛰어 올라갔다. 그러자 체스 말들은 목청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우르르 도망쳤다.

"스네이프라고요?"

해리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스네이프 교수님 말이다, 얘야."

위즐리 부인이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자, 어서 가자. 별로 시간이 없으시다는구나."

"그 사람이 왜 널 보자는 거지?"

위즐리 부인이 방을 나가자, 론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넌 아무 짓도 안 했잖아. 안 그래?"

"물론이야!"

해리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스네이프가 그리몰드 광장까지 그를 쫓아올 만한 무슨 일을 한 건 아닐까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낸 숙제에 'T'를 받았을지도?

잠시 후에 부엌문을 열고 들어간 해리는 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시리우스와 스네이프를 발견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팽팽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시리우스 앞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저..."

해리는 조심스럽게 자기가 왔다는 걸 알렸다. 스네이프가 그를 돌아보았다. 기름기가 끈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앉아라, 포터."

"자네도 알겠지만, 이곳에서는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스네이프, 여긴 내 집이니까 말일세."

시리우스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정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순간 창백한 스네이프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후끈 달아올랐다. 해리는 스네이프를 식탁 너머로 마주 보면서 시리우스의 옆에 앉았다.

"포터, 난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블랙이..."

스네이프의 입가에 늘 보던 빈정거리는 미소가 떠올랐다.

"난 이 아이의 대부일세."

시리우스가 더욱더 목청을 높였다.

"난 덤블도어 교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네."

스네이프의 목소리는 반대로 점점 더 냉정하고 싸늘해졌다.

"하지만 부디 옆에 앉아 있어 주게나. 블랙, 자네가... 어디라도 끼고 싶어 안달하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지?"

시리우스는 의자를 뒤로 쾅 하고 쓰러뜨리면서 말했다.

"난 자네가 틀림없이... 그러니까 자네가 기사단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네."

스네이프는 '기사단을 위해서'라는 말에 살짝 힘을 주며 강조했다. 이번에는

시리우스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스네이프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포터, 교장 선생님께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번 학기에 네가 오클러먼시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뭘 공부하라고요?"

해리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러자 스네이프는 더욱더 경멸하는 미소를 지었다.

"오클러먼시라는 거다, 포터. 외부의 침투를 막기 위한 정신 방어술이지. 마법에서 갈라져 나간 일종의 정신술인데 그래도 상당히 쓸모가 있다."

해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외부의 침투를 막기 위한 정신 방어술이라고? 하지만 그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왜 제가 그 오클... 뭐라는 걸 공부해야 하는 거죠?"

해리는 엉겁결에 불쑥 말을 내뱉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니까."

스네이프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 개인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돌로레스 엉브릿지에게는 절대 들려선 안 돼. 알겠지?"

"네, 그런데 누가 저를 가르쳐 주시나요?"

스네이프가 한쪽 눈썹을 추켜올리며 말했다.

"바로 나다."

해리는 온몸에 소름이 짹 끼치면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스네이프와 별도의 수업을 또 해야 하다니... 세상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해리는 도움을 청하듯이 시리우스를 바라보았다.

"왜 덤블도어 교수가 직접 해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지?"

시리우스가 싸울 듯한 기세로 물었다.

"왜 하필 자네란 말이야?"

"별로 재미없는 수업은 다른 사람에게 떠맡길 수 있는 게 교장 선생의 특권 아니겠나?"

스네이프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내가 그 일을 자청한 게 아니란 걸 분명히 밝혀 두지."

스네이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터, 월요일 저녁 여섯 시에 내 방으로 오너라. 누가 물거든, 마법약 보충 수업을 받으려 간다고 말해. 아마 내 수업 시간에 네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을게다."

스네이프는 검은 망토 자락을 펄럭이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잠깐만."

시리우스가 의자에서 몸을 꽂꼿이 세우며 물었다. 스네이프는 능글맞게 웃으며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난 좀 바쁘다네. 블랙... 자네와는 달리, 나는 무한정 한가한 몸이 아니라서 말일세."

"그럼 요점만 말하지."

시리우스가 몸을 일으켰다. 해리는 그가 스네이프보다 약간 더 키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스네이프는 망토 호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지팡이를 꽉 잡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만약 오클러먼시 수업을 구실 삼아 해리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참으로 감동적이군."

스네이프가 빙정거렸다.

"하지만 자네도 포터가 제 아버지를 쑥 빼닮았다는 걸 진작 알아차렸겠지?"

"그야, 물론이지."

시리우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해리가 얼마나 건방진지도 알겠군. 웬만한 충고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스네이프가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자 시리우스는 거칠게 의자를 옆으로 밀치고 지팡이를 꺼내더니, 스네이프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 스네이프도 재빨리 자기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노려보았다. 시리우스의 얼굴은 납처럼 굳어져 있었고, 스네이프는 그의 지팡이 끝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열심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시리우스!"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시리우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내가 경고했지. 스니벌루스(스네이프를 어린 시절에 부르던 이름, 역주)."

시리우스가 스네이프 앞으로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말했다.

"덤블도어가 아무리 자네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해도 난 상관없어. 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오, 그렇다면 덤블도어에게 그렇게 말하지 그래?"

스네이프가 속삭였다.

"혹시 덤블도어가 여섯 달 동안이나 자기 엄마 집에 갇혀 지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어디 한번 말해 보시지. 요즘 루시우스 말포이는 어떻게 지내나? 아마 자기의 충실한 개가 호그와트에서 하는 짓을 보고 무척 기뻐하고 있겠지?"

"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번 자네가 잠깐 밖으로 나가는 위험한 짓을 했을 때, 루시우스 말포이가 자넬 알아본 걸 모르지?"

스네이프가 조용히 말했다.

"아주 영리하더군, 블랙. 안전한 기차역에 잠깐 모습을 나타내서, 앞으로 영영 이 은신처를 떠나지 않아도 될 확실한 핑곗거리를 만들 셈이었지, 안 그런가?"

시리우스가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안 돼요!"

해리가 고함을 지르며 식탁을 뛰어넘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시리우스, 안 돼요!"

"지금 나를 겁쟁이라고 하는 건가?"

시리우스가 으르렁거리며 해리를 옆으로 밀쳐 내려고 했다. 하지만 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 맞아."

스네이프가 말했다.

"해리... 당장... 옆으로 비켜!"

시리우스는 지팡이를 잡지 않은 손으로 그를 옆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면서 헤르미온느와 위즐리 가족 모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들 한가운데 줄무늬 잠옷을 입고 고무 방수 망토를 걸친 위즐리 씨가 자랑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다 나았단다!"

위즐리 씨가 부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명랑하게 소리쳤다.

"완전히 나았어!"

하지만 그 순간 위즐리 씨와 다른 모든 가족들은 입구에 딱 얼어붙어 서서 그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시리우스와 스네이프 또한 서로의 얼굴을 향해 지팡이를 겨눈 채,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돌아보았다. 한편 해리는

그들을 말리려고 두 팔을 양쪽으로 쭉 뻗은 채 두 사람 사이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런 세상에!"

갑자기 위즐리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썩 사라졌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시리우스와 스네이프는 동시에 지팡이를 내렸다. 해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경멸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뜻밖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보였다. 스네이프는 지팡이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확 돌아서더니 부엌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리고 단한

마디 말도 없이 위즐리 가족 옆을 지나쳐 가다가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섰다.

"월요일 저녁 여섯 시다, 포터."

그리고 그는 떠나 버렸다. 시리우스는 지팡이를 옆에 낀 채, 그 뒤를 한참 노려보았다.

"무슨 일인가?"

위즐리 씨가 다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네, 아서."

시리우스는 마치 한참을 달려온 사람처럼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저 옛날 학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뿐일세."

시리우스는 미소를 지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래... 자네는 다 나았나? 정말 기쁘군. 정말 기뻐."

"그렇죠?"

위즐리 부인이 남편을 의자로 데려가며 말했다.

"스메스윅 치료사가 결국 마법을 써서 뱀의 독에 대한 해독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서는 장난 삼아 머글 치료법을 쓴 것에 대해 빼저린 교훈을 얻었지요.

안 그래요, 여보?"

위즐리 부인은 거의 위협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 몰리."

위즐리 씨는 순순히 인정했다. 위즐리 씨가 무사히 다시 돌아왔으니, 그날

저녁 식사는 당연히 즐겁고 유쾌한 것이 되어야 마땅했다. 해리의 눈에도

시리우스가 어떻게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대부는 프레드와 조지의 농담을 듣고도 웃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더 권하지도 못했다. 그의 얼굴은 우울하고 원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해리는 위즐리 씨에게 축하 인사를 하려고 잠깐 들른 먼던구스와 매드아이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시리우스에게 스네이프가 한 말을 한 마디도 귀담아듣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

스네이프는

일부러 그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며, 시리우스가 덤블도어의 지시대로

그리울드

광장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그를 겁쟁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리우스의 험악한 표정을 보니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감히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 대신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작은 소리로 스네이프와 오클러먼시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네가 볼드모트에 대한 꿈을 꾸는 걸 막고 싶으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너도 그런 꿈을 더 이상 꾸고 싶지 않겠지, 안 그래?"

"스네이프와 별도의 수업을 더 한다고?"

론이 기가 막힌 듯이 물었다.

"나라면 차라리 악몽을 꾸는 편을 택하겠다."

다음 날 그들은 또다시 통스와 루핀의 호위를 받으며 구조버스를 타고 호그와트로 되돌아갈 예정이었다. 아침이 되어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은 벌써 아침을 먹고 있었다. 해리가 부엌문을 열자, 원가 작은 소리로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했던 어른들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더니 얼른 입을 다물었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끝낸 후 그들은 모두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차가운 1월의 아침 공기 속으로 나갔다. 해리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다. 해리는 시리우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 언제 서로 다시 만날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다. 그리고 시리우스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뭔가 한마디 말을 해주는 것이 그의 의무처럼 느껴졌다. 해리는 겁쟁이라는 스네이프의 비난에 너무 자극을 받아서 시리우스가 혹시라도 그리울드 광장을 벗어나 어딘가 떠나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이걸 받으렴."

시리우스는 아무렇게나 포장한, 작은 책만 한 크기의 뭔가를 해리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게 뭐죠?"

해리가 물었다.

"스네이프가 널 괴롭히면 이걸로 나에게 알려 주렴. 아니, 여기서 열면 안 돼!" 시리우스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위즐리 부인을 슬쩍 쳐다보았다. 부인은 병어리장갑을 끼고 가라고 쌍동이 형제를 설득하는 중이었다.

"롤리가 보면 싫어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걸 쓰도록 해라, 알았지?"

"알았어요."

해리는 포장지에 쓴 것을 외투 안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걸 해리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오클러먼시 수업 시간에 스네이프가 그를 괴롭힌다고 해도, 시리우스를 안전한 은신처에서 나오도록 불러낼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그럼, 가자."

시리우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해리의 어깨를 톡 쳤다. 그리고 해리가 미처 뭐라고 다른 말을 꺼낼 틈도 없이 두 사람은 위즐리 식구들에게 훙싸인 채,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중삼중 열쇠가 달린 현관문 앞에 섰다.

"잘 가라. 해리, 몸조심해."

위즐리 부인이 그를 껴안았다.

"해리, 나중에 보자. 부디 뱀을 잘 감시해 다오!"

위즐리 씨가 악수를 하며 쾌활하게 말했다.

"네, 알겠어요."

해리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지금이 시리우스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해리는 뒤로 돌아서서 대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며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시리우스가 한 팔로 그를 잠깐 껴안더니 순 목소리로 말했다.

"몸조심해라, 해리."

다음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 해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바깥에 나와 있었다. 통스(오늘은 회색 머리에 키가 크고 여유 있어 보이는 부인으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계단 아래로 마구 그를 몰아갔다.

12 번지의 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쾅 닫혔다. 그들은 루핀의 뒤를 따라서 현관 계단을 내려갔다. 보도에 내려서자,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양쪽 옆의 건물이

옆으로 쭉 늘어나면서 12 번지 집이 점점 쪼그라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어서 와라. 버스를 빨리 탈수록 더 좋아."

통스가 그들을 재촉했다. 해리는 광장을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이 무척 초조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때 루핀이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쾅.

진한 보랏빛의 3 층버스가 허공에서 불쑥 나타났다. 버스는 아슬아슬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로등을 피해서 뒤로 살짝 물러났다.

호리호리하고 귀가 불쑥 튀어나온 여드름투성이의 젊은이가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버스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환영합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요. 고마워요."

통스가 재빨리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 자, 어서 타. 어서."

통스는 해리는 먼저 계단으로 올려 보냈다. 그가 차장 옆을 지나치자, 차장은 두 눈을 부릅떴다.

"어... 너... 너는 해애...!"

"만약 그의 이름을 말하면, 기억력을 지우는 주문을 쏘겠어."

통스는 지니와 헤르미온느를 앞으로 떠밀면서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난 항상 이걸 타 보고 싶었어."

론은 신이 나서 해리와 함께 버스에 올라타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지난번 해리가 구조 버스에 탔을 때에는 저녁 시간이어서, 총마다 침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침 시간이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온갖 종류의 의자들이 창문 주위에 뒤죽박죽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의자는 버스가 그리볼드 광장에 갑자기 멈춰 섰을 때, 뒤집힌 것 같았다. 몇몇 마녀와 마법사들은 아직도 투덜거리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누군가의 쇼핑백이

버스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개구리 알과 바퀴벌레와 커스터드 크림이 온 바닥에

흘어져 있었다.

"나눠서 앉아야 할 것 같구나."

통스가 빈 의자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씩씩하게 말했다.

"프레드, 조지, 지니, 너희들이 이 뒷자리에 앉으면, 리무스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통스와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꼭대기 층으로 계속 올라갔다. 그곳에는 제일 앞쪽에 두 자리가 비어 있었고, 뒤쪽에 또 두 자리가 비어 있었다. 차장인 스텐 션파이크가 열심히 뒷자리까지 해리와 론을 따라왔다. 해리가 옆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마침내 자리에 앉았을 때, 해리는 모든 얼굴이 다시 앞으로 휙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해리와 론이 각자 스텐에게 11시클을 내자, 버스가 심하게 요동을 치며 출발했다. 버스는 보도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리볼드 광장 주변을 덜컹거리며 돌아다니더니 또다시 광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순간 모든 승객들의 몸이 뒤로 쓸렸다. 그 바람에 론의 의자가 휙 뒤집히면서 그의 무릎

놓여 있던 피그위존이 새장 속에서 뛰쳐나와 요란하게 날개를 퍼덕거리며 버스 앞쪽으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헤르미온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반면 잽싸게 버스 손잡이를 붙잡아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간신히 피한 해리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이제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길을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버밍엄을 막 빠져나왔어."

스텐은 해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이 나서 떠들었다. 한편 론은 몸을 벼동거리며 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잘 지냈니, 해리? 여름 동안 신문에서 네 이름을 여러 번 봤어. 좋은 이야기는 한 번도 없더군... 나는 어니에게 말했지.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그냥 쇼일 거야, 안 그래' 하고 말이야."

스텐은 그들에게 표를 건네준 후에도 놋이 빠져서 해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스텐은 신문에 이름이 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제정신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구조 버스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안쪽 차선에 있는 차들을 마구 추월했다. 버스 앞쪽을 바라보던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았다. 피그위존은 그녀의 어깨에 매달린 채, 신이 나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었다.

쾅.

구조 버스가 버밍엄 고속도로에서 구불구불한 모퉁이가 끝없이 이어지는 한적한 시골길로 펄쩍 뛰어내리자, 버스 안 의자들이 또다시 뒤로 쭉

미끄러졌다. 버스가 도로의 가장자리를 침범할 때마다, 길 양쪽 편에 서 있는 울타리나무들이 제자리에서 퉁겼다. 여기서 다시 버스는 혼잡한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대로를 지나서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구름다리로 올라갔다가, 고층 아파트들 사이의 바람이 쌩쌩 부는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때마다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난 생각이 달라졌어."

여섯 번째로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론이 중얼거렸다.

"난 두 번 다시 이런 건 타고 싶지 않아."

"이봐, 다음 정거장이 호그와트야."

스탠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명랑하게 말했다.

"너랑 같이 탔던 저 앞에 앉은 월가닥 여자가 널 제일 먼저 앞으로 옮겨 달라고 우리에게 약간의 돈을 찔러주더군.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시 부인을 내려 줘야 해."

아래층에서 웨웨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짹짝 쏟아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이어졌다.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해서 말이야."

몇 분 후에 구조 버스는 끼익 소리를 내며 작은 술집 앞에 멈춰 섰다. 술집은 버스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얼른 몸을 움츠렸다.

이윽고 스탠이 지쳐 보이는 마시 부인을 버스에서 서둘러 하차시키는 소리와 더불어, 부인과 함께 탔던 2층의 승객들이 비로소 안도하며 응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출발한 버스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쾅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제 그들은 눈 덮인 호그스미드 마을을 달려가고 있었다. 옆 골목 저 안쪽에 있는 호그스 해드가 슬쩍 해리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목이 잘린 멧돼지 머리 간판이 겨울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다. 눈발이 버스의 커다란 앞 유리창을 때렸다. 마침내 버스는 호그와트 정문 앞에 멈춰 섰다.

루핀과 통스는 버스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준 다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다. 해리는 구조 버스의 3층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유리창에 코를 짓누르며 열심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단 학교 안으로만 들어가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통스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잘 지내렴, 알았지?"

"몸조심해라."

루핀이 아이들가 일일이 악수를 나누더니 마지막으로 해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통스와 작별 인사를 주고받는 동안, 잔뜩 목소리를 낮추며

재빨리 속삭였다.

"해리, 네가 스네이프를 싫어한다는 건 잘 안다만, 그는 최고의 오클러먼스란다. 우리 모두, 시리우스까지도 네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라고 있어. 그러니 열심히 하거라, 알았지?"

"알았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해리는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루핀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울하게 대답했다.

여섯 명은 트렁크를 질질 끌며 성을 향해서 미끄러운 길을 힘들게 걸어 올라갔다. 헤르미온느는 벌써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요정 모자를 몇 개 더 떼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떡갈나무 현관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해리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구조 버스는 벌써 떠나고 없었다. 해리는 당장 내일 저녁에 닥칠 일을 생각하니 차라리 저 버스에 계속 타고 있는게 나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은 온종일 저녁이 오는 걸 두려워하며 지냈다. 그날 오전에 있었던 마법약 수업은 그의 걱정을 조금도 덜어 주지 못했다. 스네이프는 늘 그렇듯이 불쾌하기 짹이 없었다. 더구나 D,A 회원들이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복도로 그를

찾아와서 오늘 밤에 모임을 가질 수 없느냐고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오자, 해리는 더욱더 속이 상했다.

"다음 모임 날짜에 대해서는 늘 쓰던 방법을 통해서 알려 줄게."

해리는 몇 번이나 거듭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할 수 없어. 나...나는 저... 마...마법약 보충 수업을 받으려

가야 하거든."

"너, 마법약 보충 수업을 받고 있니?"

점심 시간 이후에 현관 복도에서 해리를 불잡은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얇잡아 보는 말투로 물었다.

"세상에, 성적이 아주 형편없는 모양이구나. 스네이프는 웬만해서는 보충 수업 같은 건 안 해주는데, 안 그래?"

스미스가 얄미울 정도로 으쓱거리며 걸어가자, 론이 그 뒤를 노려보며 말했다.

"저주라도 한 방 먹일까? 아직은 여기서도 명중시킬 수 있어."

"그냥 내버려 둬. 다들 곧 그렇게 생각할 텐데 뭐, 안 그래? 내가 정말로 화나는 건..."

해리가 힘없이 말했다.

"안녕, 해리."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누군지 돌아봤다.

"오, 안녕."

해리는 뱃속이 불편하게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 있을게, 해리."

헤르미온느가 론의 팔꿈치를 꽉 잡고서 대리석 계단 위로 질질 끌고 갔다.

"크리스마스 잘 보냈니?"

초가 물었다.

"응, 좋았어."

해리가 말했다.

"난 아주 조용하게 지냈어."

초는 웬지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음... 다음 달에 호그스미드 방문이 있던데, 혹시 그 공고를 보았니?"

"뭐라고" 아, 아니. 학교에 온 후로 아직까지 게시판을 살펴보지 못했어."

"그날은 발렌타인데이잖아..."

"그럴구나."

해리는 도대체 초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혹시 너도..."

"너만 괜찮으면 난 좋아."

초가 재빨리 대답했다. 해리는 눈이 휙둥그래졌다. "너도 다음 D,A 모임이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니?"라고 물으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초의 대답은 영 엉뚱했다.

"나는... 저..."

해리가 머뭇거렸다.

"오, 네가 싫다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나중에 보자."

초는 자존심이 상한 표정으로 걸어가 버렸다. 해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돌아가더니, 그 순간 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다.

"초! 이봐... 초!"

그녀의 뒤를 황급히 쫓아간 해리는 대리석 계단 중간에서 그녀를 불잡았다.

"저... 발렌타인데이때 나랑 호그스미드에 가지 않을래?"

"그래!"

초가 얼굴을 붉히며 활짝 웃었다.

"좋아...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

해리는 어쨌든 오늘이 전혀 무의미한 하루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론과 헤르미온느를 만나기 위해 도서관까지 말 그래도

껑충껑충 신나게 뛰어갔다.

하지만 여섯 시가 가까워지자, 초 쟁에게 성공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기쁨조차도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스네이프의 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시시각각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방문 앞에 이르자, 해리는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만 아니면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해리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린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방 안에는 선반 위에 수백 개의 유리병이 늘어서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물컹물컹한 동물과 식물들이 온갖 색깔의 마법약 속에 담겨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한때 해리가 훔쳐갔다고 의심을 받았던(전혀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었다) 마법약 재료들이 가득 든 진열장이 있었다. 해리는 책상 위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룬 문자와 상징들이 새겨진 얇팍한 돌 대야만이 촛불 아래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해리는 당장 그것이 덤블도어의 펜시브라는 걸 알아차렸다.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의아해하고 있던 그는 어둠 속에서 스네이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문을 닫아라, 포터."

해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웬지 감옥에 갇히는 듯한 꿈쩍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문을 닫고 다시 돌아오자, 스네이프는 밝은 곳으로 걸어 나오면서 말없이 해리에게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해리는 자리에 앉았다. 스네이프는 눈도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차가운 까만 눈으로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 구석구석에 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다.

"포터,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너도 알고 있을 게다. 교장 선생님께서 너에게 오클러먼시를 가르쳐 주라고 부탁을 하셨지. 난 네가 마법약 수업 시간보다는 좀

더 잘하길 바랄 뿐이다."

"알겠습니다." 해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물론 이건 일반 수업이 아니다. 포터."

스네이프는 살벌한 적의를 내뿜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너의 선생님이니까, 항상 나를 '선생님' 혹은 '교수님'이라고 불러라."

"네... 선생님." 해리가 대답했다.

"이제, 오클러먼시를 시작해 볼까. 내가 너의 사랑하는 대부분의 집 부엌에서 말했듯이. 마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정신술은 마법적인 침투와 지배를 막기 위해 정신을 봉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덤블도어 교수님께서는 왜 제가 이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해리는 스네이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하게 여겼다.

스네이프는 한동안 그를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리 너라도 지금쯤은 그 이유를 알아차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포터? 어둠의 마왕은 레질리먼시에 아주 뛰어나다..."

"그게 뭐죠, 선생님?"

"그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과 기억을 빼앗는 능력이지."

"생각을 읽을 수도 있나요?"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포터, 넌 정말 둔하구나."

스네이프가 검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너는 미묘한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마법약 제조에 그토록 서툰 것도 다 그런 결정 때문이야."

스네이프는 잠깐 동안 말을 멈추고 해리를 마음껏 구박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같았다.

"오직 머글들이나 '독심술' 운운하고 떠드는 법이지. 생각은 책이 아니야.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두개골 속에 생각이

새겨져 있어서 누구든 머릿속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정신이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 포터. 아니, 적어도 대개는 그래."

스네이프가 능글맞게 웃었다.

"하지만 레질리먼시에 통달한 사람은 특정 조건이 되면, 희생자의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서 자신이 찾아낸 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둠의 마왕은 누군가 그에게 거짓말을 하면 거의 언제나 즉시 알아차리지. 오직 오클러먼시를 습득한 사람만이 그 거짓말과 모순되는 감정과 기억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들키지 않고 그자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스네이프가 뭐라고 말하든, 해리의 귀에는 레질리먼시가 독심술과 똑같은 것처럼 들렸다. 그러므로 해리는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럼 그자는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선생님?"

"어둠의 마왕은 지금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고, 호그와트의 벽과 운동장에는 이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안전하게 지켜 주기 위한 수많은 고대 주문들이 걸려 있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마법에서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 문제가 된다, 포터. 레질리먼시의 경우에는 종종 눈을 마주치는 것이 필수적이지."

"그렇다면 왜 제가 오클러먼시를 배워야 하는 거죠?"

스네이프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며 해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포터, 일반적인 규칙은 네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너를 죽이는 데 실패한 그 저주가 너와 어둠의 마왕 사이에 일종의 끈 같은 것을 연결시킨 모양이야. 그 증거로, 너는 가끔 네 정신이 가장 해이해지고 침투하기 쉬워질 때,

가령 잠을 자거나 할 때, 어둠의 마왕과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게 되지. 교장 선생님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둠의 마왕이 네 생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신 거란 말이다."

해리의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왜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걸 막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해리가 불쑥 물었다.

"저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꽤 쓸모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 말은..."

그러니까... 뱀이 위즐리 씨를 공격하는 걸 제가 보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덤블도어 교수님이라 해도 위즐리 씨를 구하지 못했을 게 아닌가요? 네, 선생님?"

스네이프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며 한동안 해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치 한 마디 한 마디 무게를 재듯이 아주 신중한 태도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둠의 마왕은 너와 자신 사이에 이런 연결선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까지는 네가 그의 감정을 경험하고, 그의 생각을 공유해도 그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 하지만 네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본 환상은..."

"뱀과 위즐리 씨를 본 것 말인가요?"

"포터, 내 말에 끼여들지 마라."

스네이프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네가 본 환상은 어둠의 마왕의 생각 속으로 강력하게 침입했다는 걸 보여 주고..."

"전 그자가 아니라, 뱀의 머릿속으로 들어갔었어요!"

"포터, 내가 방금 너에게 끼여들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하지만 해리는 스네이프가 아무리 화를 내도 상관없었다. 마침내 이 일의 진상이 밝혀지려는 순간이었다. 해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잔뜩 긴장해서

의자 끝에 걸터앉았다.

"만약 제가 볼드모트와 생각을 공유한다면, 어떻게 뱀의 눈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둠의 마왕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스네이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동안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펜시브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보았다.

"덤블도어 교수님도 그자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는 대단히 위대한 마법사다."

스네이프가 중얼거렸다.

"그분은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지. 하지만... 나머지 우리들은..."

스네이프는 무의식중에 자신의 왼쪽 팔뚝을 문질렀다. 해리는 그곳에 어둠의 표식이 낙인 찍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 단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해리는 최대한 공손한 어조로 말하려고 애를 쓰면서 다시 말을 꺼냈다.

"도대체 왜..."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의 마왕이 그 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도 뱀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던 거야."

스네이프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때 그자가 뱀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도 뱀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꿈을 꾼 거고 말이야."

"보...볼... 아니, 그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까요?"

"그런 것 같다."

스네이프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그렇게 짐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해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내가 말했지. 나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선생님'을 불이라고."

스네이프가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네, 선생님.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셨죠?"

해리가 재촉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스네이프가 딱 잘라 말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어둠의 마왕이 네가 그의 생각과 감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을 반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네 생각과 감정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저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할까요? ...선생님?"

해리는 황급히 덧붙였다.

"그럴 수 있지."

스네이프가 냉정하고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다시 오클러먼시로 돌아가 볼까?"

스네이프가 망토 안쪽 호주머니에서 지팡이를 꺼내 드는 것을 보고, 해리는 잔뜩 긴장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지팡이를 자신의 관자놀이까지 들어 올리더니

그 끝을 기름이 잔뜩 낀 머리카락 밑에 갖다 댔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지팡이를

떼자, 어떤 은빛 물질이 관자놀이에서부터 굵은 거미줄 같은 것을 늘어뜨리며 따라 나왔다. 스네이프가 지팡이를 옆으로 치우자, 그것은 펜시브 속으로 하늘하늘 떨어졌다. 펜시브 안에서는 가스도 액체도 아닌, 은백색 물질이 소용돌이쳤다. 스네이프는 그 후로도 두 번 더 지팡이를 관자놀이에 갖다 대었다가, 은빛 물질을 돌 대야 속으로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펜시브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조금 떨어진 선반 위로 치우더니 손에 지팡이를 움켜쥔 채, 해리 앞으로 돌아왔다.

"포터, 일어서서 네 지팡이를 뽑아라."

해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섰다.

"너는 내 지팡이를 빼앗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너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뭘 하실 건데요?"

해리는 겁먹은 눈초리로 스네이프의 지팡이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네 생각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스네이프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네가 얼마나 잘 저항하는지 보겠다. 네가 임페리우스 저주를 막아내는 재능을 보였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다. 여기에도 그와 비슷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다. 정신 바짝 차려라. 자 레질리멘스!"

스네이프는 해리가 미처 준비가 되기도 전에 주문을 날렸다. 저항할 힘을 끌어모을 틈도 없었다. 해리의 눈앞에서 방이 출렁거리더니 곧 사라졌다.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이, 장면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훑휙 스치고 지나갔다. 그 광경이 어찌나 선명했던지 주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섯 살이었다. 새로 산 빨간 자전거를 타고 있는 두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질투심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이제 아홉 살, 불독리퍼가

그를 쫓아와서 나무 위로 도망쳤다. 더즐리 가족들은 나무 밭 잔디밭에서 배꼽을

움켜쥐고 웃고 있고... 이제 그는 마법의 모자를 쓰고 앉아 있다... 마법의 모자는

그가 슬리데린에 가면 아주 잘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얼굴에 온통 시커먼 털이 난 헤르미온느가 병실에 누워 있었다... 백 명의 디멘터들이 검은 호수 옆에

있는 그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겨우살이 밑에서 초 챙이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안 돼. 초의 기억이 차츰 떠오르자, 해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보여 줄 수 없어. 이건 보여 줄 수 없어. 이건 비밀스런 기억이야...

순간 해리는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스네이프의 방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고, 해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쪽 무릎을 스네이프의

책상 다리에 심하게 부딪혔던 것이다. 해리는 스네이프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뜨린 채, 손목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쏘기 주문을 걸 생각이었냐?"

스네이프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해리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다."

스네이프는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너는 내가 깊숙이 들어가는 걸 내버려 두었어. 통제력을 잃은 거야."

"그럼 제가 본 걸 모두 다 보셨나요?"

해리는 이렇게 물으면서도, 과연 스네이프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건지 자신이 없었다.

"잠깐잠깐 보았지."

스네이프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 개는 누구네 집 개냐?"

"마지 아줌마네 개예요."

해리는 스네이프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처음 시도치고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스네이프가 또다시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어쨌든 나를 간신히 막아 내긴 했으니까. 하지만 고함을 지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어. 끝까지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네 머리로 나를 막아 내라. 그러면 네 지팡이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거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해리가 화를 냈다.
"포터, 예의를 잊지 마라."
스네이프가 경고했다.
"이제 눈을 감아라."
해리는 혐오하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다가 결국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지팡이를 든 스네이프를 앞에 둔 채, 눈을 감고 서 있다는 것이 못내 꺼림칙했다.
"마음을 비워라, 포터."
스네이프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감정을 털어 버려..."
하지만 스네이프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독약처럼 그의 피속에서 들끓었다. 그에 대한 분노를 버리라고? 차라리 두 다리를 떼어 버리는 게 더 쉬울 것이다...
"포터,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훈련이 좀더 필요하겠다... 이제 정신을 집중해라..."
해리는 마음을 비우려고 애썼다. 어떤 생각도, 기억도, 감정도 가지지 않으려고...
"다시 한 번 해보자. 셋을 세겠다... 하나... 둘... 셋... 레질리멘스!"
거대한 검은 용이 그의 눈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망의 거울 뒤에서 그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 케드릭 디고리가 텅 빈 눈을 부릅뜬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아...아...안 돼!"
해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시 털썩 무릎을 끌고 주저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두개골 속에서 뇌를 빼내려고 한 것처럼,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다.
"일어나!"
스네이프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일어나라니까! 넌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아무것도 말이야. 넌 네가 두려워하는 기억에 접근하도록 나를 내버려두었던 말이다! 그건 내 손에 무기를 줘어주는 꼴이야!"
해리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묘지에서 죽은 케드릭의 모습을 방금 다시 본 것처럼 그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스네이프는 평소보다 더욱 창백하게 질리고 잔뜩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리만큼은 아니었다.
"저도... 노력...하고...있어요!"
해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네 감정을 다 비우라고 말했지!"
"그래요? 지금은 그러기가 무척 힘들군요."
해리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렇다면 넌 어둠의 마왕의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야!"
스네이프가 사납게 돌아세웠다.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명청이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슬픈 기억을 떠올리며 징징거리고 쉽게 화를 내는 바보들, 한마디로 나약한 인간들은 절대로 그의 힘에 맞설 수가 없단 말이다! 포터, 그자는 너무나도 쉽게 네 마음속으로 들어올 거야!"
"전 나약하지 않아요."
해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가 마구 치밀어서 당장에라도 스네이프를

공격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럼 그걸 증명해 봐! 너 자신을 통제해 보란 말이다!"

스네이프가 소리쳤다.

"너의 분노를 다스리고 너의 정신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해보겠다! 자, 준비!
레질리멘스!"

백 명의 디멘터들이 운동장에 있는 호수를 가로질러 그를 향해 미끄러져
왔다... 그는 위즐리 씨와 함께 창문이 없는 복도를 따라 질주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검은 문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해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위즐리 씨는 그를 왼쪽으로 잡아끌더니 돌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알았어! 알았다!"

그는 다시 스네이프의 방바닥에 나자빠져 있었다. 그의 흉터가 기분 나쁘게
쿡쿡 쑤셨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의기양양한 외침이 흘러나왔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해리는 지팡이를 치켜든 채, 그를 쳐다보고 있는 스네이프를 보았다.
이번에는 해리가 맞서 싸우려고 하기도 전에 스네이프가 먼저 주문을
거두어들인 것 같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포터?"

스네이프가 해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다.

"전 보았어요. 이제 생각나요."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방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는 거냐?"

스네이프가 날카롭게 추궁했다. 하지만 해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가만히
이마의 흉터를 문지르며 갑작스런 깨달음의 순간을 잠시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이나 창문이 없는 긴 복도 끝에 굳게 잠긴 문이 있는 꿈을
꾸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곳이 어디인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
기억을 떠올리고 나니, 그의 꿈속에 출곧 나왔던 그곳이, 지난 8월 12일에
마법부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법정으로 가기 위해 위즐리 씨와 함께 황급히
달려갔던 그 복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곳은 미스터리 부서로 가는
복도였다. 볼드모트의 뱀에게 공격을 당하던 날 밤에 위즐리 씨는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미스터리 부서에는 뭐가 있죠?"

"그게 무슨 소리지?"

스네이프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가 움찔하고 겁을 내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심 만족스러웠다.

"미스터리 부서 안에 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해리가 물었다.

"그런데 그런 건 왜 물는 거냐?"

스네이프가 천천히 말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본 복도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제 꿈속에
나타났었는데, 바로 미스터리 부서로 향하는 통로라는 걸 방금 깨달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볼드모트가 거기서 뭔가를..."

해리는 반항하듯 스네이프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둠의 마왕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해리의 흉터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스네이프는 몹시 흥분한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냉정하고 무관심한척 보이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포터, 미스터리 부서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넌 이해하지도 못할뿐더러

너랑은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이지. 알겠냐?"

"네."

해리는 쿡쿡 쑤시는 흉터를 손으로 문지르며 대답했다. 이마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수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너라. 그때 연습을 계속하자."

"알겠습니다."

해리는 어서 스네이프의 방을 벗어나서 론과 헤르미온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모든 감정을 다 털어 버려야 한다.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평온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거야, 알았나?"

"네."

해리는 그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들으며 대충 대답했다.

"경고하겠다. 포터... 네가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알겠습니다."

해리는 재빨리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친 다음,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을 연 해리는 어깨 너머로 스네이프를 힐끗 돌아보았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지팡이 끝으로 펜시브 안에 들어 있는 자신의 생각을 건져 올리더니 다시 자기 머릿속으로 집어 넣고 있었다. 해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을 살짝 닫고 나왔다. 그의 이마는 여전히 견딜 수 없이 아팠다.

해리는 도서관에서 론과 헤르미온느를 찾아냈다. 그들은 엉브릿지가 최근에 내준 숙제를 하고 있었다. 5학년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불이 밝혀진 책상 앞에 앉아서 책에 코를 박은 채, 정신없이 뭔가를 쓰고 있었다. 한편 창살이 쳐진 창밖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이따금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빼걱거리는 핀스 부인의 구둣발소리뿐이었다. 이 도서관 사서는 위협적으로 도서관 통로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귀중한 책을 만지고 있는 학생들의 목덜미를 썩썩거리며 내려다보았다.

해리는 오싹 몸이 떨렸다. 이마의 통증은 사라질 줄 몰랐다. 웬지 열이 나는 것 같았다. 론과 헤르미온느의 맞은편에 앉는 순간,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하얗게 질린 얼굴 때문에 평소보다 흉터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어땠어?"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런 얼굴로 속삭였다.

"괜찮니, 해리?"

"음... 괜찮아... 잘 모르겠어."

해리는 또다시 통증이 밀려오자,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있잖아... 방금 전에 깨달은 게 있어..."

해리는 조금 전에 자신이 본 장면과 자신의 추측을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네 말은..."

핀스 부인이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옆으로 지나가자, 론은 더욱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사람이 찾고 있는 무기가... 마법부 안에 있단 말이지?"

"미스터리 부서 안에 있어."

해리가 속삭였다.

"내 청문회 때 너희 아버지가 나를 법정까지 데려다 주실 때, 그 문을 본 적이 있어. 뱀이 아저씨를 물었을 때 아저씨가 지키고 있었던 바로 그 문이 틀림없다니까."

헤르미온느가 천천히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한 일이야."

"뭐가 당연하다는 거야?"

론이 성급하게 물었다.

"론, 한번 생각해 봐... 스터지스 포드모어도 마법부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 아마 틀림없이 같은 곳이었을 거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잖아!"

"스터지스는 우리 편인데 왜 거길 들어가려고 했을까?"
론이 의문을 제기했다.
"나도 몰라. 그건 좀 이상하긴 해..."
"그런데 미스터리 부서에 있는 게 뭘까?"
해리가 론에게 물었다.
"혹시 너희 아버지가 원가 말씀하신 적 없니?"
"흔히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없는 자'라고 부른대."
론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있다니 좀 이상해."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거야말로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걸."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건 아마도 마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최고의 극비 사항일 거야. 그런데 해리... 너 정말 괜찮은 거니?"
해리가 마치 이마의 흉터를 펴 버리려는 듯이 두 손으로 세게 문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응... 괜찮아..."
해리는 파르르 떨리는 손을 내리며 말했다.
"그냥 좀 기분이... 오클러먼시는 별로 내키지 않아."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머릿속을 자꾸 침범당하고 나면 떨리는 기분이 들 거야."
헤르미온느가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휴게실로 가자. 거기라면 좀 편할 거야."
하지만 휴게실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소음으로 떠나갈 듯했다. 프레드와 조지가 그들 장난감 가게의 가장 최근 상품을 선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가 없어지는 모자입니다!"
조지가 소리치자, 프레드는 나풀거리는 분홍색 깃털로 장식한 뾰족한 모자를 구경하는 학생들 앞에 흔들어 보였다.
"한 개에 2 갈레온입니다. 자, 프레드를 보십시오!"
프레드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이 한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의 모자와 머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몇몇 여자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다시 벗겠습니다!"
조지가 소리쳤다. 프레드의 손이 한동안 어깨 위에 있는 허공을 더듬는 듯하더니, 분홍색 깃털이 달린 모자를 벗는 순간 그의 머리가 다시 나타났다.
"저 모자를 어떻게 한 거지?"
헤르미온느는 숙제를 하다 말고 프레드와 조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저건 분명 일종의 투명 마법인 것 같은데, 마법에 걸린 물건 밖에 있는 사물까지 눈에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꽤 놀라운걸... 하지만 저 마법은 효력이 별로 오래갈 것 같지 않아..."
해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기분이 몹시 안 좋았다.
"나는 내일 해야겠어."
해리가 가방 안에서 꺼낸 책을 도로 집어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네 숙제 계획장에 그렇게 써!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헤르미온느가 격려하듯이 말했다.
해리와 론은 서로를 힐끔 쳐다보았다. 해리는 가방 속에서 숙제 계획장을 꺼내어 조심조심 펼쳐 들었다.
"나중까지 미루지 마, 이 열등생아!"
해리가 엄브릿지의 숙제를 적자, 숙제 계획장이 큰 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헤르미온느는 그걸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난 그만 자러 가야겠어."
해리는 숙제 계획장을 다시 가방 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벽난로 속에 반드시 이걸 던져 버리겠다고 결심했다.

해리는 그에게 머리가 없어지는 모자를 씌우려고 하는 조지를 피해서 휴게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남학생 침실로 가는 돌계단은 고요하고 서늘했다. 꿈속에서 뱀을 보았던 그날 밤처럼 다시 온몸이 아파 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침실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누군가 그의 머리를 반으로 자르는 것처럼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해리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서 있는지 앓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렸다.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했다. 흥겹고 황홀하고 의기양양했다. 뭔가 놀라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해리? 해리!"

누군가 그의 얼굴을 쳤다. 미친 듯한 웃음소리는 고통스런 비명 소리로 끝났다. 행복했던 기분은 사라졌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졌다... 간신히 눈을 뜯 해리는 자신의 입에서 그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웃음소리가 뚝 멈추었다. 해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이마의 흉터가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론은 몹시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론이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해리는 다시 일어나 앓으며 중얼거렸다.

"그자가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 아주..."

"그 사람 말이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해리는 중얼거렸다. 뱀이 위즐리 씨를 공격하는 걸 보았을 때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토했 것 같았다.

"뭔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그린핀도르 팀 탈의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낯선 사람이 그의 입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해리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론의 옷에 먹은 걸 뭉땅 토하지 않으려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이번에는 딘과 시무스가 옆에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다.

"헤르미온느가 널 한 번 살펴보라고 했어."

론은 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도와주었다.

"헤르미온느 말이, 스네이프가 네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녔으니 네 방어력이 약해졌을 거라는 거야. 그래도 그 훈련이 결국에는 너에게 도움이 되겠지? 안 그래?"

론은 침대까지 해리를 부축해 가면서, 의심스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대 위에 폭 쓰러졌다. 그의 상처는 여전히 날카롭게 쑤셨다. 첫 번째 오클러먼시 경험이 그의 정신 저항력을 키워 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14년 동안 생전 처음 느낀 그런 행복감을 볼드모트에게 안겨 주었을까, 해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생각했다.

제 25 장 궁지에 놓린 딱정벌레

해리의 의문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풀렸다. '예언자 일보'가 도착하자, 신문을 펼쳐 들고 1면을 살펴보던 헤르미온느가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갑자기 혁하고 비명을 질렀다.

"왜 그래?"

해리와 론이 동시에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대답 대신 그들 앞에 신문을 펼쳐 보이며, 전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아홉 명의 마법사와 한 명의 마녀 얼굴이 실려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각 사진들 밑에는 이름과 이들이 아즈카반으로 가게 된 죄목이 적혀 있었다.

안토닌 돌로호브, 파리하고 일그러진 긴 얼굴로 능글맞게 웃고 있는 한 마법사 사진 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기디언과 패비안 프레웨트의 살해범으로 기소됨.

어거스투스 록우드, 머리에 기름이 잔뜩 끼고 얼굴에 심한 곰보 자국이 있으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사진 가장자리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마법사 밑에는

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에게 마법부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기소됨.

하지만 해리의 시선은 자꾸만 마녀의 사진에 끌렸다. 신문을 펼쳐 드는 순간부터 그 마녀의 얼굴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다. 사진 속에 보이는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손질을 하지 않아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분명 그 머리카락이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고 숨이 많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리깔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얇팍한 그녀의 입가에는 거만하고 무시하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시리우스처럼 그녀는 상당히 아름다웠을 것 같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어쩌면 아즈카반이, 그 아름다움의 대부분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보였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 프랭크와 앤리스 롱바텀을 고문하고 영원히 미치게 만든 죄목으로 기소됨.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눈짓을 하며 사진 위의 제목을 가리켰다. 해리는 벨라트릭스에게 정신이 팔려서 아직까지 그 제목을 읽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즈카반 집단 탈출

마법부, 옛 죽음을 먹는 자들의
'핵심 세력'으로 블랙을 의심

"블랙? 그건 아니...?"

해리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쉬잇!"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그냥 읽기나 해!"

마법부는 어젯밤 늦게 아즈카반에서 집단 탈출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법부 장관인 코넬리우스 퍼지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특별 감시를 받던 열 명의 죄수들이 어제 저녁에 탈출했으며 이미 머글 수상에게도 이 죄수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렸다고 말했다.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지금 우리가 2년 반 전에 시리우스 블랙이 탈출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퍼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두 건의 탈출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탈출은 외부의 도움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최초로 아즈카반을 탈옥한

죄수인 시리우스가 다른 죄수들도 그의 전례를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아마도 블랙의 사촌인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을 포함하여 이 모든 죄수들이 블랙을 지도자로 삼아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일제 검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시에 마법 사회 전체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간청하는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 중 어느 누구와도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거였어, 해리."

론이 충격을 받아 얼빠진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 때문에 그자가 어젯밤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퍼지가 이 탈출 사건의 배후로 시리우스를 지목한단 말이야?"

해리가 신음 소리를 내었다.

"그럼 달리 또 무슨 말을 하겠어?"

헤르미온느가 신랄한 어조로 말했다.

"그자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덤블도어에게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즈카반의 간수들이 볼드모트에게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드모트의 골수 지지자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론, 그만 종얼거려!... 퍼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줄곧 너와 덤블도어 교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어, 안 그래?"

헤르미온느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자세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리는 대연회장 안을 둘러보았다. 어째서 겁먹은 표정을 짓거나, 최소한 1면에 실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떠드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 헤르미온느처럼 날마다 신문을 받아 보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숙제나 퀴디치 시합이나, 혹은 누가 어떤 쓰레기 같은 소식을 아는지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을 뿐이었다. 학교 밖에서는 열 명이나 되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볼드모트의 진영에 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해리는 교직원 테이블을 힐끗 살펴보았다. 거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덤블도어 교수와 맥고나걸 교수는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케첩 병에 '예언자 일보'를 받쳐 놓고, 명하니 들고 있는 숟가락에 담긴 계란 노른자가 무릎 위로 똑똑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채, 정신없이 신문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편 테이블 제일 끝에서는 엉브릿지 교수가 죽 그릇에 얼굴을 박은 채 게걸스럽게 튀어나온 눈을 들어서 대연회장을 둘러보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한 번 삼킬 때마다 인상을 찡그렸으며, 이따금씩 덤블도어 교수와 맥고나걸 교수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쪽을 심술궂은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오, 이런..."

여전히 신문을 살펴보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신음 소리를 내었다.

"이번에는 또 뭐야?"

해리가 재빨리 물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너무... 끔찍해."

헤르미온느가 부들부들 떨며 종얼거렸다. 그녀는 신문 10면을 펼치더니 해리와 론에게 건네주었다.

마법부 직원의 비극적인 의문의 죽음

어젯밤 마법부 직원인 브로드릭 보드(49 세) 씨가 자신의 병상에서 화분의 식물에 의해 목이 졸린 채 발견되자, 성 뭉고 병원은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현장에 소집된 치료사들은 보드 씨를 다시 소생시키지 못했다. 보드 씨는 사망하기 몇 주 전에 직장 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 보드 씨의 병실을 담당하고 있던 치료사 미리암 스트라우트는 유급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병원

측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 뭉고 병원은 보드 씨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병실 내에 반입되는 장식물에 대해서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너무 바쁜 나머지, 스트라우트 치료사가 보드 씨의 사물함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의 위험성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어 능력과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트라우트 치료사는 보드 씨에게 화초를 가꿀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해한 플리터블룸이 아니라, '악마의 뒷'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식물은 회복기에 접어든 보드 씨의 손길이 달자마자,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입니다."

성 뭉고 병원은 아직도 그 식물이 병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제보해 주기를 요청했다.

"보드... 보드라...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걸."

론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를 본 적이 있어."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성 뭉고 병원에서, 기억나? 록허트 맞은편 병상에 있었잖아. 바로 그 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 우리는 그 악마의 뒷이 오는 것도 보았어. 그 여자... 그 치료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했지."

해리는 다시 기사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뱃속에서부터 공포가 치밀었다.

"우리가 어떻게 악마의 뒷을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전에 본 적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었어."

"악마의 뒷이 화분에 담겨서 병원에 들어오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 작자에게 그걸 보낸 자가 누군지 그놈 잘못이지! 어쨌든 진짜 명청이가 틀림없어. 어째서 자기들이 월 팔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는 거야?"

"오, 룬! 정신 차려!"

헤르미온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악마의 뒷을 화분 속에 집어넣고, 누구든 그걸 건드리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이건 살인 이야... 아주 교묘한 살인이라고. 만약 이 화분을 익명으로 보냈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내겠어?"

하지만 해리는 악마의 뒷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청문회 날에 마법부의 9 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승강기를 탔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얼굴이 누르스름한 남자가 중앙 홀에서 탔던 것이다.

"난 보드를 만난 적이 있어."

해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와 함께 마법부에 갔을 때, 그를 봤어."

론의 입이 딱 벌어졌다.

"맞아. 집에서 아빠한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자'였어. 미스터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그들은 한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는 갑자기 신문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더니 1면에 실린, 탈옥한 열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 가는 거야?"
론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편지 보내려."
헤르미온느가 가방을 어깨에 들쳐 메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는 없어."
"난 헤르미온느가 저럴 때가 제일 싫어."
론이 투덜거렸다. 그는 해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연회장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한 번이라도 왜 그러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가면 어디가 덧나나? 그래
봐야 십 초도 안 걸릴 텐데. 아, 해그리드!"
해그리드가 연회장으로 들어오는 문 옆에 서서 래번클로 학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인들과 만나는 임무를 끝내고 돌아온 날과 마찬가지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심하게 맹이 들어 있었고 콧등에는 새로운 상처가 나 있었다.
"잘 있었니, 두 사람?"
해그리드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 간신히 얼굴을 징그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괜찮은가요, 해그리드?"
해리는 래번클로 학생들의 뒤를 쿵쿵 걸어가는 해그리드를 쫓아가며 물었다.
"좋아, 좋아."
해그리드는 웬지 어색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손을 흔들다가 하마터면
겁먹은 표정으로 옆을 지나가고 있던 벡터 교수의 뒤통수를 내리칠 뻔했다.
"그냥 좀 바쁘구나. 늘 하는 일이지만,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살라マン더 두
마리가 비늘이 상해서... 그리고 난 자격 유예 통보를 받았어."
해그리드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자격 유예를 당했다고요?"
론이 너무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지나가던 수많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죄송해요, 하지만... 자격 유예 판정을 받았단 말인가요?"
론이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거렸다.
"그래."
해그리드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했던 바지... 넌 아마 아직 그 이야기를 못 들었나 본데,
그
조사가 안 좋게 끝났어. 어쨌든..."
해그리드는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만 가서 살라マン더들에게 후추나 더 줘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그놈들 꼬리가 거꾸로 자라거든. 또 보자. 해리... 론..."
해그리드는 터벅터벅 현관문 밖으로 걸어가더니 축축한 운동장을 향해서
돌계단을 내려갔다. 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걸까 생각했다.

해그리드가 자격 유예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불과 며칠만에 학교 전체에
퍼졌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놀라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해리는 더욱더 분통이 터졌다. 어떤 학생들은, 특히 드레이코 말포이 같은
 아이들이 대표적이었는데, 드러내 놓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반면 성 뭉고
 병원에서 마법부 미스터리 부서의 한 직원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거나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세 사람뿐인 것

같았다. 이제 복도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는 단 한 가지, 탈옥한 열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뿐이었다. 마침내 신문을 읽은 몇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소식이 학교 전체로 퍼져 나간 것이다. 몇몇 탈주범들이 호그스미드에서 목격되었다느니,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집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느니, 머지않아 예전에 시리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호그와트로 침입할 거라느니 하는 온갖 소문들이 떠돌았다.

마법사 가족 출신 아이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의 이름을 거의 볼드모트라는 이름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다. 볼드모트의 힘이 막강했던 때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거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복도를 걸어다닐 때마다, 자신이 뜻하지 않게 반갑지 않은 명성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수잔 본즈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사촌들 모두가 이번에 탈출한 열 명 중의 한 사람에 의해 죽었는데, 약초학 수업 시간에

이제 비로소 해리의 기분이 어땠는지 알 것 같다고 한탄을 했다.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참고 견디는지 난 모르겠어. 너무 꿈쩍해."

수잔 본즈가 이렇게 투덜거리며 스크리치스냅 묘목이 담긴 접시에 용 퇴비를 너무 많이 담는 바람에, 스크리치스냅들이 몸부림을 치며 불만에 차 꺽꺽 소리를 냈다.

요즘 들어 해리가 또다시 복도에서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약간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제는 적대적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열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왜, 어떻게 아즈카반의 철통 같은 요새를 탈출할 수 있었는지 '예언자 일보'에 실린 기사만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소리가 한두 번 얼핏 귀에 들어오기는 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의심을 품게 된 사람들은 이제 납득할 만한 다른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작년부터 덤블도어 교수와 해리가 주장해 오던 설명이었다.

학생들 분위기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교수들까지도 복도에서 두세 명씩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생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곧 대화를 멈추는 광경을 이젠 꽤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교무실에서는 더 이상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게 분명해."

어느 날 해리와 혼과 함께 복도를 지나다가 맥고나걸 교수와 플리트윅 교수, 스프라우트 교수가 마법 수업 교실 밖에 모여 있는 광경을 보자,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브릿지는 저기 없잖아."

"혹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닐까?"

론이 어깨 너머로 세 명의 교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설사 뭔가를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들을 수 없을 거야. 안 그래?"

해리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법령이 발표된 이후로... 그게 몇 번째 법령이었더라?"

아즈카반의 탈출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기숙사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고문이 나붙었던 것이다.

호그와트 장학사의 포고령

앞으로 교수들은 가르쳐야 할 과목과 관련 없는 어떤 내용의 정보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을 알리는 바임.

위의 명령은 교육 법령 26 조에 따른 것임.

장학사 돌로레스 제인 엄브릿지

이 최근 법령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농담거리가 되었다. 리 조던은 엄브릿지에게,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프레드와 조지에게 교실 뒤에서 폭발 과자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폭발 과자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의 수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인 셈이죠!"
하지만 해리가 다음 날 리를 만났을 때,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해리는 리에게 머트랩 용액을 써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해리는 아즈카반의 탈출 사건으로 엄브릿지의 기세가 한풀 꺾이리라 생각했다.
그녀가 존경해 마지않는 퍼지의 눈앞에서 바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
당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호그와트의 모든
일상생활을 철저히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엄브릿지의 맹렬한 욕망만 더욱
부채질한 것 같았다. 더 나아가 그녀는 조만간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학교에서
쫓아내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한 듯이 보였다. 문제는 트릴로니 교수와
해그리드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쫓겨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제 점술 수업과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에는 언제나 엄브릿지와 그녀의
필기판이 따라다녔다. 그녀는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탑 교실의 벽난로 옆에
도사리고 앉아, 새점이나 도형점 등에 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날로
신경질적이 되어 가는 트릴로니 교수의 수업에 딴지를 걸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해보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수정
구슬이나 찻잎, 룬 문자 비석 등을 차례로 들이대며 실력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해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시달리다가는 트릴로니 교수가 미쳐 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았다. 지금도 복도에서(대개는 자신의 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두 손을 연신 비벼
대며 혼자 미친 듯이 중얼거리는 트릴로니 교수를 종종 마주칠 수 있었다. 연신
겁에 질린 눈초리로 뒤를 돌아보는 트릴로니 교수에게서는 독한 세리주 냄새가
풀풀 풍겼다. 만약 해그리드에 대한 걱정만 아니었다면, 해리도 트릴로니
교수를

가엾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꼭 쫓겨나야만
한다면, 해리로서는 누가 남아야 할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그리드 또한 트릴로니 교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비록 헤르미온느의 충고를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후로는
크럽(갈라진 꼬리 외에는 잭 러셀 테리어 종의 개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동물이다)보다 더 무서운 동물들은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었지만,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기색이 역력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으며,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다가도 곧 잊어버리거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연신 엄브릿지만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거리를 두었고, 해가 진
뒤에는 그를 찾아오지 말라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만약 엄브릿지의 눈에 띄면, 우리 모두의 목이 위태로워."

해그리드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 또한 해그리드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녁에 그의
오두막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리는 호그와트의 생활에서 그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엄브릿지에게 차츰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찾아가는 일이나
시리우스로부터

편지를 받는 일, 파이어볼트와 퀴디치 시합까지, 해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복수를 시도했다. 바로 D,A에 대해서 두 배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해리는 열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탈옥을 했다는 소식 이후로 D,A의 모든
아이들이, 심지어 자카리아스 스미스까지도 더욱 열심히 연습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다. 그중에서도 네빌만큼 눈에 띄게 실력이 느는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을 공격한 자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은 네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네빌은 성 봉고 병원에서 해리와 룬, 헤르미온느를 만났던
사실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네빌을 본받아서 그들 세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네빌은 벨라트릭스와 동료 고문자들이
도망친 이야기도 절대 꺼내지 않았다. 사실 그는 D,A 시간 내내 한마디 말도

없이 해리가 가르쳐 주는 새로운 주문과 저주 방어법을 연습하는 데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정신을 집중하느라 그 통통한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어떤 부상이나 사고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그 방 안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의 실력이 하도 빨리 늘어 허탈할 지경이었다. 한 번은 해리가 방패

마법(상대방이 쓴 약한 저주를 다시 되돌아가게 반사시키는 마법)을 가르쳤는데, 네빌보다 그 마법을 더 빨리 익힌 사람은 헤르미온느 단 한 명뿐이었다.

사실 해리도 네빌이 D.A 모임에서 보이는 만큼의 진보를 오클러먼시에서 보여주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던 스네이프와의 특별 수업은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 정반대로 해리는 수업을 할 때마다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다.

오클러먼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마의 흉터가 쑤시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았다. 대개 밤이나 혹은 가끔씩 볼드모트의 생각이나 기분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상한 순간이 지나간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흉터가 쑤시지 않을 때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해리는 종종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분노나 기쁨이 왈칵 솟구치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런 다음에는 언제나 흉터를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뒤따랐다. 해리는 이러다가

자신이 볼드모트의 사소한 기분 변화까지도, 잡아내는 안테나가 되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났다. 게다가 이제는 미스터리 부서의 입구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는

꿈을 거의 날마다 꾸게 되었다. 그 꿈은 자신이 언제나 검은 문 앞에서 원가를 간절히 바라며 서 있는 것으로 끝이 나곤 했다.

"어쩌면 질병과 비슷한 것인지도 몰라."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헤르미온느는 몹시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열병이나 뭐 그런 거 말이야. 낫기 전에는 꼭 점점 더 심해지잖아."

"스네이프와 연습을 시작한 뒤로 더 나빠지고 있어."

해리가 힘없이 말했다.

"자꾸 흉터가 쑤셔서 죽을 것 같아. 매일 밤마다 복도를 걸어가는 꿈을 꾸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해리는 화가 나서 이마를 문질렀다.

"난 그만 그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문 앞에 서서 바라보는 것도 지겨워."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네가 그 복도에 대해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길 바라셔. 그렇지 않으면 왜 스네이프에게 오클러먼시를 가르쳐 주라고 부탁하셨겠니?

그러니까 넌 좀더 열심히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해리가 신경질을 냈다.

"너도 언제 한번 해봐. 스네이프가 네 머릿속으로 파고든다면 어떨겠어.

당연히 웃고 넘길 일은 아니야!"

"어쩌면..."

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쩌면 뭐?"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이듯이 물었다.

"어쩌면 해리가 정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건 해리의 잘못이 아닐지도 몰라."

론이 은밀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어쩌면 스네이프가 정말로 해리를 돋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지..."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그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론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심각하게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혹시..."

론은 더욱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해리의 정신을 오히려 더 활짝 열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이 들어오기 쉽도록..."

"헛소리 집어치워, 론."

헤르미온느가 발칵 화를 냈다.

"도대체 넌 몇 번이나 더 스네이프를 의심해야 직성이 풀리겠니? 언제 한 번이라도 네 생각이 맞은 적이 있어? 덤블도어 교수님은 스네이프를 믿어. 그리고 그는 기사단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는 한때 죽음을 먹는 자였어."

론이 고집을 부렸다.

"그가 정말로 마음을 바꾸었는지 한 번도 그 증거를 본 적이 없잖아."

"덤블도어 교수님이 스네이프를 믿잖아."

헤르미온느가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덤블도어 교수님마저 믿을 수 없다면, 우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태산 같은 걱정거리와 할 일들... 종종 5학년 학생들 전체가 자정이 지나도록 해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숙제와 D,A 비밀 모임 그리고 스네이프와의 특별 수업 등... 에 쫓겨서 1월은 깜짝 놀랄 만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해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2월이 찾아왔다. 날씨는 점점 습해지고 따뜻해졌다.

그와 더불어 올해의 두 번째 호그스미드 방문일도 가까이 다가왔다. 호그스미드 마을에 같이 가자는 약속을 한 뒤로, 해리는 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해리는 갑자기 그녀와 함께 온종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밸런타인데이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14일 아침에 해리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다. 그와 론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자마자, 우편 배달 부엉이들이 도착했다. 헤드위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해리도 물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처음 보는 갈색 부엉이로부터 편지 한장을 받았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오늘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헤르미온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열심히 봉투를 뜯어 작은 양피지 조각을 꺼냈다. 눈을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며 편지를 읽던 헤르미온느의 얼굴에 만족스런 미소가 번졌다.

"해리, 내 말 좀 들어 봐."

헤르미온느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혹시 정오쯤에 스리 브룸스틱스에서 나랑 만날 수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해리가 망설였다.

"초는 아마 자기랑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걸로 기대하고 있을 거야. 뭘 할지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렇다면 초도 데리고 와. 어쨌든 오긴 할 거지?"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했다.

"음... 그래, 하지만 왜 그러는데?"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답장을 써야 하니까."

헤르미온느는 한 손에는 편지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는 토스트를 든 채. 대연회장을 허둥지둥 빠져나갔다.

"너도 올 거니?"

해리가 론에게 물었다. 하지만 론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호그스미드에 못 가. 안젤리나가 하루 종일 연습을 하자고 했거든. 그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는 내가 본 가장 최악의 팀이거든. 너도 슬로퍼와 키르케가 하는 걸 봐야하는데, 안쓰러울 정도야. 나보다도 더 형편없다니까."

론은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었다.

"안젤리나가 왜 날 포기하지 않는지 통 모르겠어."

"그건 네가 상태만 좋으면 아주 잘하기 때문이지. 당연하잖아."

해리가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론의 불평에 좀처럼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기라면 다가오는 후플푸프와의 시합에서 다시 뛸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론도 해리의 말투를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퀴디치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에 서로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냉기가 흘렀다. 론은 퀴디치 운동장을 향해서 떠났고, 해리는 찻숟가락 뒤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머리를 쓰다듬은 후, 초를 만나려고 현관 복도 쪽으로 혼자 걸어갔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초는 떡갈나무 현관문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어서 뒤로 늘어뜨린 모습이 너무나 예뻤다. 해리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의 발이 몸에 비해 너무 크다고 느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두 팔이 옆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얼마나 멍청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

초가 약간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해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해리가 입을 열었다.

"저... 이제 그만 가 볼까?"

"오... 그래..."

두 사람은 필치에게 허가를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는 학생들을 틈에 끼었다.

이따금씩 서로 눈길을 마주치며 빙그레 미소를 지울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밖으로 나가자, 해리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보다 말없이 함께 걷는 편이 훨씬 편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한 날이었다. 퀴디치 운동장 옆을 지날 때, 해리는 론과 지니가 관중석 위를 따라 날아가는 모습을 훤히 보았다. 순간 자기는 그들과 함께 저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빠아프게 다가왔다.

"너무 안타깝겠다. 그렇지?"

초가 물었다. 고개를 돌린 해리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초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래, 정말이야."

해리가 한숨을 쉬었다.

"3학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시합을 가졌던 때 생각나니?"

초가 말했다.

"그럼, 네가 나를 수비했었지."

해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드는 너에게 신사인 척하지 말고 나를 빗자루에서 떨어뜨리라고 말했었지."

초가 추억에 잠겨서 미소를 지었다.

"우드가 프라이드 오브 포트리 팀으로 갔다던데 정말이니?"

"아니야. 푸들미어 휴나이티드 팀이야. 작년 월드컵 때 우드를 봤어."

"그래, 나도 거기서 널 봤어. 기억나니? 우린 같은 캠프장에 있었잖아. 정말 재밌었는데, 안 그래?"

그들은 학교 정문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내내 퀴디치 월드컵 이야기를 했다.

해리는 초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쉽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론이나

헤르미온느와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쉬웠다. 차츰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슬리데린 여학생 한 무리가 그들 옆을 지나갔다. 그 중에는 팬시 파킨슨도 있었다.

"포터와 챙이잖아!"

팬시가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다. 그리고 곧바로 다 함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챙, 네 취향이 그런 좋은 몰랐다... 적어도 디고리는 잘생겼었는데!"

여학생들은 일부러 부산스럽게 해리와 초를 연신 돌아보며 노골적으로 웃고 떠들었다. 그렇게 한바탕 그들이 훨쓸고 떠난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해리는 퀴디치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초는 약간 얼굴을 붉힌 채. 발밑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넌 어딜 가고 싶니?"

호그스미드에 들어서자, 해리가 물었다. 하이가는 왔다갔다 돌아다니거나 상점 진열창을 들여다보거나 길가에서 빙동거리는 학생들로 만원이었다.

"난... 어디든 상관없어."

초가 어깨를 으쓱했다.

"음... 그냥 가게를 좀 구경할까?"

두 사람은 더비시와 뱅스 쪽으로 향했다. 창문에는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고, 몇 명의 호그스미드 주민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해리와 초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옆으로 비켜섰다. 해리는 탈옥한 열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의 사진을 발견했다. '마법부의 포고령'으로 부착된 그 공고문에는, 이 징수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마녀나 마법사에게는 1천 갈레온의 포상금을 준다고 적혀 있었다.

"웃기지 않니, 안 그래?"

초가 죽음을 먹는 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시리우스 블랙이 도망쳤을 때를 생각해 봐. 호그스미드 전체에 그를 찾는 디멘터들이 꽉 깔렸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열 명이나 도망쳤는데도 디멘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으니..."

"맞아."

해리는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얼굴에서 간신히 시선을 떼고 하이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래, 정말 이상해."

근처에 디멘터들이 없다고 해서 전혀 유감스런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디멘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탈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써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로 마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감옥에서 탈출한 열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은 해리와 초가 지나치는 모든 가게의 진열창에 붙어서 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이 스크리벤샤프트의 깃펜 가게를 지날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 해리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렸다.

"저... 커피 한 잔 마실까?"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자, 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아. 어디로 가지?"

해리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위에 아주 좋은 곳이 있어. 너 마담 퍼디풋이라는 곳에 한 번도 안 가 봤니?"

초가 쾌활하게 말하며 그를 골목 안으로 이끌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다. 비좁고 습기가 가득 찬 그 곳은, 모든 물건에 레이스와 리본

장식이 달려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문득 엉브릿지의 방이 떠오르며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귀엽지 않니, 응?"

초가 즐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음... 그래."

해리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거 봐. 뱀턴타인데이를 위해서 이렇게 장식한 거야!"

초가 작고 둥근 테이블 위를 둉둥 떠다니고 있는 황금색의 어린 천사들을 가리켰다. 아기 천사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이따금씩 분홍색 종잇조각을 뿌렸다.

"아하..."

두 사람은 김이 서린 창문 옆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에 앉았다. 래번클로 퀴디치 팀의 주장인 로저 데이비스도 예쁘게 생긴 금발의 여학생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자, 해리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다. 특히 찻집 안을 한 번 둘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꼭 잡은 연인들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더욱더 그러했다.

어쩌면

초도 그가 손을 잡아 주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뭘 가져다드릴까요?"

마담 퍼디풋이 물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토키를 품에 안은 건장한 체구의 부인이 그들 테이블과 로저 데이비스의 테이블 사이를 간신히 비집고 들어와 서 있었다.

"커피 두 잔이오."

초가 주문을 했다. 커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로저 데이비스와 여자 친구는 설탕통을 넘어서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들이 제발 그만두기를 바랐다. 왠지 데이비스가 그러면 초도 곧 그가 똑같이 따라하기를 기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해리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라서 얼른 창 밖을 내다보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창문에 잔뜩 김이 서려서 전혀 밖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초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을 늦춰 보려는 생각에, 해리는 벽지의 무늬를 세려는 듯이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머리 위에 둉둥 떠다니고 있던 아기 천사로부터 얼굴에 정통으로 색종이 벼락을 맞았다.

견디기 괴로운 몇 분이 흐른 후에, 초가 엄브릿지 이야기를 꺼냈다. 해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른 그 화제에 몰두했다. 두 사람은 엄브릿지의 흥을 보면서 즐겁게 잠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D,A 시간에 몇 번이고 우려먹은 주제였기 때문에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다.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해리는 바로 옆 자리에서 들려오는 쪽쪽 소리를 날카롭게 의식하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거리가 없을까 안절부절못했다.

"저... 혹시 점심때 같이 스리 브룸스틱스에 가지 않을래? 거기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를 만나기로 했거든."

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를 만나기로 했다고? 오늘?"

"그래. 헤르미온느가 만나자고 해서, 그럴 생각이야. 너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헤르미온느는 네가 함께 와도 괜찮다고 했어."

"오, 그래? 그거 참 친절하기도 하구나..."

하지만 초의 말투는 전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갑자기 표정도 험악해졌다.

무거운 침묵 속에 다시 몇 분이 흘렀다. 해리는 어찌나 커피를 빨아 마셨던지, 금방 또 한 잔을 시켜야만 했다. 옆 자리에서는 로저 데이비스와 여자 친구가 계속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찻잔을 잡은 초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점점 더 그 손을 잡아 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냥 잡아 버려. 해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고통과 흥분이 한데 뒤섞여서 솟아올랐다. 손을 내밀어서 잡아 버려. 허공에서 팽팽 날아다니는 스니치를 붙잡는 것보다도 불과 30센티미터 앞으로 팔을 뻗어서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 몇백 배 더 힘들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해리가 손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초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썩 내렸다. 그리고 흥미로운 표정으로 여학생과 키스를 하고 있는 로저 데이비스를 바라보았다.

"나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했었어."

초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몇 주 전에 로저가. 물론 난 거절했지만 말이야."

해리는 테이블 위로 불쑥 내민 손을 어쩔 줄 모르다가 애꿎은 설탕통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초가 왜 그런 말을 자기에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옆 자리에 앉아서 로저 데이비스의 키스를 받고 싶다면, 왜 그와 함께 외출하겠다고 동의했을까?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기 천사들이 또다시 그들의 머리 위로 색종이를 뿐였다. 그 중 몇 개는 해리가 막 마시려고 했던, 차갑게 식은 커피 위에 떨어졌다.

"나는 작년에 케드릭과 여기 왔었어."

초가 말했다. 해리가 그 말을 알아듣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순간 그의 뱃속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온통 키스를 하는 연인들에게 둘러싸이고 머리 위에서는 아기 천사가 떠다니고 있는 이런 순간에 초가 케드릭 이야기를 꺼내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초의 목소리가 좀더 높아졌다.

"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너에게 물어보고 싶었어. 혹시... 케드릭이... 죽기 전에

나...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이거야말로 해리가 세상에서 가장 꺼내고 싶지 않은 화제였다. 더구나 초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음... 아니."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케드릭은 무슨 말을 할 틈도 없었어. 저... 음...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퀴디치 시합은 많이 봤니? 넌 토페이도즈 팀을 응원하지?"

해리는 일부러 명랑한 척 유쾌하게 떠들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직전 마지막 D,A 모임 때처럼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자 덜컥 겁이 났다. "이봐."

해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 듣지 못하도록 잔뜩 몸을 숙이며 애원하듯이 말했다.

"지금은 케드릭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자..." 하지만 이번에도 말을 잘못 꺼낸 것이 분명했다.

"난 네가 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초가 테이블 위로 눈물을 똑똑 흘리며 말했다.

"난 그 이야기를 해야겠어! 너도 그럴 필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넌 그 광경을 봤잖아. 안 그래?"

순식간에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해 버렸다. 로저 데이비스의 여자 친구는 열중하던 키스마저 그만두고 울고 있는 초를 돌아보았다.

"글쎄... 난 이미 그 일에 대해서 말했어."

해리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이야. 하지만..."

"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에게는 말했으면서!"

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눈물로 얼룩졌다. 키스를 하던 몇몇 연인들이 입술을 떼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말할 수 없단 말이지! 이제 그... 그만 찾값을 내고 넌 헤르미온느 그... 그레인저나 만나러 가는 게 좋겠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까!"

해리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초는 레이스가 달린 낱킨을 집어 들더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았다.

"초?"

해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제발 로저가 그와 초를 열심히 쳐다보는 걸 그만두고 다시 여학생을 붙잡고 키스나 계속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어서 가, 가 버려!"

초는 이제 낱킨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나와 만난 다음에 금방 또 다른 여학생이랑 만날 약속을 해 놓고,

왜 나에게 함께 외출을 하자고 말한 거니? 헤르미온느 다음에는 또 몇 명이랑 약속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해리는 마침내 초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아차리자 마음이 놓인 나머지 피식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찻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해리, 나중에 보자."

초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말하더니, 약간씩 흐느끼면서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열고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초!"

해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갔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히고 딸랑거리는 종소리만 남았다.

찻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해리에게 쏠렸다. 해리는 테이블 위에 1 갈레온을 던져 놓고 머리에 묻은 분홍색 색종이를 털어 냈다. 그리고 초를 쫓아서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해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불과 삼십 분 전만 해도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자들이란!"

해리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케드릭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초는 어째서 항상 자신을 인간 수도꼭지처럼 만드는 화제를 꺼내고 싶어서 안달하는 거지?"

오른쪽 골목으로 돌아선 해리는 청병청병 물을 튀기며 뛰어갔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스리 브룸스틱스의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헤르미온느와 약속한 시간보다 좀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 오면 누군가 남는 시간을 함께 보낼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해리는 눈 앞을 가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기며 술집 안을 돌아보았다. 한쪽 구석에 해그리드가 침울한 표정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안녕, 해그리드!"

해리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테이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의 옆 자리에 앉았다.

해그리드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해리를 멀뚱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 베인 칼자국이 두 군데 나 있었고, 멍 자국도

여기저기 보였다.

"오, 그래, 해리구나. 잘 지냈니?"

해그리드가 인사를 했다.

"네. 잘 지냈어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잔뜩 풀이 죽어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해그리드를 보자, 자신의 불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어... 별일 없어요?"

"나 말이냐?"

해그리드가 말했다.

"오, 그럼. 나야 항상 씩씩하잖아. 씩씩하지."

해그리드는 양동이만큼이나 커다란 백합(주석과 납의 혼합물) 술잔의 바닥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해리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입을 다문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 해그리드가 불쑥 말을 꺼냈다.

"한 배를 탔어, 너랑 나랑은. 그렇지 않니, 해리?"

"어..."

해리가 입을 열었다.

"그래...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 우리 둘 다 외톨이들이라고..."

해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둘 다 고아야. 그래... 둘 다 고아지."

해그리드는 벌컥벌컥 술을 들이켰다.

"그건 아주 큰 차이야. 따뜻한 가정이 있다는 것 말이야."

해그리드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셨어. 너희 엄마와 아빠도 따뜻한 분이셨지. 살아 계셨다면, 우리 인생도 꽤 달라졌을 거야. 안 그래?"

"네... 그랬겠죠."

해리는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해그리드의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던 것이다.

"가족이란..."

해그리드가 우울하게 말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핏줄은 중요한 거야."

해그리드는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해그리드, 도대체 이 상처들은 어쩌다 난 거예요?"

해리는 도저히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무슨 상처 말이냐?"

해그리드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 상처들 말이에요!"

해리는 해그리드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건 그저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힌 거야, 해리."

해그리드가 뿌리치듯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거칠잖아."

해그리드는 또다시 술을 들이키더니 술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리, 그럼 나중에 보자. 몸조심해라..."

해그리드는 처량한 모습으로 술집을 나서더니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해리는 떠나는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해그리드는 아주 불행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해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 해리! 이쪽이야!"

헤르미온느가 건너편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헤치고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몇 테이블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 그는 헤르미온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그녀와 함께 앉아 있는 두 사람은 설마 술친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들이었다. 다음 아닌 루나 러브굿과 '예언자 일보'의 전직 기자이자 헤르미온느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인 리타 스키터였던 것이다.

"일찍 왔구나!"

헤르미온느가 옆으로 비키며 그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네가 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설마 한 시간이나 일찍 올 줄 몰랐지!"

"초?"

리타가 당장 몸을 돌려 탐욕스런 눈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여학생 말이냐?"

리타는 재빨리 악어가죽 가방을 집어 들더니 가방 안을 더듬었다.

"해리가 백 명의 여학생과 사귄다고 해도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헤르미온느가 쌀쌀맞게 리타에게 말했다.

"그러니 당장 그 가방을 내려놓아요."

리타는 가방 안에서 막 선명한 초록색 깃펜을 꺼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마치 악취수액을 억지로 먹으라는 강요라도 받은 사람처럼 인상을 쓰면서 가방을 다시 턱 닫았다.

"어떻게 된 일이죠?"

해리는 리타와 루나와 헤르미온느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지 않아도 네가 막 도착했을 때, 꼬마 반장 양께서 말씀을 하려던 참이었어."

리타가 술을 한 모금 들이켜며 말했다.

"해리와 한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건 허락하겠지. 그렇지?"

리타가 헤르미온느를 쏘아보았다.

"그래요. 그건 괜찮아요."

헤르미온느가 쌀쌀맞게 말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리타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한때 곱슬곱슬하게 공들여 손질되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얼굴 주위에 부스스하게 촉 늘어져 있었다. 5센티미터나 길에 자란 손톱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날개 달린 안경에 붙은 가짜 보석들은 한두 개씩 떨어져 나갔다. 리타는 또다시 술을 한 모금 들이켜더니 입술을 씰룩거리며 중얼거렸다.

"예쁜 여학생이겠지. 안 그래, 해리?"

"해리의 연애 생활에 대해서 단 한 마디만 더 하면 그걸로 우리 거래는 끝이에요. 내가 장담하죠."

헤르미온느가 짜증을 냈다.

"무슨 거래 말이냐?"

리타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넌 아직 거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까다로우신 잔소리 양. 넌 단지 나에게 여기 오라고 말했을 뿐이야. 오, 언젠가는..."

리타가 부르르 떨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요. 그래. 언젠가는 해리와 나에 대해서 더욱더 끔찍한 기사를 쓰겠죠."

헤르미온느가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하게 말했다.

"관심 있는 사람을 어디 한번 찾아봐요. 왜 못하는 거죠?"

"올해는 내 도움이 없어도 해리에 대해서 온갖 끔찍한 기사를 잘만 싣더군."

리타는 안경 너머로 해리를 힐끔 쏘아보더니, 거칠게 속삭였다.

"그런 기사를 보니 기분이 어때. 해리? 속은 기분이던가? 마음이 괴롭던가?

오해를 받는 것 같아?"

"당연히 해리는 분노를 느꼈죠."

헤르미온느가 딱딱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해리는 마법부 장관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마법부에 있는 그 명청이들이 해리의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너는 아직도 그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거냐?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리타는 안경을 밑으로 내리며 해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당장에라도 악어가죽 가방을 불잡고 싶어 안달이 나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덤블도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에게 말했던 허풍들을 고수하겠단 말이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느니 네가 그 유일한 목격자라느니 하는 말들을...?"

"제가 유일한 목격자는 아니에요."

해리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거기에는 열두 명 정도 되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자들의 이름을 알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리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또다시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듯 해리를 열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제목은 큰 활자로 이렇게 뾰는 거야. '포터의 고발...' 그리고 중간 제목은 이렇게 다는 거지. '해리 포터. 우리 중에 남아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의 이름을

말하다' 그런 다음 밑에는 멋진 너의 사진을 실어야지. '그 사람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십 대 소년, 해리 포터(15 세)는 어제 마법 사회의 존경받는 고위 인사들을 죽음을 먹는 자라고 지목하고 나섬으로써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리타는 이제 아예 속기 깃펜을 손에 꺼내 들고 입으로 반쯤 가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황홀한 표정이 사라져 버렸다.

"꼬마 반장 양께서는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는 게 싫으시겠지, 안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바로 꼬마 반장 양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바예요."

헤르미온느는 상냥하게 말했다. 리타가 얼이 빠져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리도 마찬가지였다. 루나만이 꿈을 꾸듯이 '위즐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노래를

낮게 흥얼거리며 착테일용 양파가 꽂힌 스틱으로 음료수를 휘젓고 있었다.

"너는 그러니까 해리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을 나더러 기사화하라는 거니?"

리타가 순 목소리로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네, 맞아요. 진짜 기사를 쓰는 거죠. 모두 사실만 담긴 기사요. 해리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 그대로 실는 거예요. 해리는 당신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그가 본, 숨겨진 죽음을 먹는 자들의 이름도 말할 거예요. 볼드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해 줄 테고요. 오, 진정해요."

헤르미온느는 한심하다는 듯이 한마디 톡 던지면서 테이블 너머로 낱킨을 건네주었다. 볼드모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리타가 화들짝 놀라며 자기 옷에 파이어워스키를 반쯤 엎질렀기 때문이었다.

리타는 여전히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면서 얼룩진 레인코트의 앞자락을 문질렀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입을 열었다.

"'예언자 일보'는 그 기사를 실어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아무도 해리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지 않아. 모두들 해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혹시 그런 각도에서 기사를 쓴다면..."

"해리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가에 관한 기사라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헤르미온느가 버럭 화를 냈다.

"고맙지만, 이미 그런 기사는 지긋지긋하게 많다고요! 난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기사를 돈 주고 사 줄 시장은 없어."

리타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말은 퍼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 일보'에 실리지 못할 거라는 뜻이겠죠."

헤르미온느가 짜증을 냈다. 리타는 헤르미온느를 오랫동안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테이블 앞으로 몸을 숙이고는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맞아. 퍼지는 '예언자 일보'에 압력을 넣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그자들은 해리는 좋게 비추는 기사는 절대 실지 않을 거야. 아무도 그런 기사는 읽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말이지. 그건 일반적인 정서에 반대되는 짓이야. 지난번 아즈카반 탈출 사건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공포에 떨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까지 믿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면 '예언자 일보'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인가요?"

헤르미온느가 신랄하게 말했다. 리타가 눈을 치켜뜨며 다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파이어워스키를 들이켰다.

"'예언자 일보'는 장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아가씨야."

리타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예언자 일보'가 형편없는 신문이라고 했어."

루나가 갑자기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다. 그녀는 착테일에 든 양파를 건져서 쪽쪽 빨며 약간 정신 나간 듯이 보이는, 톡 튀어나온 커다란 눈으로 리타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대중이 꼭 알아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기사를 보도하셔. 돈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지."

리타가 깔보는 눈초리로 루나를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는 무슨 한심한 마을 소식지라도 만들고 계시나? 혹시 '머글들과 어울리는 스물다섯 가지 방법'이나 다음 자선 바자회 날짜 따위의 기사를 실으시니?"

"아니에요."

루나는 양파를 다시 음료수 속에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우리 아빠는 '이러쿵저러쿵'의 편집장이세요."

리타가 어찌나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는지 근처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대중이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기사를 실는다고?"

리타가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거지 같은 잡지에 실린 기사들은 우리 정원에 거름으로나 쓰면 딱 맞을 거야."

"이거야말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헤르미온느가 신이 나서 말했다.

"루나 말이, 아버지께서 기꺼이 해리의 인터뷰 기사를 받아 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기사를 잡지에 내주실 거예요."

리타는 한동안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더니, 기가 막힌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러쿵저러쿵'이라고!"

리타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너는 그 기사가 '이러쿵저러쿵'에 실리면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헤르미온느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즈카반 탈출 사건에 대한 '예언자 일보'의 기사에는 분명 커다란 허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다 그럴듯한 해명이 없을까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설명을 들을 수만

있다면, 설사 그것이... 헤르미온느는 루나를 힐끗 곁눈질했다... 좀 평범하지 않은

잡지에 실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척 읽고 싶어 할 거예요."

리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하고서 헤르미온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좋아. 그럼 내가 그 일을 있다고 치자."

리타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럼 난 어떤 보수를 받게 되는 거지?"

"우리 아빠가 잡지에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루나가 꿈꾸듯이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기사 쓰는 걸 명예로 여기거든요. 물론 자기 이름이 잡지에 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리타 스키터는 똥 씹은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쏘아보았다.

"그럼 이 일은 공짜로 하는 거냐?"

"맞아요."

헤르미온느가 음료수를 한 모금 들이켜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당신이 등록되지 않은 애니마구스란 사실을 당국에 알리겠어요. 뭐, 아즈카반에 들어가서 직접 그곳 생활에 대해 기사를 쓰면, '예언자 일보'에서 돈을 많이 출지도 모르겠군요."

리타는 헤르미온느의 잔에서 종이 우산 장식을 빼더니, 잔을 높이 쳐들고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로군, 안 그래?"

리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또다시 악어가죽 가방을 열더니 양피지 종이를 꺼내고 속기 깃펜을 들었다.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루나가 신이 나서 말하자, 리타의 턱이 씰룩거렸다.

"좋아, 해리?"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니?"

"그런 것 같아요."

해리는 그들 사이에 양피지를 펼쳐 놓고 깃펜을 잡고 있는 리타를 바라보았다.

"자, 그럼 시작해요, 리타."

헤르미온느는 음료수 잔 바닥에 가라앉은 체리를 건져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 26 장 본 것과 보지 못한 것

루나는 리타의 해리 포터 인터뷰 기사가 언제쯤 '이러쿵저러쿵'에 실릴지 잘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아버지는 최근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를 관찰한 길고도 멋진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건 아주 중요한 기사야. 그러니까 해리는 다음 호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루나는 태평스럽게 말했다.

해리는 볼드모트가 돌아왔던 그날 밤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리타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해리는 기억나는

것을 모두 다 털어놓았다.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그의 기사가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에 관한 그 황당무계한 기사와 나란히 실렸다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벨라트릭스 레스트랭과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의 탈옥으로, 해리는 소용이 있든 없든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네가 잡지에 실린 걸 보면 엉브릿지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월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딘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시무스는 묵묵히 자기 접시에 치킨 햄파이를 잔뜩 덜고 있었지만, 해리는 시무스 역시 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옳은 일을 한 거야, 해리."

해리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네빌이 말했다. 그는 약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그... 그 이야기를... 하느라... 꽤... 힘들었겠다. 안 그래?"

"맞아. 하지만 사람들도 볼드모트가 월 하는지 알아야만 해. 안 그래?"

해리가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네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죽음을 먹는 자들도... 꼭 알아야만 해..."

네빌은 말꼬리를 흐리더니 다시 구운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문득 시무스가

고개를 들다가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접시로 시선을 떨구었다. 잠시 후에 딘과 시무스, 네빌은 휴게실로 향했고, 해리와 헤르미온느만 자리에 남아서

론을 기다렸다. 그는 퀴디치 연습 때문에 아직 저녁 식사에도 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초 챙이 친구인 마리에타와 함께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해리는 뱃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는 그리핀도르 테이블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자리에 앉았다.

"아참, 너에게 물어본다는 걸 깜박 잊었어."

헤르미온느가 래번클로 테이블을 힐끗 넘겨다보면서 유쾌하게 물었다.

"초와 데이트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온 거야?"

"어... 그게..."

해리는 갈색 소스를 얹은 크럼블 접시를 앞으로 끌어당기더니 먹기 시작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 마담 퍼디풋의 찻집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몇 분이 지나고 크럼블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모두 사라질 무렵, 해리도 이야기를 끝냈다.

"결국 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중에 보자, 그러고는 달려 나가 버렸어!"

해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헤르미온느는 초의 웃음을 힐끗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몹시 유감스러운 듯이 말했다.

"오, 해리. 미안한 말이지만 넌 정말 눈치라곤 전혀 없구나."

"나? 내가 눈치가 없다고?"

해리가 화를 냈다.

"불과 일 분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다가, 금방 로저 데이비스가 자기더러 외출을 하자고 했다는 말을 하잖아. 게다가 케드릭과 그 한심한 찻집을 드나들면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등. 도대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이거 봐."

헤르미온느는 성질 급한 어린아이에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너는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나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하지만... 하지만, 나에게 열두 시에 만나자고 한 건 너였어. 초를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도 너였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

해리가 침을 튀기며 흥분했다.

"다른 식으로 말했어야지."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끈기를 가지고 말했다.

"너는 너무 귀찮고 짜증나지만, 내가 억지로 스리 브룸스틱스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 냈다고 말했어야 했어. 넌 정말 가고 싶지 않고 초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초가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럼 훨씬 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지. 거기다 네 눈에 내가 얼마나 못생겨 보이는지 모른다는 말을 한마디 덧붙여도 아주 좋았을 거야."

"하지만 난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해리가 어안이 병복해서 말하자, 헤르미온느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해리, 넌 론보다 더 형편없구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헤르미온느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쓴 론이 잔뜩 심통 난 얼굴로 터벅터벅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이봐... 네가 날 만나러 가겠다고 말해서 초가 빼친 거야. 그래도 초도 날 질투

나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 초는 나름대로 네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라고."

"초가 그랬던 거야?"

해리가 물었다. 한편 론은 그들 맞은편 자리에 텔썩 주저앉더니 닥치는 대로 접시를 끌어당겼다.

"차라리 너보다 자길 더 좋아하느냐고 나에게 직접 물어보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여자들은 대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솔직히 물어봤어야지!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 주었을 텐데. 그리고 두 번 다시 케드릭의 죽음에 대해서 요란을 떨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텐데 말이야!"

"나도 초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니가 론과 똑같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부루퉁한 얼굴로 나타났다.

"난 다만 그때 초의 기분이 어땠는지 너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뿐이야."

"넌 차라리 책을 쓰는 게 낫겠다."

론이 감자를 자르면서 한마디 거들었다.

"여자 애들이 하는 그 활당한 짓들을 남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책 말이야."

"그래."

해리는 애타는 시선으로 래번클로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초는 해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대로 연회장을 나가 버렸다. 몹시 낙심한

해리는 론과 지니를 쳐다보았다.

"그래, 퀴디치 연습은 어땠어?"

"한마디로 악몽이었어."

론이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오, 그러지 마."

해르미온느가 지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아니야, 정말 그랬어."

지니가 말했다.

"끔찍했다니까. 막판에는 안젤리나가 거의 통곡할 뻔했어."

저녁 식사를 마친 론과 지니는 목욕을 하러 갔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평소처럼 산더미 같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산스런 그리핀도르 휴게실로 돌아갔다. 해리가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천문학을 위한 새로운 별자리와 쌔름을 하고 났을 때, 프레드와 조지가 나타났다.

"론과 지니는 여기 없니?"

프레드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해리가 고개를 흔들자, 그가 입을 열었다.

"잘됐다. 그 애들이 연습하는 걸 우리도 봤는데, 정말 완전히 묵사발 되겠더라. 우리가 없으면 그 팀은 쓰레기야."

"그래도 지니는 괜찮아."

조지가 프레드 옆 자리에 앉으며 공정하게 말했다.

"솔직히 지니가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우리는 퀴디치할 때 지니를 한 번도 끼워 준 적이 없었거든."

"지니는 여섯 살 때부터 정원에 있는 두 사람의 빗자루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너희가 보지 않을 때면 빗자루를 하나씩 꺼내서 타 보곤 했어." 헤르미온느가 당장에라도 쓰러질 듯이 높이 쌓인 고대 룬문자 책 더미 뒤에서 말했다.

"아하,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군."

조지가 깨인 상적이라는 듯이 말했다.

"론은 아직도 골대를 막지 못하고 있어?"

헤르미온느가 '마법 상형문자와 기호' 책 너머로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론도 골대를 막아 낼 수 있어."

프레드는 눈알을 굴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토요일에 케이플이 론 쪽으로 갈 때마다 관중에게 제발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떠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프레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초조하게 창가로 걸어가서 어두운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너희도 알겠지만, 큐디치는 우리가 이 학교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이유야."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엄한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별씨 말했잖아. 우린 N,E,W,T 같은 것 때문에 요란 떨지 않는다고 말이야.

꾀병용 과자세트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어. 그 종기를 어떻게 없앨지 방법을 찾아냈거든. 그저 머트랩 용액을 한두 방울 섞으면 되는 거였어. 리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지."

조지는 늘어져라 하품을 하더니 구름 낀 저녁 하늘을 우울하게 내다보았다.

"나는 과연 이번 시합을 보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 만약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우리 팀을 이긴다면, 난 죽고 싶을 거야."

"차라리 그 녀석을 죽이지 그래."

프레드가 강하게 말했다.

"그게 바로 큐디치의 문제점이야."

헤르미온느가 다시 룬 문자를 해석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며 아무 생각 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술사들 사이에 적대감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거든."

'주술사의 문자표'를 찾기 위해 잠깐 고개를 든 헤르미온느는 경악과 혐오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프레드와 조지, 해리와 시선이 딱 마주쳤다.

"사실이잖아!"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건 단지 운동경기일 뿐이라고, 안 그래?"

"헤르미온느, 사람의 감정이나 뭐 그런 일에는 네가 전문가일지 몰라도, 큐디치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해."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헤르미온느는 다시 해석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최소한 론의 수비 능력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갔다하지는 않아."

하지만 해리도 다음 토요일이 되어 시합을 지켜보고 있자니, 큐디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질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비록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천문탑에서 뛰어내리는 편을 택하겠지만.

이 시합에서 단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아주 금방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덕분에 그리핀도르 관중은 불과 이십이 분 동안만 고통을 참고 견디면 되었다. 반면 제일 나빴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다. 해리 생각에는 론이

열네 번이나 골대를 막는 데 실패한거나 슬로퍼가 자신의 방망이로 블러저를 치는 대신 안젤리나의 입을 친거나 자카리아스가 케이플을 가지고 쓴살같이

날아오자, 키르케가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 뒤로 굴러 떨어진 것 모두가 막상막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핀도르가 겨우 10 점 차이로 시합에 졌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지니가 후풀푸프의 수색꾼인 섬머비의 코앞에서 스니치를 아슬아슬하게 낚아챈 덕에 최종 스코어가 240 대 230 이 되었다.

"아주 잘 참았어."

휴게실로 돌아온 지니에게 해리가 한마디 칭찬을 던졌다. 그리핀도르 휴게실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다.

"운이 좋았어."

지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스니치가 별로 빠르지 않은 데다가 섬머비가 감기에 걸려서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감았거든. 어쨌든 해리가 다시 우리 팀에 돌아와 주기만 하면..."

"지니, 난 평생 출전 금지 조치를 당했어."

"엄브릿지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만 금지를 당할 거야."

지니가 해리의 말을 다시 바로잡았다.

"그건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어쨌든 일단 네가 다시 팀으로 돌아오면, 난 추격꾼을 해볼 생각이야. 안젤리나와 앤리샤 모두 내년에는 학교를 떠나잖아. 게다가 난 스니치를 찾는 것보다 골을 넣는 게 더 좋아."

해리는 론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한 손에는 버터 맥주병을 움켜쥔 채,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젤리나는 여전히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어."

지니가 마치 해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어."

해리는 안젤리나가 론에 대해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론이 그만 팀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그를 더 배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론은 또다시 슬리데린 응원단들이 입을 모아 신나게 불러 대는 '위즐리는 우리의 왕' 함성을 들으며 운동장을 떠나야만 했다. 이제 슬리데린 팀은 퀴디치 컵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다.

프레드와 조지는 휴게실 안을 서성거렸다.

"이제는 론을 놀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프레드는 납작 찌그러져 있는 론을 바라보았다.

"이거 봐... 저 녀석이 열네 번째 골을 놓쳤을 땐..."

프레드는 마치 서서 개헤엄을 치는 사람처럼 두 팔을 마구 허우적거리는 시늉을 했다.

"어휴 그만두자. 더 이상은 나중을 위해서 아껴 두지."

이 광경을 보자, 론은 곧바로 힘없이 발을 질질 끌며 침실로 올라갔다. 해리는 그의 기분을 십분 헤아려서 잠시 기다렸다가 그 뒤를 따라갔다. 론이 잠자는 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과연 해리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론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해리는 시합을 생각하며 침대로 들어갔다. 경기장 밖에서 시합을 지켜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짜증스러웠다. 지니의 활약이 무척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자신이 경기에 나갔다면 분명 더 일찍 스니치를 잡았을 것이다. 스니치가 키르케의 발목 근처에서 팔락거리고 있는 순간이 있었다. 지니가 망설이지만 않았더라면, 그녀는 그리핀도르 팀에 승리를 안겨 줄 수도 있었다.

엄브릿지는 해리와 헤르미온느보다 몇 줄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한두 번 두꺼비처럼 커다란 입을 짹 벌리고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해리가 보기에도, 고소해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어둠 속에 누워서 그 광경을 떠올리니, 더욱더 열이 치솟았다. 하지만 잠시 후에 해리는 스네이프가 오클러먼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번 강조하던 대로, 잠이 들기 전에 모든 감정을 비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해리는 한동안 노력을 해보았지만, 엄브릿지에 대한 기억에다가 스네이프 생각까지 떠올리고 나니 오히려 분노가 점점 더 끓어올랐다. 그리고 오히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미운가 하는 생각만 또렷해졌다. 천천히 론의 코고는 소리가 작아지면서 깊고 느린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리가 잠이 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렸다. 몸은 쓰러질 듯 피곤해도 머리까지 멍추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리는 필요의 방에서 맥고나걸 교수가 백파이프를 연주하고 네빌과 스프라우트 교수는 왈츠를 추는 꿈을 꾸었다. 한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리는 문득 밖으로 나가서 다른 D,A 회원들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자마자, 해리는 정신 나간 바르나바의 양탄자가 아니라, 돌 벽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횃불과 마주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창문이 전혀 없는 복도 제일 끝에 깃깃한 검은 문이 있었다. 해리는 점점 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그 문을 향해 다가갔다. 이번에야말로 마침내 행운을 자아서 저 문을 열 수 있을거라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다... 몇 발짝 앞으로 다가간 해리는 오른쪽 밑으로 파랗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월 듯이 흥분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손을 내밀고 문을 좀더 열었다.

론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요란하게 진짜 코고는 소리를 냈다. 해리는 어둠 속으로 오른손을 쭉 뻗은 채,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문이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멀어졌다. 죄책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해리는 그 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호기심에 몸이 달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론에 대한 짜증이 치솟았다. 론이 조금만 늦게 코를 골았더라도...

월요일 아침이 되자, 정확히 우편 배달 부엉이들이 오는 시간에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예언자 일보'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헤르미온느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탈옥한 죽음을 먹는 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불잡히지 않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우편 배달 부엉이에게 1크넛을 주고 황급히 신문을 펼쳐 들었다. 한편 해리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1년 내내 그가 받은 것이라곤 딱 한 번 쪽지를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첫 번째 부엉이가 그의 앞에 쿵 하고 내려앉았을 때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넌 누굴 찾아왔니?"

해리는 부엉이의 주둥이 밑에서 오렌지 주스를 치우면서 맥없이 물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해리 포터, 호그와트 대 연회장

해리는 이마를 찌푸리며 부엉이의 편지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미처 그러기도 전에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의 더 많은 부엉이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옆에 내려앉더니, 버터를 짓밟고 소금병을 쓰러뜨리면서 서로 먼저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론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또다시 일곱 마리의 부엉이가 더 날아오더니 날개를 퍼덕거리고 후후 울음소리를 내면서 처음 도착한 부엉이들 틈에 내려앉았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부엉이 무리 속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통처럼 생긴 긴 소포를 목에 건 부엉이 한 마리를 집어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난 알 것 같아. 먼저 이것부터 열어 봐!"
해리는 갈색 소포를 뜯었다. 돌돌 말린 '이러쿵저러쿵' 3월호가 굴러 나왔다.
해리가 잡지를 펼쳐 들자, 표지에 실린 그의 얼굴이 무척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사진 위에는 커다란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마침내 해리 포터가 입을 열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과
그가 돌아오던 날 밤에 대한 진실

"멋지지 않니?"
어느 걸에 그리핀도르 테이블로 건너온 루나가 프레드와 조지 사이를
파고들며 말했다.
"어제 나왔어. 내가 아빠에게 증정본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지. 이것들은
모두..."
루나는 아직도 해리 앞에서 테이블 위를 발톱으로 긁으며 돌아다니고 있는 한
무리의 부엉이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독자들이 보낸 편지들일 거야."
"내 생각에도 그래. 해리, 혹시 우리가 뜯어도...?"
헤르미온느는 간절하게 물었다.
"마음대로 해."
해리는 약간 어안이 병벙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각자 편지를 뜯기 시작했다.
"이건 네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어떤 얼간이가 보낸 거야."
론이 편지를 한 번 훑어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이 여자는 너에게 성 뭉고 병원의 충격 치료 마법 코스를 다녀 보라고
총고하고 있어."
헤르미온느는 실망한 표정으로 두 번째 편지를 구겨 버렸다.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해리가 페이즐리의 한 마녀가 보낸 긴 편지를 천천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것 봐. 이 여자는 나를 믿는다고 썼어!"
"여기 이 사람은 갈피를 못 잡고 있군."
이제 프레드까지 열성적으로 편지를 뜯어 보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는 절대 믿고
싶지 않다는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데. 제기랄,
이게
무슨 양피지 낭비람."
"해리, 여기 너를 믿는다는 사람이 또 있어!"
헤르미온느가 잔뜩 들떠서 소리쳤다.
"당신의 입장에서 쓰인 기사를 읽고 나서, 나는 '예언자 일보'가 당신을 아주
부당하게 대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나 역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군요... 오, 너무
훌륭해!"
"이건 네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론이 어깨 너머로 편지를 확 집어던졌다.
"하지만 이 편지에는 네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이젠 너를
진짜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군. 그 여자가 자기 사진까지
넣었어...
우와..."
"여기서 다들 뭘 하는 거죠?"
억지로 꾸민 듯 애교가 넘치고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두 손에
편지를 가득 든 채, 고개를 들었다. 엉브릿지 교수가 프레드와 루나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온 그녀의 두 눈은 해리 앞에 수북이 쌓인 편지들과 부엉이들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왜 이런 편지들을 받게 된 거죠, 포터 군?"

엄브릿지는 느릿느릿 물었다.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편지를 받는 게?"

프레드가 큰 소리로 따졌다.

"위즐리 군, 조심하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엄브릿지가 말했다.

"자, 포터 군?"

해리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러쿵 저러쿵'이 엄브릿지의 눈에 띄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제가 잡지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해리가 대답했다.

"작년 6 월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이죠."

해리는 말을 하면서 교직원 테이블을 훨씬 쳐다보았다. 웬지 방금 전까지 덤블도어 교수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덤블도어는 플리트윅 교수와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뷰라고?"

엄브릿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기자가 제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

해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쿵 저러쿵'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엄브릿지는 잡지를 손에 들고 표지를 내려다보았다. 허옇고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울긋불긋 물들었다.

"언제 이런 짓을 했지?"

엄브릿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난 주말 호그스미드 방문일예요."

해리가 말했따. 엄브릿지는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잡지를 쥔 그녀의 둥툭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포터 군, 앞으로 호그스미드 방문은 더 이상 없어요."

엄브릿지가 속삭였다.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엄브릿지는 깊이 심호흡을 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토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한 게 분명하군요. 그리핀도르에 50 점을 감점하고 다시 일주일간 나머지 공부를 하겠어요."

엄브릿지는 '이러쿵 저러쿵'을 가슴에 꼭 움켜쥔 채, 으스대며 걸어갔다. 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에 쏠렸다.

오전이 미처 지나가기도 전에 커다란 공고문이 학교 전체를 뒤덮었다.

게시판만이 아니라 복도와 교실에까지도 나붙은 것이다.

호그와트 장학사의 포고령

'이러쿵 저러쿵' 잡지를 소유한 학생은 무조건 퇴학을 당할 것임.

위의 명령은 교육 법령 27 조에 따른 것임.

장학사 돌로레스 제인 엄브릿지

무슨 영문인지 헤르미온느는 이 공고문을 볼 때마다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해리가 물었다.

"오, 해리, 넌 모르겠니?"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호그와트의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네 인터뷰 기사를 읽도록 만들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걸 금지하는 거라고!"

과연 헤르미온느의 짐작이 맞은 것 같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비록 학교 안 어디에서도 '이러쿵 저러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 전체가 인터뷰 내용을 서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해리는 학생들이 교실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수군거리거나, 점심 식사 시간에 혹은 교실 뒤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헤르미온느의 말에 따르면, 고대 문화 문자 수업 전에 잠깐 여학생 화장실에 들렀더니 칸막이마다 컷속말을 주고받는 학생들로 꽉꽉 들어차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날 보더니, 내가 널 잘 안다는 걸 알고는 나에게 정신없이 질문 공세를 펴붓더라고."

헤르미온느가 두 눈을 반짝거리며 해리에게 말했다.

"해리, 그 아이들은 네 말을 믿는 것 같았어. 정말이야. 네가 마침내 아이들의 신뢰를 얻은 거야!"

한편 엠브릿지 교수는 학교를 으스대며 활보하면서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붙잡아 세워 놓고는 호주머니와 책을 검사했다. 해리는 엠브릿지가 '이러쿵 저러쿵'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학생들은 이미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해리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부분에 마법을 걸어서,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읽으면 마치 교과서 내용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아니면 다시 잡지를 꺼내서 읽고 싶을 때까지, 마법으로 내용을 깨끗이 지워 놓기도 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기사를 읽은 것 같았다.

물론 교수들은 교육 법령 26 조에 의해서 그 인터뷰 기사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기사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했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해리가 그녀에게 물뿌리개를 건네주었다고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20 점을 주었다. 싱글벙글 웃던 플리트윅 교수는 마법 시간이 끝날 무렵에 해리에게 찍찍거리는 설탕쥐 한 상자를 얹지로 줘어 주었다. 그리고 숫! 하고 주의를 주더니 총총히 사라졌다. 한편 트릴로니 교수는 점술 수업 시간에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깜짝 놀란 학생들에게, 엠브릿지로서는 무척 유감스런 일이겠지만, 해리는 결코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며 오래오래 살아서 마법부의 장관이 되고 아이들도 열두 명이나 낳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리를 가장 기쁘게 했던 일은, 다음 날 그가 변신술 수업을 듣기 위해 급히 걸어가고 있을 때, 초가 그를 쫓아온 것이었다. 해리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초는 그의 손을 꼭 잡더니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말, 정말 미안해. 그런 인터뷰를 하다니 무척 용감한 일이야... 그걸 보고 난
울고 말았어."

해리는 초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서로 다시 말을 하게 되어서 무척 기뻤다. 게다가 초가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고 황급히 달아났을 때에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그가 변신술 수업이 있는 교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그만큼이나 좋은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시무스가 줄지어 서 있는 학생들 틈에서 걸어 나와

그의 앞에 우뚝 섰다.

"그냥 너에게 말해 주고 싶었어."

시무스는 해리의 왼쪽 무릎을 비스듬히 내려다보면서 우물쭈물 말을 걸었다.

"난 네 말을 믿어.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도 그 잡지를 보내 드렸어."

만약 여기서 해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의 반응이었다. 해리는 그날 오후 늦게 도서관에 모여 있는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비실비실해 보이는 어떤 남자 애와 함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어도르 노트라고 헤르미온느가 옆에서 속삭였다. 해리가 부분 소멸 마법에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책장을 살피고 있을 때, 말포이 패거리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고일은 위협적으로 손가락 관절을 딱딱 꺾었고 말포이는 크레이브에게 뭔가 악의에 찬 말을 속삭였다. 해리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그들의 아버지들을 전부 죽음을 먹는 자로 지목했기 때문이었다.

"제일 신나는 일은 그래도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이 도서관을 나가자, 헤르미온느는 고소해서 어쩔 줄 몰랐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기사를 읽었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잖아!"

마지막 최고 절정은 루나가 저녁 식사 시간에 '이러쿵 저러쿵' 잡지가 이렇게 빨리 동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을 때였다.

"아빠가 재판을 찍기 시작했어!"

잔뜩 흥분한 루나의 두 눈이 당장에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아빠 말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 사람들이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보다도 이 기사에 더 흥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야!"

그날 밤 해리는 그리핀도르 휴게실에서 영웅이 되었다. 용감무쌍하게도 프레드와 조지는 '이러쿵 저러쿵'의 표지에 확대 마법을 걸어서 휴게실 벽에 걸어 놓았다. 커다랗게 확대된 해리의 머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따금씩 짜렁짜렁 울리는 목소리로 '마법부는 멍청이들이다', '엿먹어라, 엉브릿지' 같은 말들을 내뱉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이 장난을 별로 재미있어하지 않았다. 정신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투덜거리더니 끝내는 짜증을 내며 일찍 침실로 가 버렸다. 해리 또한 한두 시간이 지나자, 포스터 장난이 썩 재미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말하는 마법의 효력이 약해지면서 포스터는 그저 '엿'이나 '엉브릿지' 하는 단편적인 단어들만 점점 더 높은 목소리로, 자주 내뱉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머리가 조금씩 쑤시더니 급기야는 이마의 흉터까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를 둘러싸고 앓아서 벌써 수백 번째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려달라고 조르는 많은 학생들의 실망에 찬 원성을 들으면서, 일찍 자러 가야겠다는 말을 꺼내고 말았다.

그가 들어갔을 때, 침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해리는 잠깐동안 침대 옆에 있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머리를 식혔다. 육신거리는 흉터의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해리는 이대로 두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로 들어갔다. 웬지 몸이 아픈 것 같았다. 해리는 옆으로 돌아누운 채, 눈을 감고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그는 커튼이 드리워진 어두운 방 안에 서 있었다. 그곳을 밝히는 것은 오직 촛대에 꽂힌 촛불들뿐이었다. 해리는 자기 앞에 놓인 의자의 등받이를 손으로 짹

움켜쥐고 있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듯이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은 마치 검은 벨벳 의자에 붙어 있는 커다란 흰 거미처럼 보였다.

의자 너머로, 마루에 드리워진 촛불 불빛 속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앓아 있었다.

"나는 아주 잘못된 정보를 들어 왔던 것 같군."

해리는 분노가 역력하게 느껴지는 차갑고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은 남자가 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뒷모습은 촛불 불빛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널 비난하는 게 아니다. 롤우드."

해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의자를 짹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고 마루 위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 똑바로 서서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 사실이 틀림없겠지, 롤우드?"

해리가 물었다.

"예, 주인님, 그렇습니다... 전 한때 그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애버리는 보드가 그걸 옮길 수 있다고 하던데."

"보드는 결코 그걸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주인님. 보드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말이죠. 그래서 말포이의 임페리우스 저주에

그토록 거세게 저항한 겁니다."

"일어서라, 록우드."

해리가 중얼거렸다. 무릎을 끊고 앉아 있던 그 남자는 황급히 명령에 따르려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의 얼굴에는 심한 곰보 자국이 나 있었다. 촛불이 비치자, 곰보 자국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는 마치 절을 하려는 사람처럼 엉거주춤 허리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해리의 얼굴을 슬쩍 옮겨다보았다.

"나에게 이 말을 해주길 잘했다."

해리가 말했다.

"아주 잘했어... 나는 쓸데없이 헛된 계획으로 몇 달을 낭비한 것 같다..."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록우드, 넌 볼드모트 경의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주인님... 예."

록우드는 비로소 안심한 듯 목이 메었다.

"네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입니다, 주인님. 무엇이든... 말씀만..."

"알겠다... 그만 가도 좋다. 애버리를 나에게 보내라."

록우드는 허둥지둥 뒤로 물러서더니 절을 하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어둠 속에 혼자 남은 해리는 벽을 향해 돌아섰다. 어두컴컴한 벽에는 금이 가고 얼룩이 진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해리는 천천히 거울을 향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이 점점 더 크고 또렷하게 드러났다... 해골보다 더 새하얀

얼굴... 동공이 세로로 가늘게 찢어진 빨간 눈동자...

"아아아아안 돼!"

"왜 그래?"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친 듯이 팔을 휘젓던 해리는 온몸에 커튼을 둘둘 감은 채, 침대 밖으로 굴러 떨어졌다. 잠깐 동안 해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당장에라도 어둠 속에서 해골 같은 하얀 얼굴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았다. 그때 바로 옆에서 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날뛰지 않아야 여기서 널 풀어줄 것 아니야!"

론은 비비꼬인 커튼을 떼어 냈다. 해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달빛을 받고 있는 론을 멍하니 옮겨다보았다. 이마의 흉터가 칼로 쑤시는 듯이 아팠다. 론은 이제 방금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지, 한쪽 팔을 옷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또 누가 공격을 당했니? 우리 아빠였어? 그 뱀이니?"

론이 해리를 벌떡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아니야. 모두 다 괜찮아."

해리가 숨을 헐떡거렸다. 이제 그의 이마는 불로 지지는 것 같았다.

"아니... 애버리가... 애버리가 곤경에 처했어... 볼드모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굉장히 화가 났거든..."

해리는 신음 소리를 내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며 이마의 흉터를 문질렀다.

"하지만 이젠 록우드가 그를 도와줄 거야... 그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았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론이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말은... 네가 방금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

해리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아직도 해골처럼 하얗고 긴 손가락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록우드와 함께 있었어. 아즈카반에서 도망친 죽음을 먹는 자들 중의 한 명이잖아. 기억나? 록우드는 볼드모트에게 보드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

"무슨 일?"

"뭔가를 옮기는 일... 보드도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 보드는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렸어... 말포이의 아버지가 보드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보드가 뭔가를 옮기도록 주문에 걸렸단 말이야?"

론이 말했다.

"하지만 해리... 그건..."

"그 무기야."

해리가 론의 말을 대신 끝냈다.

"나도 알아."

그때 침실 문이 열리더니 딘과 시무스가 안으로 들어왔다. 해리는 침대 속으로 재빨리 다리를 집어넣었다. 시무스가 겨우 해리를 정신 나간 녀석으로 보지 않게

된 이 마당에, 또다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방금 네가 그 사람이었다고 말했니?"

론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 척하면서, 해리에게 바싹 고개를 숙이고 물었다.

"맞아."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론은 지나칠 정도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해리는 물이 턱을 타고 가슴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해리, 너는 그 이야기를..."

딘과 시무스가 옷을 벗고 떠들며 달그락달그락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틈을 타서, 론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만약 내가 오클러먼시를 할 수 있었다면, 난 그 장면을 보지 않았겠지. 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걸 배워야만 했던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거였어."

해리가 말하는 '그들'이란 덤블도어를 뜻했다. 그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론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옆으로 돌아누웠다. 잠시 후 론 역시 자리에 누웠는지, 그의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의 흉터가 다시 불에 덴 듯이 아팠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베개를 손으로 세게 두드렸다. 어디선가 애버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해리와 론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헤르미온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아무도 엿들을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원했다. 그러므로 늘 그렇듯이 서늘한 산들바람이 부는 운동장 한쪽 구석에 서서 해리는 기억나는 대로 자신의 꿈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그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헤르미온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프레드와 조지를 노려보았다. 머리가 사라진 두 사람은 운동장 반대편에서 망토 밑으로 투명 마법 모자를 팔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인 거야."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프레드와 조지로부터 시선을 돌리면서 조용히 말했다.

"보드가 그 무기를 훔치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 틀림없이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 무기나 혹은 그 주위에 방어 마법이 걸려 있었을 거야. 보드는 그 때문에 성 뭉고 병원에 입원한 거지. 머리가

이상해져서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이야. 하지만 치료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했어. 그들은 그가 더 나아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겠지. 안 그래? 보드가 그 무기를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마도 임페리우스 저주가 사라졌을 테니까 말이야. 일단 목소리가 돌아오면, 보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겠지. 그럼, 그가 무기를 훔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될테고, 물론 루시우스 말포이가

그에게 저주를 거는 건 아주 손쉬운 일이었을 거야. 항상 마법부 주위를 맴돌잖아?"

"내 청문회가 열리던 날에도 그는 마법부를 돌아다녔어."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그자는... 그날 미스터리 부서가 있는 층에 있었어! 너희 아버지는

아마 그자가 올래 밑으로 내려와서 내 청문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염탐하는 중일 거라고 말했지만 만약..."

"스터지스!"

헤르미온느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입을 딱 벌렸다.

"뭐라고?"

론이 어리둥절했다.

"스터지스 포드모어..."

헤르미온느가 숨 가쁘게 말했다.

"어느 방에 침입하려다가 체포되었잖아! 루시우스 말포이가 그에게도 저주를 건 것이 틀림없어! 분명히 네가 마법부에서 그를 보았던 그날 그랬을 거야. 해리,

스터지스는 무디의 투명 망토를 가지고 있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만약 그가 투명 망토를 입은 채, 문 옆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말포이가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거기 있다는 걸 짐작했다면? 혹은 혹시나 하고 경비가 서 있을 만한 자리에 임페리우스 저주를 쏘았다면? 그래서 스터지스가 다음 기회를 잡았을 때... 아마 또다시 보초를 설 차례가 되었을 때였겠지... 볼드모트를 위해서 그 무기를 훔치려고 미스터리 부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라면? 론, 가만히 좀 있어 봐. 그렇지만 결국 그는 불잡혀서 아즈카반으로 보내졌지..."

헤르미온느는 해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록우드가 볼드모트에게 어떻게 그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말했니?"

"그들 대화를 전부 듣진 못했어. 하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 록우드는 거기서 일한 적이 있다... 혹시 볼드모트가 록우드를 보내 그 일을 시킬까?"

헤르미온느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불쑥 말을 꺼냈다.

"하지만 넌 그걸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 해리."

"뭐라고?"

해리가 뒤로 주춤 물러섰다.

"넌 이런 것이 네 머릿 속에 들어오는 걸 막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엄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는 네가 본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

헤르미온느는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넌 지금부터 오클러먼시를 더욱더 열심히 배우도록 해."

한 주일이 다 가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해리는 마법약 수업에서 또다시 두 개의 D를 더 받았으며, 여전히 해그리드가 파면당할까 봐 가슴을 졸였다.

그리고 볼드모트가 되는 꿈 또한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또다시 헤르미온느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해리는 너무나 간절히 시리우스와 이 문제를 의논하고 싶었지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마음속 깊숙이 묻어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마음속조차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일어나라, 포터."

록우드에 대한 꿈을 꾼 지 이 주일이 지났을 때, 해리는 또다시 스네이프의 방에서 무릎을 끊고 쓰러진 채,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스네이프는 해리 자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강제로 그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냈다.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두들리와 그의 일당들이 그를 괴롭혔던 수치스런 일들에 관한 기억이었다.

"그 마지막 기억 말이다, 그게 뭐지?"

스네이프가 물었다.

"저도 모릅니다."

해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네이프가 불러내는 온갖 소리와 이미지의 흥수 속에서 제대로 된 기억을 분리해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던 것이다.

"제 사촌이 화장실 변기에 제 머리를 밀어 넣으려고 했던 그 기억 말씀인가요?"

"아니다."

스네이프가 나지막이 말했다.

"캄캄한 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무릎을 끊고 앉아 있는 기억 말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리가 대답했다. 스네이프의 까만 눈이 해리를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해리는 레질리먼시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스네이프의 말을 떠올리며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그 방과 그 남자가 어떻게 네 기억 속에 들어가 있지, 포터?"

스네이프가 물었다.

"그것은..."

해리는 스네이프의 시선을 피해서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저 제가 꿈을 꾼 겁니다."

"꿈이라고?"

스네이프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보라색 용액이 담긴 유리병 속에 둉뚱 떠 있는 커다란 죽은 개구리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너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지, 포터?"

스네이프가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내가 왜 이런 지겨운 일을 위해서 나의 저녁 시간을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네."

해리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대답해 봐라, 포터."

"저에게 오클러먼시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해리는 이제 죽은 장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맞았다, 포터. 아무리 네가 우둔하다고 해도..."

해리는 강렬한 증오심을 느끼며 스네이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달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약간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도대체 어둠의 마왕에 대한 꿈을 얼마나 자주 꾸는 거냐?"

"그 꿈 하나뿐입니다."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어쩌면... 너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는 걸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지, 포터."

스네이프는 차갑고 까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자신이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 같은 기분이 드냐?"

"아닙니다."

해리는 턱을 뺏뻣이 쳐들고 지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포터, 다행이구나."

스네이프가 차갑게 말했다.

"넌 특별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말이다. 어둠의 마왕이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내는 건 너의 소관이 아니야."

"맞아요. 그건 선생님의 임무가 아닌가요?"

해리는 그를 쏘아보았다.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해리는 자기의 말이 틀림없이 너무 지나쳤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스네이프의 얼굴에는 마치 만족스러운 듯한,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래, 포터."

스네이프의 눈이 번뜩였다.

"그게 내 임무지. 이제 네가 준비되었다면, 다시 시작하겠다."

스네이프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하나... 둘... 셋... 레질리멘스!"

백 명의 디멘터들이 운동장 호수를 가로질러 해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해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디멘터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두건 아래로 뻥 뚫린 검은 구멍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스네이프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원가 중얼거리며 해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점차 스네이프의 모습이 더 또렷해지고 디멘터들의 모습은 흐려졌다...

해리는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프로테고!"

스네이프가 비틀거렸다. 그의 지팡이가 해리로부터 멀리 훙 날아가 버렸다. 갑자기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매부리코의 한 남자가 잔뜩 몸을 웅크린 한 여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검은 머리의 작은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다... 머리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십 대 소년이 어두운 침실에 혼자 앉아서 천장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어 파리를 쏘아 맞추고 있었다... 왜소한 남자 아이가 마구 날뛰는 빗자루에 올라타려고 애를 쓰자, 한 여학생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만!"

해리는 가슴을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비틀거리며 몇 발짝 뒤로 물러난 그는 스네이프 방 벽에 달린 선반에 몸을 부딪쳤다. 그때 원가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스네이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파르르 몸을 떨고 있었다. 해리의 망토 뒤가 축축하게 젖었다. 그가 선반에 몸을 부딪히는 순간, 유리병 하나가 깨진 것이었다. 유리병 안에 들어있던 흐물흐물한 것이, 줄줄 새어 나오는 마법약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레파로!"

스네이프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깨진 유리병은 즉시 다시 붙었다.

"좋아, 포터... 확실히 실력이 늘었구나."

스네이프는 가볍게 숨을 헐떡이며 마치 내용물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펜시브를 바로잡았다. 늘 그렇듯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이었다.

"너에게 방패 마법을 쓰라고 말해 준 기억은 없는데...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군..."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잘못 입을 놀리면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방금 전에 그는 스네이프의 기억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분명했다. 스네이프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몇몇 장면들을 본 것이다. 부모님이 서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어린 소년이, 미움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다시 한 번 해보자. 알았지?"

스네이프가 말했다. 해리는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 이제 그가 방금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그들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다시 자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기가 더욱더

힘들 것 같았다.

"그럼 셋을 세겠다."

스네이프가 다시 한 번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하나... 둘..."

해리가 미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스네이프가 소리쳤다.

"레질리엔스!"

그는 미스터리 부서를 향해서 복도를 따라 달려가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돌 벽과 횃불들을 지나서... 빛난 검은 문이 점점 더 커졌다.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하마터면 그 문과 거의 충돌할 뻔했다. 이제 문은 겨우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 순간 또다시 벌어진 문틈으로 희미한 푸른 빛이...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다! 마침내 그는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검은
마루가 깔려 있고 검은 벽으로 둘러싸인 둥근 방 안으로, 푸른색 촛불이 밝혀진
그 방에는 더 많은 문들이 빙 둘러 있었다. 그는 어디로든 가야만 했다. 하지만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포터!"

해리는 눈을 뜰었다. 어느 사이엔가 그는 또다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미스터리 부서의 복도를 쭉 달려서 검은 문을 젖히고 들어가
둥근 방을 발견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어디 한 번 설명해 봐라!"

스네이프가 잔뜩 성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저...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해리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혔던 뒤통수에는 커다란 혹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웬지 열이 나는 것
같았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에 대해서
꿈을 꾼 적은 있지만, 전에는 결코 열리지 않았어요..."

"넌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

어쩐지 스네이프는 이 분 전에 해리가 그의 기억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이 게으르고 나약한 녀석, 그건 당연하지. 어둠의 마왕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선생님?"

다시 발끈 화가 치밀어 오른 해리가 따져 물었다.

"왜 선생님은 볼드모트를 어둠의 마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말은 오직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를 부를 때 이외에는 못 들어 봤는데요."

스네이프는 입을 딱 벌리고 으르렁거렸다. 바로 그때 방 밖의 어디선가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스네이프는 번쩍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스네이프가 중얼거렸다. 해리는 현관 복도 쪽이라고 짐작되는 방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스네이프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돌아보았다.

"포터, 여기로 내려오는 길에 뭔가 이상한 걸 못 봤느냐?"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머리 위의 어디선가 또다시 여자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네이프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지팡이를 손에 꼭 쥔 채,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곧 밖으로 사라졌다. 해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뒤를 따라갔다.

비명 소리는 과연 현관 복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해리가 지하 교실에서
돌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비명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해리는 현관 복도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연회장에서 한창 저녁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보려고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왔던 것이다. 대리석 계단 위에도 학생들이 빽빽이 몰려 서
있었다. 해리는 키가 큰 슬리데린 학생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갔다.

구경꾼들이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빙 둘러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얼이 빠진 표정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겁에 질린 것 같았다. 바로 해리 맞은편에서 있는 맥고나걸 교수조차도 눈앞에 벌어진 광경 때문에 당장에라도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현관 복도 한가운데에는 트릴로니 교수가 한 손에는 텅 빈 세리주 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는 든 채,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늘로 뻗어 있었으며, 코에 삐딱하게 걸린 안경 때문에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다. 어깨 위에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 수많은

슬과 스카프는 마치 갈기갈기 찢긴 트릴로니의 마음 같았다. 한편 바닥에는 커다란 트렁크 두 개가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거꾸로 뒤집혀 있는 꼴이 아무래도 계단에서부터 밑으로 내던져진 것 같았다. 트릴로니 교수는 잔뜩 겁에 질려서 계단 발치에서 있는 무언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다.

"안 돼!"

트릴로니 교수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난 절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몰랐단 말인가요?"

여학생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잔인하게도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다. 약간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해리는, 트릴로니 교수가 겁에 질려 바라보는 상대가 다름 아닌 엉브릿지 교수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내일 날씨조차 예언할 능력이 없는 당신이지만, 참관 수업 때 그토록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 주고 그 후로도, 전혀 나아진 바가 없으면, 당연히 쫓겨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진작 깨달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당신이 뭔데!"

트릴로니 교수가 울부짖었다. 커다란 안경 뒤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신이 날 쫓을 수는 없어! 난 여기서 16년 동안이나 가르쳤단 말이야!
호...호그와트는 내...내 지...집이야!"

"과거에는 당신의 집이었겠죠."

엉브릿지가 딱 잘라 말했다. 해리는 트렁크 위에 털썩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는 트릴로니 교수를 지켜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엉브릿지의 두꺼비 같은 얼굴을 보자, 발끈 분노가 치솟았다.

"한 시간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법부 장관님께서 당신의 해직 명령서에 승인을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 제발 이 현관에서 나가 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난처해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엉브릿지는 고소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트릴로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슬픔으로 넋이 나간 트릴로니는 트렁크 위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부들부들 떨며 통곡했다. 문득 해리의 왼쪽에서 숨을 죽인 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라벤더와 패르바티가 서로 어깨를 감싸고 소리없이 울고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맥고나걸 교수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더니 트릴로니 교수를 향해서 곧장 걸었다. 그녀는 트릴로니 교수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망토 안에서 커다란 손수건을 꺼냈다.

"자, 자, 사이빌... 진정해요... 이걸로 코를 풀어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당신은 결코 호그와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 정말인가요, 맥고나걸 교수님?"

엉브릿지가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나오면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감히 그런 발언을...?"

"그건 나의 권위로 말한 거요."

굵고 낯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떡갈나무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덤블도어가 현관 입구에 모습을

나타내자, 그 옆에 서 있던 학생들이 황급히 길을 비쳤다. 덤블도어가 운동장에서 월하고 있었는지, 해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 안개 낀 어둠을 배경으로 열린 문 앞에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덤블도어는 문을 활짝 열어 둔 채, 빙 둘러서 있는 구경꾼들 사이를 지나 트릴로니 교수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갔다. 눈물이 얼룩진 얼굴로 트렁크 위에서 떨고 있는 그녀 옆에는 맥고나걸 교수가 나란히 서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 당신의 권위라고요?"

엄브릿지는 대단히 불쾌한 웃음을 잠깐 짓더니 말했다.

"당신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여기 마법부의 장관님과 내가 직접 서명한 해직 명령서가 있어요."

엄브릿지는 망토 안에서 양피지두루마리를 꺼냈다.

"교육 법령 23 조에 따라서 호그와트의 장학사는 수업을 참관하고, 그가 보기에,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바로 제가 보기에 마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누구든지 유예 판정을 내리거나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트릴로니 교수가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해서 그녀를 해고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덤블도어 교수는 계속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그는 트렁크 위에 앉아서 여전히 목이 메어 울고 있는 트릴로니 교수를 내려다보았다.

"엄브릿지 교수님, 당신 말씀이 물론 옳습니다. 장학사로서 당신은 저희 교사들을 파면시킬 권리가 있고말고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들을 이 성에서 내쫓을 권리는 없소이다."

덤블도어 교수는 살짝 허리를 숙여 공손히 절을 하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까지 교장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트릴로니 교수가 계속 호그와트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말을 듣자, 트릴로니 교수는 연신 땀꾹질을 하면서도 기가 막힌 듯이 웃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떠...떠나겠어요, 덤블도어! 나...나는 호그와트를 떠날 거예요.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 제 운명을 찾아보겠어요."

"아니오. 사이빌. 나는 당신이 여기 남길 바라오."

덤블도어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러고는 맥고나걸 교수를 향해 돌아섰다.

"혹시 사이빌을 위총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겠소, 맥고나걸 교수?"

"물론이죠. 그만 일어서요, 사이빌..."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그러자 스프라우트 교수가 재빨리 학생들 틈을 비집고 나와서 트릴로니 교수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았다. 그들은 함께 엄브릿지 앞을 지나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플리트윅 교수가 지팡이를 꺼내 들고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그리고 "로코모토르 트렁크!"라고 소리치자, 트릴로니 교수의 트렁크가 허공으로 둉뚱 떠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플리트윅 교수는 맨 뒤를 따라갔다.

엄브릿지 교수는 아직도 덤블도어를 노려보며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다.

"제가 새로운 점술 선생을 임명해서 트릴로니가 쓰고 있는 방을 요구하면, 그때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죠?"

"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덤블도어가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벌써 새로운 점술 선생님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1층에서 지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구했다고요?"

엄브릿지가 날카롭게 말했다.

"벌써 구했단 말인가요? 덤블도어,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려야 할 것 같군요. 교육 법령 22 조에 따르면..."

"마법부는 적당한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단지... 단지 교장이 적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덤블도어 교수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덤블도어 교수는 활짝 열린 현관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뾰얀 밤안개가 스며스며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해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현관 주위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어나더니 문 옆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선생을 위해 길을 비켜 주려고 너무 서두르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뿌연 안개를 뚫고 한 얼굴이 나타났다. 언젠가 어둡고 위험했던 어느 날 밤에 해리가 금지된 숲에서 보았던 얼굴이었다. 눈부신 금발과 깜짝 놀랄 정도로 새파란 눈동자, 인간의 모습을 한 머리와 상반신, 그리고 말의 형상을 한 하반신.

"이쪽은 피렌체입니다."

덤블도어는 벼락을 맞은 듯이 얼이 빠져 서 있는 엉브릿지에게 유쾌한 목소리로 소개했다.

"당신도 그가 이 일에 적임자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 27 장 켄타우로스와 밀고자

"이제 와서 점술 수업을 포기한 게 후회돼서 죽겠지? 안 그래, 헤르미온느?"

패르바티가 싱글싱글 웃으며 헤르미온느의 약을 올렸다.

트릴로니 교수가 파면을 당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패르바티는 지팡이로 속눈썹을 맙아 올리고는 숟가락 뒤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창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날 오전에 피렌체 교수와의 첫 번째 수업이 있었던 것이다.

"전혀 아니야."

'예언자 일보'를 읽고 있던 헤르미온느는 조금도 흥미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맡은 내 취향이 아니거든."

헤르미온느는 계속 신문을 넘기며 기사를 살펴보았다.

"그는 말이 아니야, 켄타우로스라고!"

헤르미온느의 대답에 라벤더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게다가 너무 너무 잘생긴 켄타우로스지..."

패르바티가 탄식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다리가 네 개잖아. 그건 그렇고 너희 두 사람은 트릴로니가 쫓겨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줄 알았는데?"

헤르미온느가 쌀쌀맞게 핀잔을 주었다.

"물론이야!"

라벤더가 대답했다.

"우리는 트릴로니 교수님의 방까지 찾아갔었어. 수선화를 좀 가지고 말이야. 물론 스프라우트 교수님이 키우는 그 경적 울리는 수선화 말고 예쁜 걸로."

"좀 어떠셔?"

해리가 물었다.

"별로 좋지 않아, 가엾은 분."

라벤더가 동정하며 말했다.

"계속 우시면서 엉브릿지와 함께 여기서 지내느니 차라리 성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 그려는 것도 당연해. 엉브릿지가 그녀에게 너무 지독한 짓을 했잖아,

안 그래?"

"내 생각에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봐."

헤르미온느가 우울하게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지독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론이 계란과 베이컨이 담긴 커다란 접시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엉브릿지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자기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새로운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할 거야."

헤르미온느가 신문을 탁 덮으며 단언했다.

"게다가 인간이 아닌, 반 인간을 데려왔잖아. 피렌체를 보았을 때, 그 여자 표정이 어땠는지 너도 봤잖아."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헤르미온느는 산술점 수업을 들으러 갔다. 한편 해리와 론은 점술 수업을 위해 패르바티와 라벤더의 뒤를 따라서 현관 복도로 나갔다. "북쪽 탑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

패르바티가 대리석 계단 앞을 그냥 지나치자,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패르바티는 어깨 너머로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피렌체가 어떻게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겠니? 이제부터는 11호 교실에서 수업을 할 거야. 어제 게시판에 적혀 있었어."

11호 교실은 대연회장과 반대편으로 현관 복도를 따라 가다 보면, 1층에 있었다. 해리는 그곳이 대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교실들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창고나 사물 보관함처럼 약간 소홀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론의

뒤를 곧장 따라 들어간 해리는 갑자기 나타난 숲 속의 공터를 보고 잠시 얼이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어떻게...?"

교실 바닥에는 촉촉한 이끼가 깔려 있었고 사방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천장과 창문에는 나뭇잎이 무성한 나뭇가지가 뒤덮여 있어서, 방 안 가득히 얼룩덜룩한 부드러운 초록색 빛이 비스듬히 스며 들어왔다. 먼저 도착한 학생들은 나무줄기나 바위에 몸을 기댄 채, 두 팔로 무릎을 꺼안거나 팔짱을 끼고 흙이 깔린 바닥에 앉아 있었다. 모두들 약간 초초해 보였다. 나무가 없는 공터 한가운데에는 피렌체가 우뚝 서 있었다.

"해리 포터구나."

해리가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피렌체가 손을 내밀었다.

"어... 안녕하세요."

해리는 켄타우로스와 악수를 했다.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고, 깜짝 놀랄 만큼 푸른 눈으로 해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켄타우로스가 눈부신 금발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예견했었지."

해리는 피렌체의 가슴에 말발굽 모양의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잠시 후 바닥에 앉아 있는 다른 학생들 쪽으로 돌아섰을 때, 모든 아이들이 경탄의 눈으로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가 그토록 무시무시해 보이는 피렌체와 서슴없이 말을 나누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교실 문이 닫히고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생이 쓰레기통 옆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자, 피렌체는 방 안을 손으로 가리켰다.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를 위해 이 교실을 꾸며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살았던 곳과 비슷하게 말이죠."

모두들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피렌체가 입을 열었다.

"물론 저는 여기보다는 금지된 숲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불과 월요일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던... 그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군요."

"저... 어... 선생님."

패르바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말했다.

"왜 그러면 안 되죠? 해그리드 선생님과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용감한가 하는 문제가 아니란다. 내 처지 때문이지. 난 숲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무리들이 나를 쫓아냈거든."

"무리라고요? 오, 이런!"

라벤더가 어리둥절해서 소리쳤다. 해리는 그녀가 무슨 소 떼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음을 눈치 챘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알겠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럼, 선생님 같은 것이 또 있단 말인가요?"

라벤더는 얼이 빠져 물었다.

"해그리드가 선생님을 길렀나요? 세스트랄처럼?"

딘이 진지하게 물었다. 피렌체는 천천히 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딘은 비로소 자기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죄송해요."

딘이 쉰 목소리로 말을 끝냈다.

"肯타우로스는 인간의 종이나 노리개가 아니란다."

피렌체가 조용히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패르바티가 다시 손을 들었다.

"저, 선생님... 왜 다른肯타우로스들이 선생님을 추방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덤블도어 교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지. 우리 동족은 그걸 배신행위로 보거든."

피렌체가 대답했다.

해리는 거의 4년 전에肯타우로스 베인이 피렌체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던 기억이 떠올랐다. 피렌체가 해리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등에 올라타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베인은 피렌체를 '천한 노새'라고 불렀다. 해리는 이번에도 피렌체의 가슴을 걷어찬 것이 베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피렌체가 말했다. 그는 긴 말 꼬리를 흔들며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무성한 나뭇가지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를 밑으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교실

안의 빛이 희미해지면서 마치 해가 질 무렵 숲 속 공터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교실 천장에는 하나둘씩 별이 떠올랐다. 아이들 입에서는 우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혼은 모두에게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럴 수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눕도록 해요."

피렌체가 평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우리 종족의 운명이 쓰여 있답니다. 물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해리는 등을 쭉 펴고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에서 깜박거리는 붉은 별 하나가 그에게 윙크를 했다.

"여러분들은 천문학 수업 시간에 별들의 이름과 그 위성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피렌체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늘을 지나가는 별들의 경로에 대한 지도도 그려 보았겠죠.肯타우로스들은 몇 세기 동안이나 별들의 운행이 지닌 신비를 밝혀 왔습니다. 그 발견을 통해서肯타우로스들은 저 하늘에서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답니다."

"트릴로니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점성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패르바티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자세 그대로 손을 번쩍 치켜들며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성은 사고와 화재,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화성이 토성과 직각을 이루면, 이렇게 말이죠..."

패르바티는 허공에 대고 직각을 그려 보였다.

"뜨거운 것을 만질 때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건 전부 인간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피렌체가 조용히 말했다. 순간 패르바티의 손이 맥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다.

"인간들이 겪는 사소한 부상이나 작은 사건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개미 발자국만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들의 운행에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트릴로니 교수님은..."

패르바티가 자존심이 상하고 분에 찬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한낱 인간일 뿐이지."

피렌체가 딱 잘라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 같은 인간들의 약점에 얹매여 아무것도 보지 못한단다."

해리는 살짝 고개를 돌려 패르바티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녀 주위에 있는 몇몇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이빌 트릴로니가 미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모릅니다."

피렌체가 말을 계속했다. 해리는 그가 왔다갔다 걸을 때마다, 긴 꼬리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위 인간들이 '점'이라고 부르는 자기 기만적인 헛소리에 시간을
낭비해 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켄타우로스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공평무사하고 합리적이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거대한 악의 흐름이나 혹은 때때로 나타나는 변화를 찾아내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쯤 걸릴지도 모릅니다."

피렌체는 바로 해리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붉은 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난 10년 동안, 저 별은 마법사들이 두 전쟁 사이의 짧은 평화 시기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암시해 왔어요. 전쟁의 사령인 화성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죠? 저것은 머지않아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켄타우로스들이 특별한 약초와
나뭇잎을 태워서 그 불길과 연기를 보고 예측할 수 있죠..."

이것은 해리가 지금껏 들어 본 중에 가장 신기한 수업이었다. 그들은 교실
바닥에서 정말로 세이지(약용 샐비어) 잎과 약초를 불에 태워 보기도 했다.

피렌체는 그들에게 매운 연기 속에서 형상과 상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 아무도 그가 묘사하는 징표를 발견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인간들은 원래 이런 일에 능숙하지 못한 법이며,
켄타우로스들도 능숙해지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에 너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켄타우로스라도 징표를 잘못 읽을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피렌체는 해리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인간 선생님들과도 달랐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세상 어떤 것도, 켄타우로스의 지식조차도 절대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심어 주기 위해 애를 썼다.

"결국 구체적인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 안 그래?"

론이 약초를 태우던 불을 끄면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말은, 나라도 곧 다가올 이 전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순간 교실 밖에서 요란하게 종이 울리자, 모두들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해리는 여전히 이곳이 성 안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서 정말로 숲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약간 어안이벙벙한 표정으로 출지어 교실을
나왔다.

해리와 론이 다른 아이들의 뒤를 따라서 막 나가려고 할 때, 피렌체가 그를
불러 세웠다.

"해리 포터,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해리는 몸을 돌렸다. 켄타우로스가 조금 앞으로 다가왔다. 롤이 머뭇거리며 망설였다.

"너도 남아 있어도 좋다."

피렌체가 말했다.

"하지만 문은 꼭 닫아라."

론은 황급히 지시에 따랐다.

"해리 포터, 너는 해그리드의 친구지, 그렇지 않니?"

켄타우로스가 물었다.

"네."

해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해그리드에게 나의 경고를 좀 전해 주렴.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이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해라."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해리가 영문을 모르고 그의 말을 따라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이다."

피렌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직접 해그리드에게 경고하고 싶지만, 이제 난 추방된 몸이라서 말이다. 내가 금지된 숲에 너무 가까이 가는 건 별로 현명한 짓이 아니야.

켄타우로스와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해그리드는 이미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아."

"하지만... 해그리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해리가 약간 불안한 듯이 물었다. 피렌체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해그리드는 최근에 나에게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었단다. 게다가 나는 오래 전부터 살아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헌신적인 애정을 보이는 그를 존경해 봤지. 그래서 난 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해그리드는 이제 그만 정신을 차려야 해.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해리 포터, 그렇게 전해다오. 그럼 잘 가거라."

'이러쿵 저러쿵'에 인터뷰 기사가 나온 직후에 해리가 느꼈던 행복감은 벌써 오래 전에 사라졌다. 구름 낀 3월이 폭풍우 몰아치는 4월로 변하는 동안, 그의 인생은 또다시 걱정과 근심의 긴 연속이 된 것 같았다.

엄브릿지는 계속해서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빠짐없이 참관했다. 그러므로 피렌체의 경고를 해그리드에게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마침내 어느 날 해리는 '신비한 동물 사전'을 잊어버린 척 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해그리드를 찾아갔다. 그가 피렌체의 말을 전하자, 해그리드는 한동안

퉁퉁 붓고 멍이 든 눈으로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에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참 좋은 친구야, 피렌체는."

해그리드가 굵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잘 모르면서 떠들고 있군. 내가 하려는 일은 아주 잘되고 있는 걸."

"해그리드,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해리가 진지하게 물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해요. 엄브릿지는 벌써 트릴로니를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그 여자는 계속 잘나가고 있어요. 혹시 해그리드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다가..."

"세상에는 직장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 손을 덜덜 떠는 바람에 크날 똥이 잔뜩 담긴 대야를 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해리. 다 괜찮아, 착한 녀석."

해리는 바닥 위에 흘어진 뜰을 치우고 있는 해그리드를 남겨 둔 채, 그냥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성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해리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한편, 선생님들과 헤르미온느가 거듭거듭 일깨워 온 것처럼, O,W,L 시험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었다. 5학년 학생들 전체가 어느 정도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나 아보트는 약초학 수업 시간에 월칵 눈물을 터뜨리며 자기는 너무 명청해서 시험을 칠 수 없으니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한바탕 소란을 떤 끝에, 결국 폼프리 부인으로부터 진정 물약을 처방받은 첫 번째 학생이 되었다.

만약 D,A 모임이 없었더라면, 해리는 자신이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때때로 해리는 필요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만 자신이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고, D,A 회원들의 실력이 쑥쑥 느는 것을 보면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해리는 가끔씩 D,A 회원 전부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 O,W,L에서 '특출함'을 받으면 엉브릿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곤 했다.

그들은 드디어 패트로누스 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연습에 지극한 열성을 보였지만, 아무런 위협도 없을 때 환한 교실 한가운데서 패트로누스를 불러내는 것과 디멘터와 같은 것을 맞닥뜨렸을 때 불러내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걸 해리는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오, 제발 그렇게 흉 좀 깨지 마."

부활전 전의 마지막 연습 시간이었다. 초는 필요의 방 안을 둥동 떠다니는 자신의 은빛 백조 패트로누스를 바라보며 신이 나서 소리쳤다.

"너무 예쁘다!"

"패트로누스는 보기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널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야." 해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보가트나 그런 게 꼭 필요해.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 보가트가 디멘터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때, 나는 패트로누스를 불러내야만 했어."

"하지만 그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라벤더가 말했다. 그녀의 지팡이는 은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난 아직도... 못하겠어!"

라벤더가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네빌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지팡이 끝에서는 한 줄기 은색 연기만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뭔가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야 해."

해리가 다시 한 번 네빌에게 주의를 주었다.

"노력하고 있어."

네빌은 잔뜩 풀이 죽어서 말했다. 사실 어찌나 열심히 애를 썼는지 그의 동그란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해리, 나도 해낸 것 같아!"

시무스가 소리쳤다. 그는 딘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D,A 모임에 참석했다.

"이거 봐... 이런... 사라졌네... 하지만 분명히 원가 털 달린 짐승이었어, 해리!"

헤르미온느의 패트로누스는 은빛 수달이었는데, 그녀 주위를 뛰놀고 있었다.

"정말 멋지다, 안 그러니?"

헤르미온느는 그것을 애정 어린 눈길로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필요의 방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해리는 돌아서서 누가 들어오는지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해리는 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이어 원가 무릎 근처에서 자신의 망토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밑을 내려다보자, 뜻밖에도 집요정 도비가 평소처럼 여덟 개의 털모자를 머리에 쓰고 그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안녕, 도비! 무슨 일이지? 뭐가 잘못됐니?"

해리가 묻자, 도비의 눈이 두려움으로 휙둥그레지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해리 근처에 서 있던 D,A 회원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모두들 도비를 쳐다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간신히 불러낸 패트로누스들이 희미한 은색 연기가 되어 사라지자, 방 안이 전보다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해리 포터..."

도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덜덜 떨면서 꽥꽥거렸다.

"해리 포터... 도비는 경고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하지만 집요정들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어요..."

도비는 머리를 숙이고 벽을 향해서 돌진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벌하는 도비의 습관을 한 번 경험한 바가 있는 해리는 재빨리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비는 그저 돌 벽에 부딪쳐 다시 퉁겨 나올 뿐이었다. 머리에 쓴 여덟 개의 모자 덕분이었다. 헤르미온느와 다른 여학생들은 도비가 가엾고 걱정스러워서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야, 도비?"

해리가 집요정의 가느다란 팔을 붙잡으며 물었다. 어떤 물건이든 또다시 그를 다치게 할 만한 것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서였다.

"해리 포터...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도비는 붙잡히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코를 힘껏 내리쳤다. 해리는 그쪽 팔도 얼른 잡았다.

"그 여자가 누구지, 도비?"

하지만 해리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도비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는 여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집요정은 약간 사팔뜨기처럼 보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다.

"엄브릿지?"

해리가 두려워하며 물었다. 도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해리의 무릎에 머리를 쾅 부딪치려고 했다. 해리는 두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그 여자가 뭘 어쨌다는 거지, 도비? 설마 여길 발견한 건 아니겠지? 우리에 대해서? D,A에 대해서?"

해리는 잔뜩 겁에 질린 도비의 표정에서 그 대답을 읽었다. 해리에게 두 팔을 붙잡힌 도비는 자기 발로 자신을 걷어차려고 했다.

"그 여자가 오고 있니?"

해리가 조용히 물었다. 도비는 크게 신음 소리를 한 번 내더니 대답했다.

"그래요, 해리 포터. 맞아요!"

고개를 든 해리는, 몸부림치는 집요정을 겁에 질린 얼굴로 꼼짝하지 않고 서서 응시하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서 달려!"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아이들은 일제히 입구를 향해 우르르 달려갔다. 한꺼번에 문쪽으로 몰려든 아이들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해리는 아이들이 전속력으로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부디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곧장 기숙사 침실로 향하지 않기를 바랐다. 지금은 겨우 아홉 시 십 분 전이었다. 차라리 좀더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나 부엉이 장으로 몸을 숨기면 좋을 텐데...

"해리, 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헤르미온느가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벌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도비를 붙잡았다. 그리고 집요정과 팔짱을 끈 채,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쪽으로 달려가서 섰다.

"도비, 이건 명령이야. 다른 집요정들이 있는 부엌으로 돌아가. 혹시 그 여자가 나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거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짓도 그만둬!"

해리는 이 말을 덧붙이고 도비를 놓아 주었다.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문턱을 넘어서자, 방문이 쾅 하고 닫혔다.

"고맙습니다, 해리 포터!"

도비가 인사를 하고 종종걸음으로 내달았다. 해리는 좌우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모두들 어찌나 동작이 빠른지, 양쪽 복도 끝에서 헥 돌아서는 발뒤꿈치만이 잠깐 보였다가 곧 사라졌다. 해리는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앞쪽에는 남학생 욕실이 있었다.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만 하면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 댈 수 있을 것이다.

"어이쿠!"

뭔가가 그의 발목 근처를 붙잡았다. 해리는 우당탕 요란하게 넘어지면서 앞으로 2 미터쯤 멎지게 미끄러졌다. 누군가 뒤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몸을 퉁글며 뒤를 돌아보니 말포이가 용 모양의 흉측한 꽂병 밑에 숨어 있었다.

"포터, 체포 주문이야!"

말포이가 소리쳤다.

"교수님, 여기요! 교수님! 제가 잡았어요!"

엄브릿지가 복도 저 끝에서 허둥지둥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싱글싱글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바로 그 녀석이로구나!"

복도에 쓰러진 해리를 보자, 엄브릿지가 탄성을 질렀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드레이코! 슬리데린에 50 점이다! 이 녀석은 내가 데려가겠다. 일어서라, 포터!"

해리는 두 사람을 노려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브릿지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 엄브릿지는 범죄자라도 체포한 듯이 그의 팔을 붙잡고 말포이를 보며 활짝 웃었다.

"너는 얼른 달려가서 혹시 다른 녀석들이 또 없는지 살펴보렴, 드레이코."

엄브릿지가 말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도서관도 한 번 살펴보라고 해라. 혹시 숨이 차서 혁혁대는 녀석들이 있는지, 욕실도 둘러봐. 여학생 욕실은 파킨슨 양이 둘러보도록, 어서 가라. 그리고 너..."

말포이가 쓴살같이 그곳을 떠나자, 엄브릿지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넌 나와 함께 교장 선생님 방으로 가자, 포터."

몇 분 후에 그들은 아무기 석상 앞에 도착했다. 해리는 도대체 몇 명이나 붙잡혔을까 걱정스러웠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론은 위즐리 부인 손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또 헤르미온느는 O,W,L도 못 치러 보고 퇴학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심지어 시무스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빌은 몰라보게 실력이 느는

중이었는데...

"피징 위즈비."

엄브릿지가 암호를 대자, 아무기 석상이 펄쩍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벽이 갈라졌다. 그들은 움직이는 돌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그리핀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광택 나는 문 앞에 도착하자, 엄브릿지는 노크도 하지 않고 해리를 꽉 붙잡은 채,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덤블도어는 손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평온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바로 뒤에는 맥고나걸 교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긴장한 것 같았다. 난로 옆에서는 마법부 장관인 코넬리우스 퍼지가 앞뒤로

몸을 흔들며 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척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킹슬리 샤클볼트와 해리가 처음 보는, 우락부락한 인상에 머리가 짧고 뺏뻣한 마법사가 보초처럼 문 양쪽을 지키고 서 있었다. 벽 쪽으로 주근깨가 나고

안경을 쓴 퍼시 위즐리가 신이 나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손에는 깃펜과
목직한

양피지 두루마리를 든 채, 받아 적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게 분명했다.
오늘 밤에는 옛날 교장 선생님들의 초상화들도 잠자는 시늉을 하지 않았다.
모두들 바싹 긴장한 얼굴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몇 명은 재빨리 옆 초상화로 자리를
옮겨서 황급히 귓속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문이 닫히자, 엉브릿지가 해리를 꽉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사악한 만족감에 가득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

해리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비열한 표정으로 그에 맞섰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냉정하고
또렷했다.

"그는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엉브릿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잔뜩 들떠 있었다. 트릴로니
교수가 현관 복도에서 슬픔을 못 이기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엉브릿지의

말투에서 배어 나오던 잔인한 즐거움이 고스란히 다시 느껴졌다.

"말포이 학생이 그를 붙잡았죠."

"아, 그래요? 그랬단 말이죠."

퍼지가 감탄하듯이 말했다.

"잊지 말고 루시우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줘야겠군요. 자, 포터... 네가 여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겠지?"

해리는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고 그 말을
막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 덤블도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덤블도어는
정확히

해리 쪽이 아니라, 그의 어깨 너머 어느 한 지점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가 그를 보는 순간, 덤블도어의 고개가 양쪽 옆으로 살짝 움직였던
것이다.

해리는 말을 하던 도중에 황급히 방향을 급선회했다.

"예... 아니요."

"뭐라고?"

퍼지가 물었다.

"모릅니다."

해리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가 여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네, 모릅니다."

퍼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해리와 엉브릿지 교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해리는 잠깐 퍼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덤블도어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양탄자를 내려다보고 있던 덤블도어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찡긋했다.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지?"

퍼지가 잔뜩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엉브릿지 교수가 왜 널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지, 네가 학교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냐?"

"학교의 규칙이라고요? 아니요."

해리는 대답했다.

"아니면 마법부의 법령도?"

퍼지가 화가 나서 다시 물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해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퍼지가 혈압이 올라서 펄펄 뛰는 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짓말을

한 보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만약 누군가 D,A에 대해서 엉브릿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면,

그 모임의 주동자인 그는 지금 당장 짐을 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처음 듣는 소식이겠군."

퍼지가 애써 분노를 참느라 목이 메어 말했다.

"이 학교 내에서 불법적인 학생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해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관님, 제 생각에는 우리의 정보 제공자를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퍼지 옆에 서 있던 엉브릿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요."

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엉브릿지가 방을 나가자, 악의에 찬 눈초리로 덤블도어를 노려보았다.

"정직한 목격자만큼 확실한 건 없지요, 안 그렇소, 덤블도어?"

"그렇고말고요, 코넬리우스."

덤블도어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진지하게 대답했다.

몇 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잠시 후에 해리의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엉브릿지가 초의 곱슬머리 친구인

마리에타의 어깨를 붙잡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겁낼 것 없다. 얘야. 겁내지 마."

엉브릿지 교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간드러지게 말했다.

"괜찮아.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장관님께서도 네가 한 일을 무척 기뻐하고 계신단다. 네 어머니께 네가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지 직접 말씀드릴 거야."

엉브릿지는 고개를 들고 퍼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장관님, 마리에타의 어머니는 마법 교통부의 플루 가루 네트워크 사무국에 있는 에지콤 여사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호그와트의 벽난로들을 감시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지요."

"그럴군, 그래!"

퍼지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야. 그래, 이리 와라, 고개를 들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 네 이야기를 좀 들어 볼까... 어이쿠 이런!"

마리에타가 고개를 드는 순간, 퍼지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펄쩍 물러났다. 그 바람에 거의 난로 위에 주저앉을 뻔했다. 퍼지는 옥설을 퍼부으며 불이 붙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망토자락을 발로 밟았다. 마리에타는 활활 울음을 터뜨리며 망토 깃을 눈 밑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보라색 물집이 마구 돌아서 끔찍하게

변해 버린 그녀의 얼굴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본 이후였다. 그녀의 코와 뺨을 뒤덮은 물집은 '밀고자'란 글씨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 물집은 신경 쓰지 마라."

엉브릿지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당장 그 망토를 치우고 장관님께 말씀드려라..."

하지만 마리에타는 또다시 입을 막고 흐느끼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좋다. 멍청한 계집애. 내가 직접 말씀드리지."

엉브릿지가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금방 가증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장관님,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난 직후에 에지콤 양이 제 방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말이. 소위 필요의 방이라고 불리는, 7층에 있는 비밀의 방으로 가면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발견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캐묻자, 그녀는 거기서 일종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대목에서 바로 이 저주가 (엄브릿지는 짜증스럽게 마리에타의 감추어진 얼굴을 가리켰다) 효력을 발생하는 바람에, 이 여학생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얘야."

퍼지는 마치 자신이 자애로운 아버지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리에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엄브릿지 교수를 찾아가다니 아주 용감하구나. 넌 분명히 올바른 일을 한 거야. 그럼 이제 그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겠니? 목적이 뭐였지? 거기에 누가 있었니?"

하지만 마리에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겁에 질린 두 눈을 크게 뜨며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반대 주문은 없소?"

퍼지가 마리에타의 얼굴을 가리키며 엄브릿지에게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엄브릿지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주문 거는 실력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대답을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장관님께서도 제가 지난 10월에 보내 드린 보고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포터가 호그스미드에 있는 호그스 해드에서 학생들을 만났다는 보고서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무슨 증거가 있나요?"

맥고나걸 교수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미네르바, 나는 윌리 위더逡스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 시간에 우연히 그 술집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비록 온몸을 봉대로 칭칭 감고 있기는 했지만, 그의 청력은 아주 말짱했어요."

엄브릿지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그는 포터가 하는 말을 빠짐없이 듣고 곧장 학교로 와서 나에게 보고했죠."

"오, 그래서 그가 화장실들을 몽땅 엉망으로 만들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거로군요!"

맥고나걸 교수가 눈을 치켜뜨며 분개했다.

"우리의 법 체계에 대해서 참으로 흥미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군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정행위야!"

덤블도어의 책상 뒤에 걸린, 빨간 코의 뚱뚱한 마법사 초상화가 언성을 높였다.

"우리 때는 마법부가 결코 시정잡범들과 협상을 하지 않았소. 그렇고말고, 절대로 안했지!"

"고맙소, 포테스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포터가 학생들을 만난 목적은 그들을 설득해서 불법적인 조직에 가담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엄브릿지가 말을 이었다.

"그 조직의 목표는 마법부에서 학생 시절에는 배우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주문과 저주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돌로레스, 거기서 뭔가 잘못 아신 것 같군요."

덤블도어가 매부리코 위로 반쯤 훌러내린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도대체 덤블도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를 이 상황에서 구해 낼지 알 수 없었다. 윌리 위더逡스가 정말로 그가 호그스

해드에서 한 말을 모두 들었다면, 도망칠 구멍은 없었다.

"오호!"

퍼지가 다시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좋아요. 어디 포터를 이 곤경에서 구해 내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지어낸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어서 계속해 봐요, 덤블도어. 어서... 월리 위더逡스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호그스 해드에 포터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라도 있었단 말이오? 아니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든가 죽음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다든가, 눈에 안 보이는 두 명의 디멘터가 나타났다는 따위의 평범하고 간단한 해명이 또 있단 말이오?"

퍼시 위즐리가 이 말을 듣자, 깔깔 웃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장관님. 아주 훌륭하세요!"

해리는 그를 한 대 걸어차 주고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덤블도어는 빙그레 미소만 짓고 있었다.

"코넬리우스, 그날 호그스 해드에 해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소. 틀림없이 해리도 마찬가지일 거요. 또한 어둠의 마법 방어술 모임에 가입할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지 그런 모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돌로레스가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오.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모든 학생 모임을 금지하는 마법부의 법령은 해리가 호그스미드 모임을 가진 지 이틀이 지난 후에나 공포된 것이오. 그러니 해리는 호그스 해드에서 어떤 법도 어기지 않은 셈이오."

퍼시는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 되었다. 한편 퍼지는 입을 딱 벌린 채,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엄브릿지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건 다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

엄브릿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 법령 24 조가 공포된 지도 거의 6 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불법이 확실합니다."

덤블도어는 깍지 낀 손가락 너머로 엄브릿지를 예의 바르게 살펴보며 입을 열었다.

"그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그들이 계속 모였다면 분명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모임이 계속되었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습니까?"

덤블도어가 말을 하는 동안, 해리는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킹슬리가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알았다. 곧이어 원가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나 혹은 새의 날개처럼 아주 부드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밑을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증거라고요?"

엄브릿지가 두꺼비처럼 입을 꽉 벌리며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 쭉 듣지 않으셨나요, 덤블도어? 에지콤 양이 여길 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오, 그렇다면 저 학생이 우리에게 지난 6 개월 동안 모임이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덤블도어가 눈썹을 추켜올리며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그저 오늘 밤에 무슨 모임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 같던데요."

"에지콤 양."

엄브릿지가 즉시 말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말해 봐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절대로 물집이 더 심해지지는 않아요. 지난 6 개월 동안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났었나요?"

해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제 덤블도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와 맞부딪히게 된 것이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기만 해요."

엄브릿지가 마리에타를 살살 달랬다. 하지만 잔뜩 끌어올린 망토 깃과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것이라곤 그녀의 두 눈뿐이었다.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마리에타의 두 눈은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다. 다음 순간 해리는 기절할 듯 놀랐다. 그녀가 고개를 옆으로 저었던 것이다.

엄브릿지는 재빨리 퍼지 쪽을 한 번 살펴보더니 다시 마리에타를 보았다.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요. 그렇죠? 나는 지금 지난 6 개월 동안 그 모임에 갔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또다시 마리에타는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젓는 게 무슨 뜻이지?"

엄브릿지가 시험을 하듯이 또다시 물었다.

"마리에타의 뜻은 이제 분명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거세게 나섰다.

"지난 6 개월 동안 비밀 모임 같은 건 없었던 거죠? 맞나요, 에지콤 양?"

마리에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분명 모임이 있었어요!"

엄브릿지가 벌컥 화를 냈다.

"에지콤 양, 분명히 필요의 방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나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포터가 그 모임의 주동자죠? 포터가 그 모임을 만들지 않았나요? 도대체 넌 왜 자꾸 고개만 젓는 거지?"

"대개 사람들이 고개를 저을 때에는 '아니'라는 뜻이죠."

맥고나걸 교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에지콤 양이 혹시 인간에게 아직껏 알려지지 않은 몸짓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면..."

그 순간 엄브릿지 교수가 마리에타를 꽉 움켜잡더니 자기를 똑바로 마주 보도록 돌려세우고는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덤블도어 교수가 당장 지팡이를 치켜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킹슬리도 동시에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엄브릿지는 얼른 마리에타를 놓더니 마치 불에 덴 사람처럼 두 손을 흔들며 물러났다.

"내 학생들을 함부로 다루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소, 돌로레스."

덤블도어는 처음으로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었다.

"엄브릿지 여사, 진정하시는 게 좋겠군요."

킹슬리가 굵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아니에요."

엄브릿지가 자기 앞에 우뚝 선 킹슬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 말은... 그래요, 당신이 좋아요. 샤클볼트, 잠시 내... 내가 자신을 잊고 있었어요."

마리에타는 엄브릿지가 손을 놓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엄브릿지의 갑작스런 공격에 놀라거나, 혹은 그녀의 손아귀에서 풀려나서 안도하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여전히 망토 깃을 몽롱한 눈 밑까지 끌어올린 채, 뚫어져라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킹슬리의 말소리와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무언가와 관련해서 퍼뜩 해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혹이 있었다.

"돌로레스, 오늘 밤의 그 모임 말이오. 우리는 분명히 있었다고 확신하는데..."
"네."

엄브릿지는 자신을 추스르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에지콤 양이 제게 그 사실을 알려 준 후에 저는 당장 믿을 수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7 층으로 향했습니다. 모임 현장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눈치를 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 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온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 그들의 이름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

양이 저 대신 필요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혹시 원가 남기고 간 게 없을까 찾아보았답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결국 그 방에서 찾았죠."

순간 해리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엉브릿지가 호주머니에서 필요의 방 벽에 꽂혀 있었던 명단을 꺼내어 퍼지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다.

"이 명단에 적혀 있는 포터의 이름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명단인지 알아차렸죠."

엉브릿지는 조용히 말했다.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돌로레스."

퍼지는 만면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오, 이런..."

퍼지는 덤블도어를 노려보았다. 그는 아직도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마리에타 옆에 서 있었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모임 이름을 지었는지 보시겠소? 덤블도어의 군대요."

퍼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덤블도어는 손을 내밀더니 퍼지에게서 양피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헤르미온느가 쓴 모임 이름을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은 듯이 보였다. 잠시 후에 덤블도어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좋소. 게임은 끝났군."

덤블도어가 순순히 말했다.

"코넬리우스, 내가 직접 쓴 자필 고백서가 필요하오? 아니면 이 증거물 앞에 있는 진술이면 충분하겠소?"

해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맥고나걸 교수와 킹슬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해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것은 퍼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진술이라고? 난 도무지...?"

퍼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덤블도어의 군대 말이오. 코넬리우스."

덤블도어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이름이 적힌 종이를 코넬리우스의 코앞에 대고 흔들었다.

"포터의 군대가 아니라, 덤블도어의 군대 말이오."

"하지만... 하지만..."

갑자기 퍼지의 얼굴에 원가를 깨달았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퍼지는 혁 소리를 내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다가 다시 난로에 엉덩이가 달자, 펄쩍 뛰었다.

"당신이?"

퍼지는 또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망토를 발로 밟으며 속삭였다.

"그럴소."

덤블도어가 유쾌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 모임을 조직했단 말이오?"

"맞소."

덤블도어가 대답했다.

"이 학생들을 다... 당신의 군대로 선발했단 말이오?"

"오늘 밤이 첫 번째 모이기로 한 날이었소."

덤블도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저 이 학생들이 내 편에 가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소. 물론 이제 보니 에지콤 양을 초대한 건 실수였소."

마리에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퍼지는 가슴을 벌렁거리며 마리에타와 덤블도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그동안 당신은 나에게 맞설 음모를 꾸며 왔던 거로군!"

퍼지가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렇소."

덤블도어가 씩씩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해리가 소리쳤다. 그러자 킹슬리가 얼른 경고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맥고나걸 교수 또한 조용히 하라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갑자기 덤블도어 교수가 어떻게 하려는지 깨닫게 되자, 해리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안 돼요! 덤블도어 교수님!"

"조용히 해라, 해리. 그러지 않으면 내 방에서 그만 내보낼 수밖에 없다." 덤블도어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입 닥쳐! 포터!"

퍼지가 버럭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기쁨이 오락가락하는 표정으로 덤블도어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런, 이런... 나는 포터를 내쫓을 생각으로 오늘 밤 여기 왔는데... 그 대신..."

"그 대신 나를 체포하게 되었군."

덤블도어가 빙그레 웃었다.

"크넛을 잊고 갈레온을 주운 셈 아닌가?"

"위즐리!"

이제 퍼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위즐리,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받아 적었나? 한 마디도 빠짐없이, 그의 자백을 모두 적었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님."

퍼시가 열성적으로 대답했다. 어찌나 급하게 받아 적었는지 그의 코에까지 잉크가 얼룩져 있었다.

"그가 어떻게 마법부에 대항하여 군대를 조직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나를 실각시키려고 공작을 벌였는지도 모두 적었지?"

"예, 장관님. 모두 적었습니다!"

퍼시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받아 적은 기록을 살펴보며 대답했다.

"아주 잘했네. 그럼 그 기록을 복사해서 지금 당장 '예언자 일보'로 한 부 보내도록 하게나, 위즐리. 속달 부엉이를 보내면, 내일 아침 신문에 실을 수 있을 거야!"

퍼시는 문을 쾅 닫으며 쓴살같이 밖으로 튀어 나갔다. 퍼지는 덤블도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당신을 마법부로 데려가겠소. 그곳에서 당신은 공식 기소되어 재판이 열릴 때까지 아즈카반에 수감될 거요!"

"그럴군, 그래. 이제 우리는 작은 난관에 부딪힌 것 같구려."

"난관이라고?"

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난 전혀 모르겠는데, 덤블도어!"

"내 말은 내가 그렇다는 거였소."

덤블도어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아, 그렇소?"

"당신은 내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갈 거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난 절대로 순순히 따라갈 생각이 없소. 코넬리우스, 절대로 아즈카반에 들어갈 의향이 없단 말이오. 물론 일단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시간 낭비겠소. 솔직히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온갖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는데 말이오."

엄브릿지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다. 그녀는 마치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퍼지는 완전히 얼빠진 표정으로 덤블도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한 대 얻어맞고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퍼지는 목이 출리는 듯한 신음 소리를 내더니 킹슬리와 짧은 회색 머리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 남자는 이 방안에서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퍼지에게 안심하라는 듯이

고개를 한 번 끄덕이더니 벽에서 떨어져서 앞으로 몇 발짝 걸어 나왔다. 해리는 그 남자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나, 도울리쉬."

덤블도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자네가 아주 뛰어난 오러라는 걸 알고 있네. 자네가 N,E,W,T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특출함'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자네가... 어..."

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다칠지도 모르네."

도울리쉬라고 불린 그 남자는 바보처럼 눈만 꼼벅꼼벅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지시를 내려 달라는 듯이, 다시 퍼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자네는 혼자서 도울리쉬, 샤클볼트, 돌로레스 그리고 나와 맞서 보겠다는 건가, 덤블도어?"

"멀린의 수영에 맹세코, 그건 아닐세."

덤블도어가 씽끗 웃었다.

"자네가 날 악지로 끌고 가려는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는다면 말일세."

"덤블도어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망토 안으로 손을 찔러 넣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오, 미네르바! 호그와트는 당신이 필요하오!"

덤블도어는 황급히 그녀를 만류했다.

"헛소리 그만 집어치워!"

퍼지가 자신의 지팡이를 얼른 빼 들며 소리쳤다.

"도울리쉬! 샤클볼트! 저자를 잡아!"

그 순간 한 줄기 은색 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총을 쏘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마룻바닥이 흔들렸다. 누군가의 손이 해리의 목을 움켜쥐더니 은빛 섬광이 잠깐 스쳐 지나갈 때까지 그를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했다. 몇몇 초상화들이 고함을 지르고 퍽스가 날카롭게 울더니 뽀얀 먼지구름들이 온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먼지 속에서 캥캥 기침을 하던 해리는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앞으로 쾅 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비명 소리와 쿵 소리가 잇따랐다.

누군가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에 유리창이 깨지고 정신없이 왔다갔다하는

발소리, 신음 소리가 들리더니... 침묵이 찾아왔다.

해리는 거의 숨이 막혀 죽어 가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필사적으로 돌아보았다. 바로 그때 그의 옆에 바싹 웅크리고 앉아 있는 맥고나걸 교수를 발견했다. 그녀는 해리와 마리에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옆으로 떠밀었던 것이다. 허공에는 아직도 먼지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숨을 헐떡거리던 해리는

아주 키가 큰 사람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모두 괜찮소?"

덤블도어가 물었다.

"네!"

맥고나걸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리와 마리에타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이윽고 모든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폐허가 되어 버린 방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덤블도어의 책상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좁고 긴 탁자는 바닥에 부서져

있었다. 은빛 나는 도구들도 산산조각이 났다. 퍼지와 엉브릿지, 킹슬리, 도울리쉬는 마룻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편 불사조 퍽스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킹슬리에게까지 마법을 쏘지 않을 수 없었소. 그러지 않으면 너무 의심스럽게 보일 테니까 말이오."

덤블도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참으로 놀랄 만큼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에지콤 양의 기억을 저렇게 바꿔 주었소. 내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주겠소. 미네르바? 그리고 저 사람들 금방 깨어날 거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걸 저들이 모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소. 그러니 별로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시오. 그냥 잠깐 바닥에 쓰러졌던 것처럼

말이오. 저들은 기억하지 못할 거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덤블도어? 그리몰드 광장?"

맥고나걸 교수가 속삭였다.

"오, 아니오."

덤블도어가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다.

"난 어디론가 숨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오. 퍼지는 머지않아 날 호그와트에서 쫓아낸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요. 내 장담하지."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괜히 D,A를 시작해서 이런 말썽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 아니면 그가 퇴학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덤블도어가 떠나야 하다니

너무 괴롭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 하지만 덤블도어는 해리가 미처 다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말 잘 들어라, 해리."

덤블도어는 황급히 말을 이었다.

"너는 최선을 다해서 오클러먼시를 배워야만 한다. 내 말 알겠니? 스네이프 교수가 너에게 지시하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연습을 해라. 나쁜 꿈이 네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다. 너도 곧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어쨌든 꼭 약속해야 한다."

그때 도울리쉬라고 불리는 남자가 몸을 꿈틀했다. 덤블도어는 해리의 손목을 꼭 잡았다.

"명심해라. 정신을 방어해야만 한다."

하지만 덤블도어의 손가락이 해리의 몸에 달자마자, 해리의 이마가 격렬하게 쑤시면서 또다시 당장 그에게 덤벼들어 그를 물어뜯고 해치고 싶은, 무시무시한 충동이 강렬하게 솟구쳤다.

"너도 이해하게 될 거다."

덤블도어가 속삭였다. 바로 그때 퍽스가 방 위를 빙빙 돌더니 그의 머리 위로 내려왔다. 덤블도어는 해리를 붙잡은 손을 놓더니 얼른 팔을 들어서 불사조의 긴

황금 꼬리를 움켜쥐었다. 순간 불길이 확 타오르고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어디 있지?"

퍼지가 마루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어디로 간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킹슬리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순간이동을 했을 리는 없어요! 이 학교 안에서는 순간이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계단으로!"

도울리쉬가 문 쪽을 향해 쓴살같이 뛰어가더니 문을 열고 사라졌다. 그 뒤를 킹슬리와 엉브릿지가 바로 따라갔다. 잠시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리던 퍼지는 천천히 일어서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 냈다. 길고 괴로운 침묵이 이어졌다.

"미네르바, 이걸로 당신 친구인 덤블도어도 끝장난 것 같소."

퍼지는 찢어진 소맷자락을 똑바로 펴면서 심술궂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맥고나걸 교수가 경멸하듯이 말했다. 하지만 퍼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엉망이 되어 버린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몇몇 초상화 속의 인물들이 그를 향해 위협적인 야유를 던졌다. 한두 명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당신은 저 두 아이를 그만 침실로 데려가는 게 좋겠소."

퍼지가 해리와 마리에타를 향해 고갯짓을 하면서 맥고나걸 교수를 바라보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해리와 마리에타를 데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 등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혔을 때, 해리는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저와 덤블도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나름대로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제 28 장 스네이프의 가장 끔찍한 기억

마법부의 포고령

장학사 돌로레스 제인 엠브릿지가 알버스 덤블도어를 대신하여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림.

위의 내용은 교육 법령 28 조에 따른 것임

마법부 장관 코넬리우스 오스왈드 퍼지

밤 사이에 이 공고문이 학교 전체에 나붙었다. 하지만 어떻게 호그와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덤블도어가 두 명의 오러와 장학사, 마법부 장관 그리고 부보좌관을 물리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성 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일한 화제는

덤블도어의 도주였다. 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소한 사실들이 이상하게 왜곡되기도 했지만(해리는 2학년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지금 퍼지가 호박 머리를 단 채, 성 뭉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밖의 다른 내용들은 얼마나 정확한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예를 들면, 해리와 마리에타가 덤블도어의 방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학생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리에타가 병동에 누워 있는 이상황에서, 해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혼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머지않아 돌아오실 거야."

약초학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니 맥밀란은 해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듣고 나더니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2학년 때에도 그들은 덤블도어를 쫓아낼 수 없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뚱보 프라이어가 내게 말했는데..."

어니 맥밀란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면서 마치 음모라고 꾸미는 사람처럼 소곤거렸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바싹 몸을 숙여야만 했다. "지난밤에 덤블도어를 찾아서 성과 운동장을 삶살이 뛰진 끝에, 엠브릿지가 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기 상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군. 교장실은 절대 엠브릿지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대."

어니가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이 그 여자 기분이 좀 안 좋아했을 거야."

"그 여자는 분명 교장실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좋아했겠지." 헤르미온느가 가시 돌린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현관 복도를 향해 돌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다른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말이야. 멍청하고 배에 바람만 잔뜩 들어간, 권력 중독자 늙은이..."

"어디 그 문장을 한번 끝까지 다 말해 보시지? 그레인저?"

드레이코 말포이가 어느 틈에 문 뒤에서 살짝 모습을 나타냈다. 뒤에는 크레이브와 고일이 서 있었다. 창백하고 뾰족한 말포이의 얼굴은 적개심으로 불타올랐다.

"미안하지만 그리핀도르와 후플푸프 기숙사에서 각각 몇 점을 깎아야 하겠는데."

말포이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너는 다른 반장의 점수를 깎을 수 없어, 말포이."

어니가 즉각 응수했다.

"나도 반장들끼리는 서로 점수를 깎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말포이가 빙정거리자, 크레이브와 고일이 키키클거리고 웃었다.

"하지만 감사 위원회 위원은..."

"뭐라고?"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감사 위원회라고 했어, 그레인저."

말포이가 반장 배지 바로 밑에 달린 작은 은색 'T' 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법부를 돋기 위해서 엄브릿지 교수가 소수 정예 학생들을 직접 선발했지.

어쨌든 감사 위원회 위원은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그레인저, 너는 우리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모독한 죄로 5점을 깎겠어.

그리고

맥밀란, 너는 나에게 말대꾸한 죄로 5점이야. 포터, 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5점.

위즐리, 넌 옷을 다려 입지 않았구나. 그래서 또 5점을 깎겠어. 이런, 깜빡할 뻔했군. 그레인저, 넌 머글 혼혈이지. 그 때문에 10점을 깎아야겠다."

론이 지팡이를 뽑아 들자,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그를 가로막으며 속삭였다.

"그러지 마!"

"현명한 처사야, 그레인저. 새로운 교장 선생님... 새로운 시대야...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포터... 위즐왕..."

말포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 녀석이 빵치고 있는 걸 거야. 저 녀석 마음대로 점수를 깎도록 허락했을 리가 없어. ...그렇게 되면 정말 웃길 거야... 반장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될 텐데..."

어니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벽을 따라 세워져 있는 거대한 모래시계들 쪽으로 향했다. 그 모래시계들은 각 기숙사의 점수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만 해도 그리핀도르와 래번클로의 모래시계는 거의 잘록한 부분까지 채워져서 선두를 다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아래쪽 둥근 유리를 채우고 있던 보석들이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모래시계는 오직 에메랄드가 채워져 있는 슬리데린 기숙사의 것뿐이었다.

"눈치 챘구나?"

프레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대리석 계단을 내려온 그와 조지는 모래시계 앞에 서 있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어니에게로 다가왔다.

"말포이가 방금 우리 점수를 50 점이나 깎았어."

해리가 분개했다. 그 순간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리핀도르의 모래시계를 채우고 있던 보석 몇 개가 다시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 몬태규 녀석이 쉬는 시간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지." 조지가 말했다.

"'하려고 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론이 재빨리 물었다.

"하던 말을 다 끝내지 못했거든."

프레드가 대답했다.

"우리가 그 녀석을 곧장 1층에 있는 사라지는 옷장 안에 처박아 버렸기 때문이지."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다가는 엄청나게 곤란해질 텐데!"

"몬태규 녀석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는 괜찮아. 적어도 몇 주일은 걸릴걸. 그 녀석을 어디로 보냈는지 우리도 모르거든."

프레드가 태연하게 말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어떤 말썽이 일어나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

"언제는 했어?"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물론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퇴학당한 적이 없잖아. 안 그래?"

조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린 항상 어디서 맘춰야 할지를 알거든."

프레드가 말을 이었다.

"이따금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진짜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었지."

"하지만 지금은?"

론이 물었다.

"글쎄, 지금은..."

조지가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도 떠나 버린 이 마당에..."

프레드가 그의 말을 받았다.

"약간의 말썽쯤이야 우리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께서 마땅히 겪으셔야 할 고초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 여자는 너희들을 내쫓을 구실을 뜯 찾아서 안달하고 있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넌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헤르미온느."

프레드가 씩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이 학교에 남아 있고 싶지 않아. 덤블도어 교수님을 위해서 먼저 뭔가 하겠다는 결심만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이라도 당장 제 발로 여길 걸어 나갔을 거야. 어쨌든..."

프레드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머지않아 1단계 작전이 시작될 거야. 내가 너라면 점심 시간에 반드시 대연회장에 있겠어. 그래야 선생님들에게 네가 이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무슨 일을 하려고?"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자, 빨리 가자."

프레드와 조지는 재빨리 돌아서더니 점심을 먹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 틈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어니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미처 끝내지 못한

변신술 숙제를 잊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총총히 가 버렸다.

"우리도 당장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헤르미온느가 불안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좋아."

론이 말했다. 세 사람은 대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하얀 구름이 둉둥 떠다니는 오늘의 연회장 천장을 제대로 보기에도 전에, 누군가 해리의 어깨를 탁 쳤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코앞에 관리인 필치가 서 있었다. 해리는 황급히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 필치와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았다.

"교장 선생님께서 널 보자고 하신다, 포터."

필치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가 꾸미고 있다는 그 일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대답을 했다. 필치가 턱을 씰룩거리며 소리 없는 웃음을 웃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필치가 씨근거리며 말했다.

"날 따라와라..."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힐끗 뒤돌아보았다. 두 사람 모두 놓시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해리는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필치의 뒤를 따라서 배고픈 학생들의 물결을 헤치고 현관 복도로 다시 나갔다. 필치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첫 번째 층계참에 도착하자, 필치가 말했다.

"포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나도 알고 있어요."

해리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그래... 나는 별씨 몇 년 전부터 덤블도어에게 귀에 뜯이 박히도록 말해 왔지. 너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말이야."

필치는 심술궂게 키득키득 웃었다.

"나에게 너희들을 매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 뜻된 짐승 새끼들이 감히 똥 폭탄을 떨어뜨릴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 내가 너희들의 발목을 끌어서 내 방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면, 아무도 복도에다 송곳니가 돋은 원반을 떨어뜨려 놀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안 그래? 하지만 교육 법령 29조의 발동으로 이제 난 그런 일들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될 거다, 포터. 그리고 엉브릿지 교장 선생님은 피브스의 추방 명령서에 승인을 해달라고 장관님께 요청했지... 오, 엉브릿지 교장 선생님이 여길 맡게 된 이상,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엉브릿지는 필치를 거의 완전히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분명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아마도 필치가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학교 구석구석에 있는 비밀 통로와 은신처에 대해서라면, 필치는 거의 위즐리 쌍둥이 형제에 필적할 만큼 환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 왔구나."

필치는 해리는 곁눈질하더니, 엉브릿지 교수의 방문을 세 번 똑똑똑 두드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포터 학생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차례 나머지 공부를 해 온 해리에게 엉브릿지의 방은 아주 낯이 익었다. 책상 앞에 황금색 글자로 교장이라고 새겨진 커다란 나무 명패가 놓여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해리는 책상 뒤쪽 벽에 그의 파이어볼트와

조지의 클린스윕이 커다란 대못에 자물쇠로 채워진 채 묶여 있는 광경을 가슴 아프게 쳐다보았다. 엉브릿지는 책상에 앉아서 분홍색 양피지 위에 원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쳐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 활짝 웃었다.

"고마워요, 아구스."

엉브릿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 천만에요."

필치는 신경통으로 아픈 몸을 무릅쓰고 최대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앉아라."

엉브릿지는 의자를 가리키며 짤막하게 명령했다. 해리는 자리에 앉았다.

엉브릿지는 잠시 동안 쓰던 일을 계속했다. 해리는 그녀의 머리 위로, 뜻생긴 고양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이 그려진 접시들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엉브릿지가

또 어떤 새로운 꼼찍한 것을 준비했을까 생각했다.

"그래, 이제..."

마침내 엉브릿지가 깃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 모습이 마치 특별히 먹음직한 파리를 앞에 놓고 군침을 흘리는 두꺼비 같았다.

"뭘 마시겠니?"

"네?"

해리는 분명 자기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마실 것 말이다, 포터 군."

엉브릿지는 더욱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차" 커피? 호박 주스?"

엉브릿지는 차례차례 이름을 대며 지팡이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자 음료가 담긴 찻잔과 유리컵이 책상 위에 잇달아 나타났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해리가 거절했다.

"난 너와 함께 뭘 마시고 싶구나."

엉브릿지의 목소리는 거의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간드러졌다.

"하나를 선택해라."

"좋습니다... 그럼 차를 마시겠습니다."

해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엉브릿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아서서 차에다 우유를 타는 듯한 동작을 했다. 그러고는 기분 나쁠 정도로 애교가 철철 흐르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가지고 재빨리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여기 있다."

엉브릿지는 해리에게 차를 건넸다.

"식기 전에 어서 마셔라. 그래, 자, 포터군... 어젯밤에 그런 소란스런 사건을 겪었으니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니..."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엉브릿지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그가 차를 마시기를 기다렸다.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몇 분이 침묵 속에 흘렀다.

엉브릿지는 다시 다정하게 말했다.

"아직 다 마시지 않았구나!"

해리는 잔을 입술까지 들어 올렸다가, 갑자기 다시 밑으로 내렸다. 엉브릿지 뒤로 보이는 그 꼼찍한 고양이 그림들 중에 한 마리가 매드아이 무디의 마법의 눈과 똑같이 생긴 커다랗고 둥근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현듯 매드아이 무디에게서 적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 마시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던 기억이 났던 것이다.

"왜 그러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던 엉브릿지가 물었다.

"설탕을 넣어 줄까?"

"아니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는 잔을 다시 입술까지 들어올리며 한 모금 훌쩍 마시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꼭 다물고 있었다. 엉브릿지의 입이 옆으로 쭉 찢어졌다.

"좋아."

엉브릿지가 속삭였다.

"아주 잘했어. 그럼 이제..."

엉브릿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어디 있지?"

"모르겠는데요."

해리가 즉시 대답했다.

"어서 마셔라, 어서 마셔."

엉브릿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포터 군, 지금 우리는 어린애들 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너는 분명히 알고 있어. 너와 덤블도어는 맨 처음부터 한통속이었잖아. 포터 군, 자신의 처지를 잘 생각해 봐..."

"덤불도어 교수님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해리는 또다시 차를 마시는 시늉을 했다.

"좋다."

엄브릿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시리우스 블랙이 어디 있는지 말해 주겠니?"

갑자기 해리는 뱃속이 울컥 뒤집어지면서 찻잔을 쥐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다.

해리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찻잔을 입 쪽으로 기울였다. 뜨거운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망토 안으로 훌러 들어갔다.

"전 모릅니다."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포터 군. 지난 10월에 그리핀도로 기숙사 벽난로에서 그 범죄자 블랙을 거의
붙잡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지. 나는
그자가 널 만나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내 장담하지만, 만약 그때
증거를 잡았다면 너와 블랙 둘 다 지금쯤 자유롭지 못했을 게다. 다시 한 번
묻겠다, 포터 군... 시리우스 블랙은 어디 있지?"

"저는 모릅니다."

해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전혀 몰라요."

두 사람은 해리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오랫동안 서로를 빤히
노려보았다. 잠시 후에 엄브릿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포터. 이번에는 네 말을 믿도록 하지. 하지만 경고하마. 내 뒤에는
마법부의 막강한 힘이 버티고 있다. 이 학교를 오고 가는 모든 통신은 전부
감시를 받고 있어. 호그와트에 있는 모든 난로들마다 플루 가루 네트워크
단속반이 감시를 하고 있지. 물론 내 방의 난로만 제외하고 말이야. 나의 감사
위원회 위원들은 이 성을 드나드는 모든 부엉이들의 우편물을 뜯어서 읽어 보고
있어. 그리고 필치 씨는 성으로 통하는 모든 비밀 통로들을 감시하고 있지.
사소한 증거라도 내 눈에 뜨이는 날이면..."

펑!

마루가 흔들렸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한 엄브릿지는 황급히 책상을 꽉
붙들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도대체 이게 뭐지?"

엄브릿지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해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마른
꽃이 꽂혀 있는 가장 가까운 꽃병 속에 아직도 찻잔 가득 남아 있는 차를 쏟아
부었다. 아래쪽에서 각 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그만 점심을 먹으러 가라, 포터!"

엄브릿지는 지팡이를 치켜들고 밖으로 쓴살같이 달려 나갔다. 해리는 곧이어
그녀의 뒤를 따라 나갔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의문은 금방 풀렸다. 바로 아래층에서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군가(해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마법에 걸린 폭죽이 담긴
거대한 상자처럼 보이는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초록색과 황금색 불꽃이 만들어 낸 용들이 요란한 폭음과 폭발을 일으키며
복도를 따라 사방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직경이 1점 5 미터나 되는 현란한
분홍색의 회전 불꽃들은 마치 수많은 비행점시처럼 위협적으로 허공을 핑핑
날아다녔고, 빛나는 은색 별들을 꼬리처럼 길게 내뿜는 로켓들은 이쪽 저쪽 벽에
마구 부딪쳤다. 한편 반짝이는 불꽃들은 제멋대로 온갖 욕설들을 허공에 그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폭죽이 지뢰처럼 터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타버리거나
점차 사라지거나 요란한 소리를 멈추는 대신, 이 기적 같은 기술의 산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기운이 나고 세지는 것 같았다.

필치와 엄브릿지는 공포에 사로잡혀 계단 중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해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커다란 회전 불꽃 중 하나가 마치
움직일

공간이 너무 비좁다는 듯이 무시무시하게 위...위...위...윙 하는 소리를 내며 엉브릿지와 필치를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목을 쑥 집어넣었다. 회전 불꽃은 곧장 그들 뒤에 있는 창문 밖으로 날아가더니 운동장 너머로 사라졌다. 한편 기분 나쁜 연기를 뿜어 대는 대여섯 마리의 용과 커다란 보라색 박쥐는 복도 끝에 열린 문을 통해서 2층으로 도망쳤다.

"서둘러, 필치. 어서!"

엉브릿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뭐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온 학교를 다 뒤집어 놓겠어. 스투페파이!"

그녀의 지팡이 끝에서 짖은 불꽃이 발사되더니 로켓 중 하나에 명중했다.

하지만 로켓은 허공에서 딱 정지하는 대신,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서 잔디 한가운데 서 있는 가냘픈 인상의 마녀 그림에 구멍을 냈다. 다행히도 그림 속의 마녀는 제때에 도망을 쳐서, 바로 옆에 걸린 그림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 그림 속에서 카드를 치고 있던 마법사 두 사람은 황급히 일어나더니 그녀를 위해 자리를 비켜 주었다.

"필치, 폭죽에 기절 마법을 걸지 마!"

엉브릿지는 마치 모든 게 그의 탄인 양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필치가 씨근거리며 대답했다. 물론 스커프에 불과한 그는 폭죽을 삼키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기절 마법을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필치는 옆에 있는 선반으로 쓴살같이 달려가더니 빗자루를 꺼내서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는 폭죽들을 파리 잡듯이 때려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방 빗자루 끝에 불이 붙었다.

이 광경을 실컷 구경한 해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몸을 납작 숙이고, 양탄자 뒤에 감추어진 비밀 문으로 도망쳤다. 과연 문 뒤에서는 프레드와 조지가 몸을 숨긴 채, 엉브릿지와 필치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떠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동적이었어."

해리가 씩 웃으며 속삭였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필리버스터 박사의 불꽃놀이를 당장 시장에서 몰아내겠는걸. 문제없어..."

"브라보!"

조지가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엉브릿지가 이번에는 소멸 마법을 쓰면 좋겠어... 그때마다 불꽃이 열 배나 더 커지거든."

결국 그날 오후 내내 학교 전체에서 불꽃놀이가 계속되었다. 비록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특히 폭죽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그 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이런."

용들 중에 한 마리가 요란한 폭음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내뿜으며 맥고나걸 교수의 교실 안을 헤집고 돌아다니자, 그녀는 비꼬듯이 말했다.

"브라운 양, 교장 선생님께 달려가서 우리 교실로 도망친 폭죽 하나가 들어왔다고 알려 드리겠어요?"

결국 엉브릿지 교수는 교장이 된 첫날, 이 교실 저 교실로 쫓아다니며 다른 선생들의 부름에 응하느라 오후 시간을 다 보냈다. 모두들 엉브릿지가 없으면 교실 안으로 들어온 폭죽 하나 쫓아낼 능력이 없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대단히 흐뭇한 표정으로 가방을 둘러매고 그리핀도르 탑으로 향했다. 한편, 머리는 산발하고 온통 숯 검댕이 된 엉브릿지는 땀에 젖은

얼굴로 플리트윅 교수의 교실을 바쁘게 달려 나오고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플리트윅 교수는 가늘고 깍깍거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저 혼자서는 폭죽을 내쫓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제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군요."

플리트윅 교수는 활짝 웃으며 일그러진 엠브릿지의 면전에서 교실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그리핀도르 휴게실에서 프레드와 조지는 영웅 대접을 받았다. 헤르미온느까지도 환호하며 몰려든 아이들 틈을 파고들어 가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다.

"정말 너무나 출렁한 불꽃놀이였어."

헤르미온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마워."

조지는 무척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다.

"위즐리 형제의 도깨비불 폭죽이야.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이지. 우리가 가진 재고를 다 썼거든. 이제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었어."

프레드는 아우성을 치며 달려드는 그리핀도르 학생들로부터 열심히 주문을 받고 있었다.

"헤르미온느, 너도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면 폭죽 기본 한 상자는 5 갈레온이고 특별 제작 상품은 20 갈레온이야..."

헤르미온느는 해리와 론이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마치 숙제가 톡 튀어나와서 저절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듯이 가방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 하룻밤쯤 놀면 안 될까?"

헤르미온느가 유쾌하게 말했다. 그 순간 은색 불꽃을 길게 내뿜는 위즐리의 로켓 하나가 창 밖으로 흑 날아가 버렸다.

"어쨌든 금요일이면 부활절 휴가도 시작되잖아. 그땐 시간도 많을 텐데 뭐."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글쎄... 뭐랄까... 약간 반항적인 생각이 들어."

헤리미온느가 웃으며 말했다.

한 시간 후에 론과 해리가 그만 자려고 일어섰을 때, 멀리서는 아직도 이리저리 도망치는 폭죽들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해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불꽃 하나가 '멍청...'이란 글자를 남기며 탑 옆을 흑 날아갔다.

해리는 길게 하품을 하고 침대로 들어갔다. 안경을 벗자, 이따금씩 창 앞을 지나가는 폭죽들이 흐릿하게 보이면서 마치 검은 하늘에 떠 있는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반짝이 구름 같았다. 해리는 과연 덤블도어의 자리를 빼앗은 첫날을 지내고 난 엠브릿지의 소감이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옆으로 돌아누웠다.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학교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면서 해리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운동장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폭죽들의 요란한 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가 그곳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해리는 곧장 미스터리 부서로 향하는 복도에 떨어졌다. 그는 빛난 검은 문을 향해서 재빨리 달려가고 있었다. 열어야 해... 열어야 해...

과연 그랬다. 해리는 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둥근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똑같이 생긴 어느 문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문이 흑 열렸다.

이제 그는 시계가 돌아가는 듯한 묘한 기계음으로 가득 찬 긴 사각형 방 안에 있었다. 벽 위로 점 같은 불빛들이 흩어져 일렁이고 있었지만, 해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가야만 했다...

저 끝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 또한 손을 대자마자 열렸다...

이제 그는 교회처럼 천장이 높고 대단히 넓은, 어둠침침한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높은 선반 진열장이 줄지어 서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각 선반에는 작고 먼지 낀 둥근 유리 구슬들이 놓여 있었다... 이제 해리의 가슴은 환희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제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마구 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거대한 방에서는 그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바로 이 방 안에 있었다... 그가 원하는 무엇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무엇이...

그의 흉터가 쿡쿡 쑤셨다...

쾅! 해리는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퍼뜩 잠에서 깨었다. 어두운 침실은 웃음소리로 떠나갈 것 같았다.

"멋지다!"

시무스가 소리쳤다. 창문 앞에 서 있는 그의 그림자가 보였다.

"회전 불꽃 중의 하나가 로켓과 부딪혔나 봐. 그래서 마치 짹을 이룬 것 같아!
이리 와 봐!"

해리는 론과 딘이 그 광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침대 밖으로 뛰어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마의 통증이 가라앉고 실망감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커다란 기쁨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번에는 거의 손에 불을 뻔했는데.

분홍색과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날개 달린 돼지가 그리핀도르 탑의 창문 밖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해리는 아래층 침실에서 다른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탄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문득 내일 저녁에 오클러먼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해리는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하루 종일 해리는 자신이 지난밤 꿈속에서 미스터리 부서의 더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네이프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움에 시달렸다. 동시에 지난번 수업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오클러먼시를 연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다. 덤블도어가 떠난 이후로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해리는 설사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연 스네이프가 그런 변명을 받아 줄지는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해리는 그날이나마 수업 시간 동안 틈틈이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입을 다물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비우려고 시도할 때마다, 헤르미온느가 옆에서 어디가 아프냐고 계속 말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마구 퍼붓는 동안에는 머릿속을 비우는 게 불가능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해리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스네이프의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현관 복도를 반쯤 지나고 있을 때, 초가 황급히 그를 쫓아왔다. "이쪽으로 와."

해리는 조금이라도 스네이프와의 만남을 늦출 수 있는 평계가 생긴 것을 기뻐하면서, 현관 복도의 한쪽 구석으로 그녀를 손짓하여 불렀다. 그곳에는 거대한 모래시계들이 서 있었다. 이제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모래시계는 거의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었다.

"너 괜찮니? 엉브릿지가 너에게 D,A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니?"

"아니야." 초가 서둘러 말했다.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해리, 난 마리에타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

해리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초가 친구를 선택할 때 좀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번에 마리에타가 아직 병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품프리 부인조차도 그녀의 물집을 전혀 낫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해리는 약간 분이 풀리는 것 같았다.

"사실은 아주 좋은 친구야. 이번에는 단지 실수로..."

초가 말했다. 순간 해리는 자기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은 친구가 실수를 한 거라고? 그 애는 우리 모두를 적에게 팔았어.
너까지도 말이야!"

"글쎄... 하지만 우리 모두 빠져나왔잖아. 안 그래?"
초는 해리를 달래려고 했다.

"너도 알지만, 그 애 엄마가 마법부에서 일하시거든. 그래서 그 친구로서는
너무 힘든..."

"론의 아버지도 마법부에서 일하시는 건 마찬가지야!"
해리가 벌컥 화를 냈다.

"혹시 네가 미처 몰랐을까 봐 하는 말인데, 그래도 론의 얼굴에는 '밀고자'라는
글씨는 새겨지지 않았어."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한 짓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속임수였어!"
초도 언성을 높였다.

"그 명단에 주문을 걸었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해 주었어야지..."
"난 아주 훌륭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해."

해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순간 초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두 눈이 빛났다.

"오, 그래. 내가 깜박 잊고 있었군. 그게 사랑하는 헤르미온느의 계획이라는
걸..."

"그렇다고 내 앞에서 또다시 울진 마!"
해리가 경고했다.

"나는 절대 울지 않아!"

초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렇다면... 좋아. 지금 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서 가서 할 일이나 해!"

초는 벌컥 화를 내며 책 돌아서더니 달려가 버렸다. 해리는 잔뜩 성이 난 채,
스네이프의 지하 교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비록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화가 나거나 분노한 상태로 찾아가면 스네이프가 훨씬 더 손쉽게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교실의
문 앞까지 가는 동안 해리의 머릿속에는 줄곧 초에게 마리에타에 대해서 더
심한 말을 해줬어야 했다는 생각뿐이었다.

"늦었구나, 포터."

해리가 문을 닫고 들어서자, 스네이프가 차갑게 말했다.

스네이프는 해리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평소처럼 자신의 생각을 꺼내어
덤불도어의 펜시브 속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담고 있었다. 마지막 은색 실을 돌
대야 속에 떨어뜨린 스네이프는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 연습은 많이 했니?"

스네이프가 물었다.

"네."

해리는 스네이프의 책상 다리 하나를 가만히 쳐다보며 거짓말을 했다.

"좋아. 금방 드러날 테니까, 안 그러냐? 지팡이를 꺼내라, 포터."

스네이프는 여유 있게 말했다. 해리는 늘 그렇듯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스네이프를 마주 보았다. 그의 가슴은 초에 대한 분노와 스네이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얼마나 들킬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구 두근거렸다.

"그럼 셋을 세겠다."

스네이프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하나... 둘..."

바로 그때 스네이프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드레이코 말포이가 뛰어
들어왔다.

"스네이프 교수님... 어, 죄송합니다."

말포이는 깜짝 놀라며 해리와 스네이프를 쳐다보았다.

"괜찮다, 드레이코."

스네이프가 지팡이를 내리며 말했다.

"포터는 지금 마법약 보충 수업을 받고 있다."

엄브릿지가 해그리드의 수업을 참관하려고 나타났을 때 이후로, 해리는

말포이가 그렇게 고소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보았다.

"몰랐습니다."

말포이는 해리를 힐끗 곁눈질하며 말했다. 해리는 자신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말포이에게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그에게 저주라도 걸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래, 드레이코, 무슨 일이지?"

스네이프가 물었다.

"엄브릿지 교수님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답니다."

말포이가 말했다.

"몬태규가 4 층 복도에 있는 화장실 안에 끼인 채 발견되었거든요."

"도대체 거긴 어떻게 들어간 거지?"

스네이프가 물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몬태규가 약간 얼이 빠진 상태라서요."

"좋아, 좋아. 포터, 이 수업은 내일 저녁으로 미뤄야겠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말포이는 소리 없이 입을 벙끗거리며 스네이프의 등 뒤에 서 있는 해리에게 '보총 수업이라고?' 하고

놀렸다.

해리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지팡이를 망토 안에 다시 집어넣고 그만 나갈 준비를 했다. 최소한 스물네 시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비록 말포이가 학교 전체에 그가 마법약 보총 수업을 받는다는 소문을 퍼뜨릴 생각을 하면 속이 쓰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급한 고비를 넘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해리가 스네이프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문득 눈에 띠는 것이 있었다. 문지방 위에 흔들리는 빛줄기가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밤 그의 꿈속에서 보았던 그 불빛과 비슷했다. 미스터리 부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갈 때, 두 번째 방에 있었던 그 불빛 말이다.

해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빛은 스네이프의 책상 위에 놓인 펜시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펜시브 안에서는 은백색 내용물이 소용돌이치며 출렁거렸다. 스네이프의 기억... 혹시라도 해리가 스네이프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갔을 때,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기억이 거기 있었다.

해리는 가만히 펜시브를 바라보았다. 자꾸만 호기심이 솟아났다... 스네이프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기억이 무엇일까? 벽 위로 반짝이는 빛들이 일렁거렸다... 해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책상을 향해 두 걸음 다가갔다. 혹시 스네이프가 그에게 절대 알려 주고 싶지 않은, 미스터리 부서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아닐까?

해리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빠르게 뛰었다. 스네이프가 몬태규를 화장실에서 꺼내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런 다음에는 방으로 다시 곧장 돌아올까, 아니면 몬태규를 데리고 병동으로 갈까? 분명히 병동으로 갈 거야... 몬태규는 슬리데린 큐디치 팀의 주장이었다. 그러니 스네이프도 그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해리는 펜시브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잠깐 동안 귀를 기울인

다음, 다시 지팡이를 깨냈다. 방과 복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해리는 지팡이

끝으로 펜시브의 내용물을 살짝 찔러 보았다.

안에 들어 있던 은빛 내용물들이 아주 빠르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해리는 펜시브 위로 몸을 숙인 채, 은색 물질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다시 천장에 있는 둥근 창문을 통해서 어떤 방 안이 내려다보였다... 그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곳은 틀림없이 대연회장이었다.

해리의 숨이 달자, 스네이프의 생각 표면 위에 김이 끼었다... 그의 머리가 마치 뿌연 지옥의 변방에 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정신 나간 짓이었지만,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해리는 덜덜 몸이 떨렸다... 스네이프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화를 내던 초와 능글맞게 웃던 말포이의 얼굴을

생각하자, 무모한 용기가 치솟았다.

해리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스네이프의 생각 속으로 얼굴을 집어넣었다. 즉시 마룻바닥이 기울어지면서 해리는 펜시브 안에 거꾸로 처박혔다.

그는 정신없이 빙빙 돌면서 차가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대연회장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하지만 네 개의 기숙사 테이블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수백 개가 넘는 작은 책상들이 같은 방향으로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각 책상에는 학생들이 한 명씩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양피지 위에 원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깃펜이 사각거리는 소리와 이따금씩 양피지를 바로잡기 위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시험 시간이 분명했다. 높은 창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다.

환한 햇살을 받은 학생들의 머리가 밤색과 회색, 황금색으로 제각기 빛났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여기 어딘가 틀림없이 스네이프가 있을 것이다... 이건 그의 기억이니까...

해리의 바로 뒤쪽 오른편 책상에 그가 있었다. 해리는 자세히 그를 바라보았다. 십 대 소년인 스네이프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식물처럼 호리호리하고 창백했다. 맥이 없고 기름이 낀 그의 머리카락이 책상 위에 늘어져

있었다. 스네이프는 그의 매부리코가 거의 양피지에 달을 정도로 바싹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답을 쓰고 있었다. 해리는 그의 뒤로 돌아가서 시험지 제목을 읽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

표준 마법사 수준

그렇다면 지금 스네이프 나이는 해리와 비슷한 열다섯 살에서 열여섯 살 정도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의 손은 양피지 위를 거의 날아다니고 있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최소한 30 센티미터는 더 많이 쓴 것 같았다. 게다가 그의 글씨는 깨알처럼 작고 촘촘했다.

"오 분 남았다!"

이 소리에 해리는 깜짝 놀라 나자빠질 뻔했다. 뒤를 돌아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책상들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는 플리트윅 교수의 머리가 보였다. 플리트윅 교수는 마구 형클어진 검은 머리의 남학생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형클어진 검은 머리...

해리가 어찌나 급하게 몸을 움직였는지, 만약 그가 실체가 있었다면 책상에 걸려서 나뒹글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꿈속에서처럼 책상 두 줄을 지나서 세 번째 줄로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검은 머리 소년의 뒷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그는 고개를 들고 깃펜을 내려놓은 다음, 양피지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고서 자신이 쓴 답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었다...

해리는 책상 앞에 멍춰 서서 열다섯 살인 그의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가슴 가득히 기쁨이 밀려들었다. 마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제임스의 눈은 밤색이었고 해리보다 코가 약간 더 길었으며

이마에는 흉터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겨우한 얼굴과 입과 눈썹 모양까지 똑같았다. 해리와 똑같이 제임스의 뒷머리도 제멋대로 빼쳐 있었고, 손 모양도

해리와 똑같았다. 아마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두 사람의 키도 분명히 거의 비슷할 것 같았다.

제임스는 크게 하품을 하고 머리를 북북 긁었다. 그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형클어진 머리가 더욱 엉망이 되었다. 그는 플리트윅 교수 쪽을 한 번 훨끗 쳐다보더니, 의자에서 몸을 돌려서 뒤로 네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학생을 보며 싱긋 웃었다.

해리는 제임스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시리우스를 발견하고, 뭘 듯이 기뻐했다. 시리우스는 의자를 뒤로 기울이며 빈둥빈둥 한가하게 앉아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을 눈 위에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그의 모습은 너무나 멋있었다. 그에게서는 제임스도, 해리도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우아함이 풍겼다. 그의 뒤에 앉아 있는 한 여학생은 선망 어린 눈길로 그를 계속 훔쳐보고 있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여학생으로부터 두 자리

떨어진 곳에 리무스 루핀이 있었다. 해리의 가슴은 또다시 기쁨으로 고동쳤다. 그는 다소 창백하고 야원 것처럼 보였다(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을까?). 그리고 시험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었다. 깃펜 끝으로 턱을 긁으며 살짝 인상을 찌푸린 채, 답안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웜테일도 여기 어딘가 있어야 하는데... 틀림없이. 다음 순간 해리는 웜테일을 발견했다. 코가 뾰족하고 회색 머리카락을 지닌 작은 소년이었다. 웜테일은 초조한 듯이 손톱을 물어뜯고 발끝을 연신 바닥에 비벼 대면서 시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옆 자리 친구의 시험지를 훌끗힐끗 훔쳐보았다. 한동안 웜테일을 바라보던 해리는 다시 제임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는 양피지 한 커통이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스니치 하나를 그려 놓고, 그 옆에 L,E라는 글씨를 썼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깃펜을 내려놓아라!"

플리트윅 교수가 소리쳤다.

"스테빈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양피지를 걷는 동안, 모두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라. 아씨오!"

수백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가 허공으로 봉 날아오르더니 두 팔을 활짝 벌린 플리트윅 교수의 품 안으로 일제히 떨어졌다. 그 바람에 플리트윅 교수는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제일 앞자리에 앉은 학생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플리트윅 교수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었다.

"고맙다... 고마워."

플리트윅 교수가 숨을 헐떡거렸다.

"자, 그럼. 모두들 그만 나가도 좋아요!"

해리는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L,E라는 글자에 장식을 그려 넣고 있던 제임스는 재빨리 낙서를 지우더니 깃펜과 시험지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가방을 어깨에 돌려맸다. 그리고 시리우스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주위를 돌아보던 해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네이프를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시험지에 정신을 빼앗긴 채, 현관 복도로 나가는 문을 향하여 책상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앙상한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서 썰룩씰룩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거미를 연상시켰다. 한편 기름이 잔뜩 끈 그의 머리카락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스네이프와 제임스, 시리우스, 루핀 사이를 지나갔다. 해리는 스네이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여학생들 속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제임스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무니, 10 번 문제가 마음에 들었느냐?"

시리우스가 현관 복도로 나가면서 물었다.

"물론이지."

루핀이 쾌활하게 말했다.

"늑대인간을 식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정말 출중한 질문이었어."

"그래서 너는 그 특징들을 다 쓴 것 같니?"

제임스가 짐짓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흉내 내며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루핀도 진지하게 대답했다. 세 사람은 어서 햇빛이 쏟아지는 운동장으로 나가고 싶어서 현관문 주위에 몰려 있는 학생들 틈을 파고들었다.

"첫째, 그는 내 의자에 앉아 있다. 둘째, 그는 내 옷을 입고 있다. 셋째, 그의 이름은 리무스 루핀이다."

이 말을 듣고 웃지 않는 사람은 웜테일 한 명뿐이었다.

"나는 툭 튀어나온 주둥이 모양과 눈동자의 동공, 그리고 털달린 꼬리까지는 썼는데, 다른 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웜테일이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넌 왜 그렇게 아둔하냐? 한 달에 한 번씩 늑대인간이랑 어울려 다니면서도..."

"목소리 좀 낮춰."

루핀이 주의를 주었다. 해리는 불안해서 또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스네이프는 여전히 시험지 문제에 정신을 빼앗긴 채, 바로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이것은 스네이프의 기억이었다. 만약 스네이프가 일단 운동장 밖으로 나간 후에 어딘가 다른 쪽으로 향한다면, 해리는 더 이상 제임스를 지켜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임스아 다른 세 친구가 호수 쪽 잔디밭으로 내려갔을 때, 스네이프도 그 뒤를 따라 왔다. 시험지를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스네이프보다 약간 앞에 서 있던 해리는 계속해서 제임스와 다른 친구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이번 시험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어."

시리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시험에서 최소한 '0'를 받지 못한다면, 난 너무 놀랄 거야."

"나도 그래."

제임스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마구 몸부림을 치고 있는 황금 스니치를 꺼냈다.

"그거 어디서 났니?"

"슬쩍했지."

제임스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스니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는데, 몇 센티미터쯤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다가 얼른 다시 불잡곤 하는 것이었다. 그의 순발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웜테일은 입을 딱 벌리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호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너도밤나무 그늘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일요일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숙제를 하며 하루를 보냈던 바로 그 나무였다. 그들은 풀밭 위에 벌렁 누웠다. 해리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스네이프는 덤불 아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O,W,L 시험지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덕분에 해리는 너도밤나무와 덤불 사이의 잔디밭에 앉아서, 나무 아래에 있는 네 사람을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 태양이 잔잔한 호수 표면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호수 주변에서는 방금 대연회장에서 나온 여학생들의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어 던진 채, 호수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깔깔 웃고 있었다.

루핀은 책을 꺼내더니 읽기 시작했다. 시리우스는 다소 거만하고 권태로워 보였지만, 그래도 역시 너무나 잘생긴 얼굴로 잔디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제임스는 여전히 스니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조금씩 점점 더 멀리 날아가던 스니치는 거의 도망칠 뻔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에 불잡히곤 했다. 한편 웜테일은 넋을 잊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제임스가 특별히 어렵게 스니치를 잡을 때마다,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질렀다. 이런 일이 오 분쯤 계속되자, 해리는 제임스가 왜 웜테일에게 한번 직접

잡아 보라고 말하지 않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웜테일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해리는 그의 아버지가 너무 단정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듯이 자꾸만 머리를 쓸어 넘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여학생들을 계속 의식하며 곁눈질하고 있었다.

"그것 좀 그만 치워."

멋진 솜씨로 스니치를 잡는 제임스를 보고 웰테일이 또다시 환호성을 지르자, 마침내 시리우스가 한마디했다.

"그러다가 웰테일은 오줌이라도 싸겠다."

웰테일이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저 씨익 웃기만 할 뿐이었다.

"네가 싫다면 알았어."

제임스는 스니치를 다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해리는 오직 시리우스만이, 뽕내길 좋아하는 제임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난 심심해. 지금이 보름이면 좋을 텐데."

시리우스가 중얼거렸다.

"좋기도 하겠군."

루핀이 책 뒤에서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변신술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정 심심하다면 나에게 이 내용이나 좀 물어봐 줘. 자..."

루핀은 책을 내밀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코웃음을 쳤다.

"난 그런 쓰레기는 볼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저걸 보면 좀 기운이 날 거야. 패드풋."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 누가 있는지 좀 봐..."

시리우스가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마치 토끼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주 좋아. 스니벌루스."

시리우스가 속삭였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쳐다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서는 스네이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 속에 O,W,L 시험지를 집어넣고 있었다. 그가 덤불 그늘 아래에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하자, 시리우스와 제임스도 벌떡 일어섰다.

한편 루핀과 웰테일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루핀은 아직도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한곳에 머물러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양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웰테일은 뭔가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시리우스와 제임스, 그리고 스네이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때, 스니벌루스?"

제임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스네이프는 마치 항상 공격을 당하리라 예상하고 있던 사람처럼 재빨리 동작을 취했다. 황급히 가방을 내던진 스네이프가 망토 속에 손을 집어넣고 지팡이를 반쯤 꺼내는 순간, 제임스가 소리쳤다.

"엑스펠리아르무스!"

스네이프의 지팡이는 허공으로 3 점 5 미터쯤 날아가서 잔디밭 위에 콩 하고 떨어졌다. 시리우스는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임페디멘타!"

시리우스는 스네이프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며 주문을 외쳤다. 자신의 지팡이가 떨어진 쪽으로 몸을 날리던 스네이프는 그만 뒤로 나자빠졌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걱정스런 표정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

스네이프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제임스와 시리우스가 지팡이를 치켜들고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제임스는 그 와중에도 호숫가에 앉아 있는 여학생들을 힐끗 돌아보았다. 웰테일은 이제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자세히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루핀 앞으로 돌아 나왔다.

"시험은 어땠냐, 스니벌리?"

제임스가 물었다.

"내가 이 녀석 하는 꼴을 지켜봤는데, 코를 완전히 시험지에 처박고 있더군."

시리우스가 심술궂게 말했다.

"시험지 위로 온통 머리 기름이 떨어져서 아마 한 글자도 못 알아볼 거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아이들이 킬킬거렸다. 스네이프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 것이 분명했다. 특히 웜테일은 요란스럽게 키득거렸다. 스네이프는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주문의 효력이 남아 있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사람처럼 버둥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거리... 기다려!"

스네이프는 증오심에 가득 찬 얼굴로 제임스를 올려다보며 씩씩거렸다.

"거리... 기다려!"

"뭘 기다리라는 거지?"

시리우스가 차갑게 말했다.

"뭘 하려고, 스니벌리? 코라도 닦으려고?"

스네이프는 온갖 주문과 저주를 줄줄이 내뱉었지만, 지팡이가 3 미터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네 입이나 닦으시지, 스코지파이!"

제임스가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순간 스네이프의 입에서 분홍색 비누 거품이 흘러나왔다. 거품이 온통 입술을 뒤덮자, 스네이프는 숨이 막혀 액액거렸다.

"스네이프를 가만 내버려 둬!"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뒤를 돌아보았다. 제임스는 지팡이를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재빨리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것은 호수가 주위에 앉아 있던 여학생 중의 한 명이었다. 풍성한 검붉은색의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그 여학생은 아몬드 모양의 반짝거리는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해리의 눈이었다.

해리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오, 에반스?"

갑자기 제임스의 목소리가 더 명랑해지면서, 깊고 성숙하게 들렸다.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둬."

릴리가 다시 한 번 말했다. 그녀는 제임스에 대한 혐오감을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그 아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니?"

"글쎄, 그게 말이지..."

제임스는 짐짓 신중히 생각하는 척했다.

"그냥 저 녀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지. 네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모여든 많은 아이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시리우스와 웜테일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아직도 책을 들여다 보고 있는 루핀과 릴리만이 웃지 않았다.

"넌 자신이 꽤 웃긴다고 생각하겠지."

릴리가 쌀쌀맞게 말했다.

"하지만 넌 단지 거만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쓰레기일뿐이야, 포터.

그러니까 그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네가 나랑 외출을 나가 준다면 그렇게 하지, 에반스."

제임스가 재빨리 대꾸했다.

"나랑 같이 외출 한 번 하자. 그럼 두 번 다시 이 뜻난 스니벌리 녀석에게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을게."

한편 제임스의 등 뒤에서는 장애 마법이 효력을 다해 가고 있었다. 스네이프는 입에서 비누 거품 지꺼기를 뱉어 내며 조금씩 땅에 떨어진 지팡이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설사 너와 대왕오징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도 난 절대 너랑 외출하지 않을 거야."

릴리가 매몰차게 말했다.

"운이 나쁘군, 프롱스."

시리우스가 유쾌하게 말하며 스네이프를 향해 돌아섰다.

"앗!"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스네이프는 제임스를 향해서 곧장 지팡이를 겨누고 있었다. 불꽃이 번쩍하더니 제임스의 얼굴 한쪽에 상처가 나고 망토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제임스는 빙그르르 몸을 돌렸다. 두 번째 불꽃이 번쩍하더니, 스네이프가 허공에 거꾸로 매달렸다. 그의 망토가 머리 아래로 흘러내려서 앙상하고 여윈 두 다리와 때 묻은 팬티가 다 드러났다.

모여 있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시리우스와 제임스, 웰테일은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릴리의 성난 얼굴도 잠깐 동안 웃음이 터질 듯이 실룩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소리쳤다.

"그를 내려 줘!"

"물론이지!"

제임스는 지팡이를 위로 탁 쳤다. 그러자 스네이프는 땅에 머리를 쾅 박으며 거꾸로 떨어졌다. 온몸을 휘감은 망토를 헤치고 재빨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지팡이를 치켜들었지만, 이번에는 시리우스가 소리쳤다.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스네이프는 판자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다시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를 가만 두지 못해!"

릴리가 소리를 지르며 이번에는 자기 지팡이를 빼 들었다. 하지만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태연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에반스, 내가 너에게 주문을 쏘는 일은 없도록 해줘."

제임스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럼 어서 저주를 풀도록 해!"

제임스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스네이프를 향해 돌아서서 저주를 푸는 주문을 외웠다.

"너는 그만 꺼져."

스네이프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제임스가 빙정거렸다.

"에반스가 여기 있어서 천만다행인 줄 알아. 스니밸루스..."

"난 저런 더러운 잡종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어!"

릴리가 두 눈을 깜빡거렸다.

"좋아. 나도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는 팬티나 좀 빨아 입고 다니렴, 스니밸루스."

"에반스에게 당장 사과해!"

제임스가 스네이프에게 위협적으로 지팡이를 겨누며 호령했다.

"그럴 필요 없어."

릴리가 제임스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너나 저 아이나 모두 똑같이 나쁜 녀석들이야!"

"뭐라고?"

제임스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했다.

"난 한 번도 널... 그거라고 부른 적이 없어!"

"마치 방금 빗자루에서 내려온 것처럼 멋지게 보일까 해서 항상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기나 하고, 그 멍청한 스니치를 가지고 뽐내질 않나,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무나 눈에 거슬리는 상대에게 저주를 쏘질 않나... 너같이 무거운 돌대가리를 태우고 어떻게 빗자루가 하늘로 올라가는지 난 그게 놀라울 뿐이야. 널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나!"

릴리는 훅 돌아서서 달려가 버렸다.

"에반스! 이봐, 에반스!"

제임스가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도대체 쟤가 왜 저러는 거야?"

제임스는 마치 자기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그저 한마디 톡 내뱉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가 한 말로 짐작하건대, 에반스는 네가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친구."

시리우스가 말했다.

"맞아."

제임스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 말이 맞아..."

또다시 불꽃이 번쩍 뛰더니, 스네이프가 다시 허공에 거꾸로 매달렸다.

"내가 스니밸리의 팬티를 벗기는 걸 보고 싶은 사람?"

하지만 제임스가 정말로 스네이프의 팬티를 벗겼는지 아닌지 해리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누군가 그의 팔을 꽉 움켜잡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집게로 꼬집는 것처럼 아팠다. 해리는 인상을 쓰며 자기 팔을 잡은 사람을 돌아보았다. 순간 다

자라서 어른이 된 스네이프가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해리는 온몸에 소름이 짹 끼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래, 재미있더냐?"

해리는 자신의 몸이 허공으로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환한 여름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어둠 속으로 떠올랐다. 스네이프의 손이 아직도

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에 공중돌기를 하듯이 빙그르르 도는 느낌이 들면서, 그의 발이 스네이프의 지하 교실 바닥에 달았다. 해리는 다시 스네이프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펜시브 옆에 우뚝 서 있었다. 현재 세계의 어두컴컴한 마법의 교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 그래... 실컷 즐겼느냐, 포터?"

스네이프는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해리의 팔을 움켜쥐었다.

"아... 아니요."

해리는 팔을 빼내려고 버둥거렸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 스네이프의 모습은 너무나 무서웠다.

"네 아버지는 꽤 재밌는 사람이었지, 안 그러냐?"

스네이프는 해리의 안경이 코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그를 마구 훼들었다.

"아... 아니요."

스네이프가 있는 힘껏 해리를 밀쳐 버렸다. 해리는 지하 교실 바닥에 나뒹굴었다.

"네가 본 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스네이프가 고함을 질렀다.

"네."

해리는 되도록 스네이프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썼다.

"당연히 절대로 말..."

"당장 나가, 나가! 난 두 번 다시 이 방에서 네 꼴을 보고 싶지 않다!"

해리가 허둥지둥 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죽은 바퀴벌레가 담긴 유리병이 그의 머리 위에서 평하고 터졌다. 해리는 얼른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스네이프가 있는 지하 교실로부터 삼 층 위까지 도망친 후에야 비로소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이며 멍이 든 팔을 문질렀다.

해리는 곧장 이대로 그리핀도르 탑에 돌아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방금 본 광경을 말해 주고 싶지도 않았다.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끔찍했다. 하지만 그것은 스네이프에게 야단을 맞았거나 죽은 바퀴벌레가 든 유리병에 얹어맞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해리는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인 채, 조롱을 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놀려 땔 때, 스네이프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방금 그가 본 광경으로 판단하자면, 그의 아버지는 스네이프가 항상 그에게 말했던 그대로,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했다.

제 29 장 진로 상담

"하지만 왜 너는 더 이상 오클러먼시 수업을 받지 않는 거니?"

헤르미온느가 인상을 쓰며 물었다.

"말했잖아."

해리가 중얼거렸다.

"스네이프는 이제 내가 기초를 익혔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젠 그 이상한 꿈도 꾸지 않는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의심스러운 듯이 추궁했다.

"어느 정도는."

해리는 슬그머니 헤르미온느의 시선을 피했다.

"난 네가 완벽하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스네이프의 수업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헤르미온느가 흥분해서 말했다.

"해리, 내 생각에는 다시 스네이프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싫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 하자. 알았지, 헤르미온느?"

부활절 휴가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헤르미온느는 늘 그랬듯이, 그들 세 사람을 위한 공부 계획표를 다시 만드느라 거의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 해리와 론은 헤르미온느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녀와 입씨름을 하느니 그 편이 훨씬 편했기 때문이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녀가 만든 계획표가 꽤 유용하기도 했다.

론은 앞으로 시험이 겨우 육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어떻게 그 사실에 그토록 놀랄 수가 있니?"

헤르미온느는 지팡이로 론의 계획표 위에 그려진 작은 네모칸을 톡톡 치며 말했다. 그때마다 네모 칸들이 과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로 변했다.

"나도 모르겠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론이 말했다.

"자, 여기 있어."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계획표를 내밀었다.

"이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울한 표정으로 계획표를 내려다보던 론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우와, 매주 하루 저녁은 쉴 수 있게 해주었네!"

"그건 퀴디치 연습 때문이야."

헤르미온느의 말을 듣자, 론의 얼굴에서 미소가 짹 사라졌다.

"그래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론이 말했다.

"우리가 퀴디치 우승컵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아빠가 마법부 장관이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야."

헤르미온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맞은편 휴게실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해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한편 크룩생크는 앞발로 해리의 손을 톡톡 치면서 자신의 귀를 긁어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무슨 일 있니, 해리?"

"나? 아무 일도 없어."

해리는 얼른 대답하더니, '방어 마법 이론' 책을 집어 들고 목록에서 뭔가를 찾는 척했다. 크룩생크는 그만 그를 단념하고, 헤르미온느의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조금 전에 초를 봤어..."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초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던데... 너희들 또 싸웠니?"

"뭐? 아, 그래, 그랬어."

해리는 좋은 핑곗거리가 생겨서 내심 반가웠다.

"뭐 때문에?"

"그 밀고자 친구, 마리에타 때문에."

해리가 대답했다.

"그렇군. 네가 싸운 것도 당연해!"

론이 새로 짠 공부 계획표를 앞에 놓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애만 아니었어도..."

론은 마리에타 에지콤에 대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덕분에 해리는 아주 편해졌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펜시브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론이 성난 표정을 지으며 잠깐 숨을 돌릴 때마다 '맞아.' '그래.' 하고

장단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해리는 마치 그 기억이 자신의 내부를 칼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의 부모님은 틀림없이 훌륭한 분일 거라고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네이프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들을 간단히 무시해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해그리드와 시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 정작 시리우스 자신도 어떤 인간이었는지 보라고 해리의 마음속에서 끈질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리우스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었어, 안 그래?) 언젠가 맥고나걸 교수님이 그의 아버지와 시리우스가 학교에서도 소문난 말썽꾼이었다고 말하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두 사람이 쌍둥이 위즐리 형제의 선구자쯤 된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가 장난으로 누군가를 거꾸로 매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주, 정말로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포이나 혹은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

해리는 스네이프라면 제임스의 손에 당해도 마땅한 짓을 했을 거라고,

어떻게든 제임스를 응호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릴리도 말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그 애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니?"라고. 그리고 제임스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던가? "그냥 저 녀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지. 네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제임스는 단지 시리우스가 심심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장난을 시작했을 뿐이다. 해리는 그리볼드 광장에서 루핀이 했던 말을 새삼 떠올렸다. 그때 루핀은 혹시라도 그가 제임스와

시리우스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덤블도어가 그를 반장으로

뽑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가 펜시브에서 본 루핀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만 했다...

해리는 릴리가 이 일을 말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리려고 애썼다. 그의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임스를 향해 소리를 지를 때, 그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생각할 때마다 해리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다. 릴리는 분명히 제임스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혹시 제임스가 강제로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지난 5년 동안 해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위안과 용기를 얻어 왔다. 누군가 그에게 제임스를 꼭 닮았다는 말을 하면, 해리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 뿐이었다.

부활절 휴가가 지나면서, 날씨는 점점 더 맑고 따뜻해졌으며 산들바람도 불어왔다. 하지만 해리는 다른 5학년, 7학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성 안에 갇힌

채, 도서관을 왔다갔다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우울한 기분이 모두

다가오는 시험 때문인 척했다. 다른 그리핀도르 학생들도 모두 공부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의 평계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리,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었니?"

"엉?"

해리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혼자 앉아 있는 도서관 책상 앞에 한바탕 바람을 쐬고 온 것처럼 보이는 지니 위즐리가 다가와 앉았다. 일요일 저녁이었다. 헤르미온느는 고대 문 문자를 복습하기 위해서 그리핀도르 탑으로 먼저 돌아갔고, 론은 퀴디치 연습 중이었다.

"어, 안녕."

해리는 책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너는 왜 연습 안 하니?"

"연습은 끝났어." 지니가 말했다.

"론은 잭 슬로퍼를 병동에 데려다 주러 갔어."

"왜?"

"잘 모르겠어. 아마 자기 방망이에 맞고 쓰러진 것 같아."

지니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소포가 방금 도착했어. 엉브릿지의 새로운 검열 과정을 막 통과한 거야."

지니는 갈색 종이로 포장한 상자를 책상 위에 옮겨놓았다. 누군가 한 번 풀어보았다가 되는대로 다시 쌉 흔적이 역력했다. 상자 위에는 빨간 잉크로 마구 휘갈겨 쓴 '호그와트 장학사에 의한 검열 통과'라는 글씨가 보였다.

"엄마가 보내신 부활절 달걀이야. 네 것도 있어... 여기..."

지니는 그에게 작은 얼음 스니치들로 장식한, 멋진 초콜릿 달걀을 내밀었다. 포장된 설명서에는 피징 위즈비 한 봉지가 들어 있다고 쓰여 있었다. 한동안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던 해리는 갑자기 목구멍으로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괜찮아, 해리?"

지니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 괜찮아."

해리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목구멍을 꽉 막고 있는 덩어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도대체 부활절 달걀을 보고 어째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요즘은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

지니가 단념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초와 이야기를 해보면 틀림없이..."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초가 아니야."

해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누구야?"

지니가 물었다.

"난..."

해리는 혹시 듣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았다. 핀스 부인은 책꽂이 몇 칸 너머에서, 원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을 한 한나 아보트에게 책을 대출해주고 있었다.

"난 시리우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

해리가 중얼거렸다. 해리는 꼭 원가를 먹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손을 가만히 두고 있기가 멋쩍어서 부활절 달걀의 포장을 벗긴 다음, 커다랗게 한 조각을 잘라 입 안에 넣었다.

"그래, 정 그렇게 시리우스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지니도 초콜릿 조각 하나를 집어 먹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봐, 엉브릿지가 모든 벽난로를 감시하고 우리 편지를 다 읽어 보고 있는데?"

"프레드와 조지 같은 형제들과 자라다 보면, 뭐든 불가능한 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충분한 배짱만 있다면 말이야."

지니가 신중하게 말했다.

해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초콜릿 탓인지도 몰랐다(루핀은 항상 디멘터들과 마주친 다음에는 원가를 먹으라고 충고했다).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속으로만 맴돌고 있던 말을 마침내 속 시원히 털어놓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어쨌든 해리는 웬지 희망이 솟았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오, 부인, 깜빡 잊었어요..."

지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핀스 부인은 주름진 얼굴을 분노로 일그러뜨리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초콜릿을 먹다니!"

핀스 부인이 고함을 질렀다.

"나가... 나가... 어서!"

핀스 부인은 지팡이를 휘둘러서 해리의 책과 가방, 잉크병이 도서관 밖으로 도망치는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가도록 만들었다. 그것들은 달아나는 두 사람 머리에 번갈아 가며 세게 부딪쳤다.

부활절 휴가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마치 다가올 시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는 듯이, 마법사들의 각종 직업에 관한 전단과 안내문, 소개 책자 등이 그리핀도르 탑의 책상 위에 등장했다. 동시에 게시판에는 공고문이 나붙었다.

진로상담

모든 5학년 학생들은 여름 학기 첫 주 동안 각 기숙사의 사감들과 면담을 통해 장래 직업에 대해서 상의할 것. 개인 상담 시간은 다음과 같음.

해리는 명단을 살펴보았다. 그는 월요일 두 시 삼십 분에 맥고나걸 교수와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점술 수업 대부분을 빼먹을 수밖에 없었다. 해리와 다른 5학년 학생들은 부활절 휴가의 마지막 주말 동안, 학생들을

위해 남겨 놓은 모든 직업 안내서를 하나하나 읽어 보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난 치료사 같은 건 꿈도 안 꿨어."

휴가의 마지막 날 저녁에 롤이 말했다. 그는 제일 앞에 성 봉고 병원의 상징인 X자 모양의 뼈와 지팡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전단지를 한창 읽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보면 N,E,W,T 수준의 마법약과 약초학, 변신술, 마법,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험에서 최소한 'E'를 맞아야 한다. 제기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하지만 그건 아주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직업이잖아."

헤르미온느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선명한 분홍색과 오렌지색 전단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전단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머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머글과 접촉하는 데에는 별로 많은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머글 연구 과목의 O,W,L 뿐이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열정과 인내와 유머 감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모부와 접촉하려면 유머 감각 이상의 능력이 필요할 거야."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예를 들면 적당한 때에 재빨리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감각 같은 것."

해리는 마법사 은행에 관한 안내서를 절반쯤 넘기고 있었다.

"이것 좀 들어 봐. '당신은 여행과 모험,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위험이 뒤따르는 보물 보너스가 주어지는 도전적인 직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린고트 마법사 은행에 취업을 고려해 보십시오. 최근 그린고트 은행에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저주 해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산술점 과목을 요구하는군. 헤르미온느, 넌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난 은행 일에는 관심 없어."

헤르미온느는 이제 '트롤 경비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읽는 중이었다.

"이봐."

누군가의 목소리가 해리의 귓전을 울렸다. 해리가 뒤를 돌아보니 프레드와 조지가 어느 사이에 그들 옆에 와 있었다.

"지니가 너에 대해서 우리와 의논을 했어."

프레드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 바람에 마법부에서 나온 직업 안내서 몇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니 말이 네가 시리우스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뭐라고?"

'마법 사고와 재난부 문 두드리기'라는 안내서를 집어 들려고 막 손을 뻗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

해리는 최대한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 그냥 그러면 좋겠다고..."

"웃기지 마."

헤르미온느가 허리를 쭉 펴면서, 도저히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브릿지가 모든 난로를 다 감시하고 부엉이들을 전부 수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조지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길게 기지개를 켰다.

"이건 단지 어떻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느냐 하는 문제야. 부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교란 작전 전선이 꽤 조용했다는 걸 너희들도 눈치 챘겠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했지. 휴일 동안에 소란을 일으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말이야."

프레드가 말을 이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어. 물론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프레드는 엄숙한 태도로 헤르미온느를 향해 고개를 까닥했다. 헤르미온느는 그들의 사려 깊은 배려에 깊이 감동받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평소처럼 영업을 해야지."

프레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왕 우리가 소동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했다면, 해리가 시리우스와 잡담 좀 나누게 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헤르미온느는 높시 아둔한 사람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설명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설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끈다고 해도, 해리가 어떻게 시리우스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엄브릿지의 방이 있잖아."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두 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한 끝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엄브릿지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오직 자기 방에 있는 난로뿐이라고 해리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너... 제정신이니?"

헤르미온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한편 론은 재배 버섯 무역에 관한 직업 안내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해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첫째, 그 방에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해리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생각해 두었다.

"시리우스의 칼이 있잖아."

"뭐라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시리우스가 나에게 어떤 자물쇠라도 다 열 수 있는 칼을 주었어."

해리가 설명했다.

"그러니까 엄브릿지가 설사 문에 알로호모라 마법을 걸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틀림없이 엄브릿지는..."

"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물었다. 그 광경을 보자, 해리는 그리볼드 광장에서 처음 저녁 식사를 하던 날, 위즐리 부인이 남편을 다그치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잘 모르겠어."

론은 갑자기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자,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해리가 하고 싶다면, 그건 해리가 결정할 문제잖아, 안 그래?"

"과연 진정한 친구이자 위즐리 가문 사람다운 발언이야."

프레드가 론의 등을 탁 쳤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당장 이 일을 실행할 생각이야. 수업이 끝난 직후에 말이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도로 나와 있어야 가장 효과가 클 테니까 말이야. 해리, 우리는 동쪽 건물 어딘가에서 일을 벌이기 시작해서 엄브릿지를 곧장 방에서 끌어내도록 할게. 너에게 확실히 벌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십 분?"

프레드는 이렇게 말하며 조지를 바라보았다.

"그 정도쯤이야 간단하지."

조지가 말했다.

"어떤 소동을 벌일 건데?"

론이 물었다.

"곧 보게 될 거야, 꼬마 동생."

프레드와 조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다섯 시쯤에 역겨운 그레고리 동상이 있는 데로 쫓아온다면 말이지."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마법부에서 정계 청문회가 열리던 날 아침만큼이나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단지 엄브릿지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녀의 벽난로를 통해 시리우스와 이야기할 생각만으로 초조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나쁜 일이었지만, 오늘은 스네이프의 방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스네이프와 가까이 만나는 첫날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동안 오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잠시 침대에 누워 있던 해리는 조용히 일어나서 네빌의 침대 옆에 있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창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투명하고 진주빛 광채를 띠었다. 바로 그의 눈앞에 우뚝 솟은 너도밤나무가 내려다보였다. 한때 그의 아버지가 스네이프를 괴롭히던 곳이었다. 해리는 과연 그가 펜시브에서 본 장면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시리우스로부터 들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반드시 시리우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의 행동을 변명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때 원가가 해리의 주의를 끌었다. 금지된 숲 가장자리에서 원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부신 햇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무 사이로 걸어 나오는 해그리드가 보였다. 다리는 저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오두막집 문 앞으로 걸어가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해리는 몇

분 동안 오두막집을 지켜보았지만, 해그리드는 다시 나오지 않고, 그 대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최소한 불도 피우지 못할 만큼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해리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트렁크로 다가갔다. 그리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 엉브릿지의 방에 몰래 들어갈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별로 마음 편한 하루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집요한 설득에 시달리는 것까지는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해리가 다섯 시에 실행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 심지어 마법의 역사 시간에 조차 생전 처음으로 론과 해리만큼이나 빈스 교수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들으면서, 계속 경고의 말을 속삭였다. 해리는 그냥 모르는 척 무시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엉브릿지 손에 잡히기라도 하면, 퇴학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가 스누플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까지 금방 알아차릴 거야. 그럼 이번에는 너에게 강제로 베리타세룸을 먹여서 자백을하도록 만들 거야."

"헤르미온느, 이제 해리에게 잔소리는 그만 하고 빈스 교수 말이나 듣지 않을래? 안 그러면 앞으로는 나라도 필기를 해야 하나?"

옆에서 론이 부루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도 기분 전환 삼아 노트 필기라는 걸 좀 해봐. 그런다고 안 죽어!" 결국 지하 교실에 갈 때까지, 해리도 론도 헤르미온느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침묵을 기회로 삼아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쉬지 않고 퍼부었다. 그녀가 어찌나 열정적으로 씩씩거리며 중얼거렸는지, 시무스는 냄비가 어디 새는 것은 아닌가 무려 오 분 동안이나 살펴보았다.

한편 스네이프는 해리는 완전히 무시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버논 이모부가 가장 즐겨 써먹던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해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더 심하게 괴롭히지 않는 것만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사실 평소에 스네이프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견뎌야 했던 것에 비하면, 이 새로운 방식은 오히려 훨씬 더 나았다. 그리고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마력 강하제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은근히 기뻤다. 수업이 끝나자, 해리는 자신이 만든 마법약을 병에 담아서 코르크 마개로 막은 다음, 점수를 받기 위해 스네이프의 책상 앞으로 가져갔다. 드디어 이번에는 잘하면 'E'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와장창 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해리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말포이가 신나게 웃음을 터뜨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의 마법약 견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스네이프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또 빵점을 맞겠구나, 포터..."

해리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마법약을 담아서 반드시 스네이프에게 점수를 받을 생각으로 성큼성큼 냄비를 향해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냄비는 텅 비어 있었다.

"미안해!"

헤르미온느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해리. 난 네가 다 끝낸 줄 알고 그만 치워 버렸어!"

해리는 뭐라고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종이 울리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하 교실을 뛰쳐나왔다. 점심 시간에도 네빌과 시무스 사이에 앉는 그를 보고, 헤르미온느는 두 번 다시 엉브릿지의 방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려쿵저려쿵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해리는 어찌나 기분이 나빴던지 맥고나걸 교수와의 진로 상담 약속까지 깜빡 잊어버리고 점술 수업에 그냥 들어갔다. 론이 왜 맥고나걸 교수님의 방에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이 난 그는 숨이 턱에 달도록 허둥지둥 계단을 달려 올라가서, 오 분 늦게 간신히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깜박 잊었습니다."

해리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괜찮다, 포터."

맥고나걸 교수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 누군가 한쪽 구석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해리는 고개를 돌렸다.

엄브릿지 교수가 무릎 위에 필기판을 올려놓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목 주위에 요란스런 주름 장식이 달린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가득했다.

"앉아라, 포터."

맥고나걸 교수가 짤막하게 말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안내 책자들을 이리저리 뒤적이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해리는 엄브릿지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필기판 위를 긁적이는 그녀의 깃펜 소리가 안 들리는 척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포터, 이 면담은 너의 장래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장차 6학년과 7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한 것이라."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혹시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에는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것은 없니?"

"저..."

해리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깃펜 긁적거리는 소리가 무척 신경에 거슬렸다.

"그래, 어서?"

맥고나걸 교수가 해리의 대답을 재촉했다.

"저는 오러가 되고 싶어요."

해리가 주저하며 말했다.

"그러려면 성적이 아주 좋아야 한다."

맥고나걸 교수가 책상 위에 쌓인 책자들 중에서 작은 검은색 전단을 꺼내 펼쳐 보였다.

"최소한 다섯 과목의 N,E,W,T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기대 이상'을 받아야만 해. 그리고 오러 사무국에 가서 엄격한 인성과 적성 검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건 아주 어려운 길이야, 포터. 오러들은 최고만 뽑거든. 지난 3년 동안은 아무도 뽑히지 못했단다."

바로 그때 엄브릿지 교수가 작은 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마치 얼마나 조용히 기침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는 그녀를 무시했다.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겠지?"

맥고나걸 교수는 조금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 어둠의 마법 방어술 아닌가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또한..."

맥고나걸 교수가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러자 엄브릿지 교수가 이번에는 좀더 큰 소리로 다시 기침을 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했다.

"변신술 과목도 추천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오러들에게는 종종 변신술이나 역변신술이 필요하거든. 지금 너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해 두고 싶구나, 포터. 나는 표준 마법사 수준에서 '기대 이상'이나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은 학생들은 나의 N,E,W,T 반에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 너는 평균 '보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시험 전까지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또한 마법 수업도 들어야 해. 그건 언제나 쓸모가 많으니까. 그리고 마법약. 그래, 포터. 마법약 수업도 들어야지."

맥고나걸 교수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마법약과 해독제 공부는 오러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라. 스네이프 교수는 O,W,L에서 '특출함'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절대로 받아 주지 않는단다. 게다가..."

엄브릿지가 분명히 들릴 정도로 크게 기침 소리를 냈다.

"돌로レス, 기침 약을 좀 드릴까요?"

맥고나걸 교수가 엄브릿지 교수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날카롭게 물었다.

"오,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엄브릿지는 바보같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해리는 그 웃음 소리가 너무나 싫었다.

"난 단지 아주 잠깐 끼어들어도 되는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미네르바?"

방금 전까지 큰 소리로 기침을 하던 엄브릿지 교수가 또다시 선웃음을 쳤다.

"난 그저 걱정이 좀 됐을 뿐입니다. 해리의 요즘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성적을 받아 보시지 못하셨나 해서 말이죠. 제가 틀림없이 공책 사이에 끼워 놓았는데요..."

"아, 이거 말인가요?"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의 서류철 사이에서 분홍색 양피지 한 장을 꺼내며 몹시 불쾌하다는 어조로 물었다. 그리고 슬쩍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눈썹을 살짝 추켜올리고 아무 말 없이 서류철 사이에 다시 끼워 넣었다.

"그래, 포터. 앞서 말했듯이 루핀 교수님은 네가 그 과목에 대해서 분명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단다. 분명히 오러가 되려면..."

"내 전갈을 이해하지 못했나요, 미네르바?"

엄브릿지 교수가 기침하는 것도 잊은 채,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이해했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어찌나 이를 악물고 말했는지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좀 혼란스럽군요... 어째서 포터 군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지 나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서..."

"헛된 희망이라고요?"

맥고나걸 교수가 여전히 엄브릿지 교수 쪽을 절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했다.

"포터는 모든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미네르바. 제가 드린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리는 내 수업에서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더 분명하게 뜻을 전달했어야 했던 모양이군요."

맥고나걸 교수가 마침내 엄브릿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포터 군은 한 능력 있는 선생님이 실시한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순간 엄브릿지 교수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마치 전구가 깨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엄브릿지는 다시 의자에 앉더니 필기판에 끼웠던 종이를 뒤집은 다음, 톡 튀어나온 눈을 이쪽 저쪽으로 굴리면서 미친 듯이 원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다시 해리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녀의 좁은 콧구멍에서는 뜨거운 콧김이 뿜어져 나오고, 두 눈은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니, 포터?"

"네, 만약 N,E,W,T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으면, 마법부에서는 어떤 종류의 인성과 적성 검사를 치르게 되나요?"

"너는 우선 시련이나 정신적 압박 따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만 한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또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단다. 왜냐하면 그 후로도 3년동안 오러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말이야. 고난도 실전 방어술은 말할 것도 없지. 결국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더 많은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법부에서는 오러 지원자들의 신상 기록까지 살펴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겁니다. 범죄 기록을 말이죠."

엄브릿지가 불쑥 끼여들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므로 만약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많은 시험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다른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이 학생이 오러가 될 가능성은 덤블도어가 다시 이 학교에 돌아올 가능성만큼이나..."

"높다고 할 수 있죠."

맥고나걸 교수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포터는 전과 기록이 있어요."

엄브릿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포터는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엄브릿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낙 앉으나 서나 별 차이가 없긴 했지만, 싱글싱글 웃으며 수선을 떨던 태도가 돌변하여 성난 모습으로 바뀌자, 그녀의 넓적하고 축 늘어진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포터는 절대로 오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맥고나걸 교수 또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훨씬 더 위압적인 태도로 엄브릿지 교수를 내려다보았다.

"포터, 나는 어떻게든 네가 오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설사 밤마다 너를 가르쳐야 할지라도 반드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어."

"마법부 장관님은 절대 해리 포터를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엄브릿지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포터가 지원을 할 때쯤이면 새로운 마법부 장관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맥고나걸 교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아하!"

엄브릿지는 웅툭한 손가락으로 맥고나걸을 가리키며 비명을 지르듯이 말했다.

"그럴군! 그래! 그랬어! 당연한 일이지! 그게 당신이 원하던 일이 아니었던가요, 미네르바 맥고나걸? 당신은 코넬리우스 퍼지 대신 알버스 덤블도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마법부 차관 자리와 덤으로 교장 자리까지!"

"헛소리 그만둬요."

맥고나걸 교수가 경멸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포터, 이걸로 진로 상담은 그만 끝이다."

해리는 어깨에 가방을 둘러메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감히 엄브릿지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에도, 맥고나걸 교수와 엄브릿지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오후에 엄브릿지 교수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녀는 방금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다.

"해리, 네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교과서의 34 장 '비보복과 협상'을 펴면서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엄브릿지는 벌써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이따금 엄브릿지는 해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해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방어 마법 이론'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을 초점을 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가 그를 두둔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그가 엄브릿지 교수의 방에 몰래 침입했다가 잡힌다면, 과연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갔다. 지금이라도 다음 여름 방학이 되면 언젠가 펜시브에서 옥격한 장면에

대해서 시리우스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용히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무것도 그를 가로막는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그저 이렇게 합리적인 행동을 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것 이외에는... 프레드와 조지도 마음에 걸렸다. 그들은 이미 소동을

벌일 계획을 다 짜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지금 그의 가방 속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투명 망토와 함께 시리우스가 그에게 준 칼이 나란히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만에 하나 잡히기라도 한다면...

"덤블도어 교수님은 널 학교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 해리!"

헤르미온느가 책으로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다.

"만약 오늘 네가 쫓겨나면, 그 모든 게 허사가 돼 버릴 거야!"

어쩌면 해리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의 아버지가 20년 전 여름에 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그리핀도르 휴게실 벽난로에 나타났던 시리우스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아버지를 별로 닮지 않았구나... 제임스에게 위험은 오히려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과연 아직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걸까?

"해리,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말했다.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한편 론은 어떤 의견이나 충고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심지어 해리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르미온느가 또다시 해리를 설득하려고 들자, 낮은 목소리로 구박을 했다.

"그만 좀 해라. 해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해리는 마음을 졸이며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반쯤 지나가고 있을 때, 멀리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 어디에선가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가 진동을 했다. 교실 밖으로 쏟아져 나오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엄브릿지는 그 짧은 다리로 최대한 빨리 교실 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리고 지팡이를 뽑아 들고 반대 방향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해리... 제발!"

헤르미온느가 힘없이 애원했다.

하지만 해리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가방을 단단히 어깨에 짊어지고, 해리는 학생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동쪽 건물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해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해리는 엄브릿지의 방이 있는 복도에 이르렀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커다란 갑옷 뒤로 몸을 숨긴 해리는 가방을 열고 시리우스의 칼을 꺼낸 다음, 투명 망토를 걸쳤다. 갑옷의 투구가 그를 보기 위해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갑옷 뒤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온 해리는 복도를 지나 엄브릿지의 방문 앞에 이르렀다.

해리는 마법의 칼을 열쇠 구멍 속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살짝 움직인 다음 다시 뺐다. 찰칵 하고 작은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열른 안으로 들어간 해리는 재빨리 문을 닫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끔찍한 고양이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그 고양이들은 아직도 올수된 빗자루들 위에 걸린 장식용 접시 위에서 까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해리는 망토를 벗고 벽난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금방 원하던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반짝이는 플루 가루가 든 작은 상자였다.

해리는 두 손을 덜덜 떨면서 텅 빈 벽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플루 가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써 본 적은 없었다.

벽난로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해리는 플루 가루를 한 움큼 집어 들고 가지런히 쌓여 있는 통나무 위에 뿐렸다. 즉시 평하고 터지면서 에메랄드빛 초록색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올드 광장, 12 번지!"

해리는 크고 분명하게 소리쳤다. 그렇게 이상한 느낌은 생전 처음이었다. 물론 전에도 플루 가루로 여행해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의 몸 전체가 전국에 뻗어 있는 마법사 벽난로 연결망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갔었다. 하지만 이버네는 그의 무릎은 여전히 엉브릿지의 차가운 방바닥에 남아 있고, 오직 그의

머리만이 에메랄드 불길 속에서 훅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느닷없이 빙빙 돌던 세상이 멈췄다. 속이 메슥거리고, 몹시 뜨거운 목도리를 목 주위에 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자, 부엌 벽난로 밖으로 긴 나무 식탁이 보였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양피지 위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시리우스?"

그 남자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시리우스가 아니라 루핀이었다.

"해리!"

루핀은 뒤통수를 맞은 듯, 얼이 빠진 것 같았다.

"도대체 여기서 뭘... 무슨 일이냐? 모두 다 괜찮은 거냐?"

"네, 그냥 궁금해서요. 제 말은. 그러니까 시리우스와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요."

"내가 가서 그를 불러오마."

루핀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리우스는 크리처를 찾으러 위층에 올라갔단다. 또다시 다락방에 숨은 것 같아서 말이야..."

해리는 허둥지둥 부엌 밖으로 나가는 루핀을 보았다. 이제 그의 눈앞에는 의자와 식탁 다리 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리우스가 왜 한 번도 벽난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말하지 않았는지 이상할 정도였다. 그의 무릎은 벌써 엉브릿지 방의 단단한 돌바닥에 계속 끊어앉아 있는 것을 강력하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루핀이 시리우스의 뒤를 따라서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지?"

시리우스가 눈앞을 가린 긴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황급히 말했다.

그러고는 얼른 벽난로 앞에 무릎을 끊고 앉아서 해리와 눈높이를 맞췄다.

루핀도

몹시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 옆에 무릎을 끊었다.

"괜찮은 거니? 혹시 도움이라도 필요한 거니?"

"아니에요."

해리가 말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전 그냥...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당황하거나 난처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틈이 없었다. 그의 무릎은 점점 더 저려 오고 있었고, 소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오 분은 훌렸을 것이다. 조지가 그에게 약속한 시간은 오직 이십 분뿐이었다. 그러므로 해리는 즉시 펜시브 안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했다.

해리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시리우스나 루핀 모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에 루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거기서 본 장면으로 네 아버지를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해리.

그때 네 아버지는 겨우 열다섯 살이었단다..."

"저도 지금 열다섯 살이에요!"

해리가 열을 내며 소리쳤다.

"이봐라, 해리."

시리우스가 그를 달래듯이 말했다.

"제임스와 스네이프는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서로를 미워했어. 너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겠지, 안 그러니? 제임스는 스네이프가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 인기도 좋았고 퀴디치도 잘했어. 거의 모든 방면에 뛰어났단다. 반면 스네이프는 그저 어둠의 마법에만 정신이 팔린 괴짜 꼬마였어. 해리, 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제임스는 언제나 어둠의 마법을 싫어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네이프를 공격했어요. 단지... 단지 아저씨가 심심하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해리는 약간 미안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아니다."

시리우스가 재빨리 말했다. 루핀은 시리우스를 한 번 곁눈질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봐, 해리. 네 아버지와 시리우스는 어찌 됐든 간에 학교에서 제일가는 친구 사이였다는 걸 이해하렴. 모두들 그 두 사람을 최고로 멋지다고 생각했지.

가끔씩 좀 지나칠 때가 있긴 했지만..."

"가끔 우리가 건방진 명청한 짓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지..."

시리우스가 말하자, 루핀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계속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해리가 괴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시리우스와 루핀이 웃음을 터뜨렸다.

"난 제임스가 그랬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시리우스가 그리운 듯이 말했다.

"스니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니?"

루핀이 열성적으로 물었다.

"네. 제가 보기예... 좀 명청해 보였어요."

해리는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웃고 있는 시리우스와 루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그 녀석이 좀 명청하긴 했지!"

시리우스가 활기차게 말했다.

"우리 모두 바보들이었어! 무니는 좀 달랐지만."

시리우스는 루핀을 바라보며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루핀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스네이프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난 너희들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말할 배짱도 없었지."

"글쎄, 그래도 너는 가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지... 그건 꽤 중요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호숫가에 있는 여학생들을 자꾸 곁눈질했어요. 자길 봐 주길 원하면서 말이죠!"

해리는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마음속에 담긴 말을 모두 쏟아 내야겠다고 결심하고 끈질기게 추궁했다.

"그래, 제임스는 언제나 릴리가 옆에 있으면 명청한 짓을 하곤 했지."

시리우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릴리가 가까이 있을 때면,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는 배기질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죠?"

해리가 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몹시 싫어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

시리우스가 대답했다.

"7학년이 되자, 제임스와 같이 외출을 나가기 시작했는걸."

루핀이 한마디 거들었다.

"제임스가 약간 경손해졌을 때였지."

시리우스가 말했다.

"그리고 장난 삼아 사람들에게 주문을 거는 일도 그만뒀어."

루핀이 말을 이었다.

"스네이프에게도 말인가요?"

해리가 떠졌다.

"글쎄, 스네이프는 좀 예외적인 경우였지."

루핀이 느릿느릿 말했다.

"스네이프는 기회만 있으면 항상 제임스를 저주했어. 그러니 너도 설마 제임스가 그걸 가만히 앉아서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안 그래?"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릴리는 사정을 잘 알지 못했어."

시리우스가 설명했다.

"제임스는 릴리와 데이트를 할 때에는 스네이프를 건드리지 않았고, 그녀 앞에서는 주문도 걸지 않았으니까."

시리우스가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해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해리, 네 아버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열다섯 살 때에는 누구나 바보짓을 하게 마련이야. 그리고 제임스는 곧 철이 들었어."

"알았어요."

해리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제가 스네이프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네가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았다는 걸 알았을 때, 스네이프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

"저에게 두 번 다시 오클러먼시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해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게 무슨 굉장한 보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뭐라고 했다고?"

시리우스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 바람에 해리는 깜짝 놀라 재를 한 입 들이마시고 말았다.

"정말이냐, 해리? 그가 널 가르치는 걸 그만두겠다고 했단 말이냐?"

루핀이 재빨리 물었다.

"네."

해리는 사람들의 지나친 반응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다행..."

"내가 당장 쫓아가서 스네이프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시리우스가 강력하게 말하며,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루핀이 그를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다.

"만약 누군가 스네이프에게 말하러 가게 된다면, 그건 바로 나야!"

루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해리, 네가 직접 스네이프를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클러먼시 수업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라. 이 사실을 덤블도어 교수가 알게 되면..."

"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스네이프가 절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해리가 발끈 화를 냈다.

"제가 펜시브 밖으로 나왔을 때, 스네이프의 모습이 어땠는지 두 분은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해리, 오클러먼시를 배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루핀이 엄하게 말했다.

"내 말 알아듣겠니?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해리는 짜증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정신이 사나워서 얼른 대답을

해 버렸다.

"한번... 말해 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해리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크리처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나요?"

"아니, 아마 네 뒤에 누가 온 모양이다."

시리우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해리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만 가야겠어요!"

해리는 얼른 인사를 하고 그리볼드 광장 벽난로에서 잽싸게 머리를 뒤로 뺏다.

잠깐 동안 머리가 목 위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멀쩡하게 엉브릿지의 방 벽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깜박깜박 죽어 가는 초록색 불꽃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서, 어서!"

해리는 바로 방문 밖에서 중얼거리는 쉰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문을 그냥 열어 놓고 나갔군..."

해리는 재빨리 투명 망토를 뒤집어썼다. 가까스로 망토를 온 몸에 덮어쓴 순간, 필치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무슨 일인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잔뜩 신이 나서 혼자 중얼거리며 방을 가로질러 오더니 엉브릿지

책상의 서랍을 열고 안에 든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매질 승인서라... 매질 승인서... 마침내 그걸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벌써 수년

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야."

필치는 양피지 한 장을 꺼내더니 열렬히 입을 맞추고는, 그걸 가슴에 꼭 껴안고 정신없이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해리는 가방을 들고 투명 망토가 잘 덮였는지 확인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필치의 뒤를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 필치는 해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빠른 걸음으로, 절름절름 뛰어갔다.

엉브릿지의 방에서 한 층 아래로 내려간 해리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편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투명 망토를 벗어 가방 안에 집어넣은 다음, 걸음을 재촉했다. 현관 복도에서부터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대리석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마치 학교 학생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트릴로니가 학교에서 쫓겨나던 날 밤과 비슷했다. 학생들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벽 주위에 빙 둘러서 있었고(그 중에 몇 명은 악취수액처럼 보이는 끈적거리는 액체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선생님들과 유령들도 그 틈에 끼어 있었다. 구경꾼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사 위원회 위원들이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어쩔줄 모르는 것 같았다. 한편 피브스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복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프레드와 조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틀림없이 궁지에 몰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럴군!"

엉브릿지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해리는 그녀가 자기보다 바로 몇 계단 밑에 서서 방금 잡은 먹잇감을 굽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너희들은 학교 복도를 늪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재밌다고 여기는 거냐?"

"꽤 재미있는 일이죠, 그럼요."

프레드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엉브릿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필치는 거의 행복에 겨워 울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엉브릿지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교장 선생님, 여기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필치가 목이 메어 말했다. 그리고 엉브릿지의 책상에서 꺼낸 양피지를 흔들었다.

"여기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초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 지금 당장 실시하게 해주십시오..."

"좋아요, 아구스."

엄브릿지가 말했다. 그리고 프레드와 조지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너희 두 사람은 내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깨닫게 될 게다."

"뭘 알게 된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프레드가 빈정거리며 쌍둥이 형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조지, 이제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우고 어른이 된 것 같군."

"그래, 내 생각도 그렇다네."

조지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재능을 시험해 볼 때가 온 거야, 안 그래?"

프레드가 물었다.

"그렇고말고."

조지가 끄덕였다. 그리고 엄브릿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지팡이를 들더니 소리쳤다.

"아씨오 빗자루!"

어디선가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왼쪽을 돌아본 해리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프레드와 조지의 빗자루가 여전히 엄브릿지의 방 벽에 붙어 있던

무거운 쇠사슬과 쇠못을 뒤에 길게 매단 채, 그들의 주인을 향해서 복도를 쓴살같이 날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왼쪽으로 방향을 돌린 빗자루는 계단을 내려오더니 쌍둥이 형제들 앞에 우뚝 멈춰 섰다. 쇠사슬은 포석이 깔린 돌바닥에

부딪쳐 철거덕철거덕 요란한 소리를 냈다.

"우린 당신을 보지 않을 거예요."

프레드가 빗자루에 다리를 걸치며 엄브릿지 교수를 향해 말했다.

"괜히 연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지도 자신의 빗자루에 올라탔다.

프레드는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을 빙 둘러보았다.

"누구든 위층에 진열된 것 같은 휴대용 늪을 사고 싶으시면, 다이애건 앤리 93 번지에 있는 위즐리 형제의 신기한 장난감 가게로 오세요. 저희가 새로 낸 상점이랍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늪은 박쥐의 손에서 도망치는 데 저희 물건을 쓰겠다고 서약하시는 호그와트 학생 분들께는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조지가 엄브릿지를 손가락질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저 녀석들을 잡아!"

엄브릿지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감사 위원회 위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을 때에는, 조지와 프레드는 이미 마룻바닥을 박차고 허공 위로 4 점 5 미터쯤 솟구쳐 올랐다. 빗자루에 매달린 쇠못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프레드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둉둥 떠 있는 피브스를 바라보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 여자에게 지옥을 선사해 줘, 피브스."

피브스는 방울 달린 모자를 벗더니 프레드와 조지를 향해 공손히 절을 했다.

해리는 지금까지 피브스가 학생의 명령을 듣는 것을 처음 보았다. 두 사람은 밑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획하고 날아갔다. 그리고 활짝 열린 현관문을 지나 노을이 불타는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제 30 장 그룹

그후로 며칠 동안 프레드와 조지가 자유를 찾아 날아갔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해리는 머지않아 이 이야기가 호그와트의 또 다른 전설이 되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조차도, 쌍둥이 형제가 문 밖으로 날아가기 전에 빗자루를 타고 급강하를 하면서 엉브릿지를 향해 뚱 폭탄을 퍼붓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난 직후에, 그들을 따라하자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해리는 종종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솔직히 나도 언젠가는 빗자루를 타고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한 번만 더 그런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난 그냥 위즐리 형제처럼 해 버릴 거야."

어쨌든 프레드와 조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쉽게 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 중 하나는, 그들이 동쪽 건물의 5층 복도를 완전히 뒤덮은 늪

웅덩이를 제거할 방법을 알려 주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다. 엉브릿지와 필치가 그것을 없애 버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웅덩이

주위에 밧줄을 치고, 필치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교실을 찾아가는 학생들을 작은 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맥고나걸이나 플리트윅 같은 선생님들이라면 단숨에 그 웅덩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겠지만, 프레드와 조지의 도깨비불 폭죽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엉브릿지가 애를 쓰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는 걸 더 즐기는 것 같았다.

또한 엉브릿지의 방문에 난 두 개의 커다란 빗자루 모양의 구멍도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의 클린스윕이 주인에게 가기 위해 문짝을 부수고 나온 흔적이었다. 필치는 새 문을 달고, 해리의 파이어볼트를 지하실로 옮겼다.

소문에

의하면, 엉브릿지가 빗자루를 지키기 위해 무장한 트롤 경비원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엉브릿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프레드와 조지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현재 비어 있는 최고 말썽대장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새 문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털이 난 돼지코 니플러를 엉브릿지의 방 안으로 몰래 밀어 넣었다. 니플러는 반짝이는 물건을 찾아서 순식간에 방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엉브릿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뚱뚱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고 잽싸게 덤벼들었다. 뚱 폭탄과 악취 폭탄이 복도에 떨어지는 일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학생들이 교실을 나가기 전에 머리에 거품 머리 마법을 거는

것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마치 머리에 어항을 거꾸로 뒤집어쓴 것 같은 우스운 꼴이 되기는 했지만, 고약한 냄새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치는 항상 손에 채찍을 들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말썽꾼들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말썽꾼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방향으로 쫓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감사 위원회 위원들이 필치를 돋겠다고 나섰지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슬리데린 퀴디치 팀의 워링턴은 보기에도 끔찍한 피부병 때문에 병동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마지 콘플레이크를 뒤집어쓴 것 같았다. 또한 팬시 파킨슨은 이마에 뿔이 나서 다음 날 수업을 모두 빼져야만 했다. 헤르미온느는 그걸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프레드와 조지가 호그와트를 떠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꾀병용 과자세트를 팔고 갔는지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엉브릿지가

교실로 들어서기만 하면, 기절을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열이 펄펄 끓거나
코피를

줄줄 흘리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엉브릿지는 분노와 짜증으로 비명을
지르며 이 이상한 증세의 원인을 추적하려고 애를 썼지만, 학생들은 끝까지
'엉브릿지 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속해서 네 반의 학생들에게
별을

주고도 그들의 비밀을 캐내는 데 실패하자, 엉브릿지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코피를 흘리는 학생, 기절한 학생, 진땀을 흘리는 학생, 구역질을 하는 학생
모두

교실에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괴병용 과자세트 사용자들도 말썽의 제왕인 피브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피브스는 프레드가 떠날 때 남긴 말을 가슴 깊이 새긴 것처럼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킬킬 웃으며 식탁을 뒤엎고 칠판을 부수고 동상과 꽃병을
쓰러뜨리며 학교 안을 날아다녔다. 노리스 부인을 두 번이나 갑옷 안에
가두어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녀를 성난 필치가 꺼내 줘야만 했다.

피브스는

등잔을 깨뜨리거나 촛불을 깨 버리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학생들 머리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가지고 곡예를 벌이기도 했다. 때로는 높이 쌓인 양피지
서류 더미를 난로 속에 집어넣거나 창 밖으로 던져 버렸다. 한 번은 욕실의
모든

수도꼭지를 다 열어 놓아서 2층 복도가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또한 아침
식사 도중에 대연회장 한가운데에 타란툴라 거미가 잔뜩 든 자루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엉브릿지의 뒤를 둑둥 떠다니며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큰 소리로 야유의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만 필치 이외에는 어느 교직원도 굳이 엉브릿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프레드와 조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해리는 바로 피브스
옆을

지나고 있는 맥고나걸 교수를 보았다. 그때 피브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떨어뜨리려고 깅낑거리고 있었는데,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톡 흘리는 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나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

설상가상으로 몬태규는 아직도 화장실의 악몽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전히 정신이 혼미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요일 아침에는 그의
부모님이 잔뜩 화가 나서 걸어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헤르미온느는 몬태규 부부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마법을 건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품프리 부인이 그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곧 나을 텐데 뭐."

론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쨌든 엉브릿지로서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군, 안 그래?"

해리는 몹시 만족스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해리와 론은 자신들이 마법을 걸어야만 하는 찻잔을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다.
그러자 해리의 잔에서는 네 개의 아주 짧은 다리가 자라났다. 어찌나 짧았던지
책상에 다리가 달지도 못하고 그만 중간에서 버둥거렸다. 한편 론의 찻잔에서는
아주 가느다란 네 개의 다리가 솟아나더니 간신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다리가 부르르 떨리면서 탁 꺾이는 바람에 그만 찻잔을 깨뜨리고
말았다.

"레파로."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지팡이를 휘둘러서 론의 찻잔을 다시 붙여 주었다.

"그건 아주 잘된 일이야. 하지만 몬태규가 영원히 낫지 않으면?"

"그게 무슨 대수야?"

론이 짜증을 냈다. 그의 찻잔은 무릎을 덜덜 떨면서 다시 비틀비틀 일어나고 있었다.

"몬태규는 그리핀도르의 점수를 깎으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안 그래?

헤르미온느, 그렇게 누군가를 걱정하고 싶으면 내 걱정이나 좀 해줘!"

"너?"

헤르미온느가 자신의 찻잔을 냉큼 붙잡으며 물었다. 그녀의 찻잔은 수양버들 무늬가 그려진 네 개의 짧고 튼튼한 다리로 책상을 썩썩하게 걸어서 주인 앞에 버젓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내가 왜 너를 걱정해야 하는데?"

"엄마의 편지가 엄브릿지의 검열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난 아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거야. 설사 엄마가 호울러를 보냈다 해도 난 놀라지 않아." 론은 연약한 다리로 어떻게든 찻잔의 무게를 버텨 보려고 애쓰는 자신의 잔을 붙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프레드와 조지가 떠난 걸 내 탓으로 돌릴 거라고 두고 봐."

론이 우울하게 말했다.

"엄마는 형들이 떠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실 거야. 빗자루 끝을 붙잡고 늘어지든지 매달리든지 무슨 수를 써야만 했다고 말이야... 그래,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겠지."

"너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너무 부당하신 거야. 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분명히 네 어머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정말로 다이애건 앤리에 가게를 얻었다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 온 것이 틀림없어."

"그래,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야. 도대체 형들이 어떻게 가게를 얻었지?"

론이 이렇게 말하며 지팡이로 찻잔을 세게 치자, 찻잔 다리는 다시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이건 좀 위험한 짓이야, 안 그래? 다이애건 앤리에서 가게를 얻으려면 갈레온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 어머니는 형들이 어디서 그런 돈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싶어 하실 거야."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헤르미온느는 자신의 찻잔이 해리의 찻잔 주위를 종종걸음으로 빙글빙글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해리의 찻잔에 난 짧은 다리는 여전히 책상에 달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난 혹시 그들이 먼던구스의 꿈에 넘어가서 훔친 물건을 팔았거나 아니면 뭔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론과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물었다.

"왜냐하면..."

해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마침내 고백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다. 만약 프레드와 조지가 범죄자란 의심을 사게 된다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두 사람에게 돈을 주었거든. 지난 6월에 내 트리위저드 상금을 그들에게 주었어."

충격을 받은 듯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헤르미온느의 찻잔이 책상 가장자리를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오, 해리. 설마 그럴 리가!"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그랬어."

해리가 반항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난 후회하지 않아. 난 돈이 필요없었거든. 그리고 두 사람은 장난감 가게를 잘 운영할 거야."

"너무너무 잘됐다!"

론이 기쁨에 넘치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해리, 그럼 모두 다 네 탓이구나! 엄마도 날 야단칠 수 없을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도 될까?"

"그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리가 힘없이 말했다.

"더구나 네 어머님께서 그들이 훔친 냄비나 뭐 그런 걸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헤르미온느는 그 후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는 저렇게 입 꾹 다물고 참는 것이 별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연 휴식 시간이 되어 운동장으로 나간 세 사람이 5월의 희미한 햇살 아래 모여 섰을 때, 헤르미온느는 반짝거리는 두 눈으로 해리를 똑바로 마주 보며, 결연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해리가 얼른 말문을 막았다.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프레드와 조지는 이미 그 돈을 가졌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상당 부분 써버린 것 같아. 그러니 난 그 돈을 되찾을 수도 없고 되찾고 싶지도 않아. 괜히 기운 빼지 마, 헤르미온느."

"난 프레드나 조지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론이 못 믿겠다는 듯이 콧방귀를 꺼었다. 헤르미온느는 그를 무섭게 째려보았다.

"아니라니까!"

헤르미온느는 화를 냈다.

"사실은 해리 너에게 스네이프를 찾아가서 다시 오클러먼시 수업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말하려던 거야!"

순간 해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일단 프레드와 조지의 극적인 탈출에 대한 화제가 다 떨어지고 나자(족히 몇 시간은 걸렸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시리우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해리는 왜 시리우스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두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당히 들려댈 말을 생각해 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결국 솔직하게 시리우스는 해리가 다시 오클러먼시 수업을 받길 원한다고 털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줄곧 후회하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그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고, 해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불쑥불쑥 다시 말을 꺼내곤 했다.

"네가 그 이상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못할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네가 지난밤에도 잠을 자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론이 말해 주었거든."

해리는 론을 쳐다보며 인상을 썼다. 론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그냥 조금 중얼거리기만 했어."

론이 변명하듯 우물거렸다.

"조금만 더 '라든가 뭐 그런 말을."

"난 너희들이 퀴디치 시합을 하는 걸 구경하는 꿈을 꿨어."

해리는 불쑥 거짓말을 해 버렸다.

"내가 조금만 더 팔을 뻗어서 케이플을 불잡으라고 널 응원하고 있었지."

론의 얼굴이 귀까지 새빨갛게 물들었다. 해리는 복수를 한 듯한 쾌감을 느꼈다. 물론 퀴디치 꿈 같은 건 꾸지도 않았지만.

지난밤에 해리는 또다시 미스터리 부서의 복도를 따라 걷는 꿈을 꾸었다. 그는 깜빡이고 일렁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둥근 방을 지나서 선반이 꽉 들어차 있는 동굴 같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선반에는 먼지 낀 우리 구슬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해리는 97 번째 줄을 향해서 곧장 달려갔다. 그리고 다시 원쪽으로 돌아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이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조금만 더... 왜냐하면 자신의 의식이 깨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선반의 제일 마지막 줄에 도달하기 전에, 해리는 누워서 침대 위 덮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너는 네 의식을 방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니?"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너 혼자서라도 오클러먼시를 연습하고 있는 거야?"

"물론이지."

해리는 마치 그런 질문이 모욕이라도 된다는 듯이 말했지만,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는 못했다. 사실 해리는 그 먼지 낀 구슬들이 가득한 방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꿈을 계속 꾸고 싶었던 것이다.

문제는 시험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남는 시간을 공부하는데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지식들로 꽉 차서 잠자리에 들어도 금방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간신히 잠이 든다 해도 과중한 공부에 짓눌린 그의 머리를 대개 시험에 관한 엉뚱한 꿈이나 꿀 뿐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검은 문이 있는 복도를 내려갈 때마다, 머릿속의 무언가가... 종종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로... 그를 비난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를 깨우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다.

"만약 슬리데린 팀이 후풀푸프와 시합을 할 때까지 몬태규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승컵을 차지할 기회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몰라."

론이 아직껏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리는 화제를 바꾸게 된 걸 기뻐하며 얼른 맞장구를 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으니까... 만약 다음 토요일에 슬리데린이 후풀푸프에게 진다면..."

"그래, 맞아."

해리는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에 초 챙이 운동장을 지나갔던 것이다. 그녀는 절대로 그를 쳐다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것 같았다.

퀴디치 시즌의 마지막 시합인 그리핀도르 대 래번클로의 시합이 5월 마지막 주말에 있을 예정이었다. 비록 지난번 시합에서 후풀푸프가 슬리데린을 아슬아슬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리핀도르가 감히 우승을 장담할 시기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주로 론의 절망적인 실점 기록 때문이었다(물론 아무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제 론은 새로운 낙관주의를 터득한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더 나빠질 순 없잖아, 안 그래?"

시합 날 아침에 론은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 결연하게 말했다.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데 뭐."

잠시 후에 몹시 흥분한 군중 사이를 뚫고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운동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프레드와 조지가 옆에 없으면 론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두 사람은 한 번도 론에게 자신감을 준 적이 없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때 루나 러브굿이 머리 위에 살아 있는 독수리 같은 것이 앉아 있는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루나는 킬킬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 슬리데린 학생들 사이를 의연하게 지나갔다. 그때 날개를 퍼덕거리는 독수리를 보고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오, 이런. 깜박 잊고 있었네! 초도 시합에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

해리는 물론 그 사실을 절대 잊고 있지 않았지만, 그저 훌륭거리기만 했다.

그들은 관중석 제일 꼭대기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맑고 투명한 날씨였다. 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다. 해리는 여행히도 론이 더

이상 슬리데린에게 '위즐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합창을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를 소망했다.

프레드와 조지가 떠난 뒤로 잔뜩 기가 죽은 리 조던이 언제나처럼 해설을 맡았다. 선수들이 운동장으로 날아오르자, 그는 보통 때보다 훨씬 기운 없는 목소리로 선수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브래들리... 데이비스... 챙."

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해리는 뱃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초는 반짝이는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운동장으로 걸어 나왔다.

해리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의 다툼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초가 로저 데이비스와 빗자루에 올라탈 준비를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아도, 해리는 약간 콕콕 쑤시는 듯한 질투심만 느낄 뿐이었다. "선수들이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리가 소리쳤다.

"데이비스가 즉시 퀘이풀을 잡았습니다. 래번클로의 주장인 데이비스는 퀘이풀을 가지고 존슨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벨을 피하고 스피넷을 제쳤습니다... 그는 곧장 골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퀴풀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리가 아주 큰 소리로 욕을 한마디 했다.

"그리고 퀴풀을 넣었습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다른 그리핀도르 학생들과 함께 신음 소리를 냈다. 예상했던 대로 반대편 관중석에 앉아 있던 슬리데린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위즐리는 단 한 번의 공격도 막아 낼 수 없어.

위즐리는 단 하나의 골대도 지킬 수 없어...

"해리... 헤르미온느..."

굵고 거친 목소리가 해리의 귓가에 들렸다.

해리가 뒤를 돌아보니 수염이 무성한 해그리드의 거대한 얼굴이 좌석 사이에 불쑥 솟아 있었다. 뒷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가 방금 지나쳐 온 1,2 학년 아이들이 납작하게 짓눌리고 몰골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그리드는 눈에 뛸까 봐 걱정이 되는 듯, 몸을 잔뜩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1 미터는 불쑥 솟아 있었다.

"얘들아."

해그리드가 속삭였다.

"나와 함께 갈 수 있니, 지금? 다른 아이들이 시합을 구경하는 동안?"

"저... 좀 기다리면 안 되나요, 해그리드?"

해리가 물었다.

"시합이 끝날 때까지만..."

"안 돼, 안 된다, 해리. 지금 가야만 해. 모두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말이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눈은 양쪽 다 명이 들어 있었다. 해리는 학교로 돌아온 이후로 해그리드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쳐다본 적이 없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갈게요. 가고말고요."

해리가 즉시 대답했다. 그와 헤르미온느는 좌석 끝으로 나갔다. 그들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던 학생들이 마구 불평을 터뜨렸다. 하지만 해그리드의 줄에 있던 학생들은 한마디 불평도 감히 하지 못하고 최대한 몸을 작게 꼬그리려고 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 두 사람 모두. 진심이야."

계단에 이르자,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는 잔디밭으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여자가 우리가 가는 걸 보지 말아야 할 텐데."

"엄브릿지 말인가요?"

해리가 물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엄브릿지는 감사 위원회 위원들과 관람석에 앉아서 경기 관람을 하고 있어요. 못 보셨어요? 아마 경기 중에 무슨 말썽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 그래. 소동이 좀 일어나도 나쁠 건 없지."

해그리드는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두막집까지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덕분에 우린 시간을 더 벌게 될 테니까..."

"무슨 일이죠, 해그리드?"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그리드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숲 가장자리를 향해서 잔디밭을 서둘러 가로질러 가는 중이었다.

"어... 잠깐 보자."

관중석에서 요란한 함성이 들려오자, 해그리드는 어깨 너머로 힐끗 돌아보았다.

"이봐, 누가 방금 점수를 딴 모양인데?"

"래번클로일 거예요."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좋아... 좋아..."

해그리드가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잘됐구나."

그들은 해그리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야만 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위를 돌아보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오두막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헤르미온느는 저절로 오두막집 문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계속 걸어서 숲 가장자리의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기대어 있는 활을 집어 들었다. 문득 아이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해그리드는 고개를 돌렸다.

"우린 여기로 들어갈 거야."

해그리드가 텁수룩한 머리를 돌렸다.

"숲 속으로 말인가요?"

헤르미온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어서 서둘러라.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전에!"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해그리드의 뒤를 따라 나무 아래로 들어갔다. 그는 벌써 팔에 활을 끼고 짙은 초록색 그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해그리드, 무기는 왜 가져가는 거죠?"

해리가 물었다.

"그냥 미리 조심하는 거야."

해그리드가 거대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희에게 세스트랄을 보여 주던 날에는 활을 들고 가지 않았잖아요."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멀리 가려고 하거든. 어쨌든 그건 피렌체가 숲을 떠나기 전이지, 안 그래?"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피렌체가 숲을 떠났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죠?"

헤르미온느가 잔뜩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하면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나에게 몹시 화가 났거든."

해그리드는 주위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옛날에는... 그래. 그때도 뭐 그렇게 상냥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린 그럭저럭 잘 지냈단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지내면서도, 내가 조언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나타나 주었지. 하지만 이제는..."
해그리드가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었다.
"피렌체 말로는, 그가 덤불도어 교수님 밑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다른
肯타우로스들이 화가 났다고 하던데요?"
해리가 불쑥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걸려 비틀거리며 물었다. 해그리드의 기색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맞아.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었어."
해그리드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펄펄 뛰고 난리였지. 내가 끼여들지 않았더라면, 아마 피렌체를 죽을 때까지
걸어찼을 거야."
"肯타우로스들이 그를 공격했단 말인가요?"
헤르미온느가 충격을 받은 듯이 소리쳤다.
"그래."
해그리드는 늘어진 나뭇가지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며 대답했다.
"우리의 절반이 그를 향해 덤벼들었지..."
"그런데 아저씨가 그걸 막았단 말인가요? 혼자서요?"
해리는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물론이지. 그럼 그가 죽도록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으란 말이냐?"
해그리드가 말했다.
"때마침 내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피렌체도 그런 한심한
경고를 나한테 하기 전에 그때 일을 기억했어야지."
해그리드는 갑자기 흥분해서 언성을 높였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인상만 찌푸릴 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때부터 다른肯타우로스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생겼지.肯타우로스들은 이 숲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 가장
똑똑한 짐승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린 왜 여기 온 거죠, 해그리드?"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肯타우로스 때문인가요?"
"오, 아니야."
해그리드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때문이 아니야... 물론 그들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
그래, 이제 곧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끝으로, 해그리드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앞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한 걸음이 두 사람에게는
세 걸음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야만 했다.
길은 점점 더 덤불로 우거지고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하게 자라 있었다.
그들이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주위가 저녁처럼 어두워졌다. 곧 해그리드가
학생들에게 세스트랄을 보여 주었던 컴퓨터를 지나갔다. 하지만 해그리드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서 가장 어두운 숲의 중심부를 향해 요리조리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해리도 별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해그리드!"
해리는 무성하고 굵은 가시나무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느라 애를 쓰며
소리쳤다. 반면 해그리드는 성큼성큼 잘도 넘어가고 있었다. 해리는 문득
지난번에 숲길을 벗어났다가 당했던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해그리드가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말했다.
"어서 와라, 해리... 이제부터는 함께 가야만 한다."
하지만 해그리드와 보조를 맞추며 나란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해그리드는 마치 거미줄을 헤치듯이 나뭇가지와 가시덤불 사이를

너무나 손쉽게 지나갔지만,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자꾸만 옷자락이 걸려서 몇 분동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엉킨 옷자락을 풀어야만 했다. 곧 해리의 팔과 다리는 여기저기 긁힌 상처와 베인 자국으로 엉망이 되었다. 이제 어찌나 숲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지, 침침한 어둠 속에서 보이는 해그리드의 모습이 그저 앞에서 어른거리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다. 잔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숲이 진동하고, 천진한 다람쥐가 내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해리는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려고 어둠 속을 열심히 살펴보곤 했다. 불현듯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오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지 못한 것은 정말 처음이란 생각이 들었다. 생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웬지 불길하게만 느껴졌다.

"해그리드, 지팡이에 불을 켜도 괜찮을까요?"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물었다.

"어... 그래."

해그리드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실은..."

해그리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뒤로 돌아섰다. 그 바람에 정신없이 앞으로 걸어가던 헤르미온느는 그만 그와 부딪혀서 뒤로 쓰러질 뻔했다. 해리는 그녀가 바닥에 달기 전에 재빨리 잡아 주었다.

"잠깐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도 사정을 미리 좀... 알려 줄 수 있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말이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좋아요!"

해리의 부축을 받아 다시 일어선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루모스!'하고 중얼거렸다. 그들의 지팡이 끝에 작은 불이 켜졌다. 두 개의 흔들리는 불빛이 앞을 비추자, 침침한 어둠 속에서 해그리드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몹시 초조하고 서글픈 표정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말이지..."

해그리드가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이제 난 언제 짐을 싸서 쫓겨날지 모른단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해그리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 왔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브릿지는 자기 방에 니플러를 집어넣은 범인이 나라고 생각해."

"그게 정말인가요?"

해리의 입에서 이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해그리드가 분개해서 소리쳤다.

"마법 생물과 관련된 일이면 무엇이든, 엄브릿지는 나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해. 너희들도 알다시피 엄브릿지는 내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부터 줄곧 나를 내쫓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잖아. 물론 나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난 지금 당장 떠났을 거야. 트릴로니처럼 전교생들 앞에서 엄브릿지에게 당하는 꼴을 보이기 전에 말이야."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그의 말에 반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거대한 손을 흔들며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란다. 여기서 나가면, 난 덤블도어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기사단을 위해서도 원가 할 수 있을 테고, 너희들에게는 그루불리

프랭크 교수가 있잖니. 그분은 너희들이 무사히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해그리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헤르미온느가 그의 팔을 가만히 두드려 주려고 하자, 해그리드가 황급히 말을 이었다. 그는 코트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방울 무늬가 찍힌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가를 닦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게다. 만약 내가 떠나게 되면... 도저히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너희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괜찮다면, 룬도."

"물론 도와드릴게요."

해리가 서슴없이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해그리드는 요란하게 코를 풀더니, 말없이 해리의 어깨를 톡톡 쳤다.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해리는 그만 비틀거리며 나무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해그리드는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게다... 자...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심해라... 여기 둥지가 있으니까..."

그들은 말없이 십오 분 정도를 더 걸어갔다. 해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고 막 물으려고 할 때, 해그리드가 오른 팔을 뻗으며 걸음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정말 쉽단다."

해그리드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주 조용히 해야 해..."

그들은 앞으로 살금살금 기어갔다. 그들 앞에 거의 해그리드의 키만큼이나 높은 흙무덤이 나타났다. 순간 해리는 어떤 어마어마한 동물의 은신처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싹 소름이 끼쳤다. 흙무덤 주위의 나무들은 모두 뿌리까지 뽑혀

있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줄기들이 마치 담이나 바리케이드처럼 잔뜩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거대한 흙무덤만이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 해그리드는 흙무덤에서 조금 떨어져서 걸음을 멈추었다.

"자고 있구나."

해그리드가 속삭였다.

해리는 마치 한 쌍의 거대한 폐가 움직이는 듯한 규칙적인 숨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힐끗 옆을 돌아보니, 헤르미온느는 입을 헤벌린 채, 흙무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완전히 겁에 질려 버린 것 같았다.

"해그리드, 저게 누구죠?"

헤르미온느는 잠자고 있는 생물의 숨소리보다 약간 더 클까말까 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해리는 그녀의 질문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막 '저게 뭐죠?'라고 물으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해그리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팡이를 짚은 그녀의 손이 심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해리는 헤르미온느와 해그리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순간 번쩍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해리는 비로소 놀라움에 입을 딱 벌리며 그 거대한 흙무덤을 다시 바라보았다.

해리와 헤르미온느, 해그리드까지 올라서고도 남을 만한 그 거대한 흙무덤은 깊은 숨소리에 맞추어 천천히 위아래로 들썩이고 있었다. 그것은 흙무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웅크린 등이었다.

"아니... 그가 오고 싶어 했던 건 아니야."

해그리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그를 데려와야만 했어. 어쩔 수 없었단다!"

"도대체 왜?"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장에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들렸다.

"오... 해그리드! 왜 이런 짓을!"

"그를 데려오면 그에게 약간의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을 줄 알았단다."

이번에는 해그리드가 거의 울먹이다시피 말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위험하지 않다고요!"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해그리드는 허둥지둥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 앞에 있는 거대한 생물이 큰 소리로 코 고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었다.

"지금까지 아저씨에게 상처를 입힌 게 바로 이 거인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던 거였어요!"

"이 거인은 자기 힘을 잘 모른단다!"

해그리드가 열심히 변명했다.

"게다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집까지 돌아오는 데 두 달이나 걸렸던 거군요!"

헤르미온느가 심란한 듯이 말했다.

"오, 해그리드, 그가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왜 다시 돌려 보내지 않은 거죠? 그도 자기 동족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거인들은 줄곧 그를 괴롭히기만 했단다. 헤르미온느, 너무 덩치가 작기 때문이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작다고요? 작단 말인가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헤르미온느, 난 그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어."

해그리드의 상처 난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내 동생이란다!"

헤르미온느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해그리드를 쳐다보았다.

"해그리드, 지금 '동생'이라고 했나요? 그렇다면...?"

해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아버지가 다른 형제야."

해그리드가 설명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헤어지고 난 다음, 다른 거인과의 사이에서 바로 여기 그룹을 낳은 거야."

"그룹?"

해리가 되물었다.

"그래... 그가 자기 이름을 말했는데, 뭐 비슷하게 들렸어."

해그리드가 조조하게 말했다.

"그는 영어를 잘 못해... 어떻게든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나만큼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여자 거인한테 덩치 큰 아이를 낳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거든. 그런데 이 아이는 항상 거인들 틈에서는 난쟁이로 통했어. 겨우 5 미터밖에 안 되니까..."

"참 작기도 하군요!"

헤르미온느가 신경질적으로 비꼬듯이 말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겠어요!"

"이 아이는 모든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단다. 난 이 애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어..."

"맥심 부인도 그를 데려오는 걸 찬성했나요?"

해리가 물었다.

"그녀는... 그녀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해그리드는 큼지막한 손을 비비 꼬면서 말했다.

"하... 하지만 솔직히 얼마 후에는 그녀도 그만 그에게 질려 버렸지... 그래서 우리는 각자 따로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녀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도대체 무슨 수로 아무도 모르게 그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죠?"

"사실은 그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란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사람이 없는 험한 지역을, 그것도 밤에만 다녀야 했으니까. 물론 그가 원할 때는 몸을 잘 숨겼지만, 사실 그는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

"오, 해그리드. 그럼 왜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헤르미온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쓰러진 나무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기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나운 거인을 데리고 뭘 어떻게 하려고요!"

"글쎄... '사나운 거인'이라고 말하는 건 좀 심한 것 같다."

해그리드는 여전히 안절부절못하며 두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쁠 때에는 한두 번 나를 때리기도 하지만, 점점 배우는 것도 많고 나아지고 있단다. 잘 적응하고 있어."

"그런데 저 밧줄들은 뭔가요?"

해리가 물었다. 근처에 있는 가장 커다란 나무주리에서부터 밧줄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 밧줄들은 그룹이 동그랗게 몸을 막고 누워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를 줄곧 끌어 두고 있어야만 하나요?"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물었다.

"어... 그래..."

해그리드가 걱정스런 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야... 그는 자기 자신의 힘을 잘 몰라."

해리는 이제야 왜 숲 속의 다른 동물들이 불길할 정도로 자취를 감추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해리와 론과 제가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를 돌봐 주렴. 내가 떠난 뒤에 말이야."

해그리드가 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해리는 자기가 이미 해그리드의 부탁을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마음이 불편해졌다.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먹을 거나 뭐 그런 걸 줄 필요는 없어!"

해그리드가 열심히 설명했다.

"자기 혼자서도 먹을 건 구할 수 있어. 그건 아무 문제가 안된단다. 새나 사슴 따위가 있으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친구란다. 누군가 그를 좀 도와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누워 자고 있는 거인을 물끄러미 돌아보았다. 그저 약간 지나치게 덩치가 큰 인간처럼 보이는 해그리드와는 달리 그룹은 정말로 이상한 괴물처럼 보였다. 해리는 거대한 흙무덤 왼쪽에 놀인, 이끼 낀 큰 바위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룹의 머리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몸에 비례해서도 인간의 머리보다 지나치게 컸다. 완전히 공처럼 동그란 머리통에는 고사리 같은 색깔의 곱슬곱슬하고 짧은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머리 꼭대기에는 단 하나뿐인 커다란 살색 귀가 보였다. 게다가 베논 이모부처럼 목이 어찌나 짧던지, 머리가 바로 어깨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짐승 가죽을 대충 꿰매서 만든 더러운 갈색 작업복처럼 보이는 겉옷 밑으로 드러난 그의 등은 아주 넓었다. 그룹이 자고 있을 때, 엉성한 가죽옷의 솔기가 뜯어질 것 같았다. 두 다리는 잔뜩 꼬부리고 있었는데, 썰매처럼 크고 더러운 두 발은 맨발인 채로 땅 위에 나란히 포개져 있었다.

"우리가 그를 가르치길 원하는군요."

해리가 맥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피렌체의 경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어.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물론

숲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은 그룹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는 해그리드의 협된 시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 그냥 그에게 말이라도 좀 걸어 주면 좋겠어..."

해그리드가 희망에 차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모두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고 그가 여기 남아 있기를 원한다는 걸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손가락 사이로 그를 살짝 내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노버트가 다시 돌아왔길 바라는 게 나을 것 같지?"

해리가 이렇게 말하자, 헤르미온느는 덜덜 떨리는 웃음소리를 내었다.

"그럼 그렇게 해줄 거지?"

해그리드는 해리가 방금 한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물었다.

"어쨌든..."

해리는 이미 약속에 끌여 버린 몸이었다.

"노력해 볼게요, 해그리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해리."

해그리드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싶지는 않다... 시험도 쳐야 하는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명 망토를 입고 여길 찾아와서 그와 잠깐 이야기만 좀 나눠 주렴. 그럼 이제 그를 깨울게... 너희들에게 소개를 해주려면..."

"뭐라고요... 안 돼요!"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해그리드, 안 돼요, 깨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벌써 그들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줄기를 성큼 넘어서서 그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 3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자,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들고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나뭇가지 끝으로 그룹의 등 한가운데를 쿡 찔렀다. 거인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던 새들이 짹짹거리며 둑지에서 날아올랐다. 한편, 그룹은 해리와 헤르미온느 앞에서 그 거대한 몸집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무릎을 세우기 위해서 넓적한 한 손으로 땅을 짚자, 발밑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무엇이 자기를 깨웠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괜찮니, 그로피?"

해그리드가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긴 나뭇가지를 들고 그룹을 다시 찌를 자세를 취한 채, 뒤로 물러섰다.

"잘 잤어?"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거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리까지 최대한 멀찌감치 떨어졌다. 그룹은 아직 뽑아 버리지 않은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은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혹은 커다란 돌 공에 눈코입을 깎아 놓은 것처럼 보였다. 뭉툭한 코는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웠고 입은 한쪽으로 실룩 기울어졌다. 그리고 거의 벽돌 절반 크기 정도 되는 보기 흉한 누런 이빨이 입 안에 가득했다. 한편 거인 기준으로 보아도 지나치게 작은 두 눈은 초록색이 감도는 탁한 갈색이었는데, 방금 잠에서 깨어나서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룹은 거의 크리켓 공만큼이나 커다랗고 지저분한 손가락 마디로 두 눈을 세게 문질렀다. 그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놀랄 만큼 빠르고 민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 이런!"

해리는 그의 옆에서 헤르미온느가 겁에 질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룹의 허리와 발목에 두른 밧줄이 묶여 있는 나무들이 불길하게 빠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해그리드가 말한 대로, 그는 최소한 5 미터는 되는 것 같았다. 명하니 주위를 둘러보던 그룹은 파라솔만큼이나 커다란 손을 내밀어서 높이 솟은 소나무 꼭대기에 놓인 새 둥지를 덥석 움켜잡았다.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찬 고함을 지르며 둥지를 거꾸로 쏟았다. 그러자 둥지에서는 새알만 수류탄처럼 땅바닥으로 털썩 떨어졌다. 해그리드는 재빨리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그로피!"

해그리드는 계속 새알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위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친구들을 데려왔단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지? 내가 잠깐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 친구들이 널 돌봐 줄 거라고 말했던 거 생각나니? 기억나지, 그로피?"

하지만 그룹은 그저 낮게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그가 해그리드의 말을 듣고 있는지, 과연 그 소리를 알아듣기는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소나무 가지 꼭대기를 움켜쥐더니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그저 재미 삼아

나뭇가지를 다시 놓았을 때, 얼마나 멀리 통겨 나가는지 보려는 것이 분명했다.

"이봐, 그로피, 그런 짓 하지 마!"

해그리드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무가 뽁힐 거야..."

과연 해리는 나무뿌리 주위의 땅이 썩썩 갈라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내가 친구를 데려왔어!"

해그리드가 고함을 질렀다.

"친구라니까! 이 덩치 큰 장난꾸러기, 밑을 좀 내려다봐! 내가 친구들을 데려왔잖아!"

"오, 해그리드, 그러지 말아요."

헤르미온느가 애원했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이미 나뭇가지를 높이 들고 또다시 그룹의 무릎을 날카롭게 찔렀다.

거인은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았다. 나뭇가지가 마구 흔들리면서

해그리드는 뾰족한 소나무 잎을 온통 뒤집어썼다. 그룹은 비로소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여기는 해리야, 그룹!"

해그리드는 황급히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서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해리 포터! 만약 내가 멀리 떠나게 되면, 그때는 그가 너를 찾아올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하지만 거인은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 간신히 알아차린 것 같았다. 거인이 거대한 바위 같은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빤히 쳐다보는 동안, 두

사람은 덜덜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쪽은 헤르미온느야, 알겠니? 헤르..."

해그리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헤르미온느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그가 너를 헤르미라고 불러도 괜찮겠니, 헤르미온느? 그가 기억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름이라서 말이야."

"그럼요, 괜찮아요."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이쪽은 헤르미야, 그룹! 헤르미도 같이 올 거란다! 정말 신나지 않니? 친구가 들이나 되다니, 그로피, 안 돼!"

그룹의 손이 헤르미온느 쪽으로 쑥 뻗어 나갔다. 해리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그룹의 주먹은 나무줄기를 살짝 스치고 아슬아슬하게 비켜 나갔다.

"나쁜 녀석, 그로피!"

해그리드가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헤르미온느는 나무 뒤에서 해리에게

바싹 매달린 채, 벌벌 떨며 출썩거렸다.

"이 못된 녀석! 그래서는... 어이쿠!"

해그리드는 나무 뒤에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해그리드는 코를 움켜잡고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룹은 그만 흥미를 잃은 듯이 허리를 쪽 펴고 또다시 소나무를 한껏 뒤로 잡아당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좋아."

해그리드는 코피가 쏟아지는 코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활을 붙잡았다.

"그래...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게다... 네가 다시 오면 이제 그도 널 알아볼 거야. 그래... 좋아..."

해그리드는 그룹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바위 같은 얼굴에 마냥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소나무 가지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마침내 소나무 가지를 훑 잡아당기자, 우지끈하고 뿌리가 뽑혔다.

"오늘은 이길로 충분한 것 같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그리드는 다시 어깨에 활을 걸치고 여전히 코를 틀어막은 채,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다시 들어갔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심지어 멀리서 그룹이 마침내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도 모두 가만히 있었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하얗게 경직되어 있었다. 해리는 뭐라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해그리드가 금지된 숲에 그룹을 숨겼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게다가 이 거인을 가르치겠다는 해그리드의 말도 안 되는 노력을 그와 혼, 헤르미온느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이빨 달린 괴물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환상을 무궁무진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해그리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룹이 인간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까?

"가만히 있거라."

해그리드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그의 뒤에서 빽빽한 풀숲을 빠져나오느라 애를 먹는 중이었다. 그는 어깨 너머로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뽑아 들더니 활에 걸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걸음을 멈추자, 뭔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 제기랄."

해그리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해그리드, 이제는 당신이 여기 오는 걸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았소?"

벌거벗은 상반신의 남자가 얼룩덜룩한 초록색 그늘 속에서 순식간에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허리 밑으로는 밤색 말의 하반신이 보였다. 이 켄타우로스는 광대뼈가 두드러진 거만한 얼굴에 긴 검은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해그리드와 마찬가지로, 그도 무장을 하고 있었다. 화살이 잔뜩 든 화살통과 긴 활이 그의 어깨 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잘 지냈소, 마고리안?"

해그리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켄타우로스 뒤쪽 나무들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네다섯의 켄타우로스가 나타났다. 해리는 몸이 검고 수염을 기른 베인을 알아보았다.

4년

점 피렌체를 만났던 바로 그날 밤에 그를 만났던 것이다. 하지만 베인은 해리를 전혀 아는 척하지 않았다.

"만약 이 인간이 또다시 이 숲에 얼굴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겠다고 우린 이미 합의를 보지 않았나?"

베인은 즉시 마고리안을 돌아보며 악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따.

"그 인간이란 나를 말하는 거냐?"

해그리드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살인을 저지르는 걸 막아 주었다고?"

"해그리드, 넌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마고리안이 말했다.

"우리 방식은 너희들과 달라. 우리의 법도 다르고, 피렌체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어."

"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해그리드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알버스 덤블도어를 도와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피렌체는 자진해서 인간의 노예가 되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회색 캘타우로스가 말했다.

"노예라고!"

해그리드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덤블도어에게 호의를 베푼 것뿐..."

"그는 우리의 지식과 비밀을 인간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어."

마고리안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 수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어."

"정 그렇게 말한다면..."

해그리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난 너희들이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인간,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도 우리 숲에 다시 들어오다니..."

베인이 말했다.

"내 말 좀 들어 봐."

해그리드가 잔뜩 성이 나서 말했다.

"너희만 상관없다면, 난 더 이상 '우리의' 숲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누가 이

숲을 드나들든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해그리드, 그렇다고 자네가 결정할 일은 더욱더 아니지."

마고리안이 대꾸했다.

"오늘 내가 자넬 그냥 보내는 건 자네의 어린..."

"저 애들은 해그리드의 자식이 아니야!"

베인이 경멸하듯이 말했다.

"저 학교에서 내려온 학생들일세, 마고리안. 아마 저 애들은 벌써 배신자 피렌체의 가르침을 받았을 걸."

"어쨌든 어린애들을 죽이는 건 꼼찍한 범죄지. 우린 죄 없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

마고리안이 침착하게 말했다.

"해그리드, 오늘은 그냥 보내 주겠다. 앞으로는 이 근처에 얼씬하지 마라. 너는 배신자 피렌체가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을 때, 이미 캘타우로스와의 우정을 저버린 거야."

"난 너희들 같은 늙은 노새들 때문에 이 숲에서 쫓겨나진 않을 거야."

해그리드가 큰소리를 쳤다.

"해그리드, 그냥 가요. 제발 어서 가요."

잔뜩 겁에 질린 헤르미온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베인과 회색 캘타우로스는 앞발로 땅을 긁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활을 높이 지켜든 채, 그의 시선은 마고리안을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해그리드, 우린 네가 숲에 뭘 숨겼는지 알고 있어!"

마고리안이 그의 등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캘타우로스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해그리드는 재빨리 돌아서더니 당장에라도 마고리안을 향해 덤벼들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가 여기 있는 한, 너희들은 그를 참아야만 할 거다. 이 숲은 너희들의 것만이 아니라, 그의 것이기도 해!"

해그리드는 고함을 질렀다. 해그리드는 험악한 얼굴로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열심히 잡아당기고 있는 두 사람을 보자, 약간 놀라는 표정이 되었다. 해그리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진정해라, 얘들아."

해그리드는 다시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의 등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다.

"쾌심한 늙은 노새들 아니냐?"

"해그리드."

헤르미온느가 숨이 턱에 달아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들은 아까 지나왔던 뼈기풀밭을 빙 돌아가고 있었다.

"肯타우로스들이 인간이 이 숲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면, 해리와 나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저들이 말하는 걸 너희들도 들었잖아."

해그리드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저들은 어린 새끼들은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 말이다. 어쨌든 저런 무리들 때문에 숲에서 쫓겨날 순 없어."

"노력은 가상하다."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속삭였다. 헤르미온느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숲길로 들어섰다. 십 분쯤 지나자,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도 적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투명하고 푸른 하늘이 다시 보이면서 저 멀리에서 환호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골을 또 넣었나?"

퀴디치 경기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해그리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면 경기가 끝났을까?"

"잘 모르겠어요."

헤르미온느가 힘없이 대답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몰골이 형편없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잔가지와 잎사귀가 잔뜩 붙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그녀의 팔과 얼굴에는 짙은 자국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해리는 자기 모습도 더 나을 것이 없을 거라고 짐작했다.

"시합이 끝난 것 같구나!"

해그리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경기장을 바라보았다.

"저기 봐라,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니. 너희들이 조금만 서두르면 저 사람들 틈에 낀 수 있겠다. 그럼 아무도 너희들이 거기 없었다는 걸 모를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나중에 봐요, 해그리드!"

해리가 말했다.

"난 도대체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해그리드의 귀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이르자, 헤르미온느가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진정해."

해리가 말했다.

"진정하라고!"

헤르미온느가 열을 받아서 말했다.

"거인이야! 숲 속에 거인이 있다고! 게다가 우린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야만 해! 물론 드나들 때마다, 그 무시무시한 켄타우로스 무리를 속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말이지! 난... 도대체... 그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린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해리는 침착하게 그녀를 달래려고 애를 썼다. 이제 그들은 재잘거리며 성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후풀푸프 학생들 틈에 끼어들었다.

"해그리드는 자신이 쫓겨나기 전에 우리에게 원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

"오, 해리, 그런 뻔한 소린 집어치워!"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버럭 화를 냈다. 그 바람에 뒤에 오던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비켜가야만 했다.

"솔직히 말해서 해그리드는 쫓겨나도 당연해. 우리도 방금 봤잖아. 누가 엉브릿지를 비난할 수가 있겠어?"

한동안 해리는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헤르미온느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그래... 좋아... 진심은 아니었어."

헤르미온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게다가 우리까지?"

"나도 몰라..."

위즐리는 우리의 왕.

위즐리는 우리의 왕.

그는 절대 케이플을 허용하지 않는다네.

위즐리는 우리의 왕.

"제발 저 한심한 노래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

헤르미온느가 짜증을 냈다.

"그만하면 질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거대한 학생들의 물결이 운동장에서부터 경사진 잔디밭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오, 슬리데린 녀석들을 만나기 전에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위즐리는 어떤 골이든 막아 낼 수 있다네.

그는 단 하나의 골도 허용하지 않는다네.

그래서 그리핀도르는 노래 부르지.

위즐리는 우리의 왕.

"헤르미온느..."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그 노랫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초록색과 은색의 응원복을 입은 슬리데린 쪽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빨간색과 황금색의 물결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를 어깨 위에 메고 행진했다.

위즐리는 우리의 왕.

위즐리는 우리의 왕.

그는 절대 케이플을 허용하지 않는다네.

위즐리는 우리의 왕...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해리! 헤르미온느!"

론이 반짝이는 퀴디치 우승컵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우리가 해냈어! 이겼다고!"

론이 곁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를 향해 활짝 웃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 론은 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지만, 아무도 그를 어깨 위에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대연회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환하게 웃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위즐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여운까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내일까지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말자."

해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 좋아."

헤르미온느가 피곤한 듯이 말했다.

"나도 전혀 서두르고 싶지 않아."

그들은 함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문 앞에 이르자, 자신도 모르게 금지된 숲 쪽을 돌아보았다. 해리는 도무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저 멀리 떨어진 나무 꼭대기에서 작은 새 무리가 후닥닥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마치 둉지를 틀고 있던 나무가 갑자기 뿌리째 뽑혀 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제 31 장 O.W.L. 시험

그리핀도르가 퀴디치 우승컵을 지키는 데 한몫을 했다는 기쁨 때문에, 론은 그 다음 날까지도 전혀 마음을 잡지 못했다. 론은 온종일 시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룹에 대해서 말을 꺼낼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사실 두 사람도 그다지 열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느닷없이 론에게 가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따뜻하고 화창한 날, 마침내 두 사람은 호수 가장자리에 있는 커다란 너도밤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자고 론을 불러냈다. 그곳이라면 휴게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엿들을 염려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론은 이 제안을 별로 내켜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위즐리는 우리의 왕'은 물론이고, 그리핀도로 학생들은 그의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어깨를 톡톡 치고 가는데 단단히 재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론도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너도밤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책을 펼쳐 들었다. 론은 시합에서 처음으로 골을 막아 냈던 순간을 열두 번째 떠들어 대고 있었다.

'난 이미 데이비스에게 한 골 먹은 상태여서 자신만만한 느낌은 아니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 브래들리가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넌 할 수 있어!'하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잖아. 난 일 초 안에 어디로 몸을 날려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어. 그는 오른쪽 골대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내 오른쪽, 그러니까 그녀석의 왼쪽 골대 말이야. 하지만 웬일인지 그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거야. 그래서 난 기회를 봐서 왼쪽으로 날아갔지. 그러니까 그녀석의 오른쪽으로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론은 마치 바람에 훌날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쓸데없이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경손하게 말을 끝맺었다. 그러고는 혹시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들-3학년 후풀푸프 학생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나서 약 오 분 후에 체임버스가 다가왔을 때-, 뭐야?"

해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본 론은, 하던 말을 도중에 뚝 멈추었다.

"왜 실실 웃고 있는 거야?"

"웃지 않았어."

해리는 얼른 둘러대며 변신술 노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웃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사실은 론의 모습을 보자, 한때 바로 이 너도밤나무 밑에 앉아서 머리를 쓸어 넘기던 또 다른 그리핀도르 퀴디치 선수가 생각났던 것이다.

"난 그냥 우리가 이긴 게 기뻐서, 그것뿐이야."

"그래, 우리가 이겼지."

론은 그 말을 음미하듯이 천천히 되뇌었다.

"지니가 바로 코앞에서 스니치를 낚아챘을 때, 챙의 표정을 보았니?"

"틀림없이 울었겠지, 안 그래?"

해리가 신랄하게 말했다.

"그래, 좀 성질을 내긴 했지, 그래도..."

론이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챙이 땅에 내려왔을 때, 빗자루를 내동댕이치는 건 보았겠지?"

"어—" 해리가 머뭇거렸다.

"사실은... 못 봤어, 론."

헤르미온느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보던 책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론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합에서 해리와 내가 본 건 데이비스가 첫 골을 넣은 장면이 전부야."

공들여 세운 론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풀이 죽어 가라앉는 것 같았다.

"못 봤다고?"

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내가 골을 막는 걸 전혀 못 봤단 말이야?"

"어-못 봤어."

헤르미온느가 마음을 달래려는 듯이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론, 우리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무슨 일인데?"

"해그리드 때문이었어." 해리가 말했다.

"거인들을 만나고 돌아온 이후부터 왜 그렇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그는 우리를 데리고 금지된 숲에 가고 싶어 했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너도 해그리드를 알잖아. 어쨌든..."

오 분 후에 이야기가 끝났다. 론의 분노는 사라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떠올랐다.

"해그리드가 거인 한 명을 데려와서 숲 속에 숨겼다고?"

"그래."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론은 그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현실을 바꾸고 싶은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정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룹은 키가 5 미터쯤 되고 6 미터쯤 되는 소나무를 뽑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나를..." 헤르미온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해르미'라고 알고 있어."

론이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해그리드는 우리가 월 해주길 원하는 거지...?"

"그 거인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래."

해리가 말했다.

"해그리드는 제정신이 아니야."

론이 거의 기가 막힌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헤르미온느는 <중급 변신술> 책장을 뒤적거리며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그리고 부엉이 한 마리가 오페라용 쌍안경으로 변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려 놓은 그림을 노려보았다.

"그래, 나도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리와 나는 해그리드에게 약속을 해 버렸어."

"그럼 넌 그 약속을 깨야겠구나."

론이 딱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린 시험도 봐야 하고, 쫓겨날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고-." 론은 손을 들어서 엄지와 검지를 거의 달을 듯이 해 보였다.

"너희들 노바트 기억나지? 아라고그 생각나? 해그리드의 괴물 친구들과 어울렸다가 우리가 언제 좋은 꼴 본 적이 있어?"

"알아. 그냥 약속만 한 거야."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론은 이야기에 완전히 열중한 나머지 다시 머리를 납작하게 쓰다듬었다.

"그래. 아직 해그리드가 쫓겨난 것도 아니니까. 안 그래?"

론이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오래 버텼으니, 어쩌면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무사할지도 몰라. 그럼 우린 그룹 근처에 얼씬할 필요도 없겠지."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운동장은 새로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빛이 났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반짝이는 잔잔한 호수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따금씩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비단 같은 초록색 잔디밭을 어지럽히고 지나갔다. 6월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5학년 학생들에게 그것은 딱 한 가지 의미밖에는 없었다. 마침내 O.W.L.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선생님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았다. 수업은 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목적의식과 열의에 가득 찬 분의기는 해리의 머릿속에서 O.W.L. 이외의 다른 모든 생각을 몰아냈다. 물론 가끔 마법 약 수업 시간이 되면, 혹시 루핀이 스네이프에게 반드시 해리의 오클러먼시 교습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스네이프는 해리를 무시하듯이 루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해리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스네이프에게서 별도의 수업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헤르미온느까지도 요즘에는 너무 공부에 정신을 빼앗겨서 오클러먼시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온종일 혼자 중얼거리며 다녔고 며칠째 집요정의 모자도 뜨지 않고 있었다.

O.W.L.이 가까워 올수록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헤르미온느만이 아니었다. 어니 맥밀란은 사람들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는 짜증스런 습관이 생겼다.

"넌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하는 것 같니?"

해리와 론이 온실 밖에 줄지어 서 있을 때, 어니 맥밀란은 미친 사람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들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몇 시간 안 돼....." 론이 말했다.

"여덟 시간 정도?"

"아마 그거보단 적을걸."

론이 약간 놀란 듯이 말했다.

"나는 여덟 시간 공부하고 있어."

어니가 가슴을 들썩이며 말했다.

"여덟, 아홉 시간 정도. 날마다 아침 식사 전에 한 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어. 어쨌든 평균 여덟 시간이야. 주말에는 열 시간도 할 수 있어. 월요일에는 아홉 시간 반이나 했다니까. 하지만 화요일에는 별로 못했어.

겨우 일곱 시간 십오 분이었지. 수요일에는-

때마침 스프라우트 교수가 그들을 온실 속으로 몰아넣어 주어서 해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덕분에 어니는 자신의 장황한 연설을 그만둬야만 했다.

한편 드레이크 말포이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네가 뭘 아는가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시험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마법 약 교실 밖에서 말포이는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다.

"네가 누굴 아는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마법사 시험 관리국 국장과 친하게 지내 오셨어. 그리젤다 마치뱅스라는 노인인데 우린 그 여자와 저녁도 함께 먹고 모든 걸....."

"저 말이 사실일까?"

헤르미온느가 놀란 목소리로 해리와 론에게 속삭였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론이 우울하게 말했다.

"사실이 아닐 거야."

네빌이 그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왜냐하면 그리젤다 마치뱅스는 우리 할머니의 친구 분이신데, 한 번도 말포이 집안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

"그분은 어떤 분이지? 강직하신 분인가?"

헤르미온느가 즉시 물었다.

"우리 할머니와 비슷해."

네빌이 한풀 깊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을 안다고 해서 너에게 손해될 건 없잖아, 안 그래?"

론이 그를 격려하듯이 말했다.

"오, 나도 그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네빌은 더욱더 힘없이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마치뱅스 교수님께 내가 우리 아빠만 못하다고 말해서..."

너희들도 성 뚱고 병원에서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봤지?"

네빌은 복도를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만 할 뿐,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마법사 병원에서 만났던 사실을 네빌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5 학년과 7 학년들 사이에서는 집중력을 높이고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하는 보조 약물이나 각성제 따위를 거래하는 암시장이 성행했다. 해리와 론도 래버클로의 6 학년 학생인 에디카마이클이 권하는 바루피오의 머리 좋아지는 약을 보고 엄청난 유혹을 받았다. 에디는 지난여름에 그가 O.W.L.에서 아홉 개의 '특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이 약

덕분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리고 단돈 12 갈레온에 0.57 리터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론은 해리에게 호그와트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게되면 그때 자신의 약값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 하지만 미처 그 거래를 끝내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카마이클의 손에서 약병을 낚아채더니 화장실에 몽땅 쏟아 버렸다.

"헤르미온느, 우린 그걸 사고 싶었던 말이야!"

론이 고함을 질렀다.

"바보같이 굴지 마!"

헤르미온느가 호통을 쳤다.

"차라리 해롤드 딩글의 용 발톱 가루를 먹는 게 나을 거야."

"딩글의 용 발톱 가루?"

론이 열렬하게 물었다.

"이젠 더 없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내가 그것도 빼앗았거든. 그런 건 하나도 효과가 없어, 너도 알잖아."

"용 발톱은 효과가 있어!" 론이 소리쳤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래. 두뇌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몇 시간 동안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고 했어. 헤르미온느, 한 번만 먹자. 어서. 문제 될 거 없잖아-."

"문제가 돼."

헤르미온느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성분을 살펴봤는데, 말린 독시 둥이었어."

이 말을 듣자, 해리와 론은 더 이상 머리 좋아지는 약을 살 마음이 썩 달아나 버렸다.

다음 변신술 수업 시간에 그들은 시험 시간표와 시험 진행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를 받았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O.W.L.은 이 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학생들이 칠판에 적힌 시험 시간과 날짜를 받아 적고 있을 때, 맥고나걸 교수가 입을 열었다.

"오전에는 필기 시험을 치르고 오후에는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물론 천문학 실기 시험은 밤에 실시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가장 엄격한 커닝 방지 주문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줘야겠군요. 자동 해답 깃펜은 시험장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리멤브럴이나 떼어낼 수 있는 커닝용 단추, 자동 수정 잉크도 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자신이 마법사 시험 관리국의 규율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최소한 한 명이상 나오는 것 같더군요. 나는 부디 그리핀도르에는 그런 학생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이름을 부를 때 맥고나걸 교수의 얼굴에는 마치 폐투니아 이모가 특별히 더러운 것을 응시할 때마다 짓던 표정이 떠올랐다.

"각 기숙사 사람들에게 부정행위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가 교장 선생님의 새로운 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지요-."

맥고나걸 교수는 자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해리는 순간 그녀의 뾰족한 코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저, 교수님." 헤르미온느가 손을 번쩍 들었다.

"결과는 언제 알게 되지요?"

"7월 중에 부엉이가 갈 겁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대답했다.

"신난다. 방학 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딘 토마스가 모두에게 들릴 정도의 소리로 속삭였다.

해리는 O.W.L.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며 육주 동안 프리벳가에 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적어도 올여름에 편지 한 통은 확실하게 받겠군. 해리는 심드렁하게 생각했다.

첫 번째 시험인 마법 필기 시험은 월요일 아침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해리는 일요일 점심 식사 이후에 헤르미온느에게 질문을 해주기로 약속하고서, 시작하자마자 당장 후회를 했다. 헤르미온느는 어찌나 안달인지, 한번 대답을 할 때마다 번번이 그의 손에서 책을 뺏어서는 답이 맞는가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법의 업적>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해리의 콧잔등을 세게 치고 말았다.

"차라리 너 혼자서 하지 그래?"

해리는 화를 내며 헤르미온느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론은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채,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며 거의 2년 분량은 될 법한 마법 수업 노트를 읽고 있었다. 한편 시무스 피니간이 마루에 등을 대고 누워서 실제 마법의 정의를 암송하고 있는 동안, 딘은 <표준마법서(5학년)>를 보고 틀린 곳을 표시해 주었다. 기본 이동 마법을

연습하고 있는 패르바티와 라벤더는 책상 가장자리에서 각자 자기 필통으로 경주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착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한 해리와 론은 말없이 왕성하게 먹기만 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연신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서 책가방을 뒤적거렸다. 그리곤 책을 꺼내어 숫자나 인물, 사실들을 확인하고 했다. 론이 그녀에게 충분히 잘 먹어 두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할 거라고 충고를 하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포크가 맥없이 빠져나와 접시 위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오, 이런 세상에."

헤르미온느가 연회장 입구 쪽을 빤히 쳐다보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 아니야? 저들이 시험관들이야?"

해리와 론이 자리에서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대연회장으로 들어오는 문 앞에 엉브릿지가 상당히 늙어 보이는 마녀와 마법사들을 데리고 서 있는 광경이 보였다. 엉브릿지는 상당히 초조해 보였다. 해리는 그걸 보자, 속이 시원했다.

"가서 좀더 자세히 볼까?"

론이 말하자, 해리와 헤르미온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대연회장으로 들어오는 문을 향해 재빨리 다가갔다. 하지만 일단 문턱을 넘어서자, 태연하게 시험관 옆을 지나가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늦추었다. 해리는 몸집이 자그마하고 등이 굽은 마녀가 틀림없이 마치뱅스 교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은 어찌나 쪼글쪼글하던지 마치 거미줄로 뒤덮인 것 같았다. 엉브릿지는 그녀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을 걸고 있었다. 마치뱅스 교수는 약간 귀가 먹은 것 같았다. 겨우 한 걸음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엉브릿지에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행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전에도 이런 여행은 많이 했거든요."

마치뱅스는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덤블도어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마치뱅스는 마치 덤블도어가 당장에라도 빗자루 벽장에서 튀어나오기를 바라는 듯이, 복도를 돌아보았다.

"그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릅니다."

엉브릿지 교수는 계단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사납게 째려보았다. 론은 신발끈을 다시 묶는 척했다.

"하지만 마법부에서 곧 그를 추적해 낼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몸집이 자그마한 마치뱅스 교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가 원하지 않는 한 절대 못 찾을 겁니다! 그가 N.E.W.T.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직접 변신술과 마법 시험을 감독했지요... 그는 지팡이로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마법을 부렸답니다."

"네... 그렇군요..."

엉브릿지 교수가 말했다. 한편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최대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을 교직원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긴 여행을 하셨으니 차라도 한 잔 하셔야겠죠."

뒤송송한 저녁이었다. 모두들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기를 쓰고 있었지만, 아무도 열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진로 상담과 어떻게든 오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던 맥고나걸 교수의 성난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시험이 코앞에 닥치자, 차라리 좀더 실현 가능한 꿈을 말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침실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둘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도 5학년 학생들은 하나같이 별로 말이 없었다. 패르바티는 중얼중얼 주문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 앞에 놓인 소금통이 계속 들썩거렸다. 헤르미온느는 <마법의 업적>을 다시 읽고 있었는데, 어찌나 빨리 읽던지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 것 같았다. 네빌은 계속해서 나이프와 포크를 떨어뜨리거나 마멀레이드 병을 쓰러뜨렸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가는 동안 5학년과 7학년 학생들은 현관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아홉시 삼십 분이 되자, 반별로 차례차례 호명을 받으며 대연회장에 다시 들어갔다. 대연회장은 해리가 펜시브에서 그의 아버지와 시리우스, 스네이프가 O.W.L. 시험을 치를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네 개의 기숙사 테이블은 어디론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개인용 책상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 책상들은 한결같이 연회장 제일 끝에 있는 교직원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맥고나걸 교수가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모두들 자리에 앉고 조용해지자, 맥고나걸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제 시작해도 좋아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커다란 모래시계를 올려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여분의 깃펜과 잉크병, 그리고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다.

해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험지를 넘겼다. 그의 오른쪽으로 셋째 줄, 네 칸 앞에 있는 헤르미온느는 벌써 원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밑으로 하고 첫 번째 문제를 읽었다.

a) 물건을 날아오게 만드는 데 필요한 주문을 쓰고, b) 필요한 지팡이 동작을 서술하시오.

해리는 허공을 곧장 날아와서 트롤의 단단한 머리를 세게 내려쳤던 방망이를 기억했다... 그리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시험지 위로 몸을 숙이고 열심히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두 시간 후에 헤르미온느가 현관 복도로 나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시험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나는 응원 마법에 대해서 제대로 다 썼는지 잘 모르겠어. 시간이 좀 모자랐거든. 너희는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주문에 대해서 썼니? 너무 많아서 다 쓸 수나 있을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23번 문제는-"

"헤르미온느, 우리는 전에도 그랬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생각 안 할 거야. 시험은 한 번 치르는 것으로 충분해."

론이 단호하게 말했다.

"5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점심 시간이 되자, 네 개의 테이블이 다시 나타났다.) 그런 다음 대연회장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자기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렸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몇몇 학생들이 불려 나가는 동안, 뒤에 남은 학생들은 주문을 외우고 지팡이 동작을 연습했다. 그러다가 이따금 실수로 서로의 눈이나 등을 찌르기도 했다.

마침내 헤르미온느의 이름이 불렸다. 헤르미온느는 두려움에 떨면서, 안토니 골드스틴, 그레고리 고일, 대프니 그린그래스와 함께 방을 나갔다. 이미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리와 론은 헤르미온느가 어떻게 시험을 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헤르미온느는 문제없어. 마법 시험에서 만점에 보너스 12점을 더 받았던 거 기억나지?"

론이 말했다. 십 분 후에 플리트윅 교수가 이름을 불렀다.

"파킨슨, 팬시- 패틸, 파트마- 패틸, 패르바티- 포터, 해리-"

"행운을 빌어."

론이 속삭였다.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꼭 움켜쥐고 대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토프티 교수님 앞자리가 비었다, 포터."

바로 문 옆에 서 있던 플리트윅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고 머리가 벗겨진 시험관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마치뱅스 교수로부터 약간 떨어진, 한쪽 구석의 작은 탁자 뒤에 앉아 있었다. 마치뱅스 교수는 드레이코 말포이를 시험보고 있는 중이었다.

"퍼터, 너냐?"

해리가 가까이 나가가자, 토프티 교수가 기록장을 한 번 살펴보더니 코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네가 그 유명한 포터냐?"

해리는 옆에 있던 말포이가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순간 그가 공중에 떠 있게 하고 있던 포도주 잔이 마루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해리는 씩 웃고 말았다. 그러자 토프티 교수가 격려하듯이 그에게 미소를 던졌다.

"자, 괜히 긴장할 필요 없다."

그는 노쇠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 달걀 컵을 집으라고 하면, 넌 그걸 공중회전시키면 되는 거야."

해리는 전반적으로 그럭저럭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공중 부양 마법은 분명히 말포이보다 훌륭했다. 물론 색깔 바꾸기 마법과 성장 마법을 혼동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바람에 해리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오렌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야 할 생쥐가 순식간에 몸이 부풀어서 오소리만큼이나 커졌던 것이다. 해리는 때마침 헤르미온느가 현관 복도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론에게는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다. 론은 만찬 접시를 커다란 버섯으로 변신시켰는데,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에도 여유를 가질 틈이 없었다. 그들은 저녁을 먹은 후에 곧장 휴게실로 돌아와서 다음 날 있을 변신술 시험 공부에 열중했다. 해리는 복잡한 주문과 마법 이론들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다.

해리는 다음 날 오전에 치른 필기 시험에서 전환 마법의 정의를 까먹고 쓰지 못했다. 하지만 실기 시험은 그보다 형편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는 주어진 이구아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데에 성공했던 것이다. 반면 옆 자리에 있던 가엾은 한나 아보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신의 흰족제비를 플라밍고 무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 바람에 플라밍고들을 전부 잡아서 연회장 밖으로 쫓아낼 때까지 약 십 분 동안 시험이 중단되기도 했다.

수요일에는 약초학 시험을 치렀다.(이빨 달린 제라늄에게 살짝 물린 것을 제외하면, 해리는 꽤 잘한 것 같았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험이 있었다. 해리는 처음으로 통과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필기 시험에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실기 시험을 치를 때에는 엉브릿지의 눈앞에서 온갖 반대 주문과 방어 마법을 행하는 데 특별한 괘감까지 느꼈다. 엉브릿지는 현관 복도로 나가는 문 옆에 서서 냉정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훌륭하구나!"

해리가 완벽하게 보가트를 쫓아 보리는 마법을 선보이자, 또 다시 해리의 시험을 맡은 토프티 교수가 소리쳤다.

"정말 잘했다! 그래, 그만하면 충분한 것 같구나. 포터... 하지만..." 토프티 교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 친구 타이베리어스 오그던의 말을 들으니, 네가 패초로누스를 불러낼 수 있다면서? 혹시 추가 점수를 받을 생각은..."

해리는 지팡이를 들고 엉브릿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상상했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그의 지팡이 끝에서 은빛 수사슴이 튀어나오더니 연회장 안을 뛰어다녔다. 모든 시험관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수사슴이 은빛 안개가 되어 사라지자, 토프티 교수는 혈관이 튀어나오고 마디진 손으로 열렬히 박수를 쳤다.

"훌륭하구나! 아주 잘했다. 포터. 그만 가도 좋아."

토프티 교수가 말했다. 해리가 문가에서 있는 엠브릿지의 옆을 지날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커다랗고 축 늘어진 그녀의 입가에 심술궂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해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크게 착각한 게 아니라면(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방금 '특출함'을 받은 것이 확실했다.

금요일에 해리와 론은 시험이 없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고대 룬 문자 시험을 치러야 했다. 앞으로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활짝 열린 창문 옆에서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마법사 체스를 두고 있을 때, 훈훈한 여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해리는 저 멀리 금지된 숲 가장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해그리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생물을 배우고 있는지 짐작해 보았다. 아마도 유니콘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남학생들은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대 초상화 구멍이 열리고, 완전히 낙심한 표정의 헤르미온느가 들어왔다.

"룬 시험은 어땠어?"

룬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물었다.

"나는 'ehwaz'를 잘못 해석했어."

헤르미온느가 투덜거렸다.

"그건 '방어'가 아니라 '협력'이란 뜻인데 'eihwaz' 와 헷갈렸어."

"그럼 그거 하나만 틀렸겠구나. 그래도 넌 여전히~"

룬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입 닥쳐!"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당락이 결정 나는 거야. 게다가 누군가 또다시 엠브릿지의 방에 니플러를 집어넣었어. 도대체 어떻게 새로 만든 문을 뚫고 그걸 거기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방금 그 앞을 지나왔는데, 엠브릿지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그 소리로 봄서는 니플러가 그녀의 다리라도 물어뜯으려고 했나 봐."

"잘됐네."

해리와 론이 동시에 말했다.

"잘된 게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엠브릿지는 해그리드가 그런 줄 생각한다고. 기억나? 우린 해그리드가 쫓겨나길 원하지 않잖아!"

"해그리드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엠브릿지도 그를 범인으로 몰 수는 없어."

해리가 창 밖을 가리켰다.

"오, 넌 정말 가끔씩 너무 순진하구나. 해리. 넌 엠브릿지가 정말로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니?"

헤르미온느는 마음껏 성질을 부리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녀는 여학생 침실로 달려 올라가더니 광하고 문을 닫아 버렸다.

"저 아가씨, 참 착하고 상냥하기도 하지!"

룬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자신의 여왕을 앞으로 움직여서 해리의 나이트 하나를 붙잡았다.

헤르미온느의 저기압은 주말 내내 계속되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 종일 월요일에 있을 마법 약 시험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해리와

룬은 별로 신경 쓸 틈도 없었다. 마법 약 시험이야말로 해리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과목이었다. 오러가 되겠다는 그의 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과연 필기 시험은 꽤 어려웠다. 하지만 폴리주스 마법약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학년 때 몰래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오후 실기 시험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다. 스네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해리는 평소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마법 약을 만들 수 있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네빌도 평소 마법 약 수업 때와는 달리 꽤 즐거운 표정이었다. 마치뱅스 교수가 "그만 냄비를 치워요. 시험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해리는 제출할 약이 담긴 병의 마개를 닫으면서 비록 좋은 성적은 받지 못할지도, 잘하면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겨우 네 과목만 남았구나."

그리핀도로 휴게실로 돌아가면서 패르바티 패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겨우 네 과목이라고!"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난 산술점 시험도 쳐야 해. 그리고 아마 그건 가장 어려운 과목일 거야!"

그녀의 말에 대꾸를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다. 결국 헤르미온느는 어느 누구에게도 화풀이를 하지 못한 채, 1학년 학생에게 휴게실에서 너무 크게 웃었다고 잔소리를 퍼붓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요일에 있을 신비한 동물 돌보기 시험을 잘 쳐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실기 시험은 그날 오후에 금지된 숲 근처 잔디밭에서 치러졌다. 학생들은 열두 마리의 고슴도치들 사이에 숨어 있는 크날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야 했다.(요령은 그들에게 차례로 우유를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마법 효능이 있는 털을 지닌 크날은 대단히 의심이 많아서 자신들에게 독약을 먹이려는 듯한 시도를 하는 것 같으면 대개 난폭해졌던 것이다) 보우트러클을 다루는 정확한 방법을 시연하라는 것과 파이어 크랩을 심각한 화상을 입지 않고 먹이고 씻기는 법,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이 중에서 아픈 유니콘에게 줄 수 있는 먹이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이어졌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걱정스런 얼굴로 오두막집 창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보았다. 해리의 시험관인 통통하고 키 작은 마녀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그만 가도 좋다고 말하자. 해리는 해그리드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는 성을 향해 돌아섰다.

수요일 오전에 있었던 천문학 필기 시험은 그럭저럭 무난히 넘어갔다. 해리는 목성의 위성 이름을 전부 썼는지 자신은 없었지만, 최소한 어느 위성에도 쥐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천문학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저녁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 대신 오후에는 점술 시험을 쳤다.

아무리 점술 시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은 해리였지만, 시험은 너무 형편없었다. 끝까지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는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느니, 차라리 책상 위에 놓인 움직이는 그림을 보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찻잎을 읽을 때에는 너무나 당황해서, 마치뱅스 교수님이 머지않아 땅딸막하고 얼굴이 검고 기운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말해 버렸다. 그러고는 그녀의 손금에서 생명선과 두뇌선을 완전히 잘못 보고 지난 화요일에 이미 죽었어야 했다고 말함으로써, 엄청난 실수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우린 평생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거야."

대리석 계단을 내려오며 룬이 우울하게 말했다. 그는 시험관에게 자신의 수정 구슬에 나타난 코에 사마귀가 난 못생긴 남자에 대해서 자세히

실명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바로 구슬에 비친 시험오간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함으로써 해리의 우울한 마음을 한결 달래 주었다.

"우리는 이런 한심한 과목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해리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는 있어."

"그래. 더 이상 목성과 천왕성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내 찻잎 점이 죽는다, 론, 죽는다라고 나와도 상관하지 않을래. 나는 찻잎이 들어 있는 통을 내버릴 거야."

해리가 큰 소리로 깔깔 웃고 있을 때, 헤르미온느가 그들의 뒤를 쫓아서 달려왔다. 해리는 얼른 웃음을 멈추었다. 혹시 헤르미온느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산술점 시험은 무사히 잘 친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와 론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먹기 전에 별자리표를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런 다음에..."

열한 시가 되어 천문탑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구름 한 점없는 고요한 밤하늘은 별을 관측하기에 완벽한 상태였다. 대지는 은색 달빛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약간 쌀쌀했다. 학생들은 제각기 망원경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마치뱅스 교수가 지시를 내리면, 텅 빈 별자리표를 채워 넣었다.

마치뱅스와 토프티 교수는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관측한 별들과 위성들의 정확한 위치를 기입했는지 살펴보았다. 양피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깃펜 긁적거리는 소리, 이따금씩 망원경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삐걱거리는 소리 이외에는 온 사방이 조용했다. 성의 창문을 밝히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운동장 위에 반사되어 깜빡이던 네모난 황금빛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해리가 오리온자리를 완성했을 때, 그가 서 있는 난간 바로 밑에서 성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불빛이 훌러나와 대리석 계단과 잔디밭 위를 비추었다. 해리는 망원경의 위치를 조금 바꾸면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대여섯 개쯤 되는 그 그림자가 불빛을 받아 빛나는 잔디밭 위로 어른거리더니 곧 문이 닫히고 또다시 주위가 온통 깜깜해졌다.

해리는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대고 초점을 맞춘 다음, 금성을 살펴보았다. 도표에 그 별을 그려 넣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원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해리는 글씨를 쓰던 손을 멈추고 어두운 운동장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다섯 명의 그림자가 잔디밭 위를 걷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거나 달빛이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지 않았다면, 깜깜한 운동장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제일 땅딸막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은 제일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해리는 왜 엉브릿지가 자정이 지난 이 시각에 네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기침을 했다. 해리는 비로소 자기가 시험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

금성의 위치는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뒤였다. 해리는 또다시 망원경에 눈을 바싹 붙이고서 금성을 찾아낸 다음, 도표에 그려 넣으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텅 빈 운동장에 쿵쿵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커다란 개가 짖는 소리가 약하게 들려왔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창문에 불이 밝혀져 있었다. 잔디밭을 가로 질러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창문 앞에서 아른거렸다. 오두막집의 문이 열리고, 해리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문턱을 넘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다시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들었다.

해리는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혹시 론이나 헤르미온느도 방금 그가 본 광경을 보지 않았을까 살펴보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때마침 마치뱅스 교수가 그의 등 뒤로 걸어왔기 때문에 해리는 얼른 도표 위로 고개를 숙이고 뭔가 서놓는 척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훔쳐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난간 꼭대기 너머로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을 살펴보았다. 이제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두막집 창문 앞을 왔다갔다하면서 가끔씩 불빛을 막곤 했다. 해리는 마치뱅스 교수의 따가운 눈초리가 뒤통수에 꽂히는 것을 느끼자, 다시 망원경에 눈을 들이대고 달을 옮겨다보는 척했다. 물론 달의 위치는 이미 삼십 분 전에 표시를 끝낸 후였다. 마치뱅스 교수가 걸음을 옮기는 순간, 저 멀리 오두막집에서 사나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어둠 속을 울려 퍼져서 천문탑 꼭대기까지 들렸다. 해리 주위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망원경 뒤에서 목을 길게 빼고 해그리드의 오두막 쪽을 살펴보았다.

토프티 교수가 또다시 마른기침을 했다.

"시험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토프티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시 망원경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해리가 왼쪽을 슬쩍 바라보자,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에헴-이십 분 남았습니다."

토프티 교수가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화들짝 놀라며 즉시 별자리표로 고개를 돌렸다. 해리도 자신의 도표를 내려다보는 순간, 금성을 화성이라고 잘못 표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재빨리 틀린 곳을 고쳤다.

바로 그때 운동장에서 쾅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다. 몇몇 사람들이 "어이쿠"하고 소리를 질렀다.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망원경 끝에 얼굴을 부딪힌 것이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그리드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덩치가 커다란 한 사람이 다섯 사람에게 둘러싸인 채,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가느다란 붉은 불빛들이 그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섯 사람 모두 그에게 기절 마법을 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안 돼!"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학생!"

토프티 교수가 황당하고 기가 막힌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은 시험 시간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별자리표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붉은 불빛은 여전히 해그리드의 오두막 주변에서 어른거리고 있었지만, 주문이 다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해리가 보기에 해그리드는 여전히 멀쩡하게 서서 싸우고 있었다. 고함 소리와 함성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해그리드, 진정하게!"

해그리드가 고함을 질렀다.

"진정은 무슨 빌어먹을 진정! 날 이렇게 대하다니... 도울리쉬!"

해리는 해그리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팽의 작은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팽은 해그리드를 둘러싼 마법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덤벼들다가 기절 주문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해그리드는 분노에 찬 고함을 한 번 내지르더니 범인을 번쩍 들어서 내던져 버렸다. 그 사람은 3 미터쯤 나가떨어져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헤르미온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해리가 론을 돌아보자, 그 또한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그리드가 진짜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저것 봐!"

패르바티가 난간 위로 몸을 숙이고 성 밑을 가리켰다. 또다시 성문이 열리더니 어두운 잔디밭 위로 더 많은 불빛이 쏟아졌다. 그리고 길고 검은 그림자가 잔디밭 위에 어른거렸다.

"이제 겨우 십육 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토프티 교수가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옆으로 쓴살같이 달려가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그 그림자는 소리치며 달려갔다.

"어떻게 이런 짓을!"

"맥고나걸이야!"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둬! 내버려 두라고!"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무슨 이유로 그를 공격하는 거지? 그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 순간 헤르미온느와 패르바티, 라벤더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오두막집 근처에 있던 네 사람이 한꺼번에 맥고나걸 교수를 향해서 기절 마법을 쏜 것이다. 오두막집과 성의 중간 지점에서 붉은 광선이 그녀와 충돌했다. 잠깐 동안 그녀는 번적 빛을 발하며 붉은 섬광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허공에 붕 뜨더니 털썩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토프티 교수가 소리쳤다. 토프티 교수마저도 시험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경고도 없이! 부당한 짓이야!"

"비겁한 놈들!"

해그리드가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탑 꼭대기까지 똑똑히 들렸다. 성 안에서도 다시 여기저기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비겁하고 못된 놈들! 어떻게 저런- 저런-"

"오, 안 돼-"

헤르미온느가 입을 딱 벌렸다. 해그리드가 제일 가까이 서 있는 공격자들에게 힘껏 주먹을 두 방 날린 것이다. 단박에 쓰러진 꼴을 보아서 정통으로 얻어맞은 모양이었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마법의 효력에 굴복하여 쓰러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어깨에 원가를 짊어지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해리는 그의 어깨에 축 늘어진 것이 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 놈을 잡아, 잡아!"

엄브릿지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남은 한 명도 해그리드의 주먹이 닿는 거리까지 다가가기가 몹시 꺼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황급히 뒤로 물러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들 중의 한 명에게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다. 해그리드는 팽을 짊어진 채, 달리기 시작했다. 엄브릿지는 그를 향해 최후의 기절 마법을 쏘았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해그리드는 저 멀리 떨어진 정문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곧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운동장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토프티 교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음... 오 분 남았어요, 여러분."

해리는 도표의 3분의 2밖에 채우지 못했지만, 빨리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마침내 시험 시간이 끝났을 때, 론과 헤르미온느, 해리는 허둥지둥 망원경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나선형 계단을 쓴살같이 내려왔다. 곧장 자러 가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계단 밑에

모여서 방금 목격한 일들을 큰 소리로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정말 사악한 여자야!"

헤르미온느는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밤중에 해그리드를 몰래 급습하려고 하다니!"

"트릴로니 때처럼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는 걸 피하려고 했던 게
분명해."

어니 맥밀란이 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아는 척을 했다.

"해그리드 정말 잘 싸우더라, 안 그래?"

론은 감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놀란 것 같았다.

"어떻게 주문이 그렇게 퉁겨 나올 수가 있지?"

"거인의 피가 흘러서 그럴 거야."

헤르미온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인에게 기절 주문을 걸기란 아주 어려워. 거인은 트롤과 같아서 정말
억세거든... 가엾은 맥고나걸 교수님, 기절 주문을 가슴에 네 방이나
맞았으니...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젊지도 않은데, 안 그래?"

"무서운 일이야, 무서워."

어니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난 그만 자리 갈래, 모두 잘 자."

그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방금 본 일에 대해서 요란하게 떠들면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어쨌든 그들은 해그리드를 아즈카반으로 데려가지는 못했어." 론이
말했다.

"해그리드는 덤블도어 교수님과 합세 했을 거야, 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헤르미온느는 당장에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 너무 끔찍해. 난 정말로 덤블도어 교수님이 금방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해그리드까지 떠나 버렸으니..."

그들은 그리핀도르 휴게실로 터벅터벅 걸어 돌아갔다. 휴게실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운동장에서 벌어진 소동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을 황급히 깨운 것이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보다
먼저 휴게실로 돌아온 시무스와 딘이 천문탑 꼭대기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어 대고 있었다.

"그런데 해그리드가 왜 쫓겨난 거야?"

안젤리나 존슨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물었다.

"트릴로니와는 다르잖아. 올해 들어 해그리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쳤는데!"

"엄브릿지는 혼혈 인간을 증오해."

헤르미온느가 의자에 텀썩 주저앉으며 신랄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언제든 해그리드를 쫓아내려고 했었어."

"그리고 자기 방에 니플러들을 넣은 것이 해그리드라고 생각했어."

케이티 벨이 목청을 높였다.

"오, 제기랄."

리 조던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탄식했다.

"방에 니플러를 집어넣은 건 나야. 프레드와 조지가 나에게 두 마리를
남겨 주고 갔거든. 내가 그걸 공중 부양시켜서 창문으로 집어넣은 건데..."

"어쨌거나 엄브릿지는 해그리드를 내쫓았을 거야. 덤블도어와 너무
가까웠으니까." 딘이 말했다.

"그건 사실이야."

해리는 헤르미온느 옆 자리에 앉았다.

"맥고나걸 교수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

라벤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들이 교수님을 다시 성으로 데려갔어. 우리가 기숙사 창문을 통해
봤는데,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

콜린 크리비가 말했다.

"폼프리 부인이 고쳐 주실 거야. 아직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잖아."

앨리샤 스피넷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새벽 네 시가 다 되어서야 휴게실 안이 조용해졌다. 해리는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 어둠 속으로 달아나던 해그리드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엉브릿지에 대해서 어찌나 화가 났는지, 어떤 앙갚음을 해도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굽주린 폭발 꼬리 스프루트들에게 먹이로 줘 버리자는 론의 제안이 약간 그럴듯했다. 해리는 온갖 끔찍한 복수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약 세 시간 후에 몹시 불쾌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마지막 시험인 마법의 역사는 그날 오후에 치를 예정이었다. 해리는 아침만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줄곧 이 오전 시간에 마지막 초치기를 할 생각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휴게실 창문 옆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앓아서 출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헤르미온느가 그에게 빌려 준 거의 1 미터 높이의 노트 더미 중에서 일부를 읽고 있었다.

오후 두 시에 5 학년들은 대연회장으로 들어가서 시험지를 앞에 놓고 자리에 앉았다. 해리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다. 얼른 끝내고 침대로 가서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론과 함께 퀴디치 경기장으로 가서 론의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시험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시험지를 펼치세요."

연회장 앞에 선 마치뱅스 교수가 커다란 모래시계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해도 좋아요."

해리는 첫 번째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몇 초 동안 단 한 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높은 창문 어디에선가 말벌 한 마리가 정신 산란하게 봉봉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해리는 힘겹게 겨우겨우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들었고 날짜도 계속 헛갈렸다. 그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풀기로 하고 4 번 문제, 지팡이 법령이 18 세기 도깨비 반란의 원인이 되었는지, 혹은 통제를 더 잘하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를 그냥 건너뛰었다. 그리고 5 번 문제, 1749년에 비밀 법령이 어떻게 깨졌으며, 그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는가?를 썼지만, 웬지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빠뜨린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딘가 뱃파이어들이 등장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해리는 확실히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더 찾아보다가 10 번 문제에 시선이 멈추었다. 국제 마법사 연맹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쓰고 리히텐슈타인 마법사들이 그 연맹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아는 거야. 머리가 어지럽고 무감각했지만,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글씨체로 쓰인 제목을 분명히 눈앞에 떠올릴 수 있었다.

'국제 마법사 연맹의 결성...' 바로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읽었던 것이다. 해리는 마치뱅스 교수 옆의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모래시계를 이따금씩 돌려다보며, 답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패르바티 패틸의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의자 뒤에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반짝이는 노란 빛을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그 자신도 고개를 흔들어야만 했다.

...최초의 국제 마법사 연맹 최고 위원장은 피에르 보나코르드였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 마법사 사회는 그의 임명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해리 주위에 있는 모든 깃펜들이 마치 굴을 파거나 종종걸음 치는

생쥐들처럼 양피지 위에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태양이 뜨겁게 그의 뒤통수를 비추었다. 보나코르드가 무엇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의 마법사들을 공격했더라? 원가 트롤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리는 또다시 패르바티의 뒤통수를 명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그가 레질리먼시를 할 수 있어서 그녀의 생각의 창문을 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보나코르드와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불화를 일으킨 트롤에 대해서 볼 수 있을 텐데... 해리는 눈을 감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자 화끈화끈 달아오르던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시원해졌다. 보나코르드는 트롤 사냥을 중지시키고 트롤들에게도 권리를 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은 특별히 사나운 산에서 사는 트롤 대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래, 그거야...

해리는 다시 눈을 떴다. 텅 빈 하얀 양피지를 보자, 눈이 쑤시면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트롤에 대해서 두 줄을 더 썼다. 그리고 그때까지 쓴 것을 다시 읽어 보았다. 내용이 상세하다거나 아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분명 국제연맹에 대한 헤르미온느의 정리는 거의 몇 장에 달했다.

해리는 눈을 감고 그것을 눈앞에 떠올리려고 애를 썼다. 국제 마법사 연맹은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래, 이건 벌써 쓴 내용이야.

도깨비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내쫓기고 말았다... 이것도 벌써 쓴 거야.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아무도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 해리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혼자 중얼거렸다. 주위에 모든 깃펜들은 사각거리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답변을 쓰고 있었고, 앞에 놓인 모래시계에서는 모래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미스터리 부서로 향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확신에 가득 찬 씩씩한 걸음으로 걷다가 이따금 이번에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결의에 가득 차서 마구 달리기도 했다... 평소처럼 검은 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많은 문이 있는 둥근 방으로 들어갔다... 돌바닥을 곧장 가로질러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 벽과 마룻바닥 위에 불빛이 어른거리고 묘하게 똑딱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걸 살펴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야만 한다...

그는 또다시 진열장들과 유리 구슬로 가득 찬, 성당 내부만큼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97 번째줄에 이르자, 그는 왼쪽으로 돌아서서 두 진열장 사이로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하지만 복도 제일 끝에 무언가가 있었다. 검은 형상이 마치 상처 입은 동물처럼 복도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그의 입에서 높고 차갑고 공허한 인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걸 내 앞으로 가져와라... 이제 내려놓아라.. 난 그걸 만질 수 없지만... 넌 할 수 있어..."

복도 위에 있던 검은 형상이 원가를 들었다. 해리는 지팡이를 움켜쥔 길고 하얀 손이 자신의 팔 끝에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높고 차가운 목소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크루시오!"

복도 위에 있던 남자는 고통스런 비명을 토해 내며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해리는 킁킁거리며 웃었다. 그가 다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저주를 내리자, 그 남자는 신음 소리를 내며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볼드모트 경이 기다리신다..."

바닥에 쓰러진 그 남자는 두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천천히 어깨를 일으키고 고개를 쳐들었다. 상처와 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뒤를렸지만, 여전히 단호하고 용기가 가득 차 있었다.
"날 죽여야 할 거야." 시리우스가 중얼거렸다.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싸늘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나에게 그걸 가져오게 될 것이다. 블랙... 네가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이미
몇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너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볼드모트가 다시 지팡이를 내렸을 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며 뜨거운 책상에서 차가운 돌바닥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순간, 해리는 정신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마의 흉터가 불로 지지는 듯이 아팠다. 대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제 32 장. 벽난로에서 불잡히다

"난 가지 않을 거예요... 난 병동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싫어요..."
그는 토프티 교수의 손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횡설수설 지껄였다.
그를 현관 복도까지 부축하고 나온 토프티 교수는 높시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저는 괜찮습니다, 교수님."
해리가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사실은... 그저 잠이 들었을 뿐이에요... 악몽을 꿨어요..."
"시험의 압박이 너무 컸군!"
늙은 마법사가 안됐다는 듯이 덜덜 떨고 있는 해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젊은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차가운 물이나 한 잔
마시게. 그럼 다시 시험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겠지? 시험 시간은 거의
다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손볼 수는 있을 걸세, 안 그런가?"
"네." 해리가 정신없이 대답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아니요... 저-저는 이미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네, 잘 알았어."

늙은 마법사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럼 난 가서 자네의 시험지를 걷겠네. 지네는 어서 가서 폭 쉬게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마법사가 문턱을 넘어 대연회장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해리는 대리석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어찌나 복도를 쓴살같이 뛰어갔는지, 초상화들이 불평을 터뜨릴 정도였다. 한 층을 더 올라간 해리는 마침내 사나운 허리케인처럼 병동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몬태규의 입에 선명한 푸른색 액체를 떠 먹이려고 하던 품프리 부인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포터,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맥고나걸 교수님을 좀 봐러 왔어요?"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주... 긴급한 일이에요!"

"포터, 교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신단다."

품프리 부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성 뚫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어. 그 연세에 가슴에 기절 마법을 네 방이나 맞다니,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지."

"교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신다고요?"

해리는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잊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종이 울리고, 늘 그렇듯이 위층과 아래층에서 학생들이 우당탕 복도로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품프리 부인을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들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이야기할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덤불도어 교수님도 떠나고 해그리도도 떠났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님만은 언제나 이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까다롭고 고지식하지만, 그래도 항상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분이었는데...

"포터, 네가 충격을 받은 것도 당연하지."

품프리 부인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작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환한 대낮에 미네르바 맥고나걸을 당당히 마주 보고 기절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겁쟁이들!"

천하게 비열한 겁쟁이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만 아니었다면, 난 벌써 이 자리를 그만두었을 게다."

"네."

해리는 멍하니 대답하고는 돌아서서 정신없이 병동을 걸어나왔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글거리는 복도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리고 서 있었다. 공포가 독가스처럼 그의 몸속에 스멀스멀 퍼졌다. 머리가 펑펑 돌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론과 헤르미온느.

머릿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학생들을 마구 밀치며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며 항의하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두 개의 층을 쓴살같이 내려온 그가 대리석 계단 꼭대기에 섰을 때, 허둥지둥 그를 향해 다가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그를 보자마자 놀라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괜찮니? 어디 아픈 거야?"

"어디 갔었어?" 론이 물었다.

"나를 따라와, 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해리는 그들을 이끌고 1층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여기저기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빈 교실을 발견하자, 얼른 뛰어 들어갔다. 그는 헤르미온느와 론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황급히 문을 닫더니,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들을 마주 보고 말했다.

"볼드모트가 시리우스를 불잡았어."

"뭐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봤어. 방금. 시험 도중에 잠이 들었거든."

"하지만-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헤르미온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어딘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

그곳은 미스터리 부서에 있는 어느 방이야. 그 방은 작은 유리 구슬들이
놓여 있는 진열장들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들은 97 번째 줄 끝에 있어...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시리우스가 가져오도록 시키려고
하고 있어... 고문을 하고 있는 중이야... 결국에는 그를 죽일 거라고
말했어!"

해리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무릎만큼이나 심하게 떨렸다. 그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서 텔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어떻게든 진정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지?"

해리가 그들에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끝에 론이 입을 열었다.

"거-거기를 간다고?"

"미스터리 부서로 가야 시리우스를 구해 낼 수가 있지!"

해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해리..."

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왜?"

해리가 재촉했다. 해리는 두 사람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아주 황당한
요구라도 하는 것 같은 반응이었다.

"해리..."

헤르미온느는 다소 겁먹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 볼드모트가 어떻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마법부로 들어갈 수
있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가느냐 하는 거야!"

"하지만... 해리, 한번 생각해 봐."

헤르미온느가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지금은 오후 다섯 시야... 마법부는 틀림없이 직원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볼드모트와 시리우스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어? 해리... 그 두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현상금이 많이 걸린 마법사들일 거야... 그런데 오러들이 잔뜩 있는
건물에 두 사람이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모르겠어. 볼드모트가 투명 망토나 뭐 그런 걸 사용했겠지!"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어쨌든 내가 갔을 때마다 미스터리 부서는 항상 텅 비어 있었어-"

"해리, 넌 한 번도 거기에 가 본 적이 없어."

헤르미온느가 침착하게 말했다.

"넌 그 장소에 대해서 꿈을 꾸었을 뿐이야, 그게 다야."

"그건 보통 꿈이 아니었어."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가서 얼굴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마음 같아서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고
싶었다.

"그럼 론의 아버지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거니? 그건 다 뭐였다고?"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해리 말이 맞아."

론이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헤르미온느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해리, 시리우스는 줄곧 그리볼드 광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볼드모트가 그를 붙잡을 수가 있겠어?"

"시리우스가 잠깐 바람을 쐬고 싶어서 밖으로 뛰쳐나왔을지도 몰라."

론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볼드모트가 꼭 시리우스를 통해서 그 무기인지 뭔지를 손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나도 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볼드모트가 보기에 시리우스라면 다쳐도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얘들아,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시리우스의 동생은 죽음을 먹는 자였잖아, 안 그래? 어쩌면 시리우스에게 그 무기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었을지 몰라!"

"그래. 그래서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토록 시리우스를 항상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 해리가 말했다.

"이봐, 미안하지만 너희 두 사람 다 말이 안 돼. 우리에겐 아직 어떤 증거도 없어. 볼드모트와 시리우스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조차 없단 말이야."

"헤르미온느, 해리가 그들을 봤다고 하잖아!"

론이 헤르미온느를 돌아보며 말했다.

"좋아."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도 뭔가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해야겠다-

"무슨 말?"

"너는... 해리, 꼭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넌... 뭐랄까... 너 자신에게 일종의 구원자 콤플렉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말하자, 해리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지? 구원자 콤플렉스?"

"음... 그러니까..."

헤르미온느는 더욱더 주눅든 표정이 되었다.

"내 말은... 예를 들어... 작년에... 호수에서... 그 시합이 열렸을 때... 넌..."

그 델라쿠르 여동생을 굳이 구해 줄 필요가 없었어... 넌... 좀...

지나쳤다고..."

갑자기 격렬하고 날카로운 분노가 전율처럼 해리의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떻게 지금 이 마당에 그런 실수를 상기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었어."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표정을 보며 어쩔 줄 모르고 황급히 말했다.

"모두들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것 참 웃기는구나."

해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론도 나에게 영웅 흉내를 내느라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거지? 넌 내가 또 다시 영웅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 아니야. 그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 여기서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볼드모트가 널 잘 안다는 거야, 해리! 그는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니를 비밀의 방까지 데리고 갔어. 그게 볼드모트의
방식이야. 그 작자는 네가 틀림없이 시리우스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만약 널 미스터리 부서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수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헤르미온느, 그자가 날 그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맥고나걸 교수님은 성 물고 병원으로 실려 가셨어.
이제 호그와트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사단 단원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시리우스가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해리- 그게 그냥 단순히 꿈이면 어떻게 할 거야?"

해리는 짜증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버럭 소리를 질렀다.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라서 그만 뒤로 물러섰다.

"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해리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난 악몽을 꾼 게 아니야. 단순한 꿈을 꾼 게 아니라고! 넌 이런
오클러먼시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니?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그건 그 꿈이 진짜이기
때문이야, 헤르미온느. 시리우스는 덫에 걸렸어. 나는 그의 모습을 보았어.
볼드모트에게 붙잡혔고 이 일은 아무도 몰라. 즉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네가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아. 하지만 난
갈거야, 알겠어? 내 기억이 맞는다면, 너는 내가 널 디멘터로부터 구해 줄
때에는, 그 구원자 콤플렉스인지 뭔지 하는 걸 너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던데, 아니면~"

해리는 론을 향해 획 고개를 돌렸다.

"네 여동생을 바실리스크에게서 구해 줬을 때도 말이야."

"난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은 한 적 없어!"

론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해리, 너도 방금 말했잖아."

헤르미온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덤블도어 교수님께서도 네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신다고 말이야. 만약 네가 오클러먼시를 제대로
배웠다면, 넌 절대로 그런 것 보지 못했을 거야~'

"만약 내가 마치 그런 걸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시리우스도 네가 생각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았더라면, 시리우스도 아마 다르게 말했을
거야."

교실 문이 열렸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획 고개를 돌렸다. 지니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루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처럼 무심한
얼굴이었다.

"안녕." 지니가 머뭇거리며 인사를 했다.

"해리의 목소리를 들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니?"

"상관할 것 없어."

해리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지니가 눈썹을 추켜올렸다.

"그런 식으로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

지니가 쌀쌀맞게 쏘아붙였다.

"난 그저 혹시 도와줄 일이 없을까 생각했을 뿐이야."

"없어." 해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좀 무례한 거 아니니?"

루나가 태평스럽게 말했다. 해리는 육을 하며 획 돌아섰다. 지금은 루나

려브굿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기다려." 헤르미온느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해리... 기다려. 얘들이 도움이 될 거야."
해리와 론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 말 좀 들어 봐. 해리, 우린 시리우스가 정말로 기사단 본부를
떠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해."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설명했다.
"내가 말했잖아. 내 눈으로 똑똑히~"
"해리, 제발 부탁이야!"
헤르미온느가 간절하게 말했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에 시리우스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자. 만약 그가 집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도 더 이상 널
말리려고 하지 않을게, 약속해. 그리고 나도 같이 갈 거야. 시리우스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
"지금 시리우스는 고문을 당하고 있어! 우린 지금 낭비할 시간이~"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만약 이게 보-볼드모트의 술수라면? 해리, 우린 먼저 확인을
해야 해. 확인을 해야~'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해리가 따져 물었다.
"엄브릿지의 벽난로를 이용해서 그와 접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엄브릿지를 밖으로 유인해 낼게. 하지만 망을 볼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니와 루나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면서도
지니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망을 볼게."
루나가 불쑥 딴소리를 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시리우스'가 스터비 보드맨이니?"
하지만 모두들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좋아. 네가 그 일을 재빨리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면, 나도
네 의견에 따르겠어. 그렇지 않으면 난 지금 당장 미스터리 부서로 갈
거야."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 도전적으로 말했다.
"미스터리 부서라고?"
루나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거길 어떻게 가려고 하니?"
또다시 해리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좋아."
헤르미온느는 두 손을 비비 꼬면서 책상 사이를 왔다갔다했다.
"좋아... 그러니까...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엄브릿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녀를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하는 거지. 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말이야. 뭐라고 말할까- 잘 모르겠지만- 피브스가 또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든가 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내가 할게." 론이 재빨리 나섰다.
"피브스가 변신술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할 거야. 그곳은
엄브릿지의 방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 혹시 가다가 피브스를
만나면 진짜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변신술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도 헤르미온느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증거였다.
"좋아."
헤르미온느는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계속 왔다갔다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에 들어가는 동안, 학생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해. 혹시 슬리데린 아이들이 보면 틀림없이 엉브릿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할 테니까."

"루나와 내가 복도 양쪽 끝에 서 있을게."

지니가 얼른 제안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쪽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경고하지 뭐. 누군가가 질식 가스를 잔뜩 발사해 놓았다고 말이지."

헤르미온느는 지니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말을 술술 꾸며 대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지니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변명하듯이 말했다.

"사실은 프레드와 조지가 떠나기 전에 그런 장난을 칠 계획을 세웠었어."

"좋아. 그럼 해리, 너와 나는 투명 망토를 쓰고 방에 몰래 들어가도록 하자. 너는 시리우스와 이야기를 하고--"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헤르미온느, 시리우스는 거기 없다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망을 보는 동안 시리우스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야. 너 혼자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니플러 사건을 통해서 창문이 허점이라는 사실을 리가 이미 증명했잖아." 해리는 비록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와 함께 엉브릿지의 방까지 들어가겠다는 헤르미온느의 제안이 우정과 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 고마워." 해리가 중얼거렸다.

"좋아.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해도, 오 분 이상 엉브릿지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헤르미온느는 해리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필치와 그 망할 놈의 감사 위원회가 얼씬거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오 분이면 충분해. 자, 어서 가자--"

해리가 재촉했다.

"지금 당장?"

헤르미온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물론 지금 당장 가야지!"

해리가 화를 냈다.

"그럼 우리가 저녁 식사 후나 뭐 그대까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헤르미온느, 시리우스는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나- 나는... 좋아."

헤르미온느가 마지못해 동의 했다.

"그럼 너는 가서 투명 망토를 가지고 와. 우리 모두 엉브릿지의 방 복도 끝에서 만나는 거야, 알았지?"

해리는 대답 대신 번개처럼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밖에서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 학생들 틈을 마구 헤집고 나가기 시작했다. 두 층을 올라갔을 때, 그는 시무스와 딘을 만났다. 두 사람은 신나게 인사를 하며 오늘 밤 휴게실에서 시험 끝낸 기념 파티를 밤새도록 열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쳤다. 두 사람이 암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버터 맥주를 사들여야 할지 열심히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해리는 초상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투명 망토와 시리우스의 주머니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해리, 너 2 갈레온쯤 낼 생각 없니? 해롤드 딩글이 파이어위스키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하지만 해리는 이미 복도 저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분

후에는 마지막 몇 계단을 그냥 훌쩍 뛰어내려서 론과 헤르미온느, 지니, 루나와 합세했다. 그들이 엉브릿지 방이 있는 복도 끝에 둥글게 모여 있었다.

"다 됐어. 그럼 시작할 준비가 된 거지?"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좋아."

6학년 학생들 한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옆을 지나가자, 헤르미온느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럼 론- 너는 어서 가서 엉브릿지를 밖으로 불러내도록 해... 지니, 루나, 너희들은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시작하고..."

해리와 나는 망토를 쓴 채, 주위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릴게..."

론이 먼저 씩씩하게 걸어갔다. 잠시 후 그의 빛나는 빨간 머리카락이 복도 끝 오른쪽에서 보였다. 한편 반대 방향에서는 똑같이 붉게 타오르는 지니의 머리가 모여든 학생들 틈에서 어른거렸다. 그리고 루나의 금방이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쪽으로 와."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손목을 잡아끌고 뜻생긴 중세 마법사의 두상이 세워져 있는 벽의 후미진 곳으로 들어갔다. 마법사 석상은 기둥 받침대 위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해리, 너 괜찮니? 아직도 얼굴이 창백해 보여."

"난 괜찮아."

해리는 가방에서 투명 망토를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이마의 흉터가 쿡쿡 쑤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해리는 볼드모트가 아직은 시리우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볼드모트가 애버리에게 벌을 내렸을 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마가 아팠었기 때문이었다.

"이리 와."

해리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투명 망토를 덮어씌웠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연신 라틴어를 중얼거리고 있는 석상 너머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서 있었다.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지니가 학생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회전 계단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해- 누군가 여기에 질식 가스를 발사했어."

학생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은 부루퉁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가스 같은 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건 색깔이 없는 가스라고 그래."

지니가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인 어조로 말했다.

"네가 정 그렇게 여기를 지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지나가봐. 그럼 우리 말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명청이에게 네 몸을 증거로 보일 테니까."

모여 있던 사람들이 차츰 사라졌다. 잠시 후에는 질식 가스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지,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길로 오지 않았다. 마침내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지자,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해리, 이제 가는 게 좋겠어. 어서, 빨리 하자."

그들은 투명 망토를 뒤집어쓴 채, 앞으로 걸어갔다. 루나는 복도 저쪽 끝에 돌아서 있었다. 그들이 지니의 옆을 지날 때,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잘해... 신호 보내는 거 잊지 마."

"무슨 신호인데?"

엉브릿지의 방 문 앞으로 다가가면서 해리가 물었다.

"엉브릿지가 돌아오는 걸 보면, '위즐리는 우리의 왕'이란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기로 했어."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해리는 시리우스의 주머니칼을 문과 벽 사이의

틈으로 밀어 놓었다.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고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잔뜩 꾸민 고양이들이 그들의 접시를 따끈하게 해주고 있는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것 이외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번째 니플러 침입 사건 이후로 엄브릿지가 혹시 또 다른 보안 장치를 해 놓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들은 투명 망토를 벗었다. 헤르미온느는 지팡이를 뽑아 들고 얼른 창문으로 다가가서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해리는 쓴살같이 벽난로로 달려가서 플루 가루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가루를 벽난로 안으로 뿐렸다. 반짝이는 초록색 불꽃이 확 피어올랐다. 해리는 재빨리 무릎을 꽂고 앉아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머리를 집어놓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볼드 광장 12 번지!"

해리는 놀이기구에서 방금 내린 사람처럼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무릎은 여전히 차가운 방바닥에 굳건히 달아 있었다. 해리는 휘날리는 재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잠시 후에 빙빙 도는 것이 멈추자, 눈을 뜨고 냉기가 흐르는 그리볼드 광장의 긴 부엌 안을 내다보았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리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텅 빈 부엌을 보니,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었다.

"시리우스?" 해리가 소리쳤다.

"시리우스, 여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부엌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단지 벽난로 오른쪽에서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소리만이 들려온 뿐이었다.

"거기 누구죠?"

해리는 그저 생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집요정 크리처가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최근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양손에 봉대를 칭칭 감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굉장히 신이 난 표정이었다.

"포터, 그 녀석의 머리가 벽난로 안에 있어요."

크리처는 이상하게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해리를 훤히 훤히 쳐다보며 텅 빈 부엌 안에서 혼자 떠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왔을까요, 크리처가 놀라게?"

"크리처, 시리우스는 어디 있지?"

해리가 물었다. 집요정은 킬킬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 웃었다.

"주인님은 떠났어요, 해리 포터."

"어디로 갔지? 어디 간 거야, 크리처?"

크리처는 그저 깔깔 웃기만 할 뿐이었다.

"가만두지 않겠어!"

해리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크리처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핀은 어디 있지? 매드아이는? 거기 아무도 없어?"

"크리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집요정은 신이 나서 소리치더니 해리에게서 훡 등을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 끝에 있는 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크리처는 마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에요. 맞아요, 크리처는 오랫동안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죠. 크리처의 주인님이 억지로 마님과 크리처를 떼어 놓았어요~"

"시리우스는 어디로 간 거야?"

해리가 집요정의 등 뒤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크리처, 시리우스가 미스터리 부서에 갔니?"

크리처가 우뚝 발걸음을 멈췄다. 해리는 의자 다리 사이로 그의

대머리만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주인님은 불쌍한 크리처에게 당신이 가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집요정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넌 알잖아! 안 그래? 넌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집요정은 좀 전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주인님은 미스터리 부서에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집요정은 기쁨에 들떠서 소리쳤다.

"또다시 크리처와 마님만이 남게 됐어요!"

집요정은 앞으로 종종걸음 치더니 문 밖으로 사라졌다.

"이봐!"

하지만 미처 한마디 욕설을 내뱉을 틈도 없이, 해리는 정수리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 그 순간 헉하고 재를 잔뜩 들이 마시는 바람에 숨이 탁 막혔다. 불길 밖으로 질질 끌려가던 다음 순간, 너무나 놀랍고 끔찍하게도 그의 눈앞에 엄브릿지의 넓적하고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끌어낸 엄브릿지는 마치 그의 목을 베어 버릴 듯이 그의 머리를 한껏 뒤로 잡아당겼다.

"벌써 두 번이나 니플러에게 당했는데, 내가 또다시 더럽고 지저분한 동물들이 내 방에 몰래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것 같더냐?"

엄브릿지는 해리의 목을 더욱더 뒤로 젖히며 속삭였다. 이제 그는 꿈쩍없이 천장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지난번 니플러가 들어온 뒤로 나는 문 주위에 보안 경보 마법을 걸어 놓았지. 이 멍청한 꼬마야. 그의 지팡이를 집어."

엄브릿지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해리의 눈에는 그가 누군지 보이지 않았다. 손 하나가 그의 가슴 호주머니 속을 파고들더니 지팡이를 꺼내 갔다.

"저 애 것도..."

해리는 문 옆으로 발을 질질 끄며 다가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 또한 방금 지팡이를 빼앗겼음을 알았다.

"너희들이 왜 내 방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엄브릿지가 그의 머리를 마구 쥐고 흔들었다. 해리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파-파이어볼트를 가지러 왔어요!"

해리가 소리 높여 외쳤다.

"거짓말."

엄브릿지는 또다시 해리의 머리를 흔들었다.

"너도 잘 알다시피. 네 파이어볼트는 엄격한 감시 하에 지하감옥에 보관되어 있다, 포터. 그런데 넌 내 벽난로에 머리를 박고 있었잖아.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아무도~"

해리는 어떻게든 엄브릿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뽑혀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거짓말!"

엄브릿지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그를 옆으로 휙 떠밀었다. 해리는 책상에 쿵하고 부딪혔다. 빌리센트 벌스트로드에게 붙잡혀서 벽에 딱 붙어서 있는 헤르미온느의 모습이 보였다. 말포이는 창틀에 기대서서 이죽이죽 웃으며 해리의 지팡이를 한 손으로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받곤 했다.

밖에서 잠시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니, 덩치 큰 슬리데린 학생들 몇 명이 론과 지니, 루나, 그리고 놀랍게도 네빌을 끌고 들어왔다.

크레이브에게 목이 출린 그는 당장에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보였다.

네 사람 모두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모두 잡아 왔습니다."

워링턴이 론을 방 안으로 거칠게 떠밀려 말했다.

"이 녀석은(그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네빌을 가리켰다) 제가 저 아이를(그는 지니를 지목했다) 잡으려고 할 때 방해했습니다." 지니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덩치 큰 슬리데린 여학생의 정강이를 걸어차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엄브릿지는 몸부림을 치는 지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조만간 호그와트에서는 위즐리네 씨가 마르겠군."

말포이가 아첨하듯이 큰 소리로 웃어 댔다. 엄브릿지는 만면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무명천이 덧씌워진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꽂밭에 앉은 두꺼비처럼 자신의 포로들을 깜빡깜빡 쳐다보았다.

"포터, 넌 내 방 주위에 망을 서게 하고 이 허풍성이를 보내서~"

엄브릿지가 론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말포이는 더욱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에게 피브스가 변신술 교실에서 한바탕 소동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게 했지. 그대 피브스는 학교에 있는 모든 망원경 렌즈에 잉크를 칠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필치 씨가 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 준 바로 다음 순간에 말이지. 분명히 누군가와 꼭 이야기할 일이 있었겠지? 알버스 덤블도어냐? 아니면 그 잡종 해그리드냐? 미레르바 맥고나걸은 아니겠지, 아직도 병세가 나빠서 어느 누구와도 전혀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듣자, 말포이와 다른 몇몇 감사 위원회 위원들이 더욱더 큰 소리로 웃었다. 해리는 증오심과 분노가 끓어올라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해리가 이를 갈며 말했다. 축 늘어졌던 엄브릿지의 얼굴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좋아."

엄브릿지는 소름 끼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아, 포터 군... 나는 자네에게 자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하지만 자네는 거절했지. 이제 강제로 자백을 받아 내는 수밖에 없겠군. 드레이코- 스네이프 교수를 모셔와라."

말포이는 해리의 지팡이를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고 이죽이죽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해리는 그 모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금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깨달았던 것이다. 어떻게 그 사실을 깨맣게 잊을 만큼 명청할 수 있는지, 해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기사단의 단원들이, 시리우스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호그와트에는 아직도 불사조 기사단 단원이 한 명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바로 스네이프였다.

론과 다른 아이들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슬리데린 학생들이 버둥거리며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 이외에는 침묵만이 이어졌다. 목 조르기를 하려는 워링턴에게 반항하던 론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려 엄브릿지의 방 양탄자 위에 떨어졌다. 지니는 아직도 자신의 팔뚝을 꽉 움켜쥐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발을 밟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크레이브에게 목을 졸려 버둥거리는 네빌의 얼굴은 점점 더 보라색으로 변했다. 헤르미온느는 밀리센트 벌스트로드를 밀쳐 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직 루나만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학생 옆에 힘없이 서서,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치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더 이상 흥미를 잃었다는 표정이었다.

해리는 엄브릿지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 해리는 일부러 태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다.

드레이코 말포이가 스네이프의 뒤를 바싹 따라 방으로 들어 왔다.

"교장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스네이프가 짹을 지어 몸싸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 스네이프 교수님."

엄브릿지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리타세룸이 한 병 더 필요해서 말이죠. 가능한 빨리 구해주시면 좋겠군요."

"지난번에 포터를 심문하면서 제게 마지막 남은 한 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스네이프는 기름이 잔뜩 낀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로 그걸 다 써 버리신 건 아니겠죠? 세 방울이면 충분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엄브릿지의 얼굴이 빨개졌다.

"좀더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화가 났을 때에는 늘 그렇듯이, 엄브릿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드러졌다.

"물론이죠."

스네이프는 입술을 맂며 대답했다.

"하지만 완전히 숙성하려면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약 한 달 뒤에는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고요?"

엄브릿지가 두꺼비처럼 몸을 잔뜩 부풀리며 소리쳤다.

"한 달이라니요? 난 오늘 저녁에 필요해요. 스네이프! 방금 포터가 내 벽난로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걸 붙잡았단 말입니다!"

'정말요?"

스네이프가 처음으로 관심을 나타내며 해리를 돌아보았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군요. 포터는 학교 규칙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으니까요."

그의 차갑고 까만 눈동자가 해리의 시선과 마주쳤다. 해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면서 자신이 꿈에 본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열심히 떠올렸다. 부디 스네이프가 그의 생각을 읽고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난 그를 심문하고 싶단 말이오!"

엄브릿지가 화가 나서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스네이프는 해리에게서 시선을 떼더니 부르르 떨고 있는 엄브릿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녀석이 나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당신이 마법약을 주길 원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더 이상의 베리타세룸이 없습니다."

스네이프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혹시 포터에게 독약을 먹이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저는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교장 선생님의 결정에 십분 동의하겠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독약은 효력이 너무 빨리 나타나서 자백을 받아 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스네이프를 다시 해리를 쳐다보았다. 해리는 어떻게든 말없이 생각을 전달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볼드모트가 시리우스를 미스터리 부서로 데려갔어요.'

해리는 열심히 생각했다.

'볼드모트가 시리우스를 미스터리 부서로 데려-'

"당신은 자격 유예 처분감이오!"

엄브릿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스네이프는 눈썹을 살짝 추켜올리며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일부러 날 돌지 않았어! 루시우스 말포이가 항상 당신 칭찬을 했기 때문에 난 좀더 많은 걸 기대했지! 이제 당장 내 방에서 나가시오!"

스네이프는 빈정대듯이 공손하게 절을 하고 돌아섰다. 지금 그가 문 밖으로 걸어 나가면, 이 일을 기사단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자가 패드풋을 데려갔어요!"

해리가 소리쳤다.

"그것이 숨겨진 곳으로 패드풋을 데려갔어요!"

스네이프는 엉브릿지의 방 문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우뚝 섰다.

"패드풋?"

엉브릿지 교수가 해리와 스네이프를 열심히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패드풋이 누구지? 그것이 숨겨진 곳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죠,

스네이프?"

스네이프는 고개를 돌리고 해리를 쳐다보았다. 표정만 봐서는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해리는 그가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엉브릿지 앞에서 더 이상 명백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네이프가 냉정하게 말했다.

"포터, 혹시 헛소리가 하고 싶으면, 너에게 수다떨기 음료를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크레이브, 네 팔을 좀 풀도록 해라. 만약 롱바텀이 질식이라도 하게 되면, 넌 지긋지긋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서류를 작성해야 할 거다. 게다가 취업이라도 하게 되면, 난 네 추천서에 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스네이프는 고개를 까닥이더니 문을 닫고 나갔다. 해리는 조금 전보다도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스네이프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해리는 엉브릿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도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았다. 그녀의 가슴이 분노와 좌절감으로 벌렁벌렁하고 있었다.

"좋아."

엉브릿지는 지팡이를 뽑아 들었다.

"좋아... 이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이건 교직보다 더 중요한 문제야. 마법부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그래... 맞아..."

엉브릿지는 훈자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고는 초조한 듯 이쪽저쪽 양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고 지팡이로 손바닥을 턱탁 내리치면서 해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해리는 지팡이도 없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포터, 이건 네가 자초한 거야... 난 하고 싶지 않았어."

엉브릿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서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사용이 용납되기도 하지..."

장관님께서도 내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이해하실 거야..."

말포이는 거의 굶주린 사람 같은 표정으로 엉브릿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크루시아투스 저주라면 네 입을 열게 만들 거다."

엉브릿지가 조용히 말했다.

"안 돼요!"

헤르미온느가 비명을 질렀다.

"엉브릿지 교수님- 그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엉브릿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해리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적의와 흥분으로 가득 찬 들든 표정이 떠올랐다. 엉브릿지는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장관님도 법을 어기는 건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엉브릿지 교수님!"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코넬리우스가 모르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엉브릿지는 조금씩 썩썩거리며 해리의 몸 여기저기를 지팡이로 겨누고 있었다. 어느 부위가 가장 아플지 생각 중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지난여름에 내가 디멘터들을 시켜서 포터의 뒤를 쓱게 했다는

것도 몰랐어. 그래도 포터를 내쫓을 기회가 생겼다고 마냥 기뻐했지."

"그게 당신이었나요? 당신이 디멘터를 보냈단 말이죠?"

해리가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렸다.

"누군가 해야만 할 일이었지."

엄브릿지는 지팡이 끝을 정확히 해리의 이마를 향해 겨누며 말했다.

"모두들 네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너를 못 믿게 만들어야 한다며 짚고 까불었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종류의 행동이라도 취한 것은 나 한 사람뿐이었어... 비록 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말았지만, 안 그러냐, 포터? 하지만 오늘은 안 되지. 지금은 도망치지 못해."

엄브릿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소리쳤다.

"크루시~"

"안 돼!"

헤르미온느는 밀리센트 벌스트로드 뒤에서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다.

"안 돼- 해리- 어쩔 수 없어. 그만 털어놓자."

"그럴 수는 없어!"

해리는 최대한 헤르미온느 쪽을 돌아보려고 애쓰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해리, 그래야만 해.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든 너에게서 자백을 받아 낼 거야. 그럼... 그럼 무슨 소용이 있니?"

헤르미온느는 밀리센트 벌스트로드의 등에 대고 처량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를 벽 쪽으로 바싹 밀어붙이고 있던 밀리센트는 얼굴을 징그리며 황급히 몸을 피했다.

"좋아. 좋아. 좋아!"

엄브릿지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우리의 꼬마 호기심 양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모양이군. 자, 어서 말해 보렴, 어서!"

"에르-미-니-안 돼!"

론이 재갈이 물린 상태에서 간신히 소리쳤다. 지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생정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목이 졸려 있던 네빌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해리는 원가를 알아차렸다. 비록 헤르미온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럽게 울고 있었지만 눈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모-모두들 미- 미안해."

헤르미온느가 울먹였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괜찮다, 괜찮다, 얘야!"

엄브릿지는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붙잡더니 비어 있던 의자로 와락 떠밀었다. 그리고 몸을 숙이며 말했다.

"자, 그러면... 포터가 방금 연락한 사람이 누구였지?"

"그건... 그건..."

헤르미온느는 꿀꺽 침을 삼켰다.

"해리는 덤블도어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론은 눈을 부릅뜬 채, 얼어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니도 자기를 붙잡고 있는 슬리데린 학생의 발등을 밟으려던 동작을 그만 멈추었다.

루나조차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엄브릿지와 그 심복들의 관심은 온통 헤르미온느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스런 표정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덤블도어라고?" 엄브릿지가 열심히 캐물었다.

"그럼 넌 덤블도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냐?"

"저... 그건 아니에요!" 헤르미온느가 훌쩍거렸다.

"우리는 다이애건 앤리에 있는 리키 콜드런과 스리 브룸스틱스, 심지어 호그스 해드까지 다 뒤져 보았지만~"

"멍청한 것- 지금 마법부 전체가 그를 찾느라고 난리인데, 덤블도어가 술집에 앉아 있을 리가 없지!"

엄브릿지는 촉 늘어진 얼굴 전체에 실망한 기색을 완연히 드러내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하지만 우린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헤르미온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꼭 가린 채, 울부짖었다. 하지만 해리가 보기에도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라, 눈물이 계속 나오지 않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래?"

엄브릿지가 갑자기 다시 활기를 띠었다.

"너희가 그와 이야기하려던 게 뭐였지?"

"우리는... 우리는 덤블도어 교수님께 주-준비되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헤르미온느가 목이 메어 말했다.

"뭐가 준비되었다는 거지?"

엄브릿지는 또다시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흔들었다.

"뭐가 준비되었다는 거야?"

"그... 그 무기요."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무기? 무기라고?"

엄브릿지의 눈알이 흥분으로 톡 튀어나올 것 같았다.

"너희들이 저항할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단 말이냐? 마법부에 맞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물론 덤블도어 교수의 지시에 의해서겠지?"

"마- 맞아요." 헤르미온느가 간신히 대답했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일이 끝나기 전에 떠나시게 되었 우리가 대신 끝낸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을 차-찾지 못해서 마-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종류의 무기지?"

엄브릿지는 뚱뚱한 손으로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거칠게 말했다.

"우-우리는 자-잘 올라요."

헤르미온느가 큰 소리로 코를 훌쩍거리며 말했다.

"우-우리는 그-그저 덤블도어 교-교수님이 하-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엄브릿지는 기쁨에 들떠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 무기가 있는 곳으로 날 안내해라."

"자 아이들에게는... 보여 줄 수 없어요."

헤르미온느가 손가락 사이로 슬리데린 아이들을 살펴보며 비명을 지르듯이 말했다.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엄브릿지 교수가 거칠게 말했다.

"좋아요."

헤르미온느는 다시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말했다.

"좋아요... 저 애들에게도 보여 주도록 하죠. 그래서 교수님께 써먹으면 정말 좋겠군요! 차라리 사람들더러 다 와서 보라고 하세요! 그-그럼 교수님도 만족하겠죠. 오, 학교 전체가 그 무기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사용법을 알게 된다면-그럼 교수님이 그들 중 누군가를 괴롭히면, 당장 교수님을 혼내 줄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엄브릿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의심스런 눈길로 재빨리 감사 위원회 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톡 튀어나온 그녀의 눈이 말포이에게 잠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갈망과 탐욕을 미처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브릿지는 한동안 헤르미온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어머니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 내며 말했다.

"좋다, 얘야. 너하고 나만 가도록 하자... 그리고 포터를 데려가도 되겠지? 자, 일어나라."

"교수님, 엉브릿지 교수님."

말포이가 간곡하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 중의 몇 명이 함께 가는 것이~"

"말포이, 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마법부의 공직자예요. 설마 내가 지팡이도 없는 아이들 두 명을 혼자 상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엉브릿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어쨌든 이 무기는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남아 있도록 해요. 그리고~"

엉브릿지는 론과 지니, 네빌, 루나를 손으로 가리켰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말포이는 낙심하고 심통 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엉브릿지는 지팡이로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가리켰다.

"앞장서라."

제 33 장 싸움과 탈출

헤르미온느가 지금 속으로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아니, 계획을 갖고 있거나 한지 해리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헤르미온느의 뒤에 바싹 붙어서 엉브릿지 교수의 방 밖 복도를 걸었다. 해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너무나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엉브릿지 교수가 바로 뒤에서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엉브릿지의 거친 숨소리가 해리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헤르미온느는 연회장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들어섰다. 이중문으로 닫힌 대연회장 안에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나이프와 스푼이 접시에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불과 6 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즐겁게 저녁을 먹고, 시험이 끝났다고 좋아서 떠들어 대고, 세사에 걱정거리라곤 없는 것처럼 신이 나 있는데...

헤르미온느는 떡갈나무 현관문을 곧장 나가서 돌계단을 내려갔다. 저녁 바람에 실려 온 향긋한 냄새가 코끝에 와 달았다. 해는 금지도니 숲의 우듬지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잔디밭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일부러 거기로 들어선 것 같았다. 엉브릿지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뛴 박질을 했다. 잔디 위에 드리워진 세 사람의 길고 검은 그림자가 꼭 펼럭이는 외투 자락 같았다.

"그것이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숨겨져 있지, 그렇지, 응?"

엉브릿지가 해리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잔뜩 애가 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헤르미온느가 양칼지게 쏘아붙였다.

"해그리드라면 실수로 작동시켰을지도 몰라요."

"맞아."

엉브릿지가 말했다. 그녀는 점점 더 흥분되어 가는 목소리였다.

"맞아.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 잡종이니까..."

엉브릿지가 깔깔 웃었다. 해리는 그만 확 돌아서서 역살을 잡고 싶은 생각이 활활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부드러운 저녁 공기에 달은 이마의 흉터가 심하게 육신거렸지만, 아직 타는 것처럼 뜨겁지는 않았다. 그러나 볼드모트가 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는 꼭 그렇게 되리란 걸 해리는 물론 잘 알고 있었다...

"그럼... 그것이 지금 어디 있지?"

엄브릿지가 물었다. 헤르미온느가 계속 숲을 향해서 걸어가자
엄브릿지는 조금 미심쩍어하는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가 시커먼 숲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어디길 어디예요? 저 안이죠. 우연히라도 학생들한테 발각되지 않을
곳에 숨겨 둬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물론이지."

엄브릿지가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아주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맞아... 그래야겠지... 그럼... 너희들이 앞장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라고요? 그럼 지팡이를 빌려 주실 거예요?" 해리가
말했다.

"안 돼. 그건 안 돼, 포터군."

엄브릿지가 지팡이로 해리의 등을 콕콕 찌르면서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마법부에서는 자네들보다는 내 목숨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거든."

서늘한 숲 그늘에 들어서면서 해리는 헤르미온느와 눈길을 마주치려고
애를 썼다. 지팡이 없이 숲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날 오후에 그들이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무모하고 바보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헤르미온느는
징그럽다는 듯이 엄브릿지를 한 번 사납게 쏘아보고는 곧장 숲 속으로
빨리 걸어 들어갔다. 엄브릿지가 그 짜리몽땅한 다리로 뒤따라오려면 아주
애를 먹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

찔레 덤불에 걸린 옷자락을 떼기 위해 걸음을 멈추면서 엄브릿지가
물었다.

"그럼요. 아주 꼭꼭 숨겨 놓았거든요."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해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헤르미온느는 지금 그들이 그룹을 만나러 갔던
길이 아니라, 3년 전에 해리가 거미 아라고그의 분지로 찾아갔던 길로
가고 있었다. 그때 헤르미온느는 같이 가지 않았다. 그 길의 끝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헤르미온느가 전혀 모르고 있는게 틀림없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어...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해리가 일부러 물어보았다.

"맞아."

헤르미온느가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아까부터 공연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뒤에서
엄브릿지가 땅바닥에 쓰러진 어린 나무에 갈이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나
헤르미온느도 해리도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가서 그 여자를 일으켜 주지
않았다. 헤르미온느는 앞만 보고 성큼성큼 걷다가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헤르미온느,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응?"

해리가 급히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브릿지가 요란하게 발소리를 내며
뛰어오고 있었다.

"넌 모른 척하고 있어..."

한참 더 들어가자 나무들이 하늘을 다 가린 곳이 나타났다. 해리는 어쩔
전에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누군가가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 멀었어?"

엄브릿지가 해리 뒤에서 성난 소리로 물었다.

"거의 다 왔어요!"

어둠침침하고 축축한 빈 터로 들어서면서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조금만 더 가면~"

화살 한 대가 피융 하고 날아와서 헤르미온느의 머리 바로 앞 나무에 쟁뜩한 소리를 내며 꽂혔다. 그리고 갑자기 숲이 떠나갈 정도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해리는 바닥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엄브릿지가 낮게 비명을 지르더니 해리의 등을 떠밀면서 마치 방패인 양 자기 앞을 가렸다.

해리는 그 손을 떨쳐 버리고 훅 돌아섰다. 오십 마리쯤 될 것 같은 켄타우로스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모두들 화살을 메운 활을 치켜들어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엄브릿지를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빈 터의 한가운데로 천천히 뒷걸음질쳤다. 겁에 질린 엄브릿지가 꼭 칭얼거리는 것처럼 이상야릇한 신음 소리를 내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았다. 헤르미온느는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엇 하는 인간들이냐?"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해리는 원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고리안이라 불리는 밤색의 켄타우로스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도 다른 켄타우로스들처럼 활을 치켜들고 있었다. 해리의 오른편에서는 엄브릿지가 아직도 칭얼거리는 듯한 신음 소리를 내면서 지팡이로 마고리안을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팔이 와들와들 떨리는 바람에 지팡이도 함께 와들와들 떨렸다.

"무엇하는 인간들이냐고 물었다."

마고리안이 거칠게 말했다.

"난 돌로레스 엄브릿지다! 마법부 차관님이시고, 호그와트 마법 학교 여교장님이자 장학사님이시다!"

"마법부 인간이라고?"

마고리안이 말했다. 빈 터를 에워싼 켄타우로스들 중에서 여렷이 조금 불안한 듯이 몸을 뒤척였다.

"그렇다!"

엄브릿지가 이번에는 아주 목청을 높였다.

"그러니까 알아서 모시란 말이야!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가 정한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너희 같은 잡종들이 인간을 공격했을 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만적으로 보이는 검은 켄타우로스가 벼락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그가 베인이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다. 사방에서 켄타우로스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헤르미온느도 빽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엄브릿지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아직도 부르르 떨리는 지팡이로 마고리안을 똑바로 겨눈 채 엄브릿지가 다시 말했다.

"그 법령 15 조 B 항에 명백히 이르기를, '인간에 가까운 지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마땅할 마법 생물의 공격에 대해서는-'"

"인간에 가까운 지능?"

마고리안이 말을 되받았다. 베인과 몇몇 켄타우로스들이 분해서 고함을 지르고 발굽으로 땅을 찔었다.

"이봐, 그건 우릴 모욕하는 말이야! 미안하지만 우리의 지능은 너희를 능가한단 말이야."

"우리 숲에 뭣 하러 왔어?"

얼굴이 몹시 딱딱하게 굳은 회색 켄타우로스가 벼락 소리쳤다. 지난번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숲에 들어왔을 때 보았던 켄타우로스였다.

"왜 여기 있는 거지?"

"뭐라고? 이 숲이 너희들 것이라고?"

엄브릿지가 부르르 떨면서 말했다. 엄브릿지를 부르르 떨게 하는 것은 이제 비단 무서움만이 아닌 것 같았다. 이제 엄브릿지는 몹시 분개하고 있었다.

"그새 잊어버렸는가 본데, 우리 마법부가 이 숲의 일부를 너희들에게- 화살 한 대가 또 날아와서 쥐털 같은 엄브릿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엄브릿지는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 두 손을 위로 쳐들고 얼굴을 가슴에 푹 파묻었다. 켄타우로스들이 신이 나서 고함을 지르고 이상야릇한 소리로 시끄럽게 웃어 댔다. 어둠침침한 숲 속의 작은 빈 터에 울려퍼지는 야릇한 웃음소리와 수많은 발굽들이 땅바닥을 굴러 대는 광경이 너무도 섬뜩했다.

"이 숲이 누구 것인지, 다시 말해 보실까?"

베인이 고함을 질렀다.

"더러운 잡종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엄브릿지가 빽빽 소리를 질렀다.

"짐승들! 막돼먹은 놈들!"

"조용히 하세요!"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어느새 정신을 차린 엄브릿지가 다시 지팡이를 마고리안에게 겨누고 외쳤다.

"인카서러스!"

굵은 뱀 같은 밧줄들이 허공에서 떨어지더니 마고리안의 상체를 칭칭 얹어매고 두 팔을 휘감았다. 그가 분노의 고함을 지르며 뒷발을 짚고 윗몸을 쳐들어 버둥거리자,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일제히 앞으로 튀어나왔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덥석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발굽들이 요란하게 땅을 찢어 대는 소리를 들으며 해리는 이제 공격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켄타우로스들은 고함과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뛰어넘고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

"안 돼애!" 엄브릿지의 비명 소리였다.

"안 돼애... 난 마법부 차관이야... 이러지 마... 놔, 이놈들... 안 돼!"

해리는 땅바닥에 엎드리기 직전에 빨간 빛이 번쩍이는 걸 얼핏 보고는

엄브릿지가 기절 마법을 시도했다는 걸 알아차렸었다. 그러나 그만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해리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들어 보았다. 베인이 엄브릿지의 등을 움켜잡은 채 공중에 쳐들고 있고, 엄브릿지는 겁에 질려서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질러 대고 있었다. 엄브릿지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해리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걸 집을 수만 있다면-

땅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으려고 해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켄타우로스의 발굽이 먼저 그걸 밟았다. 그러자 지팡이는 두 동강 나고 말았다.

"일어나!"

웬 목소리가 해리의 귀를 울렸다. 그리고는 털이 무성한 굵은 팔이 내려와서 그를 잡아 일으켰다. 헤르미온느도 일으켜 세워졌다. 마구 춤을 추는 온갖 색깔의 켄타우로스들의 뒷모습과 머리 너머로, 엄브릿지가 베인에게 잡혀서 나무 사이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잠시도 끊이지 않는 엄브릿지의 비명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윽고 요란하게 땅을 구르는 발굽 소리만이 남았다.

"이것들은 어쩌지?"

헤르미온느를 불들고 있던,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회색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아직 어린것들이야."

해리의 등 뒤에서 아주 느리고 음울한 목소리가 말했다.

"우린 어린것들은 손대지 않아."

"이것들이 저 여자를 데리고 왔어, 로넌."

해리를 억세게 움켜잡고 있는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별로 어리지도 않아... 이놈은 벌써 어른 티가 나는걸. 이 녀석 말이야."
그는 해리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었다.
"제발, 제발 좀 봐주세요. 우린 저 여자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린 마법부
직원이 아니에요! 우린 단지 여기 오면 당신들이 저 여자를 혼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헤르미온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말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움켜잡은 회색 켄타우로스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가 방금 말을 잘못해도 아주 크게 잘못했다는걸 알아차렸다. 회색
켄타우로스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 뒷다리로 땅바닥을 쿵쿵 짚으면서
고함을 버럭버럭 질렀다.
"봤지, 로넌! 이 어린것들이 벌써 인간들의 교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요 계집애야, 그러니까 우리더러 너희들의 더러운 일을 대신 해달라는
거지? 너희들의 종이 되라는 거지? 말 잘 듣는 사냥개처럼 너희들의 적을
없애 달라는 거지?"
"아녜요!"
헤르미온느가 이젠 정말로 공포에 질려서 꽉 소리를 질렀다.
"아녜요-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난 그저 당신들이 우리를-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그러나 헤르미온느는 스스로를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우린 인간들을 돋지 않아!"
해리의 목덜미를 움켜잡은 켄타우로스가 으르렁거렸다. 그가 손아귀에
더욱 힘을 주고, 윗몸을 뒤로 젖혀 댔다. 그 바람에 해리의 두 발이 땅에서
잠깐 잠깐씩 떨어졌다.
"우린 인간들과는 다른 종족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우린 너희들이 이 숲에서 제발로 걸어 나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면
우리가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떠벌릴 테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당신ㄷ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해리가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뒤쪽에 서 있던 턱수염
난 켄타우로스가 소리쳤다.
"저희들 맘대로 여기 들어왔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 말이 옳다고 질러 대는 고함 소리가 가라앉자, 몸이 온통 암갈색인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아까 그 늙은 여자처럼 해 버려!"
"죄 없는 인간은 해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헤르미온느가 이젠 정말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쳤다.
"우린 당신들을 해칠 짓을 하지 않았어요. 우린 지팡이로 당신들을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우린 그냥 학교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제발
보내 주세요."
"이봐, 우린 배신자 피렌체하고 달라!"
회색 켄타우로스가 소리쳤다. 그러자 또 그 말이 옳다고들 고함이
터졌다.
"넌 우리가 고분고분한 말이라 생각했겠지? 아니야! 우리는 마법사들이
쳐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는 걸 눈 뜨고는 못 보는 아주 구식 종족들이야.
우린 인간들의 법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어. 우린 인간들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 우린-"
그러나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켄타우로스 종족이 또 어떤 훌륭한 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바로 그 순간에
빈 터의 가장자리 어딘가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해리와 헤르미온느, 그리고 오십여

마리의 켄타우로스들 모두가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리를 움켜잡고 있던 켄타우로스가 황급히 활을 쳐들고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으려고 손을 놓은 바람에 해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헤르미온느도 땅바닥에 떨어졌다. 해리가 벌떡 일어나서 헤르미온느한테로 다가가려는 순간, 두 그루의 거대한 나뭇등걸이 짜억하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더니, 몰골이 너무도 흉측한 거인 그룹이 나타났다.

가까이에 있던 켄타우로스들이 뒤로 물러났다. 숲 속의 빈 터에 작은 숲이 하나 더 생겼다. 활과 화살들의 숲, 하늘을 가린 무성한 나뭇가지들 밑에 높다랗게 땨 있는 거대한 회색 얼굴을 향해 곧 쏘아 올리려고 치켜든 활과 화살들의 숲이었다. 빠딱하게 걸린 거인의 입이 우스꽝스럽게 쪽 벌어져 있었다. 벽돌만 한 누런 이빨들이 어둠침침한 빛 속에서 번득이고, 탁한 갈색의 두 눈을 가늘게 뜯 거인이 발밑에서 우글거리는 작은 생물들을 쳐다보았다. 거인의 두 발목을 묶었던 밧줄들이 너덜너덜하게 터져서 땅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거인이 입을 더욱 크게 벌려 말했다.

"해거."

해리는 '해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랐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거인의 두 발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거인의 발은 해리의 키만큼이나 길었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팔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고, 켄타우로스들은 거의 아무소리도 내지 않은 채 거인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거인은 거대하고 둥근 머리를 천천히 이리저리 돌리면서 발밑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방금 땅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해거!"

거인이 또 말했다. 이번에는 좀더 힘이 들어간 목소리였다.

"어서 꺼져, 이 거인아. 우린 너한테는 볼일이 없어!"

마고리안이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룹에겐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룹이 몸을 조금 수그리고(그러자 활시위를 당기고 있던 켄타우로스들의 팔뚝에서 힘줄이 일제히 불끈 솟았다) 고함을 질렀다.

"해거!"

몇몇 켄타우로스들이 이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헤르미온느가 숨이 턱 멈추는 소리를 내었다.

"해리! 저 거인이 해그리드를 찾는 거 같아!"

헤르미온느가 소곤소곤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거인이 켄타우로스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인간인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보았다. 그룹이 다시 입을 적 벌리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헤르미."하고 말할 때,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맙소사."

헤르미온느가 곧 까무라칠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말했다.

"거인이- 거인이 기억했어!"

"헤르미!" 그룹이 고함을 질렀다.

"해거 어디 있어?"

"난 몰라!" 헤르미온느가 꽉꽉 소리를 질렀다.

"미안해, 그룹, 난 몰라!"

"그룹이 해거를 원해!"

거인의 거대한 손 하나가 그들을 향해 휙익 내려왔다. 헤르미온느가 진짜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가 벌렁 넘어졌다. 해리는 지팡이가 없기 때문에 거인의 손이 자신을 덮치려 들다 눈처럼 하얀 켄타우로스 한 마리를 넘어뜨리자,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로 물어뜯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가했다.

켄타우로스들이 기다리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오십여 개의 화살들이

허공을 날아가서 거인의 거대한 얼굴에, 마치 후춧가루가 확 뿌려지는 것처럼 박혔다. 거인이 고통으로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며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거대한 두 손으로 얼굴을 마구 문질렸다. 화살대는 우뚝우뚝 부러졌지만 화살촉들은 얼굴에 더욱 깊이 박혔다.

거인이 괴성을 지르며 거대한 두 발로 땅을 굴러 대자 켄타우로스들이 사방으로 훑어졌다. 거인의 얼굴에서 떨어진 자갈만 한 핏방울들이 헤르미온느를 일으켜 세우고 있던 해리에게 쏟아졌다. 그들은 온힘을 다해서 숲 속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인은 마치 땀을 뺏が高い 흘리는 것처럼 피를 똑똑 흘리면서 켄타우로스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채고 있었다. 아직 멀쩡한 켄타우로스들이 빈 터의 저쪽으로 달아났다. 그룹이 다시 한 번 숲이 떠나가도록 광란의 괴성을 지르고는 그들의 뒤를 성큼성큼 따라갔다. 나무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세상에, 세상에, 너무 무서워. 저러다가 다 죽이겠어..."

헤르미온느가 곧 쓰러질 것처럼 무릎을 휙들거리면서 말했다.

"솔직히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해리가 부루퉁하게 말했다.

달아나는 켄타우로스들의 발굽 소리와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해리의 흉터가 또 심하게 욱신거리고, 공포의 물결이 온몸을 훑쓸었다.

그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다. 시리우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동안에 해리는 지팡이를 잊어버린 데다가, 지금은 또 금지된 숲 속에서 아무 이동 수단도 없이 서 있는 것이었다. "참으로 현명한 계획이었어."

부아가 치민 심정을 털어 버리려는 듯이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한마디 내뱉었다.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어.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하지?"

"성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힘없이 말했다.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땐 시리우스가 벌써 죽은 뒤일 거야!"

해리는 곁에 선 나무를 걷어찼다. 머리 위에서 무엇인가가 몹시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투덜거렸다. 해리는 고개를 뒤로 젖혀 보았다. 잔뜩 골이 난 보우트러를 한 놈이 기다란 손가락을 펴서 해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음, 지팡이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헤르미온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풀 죽은 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렇고, 해리. 너 런던까지 도대체 무슨 수로 갈 작정이었니?"

"맞아, 우리도 그게 궁금했어."

헬미온느의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라 움찔하고는 나무들 사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먼저 론이 나타나고, 지니와 네빌, 그리고 루나가 바로 뒤이어서 나타났다. 하나같이 몰골이 엉망이었다. 지니의 뺨에는 길게 긁힌 상처가 여럿 나 있고, 네빌의 오른쪽 눈 위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론의 입술에서는 더욱더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다들 기분은 무척 좋은 것 같았다.

낮게 드리운 가지를 젖히고 다가와서 해리에게 지팡이를 건네주며 론이 말했다.

"괜찮은 생각이라도 있었어?"

"어떻게 빠져나왔지?"

지팡이를 받아쥐면서 해리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기절 마법과 무장 해제 마법을 썼지. 네빌은 장애 마법을 정말 멋지게 해냈어."

론이 몹시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하고는, 헤르미온느에게도 지팡이를 건네주었다.

"지니가 최고였어. 말포이를 처치했거든. 박쥐 귀신 주문으로 혼내

쳤다고, 정말 볼 만했어. 날개를 퍼덕이는 커다란 놈들이 말포이 얼굴을 온통 덮어 버렸다니까. 그건 그렇고, 우린 너희들이 숲 쪽으로 가는 걸 창문으로 내다보고 따라왔어. 엄브릿지는 어떻게 됐어?"

"잡혀갔어." 해리가 말했다.

"肯타우로스들이 끌고 갔어."

"肯타우로스들이 너희들은 그냥 두고 돌아갔어?"

지니가 흠칫 놀라면서 물었다.

"그게 아니고, 그룹한테 쫓겨 갔어."

해리가 대답했다.

"그룹이 누구야?"

루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해그리드의 동생이야."

론이 얼른 대답했다.

"어쨌거나 그건 지금 신경 쓸거 없어. 해리, 벽난로를 통해서 월 알아냈니? 그 사람이 시리우스를 잡은 거야? ... 아니면...?"

"그래."

해리가 말했다. 그의 흉터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

"난 시리우스가 아직 살아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빨리 구하려 가야겠는데, 갈 방법을 모르겠어."

모두들 말이 없었다. 조금 겁에 질린 표정들이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었다.

"음, 당연히 날아가야 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해리가 들은 중에 가장 말짱한 목소리였다.

"너 잘 들어. 첫째, 네가 끼면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둘째, 트롤 경비원들이 지티지 않는 빗자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론뿐이야. 그러니까--" 해리가 루나에게로 돌아서서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빗자루는 나한테도 있어." 지나 말했다.

"알아, 그렇지만 넌 안 돼."

론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미안해, 그렇지만 나도 시리우스가 너무 걱정된단 말이야!"

지니가 말했다. 꼭 다문 지니의 입 모양은 프레드와 조지를 꼭 빼다 박은 모습이었다.

"넌 너무--" 해리가 입을 열었다.

"난 네가 마법사의 돌을 놓고 그 사람하고 싸웠을 때보다 세 살이나 많아."

지니가 화를 버럭 내면서 말했다.

"말포이가 엄브릿지 교수의 발에 갇혀서 거대한 박쥐 날개한테 혼이 났던 것도 내 덕분이었고--"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다같이 D.A.에서 방어술을 배웠어."

네빌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그걸 배운 건 그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걸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첫 번째 기회라고 나는 생각해. 그게 아니라면, 모든 게 장난이었던단 말이야?"

"아니야-물론 그건 아니고--"

해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 해, 우리도 돋고 싶어."

네빌이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옳으신 말씀이야."

루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다.

해리와 론의 눈이 마주쳤다. 해리는 지금 론과 자기의 생각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리우스를 구하려 가기 위해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 이외에,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같이 배웠던 아이들 중에서 몇몇을

고르라고 한다면 지니와 네빌과 루나만은 절대 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갈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해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얘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루나가 이젠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다.

"날아가잔 말이야!"

"이봐, 넌 빗자루 없이도 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날개가 돌아나게 할 재간이 없단—"

화를 간신히 참으면서 론이 말했다.

"빗자루를 타지 않고도 날아갈 방법이 있어."

루나가 그새 또 차분하게 말했다.

"캑키 스노글의 등을 타고 간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소릴 하려고?"

론이 말했다.

"크럼플 혼드 스놀캑스는 못 날아."

루나가 제법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저들은 날 수 있어. 또 해그리드한테 들었는데, 저들은 등에
탄 사람이 가려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낸대."

해리가 흑 돌아섰다. 하얀 눈동자가 섬뜩하게 빛나는 세스트랄 두 놈이,
마치 그들의 열띤 토론을 단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이해했다는
듯이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됐어!"

해리가 작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파충류처럼 생긴
머리를 연방 까닥거리며 검고 긴 갈기를 추켜세웠다. 해리는 한 손을
내밀어서 앞쪽에 선 놈의 반짝이는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어떻게 이들을
징그럽다고 생각했을까?

"미치광이 같은 말인가 원가 하는 그 괴물이야?"

론이 해리가 목덜미를 만져 주고 있는 세스트랄의 왼쪽 옆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누군가 죽는 걸 보지 못하면 볼 수 없다는 그 짐승들 말이지?"

"응." 해리가 대답했다.

'몇 마리야?'

'둘뿐이야.'

"음, 셋이어야 하는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넷이야, 헤르미온느."

지니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말했다.

"난 여섯이라고 생각하는데?"

루나가 수를 세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멍청한 소리 집어치워. 다 같이 갈 수는 없어."

해리가 버럭 소리쳤다.

"이봐, 너희 셋."

그는 네빌과 지니와 루나를 가리켰다.

"너희들은 제발 빼져 줘. 너희들은—"

그들이 또 버럭버럭 대들었다. 해리의 흉터가 또 발작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심하게 육신거렸다. 지연되는 순간순간이 모두
귀한 시간이었다.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좋아, 알았어. 좋을 대로 해. 그렇지만 세스트랄이 더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가는 거야—"

해리가 뿌루퉁하게 말했다.

"아, 더 올 거야."

지니는 자신 있게 말하며 론처럼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지니는 지금 자기가 말처럼 생긴 그 짐승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너하고 헤르미온느는 지금
피투성이야."

지니가 태연하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해그리드가 세스트랄들을 부를 때 날고기를 이용한다는
것 말이야. 지금 저 두 녀석이 타나난 것도 아마 그것하고 비슷한
이유겠지..."

해리는 자기의 옷자락이 조금 당겨지는 걸 느끼고 얼른 고개를 숙여
보았다. 그룹의 피로 흠뻑 젖은 소매를 세스트랄이 짚고 있었다.

'그래, 좋아.'

해리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론하고 나는 이 두 녀석들을 타고 먼저 가겠어. 헤르미온느만 남아
있으면 더 나타나겠지."

"난 지금 같이 갈 거야!"

헤르미온느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루나가 방긋 웃으면서 말했다.

"저것 봐, 저기 오고 있잖아... 너희들은 정말 냄새가 지독한가 봐...."

해리가 돌아섰다. 예닐곱 마리의 세스트랄들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죽처럼 번들번들한 커다란 날개를 접어서 몸에 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들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허옇게 빛났다. 이제 해리는 더
이상 둘러댈 구실이 없었다.

"좋아. 그럼 하나씩 잡아타고 가자고."

해리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제 34 장 미스터리 부서

해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세스트랄의 갈기를 한 손으로 단단히
거머쥐고, 때마침 곁에 있던 나무 그루터기에 한 발을 딛고는 미끈미끈한
등에 엉거주춤 올라앉았다. 세스트랄은 싫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빨을 훤히 드러내고는 고개를 까닥까닥 흔들면서 그의 망토 자락을
핥으려고만 했다.

해리는 세스트랄의 날갯죽지 밑에 두 무릎을 꼭 끼워 붙여서 그런대로
자세를 편안하게 한 다음에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네빌은 해리의 바로
옆에 있는 세스트랄의 등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짧은 한쪽 다리를
등의 저편으로 넘기려고 꿩끙대고 있었다. 루나는 두 발을 한쪽으로
모아서 아주 편안한 듯이 등에 앉아서 벌써 망토 자락까지 가지런히
추슬러 두고 있었다. 마치 날마다 해 본 사람 같았다. 그러나 론과
헤르미온느와 지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서 입만 반쯤 벌린채
멍하니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고 있어?" 해리가 물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타란 말이야?"

론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전혀 어렵지 않아."

루나가 말했다. 그러고는 냉큼 땅에 내려서서 론과 헤르미온느와 지니 앞으로 다가갔다.

"이리 와 봐...."

루나는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들을 세스트랄한테로 데리고 가서 하나씩 차례로 등에 올려 주고, 손을 잡아끌어서 갈기를 쥐어 주고, 절대로 놓지 말라고 이르고는 자기 말한테로 돌아갔다.

"이건 말도 안 돼."

론이 갈기를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말의 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말했다.

"말도 안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게 차라리 다행일 거야."

해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 다들 준비됐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다섯 명의 무릎에 힘이 단단히 들어간 것을 보았다.

"그럼...."

해리는 번질번질 빛나는 세스트랄의 새카만 뒤통수를 내려다보면서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그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것처럼 어물어물 말했다.

"런던, 마법부, 손님용 입구.... 음.... 하여간에.... 알아서 찾아가 봐...."

그의 세스트랄이 잠깐 동안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해리를 곧 떨어뜨릴 것처럼 크게 한 번 몸을 뒤척이더니, 세스트랄이 양쪽 날개를 쭉 펼치고 뒷다리를 굽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는 너무도 빠르고, 너무도 가파르게,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해리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말의 몸에 착붙여야 했다. 그가 두 눈을 질끈 감고 비단결 같은 갈기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숲의 꼭대기를 뚫고 올라가 핏빛처럼 새빨간 석양 속으로 떠올랐다.

해리는 자기가 지금처럼 빠르게 날아 본 적이 또 있었던가 싶었다.

세스트랄은 거의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서 성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찰싹찰싹 때렸다. 세차게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 때문에 눈을 단춧구멍처럼 가늘게 뜨고, 해리는 고개를 조금 뒤로 돌려 보았다. 다섯 친구들이 공중에 떠올라서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해리의 세스트랄이 일으킨 뒷바람에 휙쓸리지 않으려고 세스트랄의 목에 윗몸을 납작하게 바싹 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호그와트를 지나 호그스미드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산과 도량들이 보였다. 점점 짙어 가는 땅거미 속에서 드문드문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다. 꼬불꼬불 돌아가는 어느 산길에서는 차 한 대가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정말 신기하다!"

뒤에서 론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지한 채, 빠르게 하늘을 나는 론의 기분이 어떨지를 해리는 잠깐 상상해 보았다. 어스름이 내렸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자줏빛 하늘에 작은 은빛을 내는 별들이 점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지 않아서 머글들이 사는 작은 도시의 불빛만이 지금 그들이 얼마나 높이 떠서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었다. 해리는 세스트랄의 목에 감은 두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러면 세스트랄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날아가 줄 것 같았다. 시리우스가 미스터리 부서의 바닥에 누워 있는 걸 본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걸까? 시리우스는 얼마나 더 오래 볼드모트를 견뎌 낼 수 있을까? 지금 해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리우스는 볼드모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그 사이에 만약 둘 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말이 났다면, 볼드모트의 환희 혹은 분노가 그의 몸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즐리 씨가 공격을 받았던 그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흉터가 견딜 수 없도록 아파 왔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둠이 더욱 깊어져 갔다. 해리의 얼굴은 뺏뻣하게 굳다 못해서 곧 얼어 버릴 것 같았고, 세스트랄의 옆구리를 안간힘을 다해서 누르고 있는 두 다리는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얼얼했다. 그러나 그는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버릴까 봐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거센 바람 소리에 귀가 멀어 버린 것 같았고, 너무도 차가운 밤바람에 입이 바싹 마른 채 얼어 가고 있었다. 얼마나 멀리 날아왔는지조차도 감지할 수 없고, 믿을 것이라고는 오직 지금 그가 몸을 맡기고 있는 이 짐승뿐이었다. 짐승은 어쩌다가 한번씩 날갯짓을 하고 그저 앞만 쳐다보면서 밤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만약 너무 늦게 도착한다면...

그는 아직 살아 있어. 그는 아직 싸우고 있어. 난 그걸 느낄 수 있어... 시리우스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드모트가 판단한다면... 난 그것도 알 수 있어...

갑자기 뱃속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세스트랄의 머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곧추 땅을 향했고, 그 바람에 몸이 앞으로 몇 센티미터쯤 쓸렸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뒤에서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해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줄도 모르고 얼른 고개를 돌려 보았다. 그러나 추락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전의 자기처럼 그들도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깜짝 놀랐을 것이다. 사방에서 밝은 오렌지색 불빛들이 점점 커져 가고 점점 둉글러져 갔다. 건물의 옥상들이 보이고 무슨 곤충의 눈처럼 흐릿한 전조등이 출지어서 있는 거리들이 보였다. 엷은 노랑색 사각형은 불이 켜진 창문들이었다. 갑자기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번뜩 들었다.

해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세스트랄을 불들었다. 그러나 세스트랄은 어둠에 잠긴 땅바닥에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내려섰다. 해리는 세스트랄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높다란 쓰레기 더미가 아직도 거기에 있었고, 바로 근처에는 또 험하게 부서진 공중전화 박스가 그대로 있었다. 쓰레기 더미에도 전화 박스에도 흐릿한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이 비쳤다.

론을 등에 태운 세스트랄이 땅에 내려서면서 론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다시는 안 탈 거야."

론이 뒤뚱뒤뚱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그는 어서 세스트랄과 멀리 떨어지고 싶다는 듯이 성큼성큼 걸었다. 그러나, 물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는 세스트랄의 엉덩이에 부딪혀서 또 넘어질 뻔했다.

"다시는, 다시는 안 탈 거야... 정말 최악이야--"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론의 양쪽에 내려섰다. 둘 다 론보다는 훨씬 더 맵시 있게 땅에 내려섰지만, 다시 땅을 딛고 섰다는 안도의 표정만은 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빌은 풀짝 뛰어 내려서 부르르 몸서리를 치고, 루나는 탈 때처럼 태연하게 내려섰다.

"이제 여기서는 또 어디로 가지?"

루나가 해리한테 물었다. 무슨 신나는 소풍이라도 나온 것 같은 목소리였다.

"다 왔어."

해리가 버럭 대답했다. 그러고는 타고 온 세스트랄을 얼른 한 번 토닥여 주고, 험하게 부서진 공중전화 박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문을 열어젖혔다.

"뭐 하고 있어!"

그가 쭈뼛거리고 서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론과 지니가 얼른 다가왔다. 그러자 헤르미온느, 네빌, 루나가 서로 앞을 다투어 그들의 뒤를 따라왔다. 해리는 한 번 더 세스트랄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새 쓰레기 더미를 에워싸고 마구 들쑤셔 대면서 썩은 음식을 우적우적 먹고 있었다. 그리고 해리는 루나의 뒤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전화기 옆에 선 사람, 6,2,4,4,2 놀러!" 해리가 말했다.

전화기 옆에 있었던 사람은 론이었다. 그는 이상하게 팔을 구부려서 번호판을 눌렀다. 윙 하는 신호음이 울리더니 여자의 낭랑한 목소리가 전화 박스 안을 울렸다.

"마법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명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리 포터, 론 위즐리,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해리가 속사포처럼 이름을 읊었다.

"지니 위즐리, 네빌 롱바텀, 루나 러브굿... 우리는 친구를 구하러 왔습니다. 마법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여자의 낭랑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손님 여러분, 배지를 집으신 다음 가슴에 달아 주십시오."

반환되는 동전이 나오는 구멍에서 배지 여섯 개가 주르르 쏟아졌다.

헤르미온느가 그걸 손바닥에 주워 담아서 지니의 머리 너머로 해리에게 내밀었다. 해리는 맨 위에 얹힌 것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해리 포터 구출 특명단

"마법부에 오신 손님 여러분께서는 보안 검색대에서 지팡이를 등록하시고 검색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검색대는 중앙 홀 제일 아래층에 있습니다."

"됐어!"

해리가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의 흉터가 한 번 육신거렸다.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전화 박스의 바닥이 흔들리고, 주위의 보도가 위로 솟아올랐다. 쓰레기 더미를 쑤셔 대는 세스트랄들이 머리 위로 사라지고, 철흑의 어둠이 그들 머리 위를 덮었다. 몹시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그들은 땅속의 마법부로 내려가고 있었다.

가느다란 한 줄기 황금 불빛이 그들의 발을 비추고, 그 불빛은 점점 더 넓어지면서 그들의 몸을 비추었다. 해리는 그 좁은 곳에서도 지팡이를 능숙하게 잡은 채, 무릎을 꽂고 앉아서 유리 틈에 눈을 대고 중앙 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중앙 홀은 텅 비어 있었다. 깜깜한 밤인데도 빛은 낫보다도 더 흐릿했다. 벽의 곳곳에 설치된 벽난로들 어디에도 불은 지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승강기처럼 땅속으로 내려가던 전화 박스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멈추었을 때, 짙은 푸른색 천장에서는 황금색 상징들이 여전히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럼,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뵙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박스의 물이 활짝 열리고, 맨 먼저 해리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네빌과 루나가 뒤이어 나왔다. 중앙 홀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황금 분수대에서 쉬지 않고 물을 내뿜는 소리뿐이었다. 마법사와 마녀의 지팡이, 켄타우로스의 화살, 도깨비의 뾰족한 모자와 집요정의 뾰족한 두 귀에서 뿐만 나오는 물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수반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쪽이야."

해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들 여섯 명은 홀을 달려갔다.

해리가 앞장을 서서 분수대를 지나 전에 지팡이의 무게를 재는 경비 마법사가 앉아 있었던 책상 쪽으로 달려갔다. 그 책상은 지금은 비어 있었다.

해리는 당연히 경비 마법사가 있어야만 하는 그 책상이 비어 있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황금색 문들을 지나서 승강기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갈 때에는 그의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해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강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순식간에 승강기 한 대가 덜컹거리며 나타나, 아주 크고 요란하게 철컥덩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황금 창살문이 열렸다. 그들은 우르르 승강기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가 9 층 버튼을 눌렀다. 아니,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창살문이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닫히고는 딸랑거리고 덜커덕거리면서 승강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해리는 위즐리 씨와 함께 왔던 그날에는 승강기가 이렇게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줄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그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경비 마법사들에게 들리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곧 이어 승강기가 멈추었다. 여자의 낭랑한 그 목소리가 '미스터리 부서입니다.'라고 말하고, 창살문이 열렸다. 그들은 복도로 나섰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승강기 근처의 횃불 몇 개가 승강기가 멈추면서 일으킨 바람에 일렁거릴 뿐이었다.

해리는 아무 장식도 없이 깃털한 검은 문을 향해 돌아섰다. 몇 달 동안이나 꿈에서 보았던 그곳에 드디어 온 것이었다.

"가자."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루나가 입을 조금 벌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그의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갔다.

"있잖아..."

해리가 그 문에서 2 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말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두어 명은 여기서 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망을 보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알리지?

까마득히 멀리 가 있을 텐데..."

지니가 눈썹을 추켜올리며 말했다.

"다 같이 가는 거야, 해리." 네빌이 말했다.

"부딪쳐 보는 거지 뭐." 론이 단호히 말했다.

해리는 여전히 그들을 다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검은 문 쪽으로 돌아서서 앞으로 나갔다. 꿈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가 다가가자 문이 활짝 열렸다. 그가 문턱을 넘어 들어가고, 친구들이 그의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 들어갔다.

그들은 넓고 둥근 방 안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검었다. 바닥도 검고 천장도 검었다. 아무 표지도 없고 손잡이도 없는, 다 똑같이 생긴 문들이 사방의 검은 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었고, 벽에는 촛불들이 드문드문 걸려 있었다. 검은 대리석 바닥에 촛불 불빛이 빛나는 모습은 마치 바닥이 검은 물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아무나 문 좀 닫아." 해리가 소리쳤다.

맨 뒤에 서 있던 네빌이 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해리는 문을 닫으라고 말한 걸 후회했다. 복도에서 기다란 때처럼 비쳐 들어오던 횃불 불빛이 사라지자 실내가 너무나 깁깝해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벽에서 가늘게 일렁이고 있는 푸른 촛불들과 그 불빛이 바닥에 되비치는 희미한 잔영뿐이었다.

꿈속에서 해리는 늘 입구 바로 맞은편 벽에 난 문을 향해서 곧장 실내를 가로질러 그 문으로 들어갔었다. 그러나 지금 그 방의 벽에는 문이 열두 개나 있었다. 해리가 바로 맞은편 벽에 있는 문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어느 문이 꿈속의 그 문인지를 분간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요란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오 촛불들이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둥그런 벽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헤르미온느는 바닥까지도 움직일까 봐 겁이 났는지 해리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그러나 바닥은 움직이지 않았다. 벽이 더 빨리 돌자 촛불들이 잠깐 동안 네온사인 막대기처럼 길게 늘어지고 흐릿해졌다. 그리고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처럼 갑자기, 요란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벽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해리의 두 눈동자에서 푸른 빛의 띠들이 춤을 추었다. 그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금 그게 뭐 하는 수작일까?"

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온 문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게 분명해."

지니가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해리는 지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시커먼 바닥 위를 기어가는 개미만큼이나 어느 문이 출구인지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문은 그들을 빙 둘러싸고 있는 열두 개의 문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네빌이 높시 불안한 듯이 말했다.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해리가 눈에 어른거리는 푸른 빛의 띠들을 지우려고 눈을 끔벅거리고, 지팡이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시리우스를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너 여기서 그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부르면 어떻게 해!"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말했다. 해리에게는 참으로 적절한 충고가 아닐 수 없었다. 아직은 그곳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지, 해리?" 론이 물었다.

"나도 몰라~" 해리가 입을 열었다가 이내 도로 삼켰다.

"꿈속에서는 내가 승강기에서 내려서 복도 끝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캄캄한 방이었어. 거기가 바로 이 방이야. 그리고 그 방에서 또 어떤 문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은... 그래, 맞아,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빛이 있는 방이었어. 아무 문이나 몇 개 골라서 들어가 보자." 그가 조금 다급하게 말했다.

"내 눈으로 보면 그 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해리가 그의 바로 앞에 있는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친구들이 바싹 붙어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해리는 서늘하고 빛나는 그 문에 왼손을 대고, 지팡이를 잡은 오른손을 머리 위에 치켜들고는 문을 밀었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천장에서부터 드리워진 황금 사슬에 매달린 등불들이 커져 있었다. 기다란 사각형의 그 방도 그리 밝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방이 위낙 캄캄했던 탓인지 아주 밝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해리가 꿈에서 보았던,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 몇 개가 있고 정확히 한가운데에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수조가 놓인 것 이외에는 거의 텅 빈 방이었다. 짙은 초록색 물이 채워진 수조는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도 될 만큼 거대했다. 짙은 초록색 물 속에는 진주처럼 하얀 물체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저게 뭐지?" 론이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몰라." 해리가 대답했다.

"물고기야?" 지니가 숨을 죽이고 물었다.

"저건 아쿠아바이러스 마got이야. 마법부에서 저런 걸 키운다는 얘기를 아빠한테 들었어..." 루나가 대답했다.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이상야릇한 목소리로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수조 앞으로 다가가서 안을 들려다보았다.

"이건 뇌야."

"뇌?"

"그래... 이런 걸 왜 갖다 놨을까?"

해리도 헤르미온느의 옆에 가서 그걸 들여다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헤르미온느의 말이 과연 옳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콜리 플라워같이 생긴 섬뜩하도록 허연 물체들이 짙은 초록색 물 속에 둉둥 떠다니고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이 방은 아니야. 다른 방에~"

해리가 말했다.

"여기도 문이 많은데?"

룬이 사방의 벽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해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대체 여기는 얼마나 넓은 것일까?

"꿈속에서 난 캄캄한 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갔었어. 그 두
번짜 방이 지금 우리가 찾는 방이야. 빨리 나가서 다른 방에 들어가 보는
게 좋겠어."

그들은 다시 그 캄캄하고 둉근 방으로 나왔다. 해리의 눈 앞에는 이제
촛불의 푸른 빛 띠들이 아니라 섬뜩하도록 허연 뇌들이 어른거렸다.

"잠깐 기다려!"

마지막으로 방에서 나온 루나가 막 문을 닫으려 할 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플래그레이트!"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를 쳐들고 휘두르자 그 문에 불이 활활타는 X 자가
그려졌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또 요란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벽이
아주 빠르게 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네온사인 막대같이 길게 늘어진
푸른 불빛들 속에 엄청나게 밝은 붉은색과 황금색의 띠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멈추었을 때는 활활 타던 그 X 자에 여전히 불꽃이
조금 남아서 그들이 방금 들어갔다가 나온 문이 바로 그 문임을 가르쳐
주었다.

"정말 잘했오. 자, 이번에는 이 문으로~"

해리는 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문으로 걸어가서, 지팡이를 쥔 손을
치켜들고 원손으로 그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친구들은 그의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 들어갔다.

좀 전의 방보다 훨씬 넓은 방이었다. 어둠침침하고, 사각형이었으며,
한가운데가 6 미터 정도 웅푹 깨진 거대한 돌 구덩이 같은 방이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마치 원형극장처럼 한가운데의 구덩이를 향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룬 둥그런 돌계단의 제일 꼭대기였다. 그 방은 해리가
위즌가모트에게 심문을 받았던 그 법정과도 흡사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법정과는 확실하게 다른 게 있었다. 웅푹 거진 바닥에 쇠사슬이 감긴
의자가 아니라, 돌로 쌓은 그리 높지 않은 제단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단 위에는 역시 돌로 쌓은 아치문이 서 있었다. 군데군데 틈이
벌어져서 곧 무너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아치문은, 어쩐지
고풍스러워 보였다.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 주는 벽도 없이 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문에는 누더기같이 너덜너덜한 검은 베일이 드리워져
있었다. 몹시 차가운 방 안의 공기엔 한 점의 요동도 일지 않았지만 방금
누군가가 건드린 것처럼 베일이 가볍게 일렁이고 있었다.

"거리 누구지?"

해리가 한 계단 뛰어내리면서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베일은
여전히 보일 듯 말 들틀 일렁였다.

"조심해!"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서 웅푹 깨진 구덩이의 돌바닥에 내려섰다.
제단을 향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그의 발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제단 위에 전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아치문은 계단 꼭대기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았다. 거기에 드리워진 누더기 같은 검은
베일은... 그새 또 누군가가 들추고 지나간 것처럼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다.

"시리우스?"

해리는 한 번 더 불러 보았다. 가까워진 만큼 더 작아진 목소리로...
그는 아치문에 드리워진 베일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너무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지팡이를 더욱 단단히 쥐고 해리는 제단
옆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누더기 같은 검은 베일의
다른 쪽 면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가자!"

헤르미온느가 계단 중간쯤에 서서 말했다.

"이 방은 아니야. 해리. 올라와..."

헤르미온느의 목소리에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짙은 초록색 물 속의 뇌를 보았던 면접번 방에서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아치문이 비록 위태롭게 서 있기는 하지만 어쩐지 아름다워 보이는 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천천히 일렁이는 베일이 그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 같았다. 그는 제단 위로 올라가서 아치문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해리! 나가자니까!" 헤르미온느가 더 강경하게 말했다.

"응, 알았어."

그러나 해리는 돌아서지 않았다. 거기서 방금 무슨 소리를 틀림없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베일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소곤소곤 중얼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그의 귀에 들리고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해리가 이젠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돌계단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방 안에 용웅 울려 퍼졌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해리!"

헤르미온느가 화를 내면서 바らく 소리치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저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어."

해리는 다가오는 그녀를 멀리하면서 인상을 쓰며 계속 베일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론, 너 거기 있니?"

"난 여기 있어."

론이 아치문 옆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저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베일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해리는 자기도 모르게 계단 위에 한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도 들려."

루나가 숨을 토하면서 말했다. 그녀는 아치문 옆을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천천히 일렁이는 베일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

"'저 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헤르미온느가 계단 맨 아래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안'이란 건 없어, 저건 단지 아치문일 뿐이야. 누가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리- 그만둬- 빨리 나가-"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팔을 잡았지만 해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 손을 뿌리쳤다.

"해리, 우린 여기에 시리우스를 찾으러 왔어!"

헤르미온느가 이제는 아주 화가 난 듯 앙칼지게 말했다

"시리우스."

쉬지 않고 천천히 흔들리는 베일을 그새 넋이 빠져 버린 것처럼 명하니 쳐다보면서 해리가 중얼거렸다.

"맞아..."

바로 그때 해리의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퍼뜩 떠올랐다. 아니, 무엇인가가 어느 순간에 해리의 머릿속으로 되돌아왔다고 해야 할까? 시리우스는 잡하고 포박당해서 고문받고 있는데 자신을 지금 거기서 그 아치문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해리는 계단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안간힘을 써서 그 베일에 불들려 있던 자기의 시선을 잡아뗐다.

"빨리 나가자." 해리가 말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자, 빨리!"

헤르미온느가 서둘러 말하고는 제단 뒤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지니와 네빌이 넋이 빠진 게 분명한 표정으로 그 베일을 빼고 쳐다보고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가서 지니의 팔을 잡고, 론은 네빌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성큼성큼 걸어서 문을 향해 계단을 올라왔다.

"넌 그 아치문이 뭐라고 생각해?"

캄캄한 둑근 방으로 다시 나오자마자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원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건 알 것 같아."

헤르미온느는 그 방문에도 불이 활활 탄는 X를 그렸다. 벽이 또 빙글빙글 돌다가 멈추었다. 해리는 맨 먼저 눈에 띄는 문으로 다가가서 왼손으로 밀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왜 이러지?" 헤르미온느가 의아해했다.

"잠긴 거 같아..."

해리는 어깨로 문을 들이박았다. 그러나 문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이 방이야, 그렇지?"

론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해리와 함께 어깨로 문을 들이박았다.

"틀림없을 거야!"

"물러서!"

헤르미온느가 양칼지게 소리쳤다. 그리고 여닫이문 같으면 자물쇠가 달렸을 만한 곳에 지팡이를 겨누고 외쳤다.

"알로호모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참, 시리우스의 칼이 있었지!"

해리가 망토 호주머니에서 주머니칼을 꺼내 가지고 문과 벽 사이의 틈에 찔러 넣었다. 그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그어 내릴 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해리는 칼을 뺀 뒤 다시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다. 문은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해리가 칼을 쥔 손을 들었을 때. 그 칼은 날이 다 녹아 버려서 자루만 달랑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됐어. 이 방은 포기해."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이 방이 그 방이면 어쩌지?"

론이 불안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리 없어. 해리의 꿈속에서는 들어가지 못한 문이 없었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리고 그 문에도 X를 그렸다. 그 사이에 해리는 자루만 달랑 남은 시리우스의 칼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저 안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벽이 다시 돌기 시작할 때 루나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뭐 별거 있겠어?"

헤르미온느가 숨소리를 삼키며 말하지, 네빌이 조금 뻣뻣하게 킥킥 웃었다.

벽이 다시 멈추었다. 해리는 몹시 다급한 심정으로 다음 문을 밀었다.

"여기야!"

그는 다이아몬드처럼 맑게 반작이며 현란하게 춤추는 아름다운 빛을 보자마자, 이 방이 바로 그 방이라는 걸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눈부신 빛에 눈이 익숙해지자 그 방에 빛나는 시계가 가득하다는 것도 이내 알아차렸다. 큰 시계, 작은 시계, 꽤종시계, 탁상시계들이 책장 사이사이 그리고 책상들 위에 수도 없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시계들이 분주히, 잠시도 쉴 새 없이,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수천 수만의 아주 작은 발들이 제멋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았다.

다이아몬드처럼 맑은, 춤추는 듯 아름다운 그 빛이 반짝이는 곳은 방의

저쪽 끝에 선 엄청나게 높은 크리스털 등피(종 모양의 유리그릇, 깨지기 쉬운 도구류, 골동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쓰임:역주)였다.

"이쪽이야!"

드디어 길을 제대로 찾았다는 생각에 해리의 심장이 마구 두방망이질을 치고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가지런히 늘어놓은 책상들 사이의 좁은 통로로 나아갔다. 저편 끝의 책상 위에 그의 키만큼이나 높다란 크리스털 등피가 놓여 있고, 등피 안에서는 무수한 빛의 입자들이 마치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아, 저것 봐!" 지니가 등피의 중심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빛의 입자들이 둥둥 떠다니는 등피 안에 보석처럼 맑고 작은 알이 있었다. 천천히 떠오르던 그 알이 갈라지고 벌새가 나타났다. 벌새가 꼭대기까지 떠올랐다가 곧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깃털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축축하게 젖었다. 그리고 바닥가지 내려가서는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알에서 다시 새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은지 지니가 등피 곁에서 걸음을 멈추자 해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계속 가!"

"너도 아까 그 방에서 꾸물거렸잖아?"

지니가 화가 나서 입을 쑥 내밀고 얼른 해리의 뒤를 따라갔다. 등피의 뒤에는 문이 딱 하나뿐이었다.

"이 문이야."

심장이 너무도 거칠고 빠르게 두근거려서 말을 한다 해도 말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았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해리는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친구들이 모두 지팡이를 치켜든 채 하나같이 심각하고 불안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원손으로 밀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방이었다. 성당처럼 천장이 높은 방이었다. 그 높은 천장에 곧 달을 것처럼 높다란 선반 진열장들이 가지런히 줄을 지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선반에는 먼지가 잔뜩 낀 작은 유리 구슬들이 놓여 있었다. 진열장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걸린 촛대에는 물론 촛불이 켜져 있었다. 구슬들이 그 불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들 뒤에 있는 그 둥근 방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촛불은 푸른색이었다. 실내가 엄청나게 추웠다.

해리는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가 진열장 사이의 어두운 통로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라고는 없었다.

"네가 97 번째 줄이라고 했어."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맞아."

해리는 소리 없이 숨을 내쉬고, 바로 앞에 있는 줄의 끝을 쳐다보았다. 푸른 촛불 아래에서 은빛으로 희미하게 53 이란 숫자가 빛나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옆 줄을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맞아... 이쪽이 54 야..."

"지팡이를 잘 들고 있어야 해." 해리가 말했다.

그들은 진열장 사이의 통로를 쳐다보면서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갔다. 통로마다 저편 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선반에 놓인 구슬들 밑에는 작고 노란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꼭 액체인 것처럼 섬뜩하게 빛나는 것도 있고, 파열된 백열전구처럼 침침하고 시커먼 것도 있었다. 84 번째 줄을 지나고... 85 번째 줄을 지나고... 해리는 내내 신경을 바싹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리우스는 입에 재갈이 물렸을지도 모르고,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야. 그랬다면 내가 느꼈을 거야. 그의 심장이 목젖까지 차오른 기분이었다. 내가 벌써 알았을 거란 말이야...

"97 번이야!"

헤르미온느가 숨을 죽이고 말했다.

그들은 그 줄 앞에 멍춰 서서 통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저쪽 끝에 있을 거야."

해리가 말했다. 그의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해리가 앞장을 섰다. 그들이 지나가자 곳곳에서 유리 구슬들이 조금 발갛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틀림없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해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시리우스가 시커먼 바닥 어딘가에서 금방이라도 보일 것 같아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떼어 놓았다.

"틀림없이 이 근처야... 거의 다 왔을 거야..."

"해리?"

헤르미온느가 머뭇거리면서 해리를 불렀다. 그러나 해리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입이 이젠 아주 바싹 말라 있었다.

"틀림없어... 여기가 바로 거기..."

해리가 계속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 통로가 끝나고, 불빛이 훨씬 더 침침한 곳이 나왔다.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귀를 먹먹하게 하는 고요만이 있을 뿐이었다.

"혹시..."

해리가 그 다음 통로 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혹시..."

그는 얼른 도 그 다음 통로를 들여다보았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또 그를 불렀다.

'왜 자꾸 불러?' 해리가 짜증을 버럭 내었다.

"난... 난 시리우스가 여기 없다고 생각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해리는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뱃속이 울렁거렸다. 시리우스가 왜 여기에 없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리우스는 틀림없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가, 해리가, 시리우스를 보았던 곳이 바로 여기였으니까...

해리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통로들을 들여다보면서 끝까지 뛰어가 보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도 살펴보고, 그를 명하니 쳐다보는 친구들 곁을 지나서 저쪽 끝까지도 가 보았다. 그러나 통로는 모두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시리우스가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너무도 애처롭게 버둥거리고 있다는 기척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해리?" 론이 불렀다.

"왜?"

해리는 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보나마나 해리가 처음부터 명청한 생각을 했던 게 틀림없다거나, 빨리 호그와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것 같았다. 그러나 해리는 지금 점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밝은 곳에서 다른 아이들의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마주하기 전에 그 어두운 방 안에 좀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이거 봤어?" 론이 말했다.

'원래?'

해리가 이번에는 목을 길게 고개를 돌렸다. 시리우스가 있었다는 단서 같은 것을 론이 발견했나 싶어서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친구들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친구들은 그새 97 번째 줄의 통로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었다. 먼지가 잔뜩 낀 구슬 하나를 론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뭔데?"

해리가 몹시 불안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물었다.

"여기... 네 이름이 쓰여 있어." 론이 말했다.

해리가 그에게 다가갔다. 몹시 희미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를 론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랫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듯 먼지에 온통 뒤덮인 구슬이었다.

"내 이름?" 해리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앞으로 다가섰다. 론만큼 키가 크지 않은 해리는 뒤큄치를 들고 목을 길게 뻗다. 먼지에 뒤덮인 구슬 바로 밑의 노란 딱지에 가늘고 긴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은, 16년 전의 어느 날짜였고, 그 밑에

S.P.T. to A.P.W.P.D.

어둠의 마왕

그리고(?) 해리 포터

해리는 그걸 빤히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지?"

론이 말했다.

"네 이름이 왜 여기 쓰여 있지?"

론은 그 선반에 붙어 있는 다른 딱지들을 주르르 살펴보았다.

"내 이름은 없어."

론이 말했다. 그는 몹시 혼란스러워진 것 같았다.

"다른 아이들 것도 없어."

해리가 구슬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자 헤르미온느가 흠칫 놀라면서 말했다.

"해리, 안 돼. 만지지 않는데 좋겠어."

"왜? 어쨌든 나와 관계있는 거잖아?" 해리가 말했다.

"안 돼, 해리."

네빌이 갑자기 말했다. 해리가 네빌을 돌아보았다. 네빌의 동그란 얼굴에는 땀이 조금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은 너무도 떨리는 가슴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이 쓰여 있어." 해리가 말했다.

조금 겁을 내면서 해리는 구슬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다. 차가울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핫볕을 몇 시간쯤 받은 물건처럼 따뜻했다.

해리는 드디어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게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구슬을 집어내려 빤히 들여다보았다. 해리는 친구들과 함께 거기까지 위험하고도 먼 길을 온 것이 헛수고가 아니길 바랐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들이 그에게 바싹 다가섰다.

해리는 구슬을 뒤덮은 먼지를 털어 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들의 등 뒤에서 어떤 낮은 목소리가 느릿느릿 들려왔다.

"잘했다, 포터, 자, 천천히 점잖게 뒤로 돌아서서 그걸 나에게 줘."

제 35 장 베일 속으로

시커먼 형제들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좌우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얼굴에 뒤집어쓴 두건의 틈으로 눈동자들이 반짝이고, 끝에 불이 켜진 열두 개의 지팡이들이 그들의 가슴을 똑바로 겨누었다. 지니가 겁에 질려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냈다.

"이리 내놓아라, 포토."

루시우스 말포이가 낮은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해리에게로 내밀고 있었다.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완전히 덫에 걸려버렸고, 숫자도 고작 적들의 반이었다.

"이리 줘." 말포이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시리우스는 어디 있지?"

해리가 말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 몇 명이 웃었다. 해리의 왼쪽에서 몹시 거친 여자의 목소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둠의 마왕께서는 늘 알고 계시지!"

"맞아."

말포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예언을 이리 줘."

"난 시리우스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어!"

"난 시리우스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어"

해리의 왼쪽에서 거친 목소리의 여자가 해리의 말을 흉내 내었다. 그 여자와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이 해리와 그의 친구들 곁으로 바싹 다가왔다. 그들의 지팡이 끝에서 반짝이는 빛들이 해리의 두 눈에 어지럽게 비쳤다.

"당신이 시리우스를 잡아갔어."

해리는 가슴속에서 알고 있는 공포와 97 번째 줄에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마음을 짓눌렀던 불안감을 내색하지 않으며 말했다.

"난 알아. 시리우스는 여기 있어."

"어린놈이 깜짝 놀래서 잠을 깨는 바람에 꿈을 깼쪄."

여자가 아기처럼 앙앵거리는, 몹시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곁에서 론이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다.

"가만히 있어." 해리가 중얼거렸다.

"아직은-"

해리의 목소리를 흉내 내었던 여자가 발작하듯이 시끄러운 소리로 깔깔 웃었다.

"들었어? 들었어? 이놈이 지금 우리하고 싸울 작정인가 봐! 방금 자기 친구한테 뭐라고 몰래 지껄였어!"

"아, 당신은 나만큼 이 포터라는 인간을 잘 몰라, 벨라트릭스."

말포이가 부드럽게 했다.

"이 녀석은 원래부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건 누구보다 어둠의 마왕께서 잘 아시지. 당장 예언을 이리 줘, 포터."

"난 시리우스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해리가 말했다. 이제 그의 가슴속은 공포로 가득 차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당신이 잡아갔다는 걸 안단 말이야!"

죽음을 먹는 자들이 시끄럽게 웃어 댔다. 물론 여자의 웃음소리가 제일 요란스러웠다.

"이젠 너도 현실과 꿈의 차이를 이해할 때가 됐어, 포터. 어서 예언을 나한테 넘겨.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팡이를 쓰지 않을 수 없어."

말포이가 말했다.

"맘대로 해."

해리가 자기의 지팡이를 가슴 앞으로 치켜들면서 말했다. 그의 양쪽 옆에서도 다섯 개의 지팡이들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물론 론과 헤르미온느, 네빌, 지니와 루나의 지팡이였다. 잔뜩 꼬인 해리의 뱃속이 더욱 단단하게 꼬였다. 만약 시리우스가 거기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 그는 무모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를 상황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 셈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음을 먹는 자들은 아직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예언만 나한테 넘겨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말포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엔 해리가 웃을 차례였다. 해리가 깔깔 웃고 나서 말했다.

"그래, 좋아! 이게 워라고? 예언? 난 이걸 당신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를 곱게 집으로 돌려보내 준다, 이 말이지?"

해리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죽음을 먹는 자들 중 여자가 빽 소리를 질렀다.

"아씨오 예~"

해리는 처음부터 그 여자를 잔뜩 경계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주문을 미처 다 말하기 전에 해리가 소리쳤다.

"프로테고!"

그 바람에 그의 손에서 유리 구슬이 아래로 미끄러졌지만, 간신히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다.

"어쭈, 젖비린내 나는 어린놈이 제법인걸, 포터?"

미친 듯 이글거리는 눈빛을 두건의 틈으로 번득이면서 여자가 말했다.

"좋아,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

루시우스 말포이가 여자에게 꽉 고함을 질렀다.

"만약 저게 깨지는 날엔~!"

해리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내달렸다. 지금 죽음을 먹는 자들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먼지 낀 실유리 구슬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물건엔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는 것,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친구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여자가 앞으로 나서면서 두건을 벗었다. 아즈카반에서의 생활이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얼굴을 말라빠진 해골처럼 만들어 버렸지만, 지금 그것은 들뜬 홍조로 빛나고 있었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응?"

그 여자가 말했다. 여자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좋아. 그럼, 제일 어린것부터 맛을 보여 줘야겠군."

여자가 바로 곁에 서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명령했다.

"내가 저 어린 계집애를 고문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놈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해."

해리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지니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리 구슬을 쥔 손을 가슴팍까지 들어 올리고 옆걸음질을 쳐 지니의 앞을 막아섰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공격하면 구슬을 깨뜨리겠어."

그가 벨리트릭스에게 말했다.

"이게 깨지만 너희들 대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면서 해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언이란 게 도대체 무슨 예언이지?"
해리가 물었다.

해리는 계속 말을 하는 것 외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네빌의 팔이 해리의 팔에 달았다. 네빌이 바들바들 떠는 게 느껴졌다. 그의 머리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갈 묘안을 생각하고 있어 주기만을 빌었다. 지금 그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예언인지 모른다고?"

벨리트릭스가 말했다.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 갔다.

"농담이겠지, 해리 포터?"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해리가 말했다. 그는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그들이 이곳을 탈출하려면 어느 곳을 치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살폈다.

"볼드모트가 어떻게 알고 이걸 원한다는 거지?"

죽음을 먹는 자들 몇몇이 흠칫 놀라는 소리를 냈다.

"감히 그분의 이름을?"

벨리트릭스가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그 여자가 또 주문을 걸 것 같아서 유리 구슬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말했다.

"왜? 내가 그자의 이름을 부르면~"

"입 닥쳐!"

벨라트릭스가 빽 소리를 질렀다.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다니, 더러운 잡종의 혀바닥으로 그분의 이름을 육되게 하다니, 감히~"

"그자가 잡종이라는 걸 알아?"

해리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의 머리 바로 뒤에 서 있던 헤르미온느가 짧은 신음을 토했다.

'볼드모트, 그자의 엄나는 마녀지만 아빠는 머글이야-.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자기가 순수 혈통이라고 속여 왔나 보지?"

"스투페~"

"안 돼!"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지팡이 끝에서 빨간 빛이 튀어나왔으나, 말포이가 황급히 방향을 꺾었다. 말포이의 주문에 막혀서 방향이 꺾인 그 빨간 빛이 해리의 바로 왼쪽에 있는 선반에 꽂히자, 유리 구슬 몇 개가 박살이 났다.

바닥에 쏟아져 내린 유리 조각에서 진주처럼 허옇고 연기처럼 흐물흐물한, 유령의 모습을 한 두 형상이 나타나더니 제각기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유령 같은 두 형상들이 서로 앞을 다투듯이 말을 했지만, 말포이와 벨라트릭스가 고래고래 질러 대는 고함 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동짓날에 올 거야. 새로운..."

턱수염이 무성한 노인의 형상이 말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예언을 뺏어야 해!"

"저놈이 감히... 저 자식이 감히..."

벨라트릭스는 대중없이 악을 써 댔다.

"저 더러운 잡종이..."

"예언을 뺏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말포이가 고함을 질렀다.

"... 그 후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젊은 여자의 형상이 말했다.

깨진 유리 구슬에서 나온 두 형상들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들만이 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해리에게 한 가지 묘안을 떠오르게 해주었다. 문제는 그 묘안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해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 또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 예언이 그렇게 특별한 거야? 설명이나 해주고 나서 뺏든지 말든지 해."

해리는 한 발을 옆으로 천천히 움직여서 다른 친구들의 발을 더듬어 찾았다.

"우리하고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마, 포터."

말포이가 말했다.

"난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야."

해리의 정신은 반은 대화에 가 있고, 반은 옆을 더듬는 한쪽 발에 가 있었다. 누군가의 엉지발가락이 발에 달는 게 느껴졌다. 그는 그걸 세게 밟았다. 황급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그 엉지발가락의 주인이 헤르미온느임을 가르쳐 주었다.

"왜?" 헤르미온느가 작게 속삭였다.

"미스터리 부서의 어딘가에 네 이마의 흉터가 생긴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걸 덤블도어가 말해 주지 않았나?"

말포이가 비웃듯이 말했다.

"난- 뭐라고?"

해리가 말했다. 그는 순간 자기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깜빡 잊어버렸다.

"내 흉터가 어쨌다고?"

"왜?"

헤르미온느가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렇게 된 건가?"

말포이가 아주 흡족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 몇 명이 다시 키득키득 웃었다.

그 틈을 타서 해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입술을 움직여서 헤르미온느가 얼른 말했다.

"선반을 부숴~"

"덤블도어가 말하지 않았어?"

말포이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음, 그렇다면 네가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는지를 이제야 알겠군, 포터. 어둠의 마왕께서도 네가 왜~"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네가 왜 달려오지 않는지 궁금해하셨지. 예언이 숨어 있는 곳을 네 꿈속에서 가르쳐 줬을 때 말이야. 그분은 네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호기심에 당연히 곧장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셨지..."

"그랬어?"

해리가 말했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말을 다른 친구들한테 전하는 게 느껴졌다.

해리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면 얼른 또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자는 내가 곧장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이유가 뭐지?"

"이유?"

말포이가 이번에는 더욱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흡족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스터리 부서에서 예언이 적힌 구슬을 꺼낼 수 있는 자는 말이야, 포터. 그 예언에 해당되는 장본인뿐이기 때문이야. 어둠의 마왕께서 다른 자들을 시켜서 훔치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내셨지."

"그런데 그자가 나에 관한 예언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지?"

"너만이 아니야. 포터. 거긴 그분에 관한 예언도 있어... 네가 어렸을 때 어둠의 마왕께서 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

해리는 두건의 틈으로 반짝이는 말포이의 회색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예언이 바로 해리의 부모님이 죽은 이유이고, 그의 울굴에 번개 모양의 흉터가 생긴 이유일까?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지금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일까?

"그럼 누군가가 볼드모트와 나에 관한 예언을 했단 말이야?"

해리는 따뜻한 유리 구슬을 쥔 손에 좀더 힘을 주고 말포이의 두 눈을 빤히 노려보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구슬은 스니치보다 아주 조금 더 클 뿐이었지만, 먼지가 잔뜩 끼어서 거칠게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자는 내가 와서 대신 이걸 꺼내 주길 기다렸다는 말이야? 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지?"

"직접 하신다고?"

벨라트릭스가 미친 듯이 찢어지는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어둠의 마왕께서 돌아오신 줄을 마법부 놈들은 고맙게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분께서 마법부에 직접 행차를 하신다고? 그 인간들이 내 귀여운 사촌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어둠의 마왕께서 직접 오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일을 너희들한테 시켰군 그래? 그래서 스터지스나 보드를 시켜서 그걸 훔치려고 했단 말이지?"

해리가 말했다.

"똑똑해, 포터. 아주 똑똑해..."

말포이가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어둠의 마왕께서는 네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

"지금이야!"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등 뒤에서 다섯 친구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리덕토!"

다섯 개의 주문이 다섯 방향으로 날아가고, 그들의 맞은편 선반들이 폭발했다. 높다란 진열장들이 휙 청 넘어지고, 수백개의 유리 구슬들이 깨지고, 진주 빛의 허연 형상들이 허공에 나타나서 떠다녔다. 깨진 유리 조각들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소낙비처럼 바닥에 쏟아지는 요란한 소리 속에서 그 형상들의 목소리가 마치 아득히 먼 옛날로부터 울려 오는 메아리처럼 용웅거렸다-.

"뛰어!"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진열장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훨씬 더 많은 유리 구슬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망토 자락을 덥석 움켜잡고 앞쪽으로 내몰고, 지팡이를 둔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가린 채 앞으로 내달렸다. 나무 조각과 유리 조각이 곧 그들을 파묻어 버릴 것처럼 쏟아졌다. 죽음을 먹는 자 하나가 먼지구름을 뚫고 해리에게로 돌진했다. 해리는 두건을 뒤집어쓴 그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강타했다. 휙 청 넘어진 선반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고함과 고통의 비명을 질러 대고, 구슬 속에 갇혀 있다. 세상으로

나온 예언자들이 한꺼번에 무어라 주절거리는 소리들이 아득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해리는 앞에 트인 곳을 얼른 발견했다. 론과 지니와 루나가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그의 곁을 쓴살같이 달려가는 게 보였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그의 옆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달리기만 했다.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덥석 잡았다. 헤르미온느가 "스투페파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 손이 떨어졌다.

그들은 97 번째 줄의 끝에 이르렀다. 해리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곧장 앞으로 내달렸다. 요란한 발소리들이 그의 바로 뒤를 따라오고, 네빌을 재촉하는 헤르미온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들어왔던 그 문이 저만치 앞에서 반쯤 열려 있고, 밝게 반짝이는 크리스털 등피가 보였다. 해리는 예언이 들어 있는 구슬을 단단히 거머쥐고 그 문으로 달려 나갔다. 친구들이 곧 그의 뒤를 따라 뛰어나왔다...

"콜로포터스!"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외쳤다. 그러자 곧 찌그리지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문이 닫혔다.

"다-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지?"

해리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말했다.

그는 론과 루나와 지니가 먼저 그 문을 나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엉뚱한 데로 갔나 봐!"

헤르미온느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가만!"

네빌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방금 닫힌 그 문 뒤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얼른 문에 귀를 대 보았다. 루시우스 말포이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노트는 그냥 내버려 둬. 그는 내버려 두란 말이야. 노트가 다친 건 문제도 아니야. 어둠의 마왕님의 관심은 예언뿐이야. 적순, 너 이리 나와. 조를 짜야겠다. 둘씩 짹을 지어서 수색하는 거야. 그리고 예언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해리를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는 걸 명심해. 다른 것들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들 해... 벨라트릭스, 로돌푸스, 원쪽으로..."

크리비, 라바스탄, 오른쪽... 적순, 돌로호브, 저 문으로 나가... 맥네어와 애버리는 여기를 뒤지고... 록우드는 저쪽으로... 유티버, 넌 날 따라와!"

"이젠 어떻게 할 거야?"

헤르미온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해리에게 물었다.

"음, 여기 그냥 서서 그들이 우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 우선 이 문에서 멀어지고 봐야 해..." 해리가 말했다.

그들은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 가며 달렸다. 계속 갈라졌다가 다시 닫히는 작은 알이 들어 있는 반짝이는 크리스털 등피 곁을 지나 둉글고 캄캄한 복도로 나가는 문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해리는 방금 헤르미온느가 마법을 걸어서 닫았던 그 문을 아주 크로 무거운 것이 찧어 대는 소리를 들었다.

"옆으로 비켜서!"

거친 목소리가 말했다.

"알로호모라!"

문이 활짝 열렸다.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네빌은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던졌다. 죽음을 먹는 자들 두 명의 망토 아랫자락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들의 발이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저 문으로 나갔을 거야."

거친 그 목소리가 말했다.

"책상 밑에 숨었을 거야."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의 무릎이 굽혀지는 게 해리의 눈에 보였다. 책상

밑에 엎드린 채로 지팡이를 앞으로 치켜들고 그가 소리쳤다.

"스트페파이!"

좀더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먹는 자에게 빨간 빛이 꽂혔다. 그가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책장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을 먹는 자는 옆으로 펄쩍 재빨리 해리의 주문을 피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헤르미온느에게 겨누었다. 헤르미온느는 그새 책상 밑에서 기어나와서 막 지팡이를 치켜들려던 참이었다.

"아바다~"

해리가 황급히 바닥으로 몸을 굴려서 죽음을 먹는 자의 무릎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죽음을 먹는 자가 기우뚱하면서 조준이 빗나갔다. 책상을 뒤집어엎고 벌떡 일어난 네빌이 서로 뒤엉킨채 바닥에서 퉁구는 해리와 죽음을 먹는 자에게 지팡이를 겨누고 외쳤다.

"엑스펠아르무스!"

해리의 지팡이와 죽음을 먹는 자의 지팡이가 그들의 손에서 쑥 빠지더니 예언의 방 쪽으로 날아갔다. 해리도 죽음을 먹는 자도 벌떡 일어나서 지팡이를 따라 뛰어갔다. 죽음을 먹는 자가 앞서가고 해리는 그의 뒤에 바싹 붙어서 뛰었다. 네빌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는 자기가 방금 저지른 짓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옆으로 비켜, 해리!"

네빌이 소리쳤다. 그는 실수를 만회하려고 정신을 아주 바싹 차리고 있었다.

해리가 옆으로 휙 몸을 날리는 순간에 네빌이 다시 지팡이를 겨누고 우렁차게 외쳤다.

"스투페파이!"

빨간 빛이 죽음을 먹는 자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서 온갖 모양의 시계들이 가득 든, 유리문이 달린 캐비닛에 꽂쳤다. 태비닛이 앞으로 쓰러져서 바닥에 부딪히고 무수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그 캐비닛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쓰러져서 박살이 나고, 다시 벌떡 일어났다.

죽음을 먹는 자가 반짝이는 등피 곁에 떨어진 그의 지팡이를 잡아챘다.

그리고 뒤로 막 돌아서는 순간, 해리는 다시 책상 밑으로 몸을 던졌다.

두건이 미끄러져 내려 죽음을 먹는 자의 눈을 가리자 그는 한 손으로 그것을 벗어 버리며 소리쳤다.

"스투페~"

"스투페파이!"

그러나 그들의 뒤를 따라오던 헤르미온느의 주문이 아슬아슬하게 먼저 나갔다. 헤르미온느의 지팡이 끝에서 튀어 나간 빨간 빛이 죽음을 먹는 자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가 팔을 치켜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고, 그의 지팡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크리스털 등피를 덮쳤다. 해리는 그자가 덮친 크리스털 등피가 쓰러지면서 와�장창 하는 단단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자의 머리가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크리스털 등피 속으로 쑤욱 들어갔다. 사내의 몸은 탁자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있고, 그의 머리는 등피 안에 들어가 있었다.

"아씨오 지팡이!"

헤르미온느가 외쳤다. 컴컴한 구석에서 해리의 지팡이가 휙익 날아와서 헤르미온느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지팡이를 해리에게 던져 주었다.

"고마워, 자, 빨리 여기서~"

"저것 봐!"

네빌이 말했다. 그는 크리스털 등피 안에 들어가 있는 죽음을 먹는 자의 머리를 쳐다보면서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들 셋은 다시 지팡이를 치켜들었지만, 아무도 주문을 외치진 않았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입을 딱 벌린 채 쳐다볼 뿐이었다.

그자의 머리가 매우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검은 머리카락과 짧은 수염이 모두 살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하얗고 깃털하게 변해 가고, 두 뺨이 보드라워졌다. 그의 머리가 마치 솜털이 보송보송한 복숭아처럼 변했다.

근육이 불거진 굵은 목 위에 아기의 머리가 달린 죽음을 먹는 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버둥거렸다. 그러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눈앞에서 그자의 머리가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머리와 턱에서 억세고 새카만 털이 쑥쑥 돌아났다.

"저건 시간이야."

위압당한 목소리로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시간..."

죽음을 먹는 자가 정신을 차리려는 듯 머리를 마구 흔들어댔다. 그러나 미처 몸을 일으키기 전에 또다시 머리가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근처의 발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 이어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론?"

그 무서운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해리가 고개를 돌리면서 소리쳤다.

"지니? 루나?"

"해리!" 헤르미온느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죽음을 먹는 자가 그새 크리스털 등피에서 머리를 빼내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너무도 기괴했다. 자그마한 아기의 얼굴에 붙은 작은 입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억센 두 팔을 정신없이 마구 휘둘렀다. 해리가 고개를 돌린 순간 억센 팔 한쪽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황급히 몸을 수그려서 피하고는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헤르미온느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기를 해쳐선 안 돼!"

그걸 가지고 입씨름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와 친구들이 방금 나온 예언의 방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친구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른 걸 후회해야 했다. 그 바람에 그들의 위치가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알려졌던 것이다.

"빨리!"

해리가 말했다. 비틀거리는 아기 머리의 죽음을 먹는 자를 뒤에 내버려 두고, 그들은 캄캄한 복도로 나가기 위해 방의 저편 끝에 반쯤 여린 문을 향해 달렸다.

그들이 중간쯤 갔을 때, 해리는 반쯤 열린 그 문으로 두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로 곧장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황급히 옆으로 방향을 꺾어서 어둡고 비좁은 어느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칠게 문을 닫았다.

"콜로-"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게 하려는 주문이 입에서 미처 다 떨어지기도 전에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죽음을 먹는 자 두 명이 뛰어 들어왔다. 승리의 함성인 양 두 명이 동시에 고함을 질렀다.

"임페디멘타!"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네빌이 뒤로 벌렁 나가떨어졌다. 책상 위로 떨어진 네빌은 책상 너머로 모습을 감주고, 책장에 등을 부딪힌 헤르미온느는 이내 와르르 쏟아져 내린 책에 파묻혔다. 해리는 돌벽에 뒤통수를 들이받아 곧 깨질 듯이 아팠다. 두 눈에서 작은 불꽃들이 튀고, 너무도 정신이 얼얼해서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잡았다!"

해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던 자가 소리쳤다.

"여기야, 바로 옆방~"

"실렌시오!"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그 사내의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얼굴에 뒤집어쓴 두건에 뚫린 구멍으로 여전히 입이 움직이는게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죽음을 먹는 자가 그를 옆으로 밀어젖혔다.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그 죽음을 먹는 자가 지팡이를 치켜드는 순간에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두 팔과 두 다리가 동시에 꺾이면서 앞으로 쓰러진 그는 해리의 바로 발 앞 양탄자 바닥에 얼굴을 짚고, 몸이 마치 널빤지처럼 굳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잘했어, 해~"

그러나 헤르미온느가 방금 동작그만 주문을 걸었던 그 죽음을 먹는 자가 돌연 지팡이를 휘저었다. 그러자 자주색 불꽃 같은 것이 허공을 날았다. 그 불꽃이 헤르미온느의 가슴에 곧바로 꽂힌 순간,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란 것처럼 '아!'하는 짧은 소리를 토하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헤르미온느!"

해리가 헤르미온느의 곁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다. 책상 밑에 숨었던 네빌도 지팡이를 가슴 앞에 치켜들고는 그쪽으로 급히 가기 위해 기어 나왔다. 네빌이 책상 밑에서 나오는 순간, 죽음을 먹는 자가 발로 그의 머리를 걷어찼다. 그 발은 먼저 네빌의 지팡이를 두 동강 낸 다음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네빌이 고통의 신음을 토하며 입과 코를 두 손으로 움켜잡은채 다시 책상 밑으로 몸을 감추었다.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해리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죽음을 먹는 자는 그새 두건을 벗어 버리고 지팡이를 똑바로 해리에게 겨누고 있었다. 해리는 그자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예언자 일보>에서 보았던 길고 창백하고 잔뜩 뒤틀린 얼굴, 프레웨트 가 사람들을 살해했던 바로 그 마법사 안토닌 돌로호브였다. 돌로호브가 능글맞게 하죽 웃었다. 그는 지팡이를 잡지 않은 손으로 해리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예언과 자기 자신과 헤르미온느를 번갈아 가리켰다.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지만 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뜻은 뻔한 것이었다. 예언을 나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해리 너도 저 계집애꼴이 될 거야....

"내가 이걸 너한테 주면 우리를 죽이진 않겠지!"

해리가 말했다.

머릿속이 온통 공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손으로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어깨가 아직 조금 따뜻한 것 같았지만, 헤르미온느를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죽게 해선 안 돼, 죽게 해선 안 돼, 죽으면 내 탓이야....

"머하는 거야, 해리."

네빌이 책상 밑에서 사납게 소리쳤다. 그가 두 손을 내리자 영망으로 깨진 코가 드러나고, 입과 턱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절대 두면 안 대!"

바로 그때 문 저쪽에서 또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돌로호브가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아기 머리의 죽음을 먹는 자가 또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직도 그 작은 입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커다란 두 팔을 정신없이 마구 휘둘러 대고 있었다.

해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돌로호브가 미처 손을 쓸 새도 없이 해리의 주문이 그를 강타했다. 뻣뻣하게 굳은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고, 똑같은 마법에 걸려서 먼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료를 덮쳤다.

"헤르미온느."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흔들었다. 아기 머리의 죽음을 먹는 자는 다시 비틀거리면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헤르미온느, 정신 차려...."

"저노미 헤으미를 어떠케 한 거지?"

책상 밑에서 무릎으로 기어 나와 그들 곁으로 다가온 네빌이 말했다.

퉁퉁 부어오른 그의 코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나도 몰라..."

네빌이 헤르미온느의 손목을 짚어 보았다.

"맥바기 띠고 이싸, 해리..."

그 순간 엄청난 안도감이 해리의 온 몸을 훨쓸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 버리는 것 같았다.

"살아 있구나!"

'어, 그런 거 가타...'

잠시 주위가 잠잠해졌다. 해리가 또 어디선가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지나 않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저쪽 방에서 아기 머리의 죽음을 먹는 자가 낑낑거리고 주절거리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네빌, 여기서 출구가 멀지 않아. 지금 우린 둑근 방 바로 곁에 있어.

죽음을 먹는 자들이 또 나타나기 전에 그 방을 지나서 문을 제대로 찾기만 하면, 넌 헤르미온느를 데리고 복도로 나가서 승강기를 타고... 누구든지 찾아 봐... 경보를 울려..."

해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넌 어떠케 하려고?"

네빌이 피가 철철 흐르는 코를 소매로 속 닦으면서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해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난 친구들을 찾으러 갈 거야." 해리가 말했다.

"음, 나도 너하고 가치 갈 거야."

네빌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헤르미온느는-"

"데리고 가는 거지 머."

네빌이 또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업을게- 싸움은 니가 나보다 잘하니까-"

그가 일어서서 헤르미온느의 한 팔을 잡고 해리를 쳐다보았다. 해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머지 한 팔을 잡고, 축 늘어진 헤르미온느를 네빌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잠깐 기다려."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집어서 네빌의 손에 쥐어 주었다.

"네가 이걸 쓰는 게 좋겠어..."

네빌이 두 동강 난 그의 지팡이를 발로 차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문을 향해서 걸어갔다.

"할머니가 아시면 나 죽일 거야."

네빌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코에서 피가 튀었다.

"저거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해리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아기 머리의 죽음을 먹는 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무 데나 머리를 들이받고, 꽤종시계들을 쓰러뜨리고 책상들을 뒤엎고, 미친 듯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 유리문이 달린 캐비닛은 아직도 넘어져서 박살이 났다가 다시 뒤로 벌떡 일어서서 멀쩡하게 벽에 서 있는 걸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 캐비닛 안에는 시간 여행 장치들이 들어 있는 게 틀림없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저자는 우릴 보지 못해. 빨리... 내 뒤를 바싹 따라와..." 해리가 속삭였다.

그들은 그 방을 빠져나와서 캄캄한 복도로 나가는 문 쪽으로 갔다. 지금

복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네빌은 등에 업은 헤르미온느가 무거운지 조금 비척거리며 걸었다. 그들의 뒤에서 시간의 방의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벽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해리는 돌벽에 뒤통수를 부딪힌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는 듯 정신이 조금 어질어질했다. 그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머리를 조금 흔들면서 서 있었다. 이윽고 벽이 멈추었다. 벽이 멈춘 순간에 해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헤르미온느가 문에 남겨 놓았던 X 자 표시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 어느 문으로 나가지-?"

그들이 나갈 문을 결정하기 전에 오른쪽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세 사람이 뛰어 들어왔다.

'론!' 해리가 목멘 소리로 부르면서 그들에게로 뛰어갔다.

"지니- 너희들 모두-"

"해리."

론이 힘없이 킥킥 웃으면서 앞으로 다가와 해리의 망토 앞자락을 움켜잡고 초점이 풀린 눈으로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여기 있었구나... 하하하... 너 우습다, 해리... 꼴이 말이 아니야..."
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에서는 아주 짙은 색의 액체가 한쪽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론의 두 무릎이 제풀에 꽂 꺾였다.
그러나 그가 해리의 망토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의 몸도 엉거주춤 숙여졌다.

"지니? 어떻게 된 거야?"

해리가 겁이 나서 물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던 지니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서 바닥에 주저앉더니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쪽 발목을 움켜잡았다.

"발목이 부러진 거 같아.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

루나가 지니에게로 몸을 숙이며 작게 말했다. 다치지 않은 사람은 루나뿐이었다.

"네 명이 우릴 쫓아왔었어. 우리는 어느 캄캄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행성들이 가득한 방이었어. 정말 이상한 방이었어. 우리가 어둠 속에 둑둥 떠 있는 것 같은-"

"해리, 우린 천왕성을 바로 옆에서 봤어!"

론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힘없이 킥킥 웃고 있었다.

"들었어, 해리? 천왕성을 봤단 말이야... 하하하..."

론의 입가에 피거품이 일었다가 사그라졌다.

"한 놈이 지니의 발목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분해 주문을 쏴서
명왕성을 그놈의 얼굴 앞에서 터뜨렸지. 그런데...."

루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지니를 가리켰다. 지니는 두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론은 어떻게 된거야?"

론이 해리의 옷자락을 불잡은 채 계속 킥킥 웃자 해리는 높시 겁이 났다.

"그놈들이 뭘로 공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론이 조금 이상해졌어.
나도 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루나가 침울하게 말했다.

론이 해리의 귀를 잡아당겨서 입을 갖다 대고 여전히 힘없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해리, 너 이 계집애가 누군지 알아, 해리? 루누이(멍청이라는 의미로
쓰임 : 역주)야... 루우니 러브굿... 하하하...."

"빨리 여기서 나가고 보자. 루나, 너 지니를 부축할 수 있겠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응."

루나가 지팡이를 컷등에 끼우고, 한 팔로 지니의 허리를 감아서

일으켰다.

"발목만 다쳤을 뿐이야.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지니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에 옆으로 휙 청 넘어지면서 얼른 루나를 붙잡았다. 해리는, 몇 달 전에 두들리에게 했던 것처럼, 론의 한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이 출구를 한 번에 찾을 가능성은 고작 십이분의 일이었다.

그는 론을 부축해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까지 불과 몇 미터 남지 않았을 때 저쪽에서 또 다른 문이 활짝 열리고, 세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뛰어 들어왔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맨 앞에서 달려왔다.

"저기 있다!"

그 여자가 찢어지는 소리로 외쳤다.

곧이어 기절 마법이 날아들었다. 해리는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론을 거칠게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헤르미온느를 업고 있는 네빌을 도우러 갔다. 벨라트릭스가 바로 등 뒤에까지 쫓아왔을 때 그들은 모두 문턱을 넘었다.

"콜로포터스!"

해리가 외쳤다. 문 저편에서 세 개의 몸이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들어가는 문은 얼마든지 있어! 우리가 잡았다! 여기야, 여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뒤로 휙 돌아섰다. 그들은 다시 뇌의 방에 들어와 있었다. 방금 그자의 말처럼, 과연 사방의 벽에 문들이 나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자가 외친 소리를 듣고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루나-네빌-도와줘!"

세 사람은 흘어져 뛰어다니면서 문마다 마법을 걸었다. 탁자를 들이받은 해리는 탁자 위로 몸을 굴려 넘어가서 눈앞에 나타난 문에 대고 외쳤다.

"콜로포터스!"

문 뒤에서 요란한 발소리들이 들렸다. 육중한 몸으로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나고, 문짝이 곧 떨어질 듯이 요동을 쳤다. 루나와 네빌은 해리의 반대편 벽을 따라 가면서 마법을 걸고 있었다. 해리가 막 방의 한쪽 끝에 당도했을 때, 루나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콜로- 아아아아아..."

해리가 고개를 휙 돌렸다. 루나의 몸이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루나가 미처 마법을 걸지 못한 문으로 다섯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책상 위에 떨어진 루나는 책상 너머 바닥에 굴러 떨어져, 아까 헤르미온느가 그랬던 것처럼 톡 늘어져 버렸다.

"포터를 잡아!"

벨라트릭스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치고는 해리를 향해 달려왔다.

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의 안쪽을 향해서 내달렸다. 그들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예언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봐!"

론이 해리를 불렀다. 이전까지는 조금만 비틀거리던 그가 이제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해리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비실비실 웃고 있었다.

"해리, 이 방엔 뇌가 있어. 하하하, 징그럽지, 해리?"

"론, 저리 비켜, 엎드려!"

그러나 론은 이미 그의 지팡이로 수조를 겨냥하고 있었다.

'괜찮아, 해리. 저건 뇌야- 잘 봐- 아씨오 뇌!"

실내가 잠깐 얼어붙은 것 같았다. 해리와 지니, 네빌, 죽음을 먹는 자들이 모두들 멍하니 수조의 꼭대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수조에서 뇌 한 개가 튀어나왔다. 마치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허공에 걸려 있는 듯하더니, 이내 론을 향해서 날아갔다. 뇌가

팽그르르 돌면서 가느다란 때들이 꼬불꼬불 풀려 나왔다. 마치 필름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하하하, 해리, 저것 좀 봐~"

물기가 촉촉한 내장을 풀어내는 뇌를 쳐다보면서 론이 말했다.

"해리, 이리 와서 이것좀 만져 봐, 정말 징그러~"

"론, 안 돼!"

뇌에서 풀려 나온 그 생각의 촉수에 론의 손이 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해리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리가 론에게로 몸을 날렸지만, 이미 론은 두 손으로 뇌를 잡은 뒤였다.

론의 살갗에 촉수가 닿은 순간 마치 밧줄처럼 그의 두 팔을 감아 대기 시작했다.

"해리, 이것 좀 봐-. 엇, 안 돼- 안 돼, 싫어- 안 돼- 그만 해- 그만~"

그러나 이제는 가느다란 촉수들이 론의 턱을 감고 있었다. 마치 문어 발처럼 몸에 달라붙은 뇌의 촉수들을 론이 마구 잡아뜯었다.

"디핀도!"

해리가 론의 몸을 칭칭 감은 촉수들을 떼려고 주문을 외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론이 텔썩 쓰러져서 몸에 감긴 촉수를 두 손으로 마구 두들겼다.

"해리, 저러다가 숨 막혀 죽겠어!"

부러진 발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지니가 소리쳤다. 바로 그때 한 죽음을 먹는 자의 지팡이 끝에서 빨간 빛이 튀어나와서 지니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다. 지니가 옆으로 퍽 쓰러지며 까무라쳤다.

"스투비파이!"

네빌이 획 돌아서서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겨냥하고 외쳤다.

"스투비파이, 스투비파이!"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 중 한 명이 네빌에게 기절 마법을 날렸다. 그 주문이 네빌을 스치듯 빗나갔다. 이제는 해리와 네빌 단둘이서 다섯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두 죽음을 먹는 자들이 날린 은색 빛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그들을 스치고 지나가 등 뒤에 있는 벽에 꽂혔다. 벽에 분화구 같은 것이 파였다. 해리가 그 벽을 향해서 뛰어가자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예언을 전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그는 방의 다른 한쪽으로 내달렸다. 지금 그는 오직 친구들로부터 멀찍이 죽음을 먹는 자들을 유인해 가야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의 생각대로 되어 가는 것 같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우르르 해리의 뒤를 쫓아갔다. 의자를 쓰러뜨리고 탁자를 뒤엎으면서 허겁지겁 뒤를 쫓았지만, 예언을 깨뜨릴까 봐 누구도 감히 마법을 쏘지는 못했다. 해리는 아직 열려 있는 단 하나의 문을 향해서 뛰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들어왔던 그 문이었다. 네빌이 제발 론을 지켜 주고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 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해리는 그 문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몇 걸음도 채 못 달려서 그는 바닥이 사라져 버리는 걸 느꼈다.

그는 가파른 돌계단을 떼굴떼굴 구르고 계단참에서는 공처럼 튀어올랐다가 또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다. 이후고 푹 깨진 바닥에 돌로 쌓은 제단이 있고, 그 위에 돌로 지은 아치문이 있는 바로 그곳에, 등을 철퍼덕 부딪히며 멈추었다. 가슴에서 숨이 다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죽음으로 먹는 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뇌의 방에서 보았던 다섯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은 벌써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다른 문들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를 향해서 계단을 펄쩍펄쩍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해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너무도 심하게 떨리는 그의 두 다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해

줄 뿐이었다. 예언이 적힌 구슬은 기적처럼 아직도 원손에 말짱하게 쥐어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도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한눈에 보려고 뒷걸음치면서 주위를 살폈다. 그의 다리에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달았다. 위에 아치문이 서 있는 그 제단이었다. 그는 뒷걸음질로 제단 위를 올라갔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모두 우뚝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중에는 해리만큼이나 숨을 헐떡거리는 자들도 더러 있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자도 있었다. 돌로호브였다.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저주에서 풀려난 돌로호브가 능글맞게 웃으면서 해리의 얼굴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고 있었다.

"퍼터, 경주는 끝났어."

루시우스 말포이가 두건을 벗으면서 낮은 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자, 이제 순순히 예언을 나한테 넘겨줘..."

"다-다른 친구들을 돌려보내면 이걸 당신한테 주겠어!"

해리가 아주 절박하게 말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 몇 명이 킥킥 웃었다.

"넌 지금 나하고 거래를 할 처지가 아니야, 포터."

루시우스 말포이가 말했다. 얼마나 흡족한지 그의 창백한 얼굴이 조금 불그레해져 있었다.

"봐, 우린 열 명이고 넌 혼자야... 아니, 덤블도어는 그렇게 간단한 셈조차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야?"

"호자가 아이야!"

저만치 위에서 어떤 목소리가 외쳤다.

"나도 이씨!"

해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빌이 비틀거리면서 그들을 향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파르르 떨리는 그의 한 손에는 헤르미온느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네빌, 안 돼- 론한테 돌아가-"

"스투비파이!"

네빌이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차례로 지팡이를 겨누면서 소리쳤다.

"스투비파이! 스튜비-"

유난히 덩치가 큰 어느 죽음을 먹는 자가 뒤에서 네빌을 붙잡고 그의 두 팔을 마치 새의 죽지를 꺾듯이 뒤로 모아 잡았다. 네빌이 버둥거리며 발길질을 했다. 곳곳에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롱바텀 아냐, 응?"

루시우스 말포이가 코웃음을 치듯이 말했다.

"흠, 네 할머니는 우리 때문에 자식, 손자들을 잃는 데는 아주 직숙해졌을 거야... 네가 여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그리 놀라지는 않을 거라고..."

"롱바텀?"

벨라트릭스가 말했다. 그 여자의 음산한 얼굴에 악의에 찬 미소가 환히 번졌다.

"이런, 이제야 인사를 하는군. 네 에미 애비를 만났을 땐 정말 즐거웠어..."

"가만 안 둘 꺼야!"

네빌이 뭐라고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거세게 발버둥을 치자, 그의 두 팔을 움켜잡고 있던 죽음을 먹는 자가 소리쳤다.

"누가 이놈을 어떻게 좀 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벨라드릭스가 말했다. 그 여자는 모처럼 되살아난 생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해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네빌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 롱바텀이 얼마나 오래 견디다가 제 에비

애비처럼 되는지 구경이나 하자고... 물론 포터가 예언을 곱게 넘겨주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저대로 두면 안 대!"

네빌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아주 정신이 나가 버린 것처럼 발길질을 하고 몸을 비틀었다. 벨라트릭스가 그와 그를 붙잡고 있는 자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갔다.

"저대로 두면 안 대, 해리!"

벨라트릭스가 지팡이를 추켜올렸다.

"크루시오!"

네빌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두 다리가 가슴팍까지 들어 올려졌다. 그 바람에 그를 붙잡고 있던 죽음을 먹는 자의 두 손도 위로 추켜올려졌다. 그가 네빌을 놓치자 바닥에 떨어진 네빌은 마구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질렀다.

"이건 맛이 나 조금 보여 준 거야!"

벨라드릭스가 다시 지팡이를 치켜들자, 네빌이 비명을 뚫고 그 여자의 발밑에 드러누워서 훌쩍훌쩍 울었다. 여자가 확 고개를 돌리고 해리를 쏘아보았다.

"자, 포터, 예언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친구가 끔찍하게 죽는 꼴을 보든지, 빨리 결정해!"

해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결정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문제였다. 그는 아직도 따뜻한 구슬을 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말포이가 앞으로 펄쩍 뛰어왔다.

그때 두 개의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다섯 명이 뛰어 들어왔다. 시리우스, 루핀, 무디, 통스, 킹슬리였다.

말포이가 고개를 돌리고 지팡이를 쳐들었다. 그러나 통스가 이미 그에게 기절 주문을 날려 보낸 뒤였다. 해리는 그 주문이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제단 밑으로 몸을 날렸다. 느닷없이 나타난 기사단의 단원들이 웅푹 파인 바닥을 향해서 계단을 펄쩍펄쩍 뛰어 내려오면서 주문을 퍼부어 대자 죽음을 먹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댔다. 흙흙 나는 몸들과 번쩍번쩍하는 빛들 사이로 해리는 네빌이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을 보았다. 해리는 때마침 날아오던 빨간 빛을 고개를 확 숙여서 피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네빌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너 괜찮아?"

해리가 소리쳤다. 또 한 개의 주문이 그들의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갔다.

"응."

네빌이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했다.

"론은?"

"갠차늘 거야. 내가 여기로 올 때 여전히 뇌와 싸우고 있었어."

두 사람 사이의 바닥에 빛이 꽂혔다. 불과 몇 초 전에 네빌의 손이 있었던 자리가 푹 파였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칠 때, 난데없이 두툼한 손 하나가 나타나서 해리의 목을 움켜잡고 치켜들었다. 해리의 두 발이 땅바닥에서 떠 간들거렸다.

"그거 이리 내와. 예언을 내놓으란!"

웬 목소리가 바로 그의 귓가에서 말했다.

그자의 손아귀가 너무도 억세게 기도를 누르고 있어서 해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물이 그득 맺힌 눈으로 해리는 3미터쯤 앞에서 시리우스가 죽음을 먹는 자와 결투를 벌이고 있는 걸 보았다. 킹슬리는 한꺼번에 두 명을 상대하고 있었고, 아직도 계단 중간쯤에 있는 통스는 벨라트릭스를 향해서 주문을 날리고 있었다. 해리의 숨이 곧 끊어질 지경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지팡이 끝을 돌려서 그자의 허리를 겨누었으나, 주문을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 그자의 다른 한 손이 예언을 움켜쥐고 있는 해리의 손을 더듬어 찾고 있었다.

"아아악!"

느닷없이 네빌이 그자에게 돌진했다. 주문을 또렷하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빌은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로 죽음을 먹는 자의 눈이 있는 뺑돌린 두건의 구멍을 푹 찔렀다. 죽음을 먹는 자가 해리의 목을 움켜잡고 있던 손을 놓고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해리가 휙휙 돌아서서 막혔던 숨을 토하며 외쳤다.

"스투페파이!"

죽음을 먹는 자가 디로 벌렁 넘어졌다. 그의 두건이 벗겨졌다.

맥네어였다. 벅벅을 죽인 자로 추정하고 있던 바로 그자였다. 그자의 한쪽 눈이 통통 부어오르고, 벌겋게 피가 맺혀 있었다.

"고마워!"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황급히 네빌을 옆으로 잡아당겼다. 시리우스와 죽음을 먹는 자가 결투를 벌이며 바로 곁에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던지, 그들의 지팡이가 흐릿해 보일 정도였다. 바로 그대 해리의 발에 무언가 둥글고 단단한 것이 밟혔다. 해리는 자기가 구슬을 떨어뜨린 줄 알고 순간 온몸이 오싹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디의 마법의 눈이라는 걸 곧 알아보았다. 무디의 마법의 눈이 뱅글뱅글 돌면서 바닥을 굴러가고 있었다.

눈동자의 주인은 바로 옆에 쓰러져서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무디를 쓰러드린 자가 이번에는 해리와 네빌을 덮쳐 오고 있었다. 돌로호브였다. 그의 길고 창백한 얼굴이 승리의 기쁨으로 잔뜩 뒤틀려 있었다.

"타란탈레그라!"

돌로호브가 네빌에게 지팡이를 겨누고 소리쳤다. 그러자 네빌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두 발을 허둥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자, 이번엔 포터!"

그가 헤르미온느를 공격할 때처럼 지팡이를 쳐들었다가 그어 내리는 걸 보고 해리가 소리쳤다.

"프로테고!"

날이 무딘 칼 같은 것이 얼굴을 스치는 걸 느끼는 순간에 해리가 옆으로 휙휙 쓰러지면서 먼저 쓰러져 두 발을 쳐들고 버둥거리던 네빌을 덮쳤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날려 보낸 방패 마법 덕분에 최악의 타격은 간신히 면한 것 같았다.

돌로호브가 또다시 지팡이를 쳐들었다.

"아씨오 예~"

시리우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돌로호브를 어깨로 들이받았다.

돌로호브가 옆으로 나가떨어졌다. 구슬이 또 해리의 손에서 미끄러졌으나, 손가락으로 간신히 움켜잡았다. 시리우스는 이제 돌로호브와 결투를 벌이고 있었다. 칼처럼 번득이는 두 지팡이 끝에서 불꽃이 튀었다.

돌로호브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공격했을 대처럼 다시 한 번 지팡이를 쳐들었다가 내리그으려고 했다. 해리가 벌떡 튀어 오르면서 고함을 질렀다.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그러자 돌로호브의 두 팔과 두 무릎이 푹 꺾이고, 뒤로 휙휙 넘어지면서 등을 바닥에 찔었다.

"퇴고야!"

시리우스가 해리의 머리를 눌러서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두 개의 주문을 피하면서 소리쳤다.

"자, 이제 넌 여기서~"

그들은 또 황급히 몸을 숙였다. 초록색 빛이 시리우스의 머리 위를 스쳐갔다. 저편의 계단 중간쯤에서 통스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고, 벨라트릭스가 의기양양하게 뒤를 따라 뛰어 내려오는 게 보였다.

"해리, 예언을 꼭 쥐고, 네빌을 데리고 뛰어!"

시리우스가 소리치고는 벨라트릭스를 향해서 내달렸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해리는 보지 못했다. 두건을 벗어던진 곰보 록우드와 맞서 싸우는 킹슬리가 잠깐 보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막 네빌에게로 다가가려는 순간에 또 초록색 빛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일어설 수 있겠어?"

해리가 네빌의 귀에 입을 대고 소리쳤다. 네빌의 두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제멋대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팔을 내 목에 감아~"

네빌이 한 팔을 해리의 목에 감았다. 해리가 고운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네빌의 두 다리는 아무렇게나 버둥거릴 뿐 전혀 그의 몸을 지탱해 주지 못했다. 바로 그때, 웬 남자가 또 그들을 들이받았다. 해리와 네빌이 뒤로 벌렁 나가떨어지고, 네빌의 두 다리가 마치 뒤집힌 풍뎅이의 다리처럼 바쁘게 버둥거렸다. 뒤로 넘어지는 순간에 해리는 구슬이 깨질세라 황급히 원손을 공중으로 쳐들었다.

"예언, 예언을 이리 쥐, 포터."

루시우스 말포이의 목소리가 해리의 귓가에서 으르렁거렸다. 말포이의 지팡이 끝이 명치를 아프게 지르고 있는 걸 해리는 얼른 깨달았다.

"싫어~ 웃기지 마... 네빌~ 이거 받아!"

해리가 구슬을 던졌다. 네빌이 몸을 굴려서 가슴팍에 떨어지는 구슬을 덥석 붙잡았다. 말포이가 네빌에게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러나 해리가 황급히 어깨 너머로 지팡이를 겨누고 소리쳤다.

"임페디멘타!"

말포이의 등에 해리의 주문이 꽂혔다. 해리가 벌떡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포이가 제단에 몸을 짚었다. 제단 위에서는 이제 시리우스가 벨라트릭스와 결투를 벌이고 있었다. 몸을 추스른 말포이가 다시 해리와 네빌에게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주문이 튀어나오려는 찰나에 루핀이 뛰어들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해리, 친구들을 데리고 빨리 여기서 나가!"

해리가 네빌의 어깨를 움켜잡고 일으켜서 계단의 맨 아랫단에 세웠다. 네빌의 두 다리는 아직도 경련을 일으키며 제멋대로 버둥거릴 뿐 전혀 몸을 지탱하지 못했다. 해리는 남아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네빌을 끌어당기며 한 계단을 더 올라갔다.

어디선가 날아온 주문이 해리의 두 발치에 꽂혔다. 돌계단이 부서지면서 그는 다시 아랫단으로 떨어지고, 네빌은 풀썩 주저앉았다. 네빌이 여전히 두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가자!"

해리가 다시 네빌의 망토 어깨 부분을 덥석 움켜잡고 끌어 당기면서 소리쳤다.

"다리에 힘을 줘 봐~"

그가 다시 한 번 힘껏 잡아당기자 네빌의 망토 왼쪽 솔기가 부록 찢어졌다. 작은 유리 구슬이 주머니에서 흘러내리는 게 얼핏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손을 쓸 새도 없이, 제멋대로 버둥거리던 네빌의 한 발이 구슬을 정통으로 차 버렸다. 구슬이 오른쪽으로 3 미터쯤 날아가다가 계단에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다. 구슬이 깨진 자리를 멍하니 쳐다보던 해리와 네빌의 입이 저절로 쪽 벌어졌다. 진주처럼 허연, 눈이 엄청나게 큰 사람의 형상이 허공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 외에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 해리는 그 형상의 입이 움직이는 걸 분명히 보았지만,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부딪히고 부수는 소리, 비명 소리, 고함 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워서 예언은 단 한 마디도 해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 형상이 입을 다물고 곧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해리, 미안해!"

네빌이 소리쳤다. 여전히 두 다리를 버둥거리는 네빌의 얼굴에 괴로운 빛이 가득했다.

"정말 미안해, 해리. 일부로 그런 게 아니었어~"

"괜찮아!"

해리가 소리쳤다.

"빨리 일어나기나 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더블도어!"

네빌이 말했다. 해리의 어깨 너머로 쳐다보는, 땀방울이 송송 맺힌
네빌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뭐라고?"

"더블도어!"

해리는 네빌이 쳐다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 바로 위에, 뇌의
방으로 통하는 문틀을 마치 액자인 양 뒤로 하고, 알버스 덤블도어가
떡하니 서 있었다. 지팡이를 높이 치켜든 그의 하얀 얼굴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를 본 순간, 해리는 강렬한 전류가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뻔쳐
가는 걸 느꼈다. 이젠 살았어.

빨리 거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새 잊어버린 네빌과 해리를
향해서 덤블도어가 급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가 계단 아래까지 거의 다
내려왔을 때에야 죽음을 먹는 자들은 그가 나타났다는 걸 알아차렸다.
사방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저 편에서 어느 죽음을 먹는 자가
원숭이처럼 허우적대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덤블도어의 주문이
휙 날아가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싯바늘에 꿰인 것처럼 그의 몸이
너무도 가볍게 휘인 뒤로 날아왔다.

두 명만이 아직 싸우고 있었다. 덤블도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분명했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벨라트릭스가 쓴 빨간 빛을 피하는 걸
보았다. 시리우스가 그 여자를 보고 깔깔 웃고 있었다.

"또 해보시지, 실력이 형편없군!"

그의 고함 소리가 웅폭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벨라트릭스가 다시 날려 보낸 빨간 빛이 시리우스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다.

시리우스의 얼굴에서 웃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의 두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해리는 네빌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딱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 지팡이를 앞에 쳐들었다.
덤블도어도 제단 쪽으로 돌아섰다.

시리우스의 몸이 바닥에 달기까지는 한 세월이나 걸릴 것 같았다. 그의
몸이 아주 보기 좋게 휙 청 휙어지면서 뒤로 넘어가더니, 아치문에 걸린
너덜너덜한 베일 속으로...

바로 그때 해리는 대부 시리우스의, 한때는 미남이었던 협수룩한 얼굴에
공포와 경악이 뒤섞이는 걸 보았다. 베일을 덮치면서 그 낡은 아치문
안으로 스러진 시리우스의 몸이 베일 뒤로 사라져 버리고, 잠깐 스치고
지나간 돌풍에 펄럭였다가 다시 가라앉는 것처럼 천천히 일렁였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의기양양한 고함 소리가 해리의 귀를 울렸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시리우스가 아치문 안으로 쓰러졌지만, 이제 곧 다시 나와서...

그러나 시리우스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시리우스!" 해리가 소리쳤다.

"시리우스!"

해리는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면서 웅푹 깨진 바닥에 내려섰다.

시리우스는 단지 그 베일 뒤에 쓰러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그러나 그가 제단을 뛰어오르려는 순간에 루핀이 뒤에서 두 팔로 해리를
끌어안았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해리~"

"저기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늦었어, 해리!"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해리가 안간힘을 쓰며 벌버둥거리자 루핀이 그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해리... 아무것도... 시리우스는 죽었어."

제 36 장 그가 두려워하는 단 한 사람

"죽지 않았어!"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해리는 믿지 않았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루핀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 쳤다. 그는 생각했다. 루핀은 월 모르고 있어. 저 베일 뒤에는 사람들이 있어. 처음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저 안에서 사람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나는 분명 들었어-. 시리우스는 저 안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잠깐 몸을 숨기고 있을 뿐이야-.

"시리우스!"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시리우스!"

"돌아올 수 없어, 해리."

루핀이 말했다. 발버둥 치는 해리를 놀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그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돌아올 수 없어, 시리우스는 죽-"

"죽-지-않-았-어!"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시리우스!"

그들의 주위가 다시 어수선해져 있었다. 정신없이 떠들썩하고, 훨씬 더 많은 주문들이 번쩍번쩍 날아다녔다. 해리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이고 소동일 뿐이었다. 빗나간 주문들이 그들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해리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시리우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루핀이 어서 버려 주는 것뿐이었다. 그 너덜너덜한 베일 바로 뒤에 서 있는 시리우스가 검은 머리카락을 흔들어 털며 다시 나타나 싸움판에 낄 수 없다는 생각을-

루핀이 해리를 제단에서 끌어당겼지만 해리는 계속 아치문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그는 자기를 마냥 기다리게 하는 시리우스한테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루핀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그는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다. 시리우스가 이제까지 그를 마냥 기다리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시리우스는 언제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우러 달려오고, 그를 만나러 달려왔었다는 것을... 해리가 지금 마치 자기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그의 이름을 외쳐 대는 데도 시리우스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가 정말로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정말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덤블도어가 아직 그 방에 남아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거의 다 잡아 방 한가운데에 몰아 놓고 있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밧줄에 묶인 듯이 꼼짝도 못했다. 매드아이 무디가 방을 엉금엉금 가로질러 가 쓰러져 있는 통스의 의식을 깨우려 노력했다. 제단 뒤에서는 아직도 섬광이 번쩍이고 있었으며 신음 소리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시리우스를 대신해서 킹슬 리가 벨라트릭스와 결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해리?"

네빌이 뒤통거리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해리는 발버둥을 치지 않았지만, 루핀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 그의 한쪽 팔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네빌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해리... 정말 미안해..."

네빌이 말했다. 그의 두 다리는 아직도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람-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그 사람도 네-네 친구여씨?"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길 봐."

루핀이 나직하게 말하고, 네빌의 다리에 지팡이를 겨누었다.

"피니트!"

네빌의 다리에 걸려 있던 마법이 풀렸다. 그의 두 다리가 다시 멀쩡해졌다. 루핀은 안색이 몹시 창백했다.

"다른 친구들을 찾아봐야지. 다들 어디 있지, 네빌?"

그렇게 말하면서 루핀은 아치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지금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저쪽 방에 이써요. 뇌가 혼을 공격했지만, 갠차늘 거예요- 헤으미는 정시늘 이컸는데, 매근 남아 이써꼬~"

네빌이 말했다.

제단 뒤에서 요란하게 바닥을 짚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터졌다. 해리는 킹슬 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걸 보았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고, 덤블도어가 그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그가 주문을 날렸지만 그 여자는 얼른 방향을 꺾어 버렸다. 벨라트릭스는 계단을 중간쯤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해리- 안 돼!"

루핀이 소리쳤다. 그러나 해리는 어느새 그의 팔을 느슨하게 잡고 있던 루핀의 손을 떨쳐 버린 뒤였다.

"저 여자가 시리우스를 죽였어! 저 여자가 죽였어- 내가 저 여자를 죽일 거야!"

해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는 계단을 깽충껑충 뛰어 올라갔다. 뒤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개의치 않았다. 벨라트릭스의 망토 자락이 문 안으로 사라지고, 잠시 후 그들은 수조 속에서 뇌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 방에 들어서 있었다...

벨라트릭스가 어깨 너머로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러자 수조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옆으로 기울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물이 해리에게 쏟아지고, 뇌들이 그에게 흘러내려서 온갖 색깔의 긴 촉수들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때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그러자 뇌들이 다시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는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면서 문을 향해 달렸다.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루나를 뛰어넘고, '해리- 무슨- ?' 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지니를 지나고, 아직도

힘없이 킥킥 웃고 있는 론을 지나서,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한 헤르미온느를 지나쳤다. 그가 문을 비틀어 열고 캄캄한 어둠에 잠긴 그 둑근방으로 들어섰을 때, 벨라트릭스는 저쪽 끝의 또 다른 문으로 막 꽁무니를 감추고 있었다. 그 문 밖은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복도였다.

해리는 그 문을 향해서 내달렸다. 그러나 그 여자가 거칠게 문을 닫아 버리는 바람에, 벽이 돌기 시작했다. 벽이 점점 빠르게 돌고, 다시 한 번 해리는 푸른색 촛불들의 허연 띠에 에워싸였다.

"출구가 어디지?"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러자 벽이 우르릉거리며 멈추었다.

"나가는 문이 어디지?"

마치 그 방이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의 바로 뒤에 있는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복도가 바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횃불들이 밝혀져 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달렸다...

앞에서 승강기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서 모퉁이를 돌고, 다른 승강기를 타기 위해 주먹으로 버튼을 부술 것처럼 두드렸다. 머리 위에서 천천히 승강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살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해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중앙 훌이 표시된 버튼을 마구 눌러댔다. 창살문이 스르르 닫히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창살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해리는 밖으로 튀어 나가서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벨라트릭스는 훌의 저편 끝에 서 있는 전화 박스 승강기에 거의 다가가 있었다. 해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온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그 여자가 고개를 뒤로 돌려 주문을 날려 보냈다. 해리는 마법사 동상이 있는 분수대 뒤로 몸을 던졌다. 그를 향해 날아온 주문이 그를 스치고 지나가서 훌의 저편 끝에 있는 황금색 문을 강타했다. 그 문이 종처럼 울렸다. 이젠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가 멈춰 섰던 것이다. 해리는 분수대 뒤에서 몸을 낮춘 채 귀를 기울였다.

"나와, 어서 나와, 해리!"

그 여자의 아기를 흉내 낸 목소리가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바닥에 부딪혀서 메아리쳤다.

"기껏 거기 숨으려고 날 쫓아왔어? 난 네가 우리 귀여운 사촌의 복수를 하겠다고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물론!"

해리가 소리쳤다. 그러자 사방에서 수많은 해리의 분신들이, 물론! 물론! 물론! 하고 그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았다.

"아하하하..... 그놈을 사랑했나 보지, 젖비린내 나는 포터?"

해리의 마음속에서 이제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증오심이 솟구쳐 올랐다. 그가 옆으로 쓱 나서면서 외쳤다.

"크루시오!"

벨라트릭스가 비명을 질렀다. 해리의 주문이 정통으로 꽂혀서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었다. 그러나 네빌처럼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찢어지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벌떡 일어나 숨을 헐떡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쏙 가셨다. 해리는 다시 황급히 분수대 뒤로 몸을 날렸다. 그 여자가 날려 보낸 주문이 잘생긴 마법사 석상의 머리를 강타했다. 머리가 6 미터쯤 뒤로 날아가서 떨어져, 나무 바닥을 짚으며 길게 미끄러져 갔다.

"용서받지 못할 저주를 써 본 적이 없군 그래?"

여자가 소리쳤다. 이젠 더 이상 아기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넌 야비해져야 해, 포터! 진짜로 고통을 주고 그걸 즐길 줄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당연한 분노만으로는 절대 내게 고통을 오랫동안 줄 수 없어.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보여 줄까, 응? 내가 한 수 가르쳐 줘?"

해리가 이번에는 분수대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내밀자 벨라트릭스가 소리쳤다.

"크루시오!"

해리가 고개를 얼른 숙였다. 활을 겨누고 있는 켄타우로스 석상의 팔이 핑그르르 돌면서 날아가다가 마법사 석상의 머리에서 조금 못 미친 곳에 떨어졌다.

"포터! 넌 날 이길 수 없어!"

펠라트릭스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 여자가 좀더 편하게 겨냥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다시 반대쪽으로 옮겨 가서 켄타우로스 석상의 발 뒤에 웅크렸다. 그의 머리 꼭대기가 집요정 석상에 겨우 가려졌다.

"나는 어둠의 마왕님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고, 지금도 그래. 난 그분한테 직접 어둠의 마법을 배웠어. 그래서 너처럼 인정에 약한 얼간이는 감히 따라올 꿈도 못 꿀 마법을 수없이 알고 있지-."

해리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 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간 마법사 석상을 싱글벙글 웃으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도깨비 석상 뒤로 돌아갔다. 해리는 자기를 찾으려고 분수대 뒤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던 벨라트릭스의 등을 겨누고 외쳤다.

"스투페파이!"

그러나 여자가 너무도 재빨리 대응했다.

"프로테고!"

해리가 날려 보낸 기정 마법의 빨간 빛이 그에게로 되돌아왔다. 해리는 기겁을 하며 분수대 뒤로 몸을 피했다. 도깨비 석상의 콧바퀴 하나가 피용하고 날아갔다.

"포터, 너한테 기회를 한 번 주겠어!"

벨라트릭스가 소리쳤다.

"예언을 나한테 넘겨줘-. 바닥으로 굴려서 나한테로 보내-. 그러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 줄지도 몰라!"

"그럼 날 죽이는 수밖에 없어! 벌써 깨졌으니까!"

해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고함을 지를 때 그의 흉터가 불에 지지는 것처럼 아팠다. 이마의 흉터에 다시 불이 붙은 것 같으면서, 지금 그의 격분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어떤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다.

"그자도 알고 있어!"

해리는 벨라트릭스 못지않게 미친 듯한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벌써 깨겼다는 걸 너의 그 늙어 빠진 주인 볼드모트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자가 널 좋아할까, 응?"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벨라트릭스가 부르짖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네빌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깨졌어! 볼드모트가 뭐라고 할까, 응?"

그의 상처가 지글지글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너무 아파서 저절로 눈물이 줄줄 흘렀다....

"거짓말!"

벨라트릭스가 새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녀의 격분한 목소리 뒤에는 공포심이 숨어 있다는 걸 해리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네가 갖고 있어, 포터. 넌 그걸 나한테 넘겨주게 될 거야-. 아씨오 예언! 아씨오 예언!"

해리가 다시 미친 듯한 소리로 웃었다. 그러면 그녀가 더욱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 가는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곧 머리가 터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한쪽 귀가 날아간 도깨비 석상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흔들다가, 벨라트릭스가 또 초록색 빛을 그에게로 날려 보내자 재빨리 도로 내렸다.

"아무것도 없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들었어! 네 주인한테 그렇게 전해-."

해리가 소리쳤다.

"아니야!"

벨라트릭스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주인님, 전 애썼어요, 전 애썼어요- 제발 저를 벌주지 마세요!"

"엄살떨지 마!"

해리가 꽉 소리쳤다. 흉터가 너무도 아파서 눈알도 곧 터질 것처럼 아팠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겁이 났다.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그자한텐 들리지 않아!"

"그럴까, 포터?"

어디선가 높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키가 멀쑥하게 크고, 몹시 호리호리한, 검은 두건을 푹 눌러 쓴, 뱀처럼 무시무시한 희고 음산한 얼굴, 가늘게 찢어진 눈구멍 속의 새빨간 눈동자로 노려보는... 볼드모트 경이 훌의 한가운데에 나타나 있었다.

순식간에 얼어붙어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해리에게 그자가 지팡이를 겨누고 있었다.

"네가 그 예언을 깨뜨렸단 말이지?"

볼드모트가 너무도 냉혹한 새빨간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벨라, 저놈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저놈의 하찮은 마음속에서 진솔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인다... 몇 달 동안이나 준비하고 몇 달 동안이나 수고했는데... 그런데 나의 죽음을 먹는 자들은 제 해리 포터가 또 나를 방해하는 걸 막지 못했어..."

"주인님,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애니마구스인 블랙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벨라트릭스가 징징 울면서 말하다가 볼드모트가 천천히 다가오자 그의 발밑에 몸을 던져 엎드렸다.

"주인님, 그렇지만-"

"조용히 해, 벨라."

볼드모트가 무섭게 말했다.

"너는 좀 있다가 처리할 거야. 네가 훌쩍거리면서 용서를 비는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여기 마법부가지 왔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지만 주인님- 저놈이 여기- 저놈이 저기-"

볼드모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하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포터."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너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나를 귀찮게 했어. 아바다 케다브라!"

해리는 입조차 벌려 보지 못했다. 그는 지팡이를쥔 손을 축 늘어 헐린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으면 했다.

그러나 머리가 없어진 마법사 석상이 번쩍 살아나, 자리에서 훅 뛰어오르더니 해리와 볼드모트 사이에 쿵 하고 내려섰다. 두 팔을 쭉 벌린 채 버티고 선 마법사 석상 가슴에 볼드모트의 주문이 부딪히고는 퉁겨 나갔다.

"뭐야-?"

볼드모트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숨을 토하면서 말했다.

"덤블도어!"

해리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는 등 뒤를 돌아보았다. 덤프도어가 황금색 문 앞에 서 있었다.

볼드모트가 지팡이를 쳐들고 덤프도어에게 초록색 빛을 쏘자 덤프도어가 훅 들어서더니 망토 자락을 펼럭이면서 사라졌다. 바로 다음 순간에 볼드모트의 뒤에 나타나서 분수대의 다른 석상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저었다. 그러자 석상들이 모두 깨어났다. 마녀는 벨라트릭스에게 달려갔다. 벨라트릭스가 비명을 지르면서 마구 쏘아 댄 주문들이 마녀의

가슴팍에 부질없이 꽂히면서, 마녀가 벨라트릭스를 덮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도깨비와 집요정 석상은 벽난로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외팔 켄타우로스는 볼드모트에게로 뛰어갔다. 볼드모트가 사라졌다가 분수대 근처에 다시 나타났다. 머리가 없는 마법사 석상이 해리를 격투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뒤로 떠밀고 갈 때, 덤블도어가 볼드모트에게로 다가가고 켄타우로스 석상은 그들의 주위를 깅충껑충 뛰어다녔다.

"자네가 오늘 밤에 여기 온 건 멍청한 짓이었어, 톰."

덤블도어가 차분하게 말했다.

"오러들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

"그래 봤자 나는 없을 것이고, 너만 죽어 있을 거야!"

볼드모트가 내뱉듯이 말했다. 그가 또다시 필살의 주문을 덤블도어에게 쏘았으나 빗나가서 보안 검색대 책상에 꽂혀, 책상이 불에 훑싸였다. 덤블도어가 지팡이를 쳐들었다. 그의 주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해리는 마법사 석상이 가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머리 위를 지나갈 때는 머리카락이 모두 벌떡 일어서는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번에 볼드모트는 번쩍이는 은 방패를 불러내서 막아냈다. 그러자 무슨 주문인지 모를 그 주문은 방패에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단지 징처럼 깊은 소리만 울렸다. 온몸이 오싹해지는 이상야릇한 소리였다.

"날 죽일 생각은 없는가 보군, 덤블도어?"

볼드모트가 말했다. 은 방패의 꼭대기에서 그의 새빨갛고 가느다란 두 눈이 더욱 가늘어졌다.

"그건 너무 잔인하다는 건가, 응?"

"한 인간을 파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린 잘 알아, 톰."

덤블도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애초에 아무 일도 없이 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볼드모트를 향해 걸어갔다.

"자네의 목숨을 뺏는 것만으로는 난 만족할 수 없어~"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어, 덤블도어!"

볼드모트가 으르렁거렸다.

"그건 자네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볼드모트에게 다가가면서 마치 술이나 한잔하며 의논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을 했다. 해리는 아무런 방비도 없이 태연히 걸어가는 그를 보자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그에게 조심하라고 한마디 외쳐 주고 싶었지만, 머리가 떨어져 나간 마법사 석상이 그를 벽 쪽으로 몰고가면서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다.

"이 세상엔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자네의 최대 약점이지~"

은 방패 뒤에서 또 초록색 빛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외팔 켄타우로스 석상이 덤블도어 앞으로 뛰어들어서 주문을 막았다. 석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덤블도어가 마치 채찍을 휘두르듯이 지팡이를 휘둘렀다. 길고 가느다란 불꽃이 날아가더니 볼드모트와 은 방패를 한꺼번에 칭칭 감았다. 덤블도어의 승리로 싸움이 끝나는가 싶은 순간에, 그 불의 밧줄이 갑자기 뱀으로 돌변했다. 뱀이 볼드모트를 놓아 버리고 무섭게 쑥쑥거리면서 덤블도어를 향해 머리를 쳐들었다.

볼드모트가 사라졌다. 뱀이 꼬리로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나서 곧-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섯 개의 석상이 서 있었던 분수대 한가운데의 대좌 위에서 볼드모트가 다시 나타난 순간, 덤블도어의 바로 머리 위 허공에서는 화염이 평하고 터졌다.

"조심해요!"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볼드모트의 지팡이 끝에서 또 초록색 빛이 덤블도어를 향해 날아가고, 그 순간 뱀도 머리를-

부리를 쪽 벌린 퍽스가 난데없이 덤블도어 앞에 나타나더니 그 초록색

빛이 덥석 삼켜 버렸다. 빛이 삼켜 버린 퍽스가 평 소리를 내고 폭발하며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퍽스는 아주 작고 쭈글쭈글한, 날 수 없는 한 마리 새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덤블도어가 지팡이를 길고 유연하게 한 번 휘저었다. 사나운 이빨을 막 그에게 박으려던 찰나에 뱀이 허공으로 날아가더니 시커먼 연기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고, 분수대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 유리로 만든 고치처럼 볼드모트를 훔쳤다.

몇 초 간 볼드모트의 모습이 대좌 위에서 검게 아른거리는 얼굴 없는 형태로 보였다. 그는 자신을 죄어 오는 엄청난 물을 떨쳐 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리고 그는 사라져 버렸다. 물이 다시 분수대 속으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흘러넘쳐 복도 바닥에 흥건히 흘렀다.

"주인님!"

벨라트릭스가 소리쳤다.

볼드모트가 도망치자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 해리가 마법사 석상 뒤에서 뛰어나오자 덤블도어가 고함을 질렀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해리!"

덤블도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해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제 복도에는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벨라트릭스는 아직도 마녀 석상에 가슴이 짓눌린 채 있었고, 퍽스는 다시 태어난 아기 불사조의 모습으로 연약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해리의 흉터가 터졌다. 그는 자기가 죽는 줄로만 알았다.

상상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었다- 그는 그 복도에 있지도 않았다. 빨간 눈을 가진 어떤 괴물이 그를 밧줄처럼 칭칭 감고 있었다. 너무 세게 감겨서 해리는 어디까지가 자기 몸이고 어디부터가 괴물의 몸인지 알 수 없었다. 고통의 밧줄에 묶여서 그와 괴물이 한 몸이 되었다. 풀려날 길은 없는 것 같았다-.

괴물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해리의 입을 빌려서 괴물이 말을 했다.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해리는 자기의 턱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어서 나를 죽이세요, 덤블도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죽어 가면서, 제발 놓아 달라고 온몸 구석구석의 무수한 입으로 외치면서, 해리는 또다시 그 괴물이 그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을 느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덤블도어. 어서 그놈을 죽여..."

해리는 생각했다. 이 고통을 멈춰 주세요. 우릴 죽게 해주세요... 제발 끝내 주세요, 덤블도어... 이 고통에 비하면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그리고 난 시리우스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도 슬픈 마음에 해리의 가슴이 곧 터질 것 같았다. 비로 그 순간 괴물의 땋리가 스르르 풀리고 그의 고통이 사라졌다. 해리는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안경은 없어졌고, 그는 나무 바닥이 아니라 얼음 바닥에 누은 것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해리는 눈을 떴다. 이제까지 그를 지켜 주었던, 머리가 떨어진 마법사 석상의 발치에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석상은 이제 뒤로 벌렁 나자빠진, 깨진 돌덩이일 뿐이었다. 해리가 안경을 지어서 쓰고 고개를 한 뼘쯤 들었을 때, 덤블도어의 매부리코가 바로 그의 코앞에 달아 있었다.

"괜찮니, 해리?"

"예."

해리가 대답했다. 몸이 너무도 심하게 떨려서 그는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예-괜찮아요, 볼드모트는 어디 있죠? 어디- 저 사람들은 누구죠- 무슨-"

중앙 훌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한쪽 벽의 모든 벽난로에서 짙은 초록색

불이 활활 타고 있고, 벽난로마다 마법사와 마녀가 아직도 꾸역꾸역 걸어 나오고 있었다. 덤블도어가 일으켜 세워 주었을 때, 해리는 황금빛 집요정 석상과 도깨비 석상이 아연실색한 코넬리우스 퍼지를 데리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자가 저기 서 있었어요!"

새빨간 망토를 입은 말총머리 마법사가, 조금 전에 벨라트릭스가 깔려 있었던 곳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거기엔 금 부스러기만 소복이 쌓여 있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퍼지 씨. 틀림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그자가 웬 여자를 움켜쥐고 사라졌어요!"

"나도 알아, 윌리암슨, 나도 안다고, 나도 그 자를 봤어!"

가느다란 세로줄 무늬 망토 안에 잠옷을 입은 퍼지가 방금 수 킬로미터를 달려온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면서 주절주절 말했다.

"세상에- 여기- 여기에- 마법부 안이라니! 맙소사-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아래 미스터리 부서에 내려가 보게, 코넬리우스."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훌족하다는 표정을 지은 덤블도어가 그들을 향해서 걸어갔다. 새롭게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제야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지팡이를 치켜드는 자들도 있고, 그저 깜짝 놀라서 명청한 표정을 짓는 자들도 있었으며,

집요정과 도깨비 석상은 박수를 치고,

퍼지는 슬리퍼를 신은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펄쩍 뛰었다).

"전에 탈옥했던 죽음을 먹는 자들 중 몇 놈은 내가 죽음의 방에 가둬 놨네, 반-순간이동 주문을 걸어 뒀지. 그놈들이 지금 자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네."

덤블도어가 그에게 말했다.

"덤블도어!"

퍼지가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말했다. 너무도 놀라서 얼이 다 빠져 버린 것 같았다.

"당신이- 여기- 난- 난-"

퍼지는 자기가 데리고 온 오러들을 허둥지둥 둘러보았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자를 체포해!"

"코넬리우스, 난 자네 부하들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네-.

이번에도 물론 내가 이길 테고!"

덤블도어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분 전에 자네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잖나? 내가 1년 전부터 해 왔던 말이 다 진실이었다는 걸 말이야. 볼드모트는 돌아왔어. 자네 열두 달 동안 혓다리만 짚었던 거야. 엉뚱한 사람을 쫓아다녔단 말이야! 그만하면 이젠 정신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

"난- 잘- 모르겠어-."

퍼지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누군가가 나서서 말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위를 허둥지둥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좋아- 도울리쉬! 윌리암슨! 미스터리 부서에 내려가 봐.... 덤블도어, 당신은- 당신은 여기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 황금 분수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마법사와 마녀, 켄타우로스 석상의 잔해가 여기저기 훑어져 있는 바닥을 둘러보면서 그가 몹시 볼멘소리로 말했다.

"그건 해리를 호그와트로 돌려보낸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을 걸세."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 해리 포터?"

퍼지가 뒤로 빙금 봄을 돌리고 해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해리는 덤블도어와 볼드모트가 결투를 벌이는 동안에 그를 지켜 주었던, 그러나 지금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법사 석상의 곁의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 그가 여기에?"

퍼지가 물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해리가 학교에 도착한 뒤에 내가 모든 걸 설명하겠네."

덤블도어가 다시 말했다.

그가 마법사 석상의 머리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지팡이를 겨누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포터스."

머리가 푸른색으로 달아오르면서 잠깐 시끄럽게 요동을 치다가 잠잠해졌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덤블도어?"

덤블도어가 그 머리를 집어 들고 해리 곁으로 오자 퍼지가 말했다.

"당신은 그 포트키를 가질 자격이 없어! 마법부의 장관 바로 앞에서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자격이 없단 말이야. 당신은- 당신은-"

덤블도어가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근엄하게 쏘아보자 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다.

"자넨 돌로레스 엉브릿지를 호그와트에서 내쫓으란 지시를 내려 주게.

자네의 오러들에게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 선생을 더 이상 추적하지 말라고 하게.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두 개의 바늘이 있는 시계를 꺼내서 들여다보았다.

"앞으로 삼십 분의 시간을 주겠네. 조금 전에 여기서 있었던 일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시간이야. 그런 다음에 나는 학교로 돌아가야 하네. 내 도움이 더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호그와트로 찾아오게. 편지를 보내든지. 교장 앞으로 보내면 나한테 전해질 걸세."

퍼지가 더욱 사납게 눈알을 부라렸다. 입이 벌어지고, 형클어진 회색 머리카락 밑의 동그란 얼굴이 발갛게 익어 갔다.

"난- 당신은-"

덤블도어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이 포트키를 받아라, 해리"

덤블도어가 석상의 머리를 해리에게 내밀자, 해리는 거기에 손을 얹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혹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삼십 분 후에 다시 만날 거다, 하나... 둘... 셋...."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해리는 배꼽 근처가 확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발밑에서 나무 바닥이 사라지고, 중앙 틀이 사라지고, 퍼지와 덤블도어도 사라졌다. 그리고 색채와 음향의 소용돌이 속을 그는 날아가고 있었다....

제 37 장 잃어버린 예언

해리의 두 발이 다시 단단한 곳에 달았다. 그의 두 무릎이 조금 꺾이고, 마법사 석상의 머리가 텅!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 떨어졌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덤블도어 교수의 방이었다.

교장이 없는 동안에도 그의 방에서는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다리가 가늘고 긴 턱자 위에서는 은으로 만든 섬세한 기구들이 낮은 소리로 윙윙 돌면서 연기를 내뿜고, 역대 호그와트 교장들은 저마다의 조상화 속에서 머리를 안락의자의 등받이나 액자틀에 기댄 채 졸고 있었다. 해리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몹시 싸늘해 보이는 연한 초록색 땅이 지평선에 드리워져 있었다. 새벽이 밝아 오고 있었다.

교장들이 잠결에 이따금 신음을 하거나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해리는 그 침묵과 고요를 견딜 수가 없었다. 만약 지금 그의 가슴속 감정들이 고스란히 그의 주위에 그려질 수 있다면, 액자 속 교장들은 모두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해리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방 안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숨을 빼르게 몰아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시리우스가 죽은 것은 그의 탓이었다. 순전히 그의 탓이었다. 만약 그가, 해리가, 볼드모트가 쳐 놓았던 함정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지만 않았더라면, 꿈속에서 보았던 것이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지 않았더라면,

헤르미온느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줄 아는 해리의 일면을 볼드모트가 이용했을지도 모르리라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더라면...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해리는 그 생각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몸속 어딘가에 끔찍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시리우스가 있었던 곳, 시리우스가 사라진 곳에 시커먼 구멍이 나 있었지만, 그는 그 것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그 넓고 고요한 방에 홀로 있고 싶지도 않았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등 뒤에서 그림 하나가 유난히 요란하게 코를 골다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해리 포터...."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날카롭고 가느다란 눈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이른 시각에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피니어스가 말했다.

"여긴 자격 있는 교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야. 혹시 덤블도어가 자넬 여기로 보낸 건가? 아, 대답하지 마...."

그가 또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우리 말썽꾸러기 고손자의 소식이라도 갖고 온 거냐?"

해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시리우스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고, 해리는 그에게 그걸 말할 수가 없었다. 말을 하고 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림 속의 교장들 몇몇이 곧 잠을 깨려는 듯이 뒤척였다. 질문이 쏟아질

게 두려워서 해리는 얼른 성큼성큼 걸어가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 방에 갇힌 것이었다.
"문이 잠겼으면 덤블도어가 곧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뜻이겠지?"
덤블도어의 책상 뒤쪽 벽에 걸린, 빨간 코의 뚱보 마법사가 말했다.
해리가 뒤로 돌아섰다. 마법사가 흥미 있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 뒤쪽으로 다시 문손잡이를 돌려
보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잘됐어. 그 친구가 없으니까 심심했어. 정말 심심했다고."
마법사가 말했다.
그가 그림 속의 옥좌 같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해리에게 참으로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네도 알겠지만 덤블도어가 자네를 아주 좋게 생각하더군."
그가 느긋하게 말했다.
"그래, 자넬 아주 존중하더라고."
해리의 가슴속을 가득 메운 죄책감이 마치 거대한 기생충처럼
꿈틀거렸다. 해리는 그 흉물스러운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자기가 자기의 머리와 몸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차라리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텅 빈 벽난로에 갑자기 짙은 초록색 불꽃이 일었다. 깜짝 놀라서 문에서
비켜선 해리는, 벽난로 안의 쇠살대에서 빙그르르 도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키가 큰 덤블도어의 형상이 불꽃 속에서 우뚝 나타나자 벽에
걸린 마법사와 마녀들이 흥칫 놀라며 잠에서 깨어 그에게 어서 오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고맙소들." 덤블도어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해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 곁에 있는 횃대 앞으로 걸어가더니
망토의 안주머니에서 깃털이 다 빠진 작고 징그러운 퍽스를 꺼냈다.
그러고는 평소에 퍽스가 앓아 있던 황금 횃대의 부드러운 잿더미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음, 해리."
이윽고 덤블도어가 아기 새에게서 돌아서면서 말했다.
"기쁜 소식부터 전해야 되겠구나. 간밤의 사건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부상을 입은 친구는 아무도 없었단다."
해리는 '다행이군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덤블도어의 그 말이 해리에게는 간밤의 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친구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들렸다.
덤블도어가 이번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기가
힘들었다.
"폼프리 부인이 지금 친구들을 보살피고 있단다. 님파도라 통스는 성
웅고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구나."
해리는 고개를 푹 수이고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바깥의 하늘 빛이 점점 밝아지는 만큼 양탄자의 색깔도 밝아져 갔다. 그는
벽에 걸린 모든 그림 속의 인물들이 덤블도어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덤블도어와 해리가 간밤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부상자들이 생겼는지 의아해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지금 네 심정은 나도 잘 안다. 해리."
덤블도어가 들릴 듯 말 듯 말했다.
"아뇨, 교수님은 몰라요."
해리가 말했다. 갑자기 커진 그의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 있었다.
하얗게 작렬하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솟구쳤다. 덤블도어 교수는 지금 그의
심정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봤지, 덤블도어?" 피니어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게. 학생들은 그걸 싫어해. 된통 오해를 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저 혼자 꿩끔 앓고-."

"그만 하시오, 피니어스."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덤블도어 교수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눈에 잔뜩 힘을 주고 맞은편 창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큐디치 경기장이 보였다. 언젠가 시리우스가 거기 왔었다. 해리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려고 텁수룩한 검은개로 변신하고서... 그는 아마 해리가 제임스보다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려고 왔을 것이다... 해리는 그걸 시리우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네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건 당연해, 해리."

덤블도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네가 지금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너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다."

해리는 하얗게 작렬하는 분노가 가슴속을 활아 대고, 뻣 뚫린 그 구멍 난 벽들을 시커멓게 그을리는 것 같았다. 그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을 너무도 침착하게 하고 있는 덤블도어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이 활활 치밀었다.

"저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고요?"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큐디치 경기장 쪽을 쳐다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수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교수님은..."

"내가 뭘 모르지?"

덤블도어가 나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해리는 분노로 부르르 떨면서 뒤로 돌아섰다.

"저는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해리, 네가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은 곧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한 고통은 인간다운~"

"그럼- 전- 인간답게- 되고- 싶지- 안아요!"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섬세한 은제 기구 중 하나를 덥석 집어서 던져 버렸다. 기구가 저쪽 벽에 부딪혀서 박살이 났다. 초상화 속의 인물 몇몇이 분노와 경악의 고함을 지르고, 초상화 속의 아르만도 디펫은 "저런!"이라고 말했다.

"전 관심 없어요!"

해리가 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루나스코프를 집어서 벽난로 속에 던져 버렸다.

"전 지겨워요! 정말 지겹다고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이젠 그만 할 거예요, 다 때려치울 거예요~"

해리는 기구들이 놓여 있는 탁자를 두 손으로 집어 옮겨 던졌다. 탁자가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지고, 떨어져 나간 다리가 떼굴떼굴 굴렀다.

"그렇지 않아."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가 그의 방을 다 때려부수는데도 그는 눈도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너무도 침착하고, 전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넌 지금 그 고통 때문에 곧 피를 토하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어."

"아-아니에요!"

해리가 목구멍이 찢어져라 빽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당장 덤블도어에게 덤벼들어서 그 역시도 집어던지고 싶었다. 그 침착한 늙은 얼굴을 부숴 버리고, 흔들어 버리고 상처를 내서 지금 자기 마음의 그 엄청난 공포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덤블도어가 더욱 침착하게 말했다.

"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어. 그리고 지금은 너에게 부모와 같았던 사람을 잃었지. 네가 괴로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교수님은 제 심정을 몰라요!"

해리가 또 고향을 질렀다.

"교수님은- 거기에 있지- 교수님은-"

그러나 이제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마구 때려부수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달리고 싶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구 달리고만 싶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곳까지, 덤블도어의 너무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침착한 늙은 얼굴을 볼 수 없는 곳까지 그냥 달려가고 싶었다. 그가 방문으로 뛰어가 다시 문손잡이를 힘껏 비틀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해리는 덤블도어에게 돌아섰다.

"나가게 해주세요."

해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르르 떨고 있었다.

"안 된다."

덤블도어가 덤덤하게 말했다.

몇 초 동안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나가게 해주세요."

해리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안 돼." 덤블도어도 다시 한 번 말했다.

"싫다면- 불들어 두겠다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또 뭐든지 때려부수렴, 성가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으니까."

덤블도어가 다시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해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덤블도어만큼이나 침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해리가 다시 말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한 다음에."

덤블도어가 말했다.

"교수님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건 난 관심 없어요!"

해리가 버럭버럭 고향을 질렀다.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건 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걸?"

덤블도어가 침착하게 말했다.

"넌 지금 나한테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날 공격하고 싶은데도 참고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해라. 여기 가만히 앉아서 당해 줄 테니까."

"대체 무슨 소릴-?"

"시리우스가 죽은 건 내 탓이었다."

덤블도어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아니, 거의 전적으로 내 탓이었다고 말하는 게 옳겠지. 오직 나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는 건 어쩌면 나의 교만일 수도 있을 테니까.

시리우스는 용감하고 똑똑하고 활기 넘치는 사나이였어. 그런 사나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게다. 하지만 네가 간밤에 미스터리 부서에 갔던 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너는 꼭 가야 한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단다.

그러나 네가 간밤에 거기 가야 한다고 믿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내 탓이었지. 내가 진작에 너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놨더라면, 볼드모트가 너를 미스터리 부서로 유인하려는 술책을 꾸밀지도 모른다는 걸 너는 이미 오랜 전에 알았을 테니까. 그랬더라면 간밤에 네가 그자의 함정에 빠져서 거길

가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시리우스가 네 뒤를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었어. 순전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아직도 문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리고 있는 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거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덤블도어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의 말이 귀에 똑똑히 들리기는 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제발 좀 앓아라."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해리는 머뭇거렸다. 그리고 부러진 은색 텁니바퀴들과 나무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방바닥을 지나서 덤블도어의 책상이 마주 보이는 곳에 앉았다.

"내 고손자... 우리 블랙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 죽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해리의 왼쪽에서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느릿느릿 말했다.

"그렇다네, 피니어스."

덤블도어가 말했다.

"난 믿지 않아." 피니어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피니어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해리는, 때마침 그가 액자 속에서 걸어 나가 사라지는 걸 보았다. 해리는 그가 그의 다른 초상화가 있는 그리볼드 광장으로 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거기서 시리우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 안을 배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리, 너한테 설명할 게 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한 노인의 한심한 실수를 지금부터 너한테 설명하려고 한다. 이제야 내 눈에 보이는구나. 내가 너에 관해 했던 링과 하지 않은 일이 실패한 원인을 내가 늙었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다. 젊은이들로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 그러나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 노인들이 이해 못한다면 그건 죄가 아닐 수 없지...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내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구나... 해가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동쪽 산 위에 눈부시게 밝은 오렌지 같은 것이 떠오르고, 그 위의 하늘은 투명하게 밝아왔다. 그 빛이 덤블도어의 얼굴에 어리고, 그의 은빛 눈썹과 수염, 그리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살을 비추었다.

"15년 전에 내가 너의 이마에 난 흉터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짐작했었다. 그것이 너와 볼드모트 사이에 맺어진 어떤 연관의 징표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건 벌써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해리가 부루퉁하게 말했다. 그는 태도가 불손하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전혀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랬지."

덤블도어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너의 흉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말이다. 네가 마법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나는 15년 전의 나의 짐작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란다. 볼드모트가 네 근처에 있을 때나, 네 가슴 속에 어떤 강렬한 감정이 솟구칠 때, 그 흉터가 그 사실을 너한테 미리 알려 준다고 짐작했던 게 옳았더란 말이지."

"그건 저도 알아요."

해리가 힘없이 말했다.

"볼드모트가 네 근처에 있다는 것을, 비록 그자가 위장을 하고 있더라도 너는 미리 감지했지. 그리고 그자의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를 알게 되는 너의 그 능력이 볼드모트가 그의 몸을 되찾고 그의 모든 능력을 다시 회복한 이후엔 훨씬 더 자주 나타났어."

해리는 굳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도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다 최근에 들어서 나는 볼드모트가 너와의 관계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단다. 아니나 다를까, 네가 그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가 너의 존재를 감지했던 때가 있었다. 그자가 위즐리 씨를 공격하는 걸 네가 목격했던 그날 밤의 일을 말하는 거란다."

덤블도어가 계속해서 말했다.

"예, 스네이프가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해리가 중얼거렸다.

"스네이프 교수님이겠지, 해리."

덤블도어가 나직이 그의 말을 고쳐 주었다.

"그런데, 그걸 너한테 들려준 사람이 왜 내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봤니? 왜 내가 너한테 오클러먼시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지난 몇 달 동안 왜 나는 너와 눈길조차 마주치는 걸 자꾸 피했을까?"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덤블도어 교수는 더 슬퍼 보이고 지쳐 보였다.

"예, 실은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해리가 우물우물 말했다.

"자, 봐라."

덤블도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난 오래지 않아서 볼드모트가 억지로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 너를 조종하고 너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할 게 틀림없다고 믿었단다. 그리고 내가 그자의 그러한 생각을 더욱 부추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난 너와 나의 관계가 단지 교장과 학생의 관계 이상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그자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자는 나를 염탐할 수단으로서 너를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자가 너를 이용할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결국엔 너를 완전히 지배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두려워했다. 해리, 난 그가 너를 기어이 그런 식으로 이용할 거라고 보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그런 경우는 물론 아주 드물었지만, 너하고 내가 가까이 다가섰을 때, 네 눈동자 뒤에 그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인다는 생각이 흠칫흠칫 들더구나...'

해리는 덤블도어 교수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뱀이 깨어나 그에게 덤벼들어 물어뜯고 싶은 느낌이 들었던 것을 얼른 떠올렸다.

"볼드모트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은 나를 파괴하려는데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간밤에 그자가 스스로 증명했지. 그자의 목적은 너를 파괴하는 것이다. 좀 전에 그자가 너를 잠시 지배했었지? 그때 그자는 내가 자기를 죽이려는 욕심 때문에 너를 희생시키기를 바랐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너에게서 멀어지려고 애썼다. 그게 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도 또 이 늙은이의 실수였더구나."

덤블도어는 한숨을 내쉬었다. 해리는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몇 달 전만 같았어도 고개를 빼고 가슴을 졸이면서 귀를 기울였겠지만, 지금 그의 얘기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시리우스를 잊음으로써 그의 가슴 속에 뻔 뚫린 그 구멍에 비하면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리우스가 나한테 얘기했었다. 네가 꿈에서 아서 위즐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던 날 밤에 볼드모트가 네 안에서 깨어나는 걸 느꼈다는 이야기 말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깨달았지. 그 순간부터 볼드모트는 너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공격하는 볼드모트에게 대항하려면 네가 적절한 무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는 스네이프 교수를 시켜 너에게 오클러먼시를 가르치게 했던 거란다."

덤블도어가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해리는 햇빛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햇빛이 천천히 반질반질 윤이 나는 덤블도어의 책 상 위를

비추고, 은으로 만든 잉크병과 주홍색 깃펜이 햇빛 속에 환하게 빛났다. 해리는 주위의 초상화 속 인물들이 지금은 모두 잠에서 깨어 덤블도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따금 망토 자락이 서걱거리는 소리와 잘게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몇 달 전부터 미스터리 부서의 그 문을 꿈에서 보았다는 사실을 스네이프 교수가 알아냈단다. 물론 볼드모트는 육체를 되찾은 이후부터, 이제는 어쩌면 그 예언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했지. 그래서 늘 그 문 근처에서 얼쩡거렸고, 그 문이 너의 꿈에 나타난던 거란다. 물론 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겠지만...."

덤블도어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는 미스터리 부서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 체포된 록우드가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볼드모트한테 얘기하는 걸 보았지. 록우드는 그자에게 마법부의 어딘가에 예언들이 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비가 무척 삼엄하다는 걸 알려 줬어. 그리고 그 예언이 당사자만이 미치지 않고 꺼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줬지. 마침내 볼드모트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마법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 그것을 꺼내 올 수밖에 없었단다. 그 누군가는 물론 너였고. 그래서 네가 오클러먼시를 배우는 게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되었던 거야."

"그렇지만 전 배우지 않았어요."

해리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그러면 마음속의 그 무거운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았다. 고백을 하면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중압감이 줄어들 것이다.

"연습도 하지 않았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마음만 먹었다면 제 스스로 그 꿈을 그만 꾸게 할 수도 있었어요. 헤르미온느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했었죠. 그 애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자는 절대로 제가 거기에 나타나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시리우스도- 시리우스도 거기 가지 않았을 것이고-

해리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원가 떠올랐다. 자기를 변명해야 한다는, 무언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그자가 정말로 시리우스를 데리고 갔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브릿지 교수의 방에 있는 벽난로를 이용해 크리처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처는 시리우스가 거기에 없다고 했어요. 어딘가로 갔다고 했다구요!"

"크리처가 거짓말을 한 거란다."

덤블도어가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크리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는 전혀 별을 받으리라는 두려움 없이 너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크리처가 거짓말을 한 의도는 물론 네가 마법부로 달려가게 하려는 것이었고."

"크리처- 그 녀석이 저를 거기로 보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물론이다. 크리처는 지난 몇 달 동안 한 명 이상의 주인을 섰겼단다."

"어떻게요?"

해리가 멍청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집, 그리볼드 광장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크리처에게 기회가 왔던 거지."

덤블도어가 말했다.

"시리우스가 그 녀석에게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던 일이 있었지. 그 녀석은 그 말을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 블랙 가문의 여러 식구들 중에서 크리처가 아직도 존경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아 있었단다. 블랙의 사촌이자 벨라트릭스의 언니이며 루시우스 말포이의 아내인 나시사야. 크리처는 시리우스의 집을 나와서 그 여자한테 갔지."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해리가 물었다. 이젠 그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속이 메스꺼웠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크리처가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고, 갑자기 그가 다시 다락방에 나타났던 것을 해리는 지금 떠올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크리처가 나한테 말했단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네가 스네이프 교수한테 암호로 경고를 했을 때, 그는 네가 미스터리 부서의 어딘가에 갇혀 있는 시리우스의 꿈을 꾸었다는 걸 알아차렸지. 그래서 그도 너처럼 당장 시리우스와 접촉하려고 했단다. 불사조 기사단의 단원들은 돌로레스 엉브릿지의 방에 있는 벽난로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교신 수단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스네이프 교수는 시리우스가 그리몰드 광장에서 안전하게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돌로레스 엉브릿지와 숲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스네이프 교수는 네가 아직도 시리우스가 볼드모트경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즉시 기사단의 몇몇 단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알렸던 거야."

덤블도어가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가 그걸 알리려고 본부에 갔을 때 앤더슨 무디, 님파도라 통스, 킹슬리 샤클볼트, 리무스 루핀이 때마침 거기에 있었어. 그들이 당장 너를 도우러 가겠다고 나섰지. 스네이프 교수가 시리우스한테 본부를 지키고 있으라고 부탁했단다. 누군가가 거기 남아 있다가 나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언제든 그곳에 가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스네이프 교수는 숲으로 가서 너를 찾아볼 작정이었지.... 그러나 시리우스는 다들 너를 도우러 가는데 자기만 뒤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전하는 일을 크리처한테 대신 맡겼던 거야. 그들이 마법부로 떠난 직후에 내가 그리몰드 광장에 도착했고, 그 집요정이 나를 보자마자 꼭 발작을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시리우스가 간 곳을 나한테 알려 줬지."

"그 녀석이 웃었다고요?"

해리가 몹시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랬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크리처는 우리를 철저하게 배신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그는 기사단의 비밀 파수꾼은 아니지만, 말포이와 그 일당에게는 우리의 소재를 알리거나 기사단의 비밀 계획 같은 것을 누설할 수 없단다. 그는 자기 종족의 여러 가지 마법에 묶여 있지. 그래서 주인인 시리우스가 직접 내린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란다. 그러나 그는 볼드모트가 매우 귀중하게 여길 만한 정보를 나시사에게 전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시리우스에게는 너무도 사소한 것처럼 보였을게다. 크리처가 그걸 누설했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정보라고 말이다."

"가령?"

해리가 물었다.

"가령, 시리우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리 포터라는 사실 같은 것이지."

덤블도어가 나직하게 말했다.

"해리 포터가 시리우스를 아버지나 형처럼 여긴다는 사실 같은 것 말이다. 물론 볼드모트는 시리우스가 기사단의 단원이고 네가 시리우스의 소재를 알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하지만 크리처의 정보를 듣고서야 그자는 네가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하려 갈 사람이 바로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걸 알아차렸던 거야."

해리의 입술이 너무도 차갑고 얼얼해졌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크리처한테 시리우스가 거기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물론 볼드모트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겠지만, 말포이와 그 일당이 크리처한테 말했단다. 시리우스가 고문을 당하는 걸 꿈에서 본 네가 그를 찾아서 거기에 나타날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로 네가 시리우스를 보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지. 크리처는 어제 히포그리프 벽벽을 일부러 해쳤단다. 그리고 네가 그 집의 벽난로 속에 나타났을 때 시리우스는 위층에서 그를 치료해 주고 있었지."

해리의 폐 속에 공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너무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크리처가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웃었던 말이죠?"

해리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단다. 그러나 나는 레질리먼시를 터득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들으면 당장 알아차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설득을 했단다. 그리고 미스터리 부서로 달려갔던 거야."

"그런데도..."

해리는 무릎에 얹은 그의 차가운 손을 깎 쥐었다.

"그런데도 헤르미온느는 계속 그 녀석한테 잘해 주라고--"

"그건 헤르미온느의 말이 맞아, 해리. 그리볼드 광장 12 번지를 우리의 본부로 정했을 때, 시리우스한테 내가 말했단다. 크리츠를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고 했지. 또 크리처는 우리한테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단다. 아무래도 시리우스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크리처도 인간처럼 예민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시리우스를 탓하지- 시리우스를 그렇게 말하지--"

해리는 곧 숨이 멎을 것 같아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진정되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덤블도어가 시리우스를 비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크리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녀석이- 그 더러운 녀석이--"

"크리처는 마법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일 뿐이다. 불쌍하지. 네 친구 도비만큼이나 불쌍해. 그는 억지로 시리우스의 명령에 따르는 그란다. 그가 섬기는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니까. 그러나 그는 시리우스에게 진정한 충성을 바치진 않았지. 우리는 크리처를 탓할 게 아니란다. 크리처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시리우스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시리우스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리가 고함을 벌컥 질렀다.

그는 너무도 분해서 다시 벌떡 일어섰다. 시리우스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덤블도어한테 당장에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시리우스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스네이프는요?"

해리가 내뱉듯 말했다.

"왜 그 사람에 관한 얘기는 안 하시죠? 내가 그 사람한테 볼드모트가 시리우스를 잡아갔다고 말하니까. 언제나처럼 실실 웃기만 했어요--"

"해리, 너도 알다시피 스네이프 교수는 돌로레스 엉브릿지 앞에서는 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척할 수밖에 없는 처지란다."

덤블도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너한테 들은 것을 즉시 기사단에 알렸었다. 네가 숲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네가 어디로 갔을 것인지를 짐작해서 알아맞혔던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어. 엉브릿지가 시리우스가 있는 곳을 너한테서 강제로 알아내려고 했을 때, 그 여자한테 가짜 베리타세룸을 준 사람도 그였고..."

그러나 해리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는 스네이프를 비난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물론 그것은 몹시 야비한 쾌감이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고 덤블도어도 자기에게 동의해

주기를 바랐다.

"스네이프- 스네이프가 시리우스한테 집에만 있다고 빙정거렸어요.
시리우스를 겁쟁이로 만들려고-"

"시리우스는 나이로 보나 지혜로 보나 그런 시시한 수작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스네이프는 저한테 오클러먼시를 가르치다가 도중에 그만뒀어요!"
해리가 으르렁거렸다.

"저를 방에서 내쫓았다고요!"

"그건 나도 알고 있다."

덤브론어가 침울하게 말했다.

"이미 말했지만, 내가 직접 너한테 그걸 가르치지 않은 게 실수였어.
물론 그때 나는 내가 보는 앞에서 볼드모트가 너의 마음속으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

"스네이프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의 수업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흉터가 훨씬 더 아팠었다고요."

해리는 그것에 관해서 론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얼른 기억하고
덧붙였다.

"제가 볼드모트한테 훨씬 쉽게 넘어가려고 스네이프가 수작을 부린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볼드모트가 제 마음속으로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려고-"

"난 세베루스 스네이프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게는 영영 아물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란 게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지. 그것도 늙은이의
실수였어. 난 스네이프 교수가 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어."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주위에서 초상화 속의 교장들이 몹시
못마땅한 듯이 투덜거리고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지만 해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스네이프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괜찮고 시리우스가 크리처를
미워한 건 무제가 되나요?"

"시리우스는 크리처를 미워하지 않았다. 단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는 일개 하인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야. 내놓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보다는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흔히 있는
법이지.... 간밤에 우리가 부셨던 동족 간의 화합을 상징하는 분수대의
동상들은 거짓을 말하는 거란다. 우리 마법사들은 오래 전부터 다른
종족들을 훌대하고 지나치게 부려왔지.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그렇게 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나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일은
없을 게다."

덤블도어는 여전히 조용하게 말했다.

"시리우스는 잔인한 인간이 아니었어. 그는 대체로 집요정들한테
친절했지. 그러나 그는 크리처를 사랑하지 않았단다. 크리처만 보면 그가
그렇게 증오하는 자기 가문이 생겨났기 때문이지."

"그래요, 그는 자기 집안을 증오했어요!"

해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덤블도어에게 등을 돌려 창가로
걸어갔다. 이제는 실내에 햇빛이 가득했다. 초상화 속 인물들의 모든
시선이 해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주변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다.

"교수님이 그를 집 안에 가뒀고, 그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잖아요
나오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었을 텐데 어젯밤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난 시리우스를 살리려고 했던 거란다."

덤블도어가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갇히는 걸 싫어해요!"

해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고 그에게로 돌아섰다.

"작년 여름에 교수님은 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죠."

덤블도어가 눈을 감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기다란 손가락들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해리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덤블도어가 지금 비록 평소의 그답지 않게 몹시 피곤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는 있었지만, 해리의 마음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덤블도어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그는 오히려 더욱 화가 났다. 해리가 그에게 화를 내고 고함친다고 해서 그가 약해질 일은 없는 것이었다.

덤블도어가 손을 내리고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이전 너한테 그 얘기를 할 때가 됐구나."

덤블도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5년 전에 말했어야 했던 이야기란다. 앉아라, 해리.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 줬으면 좋겠구나. 화가 나더라도 내가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 주렴. 그 다음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해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맞은편에 놓인 의자에 가서 앉았다.

덤블도어는 헛살이 길게 내리비치는 창 밖의 운동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해리. 너는 내가 계호기하고 의도했던 대로 5년 전에 호그와트에 안전하고 무사하게 도착했다. 그러나 완전히 무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네가 고통받았으니까. 너를 네 이모네 집 앞에 데려다 놓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네게 어둡고도 힘든 10년이라는 세월의 형벌을 선고하는 심정이었지."

그가 말을 멈추었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궁금하겠지. 왜 꼭 그래야만 했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다. 내가 왜 너를 마법사 집안에 맡기지 않았을까? 누구나 너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친자식처럼 길러 줬을 텐데?

무엇보다도 먼저 너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텨야 했기 때문이었단다. 그때 너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었지. 그리고 나는 또 장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했던다. 그때 내가 볼드모트가 영영 죽었다고 믿었을까? 아니란다. 10년 후가 될지 20년이나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자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지. 그자는 너를 죽일 때까지는 결코 편히 쉬지 못하리란 걸 난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

나는 볼드모트가 현재 살아 있는 그 어떤 마법사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마법 지식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자가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는 나의 가장 복잡하고 강력한 방어 마법들로도 그자를 막을 수 없으리란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또 볼드모트의 약점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판단을 내린 거란다. 그자가 알고는 있지만, 늘 경멸하고, 그래서 과소평가하는 고대의 어떤 마법으로 너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 지금 난 네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란다. 네 어머니가 그자가 결코 예상할 수 없는, 효력이 오래 유지되는 보호마법을 너한테 주었지 그것이 지금도 네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단다. 나는 네 어머니의 피를 믿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너를 그의 유일한 피붙이인 네 이모한테 맡겼던 거란다."

"이모는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이모는 절-"

"어쨌거나 너를 받아들였어."

덤블도어가 즉시 말을 가로막았다.

"화를 내고 몹시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모는 너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걸어 놓은 마법을 봉인할 수 있었단다. 네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나는 혈연이라고 하는 가장 튼튼한 방패를 너한테 줄 수 있었던 거야."

"전 아직도 이해가—"

"네가 네 어머니의 피가 남아 있는 곳을 집이라고 부르면서 지내는 한 볼드모트는 너를 해칠 수 없단다. 그자가 어머니를 죽였지만, 너하고 네 이모의 몸속에는 그녀의 피가 흐르고 있어. 어머니의 피가 너의 은신처가 된 거란다. 너는 1년에 한 번만 거기에 돌아가지만, 네가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한 그자는 너를 해치지 못해. 네 이모는 그걸 알고 있었지. 내가 너를 그 집 앞에 두고 올 때 남겨 놓았던 편지에 설명을 했거든. 이모는 너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너의 목숨을 지켜 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잠깐만, 잠깐만요."

해리가 의자에서 일어나 덤블도어 교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교수님이 호울러를 보냈어요. 교수님이 이모한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교수님 목소리였어요..."

덤블도어가 고개를 비스듬히 숙이고 말했다.

"난 네 이모가 너를 받아들임으로써 나하고 맺은 계약을 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디멘터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네 이모가 너를 데리고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란다."

"그랬어요."

해리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모보다 이모부가 더 심했어요. 이모부는 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호울러가 온 뒤에, 이모는- 이모는 저를 내쫓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해리는 잠시 바닥을 빤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그게 대체..."

그는 그것이 시리우스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덤블도어는 해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을 계속했다.

"5년 전에 호그와트에 왔을 때, 너는 아주 딱할 정도로 불쌍해 보였고 영양 상태도 몹시 나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멀쩡하게 살아 있었지. 넌 응석받이 어린 왕자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던 대로 그런 힘든 생활을 잘 견뎌 낸 평범한 소년이었던단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었지. 그런데... 호그와트에 온 첫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너도 나만큼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게다. 너는 너에게 닥친 도전에 당당하게 맞섰고,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훨씬 더 빨리, 볼드모트와 대면했지. 그리고 살아남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던단다. 너는 그자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완전히 되찾을 시간을 뒤로 늦추게 만들었어. 넌 정말 당당하게 싸웠고, 난 네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단다.

그러나 나의 그 놀라운 계획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었다.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을 허점이 훤히 드러나 있었지. 하지만 그 결점이 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썼단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 했다. 그런데 네가 볼드모트와 싸운 뒤에 힘이 빠져서 병동에 누워 있었을 때, 내게 첫 번째 시험이 닥친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해리가 말했다.

"병동에서 네가 나한테 물었잖니. 네가 아기였을 때 볼드모트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불었던 거, 기억하지?"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때 너에게 말해 줘야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해리는 덤블도어의 푸른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다시 거칠게 뛰고 있었다.

"내 계획의 허점이 뭔지 아직 모르겠니? 그래... 모를 만도 하겠지. 그때 난 네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결심했단다. 열한 살이란 나이는 그런 걸 알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지. 고작 열한 살인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엉두가 나지 않았단다. 그렇게 어린 나이의 소년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 위험의 징조를 알아차렸어야 했단다. 언젠가는 끔찍스런 대답을 해줘야만 하는 질문을 네가 나한테 했을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했어. 그날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던 거야. 넌 아직 너무 어렸어.

그리고 호그와트에서의 너의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단다. 어른 마법사들도 당해 보지 않았던 혐난한 도전들이 또다시 너에게 닥쳐왔지. 그리고 너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큼 훌륭하게 대처했단다. 그러나 너는 또 나한테 물었어. 볼드모트가 네 얼굴에 상처를 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래서 너와 내가 너의 흉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래, 맞아. 그때 우린 그 해답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었단다. 그런데 왜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을까?

그 사실을 알기에는 열두 살짜리 소년도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고 기진맥진했으면서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을 때, 그때 나는 너한테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지만 곧 단념했다. 넌 아직 너무 어렸고, 그리고 난 너의 승리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단다...

이제 알겠니, 해리? 나의 그 탁월한 계호기의 허점이 이젠 보이니? 나는 예상하고 있었던 함정이 빠졌던 거란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함정에 빠져 버렸던 거지."

"전 이해가 안~"

"나는 널 너무나 아꼈던 거란다."

덤블도어가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네가 그 사실을 아는 것보다 너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보다는 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고, 그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에 희생단할 목숨들보다 너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볼드모트가 빤히 예상하고 있던 그대로 행동했던 거야.

뭐라고 변명할 말이 있을까? 만약 나처럼 널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난 네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서 널 지켜보았단다- 네가 이미 겪은 고통 이외에 더 이상의 고통을 겪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구나. 수많은 이름 모를, 얼굴 모를 사람들과 생물들이 막연한 미래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한들, 네가 지금 여기에 살아 있고 잘 지내고 또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신경 쓰겠느냐? 나는 내가 그토록 한 사람을 책임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이윽고 너의 세 번째 해로 접어들었지. 나는 네가 디멘터들을 물리치는 걸 멀리서 지켜봤단다. 시리우스를 발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그를 구출하는 것도 지켜봤지. 네가 네 대부를 구출해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그걸 너한테 얘기해야 했을까? 그러나... 네가 열 세 살이 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핑곗거리가 없어졌다. 물론 아직 어린 나이지만, 넌 네가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걸 증명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단다. 해리, 난 이제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그러나 너는 작년에 그 미로에서 빠져나왔다. 케드릭 디고리가 죽는 걸

보았고, 너 자신도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지... 그런데도 나는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젠 볼드모트가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간밤에 난 깨달았단다. 내가 그토록 오래 숨겨 왔던 그것을 너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당연히 그 짐을 너에게 지워야 했다는 것을 간밤에 네가 증명했기 때문이란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이것뿐이다. 그동안 이 학교를 거쳐 갔던 그 어떤 학생보다도 네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런 너에게 또 다른 짐을- 그 어떤 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이다."

덤블도어가 이야기를 멈추었다. 해리가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네가 어렸을 때 볼드모트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네가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예언 때문이었단다. 그는 그 예언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 내용까지는 몰랐지. 그래서 네가 아직 아기일 때 너를 죽이는 게 그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고 널 죽이려고 나섰던 거란다. 그러나 너를 죽이려 했던 그 저주가 자기한테 되돌아왔을 때에야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그가 자기의 육체를 되찾은 이후로, 그는 그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단다. 그가 다시 돌아온 뒤부터 지금까지 갖은 애를 쓰면서 찾으려고 했던 무기가 바로 그 예언이다. 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그 예언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었지."

이젠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의 방에 햇빛이 가득했다.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칼이 들어 있는 유리 상자가 희고 투명하게 빛나고, 해리가 집어던졌던 기구의 조각들이 바닥에서 빛방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잿더미 위에 놓인 아기 퍽스가 작은 소리로 꾸륵거렸다.

"예언은 깨졌어요."

해리가 멍한 표정을 말했다.

"아치문이 있었던 그 방에서 네빌을 끌고 계단을 올라갈 때, 제가 네빌의 망토를 찢는 바람에 그게 떨어져서..."

"그때 깨진 것은 미스터리 부서에서 그 예언을 기록해 둔 것일 뿐이었단다. 그 예언은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그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 낼 방법을 알고 있어."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해리는 자기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물었다.

"바로 나야. 16년 전의 어느 춤고 습한 날 밤에 호그스 해드의 바 앞에 있는 어느 자리에서였지. 점술 교수 지원자를 거기서 만나 면접을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단다. 난 그 과목을 계속 가르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지원자가 매우 유명하고 능력 있는 어느 예언자의 고손녀였기 때문에 한 번 만나 보기라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었지. 그러나 결과는 실망이었단다. 그 여자는 재능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고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말하고 돌아섰단다."

덤블도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리의 곁을 지나 퍽스의 햇대 곁에 놓인 검은 캐비닛 앞으로 갔다. 그가 허리를 숙여 서랍 하나를 열고, 거기서 가장 자리에 둔 문자가 새겨져 있고 돌로 만든 얇팍한 대야를 꺼냈다.

해리는 그 안에서 아버지가 스네이프를 못살게 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덤블도어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서 펜시브를 내려놓더니 지팡이를 자기의 관자놀이까지 들어 올렸다. 허공에 걸친 거미줄처럼 섬세한 은색 실들이 그의 머리에서 빠져나와 지팡이에 달라붙었다. 그가 그것을 대야에 담았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그의 생각들이 펜시브

안에서 빙빙 돌고 둥둥 떠다니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지팡이 끝으로 그 은색 실을 뒤적였다.

대야 안에서 여자의 형상이 일어섰다. 솔을 걸쳤고, 안경알 속에서 두 눈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여자가 대야의 바닥에 발을 디딘 채 천천히 돌았다. 그러나 사이빌 트릴로니가 입을 열고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는 몽롱하고 신비한, 여느 때의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해리가 트릴로니에게서 전에 딱 한 번 들어 본적이 있는, 몹시 거친 목소리였다.

"어둠의 마왕을 물리칠 힘을 가진 자가 오리라... 그와 세 번 싸웠던 이들의 자신으로 태어날 것이여, 일곱 번째 달이 기울 대 태어나리라..." 어둠의 마왕은 그의 적수로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둠의 마왕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리라... 그들은 다른 한쪽이 살아 있는 한은 어느 쪽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손에 죽으리라... 어둠의 마왕을 물리칠 힘을 가진 자는 일곱 번째 달이 기울 때 태어나리라..."

선 채로 천천히 돌던 트릴로니 교수가 은빛 실타래 속으로 내려가다가 사라졌다.

숨소리조차 없이 고요했다. 해리도 초상화 속의 어느 누구도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다. 퍽스마저도 입을 닫고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펜시브를 빤히 쳐다보면서 덤블도어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넋을 놓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죠?"

"볼드모트 경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6년 전 7월 마지막 날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그 아이의 부모는 지난날에 볼드모트와 세 번 싸운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무엇인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저예요?"

덤블도어가 깊은 숨을 쉬었다.

"이상한 게 있다, 해리."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빌의 예언에 해당되는 마법사 소년이 두 명이란다. 둘 다 7월의 마지막 날에 태어났고, 둘 다 그 부모들이 불사조 기사단의 단원이었고 볼드모트한테서 세 번 간신히 탈출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지. 한 사람은 물론 너다. 다른 한 사람은 네빌 롱바텀이고."

"그렇지만... 그렇다면 왜 그 예언에 네빌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쓰여 있었죠?"

"네가 아기였을 때 볼드모트가 너를 공격한 뒤로 그 예언의 공식 기록에 다시 이름표가 붙었단다. 볼드모트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까닭에 사이빌의 예언에서 언급된 아이가 바로 너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예언의 방 관리자가 네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지."

"그럼 그게 제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단다. 그게 너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덤블도어가 매우 느릿느릿 말했다. 한 마디 한 마디를 할 때마다 너무도 힘이 드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네빌도 7월의 마지막 날 태어났고, 그 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예언의 뒷부분을 기억해 봐라. 볼드모트를 물리칠 힘을 가진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목 말이다... 볼드모트는 '그의 적수로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자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그자는 네빌이 아니라 너를 선택했어. 그자가 네 얼굴에 저주며 동시에

축복이 된 그 흉터를 남겨 주었지."

"선택을 잘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엉뚱한 사람에게 혼적을 남긴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자는 자기에게 가장 크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아이를 선택했다. 또 그의 신념에 따라 마법사가 될 만한,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순수 마법사 혈통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머글 혼혈을 선택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자는 너를 직접 보기도 전에 이미 너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 그래서 그 흉터를 만들어 놓았던 거야. 그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너를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너한테 여러 가지 능력을 주고, 미래를 준 거야. 그 때문에 넌 지금까지 한 번이 아니라 네 번 더 그자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어. 그건 네 부모님도 네빌의 부모님도 하지 못한 일이란다."

"왜 그랬을까요?"

해리가 말했다. 그는 온몸이 얼얼하고 으스스했다.

"그자가 아기인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네빌이나 제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쪽이 더 자기한테 위협적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그때 가서 죽이면—"

"물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길이었겠지. 그러나 문제는 그 예언의 내용을 볼드모트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란다. 숙박비가 싸다는 이유로 사이빌이 선택했던 호그스 해드는 오래 전부터 스리 브룸스틱스보다 훨씬 더 괴상한 손님들이 많았지. 너와 네 친구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도 그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호그스 해드에서는 엿듣는 자가 없다고 믿고 무심코 얘기를 하다가는 큰코 다치기 딱 좋은 곳이었다. 물론 사이빌 트릴로니를 만나러 갈때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가 엿들은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다. 그러나 사이빌이 예언을 말하기 시작한 후에 곧바로 그것 엿듣던 자가 발각돼서 쫓겨났다는 게 내게는, 우리한테는, 두 번 다시 없을 천운이었던 거야."

"그럼 그자는 앞 부분만...?"

"그래. 세 번 볼드모트와 싸웠던 사람들의 자식으로 7월의 마지막 날에 태어난다는 데까지만 들었지. 그래서 그자는 너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힘을 주게 되고 너를 적수로 지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인한테 경구할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볼드모트는 너를 공격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확실한 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는 것도 몰랐지. 그는 네가 '어둠의 마왕이 모르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어-."

"그럴지만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해리가 몹시 목에 메어 말했다.

"전 그자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저는 간밤에 그자처럼 싸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지배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미스터리 부서에는 늘 문이 닫힌 방이 하나 있다."

덤블도어가 해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방에는 죽음보다도 더 놀랍고 무서운 어떤 힘이 들어있지. 인간의 지능이나 자연의 힘보다도 더 놀랍고 무서운 힘이다. 그것은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연구 주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것일 게다. 네게는 그 힘이 충만해 있고, 볼드모트에게는 전혀 없단다. 간밤에 네가 시리우스를 구하려가게 했던 게 바로 그 힘이란다. 또 네가 볼드모트에게 지배당하는 걸 막아 주었지. 그는 자기가 혐오하는 힘이 가득 차 있는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너의 정신을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너를 구해 준 것은 네 마음이었어." 해리는 눈을 감았다. 간밤에 그가 시리우스를 구하려 가지 않았더라면 시리우스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또다시 시리우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을 피하려고, 해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예언의 끝 부분이... 다른 한쪽이 살아 있는 한은..."

"...어느 쪽도 살 수 없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렇다면..."

해리는 가슴속 깊은 곳의 절망의 샘 같은 곳에서 얼른 몇 마디를 퍼올렸다.

"그렇다면... 결국엔 제가 그 자를 죽이거나 그자가 저를 죽이게 되겠군요?"

"그래."

한참 동안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방 벽 저 너머 어딘가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남보다 먼저 아침을 먹으러 대연회장으로 가는 학생들인 것 같았다. 해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배가 고풀 것을 느끼고, 웃고 떠들고, 그러나 시리우스 블랙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시리우스는 이미 그에게서 수백만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리는 자기가 그 베일을 젖히기만 했더라면 그에게로 고개를 돌려서 인사를 하는 시리우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마치 짓는 것 같은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다...

"너한테 설명할 게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다, 해리."

덤블도어가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내가 왜 너를 반장으로 뽑지 않았는지 궁금했겠지? 이제야 고백하지만... 난... 네가 그게 아니더라도... 네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단다.'

해리는 그를 쳐다보았다. 눈물 한 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의 은빛 턱수염 속으로 스며들어 갔다.

제 38 장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돌아오다

금요일 밤에 발표된 성명에서 마법부 장관 코넬리우스 퍼지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을 무슨 무슨 경이라고 떠드는 마법사가-여러분은 지금 제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에 그자가 아직 살아 있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피곤에 지친 퍼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몹시 난감해하면서 말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마법부에 고용된 것에 대해서 반감을 보여 왔던 아즈카반의 디멘터들이 집단 봉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역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자들이 필시 그 흉물스런 자의 사주를 받을 게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마법사들에게 잠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마법부는 각 가정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중이며, 마법 세계의 모든 가정에 무료로 보내 드릴 방어지침은 다음 달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마법부의 설명을 전해 들은 마법 세계는 실망과 경악에 빠졌다.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마법부로부터 '그 사람이 또 다시 우리 사회를 휘젓고 다닌다고 하는 항간의 뜬소문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확증을 받아 왔기 때문이었다.

마법부의 태도를 이렇듯 돌변하게 만든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될 그 사람'과 (죽음을 먹는

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무리의 추종자들이 목요일 밤에 마법부에 난입했던 것은 확실한 사실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최근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교장직에 복직함과 동시에 국제 마법사 연맹의 위원직과 위즈가모트의 마법사장에 복직한 알버스 덤블도어 교수는, 지금까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바라고 믿었던 바와는 달리,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며, 다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위해 그의 추종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한편 '살아 돌아온 그 소년'은-

"해리 여기 네 이야기가 나왔어. 난 이 작자들이 어떻게든 네 이야기를 언급할 줄 알았어."

신문 너머로 그를 쳐다보면서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들은 병실에 있었다. 해리는 론의 침대 발치에 걸터앉아 있었고, 헤르미온느가 친구들에게 일요판 <예언자 일보>의 1면을 읽어 주고 있었다. 뻔 발목을 품프리 부인이 한 번 세게 비틀어서 멀쩡하게 고쳐 놓은 지니는 헤르미온느의 침대 발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지니에게 한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깨진 코가 모양도 크기도 원래대로 되돌려진 네빌은 두 침대 사이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병문안하기 위해 잠깐 들른 루나는 헤르미온느가 읽어 주는 신문 기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러쿵 저러쿵>의 최신판을 거꾸로 들고 읽고 있었다.

"어쨌거나 해리는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소년'이 되었잖아?"

론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이젠 무턱대고 잘난 척 떠벌리는 정신 나간 녀석은 아니야, 그지?"

그가 침대 곁의 캐비닛에 수북하게 쌓인 개구리 초콜릿을 한 움큼 집어서 해리와 지니, 네빌에게 몇 개씩 던져 주고, 자기 것도 포장지를 이로 물어뜯었다. 그의 두 팔에는 아직도 깊이 파인 상처들이 나 있었다. 뇌의 촉수들이 휘감았던 자국이었다. 품프리 부인의 말에 따르면, 생각의 촉수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 어블리 박사가 개발한 무감각 연고를 듬뿍 바른 뒤부터는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온통 너를 칭찬하는 얘기야."

헤르미온느가 다른 기사들을 훑어 내려갔다.

...진실의 고독한 목소리...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졌으나, 그 자신의 이야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턱없는 조롱과 비방을 감당해 왔다....

헤르미온느가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흥, 정작 자기들이 턱없이 조롱하고 비방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군."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조금 찡그리면서 한 손을 옆구리에 갖다 대었다.

돌로호브가 헤르미온느한테 썼던 그 마법은, 다행히 그자가 입으로 주문까지 외치지는 못했기 때문에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초래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품프리 부인이 설명했다. 헤르미온느는 매일 열 가지나 되는 약을 써 왔기 때문에 상태가 크게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벌써부터 병실에 누워 지내는 것을 몹시 지루하고 답답해했다.

"2 페이지부터 4 페이지까지,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 사람의 최후의 시도... 5 페이지, 마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 6 페이지에서 8 페이지까지, 알버스 덤블도어의 주장을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던 이유... 9 페이지, 해리 포터와의 독점 인터뷰..."

헤르미온느가 신문을 접어서 옆에 던지며 말했다.

"흥, 기삿거리가 많아서 좋겠군. 그렇지만 해리의 인터뷰 기사는 독점이 아니야. 몇 달 전에 <이러쿵 저러쿵>에 실렸던 걸 그대로 옮겨 놨어..."

"우리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그 기사를 팔았어."

루나가 <이러쿵 저러쿵>의 책장을 넘기면서 흐리멍덩하게 말했다.

"돈을 아주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 그 돈으로 우리 식구는 이번 여름에

스웨덴에 갈 건데 그럼플 혼드 스놀랙스를 탈 수 있는지 알아볼 거야." 헤르미온느가 잠시 원가하고 싶은 말을 간신히 참는듯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그거 참 좋겠다."

지니가 해리와 눈길이 마주치자 빙긋 웃으며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건 그렇고, 학교에서는 그새 별일 없었어?"

헤르미온느가 또 얼굴을 찡그리면서 윗몸을 조금 세우고 말했다.

"플리트윅 교수님이 프레드와 조지의 늪을 없애 줬어. 딱 삼초 만에 끝냈지. 하지만 창문 밑에 작은 웅덩이를 남기시고 밧줄을 둘러 놓으셨어..."

지니가 말했다.

"왜?"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아, 교수님은 그게 정말로 뛰어난 마법이라고 말했어."

지니가 어깨를 한 번 으쓱하면서 말했다.

"프레디와 조지를 영원히 기념하려고 그랬을 거야."

론이 초콜릿을 한 입 가득 우적우적 씹으면서 말했다.

"저게 다 그들이 보내 준 거야."

론이 옆에 수북이 쌓인 초콜릿을 가리키면서 해리에게 말했다.

"장난감 가게가 진짜 잘되나 봐,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돌아왔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겠구나?"

"응, 모든 게 다 제대로 된 거 같아." 네빌이 대답했다.

"필치가 아주 신나 하겠다, 안 그래?"

론이 덤블도어 교수가 그의 물병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 찍힌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세워 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 마음이 몹시 착잡한 것 같았어. 실은...."

지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지금까지 호그와트에서 가르쳤던 교수님들 중에서 엉브릿지가 최고였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여섯 명 모두가 일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엉브릿지 교수가 그들의 맞은편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가 혼자 숲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캘타우로스들로부터 구해 왔던 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 여자를 구출했는지, 엉브릿지는 부축해서 나무들 사이를 걸어 나오면서도 어떻게 몸에 긁힌 자국이 몇 군데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그 사연을 알 수 없었다. 물론 엉브릿지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성으로 돌아온 이후 그들이 아는 한은, 아직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엉브릿지는 평소에 단정했던 걸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형글어진 쥐색 머리에 나뭇가지와 나뭇잎 부스러기가 군데군데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밖에 달리 몸이 상한 곳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폼프리 부인이 그러던데, 단지 충격을 받은 것뿐이래."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볼 땐 기분이 언짢은 것 같은데?"

지니가 말했다.

"맞아. 이렇게 하면 금방 기운을 차릴 거야."

론이 이렇게 말하고는 입 안에서 혀를 구부려 작게 말발굽 소리를 내었다. 엉브릿지 교수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몹시 허둥거리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디 편찮으세요, 교수님?"

폼프리 부인이 병실 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엉브릿지가 다시 누우며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잠깐 꿈을 꿨나 봐요."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이불을 당겨서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다.

"지금 누가 점술을 가르치지? 피렌체가 아직 있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렇겠지.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해리가 말했다.

"피렌체하고 트릴로니 교수님 둘이서 그 과목을 담당할 건가 봐."

지니가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도 분명히 그 여자를 내보내고 싶을 거야."

열네 개째 초콜릿을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론이 말했다.

"난 그 과목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해. 피렌체도 별 볼일 없는 선생~"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진짜 예언들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

헤르미온느가 따지는 것처럼 말했다.

해리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다. 그는 론에게도 헤르미온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었다. 네빌이 그들에게 해리가 자기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그것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해리는 그저 아무 소리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는 자기가 끝내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죽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할 때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바라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게 깨져 버린 건 유감이야."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나직하게 말했다.

"보통 유감이 아니지. 하지만 그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게 천만다행이라고 봐야겠지~ 너 어디 가?!"

해리가 벌떡 일어서자 론은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 해그리드한테 갈 거야. 그가 돌아왔대.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 소식을 전해 주기로 약속했거든."

해리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론이 창밖의 파란 하늘을 내다보면서 심술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다 같이 못 가는 게...."

"안부나 전해 줘!"

문을 나서는 해리의 등에 대고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 친구.... 그 꼬마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도 물어봐 주고..."

해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듯이 손을 한 번 흔들어 주고 밖으로 나갔다.

아무리 일요일이라고는 해도 너무 조용한 것 같았다. 학생들은 모두 핫살이 화사한 운동장에 나가서 시험이 모두 끝난 뒤의 훌가분한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이제 이 학기의 남은 며칠 동안은 수업도, 숙제도 없을 것이다. 해리는 쓸쓸한 복도를 훌로 걸어가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큐디치 경기장 위에선 사람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호수에서는 두 학생이 대왕오징어와 수영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도 그 사람들 속에 섞이고 싶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언제나 어딘가 혼자가 버리고 싶고, 혼자 있을 때는 또 어김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게 그의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해그리드한테는 꼭 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돌아온 뒤로 한 번도 그와 제대로 얘기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해리가 대리석 계단을 다 내려가서 현관 복도에 내려섰을 때,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이 오른쪽의 어느 문에서 나타났다. 그 문은 슬리데린 휴게실과 통한다는 걸 해리는 알고 있었다. 해리가 우뚝 멈추어 섰고, 말포이와 그 일당도 우뚝 멈추어 섰다. 복도에는 현관문을 통해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웃음소리 그리고 물장구치는 소리만이 떠돌

뿐이었다.

말포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나 근처에 교수들이 있거나 않은지 살핀다는 걸 해리는 알아차렸다. 말포이가 다시 해리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죽었어, 포터."

해리가 두 눈썹을 추켜올렸다.

"그래? 난 이렇게 멀쩡하게 걷고 있는데...."

말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의 창백하고 날카로운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것을 보자 해리는 몹시 야릇한 만족감이 들었다.

"두고 보자고."

말포이가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했다.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라고...."

"어이구, 무서워라."

해리가 빙정거리며 말했다.

"너희들 셋에 비하면 볼드모트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나봐, 그지?- 응, 왜 그래?"

그 이름을 들자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의 얼굴이 갑자기 흉빛으로 변하는 걸 보고 해리가 말했다.

"그자가 네 아버지의 친구지? 그런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응?"

"넌 네가 정말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이구나, 포터."

말포이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크레이브와 고일이 그의 양 옆에 붙어섰다.

"기다려, 다 갚아 줄 테니까. 넌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 없어-."

"난 벌써 보냈는데?"

해리가 말했다.

"아즈카반의 디멘터들이 다 떠났어. 아버지하고 친구들도 곧...."

말포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자들이 얼마나 더러운 놈들인지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

말포이의 손이 지팡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해리가 훨씬 더 빨랐다. 말포이의 손가락이 그의 망토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해리가 먼저 지팡이를 꺼냈다.

"포터!"

저쪽에서 웬 목소리가 짜렁짜렁 울렸다. 스네이프가 그의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를 보자 해리는 말포이한테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증오심이 활짝 솟구치는 걸 느꼈다.... 덤불도 어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건 간에 해리는 절대로 스네이프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절대로....

"너 지금 뭐하는 거냐, 포터?"

스네이프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면서 언제나처럼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포이한테 어떤 저주를 걸 것인지 궁리하고 있어요, 선생님."

해리가 사납게 대답했다.

스네이프가 해리를 노려보았다.

"그 지팡이 당장 집어넣어."

그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리핀도르에 10 점을 깎-"

스네이프가 고개를 돌려서 벽에 걸린 거대한 모래시계를 쳐다보면서 비웃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아, 그리핀도르 시계에 점수가 남아 있지 않군. 그렇다면, 포터. 우린 단지-"

"더 넣어야겠죠?"

맥고나걸 교수가 성 입구의 돌계단 위에 올라서고 있었다. 한 손에는 격자무늬의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 훈 지팡이에 몸을 비딱하게 의지하고 있었지만, 얼핏 봐서는 아주 멀쩡한 모습이었다.

"맥고나걸 교수님! 성 둥고 병원에서 나오셨군요!"

스네이프가 다가가면서 말했다.

"그래요, 스네이프 교수님."

맥고나걸 교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여행용 외투를 훌렁 벗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좋아졌어요. 너희 둘, 크레이브, 고일~"

맥고나걸 교수가 엄한 목소리로 부르자, 그들은 몹시 못마땅한 얼굴을 한 채 커다란 두 발을 질질 끌면서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이거 받아라."

맥고나걸 교수가 가방은 크레이브의 가슴에, 외투는 고일의 가슴에 안겨 주고는 말했다.

"내 방에 갖다 놔."

그들이 돌아서서 대리석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갔다.

맥고나걸 교수가 벽에 걸린 모래시계를 옮려다보면서 말했다.

"음, 저는 포터 군과 그의 친구들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으니까, 50 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네이프 교수님?"

"뭐라고요?"

스네이프가 놀란 듯이 말했다. 그러나 해리가 보기에는 그가 방금

맥고나걸 교수가 한 말을 못 들은 척 능청을 떠는 게 분명했다.

'아, 예, 제 생각에는...'"

"그럼, 포터, 위즐리 남매, 롱바텀. 그레인저 양한테 각각 50 점씩..."

맥고나걸 교수가 말을 하는 동안에 모래시계의 아래쪽으로 루비가 와르르 쏟아졌다.

"아- 그리고 러브굿 양도 50 점을 받아야지."

맥고나걸 교수가 또 말하지, 이번에는 래번클로 쪽의 시계에 사파이어가 와르르 쏟아졌다.

"자, 스네이프 교수님, 포터 군한테서 10 점만 감점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루비 몇 개가 모래시계의 위칸으로 도로 올라갔다.

"음, 포터, 말포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들 뭐하는 거지?" 맥고나걸 교수가 힘차게 말을 이었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해리는 지팡이를 망토 호주머니에 얼른 집어넣고, 스네이프와 말포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을 향해서 햇빛 속을 걸어갔다. 잔디밭에 눕거나 앉아서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하고, 일요판 <예언자 일보>를 읽고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해리를 쳐다보았다. 여기저기서 그를 부르거나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일요판 <예언자 일보>처럼 그들도 해리를 영웅 대접하는 분위기였다. 해리는 아무에게도 대꾸하지 않았다.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을 그들이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태껏 질문 받는 것을 피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을 때, 처음에 그는 해그리드가 그새 또 어디 가고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팽이 모퉁이를 돌아와서 해리를 거의 넘어드릴 것처럼 열렬히 환영했다. 해그리드가 집 뒤의 밭에서 완두콩을 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서 와, 해리!"

해리가 울타리로 다가가자 해그리드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들어가, 들어가자구, 민들레 주스나 한 잔씩 하면서... 그래 어때?"

얼음을 넣은 주스를 들고 나무 식탁에 앉으면서 해그리드가 물었다.

"넌... 어... 괜찮지?"

해그리드의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아 그는 지금 해리의 몸상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요."

해리가 얼른 대답했다. 그는 지금 해그리드가 생각하고 있을게 뻔한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산 속에 숨어서 지냈지. 동굴 속에서, 전에 시리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해그리드가 말을 뚝 그치고 거칠게 헛기침을 하다가 해리를 빤히 바라보면서 주스 잔을 들고 길게 한 모금을 마셨다.

"어쨌거나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뭐."

해그리드가 힘없이 말했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해리는 시리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말을 돌렸다.

"응?"

해그리드가 엄청나게 큰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 그래. 그로피가 이젠 아주 점잖아졌거든.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정말 기뻐했어. 알고 보면 정말 착한 녀석이야... 실은 말이야, 난 별써 오래 전부터 그녀석한테 여자 친구라도 소개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해리는 여느 때 같았더라면 그런 생각은 당장 집어치우라고 해그리드를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숲 속에 도 하나의 거인이, 어쩌면 그롭보다 훨씬 더 사납고 난폭한 거인이 살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 그러나 지금 해리는 그런 걸 가지고 해그리드와 입씨름을 벌일 기운이 없었다.

그는 별써 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해리는 서둘러 민들레 주스를 꿀꺽꿀꺽 들이켜서 잔의 반을 비웠다.

"그동안 네가 했던 얘기가 다 사실이었다는 걸 이젠 다들 알아."

해그리드가 문득 부드럽게 말했다.

"잘된 거지, 응?"

해리는 어깨를 한 번 으쓱했다.

"이봐..."

해그리드가 식탁 위로 몸을 기울였다.

"시리우스는 싸우다가 죽었어... 평소에 원했던 방식대로 죽—"

"그는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해리가 화를 내며 말했다.

해그리드가 그 크고 텁수룩한 머리를 푹 숙였다.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해리...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 달려가서 돋지 못한다면 그 다음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여길—"

순간 해리가 벌떡 일어섰다.

"빨리 돌아가 봐야 해요. 론하고 헤르미온느가 기다릴 거예요."

해리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아... 그럼, 좋을 대로 해... 해리, 부디 몸조심하고, 시간 나거든 또 들러 줘..."

해그리드가 조금 심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그럴게요."

해리는 얼른 방을 가로질러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해그리드가 작별 인사를 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잔디밭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불렀다. 해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곳에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볼드모트가 마음속에 심어 놓은 그 꿈을 꾸었던, 그의 시험이 다 끝나기

전의 며칠 동안, 해리는 마법 세계 사람들이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만 준다면, 볼드모트가 되돌아왔다는 그의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미친 소리도 아니란 것을 믿어만 준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으리란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호수가 주변을 잠시 거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작은 덤불 뒤의 둑에 앉아서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흔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분명 덤불도어 교수와 그 얘기를 나눈 뒤부터였다.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외톨이라는 심정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와 이 세상 사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 다만 이제까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채로 지내 왔을 뿐이었다...

너무도 무거운 슬픔이 가슴을 죄어 오는 데다가 시리우스를 잃은 상처가 마음속에 아직도 처음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가 가장 자리에 앉아 있어도 두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햇살이 화사하고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종족에 속하는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쓸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죽도록 그의 인생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서 하염없이 호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대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언젠가 시리우스가 백 명이나 되는 디멘터들과 맞서 싸우다가 쓰러졌던 곳이 바로 건너편 둑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느새 해가 졌는지 몹시 추웠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소매로 얼굴을 닦으면서 성으로 돌아갔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학기가 끝나기 사흘 전에 완전히 나아서 퇴원했다. 헤르미온느가 이따금 시리우스에 관한 얘기를 꺼내려는 기미를 보였으나, 그럴 때마다 론이 "쉿!"소리를 내며 얼른 가로막았다. 해리는 대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를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기분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고 또 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었다. 지금은 비록 마음이 몹시 우울하고 슬프지만, 앞으로 며칠 후에는 프리벳가 4 번지로 돌아가게 되면 호그와트를 무척 그리워하게 되리란 것이었다. 그는 이제 여름마다 그곳에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조금도 나아지지는 않았다. 아니,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두려웠다.

엄브릿지 교수는 학기가 끝나기 바로 전날 호그와트를 떠났다. 그녀는 아마도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병동을 빠져나간 것 같았다. 아무도 모르게 떠나고 싶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복도에서 피브스와 맞닥뜨렸다.

피브스는 프레드가 일러준 대로 시행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난데없이 복도에 나타난 피브스가 히죽히죽 웃으며 엄브릿지의 뒤를 줄줄 따라가면서 한 손에 쁜 지팡이와 다른 한 손에 쁜 분필가루를 가득 넣은 양말 한 짹으로 번갈아 가며 그녀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고 때렸다.

학생들이 허둥지둥 달아나는 엄브릿지의 뒷모습을 보려고 우르르 현관 복도에 몰려나왔고 반장들은 그저 건성으로 학생들을 제지하는 척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학생들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몰려나가자 벌떡 일어나 훈계조로 몇 마디 하고는 도로 자리에 엄브릿지의 모습을 보려 가지 못한 게 정말 유감이라고 훈잣말을 하는 걸 분명히 들은 사람도 있었다.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이미 짐을 다 꾸려 놓고 종강 연회장으로 가고 있었지만, 해리는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내일 해도 되잖아!"

문간에 서서 해리를 기다리던 론이 말했다.

"빨리 가자, 배고파 죽겠다..."

"곧 갈게..., 너 먼저 가..."

그러나 론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는 해리는 서둘러 짐을 꾸리지 않았다.

그는 종강 연회에는 정말로 끼고 싶지 않았다. 덤블도어 교수가 연설을 할 때 기어이 그의 이름을 거론할 게 분명하고, 해리는 그게 싫었다. 그는 볼드모트의 귀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었고 결국엔...

트렁크 바닥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던 옷들을 꼬집어내다가 해리는 몹시 지저분하게 포장된 꾸러미를 꺼내서 이리자리 돌려 보았다.

그게 무었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울드 광장 12 번지의 현관문 밭 안에서 시리우스가 그에게 줘어 주었던 것이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이걸 쓰도록 해라. 알았지?

해리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꾸러미를 풀었다. 작은 사각형 거울이었다. 잔뜩 때가 낀, 오래된 듯한 거울이었다. 해리는 거울을 들고 얼굴을 비춰 보았다. 해리 자신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거울을 뒤집어 보았다. 거기에 시리우스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건 양면 거울의 반쪽이란다. 다른 반쪽은 내가 갖고 있어. 나하고 이야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 거울에 대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내 거울 속에 나타날 것이고, 나는 네 거울 속에 나타나서 너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단다. 전에 제임스하고 내가 따로 감금되어 있었을 때도 이 거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다.

해리의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언젠가 소망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았던 게 얼른 떠올랐다. 이제 그는 시리우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해리는 혹시라도 누가 근처에 있거나 않을까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기숙사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거울을 얼굴 앞에 들고 분명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시리우스!"

그의 입김이 거울에 서렸다. 해리는 거울을 더욱 바싹 당겼다.

가슴속에선 흥분이 훌러넘쳤지만, 허옇게 김이 서린 거울 속에서 두 눈을 깜박이며 그를 쳐다보는 얼굴은 여전히 그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는 거울을 말끔하게 닦아 가지고, 이번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방 안을 울리도록 또렷하게 불렀다.

"시리우스 블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낙심에 찬 일그러진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거울 속의 얼굴은 아직도 자기의 얼굴일 뿐이었다.

그 아치문 안으로 들어갈 때 시리우스는 그 거울을 갖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네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해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해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거울을 트렁크 속에 던졌다. 트렁크 바닥에 부딪힌 거울이 파삭 깨졌다. 비록 잠깐이나마 시리우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낙심으로 그는 목구멍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위에 늘어놓은 것들을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트렁크 속에 마구 쑤셔 넣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문득 떠올랐다.... 거울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이...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해리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나선형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모퉁이를 돌면서 벽에 부딪히는 출도 모른 채 달렸다. 텅 빈 학생 휴게실을 가로질러서 초상화 구멍을 통과해 복도를 내달렸다. 뒤에서 뚱보 여인이

"연회가 곧 시작될거야. 그렇게 뛰어가면 딱 맞게 도착할 거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거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해리는 지금 연회장에 가려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늘 유령들이 우글거리던 곳이었는데, 정작 그가 만나고 싶어서 달려온 지금은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해리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복도를 내달렸지만,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종강 연회가 열리는 대연회장에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그의 마법 교실 앞에 멈춰 서서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며 생각했다. 좀더 기다려야겠어... 연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막 희망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해리는 보았다.- 희끄무레한 사람의 형상이 복도 끝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안녕-안녕하세요, 닉! 닉!"

벽 속으로 반쯤 들어갔던 유령의 머리가 다시 나왔다. 거대한 깃털 장식의 모자를 써서 머리가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니콜라스 드 밍시 포르핀턴 경이었다.

"안녕"

그가 단단한 돌벽 속으로 들어가 있던 몸을 뒤로 빼고는 해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했다.

"나 혼자만 늦은 게 아니었구나, 응? 하긴 너하고 난 처지가 다르지만 말이야..."

그가 한숨을 푹 쉬었다.

"닉,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목덜미의 뺏(hostname) 주름깃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목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며 잠깐 생각에 잠겨 있던 '목이 달랑달랑한 닉'의 얼굴에 너무도 기이한 표정이 얼핏 스쳤다. 그는 반쯤 떨어진 목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려는 순간에 손가락을 뺏다.

"어...지금, 해리?"

몹시 당황한 얼굴로 닉이 말했다.

"파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

"예, 닉, 부탁해요, 지금 당장 여쭤볼 게 있어요. 이 방으로 들어갈까요?" 해리가 바로 곁에 있는 교실의 문을 열자, 닉이 한숨을 푹내쉬었다.

"그럼 할 수 없지."

그가 체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걸 숨기기도 힘들구나."

해리가 문을 열어 놓고 옆으로 비켜서 있었지만, 닉은 벽을 스윽 통과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뭘 짐작하셨다고요?"

해리가 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네가 날 찾아올 거란 걸 짐작하고 있었어."

닉이 창문 위로 둥둥 떠가서 어둠이 짙어 가는 운동장을 내다보며 말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지...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을 잊었을때..."

"그래요"

해리는 얘기가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하려고 얼른 말했다.

"전, 전 당신을 만나려고 일부러 여기 왔어요."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어-"

해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저어,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렇죠?"

닉이 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그렇죠?"

해리가 또 물었다.

"당신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전 지금 당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호그와트 주위를 걸어다닐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닉이 나직하게 말했다.

"난 걸을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은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렇죠?"

해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죽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렇죠? 유령이 되어서요. 완전히
가 버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닉이 한참 동안 말이 없자 해리는 애가 타서 다시 소리쳤다.

"그렇죠?"

닉이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누구나 유령이 되어서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리가 얼른 되물었다.

"단지... 단지 마법사들만..."

"아"

해리는 갑자기 마음이 턱 놓여서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음, 그럼 됐어요.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도 마법사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닉이 고개를 돌리고 슬픈 표정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누가요?"

"시리우스 블랙." 닉이 말했다.

"당신은 돌아왔잖아요!"

해리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왔어요- 죽었는데도 사라지지 않았-"

"마법사들은 이 지상의 어느 한 곳에 자기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다시 떠돌 수 있지."

닉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택하는 마법사는 거의 드물어."

"왜 그렇죠?" 해리가 말했다. "어쨌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리우스는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해리는 자기도 모르게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장에라도 거기에 시리우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창백하고 투명하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그가 문을 들어서고 자기를 향해서
다가올 것이라고...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는 멀리 가 버릴 거야...."

닉이 나직하게 말했다.

"멀리 가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리가 얼른 물었다.

"어딜 간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죽은 후엔 어떻게 되죠? 다들 어디로
가죠? 왜 누구나 다시 돌아오지 않죠? 왜 여기 유령들이 가득하지 않죠?
왜-"

"난 대답할 수 없어."

닉이 말했다.

"당신은 죽었어요, 그렇죠?"

해리가 턱없이 놀란 얼굴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누가 당신보다 더 자세히 알겠어요?"

"나도 죽음이 두렵단다." 닉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뒤에 남기로 했어. 때로는 그걸 후회하기도... 하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사실은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고 여기에 있지도 않아...."

그가 자조적으로 희미하게 킁킁 웃었다.

"난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해리. 난 죽은 뒤에도 이렇게 살아 있는 흉내를 내는 길을 택했거든. 내가 알기로는 미스터리 부서의 박식한 마법사들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거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해리가 버럭 소리쳤다.

"너한테 아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구나."

닉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음, 그럼 이만 실례하마... 연회에나 가 봐야겠어...."

그리고 닉은 나가 버렸다. 해리는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서 방금 닉이 사라진 벽을 명하니 쳐다보았다.

대부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희망이 사라지자, 해리는 다시 한 번 완전히 그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너무도 비참한 심정을 끌어안고 천천히 텅 빈 성을 걸어 들어갔다. 이젠 두 번 다시 기운 날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뚱보 여인이 있는 복도에 들어섰을 때, 해리는 저만치 앞에서 누군가가 게시판에 무엇을 붙이고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이내 그 사람이 루나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근처엔 몸을 숨길 곳이 없었고, 루나는 이미 그의 발소리를 들은 뒤였다. 무엇보다 해리는, 지금 누군가를 피하고 말고 할 기운조차도 없었다.

"안녕."

루나가 게시판에서 뒤로 물러서서 그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어정쩡하게 말을 걸었다.

"연회에 안 가고 거기서 뭐해?" 해리가 물었다.

"음, 소지품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

루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떤 애들이 장난으로 감췄을 거야.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니까 더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돌려달라고 저걸 붙였어."

루나가 게시판을 가리켰다. 제발 돌려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잊어버린 책과 옷가지의 목록을 적은 쪽지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해리는 이상야릇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시리우스가 죽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의 가슴을 꽉 메우고 있었던 분노나 슬픔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자기가 지금 루나를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문득 알아차렸다.

"애들이 왜 네 물건을 감추지?"

해리가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물었다.

"아... 그건..."

루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남들이 날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나 봐. 나를 '루우니' 러브굿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

해리는 루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루나에 대한 연민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애들이 네 물건을 가지고 간 건 별다른 이유가 없을 거야."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내가 도와줄까?"

"아, 아니야."

루나가 방긋 웃으면서 말했다.

"곧 되돌아올 거야. 마지막엔 꼭 돌아오게 돼 있어. 짐을 싸두고 싶어서 오늘 밤에 찾으려는 거야. 그건 그렇고... 넌 왜 연회에 안 갔니?"

"별로 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해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겠지."

불룩 튀어나온 둥롱한 눈으로 루나가 해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가고 싶지 않을 거야. 죽음을 먹는 자들이 죽인 그 남자가 네 대부지, 그렇지? 지니한테 들었어."

해리는 멍청한 표정을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루나한테 시리우스의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루나의 눈에도 세스트랄이 보였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넌... 너도 가까운 사람을 잃어 봤니?"

해리가 말했다.

"응, 그래."

루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우리 엄마였어. 엄마는 정말 유별난 마법사였어. 뭐든지 실험해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새로운 마법을 실험하다가 그만 뭐가 잘못되어 버렸어. 내가 아홉 살 때였어."

"안됐구나."

해리가 우물우물 말했다.

'응, 그땐 정말 끔찍했어."

루나가 여전히 스스럼없이 말했다.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슬퍼져. 그렇지만 나한텐 아직 아빠가 계셔. 또... 앞으로 엄마를 영영 못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어- 무슨 말이지?"

해리가 어리벙벙하게 말했다.

루나는 잊을 수 없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왜 그래? 너도 들었잖아. 그 벨일 뒤에서 말이야, 응?"

"뭘..."

"아치문이 있는 그 방 말이야.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 있었어. 그래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야. 너도 목소리를 들었잖아."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루나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루나는 정말로 이상하고 유별난 것들을 많이도 믿는 아이였다... 그러나 그 베일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해리도 들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어?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괜찮아. 이젠 연회장에서 가서 먹고 놀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마지막에는 꼭 돌아오게 되어... 휴가 잘 보내, 해리."

"응... 그래, 너도."

루나가 돌아섰다. 해리는 루나의 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뱃속의 그 견딜 수 없도록 무거운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호그와트 급행열차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덕분에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첫째, 교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리를 공격하려고 일주일 내내 기회를 노려 왔던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이 해리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었다. 매복 장소가 우연찮게도 D.A. 회원들이 가득 찬 객실 바깥만 아니었더라면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때마침 발견한 그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와서 해리를 도왔다. 어니 맥밀란, 한나 아보트, 수잔 본즈,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 안토니 골드스틴, 테리 부트들이 그동안 해리한테 배웠던 온갖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다 사용했을 때,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은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교복 속으로 잔뜩 움츠러운 세 마리의 거대한 민달팽이 같은 몸골이 되어 있었다. 해리와 어니와 저스틴은 눈물, 콧물, 침 할 것 없이 질질 흘리는 그들을 하나씩 어깨에 들어 올려서 짐칸에 갖다 버렸다.

"흥, 이따 차에서 내렸을 때 마중 나온 말포이 어머니 얼굴이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걸."

꿈틀거리는 말포이를 바라보며 어니가 옵시 만족스러운 듯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그는 잠깐 동안 말포이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었을 적에 후풀푸프 점수에서 10 점을 빼앗겼던 치욕을 아직 완전히 씻어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일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주 기뻐할 거야."

소동의 원인을 조사하려 온 론이 말했다.

"지금이 훨씬 잘생겨 보이거든... 그건 그렇고, 해리, 먹을거 파는 수레가 지금 와 있어. 빨리 가서..."

해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고 론의 뒤를 따라 그들의 객실로 갔다. 해리는 큰 냄비 모양의 케이크와 호박파이를 듬뿍 샀다. 헤르미온느는 또 <예언자 일보>를 읽고 있고, 지니는 <이러쿵 저러쿵>의 퀴즈를 풀고 있고, 네빌은 1년새에 부쩍 자라서 이제는 손을 대면 꼭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의 맴불러스 링블토니아를 슬슬 쓰다듬고 있었다.

해리와 론은 줄곧 마법사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고, 헤르미온느가 그들에게 <예언자 일보>의 기사들을 읽어 주었다. 신문에는 이제 디멘터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과 죽음을 먹는 자들을 추적하려는 마법부의 수고에 관한 기사들, 바로 그날 아침에 볼드모트가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았다는 목격담들로 가득했다.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헤르미온느가 신문을 접으면서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해리. 저것 봐."

론이 복도 쪽의 유리창 밖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해리가 고개를 돌렸다. 어깨까지 덮는 두툼한 양모 털모자를 쓴 마리에타 에지콤의 뒤를 따라서 초가 열차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해리와 초의 눈길이 잠깐 마주쳤다. 초가 얼굴을 붉히고 얼른 지나가 버렸다. 해리가 다시 체스판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졸 하나가 론의 나이트한테 잡아 먹히고 있었다.

"쟤하고 잘돼 가는 거야?"

론이 나직하게 물었다.

"아무일도 없어."

해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난... 어... 쟤가 요새 딴 애하고 만난다던데?"

헤르미온느가 쭈뼛거리면서 끼어들었다.

해리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초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던 게 마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 일같이 여겨졌다. 시리우스가 죽기 전에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요새 와서는 그런 식이었다... 시리우스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한 주일이 기나긴 세월이었던 것만 같았다. 시간은 두 가지 세계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았다. 시리우스와 함께였던 때와 없는 때로...

"잘됐어, 해리."

론이 힘차게 말했다.

"걔는 얼굴은 제법 예쁘지만, 봄출 만한 건 그것 뿐이야. 너한텐 좀더 명랑한 여자 친구가 나을 거야."

"그 애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명랑해질 거야."

해리가 말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초가 요새 누굴 만나는데?"

론이 헤르미온느한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지니가 했다.

"마이클 코너야."

"뭐, 마이클?"

론이 지니의 좌석 쪽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는 말했다.

"그 자식은 너하고 만나잖아!"

"벌써 끝났어." 지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퀴디치 시합에서 그리핀도르가 래번클로를 이기니까 그 녀석이 아주 토라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돌렸더니, 초를 위로한답시고 쪼르르 가버렸어."

지니는 깃펜 끝으로 코를 살살 긁다가 <이러쿵 저러쿵>을 거꾸로 돌려 잡고 퀴즈란에 답을 적기 시작했다. 론은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흥, 내가 보기에 그 자식은 항상 바보 같았어."

론이 자기의 여왕을 해리의 떨고 있는 장군을 향해 진격시키면서 말했다.

"잘됐어. 다른 애를 골라 봐. 다음엔 좀 괜찮은 녀석을 찾아보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론은 해리의 눈치를 훑끔 살폈다.

"음, 난 딘 토마스를 찍었어. 어떻게 생각해?"

지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뭐어?" 론이 벅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다가 체스판을 엎었다.

크룩생크가 또르르 굴러가는 체스 말들을 쫓아가고, 머리 위에서는 헤드위그와 피그위존이 캙캑거리고 부엉부엉 울었다.

열차가 천천히 킹스 크로스 역으로 들어갈 때, 해리는 문득 차에서 내리기가 너무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기차가 다시 호그와트로 돌아갈 9월의 첫날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윽고 열차가 김을 뿐으면서 멈추었을 때, 해리는 언제나처럼 열른 일어서서 헤드위그의 우리를 내려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트렁크를 잡았다.

차장이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9와 4분의 3 번 승강장을 나가도록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 해리는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매드아이 무디는 마법의 눈동자를 가리려고 중산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 무척 불량스러워 보였다. 그는 뼈마디가 다 드러난 두 손으로 기다란 지팡이를 움켜잡고, 몸에는 두툼한 여행용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뒤에 선 사람은 통스였다. 먼지가 잔뜩 낀 유리 천장으로 비쳐 들어온 햇빛 속에서 분홍색 풍선껌처럼 부푼 그녀의 머리가 훤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운명의 세 여신'이라고 쓴 밝은 자주색 티셔츠와 헝겊 조각들을 덕지덕지 붙인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통스의 곁에는 얼굴이 몹시 창백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험수룩한 점퍼와 바지 위에 올이 다 드러난 기다린 코트를 입은 루핀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들의 최고의 머글 복장을 차려입은 위즐리 씨 부부가 서 있고, 그 옆에 프레드와 조지가 서 있었다. 그들은 무슨 짐승의 가죽인 것 같은, 비늘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몹시 섬뜩한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론, 지니!" 위즐리 부인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차례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해리를 쳐다보고 말했다.

"오, 해리야. 잘 지냈니?"

"예."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위즐리 부인이 해리를 꼭 끌어안았다. 그 어깨 너머로 해리는 론이 눈알을 부라리고 그 쌍둥이 형제들의 옷을 들여다보는 걸 보았다.

"옷이 대체 그게 뭐야?"

론이 그들의 재킷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제일 좋은 용가죽이야."

프레드가 지퍼를 조금 내리면서 말했다.

"요새 장사가 잘 돼서 새옷 좀 사 입었지."

"어서 와, 해리."

위즐리 부인이 해리를 놀아 주고 헤르미온느에게로 돌아서자 루핀이 다가와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해리가 말했다.

"나오실 줄은... 이렇게 다들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루핀이 한 번 슬쩍 미소를 짓고 말했다.

"음, 널 네 이모네 집에 보내기 전에 네 이모 부부하고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아, 아니야. 난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

무디가 절룩거리며 다가와서 말했다.

"저 인간들이겠지, 응, 포터?"

무디가 자기의 어깨 너머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마법의 눈은 분명 뒤통수와 중산모자를 뚫고 뒤를 볼 수 있는게 틀림없는 것 같았다.

해리는 옆으로 조금 몸을 기울여서 매드아이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았다.

과연 거기에는 세 사람의 더즐리 가족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해리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걸 보고 질려 버린 기색이 완연했다.

"아, 해리!"

위즐리 씨가 헤르미온느의 부모님과 얘기를 하다가 해리를 꼭 안아 준 뒤 이어서 헤르미온느를 안아 주었다.

"음-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럼시다, 아서." 무디가 대답했다.

무디와 위즐리 씨가 더즐리 가족이 마치 그 자리에 박혀 버린 것처럼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뒤를 따라갔다. 헤르미온느도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 말고 슬그머니 그 쪽으로 갔다.

"안녕하시오."

위즐리 씨가 버논 이모부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말을 걸었다.

"나를 기억하시겠죠? 난 아서 위즐리라는 사람입니다만."

위즐리 씨는 2년 전에 더즐리 집 안에 쳐들어가서 거실을 아주 박살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리는 버논 이모부가 절대로 그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연! 버논 이모부의 안색이 대번에 시커먼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위즐리 씨를 사납게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의 숫자가 2 대 1로 열세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인 것 같았다. 페트니아 이모는 겁을 먹은 것도 같고 너무도 창피해하는 것도 같았다. 이모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근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까 봐 찔찔매는 것 같았다. 한편, 두들리는 어리고 나약한 아이인 것처럼 보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았지만,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다.

"해리에 관해서 당신하고 할 얘기가 좀 있소."

위즐리 씨가 아직도 빙긋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소." 무디가 말했다.

"당신네 집구석에서 그동안 해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지냈는지 좀 따져 봐야겠어."

버논 이모부의 콧수염이 분노로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다. 중산모자를 푹 눌러쓴 무디가 좀더 만만하게 보였는지, 무디를 보고 말했다.

"내 집에서 내가 지지듣지 볶듣지 당신들이 왜 상관하는지 난 모르겠소~"

"당신이 모르는 걸 다 글로 쓰면 책이 여러 권 될 거야. 더즐리." 무디가 으르렁거렸다.

"어쨌거나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통스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분홍색 머리는 지금 그곳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페트니아 이모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꼴만은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는 듯이 이모가 아까부터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만약 앞으로도 당신들이 해리를 학대한다면, 우린~"

"실수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루핀이 히죽거리며 한 마디 거들었다.

위즐리 씨가 말했다.

"맞아. 해리가 점화 쓰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전화예요." 헤르미온느가 작게 말했다.

"어쨌거나 포터가 또 당신들한테 되잖은 짓을 당하는 날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들 하시오."

무디가 말했다.

버논 이모부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다. 지금 그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한 무리의 괴상한 인간들에게 느끼는 공포심보다는 머리끝까지 차오른 분노가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았다.

"당신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컷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들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럼, 협박이지."

매드아이가 말했다. 그는 버논이라는 자가 그 사실을 순식간에 알아차려 줘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당신들 협박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요?"

버논 이모부가 짖어 대듯이 말했다.

"음..."

무디가 중산모자를 뒤를 젖혔다. 뺑글뺑글 도는 너무도 섬뜩한 마법의 눈이 드러났다. 버논 이모부가 자자러지게 놀라서 뒤로 펄쩍 뛰었다가 때마침 거기 있던 짐수레에 등을 짚었다.

"물론이야. 내 눈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걸. 더즐리."

그가 버논 이모부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포터...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리를 질러. 만약에 사흘이 지나도 네가 우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땐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그 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페트니아 이모가 애처롭게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으로 몰려 들어가는 걸 이웃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무슨 망측한 소문이 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았다.

"잘 가, 포터." 빼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두 손으로 해리의 어깨를 덥석 잡고 무디가 말했다.

"잘 지내, 해리." 루핀이 나직하게 말했다.

'연락하고.'

"해리,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널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거야." 위즐리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하고 해리를 한 번 더 끌어 안아 주었다.

"우린 금방 보게 될 거야." 론이 해리와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정말 곧 볼 거야." 헤르미온느가 진지하게 말했다. "약속할게"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이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어서 너무도 고마웠지만 딱히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빙긋 한 번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햇살이 내리비치는 거리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다. 버논 이모부와 페트니아 이모와 두들 리가 종종걸음을 치며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라갔다.

<끝>